

발간등록번호

79-6500450-00003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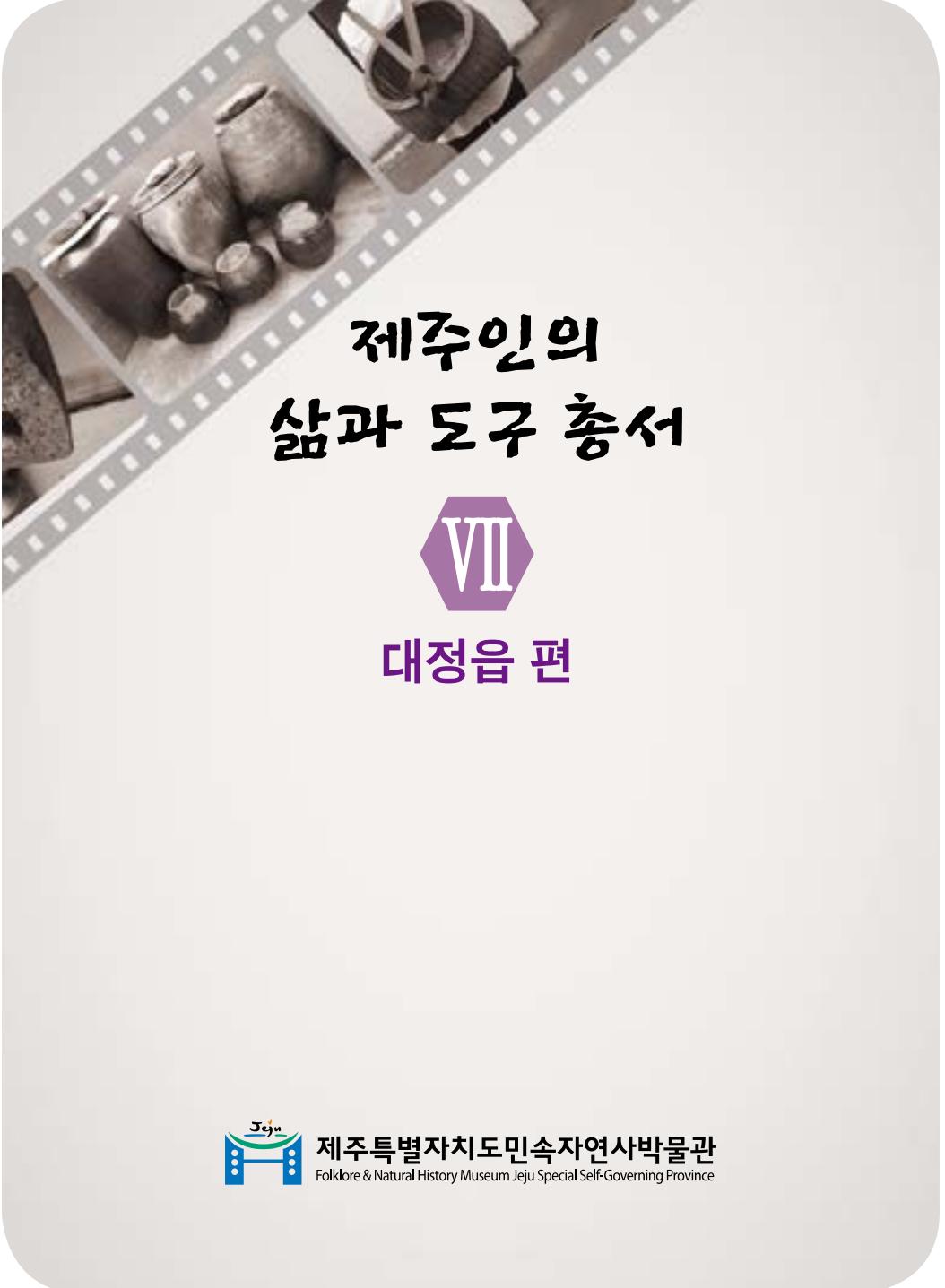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VII

| 대정읍 편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VII

대정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기획의 글



1. 영락리 서원옥 씨 소장 '망데기'와 '항'
3. 안성리 임영배 씨 소장 '먹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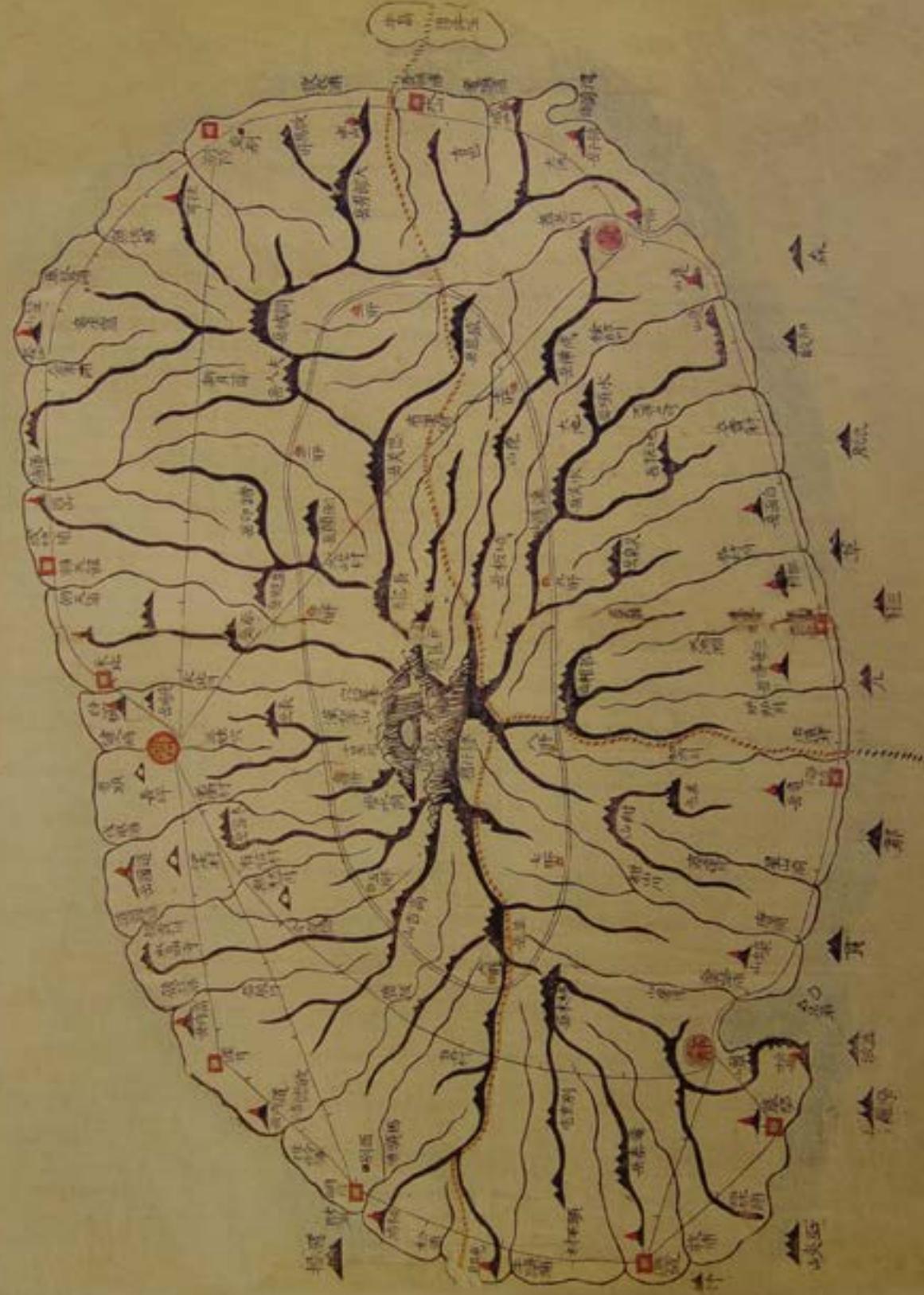
2. 가파리 박영복 씨가 '바늘대'를 이용하여 밧줄을 묶는 모습
4. 상모1리 강태원 씨 소장 '솔박'

제주는 민속 문화의 보고로 동일한 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형태, 명칭, 사용방법 등이 다양하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조금씩 사라져가는 제주의 민속 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지역별 생활 문화를 기록 및 정리하고 공유하는 일은 무척이나 소중한 일일 것이다.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발간은 2013년부터 이루어진 10개년 사업으로, 도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인의 일상과 관련된 생활도구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일곱 번째로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대정읍은 1416년(태종 16년) 대정현이 설치되었을 때 대정 현청을 두었던 곳으로, 13개 법정리, 23개 행정리, 2개의 유인도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다른 읍·면과는 달리 전역이 해발고도 200m 이하의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서귀포시 관내 5개 읍·면 가운데 가장 적으나 인구밀도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농업은 밭농사를 중심으로 마늘·고구마·보리·콩·잡곡·감귤 등의 생산이 많고, 모슬포항을 중심으로 연근해 어업이 발달하였으며, 10여 개의 녹말 공장과 소규모의 농가별 목장이 있다. 문화유적으로는 추사 김정희, 동계 정온 등 유배와 관련한 유적이 있다. 또한 태평양전쟁 및 한국전쟁과 관련한 유적이 다수 존재해, 최근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고 국제 학교가 본격적으로 개교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완만한 인구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빠르지 않지만 꾸준히 변모하고 있는 대정읍 지역의 생활문화를 기록하기 위해 일부 지역 이지만 6개 행정마을(가파리, 상모1리, 신도1리, 신평리, 안성리, 영락리)을 대상으로 문헌 및 주민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오늘날까지 활발히 사용하는 생활 도구들은 물론이고, 집안, 창고, 작업 공간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자료들도 오랜만에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VII 대정읍편』을 통하여 의식주 생활도구 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 축산업, 양봉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대한 대정 지역만의, 또는 대정 지역 간 차별화된 생활문화 요소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도내 민속 문화를 발굴 및 정리하여 체계화하고 후세들에게 전달해 나갈 우리 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목차

I 조사 개요	9
1. 조사 개요	10
2. 조사단 구성	11
3. 조사 범위와 정리 방법	11
4. 조사 마을 개관	13
II 조사 내용	25
1. 의생활	26
1.1. 바느질 도구	26
1.2. 손질 도구	38
1.3. 세탁 도구	41
1.4. 의복과 신발	43
1.5. 기타 도구	68
2. 식생활	71
2.1. 식기류	72
2.2. 조리 도구	86
2.3. 저장과 운반	111
2.4. 제기(祭器)	133
3. 주생활	143
3.1. 집 구조	143
3.2. 가재도구	150
3.3. 난방 도구	159
3.4. 연장류	164
3.5. 기타 도구	185

4. 농업 관련	198
4.1. 파종 관련	199
4.2. 김매기와 수확 관련	216
4.3. 건조와 손질 관련	225
4.4. 운반 도구	249
4.5. 계량 도구	262
4.6. 저장 도구	269
4.7. 기타 도구	273
5. 어업 관련	282
5.1. 물옷	282
5.2. 테왁과 망사리	296
5.3. 채취 도구	310
5.4. 그물류	315
5.5. 기타 도구	318
6. 축산과 양봉 관련	321
6.1. 소 기르기	322
6.2. 돼지 기르기	333
6.3. 양봉	336
III 마무리	347
〈부록〉	353
1. 가파리 강순화 씨의 도구 이야기	354
2. 안성리 이춘인 씨의 도구 이야기	401

I

조사 개요



1



2



3



4



5



6



1. 가파리 강순화 씨 소장 '저구리'
2. 신도1리 이부자 씨 소장 '향'
3. 안성리 임영배 씨 소장 '풀그레'
4. 상모1리 이창선 씨 소장 '꼰대구덕'
5. 신평리 현갑생 씨 소장 '절벤본'
6. 신도1리 김영진 씨 소장 '질메'

가파초등학교 운동장의 '그레'

I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제주 고유의 민속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VII』은 대정읍 지역에 현재 남아 있는 생활 도구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제주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정리한 이 자료는 제주 전통 문화와 민속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속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여 이를 전승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 조사 명: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VII - 대정읍편
- 조사 지역: 대정읍 6개 행정마을(가파리, 상모1리, 신도1리, 신평리, 안성리, 영락리)
- 조사 기간: 2019. 4. 8.~11. 30.
 - 예비 조사: 2019. 4. 8.~4. 28.
 - 1차 현지 조사: 2019. 4. 29.~7. 23.
 - 2차 현지 조사: 2019. 7. 24.~11. 2.
 - 보충 조사: 2019. 11. 3.~11. 30.
- 조사 내용: 농업·어업·축산업·양봉업 및 의식주생활 도구 전반
- 조사 방법: 선행 연구 검토, 문헌 조사, 현지 조사 등

2. 조사단 구성

- 조사 단장: 노정래(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 조사책임: 부용식(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연구과장)
- 조사원: 정미정(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황이새(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외부조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권미소(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수경(제주학연구소)

3. 조사 범위와 정리 방법

3.1. 조사 대상지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VII』은 서귀포시 대정읍의 23개의 행정마을 가운데 가파리, 상모1리, 신도1리, 신평리, 안성리, 영락리의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3.2. 조사 방법과 제보자

대정읍 생활 도구 조사는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6개 마을의 제보자들을 면 대면으로 만나 이루어졌다. 조사 항목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어업, 축산으로 나누어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는 디지털 녹음기를 이용하여 도구의 사용 용도 등을 구술 채록하였고 도구의 실물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채록한 음성 자료는 전사하여 제보자들의 발화 내용을 그대로 살려 도구 사진과 함께 책에 실었다.

제보자는 조사 마을 출신이거나 인근 지역에서 와서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진이 조사 마을을 찾아 가가호호 방문하며 제보자를 만나기도 하였고 노인회장 등 마을 분의 추천을 받아 제보자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안성리의 추가 조사에서는 임영일 씨의 도움이 커다. 임 씨가 안성리의 옛 도구를 가지고 있는 제보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안내해 주어 연구진이 수월하게 안성리 지역의 생활 도구를 조사할 수 있었다. 이때 만난 제보자 중에는 현재 주소지가 인성리

인 제보자(임영배, 1957년생)가 한 명 있었는데, 안성리에서 나고 자랐고, 제보자가 소장하고 있는 물건을 물려주신 외할머니나 부모님이 모두 안성리 토박이이기에 안성리 제보자에 포함시켰다. 이번 대정읍 조사에서 도움을 준 제보자는 가파리 8명, 상모1리 7명, 신도1리 6명, 신평리 9명, 안성리 12명, 영락리 7명으로 총 49명이다. 마을별 제보자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마을별 제보자

마을	제보자	생년	성별	마을	제보자	생년	성별
가파리	강순화	1935	여	신평리	김여권	1940	남
	강재홍	1948	남		김희정	1932	여
	김병화	1943	여		이순자	1943	여
	김춘희	1944	여		조두석	1959	남
	박영복	1936	남		현갑생	1933	여
	백순자	1937	여		강정일	1942	여
	조경순	1934	여		김갑여	1950	여
	조순희	1947	여		양군자	1940	여
	강태월	1936	여		오명자	1955	여
상모1리	권홍일	1939	남	안성리	윤우미자	1943	여
	김영주	1947	여		이봉녀	1932	여
	양춘계	1925	여		이신백	1937	여
	우성남	1945	남		이춘인	1934	여
	이창선	1933	여		임영배	1957	남
	허세안	1931	남		임영일	1937	남
	고순열	1949	여		조수범	1931	남
신도1리	김규화	1939	남	영락리	조이전	1936	남
	김영진	1948	남		고동열	1958	남
	김창남	1934	남		김정선	1942	여
	문성철	1947	남		백문하	1934	남
	이부자	1939	여		서원옥	1947	여
	강재식	1970	남		송한진	1950	남
신평리	고원명	1934	남		이대선	1955	여
	고일화	1938	남		홍옥춘	1932	여
	김성군	1935	남				

3.3. 정리 방법

대정읍의 생활 도구 자료집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관련, 어업 관련, 축산 관련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차례대로 기술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의생활에서는 바느질 도구와 손질 도구, 세탁 도구, 의복과 신발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식기류와 조리 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기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주생활 관련 도구는 먼저 집 구조를 다룬 후에 가재도구와 난방도구, 연장류, 집 관련 기타 도구 순으로 제시하였다. 농업 관련 도구는 파종 관련 도구, 김매기와 수확 관련 도구, 건조와 손질 관련 도구, 운반 도구, 계량 도구, 저장 도구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어업과 관련해서 조사된 자료는 물옷, 태워과 망사리와 조락, 채취 도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축산·양봉과 관련된 도구는 소와 돼지를 기르는 데 사용했던 도구와 양봉 관련 도구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이 자료집에는 현장에서 직접 찍은 도구 사진과 함께 도구에 대한 제보자의 구술을 실었다. 조사 현장에서 채록한 내용을 전사한 후에 분야별로 모아 정리하고 표준어 역을 달아 해당 도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도구에 대한 설명은 정의, 쓰임새, 특징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려고 하였다. 조사된 내용 중에 도구의 사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구술 자료만으로라도 도구의 쓰임새 등을 설명하였다.

4. 조사 마을 개관

4.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은 우리나라 최남단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제주시 한경면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서귀포시 안덕면과 접한 지역이다. 1416년(태종 16년)에 대정현으로 설치된 이후, 1864년(고종 1년) 군으로 승격되었다가 1880년 다시 현으로 환원되었다. 1895년 전국 23부의 지방제도 하에서 제주부 대정군 우면에 소속되었고, 1914년 제주군 대정면이 되었다. 이후 1946년 제주도제 실시로 남제주군 대정면이 되었다가 1956년 7월 8일 대정읍으로 승격하였다.

행정리 개편으로는 1981년 4월 1일 마라리가 가파리에서 분리되었다. 이후 상·하모리가 각 1, 2, 3리, 신도리가 1, 2, 3리, 일파리·무릉리가 각 1, 2리로 분리되었으며,

1987년 7월 1일에는 동일리가 1, 2리로 분리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행정구역인 서귀포시 대정읍이 되었다. 따라서 2019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행정구역은 13개의 법정리(가파리, 구억리, 동일리, 무릉리, 보성리, 상모리, 신도리, 신평리, 안성리, 영락리, 인성리, 일파리, 하모리)와 23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가파리는 2개의 부속도서인 가파도와 마라도를 포함하고 있다.

4.2. 자연환경

(1) 지형과 지질

대정읍 지형은 경사가 대체로 완만하고 해발고도 200m 이하의 평지로서 47.85km²에 이르는 농경지가 있다. 해안선을 따라서는 곳곳에 지하수가 용출되어 생활용수도 풍부하다. 그러나 한라산 방향으로 가면 경사를 이루며 곳곳에 산과 오름이 분산하여 분포한다.

100m 이상의 산과 오름으로는 하모리에 모슬봉(186m)이 있으며, 인성리 일대에 단산(160m)이 솟아 있다. 이어 상모리에 가시악(118m)과 송악산(104m)이 있으며, 신도리에 녹남봉(100.4m)이 있다. 기타 100m 이하의 오름으로 보롬이, 돈두미오름, 동알오름, 섯알오름이 소규모로 해안쪽 저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대정읍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질은 광해암 현무암이고, 신평리 북쪽에는 왕이매 조면현무암, 송악산에는 응회암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대정읍의 유인도서로 가파도와 마라도가 있다. 가파도는 섬 전체가 덮개 모양의 평坦한 지형을 이루고 토양의 풍화도가 높아 농사짓기에 유리하다. 또한 제주도 부속도서 중 용수조건이 가장 좋고 주변 해역에는 어로자원이 풍부해 전복, 소라, 톳, 성게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다. 조면암질 안산암류가 가파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파도는 제주도에서 비교적 오래 전에 형성된 독립된 화산체로 추정된다.

마라도는 전체적으로 현무암질 용암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해중에서 독립 분화한 섬으로 추정되나 분화구는 찾을 수 없다. 남북으로 긴 타원형이며 섬 가장자리는 가파른 고도 20m의 절벽으로 되어 있다. 마라도 일대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난대성 해양 동식물이 가장 두드러지고, 많은 한국 미기록종과 신종생물이 발견되며, 주변 경관이 아름답다는 점에서 2000년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기타 대정읍에는 곶(곶자왈)이 분포하고 있다. 둘레가 약 23km, 면적이 330만 평방

미터에 달하며 구억리, 신평리, 동일리, 무릉2리 인향동 마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를 곶은 조선시대 만들어진 고지도인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에 ‘광수’, ‘세뢰수’, ‘서림수’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에는 지역별로 ‘새미곶’, ‘신평곶’, ‘인행이곶’, ‘구억곶’ 등으로 구분하여 불리고 있다.

(2) 동식물

대정읍에서 발견되는 동물 중 먼저 조류로는 송악산 해안으로부터 신도2리에 이르는 대정읍 해안조간대에서 관찰되는 갈매기류, 백로류, 오리류, 논병아리루, 가마우지류 등이 있다. 특히 4~5월 섯알오름에서는 우리나라를 찾는 다양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섯알오름은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새들의 먹이 자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직박구리, 휘파람새 등을 비롯하여 솔부엉이, 쇠부엉이와 같은 보기 드문 희귀새도 만날 수 있다.

대정읍에 분포하는 양서류로는 제주도룡뇽,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맹꽁이,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황소개구리 등이 있으며, 파충류로는 줄장지뱀, 도마뱀, 유혈목이, 대륙유형목이, 비바리뱀, 누룩뱀, 실뱀, 쇠살모사 등이 있다. 포유류로는 서식면적이 좁고 육지부와 격리되어 있어서 대형 포유류보다는 소형 포유류인 노루, 오소리, 제주족제비가 서식하고 있고 땃쥐, 들쥐류, 박쥐류도 다수 분포한다.

식물과 관련하여 대정 지역의 식생 특성은 크게 해안과 육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안지역의 기후는 육지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난대성으로, 해안에는 상록성의 식물종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나 지질은 조간대 및 상조대는 모두 검고 다공질인 화성암으로 구성되어 식물이 생육 가능한 토양이 거의 없어 암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식물종만이 생육하고 있다.

대정읍의 다양한 식물 중 특징적인 것으로는 갯대추와 백양더부살이(쑥더부사리)가 있다. 갯대추는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드물게 교목으로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식물이다. 이 종의 주요 분포대는 동아시아의 열대 및 아열대로 제주도는 위도상 북한계로 알려져 환경부 지정 보호식물 제3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백양더부살이(쑥더부사리)는 1930년 후에 찾을 수 없어 멸종되었다고 전해졌던 식물이다. 하지만 2006년 지리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간헐적으로 몇 군데서 발견되다가 2007년 대정읍 하모리 지역에서 군집을 이루는 것이 발견되었다. 국내에는 내장산과 대정읍에 자생하는 한국 희귀·특산식물이며 국내에 대정읍을 알린 대외적으로 중요한 식물이 되기도 하였다.

4.3. 인문환경

대정읍은 전반적으로 넓은 농경지와 초지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지목별 현황을 보면 전이 41,723,620m²(52.3%), 답이 622,276m²(0.8%), 임야는 16,475,959m²(21.0%)를 차지한다. 농업적 토지이용이 전체 면적의 약 86%로 압도적이며, 과수원이 6,058,771m²로 약 7.7%, 목장용지가 3,133,652m²로 약 4.0%, 대지는 2,541,530m²로 약 3.2%를 차지한다.

대정읍 내 8.18km²의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제주도 전체 지정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대정읍이 제주도 농업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정읍 내 주요 기관으로는 관공서로 대정읍사무소, 대정파출소, 대정119센터, 해양경찰서 모슬포출장소, 우체국 등이 있다. 학교는 초등학교 6개소(마라분교 1개소 포함),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있으며,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조성 중인 영어교육도시 내 5개 국제학교가 있다. 주요 공공시설로는 군부대 2개소, 금융기관 12개소, 모슬포항, 모슬포 중앙 시장, 대정청소년수련관, 추사관, 대정문화체육센터, 송악도서관, 무릉 농어촌 문화의 집, 서부보건소 등이 있다.

문화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 제547-2호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과 사적 제487호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가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 보호 구역>, 천연기념물 제464호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가 있다. 등록문화재로는 등록문화재 제38호 <남제주 강병대교회>, 등록문화재 제39호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등 13건의 문화재가 있으며, 이밖에 시도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1건, 무형문화재 1건, 기념물 12건, 민속문화재 18건 등을 포함하여 총 49건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4.4. 현황

대정읍의 전체 면적은 78.55km²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전체 면적의 약 9%이다. 법정리 단위로 보면 가장 넓은 곳은 무릉리로 12,222m²(15.6%)를 차지하고 있고, 상모리 11,433m²(15%), 신도리 8,907m²(11.3%)로 이어진다. 가장 면접이 좁은 곳은 가파도와 마라도를 포함하는 가파리로 1,172m²(1.5%)이며, 다음으로 인성리가 1,776m²(2.2%)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11월 30일 기준, 행정리별 인구 현황을 보면, 보성리가 4,097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하모3리에 3,120명, 하모2리에 2,237명이

거주하고 있다. 세 지역의 인구는 대정읍의 약 44%로 과반수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2리 90명, 마라리 100명이 거주하여 가장 적은 수의 인구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하모리는 전통적으로 대정읍 내에서 높은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과거 해안 용천수가 풍부한 ‘논물거리’를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됨에 따라 오늘 날까지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대정읍 행정리별 인구 현황

(2019. 11. 30. 기준)

마을명	세대수	인구 합계	인구 비율(%)	남자	여자
상 모 1 리	378	782	4	400	382
상 모 2 리	869	1,937	9	981	956
상 모 3 리	531	1,223	6	605	618
하 모 1 리	312	615	3	317	298
하 모 2 리	1,011	2,237	10	1,147	1,090
하 모 3 리	1,517	3,120	15	1,501	1,619
동 일 1 리	299	642	3	349	293
동 일 2 리	48	90	0	47	43
일 과 1 리	192	401	2	206	195
일 과 2 리	246	509	2	258	251
인 성 리	243	517	2	268	249
안 성 리	246	498	2	264	234
보 성 리	1,831	4,097	19	1,738	2,359
신 평 리	217	454	2	240	214
구 억 리	548	1,272	6	559	713
가 파 리	132	226	1	106	120
마 라 리	53	100	0	58	42
영 락 리	303	613	3	325	288
무 륭 1 리	359	662	3	344	318
무 륭 2 리	266	549	3	291	258
신 도 1 리	186	356	2	181	175
신 도 2 리	140	251	1	125	126
신 도 3 리	112	216	1	116	100
총 계	10,039	21,367	100	10,426	10,941

*출처: 대정읍사무소 누리집(<https://www.seogwipo.go.kr/local/daejeong/main.htm>)

*비고: 외국인 인구 제외(외국인 포함 총 인구 23,151명/남자 11,421명, 여자 11,730명)

4.5. 조사 마을별 세부 개관

(1) 가파리

가파리는 가파도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가파도는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5.5km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개도(蓋島)·개파도(蓋波島)·가을파지도(加乙波知島)·더우섬·더푸섬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1653년 네덜란드인 하멜이 제주도 부근에서 표류되어 조선에서 14년을 생활하다가 귀국한 뒤에 쓴 『하멜표류기(漂流記)』에는 ‘케파트(Quepart)’라는 지명으로 소개되고 있다. 면적은 0.9km²로 제주 부속도서들 중 4번째로 큰 유인도이며, 최고 높이가 20.5m에 불과한 평탄한 섬으로서 동서길이가 1.5km, 남북 길이는 1.6km에 이른다.

가파리 지역은 조선 영조 때 목사 정언유(鄭彦儒)가 이 섬에 소를 방목하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별둔장’을 설치해 국가 제사에 쓰이는 흑우를 길러냈다고 한다. 하지만 가파리에서 발굴된 탐라 전기의 토기와 고인돌(제주 내 180여 기의 고인돌 중 135기 위치) 등을 토대로 볼 때 기원 전 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840년(현종 6년) 12월에는 영국배 두 척이 가파도에 정박하여 포를 쏘아대고 소를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제주 절제사 겸 방어사인 이원조는 흑우 약탈을 방지하려고 가파도 별둔장의 흑우들을 도원지경에 설치한 모동장으로 옮겼고, 1842년(현종 8년)에는 가파도의 목장을 폐쇄한 후 인근 주민에게 입도하여 개간하는 것을 허락하니, 모슬포 주민들이 들어가 개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파리에는 자연마을로 상동과 하동이 있으며, 2019년 11월 30일 기준 132세대, 226명(남자 106명, 여자 120명)이 거주하고 있다. 섬 전체가 접시 모양의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토양의 풍화도가 높아 농사짓기에 유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부속도서 중 용수조건이 가장 좋고 주변 해역에는 어로자원이 풍부하다. 전복, 소라, 옥돔, 자리돔, 자리젓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며, 문화자원으로는 조개무지, 선돌, 고인돌군 등의 유적과 해녀 노젓는 소리, 방아질 소리, 맷돌질 소리 등의 민요가 전해진다. 모슬포항에서 하루 2회 정기선이 왕래한다.

마을단체로는 마을회, 청년회, 어촌계, 노인회, 소방대, 해녀회가 있으며 주요 기관으로 보건소, 발전소, 초소, 초등학교, 교회, 절, 담수장 등이 있다. 연근해 어업과 맥주 보리농사가 주업이며, 최근에는 섬 전체를 탄소 없는 생태 관광지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청보리 축제와 제주올레 코스 개장으로 생태 관광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2) 상모1리

상모리는 서귀포시 대정읍 남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면적은 11.43km²로 대정읍 내 13개 법정리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상모리의 옛 이름은 ‘웃모슬개’, ‘웃모실개’, ‘웃모살개’로, 모슬포(摹瑟浦)(모슬개 또는 모실개)의 위쪽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상모리는 전체적으로 해발고도 약 30m 이하의 평지를 이루며, 남쪽 해안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고도가 높아진다. 상모리 마을 남쪽에는 ‘알뜨르’라는 넓은 평야 지대가 있으며, 마늘과 감자, 보리 등을 재배하고 있다.

상모리와 인접한 하모리 해안 지대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2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초반 고부 이씨·문씨·유씨 등이 모슬포로 들어와 살면서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모1·2·3리로의 분리는 1985년에 이루어졌다.

상모1리에 자연마을로는 ‘이릿동네’(이교동)와 ‘산이물동네’(산이수동)가 있다. 2019년 11월 30일 기준, 378세대, 782명(남자 400명, 여자 382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며, 주소득원은 고구마, 감자와 마늘 등 특용작물이다. 마을 단체로는 마을회, 새마을 지도자회,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이 있다.

상모리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유적들이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태평양 전쟁 관련 유적들로, 송악산 아래 들판에 일제가 남긴 격납고 <알뜨르 비행장>(등록문화재 제39호)을 비롯하여, <섯알오름 지하 쟁도 진지>(등록문화재 제310호), <모슬봉 일제 군사시설>(등록문화재 제314호),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 진지>(등록문화재 제313호) 등이 있다.

이밖에 6·25전쟁 당시 훈련 장병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훈련 장소로 건립된 <남제주 강병대교회>(등록문화재 제38호)와 <남제주 구 대정면 사무소>(등록문화재 제 157호) 등이 있으며, 대정읍 상모리와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서 발견된 <사람 발자국 및 각종 동물 발자국 화석>은 천연기념물 제464호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3) 신도1리

신도리는 대정읍의 가장 서쪽에 있으며, 북쪽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남쪽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쪽 편에 있는 녹남봉(100.4m)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녹남봉을 기점으로 그 기슭에 신도1리, 그 서쪽 바닷가에 신도2리, 그 서북편에 신도3리가 자연취락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신도리의 옛 이름은 ‘뛴개’로, 한자어 돈포(敦浦, 訓浦)는 ‘뛴개’의 한자 차용 표기

이다. ‘웬개’의 뜻은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의 신도2리에 있는 신도리 포구를 이른다. ‘웬개’ 가까이에 있던 마을을 돈포리(敦浦里)(웬가무을)라 하였으며, 18세기 말에 돈포리(頓浦里)로 표기했다.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도원리(桃源里)와 순창리(順昌里)가 통합되어 신도리로 명명되었고, 이는 ‘새롭게 흥성하는 도원리’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신도1리에는 자연마을로 상동과 하동이 있다. 2019년 11월 30일 기준, 186세대, 356명(남자 181명, 여자 17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단체로는 마을회, 노인회, 새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등이 있다.

신도리 토양은 비화산토로 토심이 깊고 비옥하여 다른 지역보다는 농사가 비교적 잘 되었다. 그러나 농업기술이 발달되지 못하고 화학비료가 귀하던 1960년대 이전까지는 겨울에는 보리, 여름에는 벼, 산도, 조, 콩, 면화를 소량 재배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후반부터는 영농방법이 개선되고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어 단위 수확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식량작물보다는 맥주보리, 유채, 고구마 등 환금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신도리에서 생산되는 보리쌀은 토양의 성분관계로 품질을 널리 인정받았으며, 고구마 또한 밤고구마라 하여 제주도 전역에 널리 알려졌다. 최근에는 특용작물로 감자, 마늘, 배추, 양배추 등을 대량으로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다.

(4) 신평리

신평리는 전체적으로 해발고도 약 50~150m에 이르는 평지를 이루며, 서쪽으로 무릉2리와 동일2리, 동쪽으로는 보성리, 북쪽으로는 구억리와 접하고 있다. 남쪽에 가시악(118m)이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 농지는 대부분 평평하고, 곳자왈 지대가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신평리는 과거에 ‘윗날웨’, ‘웃날웨’, ‘옹기밭’으로 불렸다. ‘윗날웨’와 ‘웃날웨’는 넓은 들을 뜻하는 말로, 신평리라는 이름이 넓은 들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옹기밭’과 관련해서는 과거 제주옹기 생산이 매우 활발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마을에 구전되는 내용을 토대로 마을 유래를 알아보면,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본 지역에 옹기생산이 활기를 띠고 생업여건이 충족되면서부터 보성리 서부에서 20여 가구와 인근 마을에서 수 가구가 본 지역에 유입되어 1862년(철종 13년)에 이르러 마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1864년(고종 1년)에 대정현이 대정군으로 승격되면서 서성리(현재 보성리)의 일부와 서사리 중 일파리의 일부가 분할 통합되어 ‘신평리’라는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신평리에는 자연마을로 상동과 하동이 있으며, 2019년 11월 30일 기준 217세대,

454명(남자 240명, 여자 214명)이 거주하고 있다. 신평리 주민들은 예로부터 농업에 종사해왔다. 겨울철 주요 재배작물은 주로 보리, 여름철의 주요 재배작물은 조, 콩, 팽, 녹두, 참깨, 면화, 벼, 산뒤(육벼)이다.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주민들은 주로 보리와 환금작물로 유채, 고구마를 대량으로 재배하였다. 특히 고구마는 대부분 절간하여 전량 농협을 통해 출하하였다고 한다. 1970년도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소득 작물로 굴이 각광을 받아, 현재 신평리의 주요작물은 마늘, 브로콜리, 무, 토마토, 딸기, 감귤류이다.

또한 신평리의 토양성분은 황토로 되어 있어서 표토를 걷어내면 옹기를 제작하는데 적합한 점성이 강한 양질의 점토를 얻을 수 있었으며, 옹기를 굽는데 필요한 연료를 마을 인근에서 얻을 수 있어서 일찍부터 이 지역에 도요업이 발전하였다. 1700년대 기록된 제주읍지의 대정현『도로조(道路條)』에는 대정현성 서북 소로를 5리 정도 가면 ‘정가미수’에 옹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1955년『원대정군지』에 ‘신평리옹기 생산지’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신평리가 18세기에서 1950년도 후반까지 제주도 옹기 생산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양은그릇, 플라스틱그릇에 밀려 도요업은 서서히 막을 내렸다.

마을 단체로 마을회·노인회·청년회·부녀회가 있으며, <신평리도요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58-3호로 지정되어 있다. 2011년 서귀포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이 참여하고 있는 (사)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를 지원하여 ‘노랑굴’ 축조 및 전통 옹기의 보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고, 신평 곳자왈에는 제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제주산 양치식물과 환경부 지정 보호 야생물 및 희귀식물 등이 자라고 있다.

(5) 안성리

안성리는 대정읍의 동쪽 경계선에 위치하여 동쪽은 안덕면 덕수리와 사계리, 서쪽은 보성리, 남쪽은 인성리, 북쪽은 구억리와 접하고 있다. 해발 70~100m 고도에 남북으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는 정방형과 비슷한 모양으로, 북쪽은 임야지가 대부분으로 과수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남쪽은 농경지로 마늘, 감자, 잡곡류가 재배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안성리의 유래는 대정현성의 축조와 관계가 있다. 1418년(태종 18년) 구축된 대정현성은 성안으로 모여드는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1568~1608년에 성 남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직선도로를 경계로 동쪽은 성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동성리, 서쪽은 서성리라 이름하여 두 개 마을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후 동성리는 1879년 1월 안성리로 명칭이 바뀌고, 3개 리로 분리(分里)된다. 먼저 1889~1890년경 인성리로 분리되는데, 당시 몇 개의 집안을 중심으로 벌어진 마을 주도권 싸움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1915년에는 구역리가 분리되는데, 밭농사를 주로 하는 본리와 달리 옹기공예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차이, 거리 문제 등이 분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안성리에는 자연마을로 홍수동·베리왓동이 있고, 2019년 11월 30일 기준, 안성리에는 246세대, 498명(남자 264명, 여자 234명)이 거주하고 있다. 안성리 인근에 조성된 감귤 수출 단지로 인해 감귤이 주요 소득원이며 마을 단체로는 마을회·노인회·청년회·부녀회 등이 있다. 주요 기관으로는 리사무소와 우체국 등이 있다.

문화재로는 1418년(태종 18년)에 대정현감 유신(兪信)에 의해 축조된 <대정성지>(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2호)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사적 제487호)를 비롯하여 <돌하르방>이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지식경제부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사 김정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사 유배길’이 제주 추사관을 시작으로 총 3코스가 개장되었다.

또한 안성리는 200여 년 전 마을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호적증초’, ‘교지’, ‘칙명’, ‘홍패’, ‘시권’, ‘소지’, ‘분재기’, ‘명문’ 등 민간기록물을 잘 관리하고 있어 2010년 국가기록원 지정 기록사랑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6) 영락리

영락리는 제주 서남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제주도 전체 면적의 55.3%에 해당하는 완만한 저지대에 속한다. 1950년대 이후 대대적인 관개수로 개설공사 끝에 대규모 논농사단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통일벼’의 주산지로 각광받으면서 보릿고개를 넘기기에 힘겨웠던 시절 ‘산남의 곡창’이라 불릴만큼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영락리는 타 지역에 비해 마을형성이 늦은 편이었다. 취락 밭달의 핵심은 먹을 물과 비바람을 막아줄 자연물 등인데 영락리의 경우는 용천수의 양이 매우 적고, 유일한 오름인 돈두악은 높이가 41.9m에 지나지 않아 취락형성에 어려움이 컸다. 따라서 소수의 몇몇 가호끼리 흘어져 살던 영락리는 1850년대(영락리 호적증초가 작성된 시점)에 이르러 법정 단위 마을로 정착하게 된다.

영락리의 형성은 진공용(進貢用) 흑우장 이장과 관련이 있다. 1750년(영조 26년)경 가파도에 진공용 흑우장을 마련하여 흑우를 사육하던 중, 1840년(현종 6년)에 영국군 함이 가파도 해협에 정박 대포로 인축을 살상하고 우축을 박탈함에 따라, 부득이 영락리 지역 모동장으로 이장시켜 진공우를 사육하게 된다. 이에 각 쳐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어 생계를 위하여 주거지를 형성하고 농지를 개간하여 영농을 시작한 것이 마을 형성 유래로 본다.

마을의 명칭은 이웃 마을의 개칭과 관련이 있다. 1811년(순조 11년)경 대정현감 변경봉이 둔포리를 ‘도원리’로, 구목리를 ‘무릉리’로 개칭하였다. ‘무릉도원(武陵桃源)’이라는 이상경(理想境)을 상징하는 리명이 이웃에 생기자 영락리도 그것에 알맞게 하기 위하여 ‘영락리(永樂里)’라 이름하였다고 전해진다.

영락리에는 자연마을로 전지동, 사장동, 서동, 동동이 있고, 2019년 11월 30일 기준 303세대, 613명(남자 325명, 여자 288명)이 거주하고 있다. 해안 일대는 광어 양식장이 많고 바다 낚시터로 유명하며, 내륙은 콩·겨울감자·마늘 등이 주요 소득원이다. 마을 단체로는 마을회·노인회·부녀회·청년회·어촌계 등이 있다.

II

조사 내용

1. 의생활
2. 식생활
3. 주생활
4. 농업 관련
5. 어업 관련
6. 축산과 양봉 관련



1. 안성리 이춘인 씨 소장 '장옷'
2. 신평리 김성군 씨 소장 '허벅'
3. 신평리 김여권 씨 소장 '남박'
4. 가파리 김병화 씨 소장 '테왁'과 '망사리'
5. 안성리 임영일 씨 소장 '멍석'
6. 영락리 이대선 씨 소장 '덩드렁마끼'

신도1리 김규화 씨 소장 '잠대'

II. 조사 내용

1. 의생활

의생활은 사람이 살아가며 입는 옷이나 그 옷을 입는 일과 관련한 것이다. 의생활을 위해서 옷을 만들기 위한 옷감이 있어야 하고 바느질 도구와 손질 도구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의생활에 관련한 도구를 바느질 도구, 손질 도구, 세탁 도구로 나누어 정리였고 옷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옷감과 의복 등도 살펴보았다. 한편 대정읍 지역 도구 조사에서는 짚신을 삼는 일을 소일로 하는 상모1리 허세안 씨(1931년생)를 만나 짚신을 삼는 데 사용했던 도구와 짚신을 삼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1.1. 바느질 도구

(1) 미싱

‘미싱’은 바느질을 하는 기계로, 제보자에 따라 ‘미승’이라고도 한다. ‘미싱’은 일본어(ミシン)에서 온 말로 표준어의 ‘재봉틀’에 대응한다. ‘미싱’은 그 사용 방법에 따라 발을 움직여 돌아가게 하는 것을 ‘발미싱’, 손으로 돌리며 사용하는 것을 ‘손미싱’이라고 하였다. 각각 ‘발재봉틀’, ‘손재봉틀’에 대응한다.

“처녀 때 산 거, 처녀 때. 나 시에서 양재 학원 나완에. 열아홉에 시집가고 열일곱에 약혼허난 혼 열일곱 열여섯에 저 양장 만드는 거. 혼 육 개월 땅겨신가 일 년을 땅겨신가. 시에 강 살명, 큰어명 이시난. 그때에 중학교 난 이디 국민학교 일 회주게. 일 회난 무릉중학교가 금방 우리 졸업허거니 나시민 옮겨갈 건디 일 년 싯단 나완. 이제 졸업 허난에 이제 학교, 여저덜이 경 중학교 헤서게. 여자가 족양. 친구가 중학교 허렌 우리

집이 오난 우리 어명 욕허명 지집년이 뭐 중학교 허느냐고. 안 행 거라. 계난 그땐 공부허젠도 안 허고 카라 달린 것이 하도 불러왕 계난 요거 사단 나 놔서 하도 불러완. 젠 이젠 욕으난에 막 어명이영 싸왕 양재 학원 헛주기게. 계난 거 써먹지도 못허고.”¹⁾

(처녀 때 산 거, 처녀 때. 나 시에서 양재 학원 나왔어. 열아홉에 시집가고 열일곱에 약혼하니까 한 열일곱 열여섯에 저 양장 만드는 거. 한 육 개월 다녔나 일 년을 다녔나. 시에 가서 살면서, 큰어머니 있으니까. 그때에 중학교 난 여기 국민학교 일 회지. 일 회니까 무릉중학교가 금방 우리 졸업허거니 생겼으면 옮겨갈 건데 일 년 있다가 생겼어. 이제 졸업하니까 이제 학교, 여자들이 그렇게 중학교 했어. 여자가 적어서. 친구가 중학교 하라고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어머니 욕하면서 계집아이가 뭐 중학교 하느냐고.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땐 공부하려고도 안 하고 칼라 달린 것이 하도 부러워서. 그래서 이젠 크니까 마구 어머니랑 싸워서 양재 학원 했지. 그러니까 거 써먹지도 못하고.)

“이거 발미싱 허단에 저 이젠 내중에 손미싱 헛주게. 어지러완. 이 살림 살 때난 혼 나이 들엉. 저 아이덜 나 저님의 중학생 학생복도 해 쥐낫주게. 복잡해 가고 허난에 거 허도 안허고. 여기서도 상점도 보고. 혼 육십 대 난 때라, 이건 허건 디가. 이거 저 처녀 때, 갓 시집간 때 학생복 멘들앗지. 이건 헌 때 이녁 옷이나 징 입었주게. 계난 이젠 던져 불젠. 누개 가져가면 주고, 던져 불젠.”²⁾

(이거 발재봉틀 하다가 저 이젠 나중에 손재봉틀 했지. 어지러워. 이거 고친 거 이살림 살 때니까 조금 나이 들어서. 저 아이들 나 저 남의 중학생 학생복도 해 줬었지. 복잡해 가고 하니까 거 하지도 않고. 여기서도 상점도 보고. 한 육십 대 된 때야, 이건 한 지가. 이거 저 처녀 때, 갓 시집간 때 학생복 만들었지. 이건 헐었을 때 자기 옷이나 쥐서 입었지. 그러니까 이젠 버리려고. 누가 가져가면 주고, 버리려고.)

“미싱 나 시집을 때 해 온 거. 이제도록 썻주게. 이제도록 갈옷 멘들고 이걸로 옷 징 입곡 뭐 다. 스무 살에 시집완. 작년, 올리만 안 멘들었주, 일 년에 혼번씩 갈옷 멘들고. 아이덜 옷 멘들앙 입지곡. 메느리 아기 벤 때 임부복도 다 나가 멘들앙 입지곡.”³⁾
(재봉틀 내가 시집을 때 해 온 거. 이제도록 썼지. 이제도록 갈옷 만들고 이걸로 옷 기워서 입고 뭐 다. 스무 살에 시집왔어. 작년, 올해만 안 만들었지, 일 년에 한 번씩 갈옷 만들고. 아이들 옷 만들어서 입히고. 메느리 아기 밴 때 임부복도 다 내가 만들어서 입히고.)

1) 신도1리 이부자 씨 구술.

2) 신도1리 이부자 씨 구술.

3) 신평리 이순자 씨 구술.



<사진 1> 이부자 씨 소장 '미싱'



<사진 2> 이순자 씨 소장 '미싱'

<사진 1>은 신도1리 이부자 씨(1939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미싱'이다. 이 씨는 열여섯 살 쯤에 양재 학원에 다니며 재봉을 배웠다고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못 다니게 되자 어머니를 놀라 양재 학원에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고 재봉틀을 샀으나 제대로 배운 재봉 기술은 활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진 1>의 재봉틀은 처음에는 발재봉틀이었으나 손재봉틀로 고쳐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2>는 신평리 이순자 씨(1943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재봉틀이다. 이것은 이 씨가 결혼할 때 장만한 것으로, 옷을 만들고 기워 입을 때 사용했다고 한다. 이 씨는 이 재봉틀로 아이들 옷들도 직접 만들어 입혔고 삼 년 전까지도 매년 갈옷을 만들었다고 한다.

"친정어머ning 써난 거 물린 거. 이거 오랫주게. 한 삼십 년 뒷신가. 이거 옷도 줄 때 이 것에 하고."⁴⁾

(친정어머니가 썼던 거 물려받은 거. 이거 오랬지. 한 삼십 년 되었나. 이거 옷도 기울 때 이것에 하고.)

"산 거, 누개 풀레 가가난 나가 산 거. 나가 바농질, 옛날에 짚은 때 헤낫지. 옷을 만 들어낫지. 게난 지금도 무신거 줄 거 이시민 찔렁. 이거 들렁 이례 찔렁 이거 해사 발로 불르민 다락다락 혜여. 이걸로 불르는 거야."⁵⁾

(산 거, 누가 팔려 가니까 내가 산 거. 내가 바느질, 옛날에 짚은 때 했었지. 옷을 만들었었지. 그러니까 지금도 뭐 기울 거 있으면 (실) 끼워서. 이거 들어서 이리로 (실) 끼워서 이거 해야 발로 밟으면 '다락다락' 해. 이걸로 밟는 거야.)

4) 가파리 백순자 씨 구술.

5) 신평리 현갑생 씨 구술.

"나 삼십 대, 사십 대에 미싱을 사근에 발미싱 허단에 건 또시 고장 난 후제 글후제 산 거난 이건 삼십 년, 사십 년쯤 됨 거 많아. 우리 큰딸그라, 어명 써나민 큰딸이 물려 가는 거난 이거 가져가렌 허난 우리 딸은 아덜만 두 개 나난에 안 허肯."⁶⁾

(내가 삼십 대, 사십 대에 재봉틀을 사다가 발재봉틀 하다가 건 또 고장 난 후에 그 후에 산 거니까 이건 삼십 년, 사십 년 쯤 된 거 많아. 우리 큰딸에게, 어머니 썼던 거 큰딸 물려 가는 거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하니까 우리 딸은 아들만 두 개 나니까 안 하겠다고.)



<사진 3> 백순자 씨 소장 '미싱'



<사진 4> 현갑생 씨 소장 '미싱'



<사진 5> 강순화 씨 소장 '미싱'



<사진 6> 이춘인 씨 소장 '미싱'

<사진 3>은 가파리 백순자 씨(1937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재봉틀이다. 백 씨는 친정어머니가 사용하던 '미싱'을 물려받아 삼십여 년 전부터 쓰고 있다. 신평리 현갑생 씨(1933년생)는 재봉틀을 마을 이웃에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진 4>가 바로 현 씨의 재봉틀이다. <사진 5>는 가파리 강순화 씨(1935년생), <사진 6>은 안성리 이춘인 씨(1934년생)의 재봉틀이다.

6) 안성리 이춘인 씨 구술.

“미승은 이신디 안 써. 고치민 쓰긴 쓰는데. 이거 나 스물넷에 시집오명 산 거. 혼수로 들렁 온 거. 그 궤 하나랑, 궤 하나 허고 그 농덜 저 이불장덜 이 찬장이랑. 뭐 하나 버리진 안해 봐. 미승은 메누리가, 시에 메누리가 가져가肯 허난 가만이 놔둔 거주.”⁷⁾

(재봉틀은 있는데 안 써. 고치면 쓰긴 쓰는데. 이거 내가 스물넷에 시집오면서 산 거. 혼수로 들고 온 거. 그 궤 하나랑, 궤 하나 하고 그 장롱들 저 이불장들 이 찬장이랑. 뭐 하나 버리진 않았어. 재봉틀은 며느리가, 시의 며느리가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놔둔 거지.)

“이거 혼 삼십 대부터 썼던 거. 나냥으로 산 거. 얼마사 줘신지 몰르크라. 가정에서 쓰는 건 다 이걸로 했지. 현 옷도 주고, 아이덜 옷도 주고, 물옷도 이녁냥으로 맨들앙 쓰곡. 그자 뛰는 냥, 다 닥치는 대로. 손미싱 허민 뜨난에 재개 쓰젠 이걸로 쭉 썻주. 이게 빠르주게. 손으로 돌리는 것랑 발 와드랑와드랑 허는 것랑. 이거 혼 삼사 년 안 씀 뿐 허연 계속 썼어. 오래 썼어. 그런 거 저런 거 소소한 건 늠신디 강 안 허영.”⁸⁾

(이거 한 삼십 대부터 썼던 거. 나대로 산 거.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 가정에서 쓰는 건 다 이걸로 했지. 현 옷도 입고, 아이들 옷도 입고, 물옷도 자기대로 만들어서 쓰고. 그저 되는 대로, 다 닥치는 대로. 손재봉틀 하면 느리니까 빨리 쓰려고 이걸로 쭉 썼지. 이게 빠르지. 손으로 돌리는 것과 발 ‘와드랑와드랑’ 하는 것과. 이거 한 삼사 년 안 썼을 뿐이지 계속 썼어. 오래 썼어. 그런 거 저런 거 소소한 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안 하고.)



〈사진 7〉 윤우미자 씨 소장 '미싱'



〈사진 8〉 이창선 씨 소장 '미승'

〈사진 7〉은 안성리 윤우미자 씨(1943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재봉틀이다. 윤 씨가

7) 안성리 윤우미자 씨 구슬.

8) 상모1리 이창선 씨 구슬.

50여 년 전 혼수로 장만한 것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당시는 궤나 이불장, 궤 등과 함께 재봉틀도 주요 혼수품이었다고 한다. 〈사진 8〉은 상모1리 이창선 씨(1933년 생)가 사용했던 재봉틀이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않은 상태고 방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불과 삼사 년 전까지 사용했었다고 한다. 이 씨는 발로 움직여 작업하는 것이 손재봉틀로 쓰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발재봉틀로 계속 사용해 왔다고 한다. 이 씨는 재봉틀을 ‘미승’이라고 하였다.

‘미싱’에는 여러 부속품이 따르기 마련이다. 〈사진 9〉는 재봉틀에 끼워 사용하는 재봉틀 바늘로, 상모1리 이창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바늘 중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이미 녹슬어 사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거 미승 실, 속실. 속실 감는 거.”⁹⁾

(거 재봉틀 실, 속실. 속실 감는 거.)



〈사진 9〉 이창선 씨 소장 '미승 바농'



〈사진 10〉 이창선 씨 소장 '복'



〈사진 11〉 이순자 씨 소장 '복'

〈사진 10〉과 〈사진 11〉은 재봉틀에 밑실을 감는 쓰는 ‘복’이다. 〈사진 10〉은 상모1리 이창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복’이고, 〈사진 11〉은 신평리 이순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복’이다.

9) 신평리 이순자 씨 구슬.



〈사진 12〉 강순화 씨 소장 '미싱 지름'



〈사진 13〉 이창선 씨 소장 '미싱 지름'



〈사진 14〉 윤우미자 씨 소장 '미싱 지름'



〈사진 15〉 이춘인 씨 소장 '미싱 지름'

'미싱 지름'은 '재봉 기름'에 대응하는 말로, 재봉틀이 잘 돌아가게 칠해 주는 윤활유다. 〈사진 12〉는 가파리 강순화 씨, 〈사진 13〉은 상모1리 이창선 씨, 〈사진 14〉는 안성리 윤우미자 씨, 〈사진 15〉는 안성리 이춘인 씨의 '미싱 지름'이다.



〈사진 16〉 이창선 씨 소장 '미싱실'



〈사진 17〉 강순화 씨 소장 '미싱실'

〈사진 16〉은 상모1리 이창선 씨 소장하고 있는 '미싱실'이다. 재봉틀 위에 끼워 사용하는 형태인 재봉실은 손바느질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사진 17〉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소장하고 있는 '미싱실'이다.

(2) 바농상지

'바농상지'는 '바늘, 실, 골무, 형겼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으로 표준어의 '반진고리'에 대응한다.

"이거 ㅋ는대구덕이랑주. 돌랭이, ㅋ는대돌랭이. 너무 오래니까 헐언 험벽으로 풀 불랑. 그 전인 삼동 타례 뎅겨난 거. 그냥 들렁."¹⁰⁾

(이거 가는 대를 엮어 만든 바구니였지. '돌랭이', 'ㅋ는대돌랭이'. 너무 오래(되)니까 헐어서 형겼으로 풀 뺏라서. 그 전엔 상동나무 열매 따러 다녔던 거. 그냥 들고.)

〈사진 18〉은 상모1리 이창선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바농상지'다. 이 씨는 상동나무 열매를 따러 다니거나 할 때 쓰던, 가는 대를 엮어 만든 바구니에 형겼을 붙여 반진고리로 사용하고 있다. '바농상지' 안에는 쓰다 남은 옷감, 실패 등이 들어 있었다.



〈사진 18〉 이창선 씨 소장 '바농상지'



〈사진 19〉 강순화 씨 소장 '바농상지'



〈사진 20〉 백순자 씨 소장 '바농상지'

〈사진 19〉는 가파리 강순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바농상지'이다. 강 씨는 시중에 판매되는 바구니를 '바농상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20〉은 가파리 백순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바농상지'다. 백 씨는 둥근 깡통 안에 쓰다 남은 천조각, 실패, 돋보기 등을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10) 상모1리 이창선 씨 구술.

(3) 바농줄레

‘바농’은 표준어의 ‘바늘’에 대응하는 말이다.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데 사용하던 바늘을 보관할 때는 실패나 ‘바농줄레’를 이용하기도 한다. 한편 ‘바농줄레’는 이렇게 바늘을 꽂아 둘 목적으로 만든 수공예품으로 표준어의 ‘바늘겨레’에 대응한다. ‘바농줄레’는 바늘이 녹슬지 않도록 머리카락을 넣어 만들기도 한다.

“바농 찔르는 거엔만 허주, 우린 다른 말 안 한다. 그런 거 만들어 보진 안 혀연.”¹¹⁾
(바늘 찌르는 거라고만 하지, 우리 다른 말 안 해. 그런 거 만들어 보지는 않았어.)



〈사진 21〉이창선 씨 소장 '바농줄레'



〈사진 22〉강순화 씨 소장 '바농줄레'

〈사진 21〉은 상모1리 이창선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바농줄레’다. 이 씨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바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농상지’ 둘레에 달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듬성듬성 바느질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사진 22〉는 가파리 강순화 씨의 ‘바농줄레’다. 강 씨는 기성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바농줄레’에 끈을 달아 ‘바농상지’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강 씨를 이것을 별도의 다른 명칭 없이 ‘바농 찔르는 거’라고 한다고 했다.

(4) 쌈지

‘쌈지’는 표준어의 ‘쌈지’에 대응하는 말이다. 제보자 중에는 형겼으로 작은 보자기 를 만들어 바느질용 물건들을 구분하여 넣고, 이를 다시 ‘바농상지’ 안에 넣어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11)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사진 23〉은 상모1리 이창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쌈지’다. 이 씨는 ‘쌈지’에 여러 종류의 단추를 보관하고 있었다.

“거 잘기, 잘기. 나냥으로 멘든 거.”¹²⁾
(거 ‘잘기’, ‘잘기’. 나대로 만든 거.)



〈사진 23〉이창선 씨 소장 '쌈지'



〈사진 24〉강순화 씨 소장 '잘기'



〈사진 25〉강순화 씨 소장 '잘기'



〈사진 26〉강순화 씨 소장 '잘기'



〈사진 27〉'바농상지' 안에 놓여 있는 '잘기'

바느질용 물건을 보관하는 작은 보자기를 가파리 강순화 씨는 ‘잘기’라고 하였다. ‘잘기’는 표준어의 ‘자루’에 대응한다. 〈사진 24〉에서 〈사진 27〉까지는 가파리 강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잘기’다. 〈사진 27〉과 같이 ‘바농상지’ 안에 여러 개의 ‘잘기’가 들어 있었다. 강 씨는 〈사진 24〉의 ‘잘기’ 안에다가는 쓰다 남은 천 조각들을 모아 보

12)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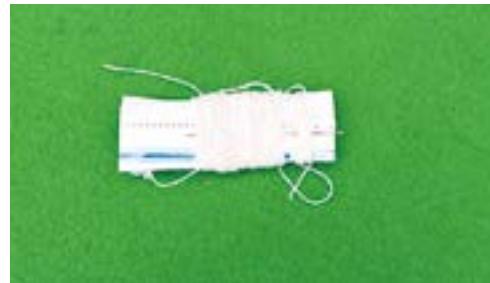
관하고 있었고 〈사진 25〉의 ‘잘기’에는 지피나 단추 종류를, 〈사진 26〉의 ‘잘기’에는 실패 종류를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5) 실패

‘실패’는 바느질하는 데 사용하는 실을 감아 두는 물건이다.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었으나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에 따라 천이나 종이를 접어 그 위에 실을 말아서 사용하고 있기도 했다.



〈사진 28〉 이춘인 씨 소장 ‘실패’



〈사진 29〉 이창선 씨 소장 ‘실패’

〈사진 28〉은 안성리 이춘인 씨가 사용하고 있는 실패다. 우편물로 온 종이를 둘둘 말고 거기에 실을 감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했던 바늘들도 여기에 꽂혀 있다. 여기에 꽂혀 있는 바늘 중 가장 큰 바늘은 이 씨가 삶은 고동 등을 여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29〉는 상모1리 이창선 씨의 ‘실패’다. 상모1리 이 씨도 마찬가지로 종이를 말아 실패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거 몰라, 어디 강 바농 봉가 와신디 이거 보말 여는 거.”¹³⁾

(이거 몰라, 어디 가서 바늘 주워 왔는데 이거 고동 여는 거.)

“저거는 바농 실이고, 이건 미승에 실. 이건 훑은 건 바농 실.”¹⁴⁾

(저거는 바늘 실이고, 이건 재봉틀에 실. 이건 굽은 건 바늘 실.)

(6) 속돌

‘속돌’은 바늘이 녹이 슬어 잘 들지 않으면 그것을 갈 때 사용하는 돌을 말한다.

“속돌 그거 물에 티우민 튼다. 이거 무스거 보미민이 따끄는 거. 바농도 보미민 때 끄고 아무 거라도, 보민 거만. 거 바당에 봉그는 거, 바당에 시민 봉근다.”¹⁵⁾

(속돌 그거 물에 띄우면 뜯다. 이거 뭐 녹슬면 닦는 거. 바늘도 녹슬면 닦고 아무 거라도, 녹슨 거만. 거 바다에서 줍는 거, 바다에 있으면 주워.)

〈사진 30〉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쓰고 있는 ‘속돌’이다. 강 씨가 바다에서 주워 온 돌로, 바늘뿐만 아니라 녹슨 것들을 갈 때 사용한다고 한다.



〈사진 30〉 강순화 씨 소장 ‘속돌’

(7) 단추와 호크

‘단추’는 ‘옷 따위의 두 폭이나 두 짹을 한데 붙였다 떼었다 하는 물건’을 말한다. 제보자들은 옷이 헤어서 베릴 경우 여기에 달린 단추들을 떼어내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상모1리 이창선 씨는 앞서 〈사진 23〉에서처럼 ‘쉼지’ 안에 단추를 보관하기도 하고 다음의 〈사진 32〉처럼 작은 천 조각으로 싸서 단추를 보관하기도 했다. 또 〈사진 31〉의 이순자 씨처럼 단추를 통 안에 넣어 보관하기도 했다. 일상생활에 입는 옷에 단추가 떨어지면 언제라도 옷에 맞는 단추를 골라 달 수 있도록 가지고 있다고 한다.

“옷 멘들 때 쓰젠 헌 옷 데끼멍 단추덜은 그레 놔뒀주. 쓸 땐 쓰곡 못 쓸 때 못 써도 것도 모와 놔두민 필요헐 때가 셔.”¹⁶⁾

(옷 만들 때 쓰려고 헌 옷 베리면서 단추들은 그리 놔뒀지. 쓸 땐 쓰고 못 쓸 때 못 써도 것도 모아 놔두면 필요할 때가 있어.)

13) 안성리 이춘인 씨 구술.

14) 상모1리 이창선 씨 구술.

15)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16) 신평리 이순자 씨 구술.



〈사진 31〉 이순자 씨 소장 '단추'



〈사진 32〉 이창선 씨 소장 '단추'

'호크'는 단추처럼 옷의 벌어진 곳을 잡그는 갈고리 모양의 물건을 말한다.

〈사진 33〉은 상모1리 이창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크'다.



〈사진 33〉 이창선 씨 소장 '호크'

1.2. 손질 도구

(1) 다듬잇돌

'다듬잇돌'은 다듬이질을 할 때 밑에 받치기 위해 만든 네모난 돌을 말한다.

"어머니, 어머니 써난 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봄난 건디 샷겠지 뭐. 다듬이가 없으면 집이 살림하지 못하니까 저거는 아주. 여기서 떡도 하고. 이불 안 거튼 거. 나도 시집가젠 허난 막 풀헤여가지고 막 두드리멍 끼와서 시집을 갔거든."¹⁷⁾

(어머니, 어머니 썼던 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봄난 건데 샷겠지 뭐. 다듬이가 없으면 집의 살림하지 못하니까 저거는 아주. 여기서 떡도 하고. 이불 안 같은 거. 나도 시집가려고 하니까 아주 풀해서 마구 두드리면서 끼워서 시집을 갔거든.)

"(낭으로)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어도 우린 그런 거 잘 써 보지 안하고. 그걸로 허꼭 저 풀허영 그걸로 두드려사 다리미, 다리미 엊으난 그걸로 다리미질 허는 거주. 옷도, 옛날 하르부지덜 광목 옷 혜영 풀 혜영 그걸로 다듬이질. 어머니가 옷을 그

17) 영락리 송옥현 씨 구술.

렇게 잘 헤낫어. 옷을 잘 허니까 광목 허여서 조선 옷 이런 무신 옷. 미녕 멘들앙 풀고 미녕 옷 멘들고 얼마나 했다고. 우리 미녕 치마 입고. 우리 땐 멘네 심영 시집강도 심영 다 뜰덜 소개 해 주는디. 시집간 후제도 했어. 이제 뜰덜."¹⁸⁾

((나무로)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어도 우린 그런 거 잘 써 보지 않고. 그걸로 하고 저 풀해서 그걸로 두드려야 다리미, 다리미 없으니까 그걸로 다리미질 하는 거지. 옷도, 옛날 할아버지들 광목 옷 해서 조선 옷 이런 무슨 옷. 무명 만들어서 팔고 무명 옷 만들고 얼마나 했다고. 우리 무명 치마 입고. 우리 땐 면화 심어서 시집가도 심어서 다 딸들 솜 해 주는데. 시집간 후에도 했어. 이제 딸들.)

"옛날에 다듬이힐 때 써난 거. 우리 어머니 써낫지."¹⁹⁾

(옛날에 다듬이힐 때 썼던 거. 우리 어머니 썼었지.)



〈사진 34〉 송한진 씨 소장 '다듬잇돌'



〈사진 35〉 조두석 씨 소장 '다듬잇돌'

〈사진 34〉는 영락리 송한진 씨(1950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다듬잇돌'이다. 송한진 씨, 송옥현 씨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사용했던 것으로 송옥현 씨의 구술에 의하면 송 씨의 어머니가 옷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이다. 무명옷을 만들어 다듬이질 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2) 다듬이마께

'다듬이마께'는 옷을 다듬이질할 때 사용하는 방망이다. 표준어 '다듬잇방망이' 대응하는 말이다.

18) 영락리 송옥현 씨 구술.

19) 신평리 조두석 씨 구술.

“거 마께. 빨레 저 무시거 맹지, 맹지 다듬이 허는 거. 두 개로. 계난 이디선 이런 걸로. 육지 거는 진진현디. 이거 허젠허민 아랜 안반 행 우이 맹지나 미녕이나 낭 두드리주. 안반 낭으로 잊어난에 두드리명. 그디서 떡도 밀고 고기 적도 허고. 안반이 어디사 간지 몰르쿠다. 옛날엔 셜계만은. 마芟 이거 시어머니 쓰단 거 나가 물련 쓰는 거. 두 개 셔난디 하난 모르크라.”²⁰⁾

(거 방망이. 빨래 저 무엇 명주, 명주 다듬이 하는 거. 두 개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걸로. 육지 거는 긴데. 이거 하려고 하면 아래는 안반 해서 위에 명주나 무명이나 놔서 두드리지. 안반 나무로 있어서 두드리면서. 거기서 떡도 밀고 고기 적도 하고. 안반이 어디에 간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있었는데. ‘방망이’는 이거 시어머니 쓰다가 거 내가 물려받아서 쓰는 거.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모르겠어.)

〈사진 36〉은 안성리 양군자 씨(1940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다듬이)마께'다. 시어머니가 사용했던 것으로 예전 명주나 무명옷을 손질할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사진 36〉 양군자 씨 소장 '마꺼'

(3) 다리웨

‘다리웨’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다리미를 말한다. 쇠붙이로 만들며 바닥이 판판하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솛불을 넣어 뜨겁게 달구어 사용한다. ‘다리웨’는 제보자에 따라 ‘아이론’이라고도 한다.

“안에 숫 놓 헤는 거. 이거 혼 칠십 년대까지도 이거 써실 거라. 그자 바지덜이나 신사복이나 다릴 때.”²¹⁾

(안에 숙 놔서 하는 거. 이거 한 칠십 년대까지도 이거 썼을 거야. 그저 바지들이나
신사복이나 다릴 때.)

〈사진 37〉은 안성리 임영배(1957년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다리웨'이다. 임 씨가 외

20) 안성리 이신배, 양군자 씨 구술.

21) 안성리 임영일 씨 구술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안에
숯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안성리
임영일 씨에 따르면 칠십 년대까지 이
러한 다리미를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37> 임영배 씨 소장 ‘다리웨’

1.3. 세탁 도구

(1) 블러판

‘빨래판’은 빨래할 때 쓰는 판을 말한다. 넓적한 나무 판을 물결같이 울퉁불퉁하게 파서 만든 것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넓적한 돌을 빨래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레 저거 옛날 할망덜 쓰단 거. 나가 쓰단에 이젠 저 뺘레허젠헤 저레 나가 박아 도렌 헨 박은 거. 안 쓰게 뒤난 저건 질양 앗고 요건 그레 뺘레판 허고. 이 집을 고청혈 때 쓸모엇이니 저레 박아 불엇주. 저디랑 나 앗고 이디 뺘레터 허젠헤.”²²⁾

(맷돌 저거 옛날 할머니들 쓰던 거. 내가 쓰다가 이젠 저 빨래하려고 저리 내가 박아 달라고 해서 박은 거. 안 쓰게 되니까 저건 깔아서 앉고 요건 그리 빨래판 하고. 이 집을 고쳐서 할 때 쓸모없으니까 저리 박아 버렸지. 저기는 내가 앉고 여기 빨래터 하려고.)



〈사진 38〉 양춘계 씨 댁의 ‘별레판’



〈사진 39〉 송한진 씨 소장 '뿔레판'

22) 상모1리 양춘계 씨 구술.

〈사진 38〉은 상모1리 양춘계 씨(1925년생)의 ‘빨래판’이다. 맷돌로 사용했던 돌을, 집수리를 하면서 욕실 바닥에 설치해 놓고 빨래판으로 쓰고 있다. 〈사진 39〉는 영락리 송한진 씨 댁에서 사용하고 있는 ‘빨래판’이다.

(2) 빨래마끼

‘빨래마끼’는 빨랫감을 두드려서 빼는 데 쓰는 방망이로, ‘빨랫방망이’를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서답마끼’, ‘물마끼’, ‘빨래마끼’라고도 한다.



〈사진 40〉 양춘계 씨 소장 ‘빨래마끼’



〈사진 41〉 양군자 씨 소장 ‘빨래마끼’

〈사진 40〉은 상모1리 양춘계 씨가 소장하고 있는 ‘빨래마끼’다. 양 씨는 예전에 가루를 갈 때 사용했던 맷돌을 빨래판으로 사용하며 그 위에서 〈사진 40〉의 빨랫방망이로 두드려 빨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 41〉은 안성리 양군자 씨, 〈사진 42〉는 상모1리 권홍일 씨가 보관하고 있는 ‘빨래마끼’다.



〈사진 42〉 권홍일 씨 소장 ‘빨래마끼’

1.4. 의복과 신발

1.4.1. 옷감

(1) 베

‘베’는 삼실로 짠 천을 말한다. ‘베’는 주로 상복을 지을 때 많이 사용했는데, 여름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다.

“짜투리 남은 건디 혹시나 이제 거치 저디서 헤는 거 아니냔에 개인에서 혀난 우리 시어머니 죽을 때 이런 것덜 헤근에 발도 옆이 놔주고 헤낫주게. 계난 이거 좋은 거냔 놔둔 거. 이거 옛날 거. 이건 내중에 나온 거. 다른 거 같으면 버릴 건디 베는 어디 뭐 접힐 거 이신가 놔둔 거주게. 사람 영 죽으면 접힐 수 있잖아. 공간 공간 뜨민 막 놓는 거. 나 시어머니 죽을 때 봤주게. 겨난 이거 놔둔 거. 이젠 요번에 보난 화장지로 마딱 담서.”²³⁾

(자투리 남은 건데 혹시나 이제 같이 저기서 하는 거 아니니까 개인이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 죽을 때 이런 것들 해서 발도 옆에 놔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니까 놔둔 거. 이거 옛날 거. 이건 나중에 나온 거. 다른 거 같으면 버릴 건데 베는 어디 뭐 접힐 거 있을까 (해서) 놔둔 거지. 사람 이렇게 죽으면 접힐 수 있잖아. 공간 공간 뜨면 마구 놓는 거. 내가 시어머니 죽을 때 봤거든. 그러니까 이거 놔둔 거. 이제는 요번에 보니까 화장지로 모두 놓고 있어.)

“베 저거 친정어명 준 거. 친정어명 죽기 전이 준 거여. 이거 요 수건, 여름에 요 수건. 옛날 베로 요 수건 맨들았주게. 이건 여름 베갯매개, 베개짓. 요건 요 수건.”²⁴⁾

(베 저거 친정어머니 준 거. 친정어머니 죽기 전에 준 거야. 이거 요 수건, 여름에 요 수건. 옛날에 베로 요 수건 만들었지. 이건 여름 베갯모, 베갯잇. 요건 요 수건.)

23) 안성리 이춘인 씨 구술.

24)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사진 43> 이춘인 씨 소장 '베'



<사진 44> 강순화 씨 소장 '베'

<사진 43>은 안성리 이춘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베'다. 이 씨는 장례 때 관의 빈 공간을 채워 넣을 때 사용하기 위해 '베'를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사진 44> 가파리 강순화 씨의 '베'다. 아래쪽에 놓여 있는 것은 여름철에 시원하게 바람이 통하도록 요 위에 깔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이불안

'이불안'은 이불의 안쪽 천을 말한다.

"이건 이불안덜게."²⁵⁾

(이건 이불안들.)

<사진 45>는 가파리 강순자 씨가 궤 안에 보관하고 있는 '이불안'과 '이불잇' 등이다.



<사진 45> 강순자 씨 소장 '이불안'

1.4.2. 의복

(1) 치메저구리

'치메저구리'는 표준어의 '치마저고리'로 치마와 저고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건 중간에이 양복 기지로이 저구리 헌 거여. 치메저구리 허영 막 첨이 한창 날려 날 때 헌 거, 양복 기지로. 양복 기지로 치메저구리 헹이 첨 첨 돈 신 사름이나 입었주.

25)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아무 사름이나 안 입어서. 이건 나 혼 서른 일고²⁶⁾답에. 이걸로 이걸로 쓰붕이나 멘들앙 입으카 허단 그냥 놔둬서, 그냥 놔둬서. 이추룩이, 이추룩 그냥 다 놔둬. 이젠 입지 못 허여 족양."²⁶⁾

(이건 중간에 양복 옷감으로 저고리 한 거야. 치마저고리 해서 아주 참 한창 날렸을 때 한 거, 양복 옷감으로. 양복 옷감으로 치마저고리 해서 참 참 돈 있는 사람이나 입었지. 아무 사람이나 안 입었어. 이거 내가 한 서른일곱여덟에. 이걸로 이걸로 바지나 만들어서 입을까 하다가 그냥 놔뒀어, 그냥 놔뒀어. 이처럼, 이처럼 그냥 다 놔둬. 이젠 입지 못해, 작아서.)

"스못 이거 입영. 할망 소리 잘해놓난 이디도 오라, 저디도 오라 스못. 저 거시기도 그땐 노인당도 안 낫져. 이제사 노인당도 낫주. 경허난 결혼식 헐 때이 결혼식 헐 때덜 막 소리허렌 허영."²⁷⁾

(사못 이거 입어서. 할머니 소리 잘하니까 여기도 와라, 저기도 와라 사못. 저 거시기도 그땐 노인당도 안 나왔어. 이제야 노인당도 나왔지.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들 마구 소리하라고 해서.)



<사진 46> 강순화 씨 소장 '치메저구리'



<사진 47> 강순화 씨 소장 '치메저구리'

<사진 46>과 <사진 47>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소장하고 있는 '치메저구리'다. <사진 46>은 강 씨가 삼십대 후반에 만들어서 입었던 것으로 바지를 만들어 입으려고 보관해

26)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27)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두었다고 한다. <사진 47>의 치마저고리는 결혼식 등 모임이 있을 때 입었던 것이다.

(2) 저구리

저구리는 한복의 윗옷인 표준어의 ‘저고리’에 대응하는 말이다.

“이 저구리 저구리덜 보라, 이거. 이 저구리 이젠 입지 못한다. 이제 데껴 불 거.”²⁸⁾
(이 저고리 저고리를 봐라, 이거. 이 저고리 이젠 입지 못해. 이제 벼려 벼릴 거.)

“이거 저구리주게, 접저구리. 이거 옛날엔이 비로도, 검은 비로도 치폐에 이거 입엉이 소못 날려난 거여. 저디도 치폐 싯저게. 비로도 치폐에 이거, 이건 흰 저구리에 비로도 치폐 입엉이. 아이고, 첨 이젠 이거 끼우도 못허여. 하하하.”²⁹⁾

(이거 저고리지. 겹저고리. 이거 옛날에는 비로드, 검은 비로드 치마에 이거 입어서 사뭇 날렸던 거야. 저기도 치마 있어. 비로드 치마에 이거, 이건 흰 저고리에 비로드 치마 입고. 아이고, 참 이젠 이거 끼우지도 못 해. 하하하.)



<사진 48> 강순화 씨 소장 ‘접저구리’



<사진 49> 강순화 씨 소장 ‘저구리’

<사진 48>과 <사진 49>은 가파리 강순화 씨의 ‘저구리’다. <사진 48>의 저고리는 하얀 겹저고리로 강 씨는 검은 색 비로드 치마와 같이 이 저고리를 입었다고 한다. 두 저고리 모두 삼사십 대에 입었던 것으로 이제는 작아서 입지 못한다고 하였다.

(3) 유동 치폐

‘유동 치폐’는 ‘뉴뚱’으로 만든 치마를 말한다. ‘뉴뚱’은 빛깔이 곱고 부드러우며 잘

구겨지지 아니하는 명주실로 짠 옷감으로, 흔히 여자들의 치맛감이나 저고릿감으로 사용된다.

“개난 이거 유동 치폐도 보라, 이거. 옛날 유동 치폐 이거는이. 이거, 이거 시집갈 때 입어난 거이. 이거 시집갈 때 입어난 거. 다 이거 시집갈 때 이거이 허리 치폐 허연이 아이고, 이거 오래간만이 폐왕 봄저게. 이게 옛날이 드레스나 마찬가지. 이거 입엉 머리에 요추룩 다마 요추룩 행 쐐. 이건 시집이서 만든 거. 이건 시집갈 때 시집이서 만든 거고.”³⁰⁾

(그러니까 이거 뉴뚱 치마도 봐라, 이거. 옛날 뉴뚱 치마 이거는. 이거, 이거 시집갈 때 입었던 거. 이거 시집갈 때 입었던 거. 다 이거 시집갈 때 이거 허리 치마 해서 아이고, 이거 오래간만에 퍼서 보네. 이게 옛날에 드레스나 마찬가지. 이거 입고 머리에 이처럼 구슬 이렇게 해서 쐐. 이건 시집에서 만든 거. 이건 시집갈 때 시집에서 만든 거고.)

“이거 일제 유동 치마 나 시집갈 때 입어난 거. 일본 유동 치마. 아, 이거 일본서 시집갈 때 허전 기지 산 오란. 우리 해방됭 오멍 우리 어멍이. 열세 살에 와신가? 우리 어무니가 산 낫단에 시집갈 때 나 만들아 쥔. 겐디 이거 유동이 잘도 맹주보다 더 존거주게. (여기 다 손바느질로 해신게.) 이거 나 시집갈 때 입어난 치만디 죽으면은 이알로 끼워야 될 거니까. 이 허리 만들었거든, 나가. 죽엉 입을 걸로 만들안. 이거 치마 라나신디 이추룩 허리 치마로 만든 거. 저고린 그건 양단 저고리난 데껴 불고. 이 유동 치폐 입고 우에는 양단 저고리 입언. 이거 명주잖아. 명주보다 더 좋은 거 기지가, 이런 거 놔뒀주.”³¹⁾

(이거 일제 뉴뚱 치마 내가 시집갈 때 입었던 거. 일본 뉴뚱 치마. 아, 이거 일본에서 시집갈 때 하려고 옷감 사고 와서. 우리 해방돼서 오면서 우리 어머니가. 열세 살에 왔나? 우리 어머니가 사서 놬다가 시집갈 때 나 만들어 줬어. 그런데 이거 뉴뚱이 아주 명주보다 더 좋은 거지. (여기 다 손바느질로 했네.) 이거 내가 시집갈 때 입었던 치마인데 죽으면 이 아래로 끼워야 될 거니까. 이 허리 만들었거든, 내가. 죽어서 입을 거로 만들었어. 이거 치마였는데 이처럼 허리 치마로 만든 거. 저고리는 그건 양단 저고리니까 벼려 버리고. 이 뉴뚱 치마 입고 위에는 양단 저고리 입었어. 이거 명주잖아. 명주보다 더 좋은 거 옷감이, 이런 거 놔뒀지.)

28)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29)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30)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31) 안성리 이춘인 씨 구술.



〈사진 50〉 강순화 씨 소장 '유동 치메'



〈사진 51〉 이춘인 씨 소장 '유동 치메'

〈사진 50〉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유동 치메'를 직접 입은 모습이다. 강 씨는 결혼할 때 이 치마를 입고 족두리를 썼다고 한다. 〈사진 51〉은 안성리 이춘인 씨의 '유동 치메'다. 이 씨도 결혼할 때 '유동 치메'를 입고 위에는 양단 저고리를 입었다고 한다. 이 치마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살았던 어머니가 해방 후 제주로 돌아올 때 사서 온 뉴뚱으로 만든 것이다. 현재는 허리 치마로 고쳐 놓았는데, 자신이 죽었을 때 수의로 입기 위해 수선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4) 적삼

'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홀옷이다. 모양은 저고리와 같다.

"이런 적삼이 이제 이거 입도 못한다게. 광목 적삼. 이건 그땐이 우린 미싱 혈 충 몰르난 미싱 허는 디 강 헷어이. 이것도 적삼. 적삼 시집갈 때 어명이 이거 혼 그세로 두 개 멘들앙 준 거라. 어무니가 만들엉 준 거, 시집가 가난. 이거 나 죽으면 적삼도 이걸로 혼들젠판주게. 혼 불르는 거 혼적삼. 혼적삼 허젠판. 혼적삼 허는 게 그 요새 인준 안 뛰주게. 이런 광목은 뛰주게. 혼적삼은 입어난 걸로 허주게. 혼 든 걸로. 계난 이거 시집갈 때 어머니 혼 그세로 두 개 멘들아 줘라게. 경허난 혼 번씩 입어 낭이 이후 량 행 내불언. 계난 입지 않으난 혹시 입으민 혼적삼이나 허카 헨 뉘뒀주. 혼 그세엔 헌

거 그 거세기로 그 그음으로 혼 번에 두 개 멘들앗다 이거라이."³²⁾

(이런 적삼 이제 이거 입지도 못한다. 광목 적삼. 이건 그땐 우린 재봉틀 할 줄 모르니까 재봉틀 하는 데 가서 했어. 이것도 적삼. 적삼 시집갈 때 어머니가 이거 한 가위로 두 개 만들어서 준 거야. 어머니가 만들어 준 거, 시집가니까. 이거 나 죽으면 적삼도 이걸로 혼들려고 뉘두고 있어. 혼 부르는 거 '혼적삼'. '혼적삼' 하려고 뉘뒀어. '혼적삼' 하는 게 그 요새 인조견은 안 되거든. 이런 광목은 되지. '혼적삼'은 입었던 걸로 하지. 혼 깃든 걸로. 그러니까 이거 시집갈 때 어머니가 한 가위로 두 개 만들어 줬어. 그러니까 한 번씩 입고 나서 이처럼 해서 내버렸어. 그러니까 입지 않으니까 혹시 입으면 '혼적삼'이나 할까 해서 뉘뒀지. 한 가위로 한 거 그 거시기로 그 감을 한 번에 두 개 만들었다 이거야.)



〈사진 52〉 강순화 씨 소장 '적삼'



〈사진 53〉 강순화 씨 소장 '적삼'

〈사진 52〉는 가파리 강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적삼'이다. 강 씨가 결혼하기 전에 친정어머니가 만들어 준 것인데, "혼 그세로 두 개 멘들아" 주었다고 한다. 광목 옷감 하나를 잘라 두 개의 적삼을 만든 것이다. 강 씨는 자신이 죽었을 때 영혼을 부르는 데 혼드는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5)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외출할 때 한복의 치마저고리 위에 덧입는 웃옷이다. 대정읍 지역에서 '두루마기'는 이춘인 씨 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 나 두루마기 이거 혼 삼십 년, 아니 우리 손지가 마흔 나 가난 혼 오십 년 뛰실 거라. 짊은 때 헌 거. 옛날에는 절간에 다닐 때 절간에 다닐 때 한 번이나 입곡 또 애덜 결혼식 혈 때나 입언 헌디 잘 안 입어 봤. 두루마기덜 우리 이거 혈 때는 막 동네서 돈

32)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이신 사름덜 막 헤 입었주게. 난 돈 엇엉 어려우명도 절간에 그때 다닐 때난 곱게 입젠 만들어도 멧 번 안 입어 봐. 절간 갈 때 옛날에 거의 한복. 초파일 그런 때. 견디 절간에 가나건 디 삼십 년 전이 가낫주만은 그때 어디 영 갈 때 입젠, 잔치 때 경현 때 이거 만들엉 혜도. 놈덜 혜가난 막 부리완에. 제주시 강 멘든 거주. 계난 절간 다닐 때 입곡 잔치 때나 입곡.”³³⁾

(이거 내가 두루마기 이거 한 삼십 년, 아니 우리 손주가 마흔 되어 가니까 한 오십 년 되었을 거야. 짚었을 때 한 거. 옛날에는 절간에 다닐 때 절간에 다닐 때 한 번이나 입고 또 애들 결혼식 할 때나 입어서 했는데 잘 안 입어 봤어. 두루마기들 우리 이거 할 때는 동네에서 돈 있는 사람들 많이 해 입었지. 난 돈 없어서 어려우면서도 절간에 그때 다닐 때니까 곱게 입으려고 만들어도 몇 번 안 입어 봤어. 절간 갈 때 옛날에 거의 한복. 초파일 그런 때. 그런데 절간 갔었던 지 삼십 년 전에 갔었지만 그때 어디 이렇게 갈 때 입으려고, 잔치 때 그런 때 이거 만들어서 해도. 남들 해 가니까 아주 부러워서. 제주시 가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절간 다닐 때 입고 잔치 때나 입고.)

〈사진 54〉는 안성리 이춘인 씨가 소장하고 있는 ‘두루마기’다. 꽃무늬가 있는 짙은 자주빛의 이 두루마기는 이 씨가 오십 년 전쯤에 장만한 것이다. 이 씨는 이 두루마기를 절에 다닐 때 한번, 아이들 결혼식 할 때 정도만 입었지 잘 입고 다니지는 않았다고 한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장만해서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이 씨도 절에 다닐 때 곱게 입으려고 장만했다고 한다.



〈사진 54〉 이춘인 씨 소장 ‘두루마기’

(6) 장옷

‘장옷’은 본래는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에 얼굴을 가리느라고 머리에서부터 길게 내려 쓰던 옷이다. 제주에서는 결혼식에 장옷을 입었는데, 이를 수의로 입기도 했다.

“이건 저 무시거 죽으민 입는 거. 우리 큰딸이 일본서 보낸 거. 죽으민 입으렌. 나 팔월 덜 나야 혼 번 벳 맞추는 거 느네 와부난 오늘 내 놔저. 아이고, 벳 맞춰야지 그냥

33) 안성리 이춘인 씨 구술.

두민 안 데지. 일본서 우리 큰언니가, 땔이 아니고 큰언니가. 친정에 큰언니가 이거. 잘도 오래서, 이거. 우리 어머니 거 행 보내명 같이 보내니까 잘도 오랜. 이거 장옷, 죽으민 입는 장옷. 겐디 이거 입지 안해, 죽어도. 우리 병원에 강 죽으민 누게 앗당 날 입져 줘. 우리 땔덜도 다 이런 거 생각을 안 해.”³⁴⁾

(이건 저 뭐 죽으면 입는 거. 우리 큰딸이 일본에서 보낸 거. 죽으면 입으라고. 내가 팔월 달 돼야 한 번 별 맞추는 거 너희 오니까 오늘 내 놓는다. 아이고, 별 맞춰야지 그냥 두면 안 되지. 일본에서 우리 큰언니가, 땔이 아니고 큰언니가. 친정에 큰언니가 이거. 아주 오랬어, 이거. 우리 어머니 거 해서 보내면서 같이 보내니까 아주 오랫어. 이거 장옷, 죽으면 입는 장옷. 그런데 이거 입지 않아, 죽어도. 우리 병원에 가서 죽으면 누가 가져다가 날 입혀 줘. 우리 딸들도 이런 거 생각을 안 해.)

“그거 치마저고리에 장옷. 쪽두리 쓰고 그게 옛날이라. 이런 관복은 계에서 만든 거지, 마을 계에서.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 놔둔 거지. 우리 시대 땐 멘사포 그런 게 엊었주게. 이거 육십이 년이고 그 다음에 삼 년, 사 년 뒤난에 문화가 바빠져 불었지.”³⁵⁾

(그거 치마저고리에 장옷. 쪽두리 쓰고 그게 옛날이야. 이런 관복은 계에서 만든 거지, 마을 계에서.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서 놔둔 거지. 우리 시대 때는 면사포 그런 게 없었지. 이거 육십이 년이고 그 다음에 삼 년, 사 년 되니까 문화가 바뀌어 버렸지.)



〈사진 55〉 이춘인 씨 소장 ‘장옷’



〈사진 56〉 김여권, 이순자 씨의 결혼사진 속
이순자 씨가 ‘장옷’을 입은 모습

34) 안성리 이춘인 씨 구술.

35) 신평리 김여권 씨 구술.

〈사진 55〉는 안성리 이춘인 씨가 소장하고 있는 ‘장옷’이다. 이 씨는 일본에 있는 친정 언니가 어머니의 것과 같이 자신의 것을 마련해서 보내 주었다고 한다. 〈사진 56〉은 신평리 김여권 씨(1940년생)와 이순자 씨(1943년생)의 1962년 결혼사진이다. 이 시대 결혼식에서 남자는 관복을 입고 여자는 치마저고리 위에 장옷을 입었다고 한다. 이런 옷들은 마을 계에서 마련해 두었던 것을 빌려 입었다고 한다. 〈사진 56〉을 통해 옛 결혼식에서 신부가 ‘장옷’을 입고 족두리를 쓴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7) 베옷

‘베옷’은 베로 지은 옷이다. 좋은 ‘베’는 보관해 두었다가 수의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한다.

“이 베옷이 이 베가 좋은 거니까 나가 놔둔 거. 이제 그치 파는 거, 영장하는 디서 파는 거 생각해서게? 그런 거 생각 안 하니까. 바지를 저 바지 입영.”³⁶⁾

(이 베옷이 이 베가 좋은 거니까 내가 놔둔 거. 이제 같이 파는 거, 장례하는 데서 파는 거 생각했어? 그런 거 생각 안 하니까. 바지를 저 바지 입어서.)



〈사진 57〉 이춘인 씨 소장 ‘베옷’

〈사진 57〉과 〈사진 58〉은 안성리 이춘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베옷’이다. 〈사진 57〉의 베옷은 좋은 베여서 이 씨가 죽은 후에 입는 수의로 쓰려고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 58〉 이춘인 씨 소장 ‘베옷’

36) 안성리 이춘인 씨 구술.

(8) 속치메

‘속치메’는 한복을 입을 때 속에 반쳐 입는 치마인 속치마를 말한다.

“속치메. 속치메 이거 그 시절에 속치메로 입어난 거야. 이거 흰 설남은에 입어난. 이거 속에 입영 것치메 입곡 저고리 입곡 경허는 거라. 견디 이것도 아무나 안 입었어야. 우린 첨허영 그자 입었주. 이런 거 신 사름도 드물어. 이제도 이거 속치메로 입주 저슬에.”³⁷⁾

(속치마. 속치마 이거 그 시절에 속치마로 입었던 거야. 이거 한 서른 조금 넘었을 때 입었었어. 이거 속에 입고 겉치마 입고 저고리 입고 그리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안 입었어. 우린 참해서 그저 입었지. 이런 거 있는 사람도 드물어. 이제도 이거 속치마로 입지, 겨울에.)

〈사진 59〉는 가파리 강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속치메’다. 강 씨가 삼십 대에 입었던 것으로 겨울에는 속치마를 입고 위에 치마저고리를 입었다고 한다.



〈사진 59〉 강순화 씨 소장 ‘속치메’

(9) 갈중의

‘갈중의’는 광목천 따위를 풋감의 떫은 물을 짜내어 염색하여 만든 바지(중의)를 말한다. ‘갈중의’는 통기성이 좋고 땀이 나거나 물에 젖어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빨리 건조되어서 일을 할 때나 여름에 입기에 적합한 옷이다.

갈중이 이거 나가 만든 거. 이거 십 년 넘었어. 감물 들인 거. 감 닥닥 뻣아근에 그 것더레 놓 짹짜 밀민 뒤여. 건드럽고 때가, 흙 물만 빨아도 비누 안 베영 빨아도 뒤는 거. 건드러윙 몸에 땀 안 부뜨고. 겐 좋아.”³⁸⁾

(갈옷 이거 내가 만든 거. 이거 십 년 넘었어. 감물 들인 거. 감 닥닥 빽아서 그것에 놔서 짹짜 밀면 돼. 시원하고 때가, 흙 물만 빨아도 비누 안 먹이고(묻히고) 빨아도 되는 거. 시원해서 몸에 땀 안 붙고. 그래서 좋아.)

“거 이제사 물들인 거. 이거 이것도, 일헐 때 이거 입어야. 이거는, 다른 거는 모기

37)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38) 영락리 김정선 씨 구술.

거튼 거 물어 불지. 물어 불고 다른 거는 가시 찌르고. 이거는 가시도 안 허고 몸에 달라부트지 안 허여.”³⁹⁾

(거 입어야 물들인 거. 이거 이것도, 일할 때 이거 입어야. 이거는, 다른 거는 모기 같은 거 물어 버리지. 물어 버리고 다른 거는 가시 찌르고. 이거는 가시도 안 하고 몸에 달라붙지 않아.)

“거 몸빼게. 갈옷으로 나가 멘든 거. 갈몸빼사 요새 다 잇는 거. 요새 다 잇는 거 아니가개.”⁴⁰⁾

(거 몸빼. 갈옷으로 내가 만든 거. ‘갈몸빼’야 요새 다 잇는 거. 요새 다 잇는 거 아니니.)



〈사진 60〉 김정선 씨의 '갈중의'



〈사진 61〉 김정선 씨의 '갈중의'



〈사진 62〉 조순희 씨의 '갈중의'



〈사진 63〉 강순화 씨의 '갈몸빼'

〈사진 60〉과 〈사진 61〉은 영락리 김정선 씨(1942년생)의 '갈중의'다. 영락리 김정

39) 가파리 조순희 씨 구술.

40)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선 씨(1942년생)의 구술에 따르면 시원해서 몸에 땀도 붙지 않는다고 한다. 〈사진 62〉는 가파리 조순희(1947년생) 씨의 '갈중의'다. 조 씨는 일할 때 이 갈중이를 입는데 갈중이를 입으면 가시에 찔리지도 않고, 모기에 물리지도 않으며 몸에 달라붙지 않아 일하기가 좋다고 하였다. 가파리 강순화 씨의 '갈중의'를 '갈몸빼'라고 불렀다. 〈사진 63〉은 강 씨의 '갈몸빼'다.

1.4.3. 신발

(1) 고무신

'고무신'은 고무로 만든 신이다. 일제강점기에 등장하여 짚신을 대신한 고무신은 1970년대까지도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일힐 때 신어난 거. 거 오랫어, 흐꼼.”⁴¹⁾

(일할 때 신었던 거. 거 오랫어, 조금.)

〈사진 64〉는 상모1리 이창선 씨가 일할 때 신었던 '고무신'이다.

옛날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고무신이 무척 귀했다. 안성리 이춘인 씨 구술에 의하면 이 씨가 해방 즈음 일본에서 제주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신'을 신고 있었다고 한다. 이 씨의 어머니가 일본에서 친척들 선물로 고무신을 사고 와서 나눠 주니 친척들이 아주 좋아했다고 한다. 또 친구가 결혼할 때 비가 와서 '남신' 위에 고무신을 덧신기도 했다고 한다. '남신'은 표준어의 '나막신'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 신었던 신발이다.



〈사진 64〉 이창선 씨 소장 '고무신'

“그 옛날에 나나 너나 다 어렵게 살아놓난. 우리 일본서 그때 겸은 고무신 잇잖아? 테레비 가끔 나오는 거. 그 신을 친척한테 선물허젠 고리짝으로 하나 가정 앗어. 게난

41) 상모1리 이창선 씨 구술.

그거뿐. 우리 모슬포, 제주도 완 보난. 신 있는 사름덜이 다 초신만 신었잖아. 우리 그 거 가정 완 다 선물로 젖잖아. 우리 어무니 거 산 오란. 친척들. 계난 고무신이 그거 체 음이라. 경혜낫어. 나 잊어불지 안허여. 우리 웬당덜 주난 좋은게. 게고 첨 비 올 때, 막 비 올 때 남신 그런 거 신언. 나 우리 친구 시집갈 때 막 비 오난 가이가 그때 고무신 난 때고. 시집갈 때 나 그거 잊어불지 안 허여. 그 남신 이만이 헌 거에 신언. 그 남신 이만이 헌 거에 그 우에 고무신 신영 시집가난 거 나 잊어불지 안 허여.”⁴²⁾

(그 옛날에 나나 너나 다 어렵게 사니까. 우리 일본에서 그때 겸은 고무신 있잖아? 텔레비전 가끔 나오는 거. 그 신을 친척한테 선물하려고 고리짝으로 하나 가져서 왔어. 그러니까 그거뿐. 우리 모슬포, 제주도 와서 보니까. 신 있는 사람들이 다 짚신만 신었잖아. 우리 그거 가져 와서 다 선물로 줬잖아. 우리 어머니 거 사서 와서 친척들. 그러니까 고무신이 그거 처음이야. 그랬었어. 나 잊어버리지 않아. 우리 친척들 주니까 좋았어. 그리고 참 비 올 때, 비 많이 올 때 나막신 그런 거 신었어. 내가 우리 친구 시집갈 때 비 많이 오니까 그 아이가 그때 고무신 나온 때이고. 시집갈 때 내가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 그 나막신 이만한 거에 신었어. 그 나막신 이만한 거에 그 위에 고무신 신어서 시집갔던 거 나 잊어버리지 않아.)

(2) 초신

‘초신’은 짚으로 삼아 만든 신으로, ‘짚신’을 말한다. 짚신을 제주에서는 ‘쩝신’ 또는 ‘초신’이라고 한다.



〈사진 65〉 허세안 씨가 만든 ‘초신’



〈사진 66〉 허세안 씨가 만든 ‘초신’

〈사진 65〉와 〈사진 66〉은 상모1리 허세안 씨가 만든 ‘초신’이다. 〈사진 65〉는 어른

42) 안성리 이춘인 씨 구술.

용 ‘초신’이고 〈사진 66〉은 어린이용 ‘초신’이다. 보통 ‘초신’은 벗짚이나 밭벗짚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사진의 ‘초신’은 ‘계에기’와 ‘나일론 줄’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 전인 아인 때 아인 때에 늙은 어른덜 허여 가난 첨, 우리 형님도 돌아갓주만은 형님네 친구덜이 영 신 삼아 가니까 첨, 장난 정도로 이런 거 문직으멍 해 봤주게. 것이 뭐데. 글후제는 아니 헨. 이거 누게 쓰는 사름도 엇고 헌난 안 헷주.”⁴³⁾

(그 전엔 아이 때 아이 때에 늙은 어른들 해 가니까 참, 우리 형님도 돌아가셨지만 형님네 친구들이랑 신 삼아 가니까 참, 장난 정도로 이런 거 만지면서 해 봤지. 것이 되데. 그 후에 안 했어. 이거 누구 쓰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안 했지.)

“이거 일자리에서, 노인 일자리에서 처음에 읍사무소에서 초신, 신발 그런 거 삼으 렌 헨에 그런 것도 삼고 계난 저 신틀도 잇주게. 저것에 날 걸령 이디 이렇게 무꺼근에 발가락 이렇게 끼와근에 신 삼는 거주게. 계난 나 저디 신 삼은 것도 있어.”⁴⁴⁾

(이거 일자리에서, 노인 일자리에서 처음에 읍사무소에서 짚신, 신발 그런 거 삼으라고 해서 그런 것도 삼고 그러니까 저 신틀도 있지. 저것에 날 걸어서 여기 이렇게 묶어서 발가락 이렇게 끼워서 신 삼는 거지. 그러니까 나 저기 신 삼는 것도 있어.)

허세안 씨가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이 ‘초신’을 삼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만들어 봤었다고 한다. 그 후 ‘초신’을 신는 사람이 없으니까 만들지 않았는데 십여 년 전쯤 제주시에서 실시한 노인 일자리 창출 교육에서 ‘초신’ 삼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배워 지금도 소일거리로 작은 바구니를 짜고, ‘초신’을 삼고 있다.

“이거 늙은 어른덜이 계에기엔 헌난 계에긴 줄 알암주. 어워 종류라, 어워 종류. 이거 손 박박 비는 거. 이거 헤당 널영 물리젠 허민 손볼 때도 드러 손 비명. (옛날엔 이거 뭐 헐 때 써낫수과, 이거?) 옛날에 이거 빌 충을 알아서게. 뭐 안 행 그냥 내베낫주게. 헐 충을 알아야지. 이거 헤당 헐 생각을 어느 절에. 산디찍이나 그냥 허영 멘들았주.”⁴⁵⁾

(이거 늙은 어른들이 ‘계에기’라고 하니까 ‘계에기’인 줄 알고 있지. 억새 종류야, 억새 종류. 이거 손 박박 베는 거. 이거 해다가 널어서 말리려고 하면 손볼 때도 자주 손 벼면서. (옛날에는 이거 뭐 할 때 썼었습니까, 이거?) 옛날에 이거 벨 줄을 알았어.

43)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44)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45) 상모1리 이창선 씨 구술.

뭐 안 해서 그냥 내버렸었어. 할 줄을 알아야지. 이거 하다가 할 생각을 어느 겨를에.
밭볏짚이나 그냥 해서 만들었지.)

예로부터 ‘초신’을 삼을 때 주재료로 쓰이는 것은 벗짚이다. 그런데 허세안 씨는 송악산 지경에 나는 ‘계애기’를 주재료로 하여 ‘초신’을 삼고 있다. 허 씨의 아내인 이창선 씨에 따르면 ‘계애기’는 역새의 한 종류라고 한다. ‘계애기’를 해다가 널어서 말릴 때, 말린 ‘계애기’를 손볼 때 등 ‘계애기’기에 손을 자주 베기도 한다고 했다. 이 씨는 예전에는 ‘계애기’를 쓸 줄 몰랐고 ‘밭볏짚’을 이용해 짚신을 삼았다고 한다.

“옛날에 껍 잇잖아. 이거 계애기엔 허는디 그거 대용품으로 썸주. 이것이 아무 데나 엇어. 저 송악산 지경에 그런 디베끼 엊주게. 계난 나룩찍이 요런 거 헐 게 엊주게. 쫄랑 요멘씩베끼 안 허난. 길이가 이만인 해야 뛰는디. 요거 반베끼 안 뛰주. 옛날엔 다 나룩찍으로 헷지. 이거 나룩찍 대신에 허는디 이거 괭장이 질기대. 써 보니까. 이거 아무 디나 엇어. 송악산에 있는디 막 지경 바우에 뭐허난 아으덜은 “허지 맙서.” 허는 거라. “뎅기당 털어지민 어떻허쿠과?” 헨. 위험헌디 늙은 어른이. “이제랑 치와瞽서, 허지 맑서.” 즐식덜은 허지.”⁴⁶⁾

(옛날에 껍 잇잖아. 이거 ‘계애기’라고 하는데 그거 대용품으로 쓰고 있지. 이것이 아무 데나 없어. 저 송악산 지경에 그런 데밖에 없지. 그러니까 벗짚이 이런 거 할 게 없어. 짧아서 이만큼밖에 안 하니까. 길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요거 반밖에 안 되지. 옛날엔 다 벗짚으로 했지. 이거 벗짚 대신에 하는데 이거 굉장히 질기다고. 써 보니까. 이거 아무 데나 없어. 송악산에 있는데 아주 지경 바위에 뭐 하니까 아이들은 “하지 마세요.” 하는 거야. “다니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해서. 위험한데 늙은 어른이. “이제는 치우세요, 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하지.)

허 씨는 ‘벗짚’이 길이가 짧은 반면, 대용으로 ‘계애기’는 길어서 ‘초신’ 삼기에 좋다고 한다. 이 ‘계애기’는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송악산에서나 구할 수 있다. 자식들은 허 씨가 혹시라도 다니다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 짚신 재료를 구하러 다니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린다고 한다.



〈사진 67〉 말리고 있는 ‘계애기’



〈사진 68〉 말리고 있는 ‘계애기’

〈사진 67〉과 〈사진 68〉은 허 씨가 창고에서 말리고 있는 ‘계애기’다.

(3) ‘초신’ 삼는 과정과 도구

여기서부터는 허 씨가 ‘초신’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조사한 것을 토대로 ‘초신’을 삼는 과정을 정리하고 각 단계에 쓰이는 도구를 살펴보았다.

ㄱ) ‘초신’을 삼고자 할 때는 우선 잘 말린 ‘벗짚’이나 ‘계애기’ 등을 ‘덩드렁’ 위에 올려놓고 ‘덩드렁마께’로 두드린다. 벗짚이나 ‘계애기’ 등 재료를 잘 두드려야 원 재료의 거친 기운이 가시고 부드러워져서 노를 잘 꼬을 수 있다.

“계애기 비어당 물류와. 바싹 물르민 물 뿐으명 두드려. 겐 영 쓸 때에 괄양 손 안 들어가민 물 적지명 허는 거지.”⁴⁷⁾

(‘계애기’ 베어다가 말려. 바싹 마르면 물 뿐으면서 두드려. 그래서 이렇게 쓸 때 괄아서 손 안 들어가면 물 적시면서 하는 거지.)

46)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47) 상모1리 이창선 씨 구술.



〈사진 69〉 허세안 씨 소장 '덩드렁'



〈사진 70〉 허세안 씨 소장 '덩드렁마께'

〈사진 69〉와 〈사진 70〉은 허 씨가 ‘게에기’를 손질할 때 쓰고 있는 ‘덩드렁’과 ‘덩드렁마께’다.

↳ 재료가 준비되면 노를 꼬아, ‘초신’의 ‘눌’과 ‘깍’을 만들어 둈다. ‘눌’은 표준어의 ‘날’로 짚신을 짤 때 세로로 놓는 줄이다. ‘깍’은 신발의 양쪽 가에 대는, 발등까지 올라오는 부분으로 표준어의 ‘울’에 대응한다.

“하르방 허는 거 보난 나도 노 꼬아지는디. 꼬렌 험 시작허난 노만 꼬伦.”⁴⁸⁾
(할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노 꼬 수 있는데. 꼬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노만 꼬라고.)



〈사진 71〉 허세안 씨가 노를 꼬는 모습



〈사진 72〉 이창선 씨가 노를 꼬는 모습

〈사진 71〉은 허 씨가 노를 꼬는 모습이고, 〈사진 72〉는 허 씨의 아내인 이창선 씨가 노를 꼬는 모습이다. 이 씨는 남편이 노를 꼬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번 노를 꼬는 일을 시작했더니 그 후로는 계속 자신에게 노를 꼬라고 하며 허 씨의

48)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일을 돋고 있다고 한다.

“이거 짭형 앗아둠서 이거 허는 거주게. 옛날에는 발로 영 짖양 허는 거. 이거 이제 사 허명 생각허연에 아, 이것이 편허겠다 허영 허는 거지 뭐. 이거 발로 짖양 이렇게 허는 건디 이거 나가 만든 거지.”⁴⁹⁾

(이거 집어서 앉아서 이거 하는 거지. 옛날에는 발로 이렇게 짖아서 하는 거. 이거 이제야 하면서 생각해서 아, 이것이 편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지 뭐. 이거 발로 짖아서 이렇게 허는 건데 이거 내가 만든 거지.)



〈사진 73〉 '깍 데우는 거'



〈사진 74〉 이창선 씨가 '깍 데우는' 모습



〈사진 75〉 '깍'이 만들어진 모습



〈사진 76〉 완성된 '깍'

〈사진 73〉은 ‘초신’의 ‘깍’을 만들 때 쓰는 것으로, 이 씨는 이것을 ‘깍 데우는 거’라고 불렀다. 예전에는 노를 꼬 때 발이나 무릎으로 짚 따위를 눌러 꼬았었는데, 집게를 이용하면 편리하겠다고 생각해서 고안해 낸 도구라고 한다. 〈사진 74〉는 ‘깍 데우는 거’를 이용하여 노를 꼬는 모습이고, 〈사진 75〉와 〈사진 76〉은 완성된 ‘깍’의 모습이다. ‘초신’을 곱게 삼기 위해서는 ‘깍’을 곱게 삼아야 신발 모양이 곱다.

49)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드) ‘눌’과 ‘깍’이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초신’을 만들기 시작한다. ‘초신’을 삼을 때는 발이 큰 사람이 신을 것과 작은 사람이 신을 것을 구분하여 삼아야 한다. 허 씨가 삼고 있는 ‘초신’은 장식용으로, 치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대략적으로 어른용(남성용, 여성용), 어린이용으로만 구분하여 만들고 있다. 어른용과 어린이용의 신발이 정해지면 몇 개의 ‘깍’을 놓고 ‘초신’을 삼을 것인지 결정하여 크기에 맞게 ‘깍’의 높이와 개수를 토대로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눌(날)’의 길이도 신발의 치수에 따라 달라진다. 허 씨는 약 90센치미터 길이의 나일론 줄을 ‘눌’로 하여 어린이용 ‘초신’을 만들었다. 예전에는 ‘눌’도 짚을 꼬아 만들어 사용했는데, ‘초신’ 만드는 도중에 잡아당기면서 끊기는 경우가 있어 나일론 줄을 사용한다고 했다. 이 ‘눌’의 양끝을 서로 묶어 동그란 원형이 되게 한 다음 원형의 ‘눌’을 <사진 78>과 같이 ‘신틀’에 끼우고 허리띠에 줄을 묶어 중간 부분을 잡아맨다. ‘신틀’에 걸린 ‘눌’이 빛나게 한 다음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초신’을 삼기 시작한다.

“(눌 길인 신발) 크게 허젠 허민 크게 허고 족게 허젠 하민 족게 허는 거지. 아이 것도 큰 것도 있고 족은 것도 있지 뭐.”⁵⁰⁾

((날 길이는 신발) 크게 하려고 하면 크게 하고 작게 하려고 하면 작게 하는 거지. 아이 것도 큰 것도 있고 작을 것도 있지 뭐.)

“이거 질기니까 이거 나이롱을 쓰는 거라, 놀은. 옛날에사 놀도 다 찍으로 헷지.”⁵¹⁾

(이거 질기니까 이거 나일론을 쓰는 거야, 날은. 옛날에야 날은 다 짚으로 헷지.)



<사진 77> 허세안 씨 소장 ‘신틀’



<사진 78> 허세안 씨가 ‘눌’을 ‘신틀’에 끼워 작업하는 모습

50)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51)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사진 79> 허세안 씨가 ‘눌’을 ‘신틀’에 끼워 작업하는 모습



<사진 80> 허세안 씨가 ‘눌’을 ‘신틀’에 끼워 작업하는 모습

<사진 77>은 ‘초신’을 삼을 때 사용하는 ‘신틀’로, 머리 부분에는 줄을 걸 수 있게 네 개의 나무토막이 돋아 있다. <사진 78>에서 <사진 80>은 허 씨가 ‘신틀’에 ‘눌’을 끼워 작업하는 모습이다. ‘신틀’도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큰 것은 어른용, 작은 것은 어린용이다. 어린이용 ‘초신’을 만들면서도 <사진 78>과 같이 큰 ‘신틀’의 양쪽 끝에 ‘눌’을 끼워 작업을 시작하고, ‘초신’을 삼아 가면서 <사진 78>과 <사진 80>에서처럼 점점 ‘신틀’에 끼운 ‘눌’의 간격을 좁혀 간다. 바깥쪽 ‘눌’의 간격이 신발의 너비가 되는 것이다.

ㄹ) ‘초신’은 신의 앞쪽 부분부터 만들기 시작한다. ‘눌’을 빛나게 당겨 앞쪽 부분부터 ‘계에기’로 꼼꼼하게 감으면서 양쪽으로 맞추어 ‘깍’을 끼워 넣는다. 어린이용 신발의 경우는 양쪽에 각각 7개 정도의 ‘깍’을 넣고, 어른용의 경우는 양쪽에 10개 이상의 ‘깍’을 넣는다고 한다. 발이 큰 사람의 ‘초신’인 경우 ‘깍’을 길게 꼬아 높게 세우며, 발이 작은 사람의 경우는 ‘깍’을 짧게 꼬아 낮게 만든다고 하였다.

“아기 신은 (깍을) 일곱 개 놓고 어른 신은 열 개 이상이지. 그거 발에 따라서 깍 수 정은 발 큰 사람은 더 하얗 놓고.”⁵²⁾

(아기 신은 (총을) 일곱 개 놓고 어른 신은 열 개 이상이지. 그거 발에 따라서 총 개 수는 발 큰 사람은 더 많이 놓고.)

ㅁ) ‘초신’의 ‘눌’을 엮는 것과 ‘깍’을 세우는 일을 번갈아 하다가 마지막으로 ‘뒤치기’(뒤축)을 엮는다. ‘깍’을 전부 연결하고 ‘뒤치기’까지 세워졌으면, 만들어진 신발의 ‘옆깍’에 끝이 뾰족한 모양의 ‘신차세’를 집어 넣어 끈이 통과할 통로를 만든다. 통로가 생기면 그 속으로 ‘뒤치기’ 부분의 ‘눌’을 집어 넣는다.

52)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사진 81〉 허세안 씨 소장 ‘신차세’



〈사진 82〉 ‘늘’을 ‘옆깍’에 끼우는 모습



〈사진 83〉 ‘늘’을 ‘옆깍’에 끼운 모습



〈사진 84〉 ‘늘’을 ‘옆깍’에 끼운 모습

〈사진 81〉은 허 씨가 지금도 ‘초신’을 삼을 때 쓰고 있는 ‘신차세’다. 끝의 뾰족한 부분으로 ‘깍’에 노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초신’의 밑창 부분을 엮으면서 촘촘하게 하기 위해 틈틈이 ‘늘’을 세게 끌어당길 때도 사용한다. 〈사진 82〉는 ‘신차세’를 이용하여 ‘늘’을 ‘옆깍’에 끼우는 모습이고, 〈사진 83〉과 〈사진 84〉는 ‘늘’을 ‘옆깍’에 끼운 모습이다.

▣) ‘계에기’로 신발의 뒤축에서 올라와 ‘옆깍’에 끼운 ‘늘’을 감아준다.



〈사진 85〉 ‘늘’을 감는 모습



〈사진 86〉 ‘늘’을 감는 모습

〈사진 85〉와 〈사진 86〉은 허 씨가 ‘계에기’로 신발 뒷부분의 ‘늘’을 꼼꼼하게 감는 모습이다.

○) 다른 노를 준비하여 ‘초신’의 앞쪽 ‘깍’을 모두 끼워 ‘깍’의 세운다.

“대로 헷어, 대로. 옛날 하르방덜은 대로. 이거 췄가, 이거 오죽 어려와서게. 대로 헷주, 대로 옛날은.”⁵³⁾

(대로 헷어, 대로. 옛날 할아버지들은 대로. 이거 쇠가, 이거 오죽 어려웠었니. 대로 했지, 대로 옛날은.)



〈사진 87〉 노를 ‘깍’에 끼우는 모습



〈사진 88〉 노를 ‘깍’에 끼운 모습



〈사진 89〉 ‘깍’을 세우는 모습



〈사진 90〉 ‘깍’을 세운 모습

〈사진 87〉과 〈사진 88〉은 허 씨가 쇠로 된 바늘대를 이용하여 노를 ‘앞깍’에 끼우는 모습이다. 〈사진 89〉는 바늘대를 신발의 ‘앞깍’에 끼운 모습이고, 〈사진 90〉은 양쪽의 ‘깍’을 다 연결하여 ‘초신’의 ‘깍’을 세운 모습이다. 지금은 ‘깍’을 세울 때 〈사진 89〉에

53)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서와 같은 쇠로 된 바늘대를 이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대나무를 이용했다고 한다.

즈) ‘초신’의 형태가 대충 완성되면 ‘신꼴(신골)’을 넣는다. ‘신꼴’은 ‘초신’의 모양을 바로 잡기 위해 신발 안에 넣는 나무토막으로, ‘초신’을 만드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다. ‘신꼴’을 일정한 시간 동안 다 삼은 ‘초신’에 넣어 두었다가 끄집어내면 발과 같은 모양이 유지하게 한다. 이미 만들어진 ‘초신’을 그대로 두면 ‘초신’의 형태가 이지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꼴’을 넣어두어야 한다.

‘신꼴’은 앞, 가운데, 뒤에 들어가는 것에 따라 모양이 다른데, ‘신꼴’을 넣을 때는 ‘앞-뒤-가운데’의 순으로 집어넣는다. 이때 가운데 것은 마지막에 집어넣어야 ‘초신’의 모양새를 제대로 낼 수 있다. 가운데와 뒤에 들어가는 ‘신꼴’은 발의 모양이나 크기에 그다지 구애를 받지 않지만 앞에 들어가는 ‘신꼴’만큼은 발이 큰 사람의 신에 넣을 것과 작은 사람의 신에 넣을 것을 구별해 주어야 한다. 즉, 작은 ‘초신’에는 앞 ‘신꼴’도 작은 것을 큰 ‘초신’에는 큰 것을 집어넣어야 한다.



〈사진 91〉‘신꼴’ 앞



〈사진 92〉‘신꼴’ 가운데



〈사진 93〉‘신꼴’ 뒤



〈사진 94〉‘신꼴’을 넣은 모습

〈사진 91〉에서 〈사진 93〉은 허 씨가 사용하고 있는 ‘신꼴’이다. ‘초신’이 앞부분, 가운데 부분, 뒷부분에 들어가는 ‘신꼴’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부분의 것도 크기가 다른데, 이는 신발에 크기에 맞게 ‘신꼴’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 94〉는 어른용 신발에 ‘신꼴’을 넣은 모습이다.

ㅊ) ‘초신’에 ‘신꼴’은 다 넣은 후에는 ‘마께(방망이)’로 두드리면서 모양을 낸다. 마지막으로 가위로 ‘초신’의 짚 등을 다듬는다.

“이거 신 밸르렌 두드려주.”⁵⁴⁾

(이거 신 바르라고 두드리고 있지.)



〈사진 95〉‘마께’



〈사진 96〉허세안 씨가 완성된 ‘초신’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 97〉가위로 ‘초신’을 다듬는 모습



〈사진 98〉‘신꼴’을 넣은 모습

〈사진 95〉는 ‘초신’용 ‘마께’다. ‘마께’는 ‘방망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초신’을 다 삼은 후에는 ‘신꼴’을 넣고 〈사진 96〉처럼 이 ‘마께’로 잘 두드려 주어야만 한다. 그래

54)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야만 신발이 바르게 자리 잡는다고 한다. 허 씨는 이 ‘마께’를 ‘늘을 당기는 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신꼴’을 넣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 <사진 97>은 ‘초신’을 다듬는 모습이고, <사진 98>은 모든 작업이 끝난 ‘초신’의 모습이다. 일정 시간 동안 <사진 98>처럼 ‘신꼴’을 끼운 상태로 두어야 신발의 모습이 유지된다고 한다.

1.5. 기타 도구

(1) 패랭이

‘패랭이’는 표준어의 ‘폐랭이’로 밀짚이나 보릿짚으로 만든 모자를 말한다. 주로 밭 일 등을 할 때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쓴다.



<사진 99> 김규화 씨 소장 ‘패랭이’



<사진 100> 이부자 씨 소장 ‘패랭이’

<사진 99>는 신도1리 김규화 씨 댁 창고에 걸려 있는 패랭이고, <사진 100>은 신도1리 이부자 씨 댁 화장실에 걸려 있는 패랭이다. <사진 100>의 이 씨의 패랭이는 감물을 들인 천을 드리워지게 덧대어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잘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바람이 날리지 않도록 묶을 수 있는 끈까지 달려 있다.

(2) 자부동

‘자부동’은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인 ‘방석’을 말한다. 일본어(座布団)에서 온 말로, 대정읍 제보자들은 아직까지도 방석이라는 말 대신 ‘자부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불. 이불 시 개. 옛날은 이불 혼 채씩 정 시집을 와낫거든. 젠디 우리 집에는 잘 살았어. 우리 시집을 때는 또 두 채씩 허는디 우리 집에는 솜이 시니까 세 채를 헨 왔어. 이불 세 개, 요 세 개, 자부동 두 개, 베개 두 개. 안 행 오는 사름도 잇었어. 우리는 집이 먹을 만하니까 그렇게 뛰엇어.”⁵⁵⁾

(이불. 이불 세 개. 옛날은 이불 한 채씩 져서 시집을 왔었거든. 그런데 우리 집에는 잘 살았어. 우리 시집을 때는 또 두 채씩 하는데 우리 집에는 솜이 있으니까 세 채를 해서 왔어. 이불 세 개, 요 세 개, 방석 두 개, 베개 두 개. 안 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어. 우리는 집이 먹을 만하니까 그렇게 되었어.)

상모1리 강태월 씨에 따르면 옛날에 시집을 갈 때는 보통 이불 한 채씩을 져서 시집을 갔다고 한다. 강 씨의 집은 제법 잘 살아서 이불 세 채와 요 세 개, 방석 두 개, 베개 두 개까지 혼수를 마련해서 가져갔다고 한다.

“이거 싫저, 이거. 이녁냥으로 수놓앙이. 아이고, 이녁냥으로 수놓고 가끼바리로 만딱 허영이 헌 거. 이거 열여덟에 멘든 거. 열여덟에 열여덟에 헌 거 이제도 잊어어 이. 게난 시집갈 때 헌 거주계, 이거.”⁵⁶⁾

(이거 있어, 이거. 자기대로 수놓아서. 아이고, 자기대로 수놓고, 코바늘로 모두 해서 한 거. 이거 열여덟에 만든 거. 열여덟에 열여덟에 한 거. 이제도 있어. 그러니까 시집갈 때 한 거지, 이거.)

“우리대로 다 짠 거 쳐녀 때. 그거 큰 일로 허영이. 언젠가 그거 뭐 헤지카 부덴 놔뒀주.”⁵⁷⁾

(우리대로 다 짠 거 쳐녀 때. 그거 큰 일로 해서. 언젠가 그거 뭐 할 수 있을까 봐 놔뒀지.)

55) 상모1리 강태월 씨 구술.

56)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57)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사진 101> 강순화 씨 소장 '자부동'



<사진 102> 강순화 씨 소장 '자부동'

<사진 101>과 <사진 102>는 가파리 강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강 씨가 시집오기 전인 열여덟 살에 직접 수를 놓아 만든 것이다. 강 씨가 결혼할 당시 방석은 이불, 요 등과 함께 주요 혼수품이었다고 한다.

(3) 비녀

'비녀'는 여자의 쪽 끝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꽂는 장신구다. 긴 머리를 쪽 질 때는 필요한 도구였지만 여자들의 머리가 짧아지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사진 103> 김갑여 씨 소장 '비녀'



<사진 104> 궤에 꽂혀 있는 '비녀'

<사진 103>은 안성리 김갑여 씨(1950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비녀'다. 이제는 머리를 쪽 지는 데 사용하지 않기에 쓸모가 없기에 <사진 104>와 같이 궤 문에 꽂아두는 역할로 사용하고 있다.

2. 식생활

식생활 도구는 지역의 생활환경과 밀접하다. 대정읍은 전통 가마인 '굴'이 밀집된 지역이다. 특히 구억리와 신평리의 '노랑굴'과 '검은굴'이 널리 알려졌다. 제주 사람들 은 대체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질그릇을 사용하였다. 옹기장수는 질그릇을 짚어지거나 배로 운반하여 제주도내 여러 마을을 다녔다.

이번 대정읍 지역에서는 전통 가마에서 구워낸 여러 종류의 질그릇을 확인하였다. '고소리', '촛대', '두병들이', '죽절쟁', '술쟁', 허벅류 등이다. 특히 노랑굴에서 구워낸 '촛대'는 요즘은 보기 드문 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촛대의 상태가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다.

제주의 전통술인 고소리술을 내리는 '고소리'도 있었다. '고소리'와 '고소리장테'까지 모두 갖추어 있으며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과거에도 고소리는 만들기가 어려워 값이 비싸고 주로 주문 제작하였다.

대정읍에서 조사된 '돗물사발', '돗물정반'은 오늘날 거의 사라지고 희귀해진 그릇이다.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었지만, 전통사회 제주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식기구를 확인 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대정읍에서 조사된 '술벤본', '절벤본'과 같은 떡살도 소중한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실 위험이 크나 현재까지 잘 보관되어 있다.

전통사회 식생활 도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특정한 개인이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식도구를 잘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 대정읍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 글은 사진과 구술을 중심으로 대정읍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그릇, 조리도 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사 관련 도구를 차례로 정리하였다.

2.1. 식기류

2.1.1. 그릇

(1) 밥사발과 국사발

밥을 뜰 때 사용하는 그릇을 ‘밥그릇’이라 하고, 국을 뜰 때 사용하는 그릇을 ‘국그릇’이라 한다. 제주에서는 ‘밥사발’, ‘국사발’이라는 말을 널리 썼다. 그릇의 재료와 ‘사발’을 결합하여 명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놋사발’, ‘사기사발’, ‘스뎅사발’ 등이다.

〈사진 1〉은 안성리 임영배 씨(1957년생)의 외할머니 故조성옥 씨(1916년생)가 사용하였던 ‘막물사발’이다. ‘막물’은 ‘메밀’에 해당하는 제주 방언이다. 그릇 내면 바닥의 검은 점은 그릇을 구울 때 굽이 불지 않도록 모래를 깔았던 자국이다. 〈사진 2〉는 신평리 고일화 씨(1938년생)가 사용하였던 ‘국그릇’이다. 국그릇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 밖에 두었다가 페인트가 묻었다. 〈사진 3〉은 신평리 고일화 씨의 집에서 썼던 ‘밥그릇’이다. 사진에서 큰 그릇(오른쪽)은 ‘통사발’이라고도 하였다. ‘통사발’은 통이 깊고 큰 사발이다. 사발의 밖에는 ‘福’자를 새겨 넣었다.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그릇에 담은 것이다. 〈사진 4〉는 신평리 고일화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밥그릇이다. 지금은 모두 사용하지 않는 그릇으로 뒷마당에 내놓아 있었다.

“밥그릇이엔 허주. 통사발이엔도 허곡 밥그릇이엔도 허고. 저건 국그릇. 그거는 뻬끼 헐 때 거기 불라진 거지. 저거 역불 불랑 헌 건 아니고. (밥그릇은) 그때 그때 구입을 여러 번에 구입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주. 처음엔 이런 큰 그릇 사용했주. 옛날 제사 때 같은 때는 쌀밥 해영 먹고 계 안 허믄 보리밥, 조밥 허곡.”¹⁾

(밥그릇이라고 하지. 통사발이라고도 하고 밥그릇이라고도 하고. 저것은 국그릇. 그것은 페인트할 때 거기 발라진 거지. 저거 일부러 발라서 한 것은 아니고. (밥그릇은) 그때 그때 구입을 여러 번에 구입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었지. 처음에는 이런 큰 그릇 사용됐어. 옛날 제사 때 같은 때는 쌀밥 해서 먹고 그렇지 안 하면 보리밥, 조밥 하고.)



〈사진 1〉 임영배 씨 소장 ‘막물사발’



〈사진 2〉 고일화 씨 소장 ‘사기사발’



〈사진 3〉 고일화 씨 소장 ‘밥사발’



〈사진 4〉 고일화 씨 소장 ‘밥사발’

〈사진 5〉는 신평리 고일화 씨가 집에서 국을 뜰 때 사용하였다. ‘국그릇’ 또는 ‘국사발’이라고 한다. 그릇 재료의 특성을 밝혀 ‘스뎅사발’이라고도 하였다. ‘스뎅’은 표준어 ‘스테인리스’를 가리킨다.



〈사진 5〉 고일화 씨 소장 ‘스뎅사발’

(2) 남박, 낭도고리, 낭푼

‘남박’은 나무로 만든 박이다. 굵은 나무를 잘라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파면서 모양을 만든다. ‘낭도고리’는 통나무의 가운데를 파서 만든 바가지 모양이 큰 그릇이다. 보통 ‘남박’보다 그릇이 크다. 표준어 ‘함지박’에 해당한다. 음식을 셋거나 버무릴 때 사용한다. 제사나 명절에는 떡을 반죽하는 용도로도 썼다. 〈사진 6〉은 신평리 김여권 씨

1) 신평리 고일화 씨 구술.

(1940년생) 집에서 썼던 ‘남박’이다. ‘남박’에 밥을 펴 담아놓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밥을 함께 먹었다. 대개 제주 사회에서 어머니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밭일도 했기 때문이다. ‘남박’을 사용하면 식사를 준비하거나 정리할 때 아무래도 시간이 절약되었다. 이런 이유로 전통사회에서는 개별 그릇에 밥을 따로 담지 않았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곡물을 아끼는 의미에서 죽을 끓여서 음식의 양을 늘리기도 하였다.

“우리 어머니 죽 그디 거려 놓 먹어난 거라. 죽을 허여야 여럿이 먹지 안 허여. 경 먹단 거라. 빨리 행 일허레 가젠 허면은 저것에 밥행 먹어.”²⁾

(우리 어머니 죽 거기 거려 놔서 먹었던 거야. 죽을 해야 여럿이 먹지 안 해. 그렇게 먹던 거야. 빨리 해서 일하러 가려고 하면은 저것에 밥해서 먹어.)

〈사진 7〉은 안성리 임영배 씨의 외할머니가 집에서 사용하였던 ‘낭도고리’이다. 임씨의 외할머니는 안성리에서 부자집으로 알려진 조씨 장손 집안의 딸이다.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것을 다시 임 씨가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사진 6〉 김여권 씨 소장 ‘남박’



〈사진 7〉 임영배 씨 소장 ‘낭도고리’

‘낭푼’은 표준어 ‘양푼’에 해당하는 제주 방언이다. ‘남박’과 같은 용도로 쓰였다.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양푼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등 여럿 있다. 요즘도 ‘낭푼’은 부엌에서 많이 쓰이는 식생활 도구이다. 〈사진 8〉은 신평리 현갑생 씨(1933년생)가 집에서 쓰는 ‘낭푼’이다. 스테인리스 양푼이다. ‘남박’과 마찬가지로 양푼은 밥을 담아 온 식구들이 함께 먹었던 그릇이다. 요즘은 개별 밥그릇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푼은 간단하게 쌀을 셋거나 채소를 무침 때 등 부엌에서 여러 용도로 쓰인다. 〈사진

2) 신평리 김여권 씨 구술.

9〉는 가파리 박영복 씨(1936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스뎅낭푼’이다. ‘스뎅’은 스테인리스를 말한다. 마당에 있는 수돗가에서 씻은 뒤 말리고 있었다.

“이거 쌀 시쳐근에 이레 들이치는 거. 쌀 시쳐근에 이레 밥햄주게.”³⁾
(이거 쌀 씻어서 이쪽에 넣는 거. 쌀 씻어서 이쪽에 밥하고 있어.)



〈사진 8〉 현갑생 씨 소장 ‘스뎅낭푼’



〈사진 9〉 박영복 씨 소장 ‘스뎅낭푼’



〈사진 10〉 이봉녀 씨 소장 ‘이모노낭푼’



〈사진 11〉 강순화 씨 소장 ‘낭푼’

〈사진 10〉은 안성리 이봉녀 씨(1932년생) 집에서 사용하였던 ‘이모노낭푼’이다. ‘낭푼’이 찌그러지고 변색되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사진 11〉은 가파리 강순화 씨(1935년생)가 사용하는 ‘낭푼’이다. 밥을 담아서 먹는 양푼보다 크다. 주로 식재료를 셋거나 부엌에서 간단한 음식 재료나 음식을 보관할 때 사용한다. 강 씨가 모슬포 오일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19살에 결혼하여 살림을 차리면서 장만하였다. 60여 년 정도 사용한 셈이다.

3) 신평리 현갑생 씨 구술.

“낭푼이. 이모노 아니, 나도 모르켜게. 우리 그거 낭푼이로 썼어이, 낭푼이. 그거 무스거게 뭣도 그자 놓곡 어지렁현 것도 놓고. 거 오랫자. 나 살림 나난에 헌 거여. 에이구, 열아홉에 갓주게. 옛날은 열아홉에 아이 가민 노처녀. 모슬포 장에 강.”⁴⁾

(양푼이. 이모노 아니, 나도 모르겠어. 우리 그거 양푼이로 썼어, 양푼이. 그거 무슨 거 뭣도 그저 놓고 어지러운 것도 놓고. 거 오래 됐어. 나 살림 나니까 한 거야. 에이구, 열아홉에 갔어. 옛날은 열아홉에 아니 가면 노처녀. 모슬포 장에 가서.)

(3) 놋숟가락

‘놋숟가락’은 놋으로 된 숟가락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주로 숟가락만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였다. <사진 12>는 신평리 조두석 씨(1959년생)의 아버지가 썼던 놋숟가락이다. 놋숟가락은 오랫동안 사용하여 손잡이 부분이 닳아서 가늘어졌다. 현재 이 놋숟가락은 고인의 제사에 올릴 때 사용한다.



<사진 12> 조두석 씨 소장 ‘놋숟가락’

(4) 종지

‘종지’는 간장, 고추장 따위를 담아서 상에 놓는 작은 사기그릇이다. <사진 13>은 신평리 조두석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종지’이다. 종지 그릇 안에는 ‘蠶’을 새겨 넣었다. 사람들이 염원하는 바를 사기사발의 안이나 표면에 새겨넣어서 판매하였다.

‘종지’는 집에서 큰일을 치르던 때에 육을 담는 그릇으로 활용하였다.



<사진 13> 조두석 씨 소장 ‘종지’

2.1.2. 밥상

‘밥상’은 밥과 반찬 등 음식을 차려놓고 먹을 수 있게 만든 ‘상’이다. 나무로 만들거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밥상’을 주로 사용한다. 알루미늄 밥상은 가벼워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예전에는 식사 장소가 별도로 정해 있지 않았다. 안방, 마루, 부엌 등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식사 장소를 정한다. 알루미늄 밥상은 가볍고 이동하기 편리해서 요즘도 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사진 14>는 안성리 이봉녀 씨가 사용하였던 ‘밥상’이다. <사진 15>는 신도1리 김규화 씨(1939년생)가 쓰는 ‘밥상’이다. ‘밥상’의 발이 4개이다. 상을 차릴 때는 발을 펼쳤다가 식사가 끝나면 발을 접어서 보통 세워둔다.



<사진 14> 이봉녀 씨 소장 ‘밥상’



<사진 15> 김규화 씨 소장 ‘밥상’

2.1.3. 차롱

대정읍 지역에서는 대나무를 쪼개어 네모나게 결여 만든 그릇을 통틀어 ‘차롱’이라고 한다. 밥을 전용으로 담는 ‘차롱’은 ‘동고량’이라고 하였다. 떡차롱, 케기차롱, 적차롱을 따로 두어 쓰지 않는다. 그때마다 사정에 맞게 음식을 넣는다.

(1) 동고량

‘동고량’은 대오리로 네모나게 엮은 도시락이다. 달리 ‘동고령’, ‘밥당석’, ‘밥장석’, ‘밥차반이’라고 한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밥차반지’라고 하였다. 주로 밭이나 밖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 ‘동고량’에 밥을 담고 뚜껑을 덮어서 가져 다녔다. <사진 16>은 신평리 김성군 씨(1935년생)가 사용하였던 ‘동고량’이다. 김 씨가 보관하는 ‘동고량’의 깊

4)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사진 16〉 김성군 씨 소장 '동고량착'

보리밥이주. 깊어. 그거 원래 밥용으로 만든 거. 동고량착.”⁵⁾

(이건 밥용이고. 이것에 옛날에는 밭에 김매고 할 적에 사람 열 사람쯤 빌면 이런 거 하나가 아니고 두 개씩이라고. 밥 담아서 다녔지. 아래 것에 담지. 위에는 안 담고. 채롱이 몇 개 없는 사람은 위아래 다 담아서 갔지. 보리밥이지. 깊어. 그거 원래 밥용으로 만든 거, '동고량착'.)

(2) 차롱

'차롱'은 표준어 '채롱'에 해당하는 제주 방언이다. 〈사진 17〉은 상모1리 허세안 씨(1931년생)가 썼던 '지물차롱'이다. '지물'은 '제물(祭物)'을 뜻한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두었다가 제물할 때만 꺼내어 쓴다. 요즘은 고추 같은 것을 말릴 때 쓴다. 채롱에 줄을 끼워 매달기 편하게 만들었다. 〈사진 18〉은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차롱'이다. 주로 떡을 담는 용도로 썼다.



〈사진 17〉 허세안 씨 소장 '지물차롱'



〈사진 18〉 김성군 씨 소장 '떡차롱'

5)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이는 10cm이다. 떡채롱에 견주어 '동고량착'은 두 배 가까이 깊다.

"이건 밥용이고. 이거에 옛날엔 밭에 김질메고 헐 적에 사름 열 사람쯤 빌면은 이런 거 하나가 아니고 두 개씩이라고. 밥 담아서 다녔지. 아래 거에 담지게. 위엔 안 담고. 차롱이 몇 개 엿은 사름은 우알짝 다 담아서 갖지.

"거 줄 돌양 이디 뭐 널어낫지게. 고추도 널고 무시거 물릴 거 시민 이디 널영 이디 돌아멩. 그만이 놔뒀당 지물헐 때만 뭐 헐 때만 돌아오민 이거 내놓 써낫주. 옛날에 이거 어디 지물 해 갈 때는 이걸로 간 사단 허주게. 빙떡은 안 해 봤어. 빵칩이 강 빵 상간.”⁶⁾

(거 줄 달아서 여기 뭐 널어낫지. 고추도 널고 무슨 거 말릴 거 있으면 여기 널어서 여기 달아매서. 가만히 놓아뒀다가 제물할 때만 뭐 할 때만 돌아오면 이거 내놔서 썼어. 옛날에 이거 어디 제물 해 갈 때는 이걸로 가서 사다가 했지. 빙떡은 안 해 봤어. 빵집에 가서 빵 사서 갔어.)

"이건 떡용인데 엿인 사름은 헐 수 엿이 이것에도 밥을 우알착 다 거려서 다녔지.”⁷⁾
(이건 떡용인데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이것에도 밥을 위아래 다 거려서 다녔지.)

〈사진 19〉는 신도1리 김창남 씨(1934년생) 집에서 사용하였던 '차롱'이다. 본래는 직사각형 모양인데 오랫동안 사용하여 낚고 모양이 변형되었다. 〈사진 20〉은 신평리 고일화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차롱'이다. '차롱'이 낚아서 노끈으로 단단하게 감아서 사용하였다.



〈사진 19〉 김창남 씨 소장 '차롱'



〈사진 20〉 고일화 씨 소장 '차롱'

〈사진 21〉과 〈사진 22〉는 영락리 이대선 씨(1955년생)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차롱'이다. 이 씨는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채롱이 깨끗한 상태로 잘 보관되어 있다.

6) 상모리 허세안 씨 구술.

7)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사진 21> 이대선 씨 소장 '차롱'



<사진 22> 이대선 씨 소장 '차롱'

“시어머니가 옛날에 이거 제사 때 떡 노렌 헨에 준 거. 거 옛날 빙떡, 빙떡도 놓고 절변, 솔변 그런 거. 곤떡. 이것도 사람 빌영 밭에 일할 때 있잖아 밥도 이것에 싸다녀낫덴 허더라. 난 해 보진 안 하고. (식게 때는) 적도 놓고 빙떡도 지정 놓곡게. 차롱. 이거 버릴 때 보니까 조금 새 거 같아에 안 버령 놔뒀주게. 나도 이거 사용 안 해 봤. 이거 우리는 플라스틱 나오난개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양쪽으로 더프는 거 있잖아. 요새 나오는 것덜.”⁸⁾

(시어머니가 옛날에 이거 제사 때 떡 놓으라고 해서 준 거. 거 옛날 빙떡, 빙떡도 놓고 절변, 솔변 그런 거. 곤떡. 이것도 사람 빌어서 밭에 일할 때 있잖아 밥도 이것에 싸다녔다고 하더라. 난 해 보진 안 하고.(제사 때는) 꼬치도 놓고 빙떡도 지져서 놓고. 차롱. 이거 버릴 때 보니까 조금 새 것 같아서 안 버려서 놔뒀어. 나도 이거 사용 안 해 봤어. 이거 우리는 플라스틱 나오니까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양쪽으로 덮는 거 있잖아. 요새 나오는 것들.)

‘차롱’은 제사나 명절 때 집에서 장만한 떡이나 적(炙)을 담는 용도로 쓰였다. 집에서 만든 떡은 차롱에 차근차근 놓고 식힌다. 이렇게 떡을 담는 대그릇을 ‘떡차롱’, 적을 담는 대그릇은 ‘적차롱’이라고도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대선 씨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차롱’이라고 하였다.

8) 영락리 이대선 씨 구술.

2.1.4. 구덕

‘구덕’은 대오리로 결어서 만든 바구니이다. 구덕은 여러 용도로 쓰였다. 자리나 멜을 살 때도 ‘대구덕’에 담아서 가져온다. 물이 새는 물건을 담았을 때는 밑에 대나무로 만든 받침이나 비닐 등으로 받쳤다.

(1) 질구덕

‘질구덕’은 물건을 넣고 등에 져 나르는 데 쓰이는 대바구니이다. 여자들은 옷이나 이불 등 빨랫감을 ‘질구덕’에 넣어 다녔다. 마을마다 용천수나 봉천수에 빨래터가 있었다. 밭에 다닐 때 점심을 넣는 용도로도 썼다. <사진 23>은 안성리 임영배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구덕’이다. 요즘은 채소 같은 것을 씻어서 놓는 용도로 쓴다.



<사진 23> 임영배 씨 소장 '질구덕'

(2) 꼰대구덕

‘꼰대구덕’은 아주 가늘고 긴 대오리를 촘촘하게 엮은 바구니이다. 쌀이나 떡 등을 부조로 마련할 때 가는 대바구니를 사용하였다. 대정읍에서는 ‘지물구덕’이라고도 한다. <사진 24>는 상모 1리 허세안 씨 집에서 썼던 ‘꼰대구덕’이다. <사진 25>는 안성리 임영배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꼰대구덕’이다.



<사진 24> 허세안 씨 소장 '꼰대구덕'



<사진 25> 허세안 씨 소장 '꼰대구덕'

“지물 사근에 큰일첩이 갓지. 대소상 헐 때.”⁹⁾
(제물 사서 큰일집에 갓지. 대소상 할 때.)

〈사진 26〉은 상모1리 강태월 씨(1936년생) 집에서 사용하였던 ‘꼰는대구덕’이다. 〈사진 27〉은 신평리 김희정 씨(1932년생)가 썼던 ‘꼰는대구덕’이다. 〈사진 28〉, 〈사진 29〉는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꼰는대구덕’이다. 큰 비닐로 ‘구덕’과 ‘차롱’을 함께 포장해서 걸어두고 있었다.

“꼰는대구덕. 이거 잘못 보관행 쥐가 다 갈가분 건게. 떡이 목적이 아니고 밥도 담았지, 밭에 갈 때는. 제물 행 갈 때 제물 냉 다녔지, 지물. 떡 허고 갓지, 떡. 빙떡도 허고 제펜도 허고. 백설기. 제사 모시는 사람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우리 큰하르부지나 허게 뒤면 그렇게 행 가야지.”¹⁰⁾

(가는대바구니. 이거 잘못 보관해서 쥐가 다 갈가버린 거네. 떡이 목적이 아니고 밥도 담았지, 밭에 갈 때는. 제물 해서 갈 때 제물 냉 다녔지, 제물. 떡 하고 갓지, 떡. 빙떡도 하고 백설기도 하고. 백설기. 제사 모시는 사람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우리 큰할아버지나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가야지.)



〈사진 26〉 강태월 씨 소장 ‘꼰는대구덕’



〈사진 27〉 김희정 씨 소장 ‘꼰는대구덕’



〈사진 28〉 김성군 씨 소장 ‘꼰는대구덕’



〈사진 29〉 김성군 씨 소장 ‘꼰는대구덕’

2.1.5. 기타

(1) 밥통

‘밥통’은 주로 밭에 다닐 때 밥을 담았던 그릇이다. ‘동고량’이나 ‘차롱’을 쓰다가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바뀌었다. 집집마다 크기별로 두었다. 〈사진 30〉은 신도1리 이부자 씨(1939년생)가 사용하였던 ‘밥통’이다.



〈사진 30〉 이부자 씨 소장 ‘밥통’

“저건 옛날 밥 놔낫주게. 밧디 갈 때영. 농서헐 때게. 밧디 갈 때 저것에 밥쌍 가난. (큰 거에 싸믄) 혼 다섯 명 먹지. (족은 거는) 두 명이나 세 명. 두 명 헐 때도 싸고. 장에 강 사지 안 혜신가. 그릇첩이 강 사실태주, 아朋해도.”¹¹⁾

(저건 옛날 밥 놓았어. 밭에 갈 때랑. 농사할 때. 밭에 갈 때 저것에 밥 싸서 갔어. 큰 것에 싸면 한 다섯 명 먹지. 작은 것은 두 명이나 세 명. 두 명 할 때도 싸고. 장에 가서 사지 안 했나. 그릇집에 가서 샀을 거야, 아무래도.)

〈사진 31〉, 〈사진 32〉는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서 썼던 찬합이다. 찬합은 반찬을 여러 층의 그릇에 담아 포개어 간수하거나 운반할 수 있게 만든 용기이다. 김 씨는 ‘반찬

9)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10)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11) 신도1리 이부자 씨 구술.

통'이라고 하였다. 반찬통은 그릇이 세 개로 나뉘어 있다. 종류가 다른 몇 가지 반찬을 담고 겹쳐 놓는다. 밭에서 점심을 먹을 때 '밥통'에 밥을 싸고 '반찬통'에 반찬을 넣어서 들고 다녔다.



〈사진 31〉 김성군 씨 소장 '반찬통'



〈사진 32〉 김성군 씨 소장 '반찬통' 내부

〈사진 33〉은 안성리 임영배 씨가 썼던 '벤또'이다. 벤또(べんとう)는 '도시락'을 가리키는 일본어이다. 〈사진 34〉는 임 씨의 아버지가 썼던 반합이다. 반합은 야외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조리 도구이다. 간혹 군대에서 사용하였던 것을 제대할 때 가지고 나와서 도시락으로 썼다.

“이 벤또 나 학교 다닐 때 벤또 쌩 다녀난 거고. 이거 아부지 해난 거난.”¹²⁾
(이) 도시락 나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서 다녀난 거고. 이거 아버지 했던 거니까.)



〈사진 33〉 임영배 씨 소장 '벤또'



〈사진 34〉 임영배 씨 소장 '반합'

(2) 살례

'살례'는 찬장 모양으로 간략히 짜서 부엌 안에 세워 놓고 식기 따위를 넣는 물건이다. 〈사진 35〉는 안성리 강정일 씨(1942년생)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살례'이다. 강 씨가 살림하면서 쓰다가 현재는 창고에 두었다.



〈사진 35〉 강정일 씨 소장 '살례'

(3) 수세미

수세미는 박과에 속하는 덩굴성 한해살이 풀이다. 열매 안의 그물 모양의 섬유질을 이용해서 수세미로 썼다. 수세미 열매는 천식에 좋다고 하여 민간요법으로 먹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사진 36〉은 신평리 김성권 씨 집에서 말린 '수세미'이다.



〈사진 36〉 김성권 씨 소장 '수세미'

“우리 수세미 많이 갈다가 너무 어지려워서 치와불었는디 이거 그냥 내불었주. 수세미사계 그릇 다끌 때. 껌질 말려서 폐 내야돼. 말려서 떨어사 떼어지지. 그릇 다끌 때 수세미 뭐 없었어. 여기 뭐냐면 밧벼짚, 그거 뭉크려 가지고 그거로도 허고.”¹³⁾

(우리 수세미 많이 갈다가 너무 어지려워서 치워버렸는데 이거 그냥 내버렸어. 수세미야 그릇 닦을 때. 껌질 말려서 폐 내야돼. 말려서 떨어야 떼어지지. 그릇 닦을 때 수세미 뭐 없었어. 여기 뭐냐면 밧벼짚, 그거 뭉그려 가지고 그거로도 하고.)

12) 안성리 임영배 씨 구술.

13) 신평리 김성권 씨 구술.

2.2. 조리 도구

(1) 솛

‘솟’은 표준어 ‘솥’에 해당하는 제주 방언이다. 대정읍에서는 대개 부엌에 솥을 세 개 두었다. 큰솥 하나와 비슷한 크기의 작은 솥 2개이다. 큰솥은 제사 때 많은 양의 밥을 할 때 주로 쓴다. 한 말 정도의 크기로 평소에는 물을 데우는 용도로만 썼다. 작은 솥 두 개는 밥과 국, 반찬 등을 조리할 때 썼다.

과거에는 부엌 살림을 잘해야 부지런한 여자로 인정받았다.

“무쉐솟게 무쉐솟. 게민 옛날에 경허메. 어떤 집안에 들어가근에 깨끗헌지 첫째 보는 건 솛이 반짝거리는 솛. 그런 것에. 어떤 집이 가민 그 솛이 기가 막히주게. 그 부꺼난 거 그냥 막 시민. 사람들, 그때 옛날엔 경 헤나서. 어떤 집안에 영 들어가민 그때 옛날에 문이 딱 부엌문 마루문 것베끼 엇잖아. 영 가민 마루 아니민 주방베끼 더 베려게. 영 보민 옛날말로 정지주 정지, 주방에 보민 거 솛 보민 아이고, 이 집이 어명 착허구나, 계을르구나 그추룩 헤낫어.”¹⁴⁾

(무쇠솥이야 무쇠솥.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했어. 어떤 집안에 들어가서 깨끗한지 첫째 보는 것이 솥이 반짝거리는 솥. 그런 것에. 어떤 집에 가면 그 솥이 기가 막히지. 그 넘쳤던 것 그냥 마구 있으면. 사람들, 그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어떤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옛날에 문이 딱 부엌문 마루문 그것밖에 없잖아. 이렇게 가면 마루 아니면 주방밖에 더 봐. 이렇게 보면 옛날말로 ‘정지’야 정지. 주방에 보면 거 솥 보면 아이고, 이 집에 어머니(여자) 착하구나, 계으르구나 그처럼 했어.)

〈사진 37〉은 안성리 조수범 씨(1931년생) 집에서 물을 데울 때 사용하는 ‘솟’이다. 조 씨가 어릴 때부터 쓰고 있는 솥이다. 난방 시설이 따로 없던 때 목욕을 하려면 큰 솥에 물을 데워야 했다. 〈사진 38〉은 조수범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르미솟’이다. ‘아르미솟’은 알루미늄 솥을 말한다. 마당 한 쪽에 과거에 사용하였던 솥을 한 두 개 두어서 사용한다. 콩이나 고사리 등을 삶거나 뼈를 고을 때 간혹 쓴다.



〈사진 37〉조수범 씨 소장 ‘솟’



〈사진 38〉조수범 씨 소장 ‘아르미솟’

〈사진 39〉는 신도1리 김규화 씨 집에서 사용하는 ‘아르미솟’이다. 약재 등을 삶을 때 주로 쓴다. 〈사진 40〉은 신도1리 문성철 씨(1947년생) 집에서 사용하였던 ‘아르미솟’이다.

“이제도 나 쑥 허여 오면 약 거튼 거 삶는 거. 가스에 놓. 나가 신경통 이시난 쑥 먹으민 몸이 편안허난. 쑥떡, 떡허영.”¹⁵⁾

(이제도 나 쑥 해서 오면 약 같은 거 삶는 거. 가스에 놔서. 내가 신경통 있으니까 쑥 먹으면 몸이 편안하니까. 쑥떡, 떡해서.)



〈사진 39〉김규화 씨 소장 ‘아르미솟’



〈사진 40〉문성철 씨 소장 ‘아르미솟’

14) 안성리 이춘인 씨 구술.

15)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사진 41〉 김성군 씨 소장 '솟'



〈사진 42〉 김성군 씨 소장 '솟'



〈사진 43〉 강정일 씨 소장 '솟'



〈사진 44〉 이봉녀 씨 소장 '아레미솟'

〈사진 41〉은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솟'이다.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두어서 솔이 얼룩졌다. 현재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사진 42〉는 김성군 씨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솟'이다. 다른 솔에 견주어 통이 깊다. 형님이 일본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져온 솔이다.

“우리 성님네가 일본서 살다가 올 때 가져온 것이 이거 하나 남았어. 국 허는 용으로 써난 거 닮아.”¹⁶⁾

(우리 형님네가 일본에서 살다가 올 때 가져온 것이 이거 하나 남았어. 국 하는 용으로 썼던 거 닮아.)

〈사진 43〉은 안성리 강정일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솟'이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집에서 잔치를 하였다. 그때 손님들을 대접할 국 등을 끓일 때 사용하였다. 〈사진 44〉는 안성리 이봉녀 씨가 사용하였던 '아레미솟'이다. 부엌에는 크기별로 솔을 세 개 두고 생활하였다. 지금은 이 솔 하나만 남아 있다.

“저거 혼 삼십 년. 물도 데우고 뭐 옛날에 국이영 뛰여 문 헷주. 아기덜 풀 때.”¹⁷⁾

(저거 한 삼십 년. 물도 데우고 뭐 옛날에 국이랑 뛰여 전부 했지. 아기들 팔 때.)

〈사진 45〉는 신도1리 고순열 씨 (1949년생)가 물려받은 '솟두껑'이다. 큰 무쇠솥의 뚜껑이다. 〈사진 46〉은 신평리 고일화 씨가 어머니에게 물려받아서 사용하였던 '솟두껑'이다. 과거에는 주로 덕수리에서 만든 솔을 썼다. 대정읍에서 가까운 안덕면 덕수리는 예부터 불미공예가 알려진 마을이다. '불미'는 풀무의 제주 방언이다. 덕수리에서 쇠붙이를 녹이고 거푸집에 부어 굳히는 형태의 주물공예이다. 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솔뚜껑은 다른 솔뚜껑과 견주어 손잡이가 길다. 〈사진 47〉은 신도1리 김창남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무쉐솟'의 뚜껑이다. 〈사진 48〉은 신평리 김희정 씨의 '솟두껑'이다. 앞의 고일화 씨 소장 '솟두껑'의 손잡이 모양과 유사하다. 집 한쪽 구석에 항아리를 엎어 놓고 그 위에 둔 상태이다.

“물린 거. 옛날 저 불 숨을 매달 솟 앗진 때.”¹⁸⁾

(물린 거. 옛날 저 불 피울 때들 솔 앉혔을 때.)

“건 어디 덕수리라 허는 디서 이런 저 쇠부치 그릇을, 솔을 만들었어. 거기서 시장에 팔려 오면 살 수 있고 거기 강도 사고. 우리 어린 적에는 많이 썼주게, 저런 거. 어머니 적에도 많이 썼어. 젠디 우리 대에 나와가니까 이제 그 솔도 흙꼼 게 베운 거 무슨 그릇덜.”¹⁹⁾

(건 어디 덕수리라 하는 디서 이런 저 쇠붙이 그릇을, 솔을 만들었어. 거기서 시장에 팔려 오면 살 수 있고 거기 가서도 사고. 우리 어릴 적에는 많이 썼지, 저런 거. 어머니 적에도 많이 썼어. 그런데 우리 대에 나와가니까 이제 그 솔도 조금 가벼운 거 무슨 그릇들.)

16) 신평리 김성군 씨 구슬.

17) 안성리 강정일 씨 구슬.

18) 신도1리 고순열 씨 구슬.

19) 신평리 고일화 씨 구슬.



〈사진 45〉 고순열 씨 소장 '솟두껑'



〈사진 46〉 고일화 씨 소장 '솟두껑'



〈사진 47〉 김창남 씨 소장 '솟두껑'



〈사진 48〉 김희정 씨 소장 '솟두껑'



〈사진 49〉 김성군 씨 소장 '솟두껑'



〈사진 50〉 김희정 씨 소장 '솟두껑'



〈사진 51〉 강정일 씨 소장 '솟두껑'



〈사진 52〉 이봉녀 씨 소장 '솟두깽이'

〈사진 49〉는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솟두껑’이다. 크기가 다른 ‘무쉐 솟’ 뚜껑이 두 개 있다. 〈사진 50〉은 신평리 김희정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솟두껑’이다.

“이걸 만들 적에 뭐가 잘못 들어가지고 글로 튀어나와 불어가지고 구멍난 거지. 이건 아니야. 덕수 불미 거는 더 뚜꺼와. 전체적으로 뚜꺼와. 이건 얇은 거지. 이거는 육지 공장에서 나온 거지. 덕수 거는 더 무겁지. 거 우리 어머니가 산 거니까. 옛날엔 육지 그 솟도 다 잇었는데 사삼사건 때 불냥 다 까져불엇잖아. 집이 불 부껴부니까. 게서 이 뚜껑은 내중에 이 아르미늄 솟에 쓸라고 벨도로 산 거지. 이건 사삼 후에 산 거고.”²⁰⁾

(이걸 만들 적에 뭐가 잘못 들어서 거기로 튀어나와 버려서 구멍난 거지. 이건 아니야. 덕수 풀무 것은 더 두꺼워. 전체적으로 두꺼워. 이건 얇은 거지. 이것은 육지 공장에서 나온 거지. 덕수 것은 더 무겁지. 거 우리 어머니가 산 거니까. 옛날엔 육지 그 솟도 다 있었는데 사삼사건 때 불나서 다 까져버렸잖아. 집에 불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이 뚜껑은 나중에 이 알루미늄 솟에 쓰려고 별도로 산 거지. 이건 사삼 후에 산 거고.)

20)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사진 51〉은 안성리 강정일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솟두껑’이다. 예전에는 큰일 때 집에서 솥에 음식을 많이 하였다. 솥은 없고 솥뚜껑만 남았다. 현재 이 솥뚜껑은 알루미늄 솟의 덮개로 쓰고 있다. 〈사진 52〉는 안성리 이봉녀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솟두깽이’다. 이봉녀 씨도 무쇠솥의 뚜껑을 알루미늄 솟의 덮개로 쓰고 있다.

“솟두껑은 오래된 거. 물린 거. 저건 한 번이나 뭐 할 때 옛날에 아델덜 풀 때에 저거 뚜껑으로 잇어야 솟이 쓸 수가 있주게. 몸체는 어디사 간디사 남는 건 저거뿐이난. 게난 저것더러 더꺼.”²¹⁾

(솔뚜껑은 오래된 거. 물린 거. 저건 한 번이나 뭐 할 때 옛날에 아들들 팔 때에 저거 뚜껑으로 있어야 솥이 쓸 수가 있어. 몸체는 어디에 갖는지 남은 건 저거뿐이니까. 그러니까 저것에 덮어.)

21) 안성리 강정일 씨 구술.

(2) 시리

‘시리’는 떡이나 쌀 따위를 찌는 데 쓰는 등근 질그릇이다. 표준어 ‘시루’에 해당한다. 제주 사람들은 가마를 ‘굴(窟)’이라고 한다. ‘굴’은 ‘노랑굴’과 ‘검은굴’로 구분한다. 노랑굴은 1100℃ 이상에서 적갈색조를 내며 굽는다. 주로 항아리, 허벅, 술병 등 대부분의 옹기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 검은굴에서는 약 900℃ 내외에서 연기를 먹여 검게 나오는 ‘시리’ 등을 만들었다.

〈사진 53〉은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 서 사용하였던 ‘시리’이다. 떡을 만드는 데 쓰이므로 ‘떡시리’라고도 한다. 이 ‘시리’는 노랑굴에서 구워냈다. 김 성군 씨는 옹기 굽는 일을 직접 하였다. 당시 노동의 대가로 받았던 옹기가 잘 보관되어 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굴대장을 하면서 큰 항아리 등 여러 종류의 옹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사진 53〉 김성군 씨 소장 ‘떡시리’

“시리로 만든 거우다, 시리로. 떡 만든 때. 떡시리개. 원래 족계. 이거 떡시리 족은 건 어떻허냐 하면 한꺼번에 올리는 거지, 제사 때. 떡을 한꺼번에 딱 올릴 거. 그거 정성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아무 식게라도 허는 거지. 게니까 큰 시리에서 엎어서 칼로 다 잘라서 빗을 만드는 건데 요거는 통차로 엎어서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올리는 거야. (식게 때도) 옛날에 경 햇지. 정성 들이면 그렇게 허고 정성이 얼만큼 드느냐 달려 있는 거라. 나룩쌀이 옛날 제주도엔 없어 가지고 산디쌀, 밭벼 그걸로 햇지.”²²⁾

(시루로 만든 겁니다, 시루로. 떡 만들 때. 떡시루. 원래 작게. 이거 떡시루 작은 건 어떻게 하냐 하면 한꺼번에 올리는 거지, 제사 때. 떡을 한꺼번에 딱 올릴 거. 그거 정성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아무 제사라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큰 시루에서 엎어서 칼로 다 잘라서 빗을 만드는 건데 요거는 통째로 엎어서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올리는 거야. (제사 때도) 옛날에 그렇게 했지. 정성 들이면 그렇게 하고 정성이 어느 만큼 드느냐 달려 있는 거야. 볍쌀이 옛날 제주도에는 없어서 밭벼, 밭벼 그걸로 했지.)

〈사진 54〉는 영락리 서원옥 씨(1947년생)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서 썼던 ‘떡시리’이다. 제사 때는 제사상에 올리는 흰쌀 시루떡 외에도 좁쌀을 섞은 시루떡을 찌서 동

네 이웃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었다. 서 씨의 ‘떡시리’는 여러 군데 금이 나 있었다. 〈사진 55〉는 신평리 조두석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시리’이다. 시루가 크고 손잡이도 잘 남아 있었다.



〈사진 54〉 서원옥 씨 소장 ‘떡시리’



〈사진 55〉 조두석 씨 소장 ‘시리’

“떡시리. 떡 치여근에 이거 영 허영 들러내영 푸는체나 뭐 받아 탁 영 비왕 짤랑 제사상에영 올려난 거주게. 침떡 조델 허난에 좁쌀떡 이제 고구마 물렸당 골앙 그런 침떡 이거 써낫주게. 좁쌀하고 곤쌀. 쌀 이제 밥행 먹는 쌀 그거 허주게. 영 징 달리 헐 때도 잇곡 그냥 그 쌀떡 따로 치고 좁쌀떡 따로 청동네에 문 나누곡, 나누영 먹곡 경허여낫주. 좁쌀로 허영 그레 쌀 헛꼼 섞영 영 허여난 건 동네에, 혼 빗썩 허영 제사 팬 다 나눠낫어. 지금은 안 헤도. 조침떡.

이거 혼 말들일 거라. 두 웬가 혼 말인가 몰르큰게, 나도 잊어불언. 이거 물린 거게. 시어멍네 혜난 거 물린 거. 저 벌러지고 혜신게, 오래 내부난. 이거 우리 큰 아이 난 때, 이제 오십이난 가이 난 때까지 행 이제 안 해 뺏주. 사당 떡으명덜. 이것에 맞은 솟에 앗지민 영 그루로 짐 나오지 못허게 만딱 불랑 허민 이 구녕으로만 공기 들어강 쳐져 낫주게. 우엔 솟뚜껑게. 떡그루 반죽허영 이런 디 영 허영 다. 밀가루 같은 걸로 허영 그런 떡으로라도 허영 영 이디 다 불라사 바깟디 짐이 안 나와사 이 고냥으로 올라갈 거난. 이 융으로 짐 나와 가민 떡이 다 설어불어.”²³⁾

(떡시루. 떡 찌서 이거 이렇게 해서 들러내서 푸는체나 뭐 받아서 탁 이렇게 비워서 잘라서 제사상에랑 올려난 거지. 시루떡 조들 하니까 좁쌀떡 이제 고구마 말렸다가 갈아서 그런 시루떡 이거 썼어. 좁쌀하고 흰쌀. 쌀 이제 밥해서 먹는 쌀 그거 하지. 이렇게 층 달리 할 때도 있고 그냥 그 쌀떡 따로 찌서 좁쌀떡 따로 찌서 동네에 전부 나누고, 나누어서 먹고 그렇게 했어. 좁쌀로 해서 거기 쌀 조금 섞어서 이렇게 했던 건 동

22)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23) 영락리 서원옥 씨 구술.

네에, 한 빗씩 해서 제사 땐 다 나눴어. 지금은 안 해도. 조시루떡.

이거 한 말들일 거야. 두 된가 한 말인가 모르겠어, 나도 잊어버렸어. 이거 물린 거야. 시어머니네 했던 거 물린 거. 저 깨지고 했네, 오래 내버리니까. 이거 우리 큰 아이 낳았을 때, 이제 오십이니까 그 아이 낳을 때까지 해서 이제 안 해 봤어. 사다가 먹으면서들. 이것에 맞은 솔에 앉히면 이렇게 가루로 김 나오지 못하게 전부 발라서 하면 이 구멍으로만 공기 들어가서 쪄지지. 위에는 솔뚜껑. 떡가루 반죽해서 이런 데 이렇게 해서 다. 밀가루 같은 걸로 해서 그런 떡으로라도 해서 이렇게 여기 다 발라야 바깥에 김이 안 나와야 이 구멍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 옆으로 김 나와가면 떡이 다 설어버려.)

〈사진 56〉과 〈사진 57〉은 안성리 임영배 씨의 외할머니가 물려준 ‘시리’이다. 〈사진 56〉은 집에서 제사할 때 쓰는 큰 시루이다. 여러 층을 한꺼번에 쪄낸 뒤 잘라낸다. 〈사진 57〉의 시루는 크기가 작다. 과거에는 굿이나 정성들일 때 작은 시루에 떡을 쪄서 통째로 올렸다.

“이 시리는 집에서 제사할 때 허는 시리고 저 작은 시리는 옛날에 무당덜이나 저 뭐 할 때 떡 허여근에 올릴 때. 저거 통채로 올리는 거.”²⁴⁾

(이 시루는 집에서 제사할 때 하는 시루이고, 저 작은 시루는 옛날에 무당들이나 저 뭐 할 때 떡해서 올릴 때. 저거 통째로 올리는 거.)



〈사진 56〉임영배 씨 소장 ‘큰시리’



〈사진 57〉임영배 씨 소장 ‘시리’



〈사진 58〉김성군 씨 소장 ‘시리’

〈사진 58〉은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서 썼던 ‘시리’이다. 질그릇 이후에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알루미늄 시루를 많이 썼다.

(3) 고소리

‘고소리’는 표준어 ‘소줏고리’에 대응하는 제주 방언이다. 고소리술은 솔에 오메기술을 넣고 그 위에 소줏고리를 얹어서 증류해서 뽑아낸 제주 전통 소주이다. 〈사진 59〉는 안성리 임영배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고소리’이다. 임영배 씨의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았다. 술이 나오는 소줏고리의 부리는 ‘고소리좆’이라고 한다. 술을 뺏을 때는 맨 위에 덮인 ‘고소리장태’를 뒤집어서 사용한다.

〈사진 60〉은 안성리 김갑여 씨(1950년생) 집 창고에 둔 ‘고소리’이다. 〈사진 61〉은 안성리 양군자 씨(1940년생) 집에 보관하는 ‘고소리’이다. 본래 제주도 ‘고소리’의 형태는 아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한 듯하다. 특히 고소리좆은 수도꼭지를 장착하였다. 사진은 양군자 씨가 고소리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솔 대용으로 소줏고리 밑에 단지를 임시 놓았다. 이 소줏고리로 솔을 내려 보지는 않았다고 한다.



〈사진 59〉임영배 씨 소장 ‘고소리’

24) 안성리 임영배 씨 구술.

25) 안성리 양군자 씨 구술.

(이거 고소리라고 해서 한 거라, 이거. 여기 물 놔서 삶아서 솥에. 이거 솥이면 이 위에 앉혀서 여기 물을 놔. 하면 괴어서 요기로 술 나와, 술이 빠져. 옛날이야 했지. 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사진 60〉 김갑여 씨 소장 '고소리'



〈사진 61〉 양군자 씨 소장 '고소리'

(4) 돈베와 돈베칼

'돈베'는 표준어 '도마'에 해당하는 제주 방언이다. 대정읍에서는 평평한 나무판에 양쪽으로 낮게 발을 받쳐 만든 도마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도마가 더 크고 발도 높게 만들었다. 좌식 생활 형태의 부엌 구조 탓이다. 현대식 부엌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마는 발이 아예 없다.

〈사진 62〉는 가파리 김병화 씨(1943년생)가 집에서 사용하는 '돈베'와 '돈베칼'이다. 요즘은 밖에서 생선을 손질할 때 쓴다. 도마는 김 씨의 남편이 만들었다. 〈사진 63〉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돈베'와 '돈베칼'이다. 방문 당시 열무김치를 담그려고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거 잘도 오래연. 이거 부엌 안에서 쓰는 거는 좋은 것덜 싯고. 이거 옛날 부엌 안에서 써난 건디 이제는 바깥디서 생선 올 때, 생선 올 때는 이제 밖에서 잡잖아요. 비린내 나카부텐. 요거는 이제 생선 잡는 돈베. 안에서 쓰는 돈베는 좀 이쁜 거 좋은 거. 이거 우리 하르부지가 만든 거. 칼 막 오래된 거. 녹 쓸지도 안 헤고 이거 자꾸 골명 썸

주께. 신돌이 있어."²⁶⁾

(이거 아주 오래됐어. 이거 부엌 안에서 쓰는 거는 좋은 것들 있고. 이거 옛날 부엌 안에서 썼던 건데 이제는 바깥에서 생선 올 때, 생선 올 때는 이제 밖에서 잡잖아요. 비린내 날까 봐서. 요거는 이제 생선 잡는 도마. 안에서 쓰는 도마는 좀 예쁜 거 좋은 거. 이거 우리 할아버지(남편)가 만든 거. 칼 아주 오래된 거, 녹 쓸지도 안하고 이거 자꾸 갈면서 쓰고 있어. 신돌이 있어.)



〈사진 62〉 김병화 씨 소장 '돈베'와 '칼'



〈사진 63〉 강순화 씨 소장 '돈베'



〈사진 64〉 김영진 씨 소장 '돈베'



〈65〉 조이전 씨 소장 '돈베'

〈사진 64〉는 신도1리 김영진 씨(1948년생) 집에서 쓰는 '돈베'이다. 〈사진 65〉는 안성리 조이전 씨(1936년생)가 집에서 사용하는 '돈베'이다.

26)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사진 66〉은 신도1리 김영진 씨 집의 ‘돔베’이다. 부엌에서 쓰는 도마보다 크다. 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 썼다. 제주도는 경조사 때 삶은 돼지고기를 썰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였다.

“집이 일 이실 때 경조사 이실 때 썼던 거주게. 오래서. 혼 이삼십 년 됐을 걸.”²⁷⁾

(집에 일 있을 때 경조사 있을 때 썼던 거야. 오래됐어. 한 이삼십 년 됐을 걸.)



〈사진 66〉 김영진 씨 소장 ‘돔베’

(5) 우굼

대정읍에서는 밥을 끓 때 사용하는 도구를 ‘우굼’이라고 한다. 쓰임새를 강조하여 ‘밥우굼’이라고도 한다. ‘우굼’은 표준어 ‘밥주걱’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67〉, 〈사진 68〉은 신도1리 이부자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우굼’이다. 모두 놋으로 만들었다.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쓴 것을 물려받았다. 가장 큰 ‘우굼’은 시할머니가 사용 하던 것이다. 세 개 가운데 가장 작은 ‘우굼’은 이부자 씨가 시집와서 처음에 썼던 것이다.



〈사진 67〉 이부자 씨 소장 ‘놋우굼’



〈사진 68〉 이부자 씨 소장 ‘놋우굼’

“시할망 허단 거, 시어멍 허단 거. (제일 큰 게) 옛날 시할망 허단 거. 저것도(젤 족은 거) 처음엔 나가 해난. 언제나 평소에 다 저거 썻주게, 옛날에. 저걸로만 다 썬. 계난 말째 전기밥솥 나가고 허난 게 밥자도 틀리고 다 틀렸주. 아이덜 낭도 써낫어. 우리

아들 이제 예순둘산디 뛰난에.”

(시할머니 하던 거, 시어머니 하던 거. (제일 큰 게) 옛날 시할머니 하던 거. 저것도 (제일 작은 거) 처음에는 내가 했어. 언제나 평소에 다 저거 썼어, 옛날에. 저걸로만 다 썼어. 그러니까 후에 전기밥솥 나오고 하니까 밥주걱도 틀리고 다 틀렸어. 아이들 낳아도 썼어. 우리 아들 이제 예순둘인가 되니까.)



〈사진 69〉 현갑생 씨 소장 ‘밥우굼’



〈사진 70〉 이춘인 씨 소장 ‘우굼’

〈사진 69〉는 신평리 현갑생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밥우굼’이다. 현 씨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놋그릇과 함께 구덕에 담아 보관하고 있었다. 놋그릇은 닦고 관리하기 어려워 사용을 꺼린다. 〈사진 70〉은 안성리 이춘인 씨(1934년생) 집에 보관하는 ‘우굼’이다.

“이거는 밥 푸는 밥우굼. 이걸로 밥 퍼낫다 옛날. 안 쓰지, 옛날엔 몇 번 써낫지. 젠디 글후제는 다깡 들어놓젠 허민 궂어. 잘못 허민 여기 문딱 얼룩달룩 헤불주게. 시집이는 연리 나는 법환동 서귀포. 이디 들어오건디 한 오십 년 돈돈 됐지. 우리 딸이 여기 완 나서 오십세 살인가? 두 번쯤 썬 안 썻주. 이를 써나면은 이걸 행주로 막 따끄고 곱게 안 하면은 이디 검웃검웃 해벵 안 뛰. 계난 이걸 그만히 모성 놔뒀주.”²⁸⁾

(이거는 밥 푸는 밥주걱. 이걸로 밥 퍼낫다 옛날. 안 쓰지, 옛날엔 몇 번 썼어. 그런데 그 뒤로는 닦아서 들어놓으려고 하면 나빠. 잘못 하면 여기 전부 얼룩달룩 해버려. 시집은 연리 나는 법환동 서귀포. 여기 들어온지 한 오십 년 거즘 됐어. 우리 딸이 여기 와서 낳아서 오십세 살인가? 두 번쯤 써서 안 썼어. 이를 쓰고 나면 이걸 행주로 마구 닦고 곱게 안 하면 여기 거뭇거뭇 해버려서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모셔서 놔뒀어.)

27) 신도1리 김영진 씨 구술.

28) 신평리 현갑생 씨 구술.

〈사진 71〉은 안성리 임영배 씨가 외할머니에 물려받은 ‘우굼’이다. 손잡이 끝의 구멍 뚫인 곳에 철사를 끼워 넣어 걸어두고 있었다.



〈사진 71〉임영배 씨 소장 ‘우굼’

(6) 남국자

‘남국자’는 나무로 만든 국자이다. 국이나 죽 따위를 뜰 때 사용한다. 통나무를 둑글게 파고 손잡이를 길게 하여 만들었다. 〈사진 72〉는 안성리 임영배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남국자’이다. 국자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사진 73〉은 임 씨의 ‘남국자’를 엎어놓은 모습이다. 나무를 정교하게 다듬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 72〉임영배 씨 소장 ‘남국자’(앞)



〈사진 73〉임영배 씨 소장 ‘남국자’(뒤)

(7) 베슬기

‘죽젓개’는 죽이나 범벅 따위를 저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대정읍 마을에서는 주로 ‘베슬기’라고 한다. 성산읍 지역에서는 이를 ‘남죽’이라고 하였다. 〈사진 74〉는 가파리 강순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베슬기’이다. 강 씨는 ‘우굼’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요즘은 죽젓개로 쓰고 있었다. 죽젓개는 이사갈 때 던져두고 가는 풍습이 있다. 〈사진 75〉는 상모1리 양춘계 씨(1925년생)가 집에서 사용하는 ‘베슬기’이다. 양 씨가 구입하였다. 요즘은 주로 메주용 콩을 삶을 때 젓는 용도로 쓰고 있다.



〈사진 74〉강순화 씨 소장 ‘베슬기’



〈사진 75〉양춘계 씨 소장 ‘베슬기’

“밥자. 옛날 우린 우굼이엔 헷주게. 이젠 우리가 그거 베슬기로 썸주게. 겨난 옛날 우리 밥자 써난 거.(베슬기는) 호끔 이거보다 깨끗주게. 그거는 이사갈 때 혹하게 데껴뒀다. 베슬기 젓넨. 겨난 이젠 이거, 이걸로 밥 젓곡, 옛 허 때도 이걸로 젓곡, 콩 삶을 때도 이걸로, 다 이걸로 허여. 이젠 밥 안 헷주게, 옛날에 헷주. 거 사온 거주게.”²⁹⁾

(밥주걱. 옛날 우린 밥주걱이라고 했어. 이젠 우리가 그거 죽젓개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 옛날 우리 밥주걱 썼던 거. 죽젓개는 조금 이거보다 가늘지. 그거는 이사갈 때 혹하게 던져두고 가. 죽젓개 젓는다고. 그러니까 이젠 이거, 이걸로 밥 젓고, 옛 할 때도 이걸로 젓고, 콩 삶을 때도 이걸로, 다 이걸로 해. 이젠 밥 안 하고 있지, 옛날에 했지. 거 사온 거야.)

“이건 메주 콩 삶을 때 이렇게 젓는 거. 이건 이제사, 오래지 안한 거. 옛날 건 영 행통으로만 허는디 이거 산. 이거 나가난 데껴뺐주게. 요만이 헹 아래 굳짝 두더와나서 옛날. 이거 산 그거 데껴 불언.”³⁰⁾

(이건 메주 콩 삶을 때 이렇게 젓는 거. 이건 이제야, 오래지 안한 거. 옛날 건 이렇게 해서 통으로만 하는데 이거 삼어. 이거 나오니까 던져버렸어. 요만큼 해서 여기 쭉 두꺼웠어 옛날. 이거 사서 그거 던져버렸어.)

(8) 떡본

‘떡본’은 떡의 문양을 찍는 도구이다. 표준어 ‘떡살’에 대응하는 제주 방언이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떡살은 ‘절벤본’과 ‘솔벤본’이다. ‘절벤본’은 절편의 문양을 찍어 내는 나무로 만든 판이다. ‘솔벤본’은 솔편의 모양을 찍어내는 틀이다. 나무로 반달 모양을 만들고 납작한 쇠로 테두리를 두른 형태이다.

29)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30) 상모1리 양춘계 씨 구술.

〈사진 76〉은 신평리 현갑생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솔벤본’이고, 〈사진 77〉은 현 씨가 보관하는 ‘솔벤본’의 뒷면이다. 손잡이를 볼록하게 만들어 놓았다. 솔편은 반죽을 평평하게 밀어서 본을 뜯 뒤 찐 떡이다. 〈사진 78〉은 현 씨의 시어머니가 물려준 ‘절벤본’이다.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졌다. 〈사진 79〉는 ‘절벤본’의 뒷면이다. ‘절벤본’은 양손으로 잡고 꾹 눌러서 문양을 찍어낸다.



〈사진 76〉 현갑생 씨 소장 ‘솔벤본’(앞)



〈사진 77〉 현갑생 씨 소장 ‘솔벤본’(뒤)



〈사진 78〉 현갑생 씨 소장 ‘절벤본’(앞)



〈사진 79〉 현갑생 씨 소장 ‘절벤본’(뒤)

“(현) 절벤본, 이건 솔벤본. 큰 제 지낼 때는 이거를 들어가야 돼여. (김) 이디도 옛날 풍습이 잊어가지고 큰 제를 지낼려고 하면 이걸로 해여야, 상더레 올려. 요즘은 송편만 헤근에 험주만은 대소상이나 그런 크게 헐 적에는 요걸로 떡을 해야 제라헌 떡을 올리는 거. 식게 때도 이거 하는디 요새 하기 싫은 사람은 송편하고 지름떡만 행 올리지. 허지만은 크게 제를 지낼려고 하면 요걸로 하여야. 나룩허난 이걸로 다 떡 해라. 이거 헐 적에는 이거 솔벤, 절벤이라고 쌀 물 컷당 혼 세 시간쯤 헷당 걱정 도고리에 뻣양 체로 청 이제 이걸로 다시 물 팔팔 훠왕 반죽 물앙. 반죽 물아근에 미례기대로 이거 밀엉 이걸로 허고. 이거는 또 솔에 놔사 청 이경 저렇게 동글랑땡 멘들아근에 두 개 부쩡 꼭 허게 누뜨렁. 이것이 솔벤. 저거는 절변. 이거는 짜내고 이거는 찌지 안 허여. 이경 그대로 먹는 거.”³¹⁾

31) 신평리 현갑생, 김희정 씨 구술. 구술에서 현갑생 씨는 ‘현’, 김희정 씨는 ‘(김)’으로 표기하였다.

((현) ‘절편본’, 이것은 ‘솔편본’. 큰 제 지낼 때는 이것이 들어가야 돼. (김) 여기도 옛날 풍습이 있어서 큰 제를 지내려고 하면 이걸로 해야, 상에 올려. 요즘은 송편만 해서 하지마는 대소상이나 그런 크게 할 적에는 요걸로 떡을 해야 제대로 떡을 올리는 거. 제사 때도 이거 하는데 요새 하기 싫은 사람은 송편하고 기름떡만 해서 올리지. 하지마는 크게 제를 지내려고 하면 요걸로 해야. 벼하니까 이걸로 다 떡 하더라. 이거 할 적에는 이거 솔편, 절편이라고 쌀 물 담갔다가 한 세 시간쯤 했다가 건져서 함지박에 빵아서 체로 쳐서 이제 이걸로 다시 물 팔팔 끓여서 반죽 말아서. 반죽 말아서 밀대로 이거 밀어서 이걸로 하고. 이거는 또 솔에 놓아야 짜서 익혀서 저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두 개 붙여서 ‘꼭’하게 눌러서. 이것이 솔편. 저거는 절편. 이거는 짜내고 이거는 찌지 안 해. 익혀서 그대로 먹는 거.)

〈사진 80〉은 안성리 임영배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솔벤본’이다. 임 씨의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것을 다시 임 씨가 물려받았다. 한쪽 끝에 구멍을 뚫어 철사를 끼어 걸어두고 있다. 〈사진 81〉은 임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절벤본’이다.



〈사진 80〉 임영배 씨 소장 ‘솔벤본’



〈사진 81〉 임영배 씨 소장 ‘절벤본’

〈사진 82〉는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지름떡본’이다. ‘지름 떡’은 찹쌀이나 맵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밀대로 평평하게 밀어서 ‘지름떡본’으로 떠내어 기름에 지진 떡이다. ‘지름떡본’은 톱니바퀴 모양의 떡으로 별을 상징한다. 제상의 맨 위에 괴기 때문에 ‘우찌’ 또는 ‘별떡’이라고 한다.



〈사진 82〉 김성군 씨 소장 ‘지름떡본’

(9) 뛰약세기

‘뛰약세기’는 표준어 ‘식되’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집에서 주로 쌀을 거릴 때 양을 헤아리는 도구로 쓴다. <사진 83>은 신도1리 김창남 씨 집에서 사용하는 ‘뛰약세기’이다. 곡물이나 가루 등의 양을 측정할 때 썼다.

“뛰약세기 저걸로 짐작해 영 떠근에 비우고 헤는 거주.”³²⁾

(식되 저걸로 짐작해서 떠서 비우고 하는 거지.)



<사진 83>김창남 씨 소장 ‘뛰약세기’



<사진 84> 이창선 씨 소장 ‘뛰약세기’

<사진 84>는 상모1리 이창선 씨(1933년생)가 혼인하여 살림하면서 살 때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쌀을 담아 놓은 항아리에 두었다가 쌀을 거릴 때 썼다. 이 씨의 ‘뛰약세기’는 일부 깨지고 훼손되었다.

“(이) 쌀 거릴 때 쓰지. 항에 냥 거려 냥 그레 똑 들이쳐불고. 우리 성할무님안티 물린 거. 친정 거. 시집온 후제 간 ㅋ져온 거주. (허) 계난 저런 것이 집집마다 잇엇주께, 옛날. (이) 데껴불젠 앗았단 내불고.”³³⁾

(쌀 거릴 때 쓰지. 항아리에 놔서 거려 놔서 거기 톡 들이쳐버리고. 우리 친할머님한테 물린 거. 친정 거. 시집온 후에 가서 가져온 거야. (허) 그러니까 저런 것이 집집마다 있었어, 옛날. (이) 던져버리려고 꺼냈다가 내버리고.)

(10) 방에톡과 방엣귀

‘방에톡’은 절구 모양으로 돌을 우묵하게 파서 만든 도구이다. 달리 ‘방에혹’, ‘돌혹’이라고도 한다. 표준어 ‘방아확’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대개 ‘남방에’ 가운데 박아서 쓰던 것이 오늘날 방아확만 남았다. 방아확은 양념 재료를 빻는 용도로 쓰인다.

<사진 85>는 가파리 백순자 씨(1937년생)가 쓰는 ‘방에톡’이다. 이웃 어른이 썼던 것을 물려받았다. <사진 86>은 안성리 이신백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방에톡’이다. ‘남방에’ 가운데 넣어서 쓰던 것이다. <사진 87>은 가파리 조순희 씨(1947년생)가 시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방아’이다. <사진 88>은 신평리 고일화 씨 집에서 쓰는 ‘방에톡’이다.

“이거 방에톡. 저거 뭐 뺏을 때 쓰는 거주. 이거 동네 할망딜 써난 거 물려온 거. 콩도 빻고 깨도 빻고. 마농도 빻고. 쓰긴 쓰는데 마농 뺏을 때.”³⁴⁾

(이거 방아확. 저거 뭐 빻을 때 쓰는 거지. 이거 동네 할머니들 썼던 거 물려온 거. 콩도 빻고 깨도 빻고. 마늘도 빻고. 쓰긴 쓰는데 마늘 빻을 때.)



<사진 85> 백순자 씨 소장 ‘방에톡’



<사진 86> 이신백 씨 소장 ‘방에톡’



<사진 87> 조순희 씨 소장 ‘방아’



<사진 88> 고일화 씨 소장 ‘방에톡’

32) 신도1리 김창남 씨 구슬.

33) 상모1리 이창선, 허세안 씨 부부 구슬. 구슬 본문에 이창선 씨는 ‘이’, 허세안 씨는 ‘허’로 표기하였다.

34) 가파리 백순자 씨 구슬.

〈사진 89〉는 안성리 이봉녀 씨가 집에서 사용하였던 ‘방에톡’이다. 〈사진 90〉은 영락리 송한진 씨(1950년생) 집에서 여러 용도로 쓰이는 ‘방에톡’이다.

“꿰 뻗고. 남방에 헤난 거 낭이 엊고 이제 이거만 잇엉. 경허난 그것에 꿰 뻗고. 하간 거 다 헷어. 산디도 갈양 왕 그걸로 찍으면 곤썰 나오거든. 건 하영 안 허니까 것도 찡고 뭐 다 찍었어. 감도 뺏아 가지고 감웃도 들이고.”³⁵⁾

(깨 빽고. ‘남방아’했던 거 나무가 없고 이제 이것만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에 깨 빽고. 여러 가지 것 다 헷어. 밭벼도 같아서 와서 그걸로 찍으면 흰쌀 나오거든. 그 건 많이 안 하니까 것도 찡고 뭐 다 찍었어. 감도 빼아 가지고 감웃도 들이고.)



〈사진 89〉 이봉녀 씨 소장 ‘방에톡’



〈사진 90〉 송한진 씨 소장 ‘방에톡’

‘방엣귀’는 절구에 넣은 곡식을 찡는 기구로 절굿공이를 말한다. ‘남방에’에 쓰던 절굿공이는 좀 굵고 기름한 막대기 모양이다. 가운데 손잡이 부분은 잡기 편리하게 다듬었다. 〈사진 91〉은 신평리 이순자 씨(1943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돌혹’과 ‘방엣귀’이다. 〈사진 92〉는 가파리 강순화 씨가 사용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절구’와 나무 ‘마께’이다. 마늘 등 양념을 빻을 때 쓴다.



〈사진 91〉 이순자 씨 소장 ‘돌혹’과 ‘방엣귀’



〈사진 92〉 강순화 씨 소장 ‘절구’와 ‘마께’

35)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옛날에 건 남방에 거 돌혹인디 저거 우리 집의 아방이 만든 거주. 계난 요새 다른 건 잘 안 허고 감 뺏을 때나 이거 방엣귀영 햄주.”³⁶⁾

(옛날에 건 ‘남방아’ 거 방아확인데 저거 우리 집의 아버지(남편)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요새 다른 건 잘 안 하고 감 빻을 때나 이거 절굿공이하고 하고 있어.)

〈사진 93〉은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돌방에’이다. 제주에서는 보기 드문 돌방아이다.

“이거 장 담을 때 우리 계속 쓰다가 근래에 와서 장 사먹어. 할망이 몸이 안 좋았던 담으니까 안 쓰는 거지. 메주 찌고 옷 감들이고. 감 여기서 뺏어서 물들이고. 이것 때문에 나 방엣귀 세 개 만든 거지. 이것에도 시콜방에 허는 거지. 옛날에 잘사는 집에는 나무로 된 방아가 있었어. 남방에가 셔낫지. 이건 특수한 사름덜이 자기대로 만들었지, 별도로. 우리 아버지 한창일 때 만드는 사름 빌어서 만든 거라.”³⁷⁾

(이거 장 담을 때 우리 계속 쓰다가 근래에 와서 장 사먹어. 할머니(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안 담으니까 안 쓰는 거지. 메주 찌고 옷 감들이고. 감 여기서 빻어서 물들이고. 이것 때문에 나 절굿공이 세 개 만든 거지. 이것에도 세콜방에 하는 거야. 옛날에 잘사는 집에는 나무로 된 방아가 있었어. ‘남방아’가 있었지. 이건 특수한 사람들이 자기대로 만들었지, 별도로. 우리 아버지 한창일 때 만드는 사람 빌어서 만든 거야.)



〈사진 93〉 김성군 씨 소장 ‘돌방에’

〈사진 94〉는 돌방아에 썼던 ‘방엣귀’이다. 맨 앞에 짧은 ‘방엣귀’는 오랫동안 사용하여 닳고 털어서 짧아졌다. 나머지 세 개는 김 씨가 참가시나무를 다듬어 만든 절굿공이다.

36) 신평리 이순자 씨 구술.

37)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방앗귀. 건 원래 오랜 거여. 하여튼 떡가루 빻을 때 쓰고 메주 헐 때 쓰고 뭐 찧을 때는 전부 헷지. 이건 너무 오래부니까 닳아져서 짚아진 거야. 우리 돌방에 있어. 이건 나가 만들었어. 다 만들었는데 길어서 무겁다고 해서 줄일라고 나가 잘라 놓고 내 불고 있어. 목장에 있는 춤가시낭이라고 도토리 달리는 거. 이게 도토리 달리는 거니까 나무가 세거든. 경해야 덜 닳아지잖아. 혼 이십 년 전이 만들어져실 거 닳아. 돌방 아 서부난 돌방아 헐라면 세 사람이 세 갠 셔야 허거든. 젠 나가 이거 만들아 냥.”³⁸⁾

(절굿공이. 건 원래 오랜 거야. 하여튼 떡가루 빻을 때 쓰고 메주 할 때 쓰고 뭐 찧을 때는 전부 했지. 이건 너무 오래되니까 닳아져서 짚아진 거야. 우리 돌방아 있어. 이건 내가 만들었어. 다 만들었는데 길어서 무겁다고 해서 줄이려고 내가 잘라 놓고 내버리고 있어. 목장에 있는 참가시나무라고 도토리 달리는 거. 이것이 도토리 달리는 거니까 나무가 세거든. 그렇게 해야 덜 닳아지잖아. 한 이십 년 전에 만들었을 거 닳아. 돌방아 있으니까 돌방아 하려면 세 사람이, 세 개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만들어 봤어.)

〈사진 95〉는 안성리 임영배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방앳귀’이다. 임 씨의 할머니가 사용하였던 것이다. 〈사진 96〉은 안성리 이신백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방앳귀’이다. 부분적으로 좀이 쏠았다. 〈사진 97〉은 안성리 양군자 씨가 사용하는 ‘방앳귀’이다. ‘방앳귀’는 감물이 곱게 들어있다.



〈사진 95〉 임영배 씨 소장 ‘방앳귀’



〈사진 96〉 이신백 씨 소장 ‘방앳귀’

〈사진 97〉 양군자 씨 소장 ‘방앳귀’

38) 신평리 김성균 씨 구술.

(11) 다라이

‘다라이(たらい)’는 대야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다라’라고 한다. 집집마다 알루미늄, 플라스틱, 고무 등 다양한 재질의 대야를 두고 쓴다. 〈사진 98〉은 신도1리 고순열 씨 ‘다라’이다. 고 씨가 결혼할 때 구입하였다. 〈사진 99〉는 영락리 송한진 씨 집에서 쓰는 ‘다라’이고, 〈사진 100〉은 영락리 고동열 씨 (1958년생)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라’이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큰 대야는 주로 제사나 큰일 때 쓰였다. 떡반죽을 하거나 무침 등 음식을 담거나 준비할 때 두루 쓰였다. 〈사진 101〉은 상모1리 강태월 씨 집에서 쓰는 고무대야이다. 강 씨는 고무대야를 구입하고 사십 년 가까이 쓰고 있다고 한다.

“결혼할 때 행 온 거. 우리 쓰젠개. 이거 뭐 시침도 허고 여기서 뭐 무침도 헤낫지. 큰일 때, 제사 때. 우린 결혼허영 완 보난 식게 맹질 다, 시누이꺼지 허민 아홉 번, 열 번 헤낫어.”³⁹⁾

(결혼할 때 해서 온 거. 우리 쓰려고. 이거 뭐 셋기도 하고 여기서 뭐 무침도 했어. 큰일 때, 제사 때. 우린 결혼해서 와서 보니까 제사 명절 다, 시누이까지 하면 아홉 번, 열 번 했어.)



〈사진 98〉 고순열 씨 소장 ‘다라’



〈사진 99〉 송한진 씨 소장 ‘다라’



〈사진 100〉 고동열 씨 소장 ‘다라’



〈사진 101〉 강태월 씨 소장 ‘다라’

39) 신도1리 고순열 씨 구술.

〈사진 102〉는 안성리 오명자 씨(1955년생)가 사용하지 않는 ‘다라’를 항아리의 뚜껑 대용으로 덮었다. 〈사진 103〉은 안성리 이봉녀 씨가 대야를 항아리 위에 덮어 두었다. 요즘은 집에서 큰일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큰 대야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사진 102〉 오명자 씨 소장 ‘다라’



〈사진 103〉 이봉녀 씨 소장 ‘다라’

(12) 소쿠리

‘소쿠리’는 얇고 가늘게 쪘던 대나 싸리 따위를 어긋나게 짜서 만든 그릇이다. 곡물이나 채소 등을 셋어서 물기를 빼는 데 사용하거나 식재료를 말릴 때 쓴다. 〈사진 104〉는 가파리 강순화 씨가 사용하는 ‘소쿠리’이다. 〈사진 105〉는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서 사용하는 ‘소쿠리’이다.



〈사진 104〉 강순화 씨 소장 ‘소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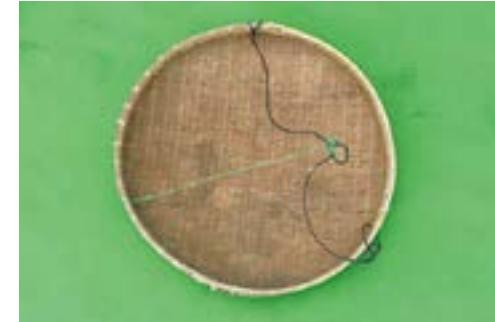


〈사진 105〉 김성군 씨 소장 ‘소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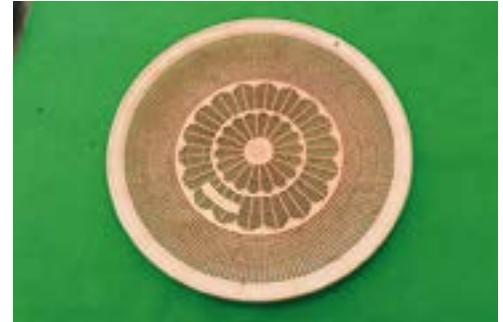
〈사진 106〉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소쿠리’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방문 당시 강 씨는 열무김치를 만들고 있었다. 물기가 있는 열무를 소쿠리에 담고 밑에는 대야로 받쳤다. 다른 대야에는 도마에서 열무를 적당한 길이로 썰어서 담고 있다. 열무를 모두 썰면 이 대야에서 양념과 버무릴 것이다.



〈사진 106〉 강순화 씨 소장 ‘소쿠리’와 ‘다라’



〈사진 107〉 허세안 씨 소장 ‘소쿠리’



〈사진 108〉 이봉녀 씨 소장 ‘소쿠리’

〈사진 107〉은 상모1리 허세안 씨 집에서 쓰는 ‘소쿠리’이다. 달리 ‘채반’이라고도 한다. 보통 나물이나 생선 등을 말릴 때 쓴다. 〈사진 108〉은 안성리 이봉녀 씨가 쓰는 플라스틱 ‘소쿠리’이다.

2.3. 저장과 운반

2.3.1. 항류

(1) 항

‘항’은 중간 부분이 부른 큰 독(盞)이다. 과거에 대표적인 저장 도구였다. 집에는 여러 개의 ‘항’을 두어 썼다. 쓰임에 따라 크게 물항, 장항, 쌀항으로 구분하였다. 신평리 김성군 씨에 따르면 항아리를 구울 때 밑에 놓인 옹기는 ‘알동’이고, 위에 올려놓은 옹

기는 ‘춘두미’라고 하였다.

〈사진 109〉는 가파리 강순화 씨가 집에서 장이나 김치를 담았던 ‘항아리’이다. 살림을 시작하면서 마련하였다. 〈사진 110〉은 상모1리 우성남 씨(1945년생)의 부모님이 사용하였던 ‘항’이다. 〈사진 109〉와 〈사진 110〉은 모두 제주도 가마에서 구운 항아리이다.

“아, 그거 우리 살림 사냔게. 하이고, 그걸로 하나 장 담곡, 그걸로 하나 짐치.”⁴⁰⁾

(아, 그거 우리 살림 사니까. 하이고, 그걸로 하나 장 담고, 그걸로 하나 김치.)



〈사진 109〉 강순화 씨 소장 ‘항아리’



〈사진 110〉 우성남 씨 소장 ‘항’

〈사진 111〉은 신도1리 고순열 씨가 집에서장을 담을 때 썼던 ‘항’이다. 고 씨는 제사와 큰일이 많아서 콩을 다섯 말씩 삶아서장을 담았다고 한다. 〈사진 112〉는 신도1리 김규화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항아리’이다. 장모님이 물려준 제주 항아리이다.

“물린 거. 이것에 장 담아. 그때 닷 말씩 숟아낫주게. 갈라 먹젠 허민게. 담아당 엇인 사름도 줘 불고. 옛날엔 이런 걸로 담아. 내가 와서 큰일도 많고 제사 때 쓰면 허난. 경허는 따문 많이 담았주.”⁴¹⁾

(물린 거. 이것에 장 담아. 그때 다섯 말씩 삶았어. 나눠 먹으려고 하면. 담았다가

없는 사람도 줘 버리고. 옛날에는 이런 걸로 담아. 내가 와서 큰일도 많고 제사 때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담았지.)



〈사진 111〉 고순열 씨 소장 ‘항’



〈사진 112〉 김규화 씨 소장 ‘항아리’



〈사진 113〉 윤우미자 씨 소장 ‘웃통개’



〈사진 114〉 윤우미자 씨 소장 ‘알통개’

〈사진 113〉은 안성리 윤우미자 씨(1943년생)가 사용하였던 ‘웃통개’이다. 〈사진 114〉는 안성리 윤우미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알통개’이다. 웃통개와 알통개는 항아리

40)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41) 신도1리 고순열 씨 구술.

의 입구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웃통개’는 항아리의 입구가 조금 모아져 올라왔다. ‘알통개’는 입구가 편평하다. 윤 씨는 장을 담을 때 ‘웃통개’와 ‘알통개’를 모두 이용하였다. 대정읍 노랑굴에서 구운 제주 항아리이다.

“하영 담을 때는 콩을 한 닷말 숟았어. 하도게 옛날은 먹을 게 엊이난게 된장 간장 그것만 먹었 땅디 가고.”⁴²⁾

(많이 담을 때는 콩을 한 다섯 말 숟았어. 아주 옛날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된장, 간장 그것만 먹어서 밭에 가고.)



〈사진 115〉 고일화 씨 소장 ‘황’



〈사진 116〉 오명자 씨 소장 ‘황’

〈사진 115〉는 신평리 고일화 씨 집에서 쓰고 있는 항아리이다. 고 씨는 ‘황’이라고 하였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 신평리에는 노랑굴과 검은굴이 있다. 〈사진 116〉은 안성리 오명자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황’이다.

“이건 우리 부락에서 만들어낫주. 열한 곳에. 검은굴도 있고 노랑굴도 있고. (검은굴은) 한 세 군데 정도. 이건 우리 어머니 적에 산 거냔, 어머니 쓰단 거 우린 물림 받은 거. 큰 황 같은 거 옛날은 한 몇 개씩 다 셔낫주게. 곡식 황 셔낫주게.”⁴³⁾

(이건 우리 부락에서 만들었어. 열한 곳에. 검은굴도 있고 노랑굴도 있고. (검은굴은) 한 세 군데 정도. 이건 우리 어머니 적에 산 거니까, 어머니 쓰던 거 우리는 물림

42) 안성리 윤우미자 씨 구술.

43) 신평리 고일화 씨 구술.



〈사진 117〉 이봉녀 씨 소장 ‘항아리’



〈사진 118〉 이봉녀 씨가 담은 된장



〈사진 119〉 강태월 씨 소장 ‘항아리’



〈사진 120〉 김창남 씨 소장 ‘황’

〈사진 119〉은 상모1리 강태월 씨가 결혼하고 살림을 시작하면서 구입한 것이다.

받은 거. 큰 항아리 같은 거 옛날은 한 몇 개씩 다 있었어. 곡식 항아리 있었지.)

〈사진 120〉은 신도1리 김창남 씨 집에서 썼던 ‘항’이다. 이웃 마을인 신평리 ‘검은굴’에서 구운 항아리이다. 달리 ‘지세항’이라고도 한다. ‘지세항’은 기와를 만드는 흙으로 만든 독이다.

“저거 오랫지. 오십 년은 됐지. 나가 갓 스물에 시집을 왔는데 그때 시집완 살림을 허전 허니까 샀어. 게난 이제 쓸모가 없어. 요자기도 풀렌 허는디 거 만 원 받아 봤자 필요도 없고 우리 딸들이 “나 줍서.” 허난 “가져가라.” 땅이 세 개난에 혼 사름은 가져가고.”⁴⁴⁾

(저거 오래되었지. 오십 년은 됐네. 내가 갓 스물에 시집을 왔는데 그때 시집와서 살림을 하려고 하니까 샀어. 그러니까 이제 쓸모가 없어. 요사이 어느 때에 팔라고 하는데 거 만 원 받아 봤자 필요도 없고 우리 딸들이 “나 줍서.” 하니까 “가져가라.” 딸이 세 개니까 한 사람은 가져가고.)

(2) 망데기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이다. 망데기는 김치를 담거나 장을 담는 용도로 쓰였다. 〈사진 121〉은 가파리 김병화 씨가 젓갈을 담글 때 사용하였던 ‘항’이다. 〈사진 122〉는 상모1리 김영주 씨(1947년생)가 장을 담글 때 썼던 ‘망데기’이다. 김 씨는 ‘항’이라고 하였다.



〈사진 121〉 김병화 씨 소장 ‘항’



〈사진 122〉 김영주 씨 소장 ‘항’

44) 상모1리 강태월 씨 구술.

“항, 그거 자리, 자리 젓갈게 많이 한 한 말쯤 허민 그거. 가을 들어가면 자리 이제 쉬자리, 조자리 사근에 담아당 겨울 들민 이제 반찬. 조자리 준 거이. 조자리, 쉬자리. 새끼?라. 큰 자리 이거는 큰 자리고 이거는 그자 쉬자리 허여근에 혼 말 풀아도라 허민 골랑. 알 뱜 때가 더 맛있어.”⁴⁵⁾

(항아리, 그거 자리돔, 자리돔 젓갈 많이 한 한 말쯤 하면 그거. 가을 들어가면 자리돔 이제 ‘쉬자리’, 작은자리돔 사서 담아서 겨울 들면 이제 반찬. ‘조자리돔’ 작은 거 ‘조자리’, ‘쉬자리’, 새끼보고. 큰 자리돔 이거는 큰 자리돔이고 이거는 그냥 ‘쉬자리’ 해서 한 말 풀아달라 하면 골라서. 알 뱜 때가 더 맛있어.)

“항덜은 장덜 담양 먹엇주께, 옛날에. 옛날에사 항 하낫주께. 옛날에 장 거튼 거 담는 거 저런 것에다 헷주께. 나도 장 헛꼼 담아나신디 지금은 식구도 엇고 그자 저 족은 것에 헛꼼 해영 먹고. 우리 본래가 식구 경 하지 안 허여. 옛날에 하영 혈 때 서 말도 허고 아이 키울 때 경 헷주. 그 후제 아이덜도 막 안 먹는 따문에 조금 허민 한 몇 년 가주.”⁴⁶⁾

(항아리들은 장들 담아서 먹었어, 옛날에. 옛날에야 항아리 많았지. 옛날에 장 같은 거 담는 거 저런 것에 다 했지. 나도 장 조금 담았었는데 지금은 식구도 없고 그냥 저 작은 것에 조금 해서 먹고. 우리 본래가 식구 그렇게 많지 안해. 옛날에 많이 할 때 서 말도 하고 아이 키울 때 그렇게 했어. 그 후에 아이들도 많이 안 먹는 때문에 조금 하면 한 몇 년 가.)

45)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46) 상모1리 김영주 씨 구술.

〈사진 123〉, 〈사진 124〉는 신평리 고일화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망데기’이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엎어 놓았다. 〈사진 125〉는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서 썼던 ‘망데기’이다. 김 씨는 신평리 굴에서 옹기 굽는 일을 하였다.



〈사진 123〉 고일화 씨 소장 ‘망데기’



〈사진 124〉 고일화 씨 소장 ‘망데기’

“다 물린 거. 할망 상 물려준 거. 젠디 장 담는 거 이런 노린 항에 담아야 장이 맛잇겠 헹 이제꺼지 담양 먹엄주게. 장, 웬장. 이건 망데기, 저건 큰 항. 저 항 할망 산 때난 오랫 지. 이거에 담단에 저거 사오난 저것에 담양 먹엉 영 엎엉 싯주게.”⁴⁷⁾

(다 물린 거. 할머니(시어머니) 사서 물려 준 거. 그런데 장 담는 거 이런 노란 항아리에 담아야 장이 맛있다고 해서 이제까지 담아서 먹고 있어. 장, 된장. 이것은 ‘망데기’, 저것은 큰 항아리. 저 항아리 할머니(시어머니) 살았을 때니까 오래됐지. 이거에 담다가 저거 사오니까 저것에 담아서 먹고 이렇게 엎어서 있어.)

47) 영락리 서원옥 씨 구술.



〈사진 125〉 김성군 씨 소장 ‘망데기’

〈사진 126〉은 영락리 서원옥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망데기’이다. 사용하지 않는 항아리들은 엎어 놓았다. 서 씨의 시어머니가 물려준 항아리들이다.



〈사진 126〉 서원옥 씨 소장 ‘망데기’와 ‘항’



〈사진 127〉 임영배 씨 소장 ‘자리젓망데기’



〈사진 128〉 고일화 씨 소장 ‘단지’

(3) 단지

‘단지’는 아주 조그마한 항아리이다. 보통 젓갈을 담는 용도로 쓰인다. 대정읍에서는 ‘자리젓망데기’, ‘자리젓항아리’, ‘망데기새끼’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손주먹만큼 자그마한 단지는 ‘조막단지’라고 하였다.

〈사진 127〉은 안성리 임영배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자리젓망데기’이다. 임 씨의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물려주었던 것을 다시 임 씨가 물려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자리젓을 담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자리젓망데기’라고 하였다.

〈사진 128〉은 신평리 고일화 씨 집에서 자리젓을 담아 먹는 ‘단지’이다. ‘단지’는 집 뒤쪽 그늘에 놓여 있었다.

“그거는 자리젓 담안 놔둔 거. 너미 헷빛이 비좌불민 변질이 뛰는 따문에. 옛날 아주 멀쳤, 자리젓 그거 놓촌에서 큰 반찬으로 먹었주. 옛적에는 저 동일리 바다에 가서. 거기 가서 밤에 멜 들었겠 허면 가서 놔 거리난 데 강 흙꼼 주워다가 먹센덜 막. 멜 들었겠 허면 전달을 해, 사람이 왕. 친척 관련 사름이 왕 멜 들었으니까. 겨고 오늘 쯤에선 멜이 들어왔지 허서 멜, 이 잠자리 있어. 자그마한 빨간 잠자리. 그것이 많이 날라

뎅기민 오널은 둘밤ಡ민 틀림없이 멜이 들어왔지하다 혜영 물 든 때 강 대기햇당 물 싸민 그 원 안에 든 거 봉가오주게. 바가쓰 같은 거, 포대 같은 거 행 와근에 이제 소금에 절였다근에 멜젓도 행 먹곡.

자리는 모슬포 거는 축항. 몇 시에 들어온다 허는 것이 이제도 뛰주. 오후 두 시, 열시부터 열두 시 사이에 자릿배가 들어오난. 미릿 그 시간에 가근에 대기햇당. 대구덕도 허고 여라 가지 뭐 그릇, 대구덕에 그냥 담양 오주. 그디 뭐 자루, 자루 안에 놔근에.”⁴⁸⁾

(그거는 자리젓 담아서 놔둔 거. 너무 햅빛이 비취버리면 변질이 되는 때문에. 옛날 아주 ‘멜젓’, ‘자리돔젓’ 그거 농촌에서 큰 반찬으로 먹었어. 옛적에는 저 동일리 바다에 가서 거기 가서 밤에 멸치 들었다고 하면 가서 남 거렸던 데 가서 조금 주워다가 먹으려고들 아주. 멸치 들었다고 하면 전달을 해, 사람이 와서. 친척 관련 사람이 와서 멸치 들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쯤에선 멸치가 들어올듯하다 해서 멸치, 이 잠자리 있어. 자그마한 빨간 잠자리. 그것이 많이 날아다니면 오늘은 달밤되면 틀림없이 멸치가 들어올듯하다 해서 물 든 때 가서 대기했다가 물 빼지면 그 원 안에 든 거 주워오지. 양동이 같은 거, 포대 같은 거 해서 와서 이제 소금에 절였다가 ‘멜젓’도 해서 먹고.

자리돔은 모슬포 거는 축항. 몇 시에 들어온다 하는 것이 이제도 돼. 오후 두 시, 열시부터 열두 시 사이에 자릿배가 들어오니까. 미리 그 시간에 가서 대기했다가. 대바구니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릇, 대바구니에 그냥 담아서 오지. 거기 뭐 자루, 자루 안에 놔서.)

〈사진 129〉는 안성리 윤우미자 씨 집에 있는 ‘조막단지’와 항아리들이다.



〈사진 129〉윤우미자 씨 소장 ‘조막단지’와 항아리들

48) 신평리 고일화 씨 구술.



〈사진 130〉윤우미자 씨 소장 ‘조막단지’



〈사진 131〉윤우미자 씨 소장 ‘조막단지’

〈사진 130〉과 〈사진 131〉도 윤 씨의 ‘조막단지’이다. 윤 씨는 작은 항아리들을 통틀어 ‘망데기새끼’라고 하였다. 큰 항아리에 담은 된장이나 간장 등을 조막단지에 덜어내어 먹었다.

“저거이 조막단지, 조막단지 허는 거주게. 저거 옛날은 웬장 담아나고 간장도 담아나고. 저거는 부엌에 조그만하게 담아 왕. 덜엉, 덜엉.”⁴⁹⁾

(저것이 조막단지, 조막단지 하는 거야. 저거 옛날은 된장 담고 간장도 담고. 저것은 부엌에 조그마하게 담아 와서. 덜어서, 덜어서.)

〈사진 132〉는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단지’이다. ‘단지’의 상태가 아주 깨끗하다. 〈사진 133〉은 영락리 홍옥춘 씨(1932년생)가 집에서 썼던 ‘단지’이다.

“옛날 장 담는 거. 장 담양 장물은 저런 더레 놓고 자리젓하고. 장물 덜어 놓고 자리젓도 허는 거지.”⁵⁰⁾

(옛날 장 담는 거. 장 담아서 간장은 저런 곳에 놓고 자리돔젓하고. 장물 덜어 놓고 자리돔젓도 하는 거지.)

49) 안성리 윤우미자 씨 구술.

50) 영락리 홍옥춘 씨 구술.



<사진 132> 김성군 씨 소장 '단지'



<사진 133> 홍옥춘 씨 소장 '단지'



<사진 134> 서원옥 씨 소장 '조막단지'



<사진 135> 권홍일 씨 소장 '자리젖항아리'

<사진 134>는 영락리 서원옥 씨가 ‘멜젓’을 담아 먹는 ‘조막단지’이다. 방문 당시 작년에 담은 ‘멜젓’이 그대로 있었다. <사진 135>는 상모1리 권홍일 씨(1939년생) 집에 있는 ‘단지’이다. 권 씨의 아내는 올해도 ‘자리젓’을 담아 놓았으나 4월에 돌아가셨다.

“이거 멜젓. 다 녹아불었지. 겉데긴 엊지. 멜 솔지민 뭐 이 봄에 담든 가을에 담든 솔지민 멜젓 담아. 이거 다 녹아불었네, 베려봐 없어, 없어.”⁵¹⁾

(이거 ‘멜젓’. 다 녹아버렸지. 겉더기는 없지. 멀치 살찌면 뭐 이 봄에 담든 가을에 담든 살찌면 ‘멜젓’ 담아. 이거 다 녹아버렸어. 봐봐 없어, 없어.)

“자리젓 할망 거 해 된 먹지도 못행 가 불었어. 저 사 월달에. 계난 마음이 마음이 아니라.”⁵²⁾

(자리돔젓 할머니(아내) 거 해 두고 먹지도 못해서 가 버렸어. 저 사 월달에. 그러니

51) 영락리 서원옥 씨 구술.

52) 상모1리 권홍일 씨 구술.

까 마음이 마음이 아니야.)

<사진 136>은 안성리 양군자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조막단지’이다. 대정읍에서 구운 항아리이다. 주로 ‘멜젓’이나 ‘자리젓’, 장아찌 등을 담아서 먹었다.

“(양)조막단지엔 허는가. 멜젓, 자리젓, 장아찌 그튼 거. (이) 멜젓 같은 거 허고 웬장 조금만 시민 웬장도 이레 땡 놓고.”⁵³⁾

(조막단지라고 하는가. ‘멜젓’, ‘자리돔젓’, 장아찌 같은 거. (이) ‘멜젓’ 같은 거 하고 된장 조금만 있으면 된장도 여기 떠 놓고.)



<사진 136> 양군자 씨 소장 '조막단지'



<사진 137> 강순화 씨 소장 '조막단지'



<사진 138> 강태월 씨 소장 '조막단지'

<사진 137>은 가파리 강순화 씨 집에 있는 여러 개의 ‘조막단지’이다. 육지 지방에서 생산한 항아리이다. <사진 138>은 상모1리 강태월 씨가 사용하였던 ‘조막단지’이다.

(4) 추니

‘추니’는 술 따위를 담는 준(樽)이다. 제주 전통술인 오메기술이나 고소리술 등 소주를 담을 때 썼다. 대정읍에서는 ‘술추니’라고도 하였다. <사진 139>는 가파리 강순화 씨가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추니’이다. 강 씨는 간장 담는 용도로 추니를 사용하였다.

53) 안성리 양군자, 이신백 부부 구술. 구술에서 양군자 씨는 '(양)', 이신백 씨는 '(이)'로 표기하였다.

“솔랑한 건 거 추니. 장물 놔난 거, 된장 담곡, 보리장 담곡, 아이고. 추니는 장물 담으민 숨질 안 허여. 땀 구녁초록 숨 쉰댄. 표준말론 숨 쉰댄 말이지. 옛날 거라, 옛날 거. 계난 저건 친정어명. 친정어명도 가파도.”⁵⁴⁾

(기름한 것은 거 추니. 간장 놔던 거, 된장 담고, 보리장 담고, 아이고. 추니는 간장 담으면 숨지 안 해. 땀 구멍처럼 숨 쉰다고. 표준말로는 숨 쉰다는 말이지. 옛날 거야, 옛날 거. 그러니까 저것은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도 가파도.)



〈사진 139〉 강순화 씨 소장 ‘추니’



〈사진 140〉 고일화 씨 소장 ‘술추니’

〈사진 140〉은 신평리 고일화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술추니’이다. 고 씨는 주로 오메기술을 담아두고 방 한쪽에 보관하면서 먹었다. 밭일을 하기 때문에 주로 집에 있는 아침, 저녁 시간에 한 잔씩 마셨다고 한다.

“이건 우리 어머니 적에 산 거난, 어머니 쓰단 거 우린 물림 받은 거. 술을 이것에 담아 먹어낫주. 오메기술도 담고 그냥 소주도 이것에 보관해나고. 그건 방에 보관해 근에 겨울철엔 싸곡 경 안 허문 그냥 두곡, 여름철에는. 거리명도 먹곡 그대로, 그대로 도 먹고 혜난 건디. 담양 먹는 거는 걸른다고 해서 술은 이 챇망식으로 헌 그릇을 놔근에 짜. 짜근에 그 주시는 데지도 주곡 소도 주곡 혜난. 그때 술을 놔둠서 먹주게. 그 오메기술이엔도 허고 청주엔도 허곡. 너무 차가우면 얼어부는 수가 있으니까 그 흐꼼 방 한쪽 구석에 영 흐꼼 막아야 온도가 있어야지. 경 안 허민 시어불영 먹지 못허질게. 한

54)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쪽 구석에 놓 온도 조절을 해서 시지 안 해영 먹기가 좋아. 계난 (밧디) 갓다 와서 먹곡 또 아침에 먹고.”⁵⁵⁾

(이것은 우리 어머니 적에 산 거니까, 어머니 쓰던 거 우리는 물림 받은 거. 술을 이것에 담아서 먹었어. ‘오메기술’도 담고 그냥 소주도 이것에 보관했어. 그건 방에 보관해서 겨울철에는 두르고 그렇지 안 하면 그냥 두고, 여름철에는. 거리면서도 먹고 그대로, 그대로도 먹고 했던 건데. 담아서 먹는 거는 걸른다고 해서 술은 이 챃망식으로 한 그릇을 놔서 짜. 짜서 그 찌꺼기는 돼지도 주고 소도 주고 했어. 그때 술을 놔두고 먹어. 그 ‘오메기술’이라고도 하고 청주라고도 하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 조금 방 한쪽 구석에 이렇게 조금 막아야 온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안 하면 시어버려서 먹지 못하지. 한쪽 구석에 놔서 온도 조절을 해야 시지 안 해서 먹기가 좋아. 그러니까 (밭에) 갓다 와서 먹고 또 아침에 먹고.)

〈사진 141〉은 안성리 조수범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추니’이다. 현재는 다른 잡동사니를 담아두고 있었다. 〈사진 142〉는 영락리 고동열 씨의 어머니가 썼던 ‘술추니’이다.

“어머니가 담가 준 거 먹어낫주. 조 막걸리, 오메기술. 돌아가기 전까지 막 담았는데.”⁵⁶⁾

(어머니가 담가 준 거 먹었어. 조 막걸리, ‘오메기술’.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이 담았는데.)



〈사진 141〉 조수범 씨 소장 ‘추니’



〈사진 142〉 고동열 씨 소장 ‘추니’

55) 신평리 고일화 씨 구술.

56) 영락리 고동열 씨 구술.

〈사진 143〉은 안성리 임영배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추니’이다. 예전에는 집안의 큰일을 치르려면 술을 ‘추니’로 몇 개씩 마련하였다. 술공장에서 판매하는 추니는 사진처럼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위에 손잡이가 달렸다.

“술도감이라고 해서 옛날 적에 술을 딱 직히 면서이 손님 오면은 초잔 중잔 석 잔 더는 주도 안 허여. 이거 삼 잔이우다. 따라 주는 건 술 따라 주는 아이가 또 있주. 술 도감은 전체적으로 그만이 앗아근에 술 지키는 사름이 있고 그다음 술 따라다근에 따르는 아이덜이, 건 아이덜. 꼭 손님 오면은. 석 잔은 주도 안 허여.”⁵⁷⁾

(‘술도감’이라고 해서 옛날 적에 술을 딱 지키면서 손님 오면은 초잔 중잔 석 잔 더는 주지도 안 해. 이거 삼 잔이우다. 따라 주는 건 술 따라 주는 아이가 또 있어. 술 도감은 전체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술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술 따라다가 따르는 아이들이, 그건 아이들. 꼭 손님 오면은. 석 잔은 주지도 안 해.)

(5) 장테

‘장테’는 양푼 모양으로 만든 질그릇이다. ‘장테’는 항아리의 뚜껑으로 쓰이거나 물을 받아 놓고 설거지하는 그릇으로도 쓰였다. 항아리의 뚜껑으로 쓰이는 장테는 바닥면이 고르고 깊다. 설거지 용도로 쓰이는 ‘장테’는 얕고 밖으로 펴진 형태이다.



〈사진 143〉 임영배 씨 소장 ‘추니’



〈사진 145〉 김희정 씨 소장 ‘장테’(안)

57) 안성리 임영일 씨 구술.



〈사진 143〉 임영배 씨 소장 ‘추니’

〈사진 144〉는 신평리 김희정 씨(193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개장테’이다. 항아리의 뚜껑으로 쓰인다. 〈사진 145〉는 김 씨의 ‘장테’를 뒤집은 모습이다. 대정읍 노랑굴에서 구운 ‘장테’이다. 장테’의 지름은 약 43cm, 깊이는 약 13cm이다.

“개장테. 항아리 위에 더끄니까 개장테라고. 지프게 멘드는 거, 이건. 옛날도 경 헤난. 이거 개장테, 셋지비장테 뭐 둘이 이름이 하. 그거는 뭐 설거지도 하고 채소 무침 때 무침도 허고. 경 사용하는 거. 영 벤주룩 헌 거 있어. 납작허지 안 허고 영 베주룩허게.”⁵⁸⁾

(‘개장테’. 항아리 위에 덮으니까 ‘개장테’라고. 깊게 만드는 거, 이것은. 옛날도 그렇게 했어. 이거 ‘개장테’, ‘셋지비장테’ 뭐 질그릇 이름이 많아. 그거는 뭐 설거지도 하고 채소 무침 때 무침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 이렇게 얕게 한 거 있어. 납작하지 안 하고 이렇게 얕게.)



〈사진 146〉 양군자 씨 소장 ‘장테’



〈사진 147〉 윤우미자 씨 소장 ‘장테’

〈사진 146〉은 안성리 양군자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서 썼던 ‘장테’이다. ‘장테’가 크고 깊다. 그런데 일부 갈라져서 금이 생겼다. 〈사진 147〉은 안성리 윤우미자 씨가 썼던 ‘장테’이다.

“장테엔 허주. 나 써난 거. 나 이거 시집오랑 물려받은 거.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옛날에 이 안성리에서 구운 거. 지경은 인성인데 거기서도 구워낫어.”⁵⁹⁾

(‘장테’라고 하지. 나 썼던 거. 나 이거 시집와서 물려받은 거.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옛날에 이 안성리에서 구운 거. 지경은 인성인데 거기서도 구웠어.)

58) 신평리 김희정 씨 구술.

59) 안성리 양군자 씨 구술.

〈사진 148〉은 안성리 윤우미자 씨가 사용하였던 ‘장테’이다. 〈사진 149〉는 〈사진 148〉의 ‘장테’를 뒤집은 모습이다. ‘장테’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대정읍에서 생산된 ‘장테’로 오래되었다.



〈사진 148〉 윤우미자 씨 소장 ‘장테’



〈사진 149〉 윤우미자 씨 소장 ‘장테’

〈사진 150〉은 안성리 이봉녀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테’이다. 이 씨가 항아리에 된장을 담고 친을 써워서 입구를 봉한 뒤 다시 ‘장테’로 덮었다. 〈사진 151〉은 신도1리 이부자 씨가 구입한 ‘장테’이다. 육지 지방에서 생산한 항아리 뚜껑이다.



〈사진 150〉 이봉녀 씨 소장 ‘장테’



〈사진 151〉 이부자 씨 소장 ‘장테’

“저건 장테엔 해. 저건 나가 산 거. 내중 그릇이라 저건. 이제사 난 거. 이젠 이런 빨간, 옛날 촌에서 굴 구운 거 엿어. 이런 장테 닮은 것만 있지.”⁶⁰⁾

(저것은 ‘장테’라고 해. 저것은 내가 산 거. 나중 그릇이라 저것은. 이제야 나온 거. 이제는 이런 빨간, 옛날 촌에서 가마 구운 거 없어. 이런 ‘장테’ 닮은 것만 있지.)



〈사진 152〉 고순열 씨 소장 ‘장테’



〈사진 153〉 김춘희 씨 소장 ‘장테’

〈사진 152〉는 신도1리 고순열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장테’이다. 〈사진 153〉은 가파리 김춘희 씨(1944년생)가 구입하여 쓰고 있는 항아리와 ‘장테’이다. 집 한 켠에 작은 항아리들이 나란히 놓여져 있다. 육지 지방에서 생산한 항아리와 뚜껑이 여럿 있다.

“산 거. 배델 풀레 들어와 낫주게. 육지 어디서 오는 건 몰라.”⁶¹⁾
(산 거. 배들 팔려 들어왔었어. 육지 어디서 오는 건 몰라.)

(6) 약탕기

‘약탕기’는 탕약을 달일 때 쓰는 질그릇이다. ‘약탕관’이라고도 한다. 〈사진 154〉는 안성리 양군자 씨가 구입하여 썼던 ‘약탕관’이다. 〈사진 155〉는 안성리 윤우미자 씨가 40대에 구입한 ‘약탕기’이다. 집에서 약을 달여서 먹었다.

60) 신도1리 이부자 씨 구술.

61) 가파리 김춘희 씨 구술.

“저 약탕기는 우리가 사온 거, 장에서. 약탕관 접시 놔근에, 접시 가리청.”⁶²⁾
 (저 약탕기는 우리가 사온 거, 장에서. 약탕관 접시 놔서, 접시 뒤집어서.)

“거 하르방 아프기 전이 그거 나 혼 마흔네 설에부터 허리 수술허연에 약 딸리멍 먹어난. 지금은 안 쓰난 저디 엎엉 놔뒀지.”⁶³⁾

(거 할아버지(남편) 아프기 전에 그거 나 한 마흔네 살에부터 허리 수술해서 약 달이면서 먹었어. 지금은 안 쓰니까 저기 엎어서 놔뒀지.)



〈사진 154〉 양군자 씨 소장 '약탕관'



〈사진 155〉 윤우미자 씨 소장 '약탕기'



〈사진 156〉 임영배 씨 소장 '허벽'



〈사진 157〉 서원옥 씨 소장 '물허벽'

“이건 허벽, 물허벽. 물 구덕에 놓 정 오랑 영 허영 비왕. 이젠 수도 나난 경해도 수도 나기 전인 이걸로 우물에 강 물 쪘당 먹어난 거주게. 대구덕에 놓 지영 영 헤영 옆으로 비우민 풍퐁 나오주게. 다 경 지는 거 아냐. 우리 이디 우물 잊어낫아. 그 물 먹단 수도 나난에. 이 훠판 짓은 디 잊어난.”⁶⁴⁾

(이것은 허벽, 물허벽. 물 바구니에 놔서 져 와서 이렇게 해서 비워. 이제는 수도 나니까 그렇게 해도 수도 나기 전에는 이걸로 우물에 가서 물 쪻다가 먹었던 거지. 대바구니에 놔서 져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비우면 풍퐁 나오지. 다 그렇게 지는 거 아냐. 우리 여기 우물 있었어. 그 물 먹다가 수도 나니까. 이 희관 짓은 데 있었어.)



〈사진 158〉 김성군 씨 소장 '허벽'



〈사진 159〉 김성군 씨 소장 '허벽'

〈사진 158〉, 〈사진 159〉는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허벽'이다. 물을 쪻 나를 때 썼다. 〈사진 160〉은 김성군 씨 집에 진열해놓은 옹기들이다. 항아리 위에 올린 옹기는 '허벽능생이', '물허벽', '대배기' 등이다.

2.3.2. 허벽류

(1) 허벽

'허벽'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좁은 동이다. 허벽은 쓰임새에 따라 허벽의 모양이나 아가리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물을 길어 나를 때 쓰는 '물허벽', 술을 담는 '술허벽', 죽을 담는 '죽허벽', 씨를 담아 두는 '씨허벽' 등이 있다. '대배기'는 허벽보다 작으며, 물을 길어 나를 때 사용한다. 주로 아이들이 쓰는 동이로 '애기대배기'라고도 한다. 〈사진 156〉은 안성리 임영배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허벽'이다. 임 씨의 외할머니가 사용하던 것이다. '허벽'은 노랑굴에서 구워냈다. 〈사진 157〉은 영락리 서원옥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물허벽'이다. 동네 우물에서 물을 쪻 나를 때 사용하였다.

62) 안성리 양군자 씨 구슬.

63) 안성리 윤우미자 씨 구슬.

64) 영락리 서원옥 씨 구슬.

‘허벽능생이’는 ‘능생이’라고도 한다. 허벽의 모양과 크기는 같고, 부리가 허벽보다 낮고 넓다. 김성군 씨는 주로 곡식이나 씨를 보관하는 용도로 썼다.

“옛날에 그 곡식 담을 적에 팔 거든 거 이런 거 담아서, 곡식 보관용. 먹을 것도 보관하고 씨도 보관하는 거지.”⁶⁵⁾

(옛날에 그 곡식 담을 적에 팔 같은 거 이런 거 담아서, 곡식 보관용. 먹을 것도 보관하고 씨도 보관하는 거지.)

(2) 대베기

‘대베기’는 물을 길어 나르는 작은 동이다. ‘대바지’라고도 한다. 모양이 둥그스름하여서 가운데 배는 불룩하고 위아래는 졸아지되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게 되었다. 〈사진 161〉은 안성리 윤우미자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대베기’이다. 밭에 다닐 때 물을 담고 다녔다.

“대베기 우리 밧디 땅길 때 물 질어근에 가난 거. 물뺑 대력. 이건 밧디만 땅겨난 거. 우리 죽장 췄주게. 그때는 뭐 플라스틱이 시카 죽장 밧디 저걸로 물 하나 담아근에, 지어 아져근에 땅겼주게. 얘기 구덕 트멍에 놓고.”⁶⁶⁾

(‘대베기’ 우리 밭에 다닐 때 물 길어서 갔던 거. 물병 대신. 이건 밭에만 다녔던 거. 우리 쪽 썼지. 그때는 뭐 플라스틱이 있나 쪽 밭에 저걸로 물 하나 담아서, 져 가지고 다녔어. 애기 구덕 틈에 놓고.)



〈사진 160〉 김성군 씨 소장 ‘허벽능생이’, ‘물허벽’, ‘대베기’



〈사진 161〉 윤우미자 씨 소장 ‘대베기’

65)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66) 안성리 윤우미자 씨 구술.

(3) 두병들이

‘두병들이’는 대베기처럼 불룩한 동이 모양에 목은 길고 입은 둥글다. 고소리술을 닦을 때 술을 받는 그릇이다. 〈사진 162〉는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서 썼던 ‘두병들이’다. 신평리 가마에서 구워냈다. 고소리술을 받을 때 주로 사용하였다. 술을 담아서 놔둘 수도 있다고 한다.



〈사진 162〉 김성군 씨 소장 ‘두병들이’

“이거는 옛날에 술을 많이 담아서 놔둘 때 이것에 담아 놔뒀지. 옛날에는 집이서 거의 다 소주해서, 집이서 술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헐 때는 조금 햇지. 옛날에 고소리해가지고 소주 다끌 적에 저거를 고소리 술 나오는 데 대어서 술 받아. 게해야 술 알콜 뭐가 날라가지 못하잖아.”⁶⁷⁾

(이것은 옛날에 술을 많이 담아서 놔둘 때 이것에 담아서 놔뒀지. 옛날에는 집에서 거의 다 소주해서, 집에서 술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할 때는 조금 햇지. 옛날에 고소리해가지고 소주 빚을 적에 저것을 고소리 술 나오는 데 대어서 술 받아. 그렇게 해야 술 알콜 뭐가 날아가지 못하잖아.)

2.4. 제기(祭器)

‘제기’는 제례(祭禮)에서 사용되는 그릇 및 관련 도구이다. 제기는 일상에서 쓰는 식기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제사 때만 꺼내어 쓴 뒤 정리하여 별도로 보관하였다. 〈사진 163〉은 신평리 현갑생 씨 집에 있는 ‘제기보관함’이다. 보관함은 대바구니로 만들었다. 현갑생 씨 시할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다시 시어머니가 현갑생 씨에게 대바구니와 함께 제기를 물려주었다. 현 씨는 대바구니가 낡아서 천을 덧대어 발랐다. 〈사진 164〉는 제기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여러 놋제기이다. 놋제기는 비닐에 한번 담고 다시 바구니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다.

67)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사진 163〉 현갑생 씨 소장 '제기보관함'



〈사진 164〉 현갑생 씨 소장 '놋제기'



〈사진 165〉 현갑생 씨 소장 '수바끼'



〈사진 166〉 현갑생 씨 소장 '멧그릇'



〈사진 167〉 현갑생 씨 소장 '켕그릇'



〈사진 168〉 현갑생 씨 소장 '켕그릇'

“(현)시부모안테 물린 거. 이거채 물려받은 거. 이 바구미꺼지. 바구미는 막 허니까 나대로 불랑 도비햇어. 시어머니도 이거 물려온 거지. 대대 물려온 거라 이거. 우리 시 어머니가 산 그릇이 아니라. 또 할망 때부터. (고) 그 놋그릇 어머니, 아버지도 써나고 할아버지 대부분 써 온 거렌 허난 아주 오랫지. 그 전에는 더 많이 잊어낫는데 일제말 기에 웨정 때 웨놈덜이 전쟁 물자 부족해 가니까 그런 것덜 다 빼앗아 가불었다고. 제 라한 것덜 잊었는디 빼앗아 가불어서 그거 일부분만 남았는디.”⁶⁸⁾

((현)시부모한테 물린 거. 이거째 물려받은 거. 이 바구니까지. 바구니는 아주 낡으니까 나대로 빌라서 도배했어. 시어머니도 이거 물려온 거지. 대대 물려온 거야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산 그릇이 아니라. 또 할머니 때부터. (고) 그 놋그릇 어머니, 아버지도 썼고 할아버지 대부분 써 온 거라고 하니까 아주 오래됐지. 그전에는 더 많이 있었는데 일제말기에 왜정 때 웨놈들이 전쟁 물자 부족해 가니까 그런 것들 다 빼앗아 가버렸다고. 정말 좋은 것들 있었는데 빼앗아 가버려서 그거 일부분만 남았는데.)

(1) 멧그릇, 쟁그릇

‘메’와 ‘깽(羹)’은 제사 때에 신위 앞에 올리는 밥과 국이다. ‘멧그릇’은 제사 때 ‘메’를 뜯 때 사용하는 그릇이고, ‘깽그릇’은 ‘깽’을 뜯는 그릇이다.

제기는 놋그릇으로 마련하였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낭제기’도 썼다. 놋그릇은 일제강점기 때 공출 대상이었다. 이때 집에서 쓰던 많은 놋제기가 강탈되었다. 〈사진 165〉는 신평리 현갑생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수바끼’이다. ‘수바끼’는 놋쇠로 만든 여자의 밥그릇이다. 표준어 ‘바리’에 대응하는 제주 방언이다. 〈사진 166〉은 신평리 현갑생 씨 집에서 썼던 ‘멧그릇’이다.

68) 신평리 현갑생, 고원명 씨 부부 구술.

“나룩씩 막 부벼가지고 부구락허게 멘들아 가지고 불치하고 묻혀 가지고 다깟지. 얼마나 힘들어?”⁶⁹⁾

(벗짚 마구 비벼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재하고 묻혀 가지고 닦았어. 얼마나 힘들어?)

69) 신평리 현갑생 씨 구술.



〈사진 169〉 임영배 씨 소장 '멧그릇'과 '갱그릇'



〈사진 170〉 이부자 씨 소장 '멧그릇'과 '게영그릇'

〈사진 169〉는 안성리 임영배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멧그릇'과 '갱그릇'이다. 외할머니가 썼던 놋그릇을 물려받았다. 〈사진 170〉은 신도1리 이부자 씨 집에서 썼던 '멧그릇'과 '게영그릇'이다. '갱'은 달리 '게영'이라고도 한다. 스테인리스로 된 그릇이다.

“저 우이 건 계지엔 헌다만은. 멧그릇이주, 메 거리는 거. 저 게영 거리는 국사발이지. 생성으로 허주게. 옛날엔 미역 놋어. 무는 내중에딜 햇주. 아맹해도 저런 건 부산서 삿어. 우리 어머니가 부산서 사난 가민 벨 거엔 사줬어.”⁷⁰⁾

(저 위의 것은 '계지'라고 한다만은 '멧그릇'이지. '메' 거리는 거. 저 '갱' 거리는 국사발이지. 생성으로 하지. 옛날에는 미역 놋어. 무는 나중에들 했지. 아무래도 저런 건 부산서 삿어. 우리 어머니가 부산에 사니까 가면 별 거라고 사줬어.)

(2) 놋수저

'놋수저'는 놋쇠로 만든 숟가락과 젓가락이다. 〈사진 171〉은 신도1리 이부자 씨 집에서 썼던 '놋숟가락'과 '쇳숟가락'이다. 이 씨는 제사 때 놋수저를 올렸으나 현재는 놋숟가락만 남았다. 놋숟가락 이후에는 '쇳숟가락'을 사용하였다.



〈사진 171〉 이부자씨 소장 '숟가락'



〈사진 172〉 현갑생 씨 소장 '놋숟가락'과 '접음'

70) 신도1리 이부자 씨 구술.

“젓가락 그튼 거영 다 일려불언. 어드레사 가불어신디. 젓가락도 잊어낫어, 저것에. 제사할 때만. 그 불채로 혜근에 막 따끄민 노랑해여.”⁷¹⁾

(젓가락 같은 거랑 다 잊어버렸어. 어디에 가버렸는지. 젓가락도 있었어, 저것에. 제사할 때만. 그 재로 해서 마구 닦으면 노랑했어.)

〈사진 172〉는 신평리 현갑생 씨 집에서 썼던 '놋숟가락'과 '접음'이다. '접음'은 표준어 젓가락에 해당한다. 현 씨의 시할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물려준 것을 다시 현 씨가 물려받았다. 놋숟가락의 손잡이가 전체적으로 아주 가늘다. '접음'은 등글고 길이가 긴 편이었다.

“이거 진 거, 이거는 아주 대감덜 먹는 접음이라. 높은 사름. 그때도 높은 사름 먹는 거. 이런 거 있는 집이 없어. 식게 때만 올려근에, 이거 쓰지 안 허여.”⁷²⁾

(이거 긴 거, 이것은 아주 대감들 먹는 젓가락이야. 높은 사람. 그때도 높은 사람 먹는 거. 이런 거 있는 집이 없어. 제사 때만 올리고, 이거 쓰지 안 해.)

(3) 술잔, 잔대

'술잔'은 술을 따라서 올리는 데 쓰인다. '잔대'는 잔을 받치는 접시 모양의 그릇이다. 〈사진 173〉은 신평리 현갑생 씨 집에서 썼던 놋쇠로 만든 '술잔'이다. 〈사진 174〉는 현 씨의 집에서 제사 때 사용하였던 '잔대'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놋쇠로 만든 '잔대'이다.



〈사진 173〉 현갑생 씨 소장 '술잔'



〈사진 174〉 현갑생 씨 소장 '잔대'

〈사진 175〉는 안성리 임영배 씨 집에서 썼던 '술잔'이다. 사기로 만든 술잔으로 '사

71) 신도1리 이부자 씨 구술.

72) 신평리 현갑생 씨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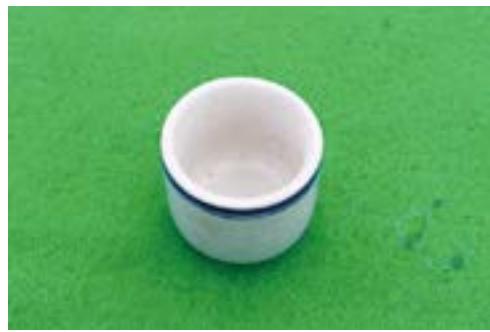
기술잔’이라고도 한다. 술잔의 문양이 조금씩 다르다. <사진 176>과 <사진 177>은 신평리 조두석 씨 집에서 썼던 ‘술잔’이다. <사진 176> 술잔 안에는 ‘ günc’가 새겨져 있다. <사진 177>의 술잔은 다른 술잔과 견주어 오목하다.



<사진 175> 임영배 씨 소장 ‘술잔’



<사진 176> 조두석 씨 소장 ‘술잔’



<사진 177> 조두석 씨 소장 ‘술잔’

(4) 정반

‘정반’은 표준어 ‘접시’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반찬이나 과일 등을 담을 때 쓰는 그릇이다. <사진 178>과 <사진 179>는 안성리 임영배 씨 집에 보관된 ‘모물정반’이다. 임 씨의 외할머니가 사용하였던 것을 물려받았다.

대정읍에서는 ‘메밀’을 가리켜 ‘모물’이라고 하였다. 그릇 내면 바닥에 동그란 점 자국들은 그릇을 포개어 구워낼 때 그릇 사이에 넣었던 모래 때문에 생겼다. 과거에는 그릇의 굽이 불지 않도록 모래를 깔았다. 제주에서는 이를 ‘눈’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물정반’을 달리 ‘눈돋은 접시’라고도 하였다. 큰일 때에 돼지고기 석 점과 순대 한 점을 넣은 ‘고깃반’을 대접할 때도 썼다.



<사진 178> 임영배 씨 소장 ‘모물정반’1



<사진 179> 임영배 씨 소장 ‘모물정반’2



<사진 180> 임영배 씨 소장 ‘모물정반’3



<사진 181> 조두석 씨 소장 ‘정반’

<사진 181>은 신평리 조두석 씨 집에서 썼던 ‘정반’이다. 달리 ‘사라(さら)’라고도 하였다.

(5) 촛대, 상합, 향로

‘촛대’는 초를 끊어 불을 밝혀 둘 수 있게 만든 기구이다. <사진 182>는 안성리 임영배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촛대’이다. 임 씨의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것을 다시 임 씨가 물려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가마에서 구워낸 촛대이다. <사진 183>은 신평리 현갑생 씨 집에 보관된 ‘놋촛대’이다. 시할머니 대부분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놋제기 가운데 하나이다.

“이거는 제사할 때 촛대라 이거. 이레 촛불 싸. 제 지낼 때 이레 초 꼽아 가지고. 이거 쓰면 청소행 놔두기가 힘들지.”⁷³⁾

73) 신평리 현갑생 씨 구술.

(이것은 제사할 때 촛대야 이거. 여기 촛불 켜. 제 지낼 때 여기 초 꽂아가지고. 이 거 쓰면 청소해서 놔두기가 힘들지.)



〈사진 182〉 임영배 씨 소장 '촛대'



〈사진 183〉 현갑생 씨 소장 '촛대'

'상합'은 향을 담아 두기 위해 만든 합이다. 표준어 '향합'에 해당한다. 〈사진 184〉는 영락리 송한진 씨 집에서 쓰는 놋쇠로 만든 '상합'이다. 예전에는 향나무를 잘게 쪼개어 향불을 피웠다. 이를 제주에서는 '상가지' 또는 '상껍'이라고 한다.

"향나무 사단 쪼개영 썼주게. 장에 가면 거 예전에 많이 잊어나신디. 향나무 가지털 해단 파는 사름덜. 저거는 제사 때마다 따끄젠 허민 힘들어 가지고. 찍, 옛날에 모래 뭐로 따까도 잘 안 따까져."⁷⁴⁾

(향나무 사다가 쪼개서 썼어. 장에 가면 거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향나무 가지들을 해다가 파는 사람들. 저거는 제사 때마다 닦으려고 하면 힘들어 가지고. 짚, 옛날에 모래 뭐로 닦아도 잘 안 닦아져.)



〈사진 184〉 송한진 씨 소장 '상합'



〈사진 185〉 송한진 씨 소장 '향로'

〈사진 185〉는 영락리 송한진 씨 집에서 쓰는 '놋향로'이다. 향로는 향을 피우는 데 쓰는 작은 화로이다. 제사 때 잘게 쪼갠 향나무 가지를 '상합'에 준비해두었다가 향로에 조금씩 담아서 향을 피웠다.

(6) 탕쉬그릇

'탕쉬'는 고사리, 콩나물 따위를 삶아 침깨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에 쓰는 나물이다. '탕쉬그릇'은 작은 접시나 보시기를 사용하였다. 〈사진 186〉은 신평리 조두석 씨 집에서 썼던 '보시'이다. '보시'는 '보시기'를 가리킨다.



〈사진 186〉 조두석 씨 소장 '보시'

(7) 죽절펭, 술펭

'죽절펭'은 술이나 물을 담는 병이다. 〈사진 187〉은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서 사용하였던 '죽절펭'이다. 제사 때 고소리술과 같은 청주를 담아서 상에 올리는 데 쓰였다. 이 '죽절펭'은 신평리 가마에서 구워낸 질그릇이다.



〈사진 187〉 김성군 씨 소장 '죽절펭'

"옛날에 제사할 때 술 담아난 거지. 옛날엔 유리 술이 아니고 항아리에 탁주 만들고 혈 때 여기서 담아서 제사 때 올리고 헤낫주. 죽절병째 올렸단 따를 때는 잔에 따르는 거지. 이것째 올렸다가 나중에 한 잔, 두 잔 혈 때는 잔에 따르지.⁷⁵⁾
(옛날에 제사할 때 술 담았던 거지. 옛날에는 유리 술이 아니고 항아리에 탁주 만들고 할 때 여기서 담아서 제사 때 올리고 했어. 죽절병째 올렸다가 따를 때는 잔에 따르는 거지. 술 올릴 때는 병째 올리는 거지. 이것째 올렸다가 나중에 한 잔, 두 잔 할 때는 잔에 따르지.)

〈사진 188〉, 〈사진 189〉는 안성리 임영배 씨의 외할머니가 사용하였던 '술펭'이다.

74)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75)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것을 다시 임 씨가 물려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노랑굴에서 구워낸 질그릇이다. 일부 손상된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깨끗한 상태이다.



〈사진 188〉 임영배 씨 소장 '술펭' 1



〈사진 189〉 임영배 씨 소장 '술펭' 2

(8) 젯자리

‘젖자리’는 ‘제석(祭席)’을 말한다.

〈사진 190〉은 상모1리 강태월 씨 집에서 쓰는 ‘젖자리’이다.

“저거 제사 때 쓰는 거야. 저거 상 앞이, 영 펭풍 쳐 놓고 이제 하르방 상이나 상 뭐 출려놓지. 출려 놓면은 저 디서 절 헐라면은 또 저 앞에 경행 절 헤는 거. 저거 쓰단 거 왔어. 우리 동서네 집이서. 혼 이십 년은 됐어. 아, 시어머니 제서헐 때 헌 거난 한 사십 년 됐다. 아덜이 아직도 저거 썹서.”⁷⁶⁾

(저거 제사 때 쓰는 거야. 저거 상 앞에, 이렇게 병풍 쳐 놓고 이제 할아버지 상이나 상 뭐 차려놓지. 차려 놓으면 저기서 절 하려면 또 저 앞에 그렇게 해서 절하는 거. 저거 쓰단 거 왔어. 우리 동서네 집에서. 한 이십 년은 됐어. 아, 시어머니 제사할 때 한 거니까 한 사십 년 됐다. 아들이 아직도 저거 쓰고 있어.)



〈사진 190〉 강태월 씨 소장 '젖자리'

76) 상모1리 강태월 씨 구술.

3. 주생활

제주의 전통 가옥은 1970년대에 일었던 새마을운동과 함께 시작한다. 이 시기부터 마을 안길이 확장되고 지붕과 부엌 등의 가옥 구조가 개량되었다. 이러한 주거 양식의 변화는 주거 관련 도구들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장에서는 주생활 관련 도구를 집 구조, 가재도구, 난방도구, 연장류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3.1. 집 구조

(1) 정주석

‘정주석’은 ‘정낭’을 걸칠 수 있도록 집의 어귀 양쪽에 설치한 돌기둥이다. ‘정낭’을 걸칠 수 있게 구멍이 세 개 정도 뚫려 있다. 보통 돌로 만든 것을 ‘정주석’, 나무로 만든 것을 ‘정주목’이라고 하는데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정주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거 우리 아부지 때 전이부터 잇어십주. 원래 조금 앞이 잇었던 집 새로 집 지으명, 원래 집은 좀 앞이 잇어낫주양.”¹⁾

(이거 우리 아버지 때 전에부터 있었죠. 원래 조금 앞에 있었던 집 새로 집 지으면서, 원래 집은 좀 앞에 있었죠.)

“(정주석이 옛날에 집집마다) 거의 잇었지. 뭐냐면 옛날에는 전부 정 놔 가지고 어

1)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디 나갈 때 다녔거든. 정 세 개 다 놓으민 사름 없는 거고. 또 하나만 놔시면은 어디 금방 나간 거고. 세 개 다 놓으면 아주 멀리 강 사람 안 온다고.”²⁾

((‘정주석’이 옛날에 집집마다) 거의 있었지. 뭐냐면 옛날에는 전부 ‘정’ 놔 가지고 어디 나갈 때 다녔거든. ‘정’ 세 개 다 놓으면 사람 없는 거고. 또 하나만 놨으면 어디 금방 나간 거고. 세 개 다 놓으면 아주 멀리 가서 사람 안 온다고.)

“나 태어나기 전이부터 이 집터에 있었주. 계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허는 얘기가 이것이 한 짐이렌 허는 거라. 한 짐에 져 왔다 허는 거라. 구루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짐에. 이거 하나가 한 짐. 이거 아무나 못 집니다. 이거 지게보다 푸지게렌 헤근에 알지 몰라. 푸지게에 놔근에, 짚으로 만든 거에 냥 이렇게 한 짐에. 한 번 앉으면 일어서지 못하니까 쉬지도 말고 한 번에 와야 돼. 쉬면 일어서지 못하냔.”³⁾

(나 태어나기 전에부터 이 집터에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는 얘기가 이것이 한 짐이라고 하는 거야. 한 짐에 지고 왔다고 하는 거야. 수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짐에. 이거 하나가 한 짐. 이거 아무나 못 집니다. 이거 지게보다 ‘푸지게’라고 해서 알지 몰라. ‘푸지게’에 놔서, 짚으로 만든 거에 놔서 이렇게 한 짐에. 한 번 앉으면 일어서지 못하니까 쉬지도 말고 한 번에 와야 돼. 쉬면 일어서지 못하니까.)



〈사진 1〉 김성군 씨 댁의 ‘정주석’



〈사진 2〉 송한진 씨 댁의 ‘정주석’

〈사진 1〉은 신평리 김성군 씨(1935년생) 댁 정원에 놓여 있는 ‘정주석’으로, 집을 다시 지으면서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안쪽으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사진 2〉는 영락리 송한진 씨(1950년생) 댁 입구에 있는 ‘정주석’이다.

2)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3)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옛날에 본 건물이 여기쯤에 앉았고 저 앞에는 이문간거리가 우리 아부지가 지어서 살아낫어. 올레가 이쪽으로 잇어낫어, 이쪽에. 여기가 안거리고, 밧거리, 저쪽에는 옹기 만드는 움집이라고 셔낫어. 이 우영밧 허기 전에 여기 집 앉으니까 저쪽에 마당이 라낫지. 마당 옆에 놀도 놀고 그 옆에 움집이라고 옹기 만들어서 데미는 집이 잇어낫어. 아부지가 옹길 햇지. 옹기 대장은 아니고 옹기를 만들어 가지고 구워서 뭐 허고 햇지. 나 어릴 적에.”⁴⁾

(옛날에 본 건물이 여기쯤에 앉았고 저 앞에는 문간채가 우리 아버지가 지어서 살았었어. 올레가 이쪽으로 있었어, 이쪽에. 여기가 안채고, 바깥채. 저쪽에는 옹기 만드는 움집이라고 있었어. 이 텁발 하기 전에 여기 집 앉으니까 저쪽이 마당이었었지. 마당 옆에 가리도 가리고 그 옆에 움집이라고 옹기 만들어서 쌓는 집이 있었어. 아버지가 옹길 했지. 옹기 대장은 아니고 옹기를 만들어서 구워서 뭐 하고 했지. 내가 어릴 적에.)

(2) 안방

‘안방’은 곡식이나 세간살이 등을 보관하는 곳이다. 지역에 따라서 ‘고팡’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표준어의 ‘고방, 광’에 대응한다. ‘안방’은 집안 구조에서 보통 큰방에 이웃해 있는데, 이곳에 큰 항아리 등을 두고 항아리 안에는 곡식을 보관했다.

“이거 안방이랑주, 옛날. 고팡, 항아리 놓는 디. 쌀 항아리덜 놓는 디. 이건 방에 벽장. 이거 옛날 집 산 오란 저 문 내려앉으민 또 굽고 또 굽고 네 번 굽안, 나. 드러 멜라져, 드러 멜라져.”⁵⁾

(이거 안방이었지, 옛날. 고방, 항아리 놓는 데. 쌀 항아리들 놓는 데. 이건 방의 벽장. 이거 옛날 집 사고 와서 저 문 내려앉으면 또 갈고 또 갈고 네 번 갈았어, 나. 마구 무너져, 마구 무너져.)

“옛날에는 그 창고가 안방이라고 헤 가지고 골방이 따로 잇엇잖아. 거기다가 훈두 줄쯤 뒤게 해서 캄캄하게 해서 한쪽에 창고망 요만이 베끼 안 나와. 캄캄허지. 전기불도 엇고 헌디 거기 다 줄로 놔 가지고 계민 주인은 알지. 어느 항에 뭐 논 거 다 알주.”⁶⁾

(옛날에는 그 창고가 ‘안방’이라고 해서 골방이 따로 있었잖아. 거기다가 한 두 줄쯤

4)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5) 영락리 김정선 씨 구술.

6)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되게 해서 컴컴하게 해서 한쪽에 창구멍 요만하게밖에 안 나와. 캄캄하지. 전기불도 없고 하는데 거기 다 줄로 놔서 그럼 주인은 알지. 어느 항아리에 뭐 놓을 거 다 알지.)

영락리 김정선 씨(1942년생)는 ‘안방’을 ‘고꽝’이라고 했다. ‘안방’에 쌀 항아리들을 놓아 두었다고 한다. 신평리 김성군 씨에 의하면 ‘안방’은 한쪽에 아주 작은 창구멍밖에 없었기 때문에 캄캄했다고 한다. 거기에 항아리를 줄을 지어 항아리를 놓고 그 항아리에 곡식을 보관했다.

(3) 문

‘문’은 내부와 외부를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하여 트워 놓은 곳이나, 그곳에 달아 놓고 여닫게 만든 시설을 말한다. 그 위치나 목적, 재료, 여닫는 방법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저레 무뚱 이디 문 둘안에 이디 낭문 둘양 딱 더경. 마릿문, 마리 대문. 뒤에 건 뒷문. 이건 앞이난 대문.”⁷⁾

(저리 ‘무뚱’ 여기 문 달아서 여기 나무문 달아서 딱 닫아. 마루문, 마루 대문. 뒤에 건 뒷문. 이건 앞이니까 대문.)



〈사진 3〉 김정선 씨 댁의 ‘뒷문’(안쪽)



〈사진 4〉 김정선 씨 댁의 ‘뒷문’(바깥쪽)

〈사진 3〉과 〈사진 4〉는 영락리 김정선 씨 댁 마루의 ‘뒷문’이다. 〈사진 3〉은 마루 안쪽에서 본 모습이고, 〈사진 4〉은 집 바깥쪽에서 본 모습이다. 이 씨는 마루 앞쪽 문은 ‘마리 대문’, ‘대문’이라고 하였다.

“이 문은 집 개조하니까 옛날 문이난 이거 다 뜯어 뒤에 새로 맹근 거 저 문 아니 가.”⁸⁾

(이 문은 집 개조하니까 옛날 문이니까 이거 다 뜯어 두고 새로 만든 거 저 문 아니니.)



〈사진 5〉 홍옥춘 씨 댁의 ‘방문’



〈사진 6〉 권홍일 씨 소장 ‘문’

〈사진 5〉는 영락리 홍옥춘 씨(1932년생) 댁의 방문이다. 문살이 몇 개 뜯어져 있고, 문 아래쪽 부분까지 창호지를 발라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6〉은 상모1리 권홍일 씨(1939년생)가 창고 천장 밑에 보관하고 있는 문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하면서 뜯어내고 사진과 같이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7〉 김정선 씨 댁 뒷문의 ‘걸레’



〈사진 8〉 김정선 씨 댁 뒷문의 ‘걸레’

7) 영락리 홍옥춘 씨 구술.

8) 상모1리 권홍일 씨 구술.

〈사진 7〉과 〈사진 8〉은 영락리 김정선 씨 댁 마루 ‘뒷문’(〈사진 3〉)에 달려 있는 ‘걸체’다. ‘걸체’는 대문이나 방의 여닫이문을 잠그기 위한 장치로, 문 위 벽의 돌아나온 부분에 문에 달린 고리를 걸어 문을 잠그게 되어 있다.

(4) 마릿널

‘마릿널’은 마룻바닥에 깔아 놓은 널조각으로, 표준어의 ‘마루청’에 대응한다.

“이 마릿널 오래서. 그만 시라 보자이. 육십 년 육십 몇 년 됐지. 우리 큰아덜이 이디 왕 나난 가이가 가이가 오십다섯가. 경 됐지. 이 집 혼 스물다섯에 짓은 거라. 그 적에 다 헌 거지.”⁹⁾



〈사진 9〉 홍옥춘 씨 댁의 ‘마릿널’

(이) 마루청 오랬어. 가만 가만 있어 보라. 육십 년 육십 몇 년 돼. 우리 큰 아들이 여기 와서 낳으니까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오십 다섯인가. 그렇게 되었어. 이 집 한 스물다섯에 지은 거야. 그 적에 다 한 거지.)

〈사진 9〉는 영락리 홍옥춘 씨 댁의 ‘마릿널’이다. 홍 씨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어 이사를 왔는데, 약 6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 설치한 마루청이라고 한다.

(5) 물통

‘물통’은 물을 담아 두는 통이다. 집집마다 수도가 설치되기 전에 제주에서는 ‘허벽’으로 물을 길어다가 ‘물항’에 보관하여 물을 쓰기도 하고 물통을 만들어 빗물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었다.

“이거 물통, 물 많이 서난디 나 빠�에, 물이 아주 짚어. 저기 고기 널엇단에 들이젠히 명 나가 빠지난에 물이 이디 오난 나오지 못행, 미끌미끌 허연에. 겐 제우 나완에. 나 육십 대에. 그때 써나지 안해도 이 정도 물 서낫주게. 수돗물 나기 전이 저디 가근

9) 영락리 홍옥춘 씨 구술.

에 물 받고 물 채우명 헤낫주게. 경혜연 두께 헨 허단에 수돗물 개인 수도 허난 이거 나가 빠지고 허난 막아 불엇주. 한 육십대 육십대. (개민 개인 수도 생긴 거는 삼춘 멧설 때라?) 한 오십 대. 요 앞이영 여러 집이 허영 개인 수도 말고 저 수도 싯단에 개인 수도 웬 거 오래지 안허여. 막 늦게 생견. 한 이십 년 이십 년쯤 됐주. (아덜 장가보낼 때 수도 엊어난?) 수도 셔도 개인 수도 말고 공동 수도. 겐 물 시꺼단 먹고. (삼춘 시집왔을 때 물통 잊어낫수과?) 으, 물 이빠이 셔난. 그냥 신 냥 이디 영 이것만 막았주게.”¹⁰⁾

(이거 물통, 물 많이 있었는데 내가 빠져서, 물이 아주 짚어. 저기 고기 널었다가 들이려고 하면서 내가 빠지니까 물이 여기 오니까 나오지 못했어, 미끌미끌 해서. 그래서 겨우 나왔어. 내가 육십 대에. 그때 쓰지 않아도 이 정도 물 있었지. 수돗물 나오기 전에 저기 가서 물 받고 물 채우면서 했었지. 그래서 두경 해서 하다가 수돗물 개인 수도 하니까 이거 내가 빠지고 하니까 막아 버렸지. 한 육십대 육십대. (그럼 개인 수도 생긴 거는 삼춘 몇 살 때야?) 한 오십 대. 요 앞에랑 여러 집이 해서 개인 수도 말고 저 수도 있다가 개인 수도 된 거 오래지 않았어. 아주 늦게 생겼어. 한 이십 년 쯤 됐지. (아들 장가보낼 때 수도 없었어?) 수도 있어도 개인 수도 말고 공동 수도. 그래서 물 실어다 먹고. (삼춘 시집왔을 때 물통 있었습니까?) 으, 물 가득 있었어. 그냥 있는 양 여기 이렇게 이것만 막았지.)



〈사진 10〉 윤우미자 씨 댁의 ‘물통’



〈사진 11〉 김춘희 씨 댁의 ‘물탱크’

〈사진 10〉은 안성리 윤우미자 씨(1943년생) 댁에 있는 ‘물통’이다. 윤 씨가 시집오기 전부터 있었던 물통으로 물을 채워 넣고 사용했다고 한다. 윤 씨는 개인 수도가 나온 지가 오래지 않았는데, 각 가정에 개인 수도가 생겨서 물통을 잘 사용하지 않고, 물통에 빠졌던 일도 있어서 물통을 아주 막아버렸다고 한다. 〈사진 11〉은 가파리 김춘희 씨(1944년생) 댁에 있는 물탱크다.

10) 안성리 윤우미자 씨 구술.

3.2. 가재도구

(1) 궤

‘궤’는 옷 따위를 넣도록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것을 말한다. ‘궤’는 전통 가재도구로 가정마다 옷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는데, 여성들이 결혼할 때 장만해서 가는 혼수품 중의 하나였다. 대정읍 지역에서는 여성 제보자들이 시집을 때 장만하거나 시어머니로부터 혹은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궤’를 꽤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 옛날 그 이름 나난 낭. 우리 시어머니가 물려준 거주. 시아버지가 맨든 거렌 허여. 우리 집이 아방이 쉰동이주계. 경혜부난 더. 우리 집이 아방이 쉰동이. 우리 시어머니가 마흔으답에 낳텐 허여.”¹¹⁾

(이거 옛날 그 이름 났던 나무. 우리 시어머니가 물려준 거지. 시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해. 우리 집의 아버지(남편)가 쉰동이지. 그러니까 더. 우리 집의 아버지가 쉰동이. 우리 시어머니가 마흔여덟에 낳았다고 해.)

“건 우리 친정어무니안티 물린 거. 저것도 흔 백 년 넘었주게. 우리 친정어무니사 옷 덜 놔낫주. 우리도 옷 이런 거. 옛날 저런 것에 옷 놓 입었주. 거 친정어무니 쓰단 거 나물려온거. 이제그디 전기줄도 담양 잇고, 하하하. 허드랑현 거 아무거나 담양 잇주.”¹²⁾

(건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저것도 한 백 년 넘었지. 우리 친정어머니야 옷들 놨었지. 우리도 옷 이런 거. 옛날 저런 것에 옷 넣어서 입었지. 거 친정어머니 쓰던 거나 물려받아 온 거. 이제 거기 전깃줄도 담아 있고, 하하하. 어지러운 거 아무거나 담아 있지.)



〈사진 12〉 이춘인 씨 소장 ‘궤’



〈사진 13〉 이춘인 씨 소장 ‘궤’

11) 안성리 이춘인 씨 구슬.

12) 안성리 이춘인 씨 구슬.

〈사진 12〉와 〈사진 13〉은 안성리 이춘인 씨(1934년생)의 ‘궤’다. 〈사진 12〉의 ‘궤’는 일반적인 크기인데, 〈사진 13〉은 크기가 작은 ‘궤’다. 〈사진 12〉는 이 씨의 시아버지가 만든 것으로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고, 〈사진 13〉은 이 씨가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예전에는 ‘궤’에다 옷들을 보관하다가 지금은 잡동사니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거이 나영 그찌 늑는 거. 우리 집이서 우리 아버지가 짜서 나 시집을 때 준 거. 몽구슬낭 이만한 거, 집이 심었다가 비어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목시가 아닌디 목시 빌어서 햇는지 몰라도. 겨난이 몽쿠슬 비어서 그 몽쿠슬낭 하나로 월 오섯 개 차서. 오섯 개 차니까 우리, 우리가 열흔 남매라. 막둥이로 쉰동이로 어떻게 난 허난. 저거 시집을 때 저거 차 주더라고. 차 주난 그찌 아져 와서, 저거 곧 스물에 왔으니까 이제 팔십네이 됐거든. 그찌 늑는 거라. 게니까 나가 저거, 아덜보고도 아덜이 시에 살아. 아덜보고 그쳐 가렌 허니까 절대 놔 주지 말렌. 아덜 줄 거.”¹³⁾

(그거 나랑 같이 늑는 거.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짜서 내가 시집을 때 준 거. 멀구슬나무 이만한 거, 집에 심었다가 베어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목수가 아닌데 목수 빌려서 햇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멀구슬나무 베어서 그 멀구슬나무 하나로 궤를 여섯 개 짜서. 여섯 개 짜니까 우리, 우리가 열한 남매야. 막둥이로 쉰동이로 어떻게 넣어서 하니까. 저거 시집을 때 저거 짜 주더라고. 짜 주니까 같이 가지고 와서, 저거 갓 스물에 왔으니까 이제 팔십넷이 됐거든. 같이 늑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거, 아들보고도 아들이 시에 살아. 아들보고 가져 가라고 하니까 절대 남 주지 말라고. 아들 줄 거.)

“이건 우리 장인 장모네. 낳은 이거 소낭 닮아.”¹⁴⁾

(이건 우리 장인 장모네. 나무는 이거 소나무 같아.)

“저거 할망, 하르방 때로부터 내려온 거지. 저거보다 큰 것덜 잊어낫주만은 고물 사가는 사름덜 다 가져가 불고.”¹⁵⁾

(저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지. 저거보다 큰 것들 있었지만 고물 사가는 사람들 다 가져가 버리고.)

13) 상모1리 강태월 씨 구슬.

14)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슬.

15) 상모1리 권홍일 씨 구슬.

“이건 물린 것이 아니고 나가 산 거. 그러니까 옛날에 초상 때에 물린 거라시민 나가 강 베와 줄 건디 그건 나가 삼기 때문에 아주 옛날 것이 아니라부난 나가 안 베와 준 거지. 시집오랑 산 거.”¹⁶⁾

(이건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산 거. 그러니까 옛날에 초상 때에 물려받은 거였으면 내가 가서 보여 줄 건데 그건 내가 삼기 때문에, 아주 옛날 것이 아니어서 내가 안 보여 준 거지. 시집와서 산 거.)



<사진 14> 강태월 씨 소장 '궤'



<사진 15> 김규화 씨 소장 '궤'



<사진 16> 권홍일 씨 소장 '궤'



<사진 17> 김희정 씨 소장 '궤'

<사진 14>는 상모1리 강태월 씨(1936년생) 댁에 보관하고 있는 '궤'다. 이 궤는 강씨가 스무 살에 시집을 때 가지고 온 것으로, 강 씨의 아버지가 집에서 기르던 멀구슬나무를 잘라 목수에게 부탁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사진 15>는 신도1리 김규화 씨(1939년생), <사진 16>은 상모1리 권홍일 씨 댁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궤'다. <사진 17>은 신평리 김희정 씨(1932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궤'다. 권 씨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하고 김 씨는 자신이 결혼한 후에 구입한 궤라고 하는데 두

16) 신평리 김희정 씨 구술.

궤에 사용된 장식 모양이 아주 비슷하고, 나무의 상태도 비슷하여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물리나마나 시어머니 내불어 둉 간 거. 저거하고 저디 안에도 하나 잇주. 것도 우리 시아부지네 내분 거. 이거 뭐 우리 집의 아이가 색칠해 분 거주 뭐. 너무 보기 싫으난. 이게 저디 거보다 더 커.”¹⁷⁾

(물리나마나 시어머니가 내버려 두고 간 거. 저거하고 저기 안에도 하나 있지. 것도 우리 시아버니네 내버린 거. 이거 뭐 우리 집의 아이가 색칠해 버린 거지 뭐.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게 저기 거보다 더 커.)

“우이 거는 이디 집 틈으명 문짝으로 만들언에 애들 물려주명. 문짝으로 멘들앙 네 개 멘들아신디 애들이 너 오누이난 하나씩 주단 저거 남은 거. 저거 혼 삼십 년. 삼십 년이 뭐야, 혼 오십 년 됐주. 이디 초가집 틈언에 문짝으로 만들명. 문짝이 그때는 이 집덜 허명 막 팔았주게. 엔디 난풀 생각 엇고. 정운기로, 그때 정운기로 하나 시꺼가신디 저거 네 짹만 멘들아 준 거야. 문은 뭐 이디 앞이 뭐 부엌 온 천지가. 그때는 이 집이 막 널러낫어, 초가집이라도. 게서 문이 많아. 사간, 사간집. 우리는 저 뱃거리 살고 여기는 사간집 아주 집 널러난. 집 짓은 게 사십팔 년. 이거 무슨 낭으로 헌 것산디 몰라. 저거 막 헌 옷덜 막 담앙 놔뒀주.”¹⁸⁾

(위에 거는 여기 집 뜯으면서 문짝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물려주면서. 문짝으로 만들어서 네 개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네 오누이니까 하나씩 주다가 저거 남은 거. 저거 한 삼십 년. 삼십 년이 뭐야, 한 오십 년 됐지. 여기 초가집 뜯어서 문짝으로 만들면서. 문짝이 그때는 이 집들 하면서 많이 팔았지. 그런데 난 팔 생각 없고. 경운기로, 그때 경운기로 하나 실어갔는데 저거 네 짹만 만들어 준 거야. 문은 뭐 여기 앞에 뭐 부엌 온 천지가. 그때는 이 집이 아주 넓었었어, 초가집이어도. 그래서 문이 많아. ‘사간’, ‘사간집’. 우리는 저 바깥채에 살고 여기는 ‘사간집’ 아주 집 넓었었어. 집 지은 게 사십팔 년. 이거 무슨 나무로 한 건지 몰라. 저거 아주 헌 옷들 많이 담아서 놔뒀지.)

17) 안성리 윤우미자 씨 구술.

18) 안성리 윤우미자 씨 구술.



〈사진 18〉 윤우미자 씨 소장 '궤'



〈사진 19〉 윤우미자 씨 소장 '궤'

〈사진 18〉과 〈사진 19〉는 안성리 윤우미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궤'다. 〈사진 18〉은 윤 씨가 시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지금은 색을 칠한 상태다. 〈사진 19〉의 궤는 오십 여 년 전 윤 씨가, 집을 지을 때 예전 초가에 있었던 문들을 뜯어내고 그 나무를 가구 집에 의뢰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때 〈사진 19〉를 포함해서 네 개의 궤를 만들었다고 한다.

"거 시집을 때. 옛날 시집을 때이 궤 안 행 가민이 질 못 출린 거. 궤하고 거 시집을 때 궤하고 포장허곡. 우린 포장허곡, 포장도 다 수 놓이. 포장이게 그 벽장에 치는 포장, 카텐. 이제 거트민 가텐이지. 거 수놓 문 수놓. 거 카텐은 엊고 그 옛날 방석 우리 다 수놓이 견 있어."¹⁹⁾

(거 시집을 때. 옛날 시집을 때 궤 안 해서 가면 제일 못 차린 거. 궤하고 거 시집을 때 궤하고 포장하고. 우린 포장하고, 포장도 다 수 놓아서. 포장이 그 벽장에 치는 포장, 커튼. 이제 같으면 커튼이지. 거 수놓아서 모두 수놓아서. 거 커튼은 없고 그 옛날 방석 우리 다 수놓아서 견 있어.)



〈사진 20〉 강순화 씨 소장 '궤'



〈사진 21〉 강순화 씨 소장 '궤'

〈사진 20〉과 〈사진 21〉의 궤는 가파리 강순화 씨(1935년생)가 결혼할 때 혼수로 장만해 온 것이다. 강 씨는 궤 안에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 직접 수를 놓아 혼수로 가지고 온 방석덮개 등을 잘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물린 거. 이거 두 갠디 하난 동생 가져가고 하난 이거."²⁰⁾

(물려받은 거. 이거 두 개인데 하나는 동생 가져가고 하나는 이거.)

"이거 우리 친정어무니 써난 거. 친정어무니 써지지 안 허난 갖당 뭐 놓렌 허난 가져온 거."²¹⁾

(이거 우리 친정어머니 썼던 거. 친정어머니 쓰지 않으니까 가져다가 뭐 놓으라고 하니까 가져온 거.)



〈사진 22〉 김병화 씨 소장 '궤'



〈사진 23〉 우성남 씨 소장 '궤'

19)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20) 상모1리 우성남 씨 구술.

21) 신도1리 고순열 씨 구술.

〈사진 22〉는 가파리 김병화 씨(1943년생) 댁의 창고에 놓여 있는 궤로, 예전에 옷 등을 넣어 보관했었는데 이제는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넣어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 23〉은 상모리 우성남 씨(1945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궤인데 부모님에게서 두 개를 물려 받았지만 하나는 동생이 가져가고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24〉 김정선 씨 소장 '궤'



〈사진 25〉 고순열 씨 소장 '궤'

〈사진 24〉는 영락리 김정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궤이고, 〈사진 25〉는 신도1리 고순열 씨(194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고 씨는 친정어머니가 쓴 것을 물려받아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26〉 이부자 씨 소장 '통꿰'



〈사진 27〉 이부자 씨 소장 '통꿰'

한편, 궤에는 '통꿰'가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었다. '통꿰'는 표준어로 자물쇠를 말한다. 〈사진 26〉과 〈사진 27〉은 신도1리 이부자 씨(1939년생) 댁의 '궤'에 채워진 '통꿰'다.

(2) 책함

'책함'은 책이나 문서 따위를 넣어 두는 함을 말한다. 안성리 강정일 씨는 책을 넣어 두었던 것을 '책함'이라고 불렀다.



〈사진 28〉 강정일 씨 소장 '책함'



〈사진 29〉 강정일 씨 소장 '책함'

〈사진 28〉과 〈사진 29〉는 안성리 강정일 씨(194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책함'이다. 이것은 강 씨의 시할아버지가 사용했던 것이다.

(3) 문세함

'문서함'은 문서 따위를 넣어 두는 조그마한 함을 말한다.

"아주 옛날 초상 때부터 그거 내려왕 문세 거기 놔난 거. 나 시집완 보난 잇언게, 그자 하건 뱃문세 거튼 거, 중요한 거 거기 낸 잇어나난 문세함이엔 허는 거 아니?"²³⁾

(아주 옛날 조상 때부터 그거 내려와서 문서 거기 놨던 거. 내가 시집와서 보니까 있던데 그저 온갖 밭문서 같은 거, 중요한 거 거기 넣으니까 문서함이라고 하는 거 아니?)

22) 안성리 강정일 씨 구술.

23) 신평리 김희정 씨 구술.



〈사진 30〉 김희정 씨 소장 '문서함'



〈사진 31〉 김희정 씨 소장 '문서함'

〈사진 30〉과 〈사진 31〉은 신평리 김희정 씨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함이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각종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함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32〉 안성리 마을 기록 전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통궤'



〈사진 33〉 안성리 마을 기록 전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통궤'

〈사진 32〉는 안성리 마을 기록 전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통궤'다. 이 네 개의 '서통궤'는 안성리의 고문서를 보관, 관리해 왔던 '문서함'을 말한다. 〈사진 33〉도 안성리 마을 기록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함'인데 이 마을 고동수 씨의 집안에서 물려온 것이다.

(4) 책상

'책상'은 앓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사무를 보거나 할 때에 앞에 놓고 쓰는 상을 말한다.

"나가 써난 거. 나 중학교 때부터 쓰젠 산 거주. 우리 웨삼춘이 이거 만들어낫주 계." ²⁴⁾

(내가 썼던 거. 내가 중학교 때부터 쓰려고 산 거지. 우리 외삼촌이 이거 만들었었지.)



〈사진 34〉 홍옥춘 씨 소장 '책상'



〈사진 35〉 조두석 씨 소장 '책상'

〈사진 34〉는 영락리 홍옥춘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책상'이고, 〈사진 35〉는 신평리 조두석 씨(1959년생)가 사용했던 '책상'이다. 조 씨의 외삼촌이 책상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책상을 쓰려고 외삼촌네에서 구입했다고 한다.

3.3. 난방 도구

(1) 화리

'화리'는 표준어의 '화로'로,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을 말한다. 주로 불씨를 보존하거나 난방을 위해서 사용한다. '화리'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 '정동화리', '옹기화리', '사기화리', '돌화리' 등으로 나뉜다.

"화리야 전체적으로 다 썼주. 화리 안 쓰는 디가 어디서? 화리 중에서도 돌화리가 있었거든이. 돌화리가 있었고 저 청동화리이. 뭐 근래까지도 화리덜은 다 썼는데. (삼춘네 집이는 어떤 화리 있어난 거 닮으과?) 저 동글락현, 저 뭐 청동화리. 추울 때 보통 쓰기도 하고 또 저 제사 거튼 거 헐 적에 적갈 거튼 거 구울라고 헐 적에 거기에, 화리에다가 숫. 제주도서는 나무 불 때다가 임경 나면은 걸 물로 이렇게 껏다가 그걸 물렸당 거기에 불을 피웠거든. 추울 때도 햇고 또 큰일 헐 적에 그 적갈 거튼 거 불 헤근

24) 신평리 조두석 씨 구술.

에 그디서도 구웠고이.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거기서 헷지. 적 굽고 이렇게 헷지게. 그렇지 않으면 부엌에서 그 잉겅 꺼내근에 굽기도 하고 또 방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 굽기도 하고. 화리에서 굽기도 그렇게 했는데. (삼춘네 청동화리는 삼춘 몇 살 때 꺼지 잊어난 거 닮으과?) 나 막 클 때까지도 잊어낫주. 장가간 나 막 제사허곡 혈 때까지도 잊어낫으니까. 육십 년대까지는 잊었지. 나 육십일 년도에 장가가서 집에서 제사를 나가 맡았 다 헷으니까 육십 년대까지는 그 화로를 다.”²⁵⁾

(화로야 전체적으로 다 썼지. 화로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 화로 중에서도 돌화로가 있었거든. 돌화로가 있었고 저 청동화로. 뭐 근래까지도 화로들은 다 썼는데. (삼춘네 집에는 어떤 화로(가) 있었던 거 같습니까?) 저 동그란, 저 뭐 청동화로. 추울 때 보통 쓰기도 하고 또 저 제사 같은 거 할 적에 적 같은 거 구우려고 할 적에 거기에, 화로에다가 솟. 제주도에서는 나무 불 때다가 잉걸이 나오면 거를 물로 이렇게 껌다가 그걸 말렸다가 거기에 불을 피웠거든. 추울 때도 했고 또 큰일 할 적에 그 적 같은 거 불 해서 거기서도 구웠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거기서 헷지. 적 굽고 이렇게 했지. 그렇지 않으면 부엌에서 그 잉걸 꺼내서 굽기도 하고 또 방 안에서는 그렇게 굽기도 하고. 화로에서 굽기도 그렇게 했는데. (삼춘네 청동화로는 삼촌 몇 살 때까지 있었던 거 같습니까?) 내가 아주 클 때까지도 있었지. 장가가서 내가 막 제사하고 할 때까지도 있었으니까. 육십 년대까지는 있었지. 내가 육십일 년도에 장가가서 집에서 제사를 내가 맡아서 다 했으니까 육십 년대까지는 그 화로를 다.)

“돌화리는 근래에는 돌화리 쓴 디 엊어. 돌화로덜은 옛날 그 이막살이라고 하거든 이. 보통 반 갈라근에 하난 구들 허고 하난 정지 허고 거기서 보통 생활했는데 거기 가운데 보면은 돌화로 놓거든게. 돌화로 가운데, 저 부엌 겸 일반 생활하는 겸 해근에. 거기서 추우면 불도 때고 뭐 구워 먹기도 허고 다 돌화로에서 헷지. 거 싱거진 화로지. 거 봉덕이라고, 봉덕이라고 헷어. 이디선 봉덕이라고 헷어. 싱거진 화로. 보통 정지 가운데 놓지.”²⁶⁾

(돌화로는 근래에는 돌화로 쓴 데 없어. 돌화로들은 옛날 그 ‘이막살이’라고 하거든. 보통 반 갈라서 하나는 방 하고 하나는 부엌하고 거기서 보통 생활했는데 거기 가운데 보면 돌화로 놓게 되거든. 돌화로 가운데, 저 부엌 겸 일반 생활하는 겸 해서. 거기서 추우면 불도 때고 뭐 구워 먹기도 하고 다 돌화로에서 헷지. 거 심어진 화로지. 거 ‘봉덕’이라고, ‘봉덕’이라고 헷어. 여기선 ‘봉덕’이라고 헷어. 심어진 화로. 보통 부

엌 가운데 놓지.)

안성리 임영일 씨(1937년생)에 의하면 화로는 근래까지도 다 썼다고 한다. 보통 나무를 땔 때에 나오는 잉걸로 추울 때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피우기도 했고 큰일을 치를 때 적을 구워야 할 때도 화로를 이용했다고 한다. 임 씨의 집에는 청동화로가 있었는데 임 씨가 결혼해서 제사를 맡아서 할 때도 청동화로가 있었다고 한다. 임 씨 기억으로는 육십 년대까지 청동화로를 사용했다고 한다. 한편, 돌화로는 부엌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봉덕’이 있었다. 이 고정되어 있는 화로를 임 씨는 ‘심어진 화로’라고 하였다.

“저거 일본서 만든 거 닮아. 저 방에서 놔근에 무신 거 숫 구워근에 숫. 옹기 구면은 숫이 나오거든. 밤에 겨울에 저디 숫 피와근에 저디 모다 앗앙 놀고. 우리 가시어머니가 써난 건디, 우리 가시어머니 내가 모시단에 돌아가니까 처갓집이 물건 다 나가 관리햇지.”²⁷⁾

(저거 일본에서 만든 거 같아. 저 방에 놔서 무슨 거 숫 구워서 숫. 옹기 구우면 숫이 나오거든. 밤에 겨울에 저기 숫 피워서 저기 모여 앉아서 놀고. 우리 가시어머니가 썼던 건데, 우리 가시어머니 내가 모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처갓집의 물건 다 내가 관리했지.)

“제주산디 일본산디 몰르긴 허여. 나 낭 보난 저거 이시난. 거 나 난 보난 거 셔라, 원.”²⁸⁾

(제주인지 일본인지 모르긴 해.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저거 있으니까. 거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거 있어, 원.)

〈사진 36〉은 신평리 김여권 씨(1940년생), 이순자 씨(1943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화로’다. 김 씨의 장모, 즉 이 씨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이 화로는 이 씨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 왔던 것으로 “나 낭 보난 거 셔라.”라고 하였다. 김 씨는 옹기



〈사진 36〉 김여권 씨 · 이순자 씨 소장 ‘화로’

25) 안성리 임영일 씨 구술.

26) 안성리 임영일 씨 구술.

27) 신평리 김여권 씨 구술.

28) 신평리 이순자 씨 구술.

를 구울 때 나오는 숯을 화로에 넣어 불을 피워서 화로에 둘러 앉아 놀았었다고 하며 이것은 일본에서 만든 화로 같다고도 하였다.

“그 옛날에 아주 잘사는 집이는 봉덕이라고 해 가지고 마루, 마루 복판이나 부엌 복판에 이렇게 헤근에 거기다 불 피워근에 경허고 헷지만 보통 사람은 그런 건 흔 부락에 흔두 짐베끼 엇었고. 그때 화로는 이런 둥그런 뒷에다 불 피워근에. 돌화로는 못 봐 봤어. 청동화로. 밭 네 개 부트고. 네 개도 돋고 세 개도 돋고. 또 옹기로 멘든 화로도 엇었어. 봉덕이 이 의자보다 넓어. 그디서 불 쪼고 제사 때 그튼 때 거기서. 요새는 후라이팬에다 적이나 묵이나 튀기지만 옛날엔 다 거기다 구웠거든. 거기다 불 피워 가지고. 또 방도 뜨시게 허고. 불을 많이 피우면 아매도 방이 뜨시지.”²⁹⁾

(그 옛날에 아주 잘사는 집에는 ‘봉덕’이라고 해 가지고 마루, 마루 복판이나 부엌 복판에 이렇게 해서 거기다 불 피워서 그리고 했지만 보통 사람은 그런 건 한 부락에 한두 집밖에 없었고. 그때 화로는 이런 둥그런 뒷에다 불 피워서. 돌화로는 못 봤어. 청동화로. 밭 네 개 붙고. 네 개도 돋고 세 개도 돋고. 또 옹기로 만든 화로도 있었어. 봉덕이 이 의자보다 넓어. 거기서 불 쪼고 제사 때 같은 때 거기서. 요새는 프라이팬에다 적이나 묵이나 튀기지만 옛날엔 다 거기다 구웠거든. 거기다 불 피워서. 또 방도 따뜻하게 하고. 불을 많이 피우면 아무래도 방이 따뜻하지.)

“돌화루는 주로 밖에 쓰는 거고, 방 안에 쓰는 거 아니. 돌화루는 밖에서 쓰는 거고. 돌화루는 여기는 잘 안 쓰고. 여기 돌화루 쓸 필요가 엇지. 여기는. 웬냐하면 옹기 만들잖아. 화루 만들고 그릇 만들고 다.”³⁰⁾

(돌화로는 주로 밖에 쓰는 거고, 방 안에 쓰는 거 아니. 돌화로는 밖에서 쓰는 거고. 돌화로는 여기는 잘 안 쓰고. 여기 돌화로 쓸 필요가 없지. 여기는 왜냐하면 옹기 만들잖아. 화로 만들고 그릇 만들고 다.)

신평리 고원명 씨(1934년생)는 ‘봉덕’은 동네에서도 잘사는 몇 집에만 있었다고 한다. 고 씨는 돌화로는 보지 못했고, 보통 청동화로나 옹기화로를 사용했다고 한다. 신평리 김여권 씨는 돌화로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밖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신평리 지역은 옹기로 그릇이나 화로를 만드는 곳이어서 옹기화로가 많았기 때문에 돌화로는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29) 신평리 고원명 씨 구술.

30) 신평리 김여권 씨 구술.

(2) 화덕

‘화덕’은 숯불을 피워 놓고 쓰개 만든 큰 화로를 말한다. 대정읍 조사에서 볼 수 있었던 ‘화덕’은 큰 돌을 파서 만든 돌화로였다.

“집 안에 놔난 건 아니고 저 수돗가에 놓여 불 피워난지. 화로 대신 써난 거.”³¹⁾
(집 안에 놔난 건 아니고 저 수돗가에 놓아서 여기 불을 피웠었지. 화로 대신 썼던 거.)

〈사진 37〉은 신평리 조두석 씨(195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화덕’이다. 올해 초 돌아가신 어머니 송경효 씨(1922년생)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이 화덕은 수돗가에 놓고 불을 피워 난방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



〈사진 37〉 조두석 씨 소장 ‘화덕’

(3) 난로

‘난로’는 난방 도구의 하나로 나무, 석탄, 석유, 가스 따위의 연료를 때거나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내어 방 안의 온도를 올리는 기구다. 나무나 석탄, 석유를 연료로 하는 것은 보통 난로 위에 물주전자 등을 올려놓고 물을 끓일 수 있게 하였다.

〈사진 38〉은 안성리 조이전 씨(1936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석유난로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 창고 선반 위에 올려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38〉 조이전 씨 소장 ‘난로’

3.4. 연장류

3.4.1. 톱류

‘톱’은 나무나 쇠붙이 따위를 자르거나 켜는 데 사용하는 연장이다. 강철로 된 얇은 톱양에 날카로운 이가 여럿 있는데, 사용 용도나 그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또 그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개판 할 때 저거 해근에 저거 소나무 끈어다근에 개판 해낫주. 개판도 만들고 나가 목시주게. 관 짜고. 혼 삼십 년 관 짓주. 모슬포 저 뒷고 저 모슬포 나무 푸는 디 강 사단 사다근에 관 짓주. 옛날 놔둔 사람도 몇 있주. 미리는 자기 죽음에 쓰젠 널을 혜영 놔두고 중간에 만딱 그디 강 사다근에. 나 관 짜기 시작해도 집이 있는 널을 많이 사용했주. 미리 관, 관 헐라고 넓은 거 미리 자기가 돈 줘근에 사근에 놔뒀당. 개판 낭은 느량 잘랑 와낫어. 개판은 부락에서 동네에서 영장나면은 나 톱 그쳐단 낭 끈엉 다 가까근에 경허영 만들었주. 개판 낭은 주로 소낭. 관은 게나제나 관이렌 행 저 육지서 따로 있었주게. 거의 소낭지, 소나무. 게고 우리 집 짓을 때도 큰 낭은 마딱 저걸로 끊어 왔어. 이 하르방이 짓은 집 이거. 저건 큰 나무 자르는 큰 톱 이건 저. 목수 일 할 때 이건 나 낭으로 썼주게. 계난 톱도 서너니 개. 큰 톱, 작은 톱.”³²⁾

(개판 할 때 저거 해서 저거 소나무 끊어다가 개판 했었지. 개판도 만들고 내가 목수거든. 관 짜고. 한 삼십 년 관 짬지. 모슬포 저 뒤지 저 모슬포 나무 파는 데 가서 사다가 사다가 관 짬지. 옛날 놔둔 사람도 몇 있지. 미리 자기 죽음에 쓰려고 널을 해서 놔두고 중간에 모두 거기 가서 사다가. 내가 관 짜기 시작해도 집에 있는 널을 많이 사용했지. 미리 관, 관 하려고 넓은 거 미리 자기가 돈 줘서 사다가 놔뒀다가. 개판 나무는 늘 길러서 왔었어. 개판은 부락에서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 내가 톱 가져다가 나무 끊어서(잘라서) 다 깎아서 그렇게 만들었지. 개판 나무는 주로 소나무. 관은 그러나저러나 관이라고 해서 저 육지에서 따로 있었지. 거의 소나무지, 소나무. 그리고 우리 집 지을 때도 큰 나무는 모두 저걸로 끊어 왔어. 이 할아버지가 지은 집 이거. 저건 큰 나무 자르는 큰 톱 이건 저. 목수 일 할 때 이건 나대로 썼지. 그러니까 톱도 서너 개. 큰 톱, 작은 톱.)



〈사진 39〉 백문화 씨 소장 ‘톱’



〈사진 40〉 백문화 씨 소장 ‘톱’

〈사진 39〉와 〈사진 40〉은 영락리 백문화 씨(1934년생)가 소장하고 톱이다. 백 씨는 농사를 지으며 목수 일을 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자신이 직접 지었다고 한다. 〈사진 39〉의 톱은 큰 나무를 자를 때 사용했던 톱으로, 장례에 사용할 관이나 개판을 만들 큰 나무를 자를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사진 40〉은 양날톱으로 관 만드는 작업을 할 때도 하나의 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개의 톱을 두고 바꿔 가면서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41〉 허세안 씨 소장 ‘톱’



〈사진 42〉 송한진 씨 소장 ‘톱’

〈사진 41〉은 상모1리 허세안 씨(193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톱’이다. 허 씨는 목수로 일을 했었는데 〈사진 41〉의 톱은 짧은 시절 목수로 일을 할 때부터 사용했던 톱이라고 한다. 〈사진 42〉는 영락리 송한진 씨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톱이다. 송 씨도 물려받아 짧은 시절에는 이 톱을 많이 사용했었지만 최근에는 씨 보지 않았다고 한다. 녹이 들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32) 영락리 백문화 씨 구술.



〈사진 43〉 임영배 씨 소장 '톱'



〈사진 44〉 우성남 씨 소장 '톱'

〈사진 43〉은 안성리 임영배 씨(1957년생), 〈사진 44〉는 상모1리 우성남 씨가 보관하고 있는 톱이다.

“건 톱 아냐, 톱 새끼. 그거 쓸 데도 있어. 무시거 그치명. 죽은 트명 뭐 쌀 거 실 때는.”³³⁾

(건 톱 아냐, 톱 새끼. 그거 쓸 데도 있어. 뭐 끊으면서. 작은 톱 뭐 켈 거 있을 때는.)



〈사진 45〉 허세안 씨 소장 '톱'



〈사진 46〉 허세안 씨 소장 '톱'

〈사진 45〉와 〈사진 46〉은 상모1리 허세안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작은 톱이다. 〈사진 45〉의 톱은 근래에 나온 톱으로 톱날을 넣어 보관하는 집이 있어, 톱을 집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사진 46〉의 톱을 허 씨는 ‘톱 새끼’라고 불렀는데, 이 톱은 작은 톱에 있는 무엇을 켈 때 사용했다고 한다.

33)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슬.

3.4.2. 도끼류

(1) 도치

‘도치’는 나무를 찍거나 팰 때 쓰는 연장인 ‘도끼’를 말한다. 쇄기 모양의 큰 쇠 날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 단단한 나무 자루를 박아 사용한다.

〈사진 47〉은 영락리 송한진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치’다. 송 씨는 도끼의 날 손잡이 부분이 잘린 채 날만 보관하고 있었다. 송 씨가 나무 장작 연로로 사용했던 시절에는 이 도끼로 장작을 깨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진 47〉 송한진 씨 소장 '도치날'

(2) 자귀

‘자귀’는 나무를 깎아 다듬거나 나무를 깬 때 사용하는 연장이다.

“요거는 뭐 까끌 때 쓰는 자귀, 자귀. 이거 나무 까끄고 허는 거.”³⁴⁾
(요거는 뭐 깎을 때 쓰는 자귀, 자귀. 이거 나무 깎고 하는 거.)

“자귀는 낭 가끄잖아. 이걸로 이거 헐 거 아니. 이걸로 영허영 가끄는 거지개.”³⁵⁾
(자귀는 나무 깎잖아. 이걸로 이거 할 거 아니. 이걸로 이렇게 깎는 거지.)

34)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슬.

35)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슬.



<사진 48> 김규화 씨 소장 '자귀'



<사진 49> 허세안 씨 소장 '자귀'



<사진 50> 송한진 씨 소장 '자귀'



<사진 51> 조이전 씨 소장 '자귀'

<사진 48>은 신도1리 김규화 씨, <사진 49>는 상모1리 허세안 씨의 '자귀'다. <사진 50>은 영락리 송한진 씨, <사진 51>은 안성리 조이전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자귀'다. <사진 48>에서부터 <사진 51>까지를 통해 '자귀'의 머리나 손잡이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나대

'나대'는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데 쓰는 연장이다. '나대'라는 이름은 일본어 '나다(なた)'에서 온 말이다.

"손잡이 깨져 부니까 나대로 이거 이렇게 헹 테이프로 감양. 지금도 씁주, 이거 나무 깰 때."³⁶⁾

(손잡이 깨져 버리니까 나대로 이거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감아서. 지금도 쓰지요, 이거 나무 깰 때.)

<사진 52> 신평리 조두석 씨가 소장하고 있는 '나대'다. 조 씨는 '나대'의 손잡이가

36) 신평리 조두석 씨 구술.

깨져서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하고 있었다. 지금도 나무 등을 깰 때 이 '나대'를 쓰고 있다고 한다.



<사진 52> 조두석 씨 소장 '나대'



<사진 53> 김규화 씨 소장 '나대'



<사진 54> 김성군 씨 소장 '나대'

<사진 53>은 신도1리 김규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나대'이다. 붉은 색 천으로 손잡이를 감싸 사용하고 있는데 손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진 54>는 신평리 김성군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나대'다. 김 씨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날이 녹슬어 있는 모습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3.4.3. 망치류

(1) 망치

'망치'는 단단한 물건이나 불에 달군 쇠를 두드리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이다. 보통은 쇠로 만들지만 용도에 따라 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나무로 만든 것은 '낭망치'라고 부른다.

"건 뭐 일반 망친디, 거 일반 망치지 뭐. 이제 철물점 가면 수두룩허지 이런 것사. 이거 날로 뛰어 있는디 우리 친구 놈이 빌어다가 영 만들어 불었어. 원래 이거 날로 뛰어낫어."³⁷⁾

37)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건 뭐 일반 망치인데, 거 일반 망치지 뭐. 이제 철물점 가면 수두룩하지 이런 거야. 이거 날로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 놈이 빌려다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지. 원래 이거 날로 되었었어.)



〈사진 55〉 권홍일 씨 소장 '망치'



〈사진 56〉 박영복 씨 소장 '망치'



〈사진 57〉 고일화 씨 소장 '망치'



〈사진 58〉 김성군 씨 소장 '망치'

〈사진 55〉 상모1리 권홍일 씨, 〈사진 56〉은 가파리 박영복 씨(1936년생), 〈사진 57〉은 신평리 고일화 씨(1938년생), 〈사진 58〉은 신평리 김성군 씨가 소장하고 있는 '망치'다. 김성군 씨는 〈사진 58〉과 같은 '망치'는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진 55〉에서부터 〈사진 58〉까지의 망치들이 손잡이나 머리 모양이 조금씩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2) 메

'메'는 묵직하고 둥그스름한 쇠토막에 자루를 박아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연장이다. '메'는 돌 따위를 깰 때 사용하는데, 대정읍에서는 제보자에 따라 일본어(げんのう)에서 온 말인 '겐노'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겐노'는 다시 크기에 따라 작은 것을 '하겐노', 큰 것을 '오겐노'로 구분하였다.

"메엔 하는 거주게. 뭐이 췄 거튼 거 땅에 박을 때 사용하는 거주. 돌 깰 때는 저런

메가 아니고."³⁸⁾

(‘메’라고 하는 거지. 뭐 쇠 같은 거 땅을 박을 때 사용하는 거지. 돌 깰 때는 저런 ‘메’가 아니고.)

〈사진 59〉는 신평리 고일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메'다. 고 씨의 말에 따르면 '메'도 사용 용도가 다른데 〈사진 59〉의 '메'는 땅에 쇠 따위를 박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돌을 깰 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진 59〉 고일화 씨 소장 '메'

"돌 벌르는 거. 돌을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허문 이렇게 대강 허문 이래 내리믄 깍이는 거주게, 까끄는 거. 담 다우멍 쓰고. 계난 이거 굉장히 필요헌 거. 그거 막 오랜 거, 맷 설인지 몰라. 아방 앞이 물린 거주. 아방 쓰단 거 시난 나가 췄주."³⁹⁾

(돌 깨는 거. 돌을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강 하면 이리 내리면 깍이는 거지. 깍는 거. 담 쌓으면서 쓰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 이거 아주 오랜 거, 맷 살인지 몰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지. 아버지 쓰던 거 있으니까 내가 췄지.)



〈사진 60〉 김창남 씨 소장 '메'



〈사진 61〉 김성군 씨 소장 '메'

〈사진 60〉은 신도1리 김창남 씨(193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메'다. 김창남 씨의

38) 신평리 고일화 씨 구술.

39) 신도1리 김창남 씨 구술.

‘메’ 또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담을 쌓기 위한 돌을 깔 때 썼던 것이라고 한다. <사진 61>은 신평리 김성군 씨가 보관하고 있는 ‘메’다.

“메는 아주 큰 거. 이만치 큰 건데 거는 돌 깨는 데.”⁴⁰⁾
(메는 아주 큰 거. 이만큼 큰 건데 거는 돌 깨는 데.)

한편, 제보자에 따라 ‘메’와 ‘겐노’를 구분지어 사용하고 있기도 했다.

“겐노 돌 때리는. 돌 깨는 게 아니고 돌 다스리는 거. (돌 깨는 거는 뭐렌 불러?) 오하마. (메는 뭐파?) 메가, 큰 거 보고 메렌 허지. 이거는 겐노. 돌 이렇게 집 담덜 허민 모양 있게 다스리는 거고. (그럼 메랑 오하마는 어떻 뜻나?) 그튼 거. 거는 돌 깔 때 쓰는 거지.”⁴¹⁾

(‘겐노’ 돌 때리는. 돌 깨는 게 아니고 돌 다스리는 거. (돌 깨는 거는 뭐라고 불러?) ‘오하마’. (‘메’는 뭘니까?) ‘메’가, 큰 거 보고 메라고 하지. 이거는 ‘겐노’. 돌 이렇게 집 담들 하면 모양 있게 다스리는 거고. (그럼 ‘메’랑 ‘오하마’는 어떻게 달라?) 같은 거. 거는 돌 깔 때 쓰는 거지.)

신평리 김성군 씨는 ‘메’ 큰 돌을 깨는데 사용한다면 ‘겐노’은 깬 돌을 다듬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구분하였다. 또 ‘메’를 ‘오하마’라고도 하였는데, ‘오하마’는 일본어 (おおハンマー)에서 온 말로 ‘큰 해머’라는 뜻이다.

“이거는 겐노라는 건데 저 거세기 일본말 그대로 사용하고 이십주. 이거 하겐노. 이거는 돌 때려 가지고 돌 다듬는 데 쓰는 거. (큰 거는?) 것도 이런 종류 마찬가지. 건 나중에 사용 안 허니까 손잡이 잘랑 내분 건데. 이것도 이렇게 길어난 거. 계단 이거 적은 겐노라는 말인데, 하는 아래 하. 겐노, 죽은 건 하겐노엔 혜십주.”⁴²⁾

(이거는 ‘겐노’라는 건데 저 거세기 일본말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이건 ‘하겐노’. 이거는 돌 때려 가지고 돌 다듬는 데 쓰는 거. (큰 거는?) 것도 이런 종류 마찬가지. 건 나중에 사용 안 하니까 손잡이 잘라서 내버린 건데. 이것도 이렇게 길었던 거. 그러니까 이거 작은 ‘겐노’라는 말인데, 하는 아래 하. ‘겐노’, 작은 건 ‘하겐노’라고 했지요.)

40)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41)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42)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사진 62> 김성군 씨 소장 ‘겐노’



<사진 63> 고원명 씨 소장 ‘겐노’



<사진 64> 백문하 씨 소장 ‘겐노’



<사진 65> 조의전 씨 소장 ‘하겐노’



<사진 66> 조이전 씨 소장 ‘겐노’



<사진 67> 조이전 씨 소장 ‘겐노’

<사진 62>는 신평리 김성군 씨가 사용하고 있는 ‘겐노’이다. <사진 63>은 신평리 고원명 씨, <사진 64>는 영락리 백문하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겐노’다. <사진 65>에서 <사진 66>은 안성리 조의전 씨의 ‘겐노’다. 조 씨는 ‘겐노’도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사진 65>와 같이 조금 작은 것은 ‘하겐노’라고 하였다. ‘하겐노’는 ‘겐노’ 앞에 한자어 ‘아래 하(下)’를 붙인 것이다. <사진 66>의 ‘겐노’는 원래 손잡이가 길었었는데 잘린

것이라고 한다.

(3) 뜻빼기

‘뜻빼기’는 나무 따위에 박힌 못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로 ‘못뽑이’를 말한다. ‘뜻빼기’는 못을 쳐서 박기도 하고 빼기도 할 수 있도록 망치 역할을 하는 부분과 못을 빼는 부분이 앞뒤로 함께 있기도 한다.



〈사진 68〉 허세안 씨 소장 ‘뜻빼기’



〈사진 69〉 송한진 씨 소장 ‘뜻빼기’

〈사진 68〉은 상모1리 허세안 씨가 사용하고 있는 ‘뜻빼기’이고 〈사진 69〉는 영락리 송한진 씨가 사용하고 있는 ‘뜻빼기’다.

3.4.4. 기타

(1) 대패

‘대패’는 나무의 표면을 반반하고 매끄럽게 깎는 데 쓰는 연장이다. 나무를 깎는 용도로도 쓰이고, 나무의 골을 파는 데도 사용된다.

“저건 대패. 거 대패, 나가 못 허는 것이 엊어낫어. 이걸로 이 집도 다 나가 짓엇다고. 나가 사깡도 헬 수 잇고 아무거라도 다. 나 이발도 헤나고. 나 손에 걸린 건 다 허여.”⁴³⁾

(저건 대패. 거 대패, 내가 못 하는 것이 없었어. 이걸로 이 집도 다 내가 지었다고. 내가 미장도 할 수 있고 아무거라도 다. 내가 이발도 했었고. 내 손에 걸린 거 다 해.)

43)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대패도 여러 가지라. 문살 만드는 대패도 있고 다 잇는디 거 다 엊어져 불었지. 그 건 일반 낭 까끄는 거. 문틀하는 거 있어, 흄 파고 허는 거 다 잇었는디.”⁴⁴⁾

(대패도 여러 가지야. 문살 만드는 대패도 있고 다 있는데 거 다 없어져 버렸어. 그 건 일반 나무 깎는 거. 문틀하는 거 있어, 흄 파고 하는 거 있었는데.)



〈사진 70〉 허세안 씨 소장 ‘대패’



〈사진 71〉 김여권 씨 소장 ‘대패’



〈사진 72〉 백문하 씨 소장 ‘대패’



〈사진 73〉 임영배 씨 소장 ‘대패’

〈사진 70〉은 신평리 허세안 씨가 사용했던 대패다. 허 씨는 자신이 목수 일도 하고 미장 일도 했었다고 한다. 〈사진 71〉은 신평리 김여권 씨가 사용했던 대패다. 〈사진 72〉는 영락리 백문화 씨, 〈사진 73〉은 안성리 임영배 씨가 보관하고 있는 대패다.

대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나무 깎는 대패, 문틀 만드는 대패, 흄파는 대패 등이 그것이다. 대패의 쓰임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고 볼 수 있다.

“낭 오리는 건디. 낭 오령 영 영 까끄는 거. 영 끼왕 영 까끄는 거. 이거 놀이주, 대패. 낭에 오려근에 문, 문틀에 허는 대패. 나 영 써난 거주개. 자기 헐 것덜 헤난 거.”⁴⁵⁾

44) 신평리 김여권 씨 구술.

45) 안성리 조수범 씨 구술.

(나무 오리는 건데. 나무 오려서 이렇게 이렇게 깎는 거.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깎는 거. 이거 날이지, 대패. 나무 오려서 문, 문틀에 하는 대패. 내가 이렇게 썼던 거지. 자기 할 것들 했던 거.)



〈사진 74〉 조수범 씨 소장 '대패'



〈사진 75〉 조수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대패'의 아래쪽

〈사진 74〉는 신평리 조수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대패다. 이 대패는 나무를 오려서 문틀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이다.

(2) 징과 끌

'징'은 표준어의 '정'에 대응하는 말로 돌에 구멍을 뚫거나 돌을 쪼아서 다듬는, 쇠로 만든 연장을 말한다. '끌'은 망치로 한쪽 끝을 때려서 돌이나 나무에 구멍을 뚫거나 곁면을 깎고 다듬는 데 쓰는 연장이다. 나무에 사용하는 것을 '낭끌', 돌에 사용하는 것을 '돌끌'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거 돌멩이, 돌멩이 거튼 거 구멍 뜰 때 징이주, 징."⁴⁶⁾

(이거 돌멩이, 돌멩이 같은 거 구멍 뚫을 때 징이지, 징.)

"건 돌 벌를 때, 돌 벌를 때 굼기 뚫어근에 저 야 놔근에 큰 메로 때리는 거. 징으로 굼기 뚫려 낭 이거를 꽂양 큰 메로 때려".⁴⁷⁾

(건 돌 깔 때, 돌 깔 때 구멍 뚫어서 저 '야' 놓고 큰 '메'로 때는 거. 징으로 구멍 뚫고 나서 이거를 꽂아서 큰 메로 때려.)



〈사진 76〉 권홍일 씨 소장 '징'



〈사진 77〉 백문하 씨 소장 '징'



〈사진 78〉 백문하 씨 소장 '돌끌'



〈사진 79〉 백문하 씨 소장 '낭끌'

〈사진 76〉은 상모1리 권홍일 씨가 보관하고 있는 '징'이다. 〈사진 77〉은 영락리 백문화 씨가 사용했던 '징'이고, 〈사진 78〉과 〈사진 79〉은 백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돌끌'과 '낭끌'이다. 백 씨는 돌을 깔 때 우선 〈사진 77〉의 '징'으로 구멍을 뚫고 나서 그 틈에 〈사진 78〉의 '끌'을 넣고 '메'로 쳐서 돌을 깠다고 한다. 백문화 씨는 '끌'을 돌에 쓰는 것과 나무에 쓰는 것을 구분하였는데, 돌을 깎거나 뚫을 때 쓰는 것을 '돌끌'이라고 하였고, 나무를 쪼개거나 깎을 때 쓰는 것을 '낭끌'이라고 했다.

한편 제보자에 따라 '징'과 '끌'을 반대로 부르기도 했다.

"개난 이걸로 구녁 쳐 가지고 요거 박아 가지고 저 그 젠노로 큰 걸로 거 젠노 오겐노라고 허는데 이건 하겐노라고 하고 큰 거는 오겐노하고 하는데."⁴⁸⁾

(그러니까 이걸로 구멍 쳐 가지고 이거 박아 가지고 저 그 '젠노'로 큰 걸로 거 '젠노' '오겐노'라고 하는데 이건 '하겐노'라고 하고 큰 거는 '오겐노'하고 하는데.)

46) 상모1리 권홍일 씨 구술.

47) 영락리 백문화 씨의 구술.

48)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야이 그대로 끌이라는 건데. 이건 작든 뭐든 다 돌 다듬는 데 사용하고 이건 구녁 칠 때 사용하는 거고 이거 박을라고. 뾰족한 건 구녁 팔 때, 다른 건 다듬을 때.”⁴⁹⁾

(애 그대로 ‘끌’이라는 건데. 이건 작든 뭐든 다 돌 다듬는 데 사용하고 이건 구멍 칠 때 사용하는 거고 이거 박으려고. 뾰족한 건 구멍 팔 때, 다른 건 다듬을 때.)



〈사진 80〉 조이전 씨 소장 ‘징’



〈사진 81〉 조이전 씨 소장 ‘끌’

안성리 조이전 씨는 〈사진 80〉을 ‘징’, 〈사진 81〉을 ‘끌’이라고 했다. 조 씨는 ‘징’을 다른 말로 ‘야’라고도 불렀다. ‘야’은 일본어(や)에서 온 말로 돌을 쪼개는 데 쓰는 뼈기 를 말한다.

“그런 돌 벌를 때 고망 뜰률 때 허는 거. 이름은 뭐이라, 잊어불었지. 이걸 파 놓 대는 건 징이고.”⁵⁰⁾

(그런 돌 깔 때 구멍 뚫을 때 하는 거. 이름은 뭐인지, 잊어버렸어. 이걸 파 놓고 대는 건 징이고.)

“이거 야이영 ㅋ튼 거 끌. 큰 끌, 죽은 끌 허명. 이거 낭 끈을 때 이런 거 구뎅일 파야 헐 거 아냐, 낭에. 파야 이걸 박지. 돌 헐 때도 쓰지. 돌 깔 때 쓰는 것도 있어.”⁵¹⁾

(이거 이거랑 같은 거 끌. 큰 끌, 작은 끌 하면서. 이거 나무 끊을 때 이런 거 구뎅일 파야 할 거 아냐, 나무에. 파야 이걸 박지. 돌 할 때도 쓰지. 돌 깔 때 쓰는 것도 있어.)



〈사진 82〉 김창남 씨 소장 ‘끌’



〈사진 83〉 허세안 씨 소장 ‘끌’

〈사진 82〉은 신도1리 김창남 씨가 보관하고 있는 ‘끌’이다. 김 씨는 〈사진 82〉의 도구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돌을 뚫어 파 놓고, 거기 ‘징’을 대어 돌을 깼다고 한다. 〈사진 83〉은 상모1리 허세안 씨가 사용했던 끌이다. 허 씨는 ‘끌’의 크기에 따라 ‘큰 끌’, ‘작은 끌’하고 구분하여 불렀다.

“이거 남자덜 쓰는 거난 우리 집의 어른 쓰는 거. 낭 파는 거게, 나무 광 거기.”⁵²⁾

(이거 남자들 쓰는 거니까 우리 집의 어른 쓰는 거. 나무 파는 거, 나무 파서 거기.)

〈사진 84〉는 가파리 김병화 씨 남편이 나무를 파낼 때 사용하고 있는 ‘끌’이라고 한다.



〈사진 84〉 김병화 씨 소장 ‘끌’

49)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50) 신도1리 김창남 씨 구술.

51)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52)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3) 줄

‘줄’은 쇠붙이를 쓸거나 깎는 데에 쓰는, 강철로 만든 연장이다.

“이거 줄이라, 이것도. 밀민 삭삭삭. 쇠 거튼 거 이렇게 미는 거라. 이건 아주 옛날에 나오지. 지금은 안 나올 거라. 웨냐하면 이거 저 바당에 고기, 고기 잡으려 갈 때 낚시도 옛날에 낚시도 엊었지, 옛날에. 낚시 이제는 낚시 집이 잇엉 풀고 뭣 헷지만은 고기 나끄는 낚시 영 오그령 멘드는 거. 요, 요걸로 멘들아근에 낚실 멘들아근에 바당에 고기 나끄레 가곡 헷어. 옛날엔 낚시도 만들어낫지. 이젠 혼엇이 경 써지지 안허주게. 경해도 데껴 불지 안허영 놔두난.”⁵³⁾

(이거 줄이야, 이것도. 밀면 ‘삭삭삭’ 쇠 같은 거 이렇게 미는 거야. 이건 아주 옛날에 나오지. 지금은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이거 저 바다에 고기, 고기 잡으려 갈 때 낚시도 옛날에 낚시도 없었지, 옛날에. 낚시 이제는 낚시 집이 있어서 팔고 뭐 하지만 고기 낚는 낚시 이렇게 오그려서 만드는 거. 요, 요걸로 만들어서 낚실 만들어서 바다에 고기 낚으려 가고 했어. 옛날에 낚시도 만들었었지. 이젠 한없이 그렇게 쓰지 않지. 그래도 버리지 않고 놔두니까.)

“건 일본말로는 거 야스리엔 허는디 이덧말로는 줄이엔 허지. 이런 거 무끼면은 이렇게 밀어근에 코지 내우잖아, 이거. 톱 갈 때도 이 톱줄이엔 허는 거.”⁵⁴⁾

(건 일본말로는 거 ‘야스리’라고 하는데 여기말로는 줄이라고 하지. 이건 거 끙으면 이렇게 밀어서 코 내잖아, 이거. 톱 갈 때도 이 ‘톱줄’이라고 하는 거.)



〈사진 85〉 허세안 씨 소장 ‘줄’



〈사진 86〉 허세안 씨 소장 ‘줄’

〈사진 85〉와 〈사진 86〉은 상모1리 허세안 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이다. 허 씨는 쇠를 밀어서 깎아 낚시 바늘 만들 때도 사용했고 뉴슨 쇠를 갈 때도 사용했다고 한다. 특히 톱을 가는 것을 ‘톱줄’이라고 불렀다.

(4) 먹통과 먹술

‘먹통’과 ‘먹술’은 목공이나 석공이 줄을 치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먹통’은 먹물을 담는 그릇이고, ‘먹술’은 먹물을 먹인 줄로 표준으로는 ‘먹줄’이다. 먹통에 딸린 실줄로 먹을 묻혀 곧게 줄을 치는 데 쓴다.



〈사진 87〉 임영배 씨 소장 ‘먹통’



〈사진 88〉 허세안 씨 소장 ‘먹통과 먹술’

〈사진 87〉은 안성리 임영배 씨가 보관하고 있는 ‘먹통’이다. ‘먹술’을 감는 부분에 줄이 없는 상태로,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물려받아 임 씨가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88〉은 상모1리 허세안 씨의 ‘먹통’과 ‘먹술’이다. 사진은 나무판 위에 줄을 긋는 것처럼 ‘먹술’을 길게 뽑은 모습이다.

(5) 철궤

‘철궤’는 땅에 박힌 돌 따위를 일으킬 때 사용하는 도구다. 보통 쇠로 만드는데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돌을 일으키거나 움직이게 할 때 쓴다.

“철웬 땅에 박기도 하고 돌과 돌 사이에. 철궤는 돌 깨여 가지고 그걸 제끼기도 허고. 게난 돌일 헐 때 아주 필요헌 거.”⁵⁵⁾

(‘철궤’는 땅에 박기도 하고 돌과 돌 사이에. ‘철궤’는 돌 깨 가지고 그걸 젖히기도

53)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슬.

54)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슬.

55) 안성리 조이전 씨 구슬.

하고. 그러니까 돌일 할 때 아주 필요한 거.)

〈사진 89〉는 안성리 김갑여 씨(1950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철궤’다. 안성리 조이전 씨의 아버지는 비석 일을 했었다고 한다. ‘철궤’는 돌을 깨서 비석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도구 중의 하나라고 한다.



〈사진 89〉김갑여 씨 소장 ‘철궤’

(6) 가린장

‘가린장’은 못 따위를 빼거나 땅에 박힌 돌 따위를 들어 올릴 때 쓰는 도구다. 작은 지릿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보자에 따라서 이를 ‘빠루’라고 부르기도 했다. ‘빠루’는 일본어(バル)에서 온 말이다.

“건 가린장. 이거 못도 빼고.”⁵⁶⁾
(건 ‘가린장’. 이거 못도 빼고.)

“지릿대. 일본말로 빠루. 못 거튼 거 빼고 뭐 헐 때 쓰는 거지, 뭐.”⁵⁷⁾
(지릿대. 일본말로 ‘빠루’. 못 같은 거 빼고 뭐 할 때 쓰는 거지, 뭐.)



〈사진 90〉허세안 씨 소장 ‘가린장’



〈사진 91〉김성군 씨 소장 ‘빠루’

〈사진 90〉은 상모1리 허세안 씨가 보관하고 있는 ‘가린장’으로 허 씨는 이것을 못을 뺄 때 사용한다고 했다. 〈사진 91〉은 신평리 김성군 씨가 보관하고 있는 ‘빠루’다.

(7) 송곳

‘송곳’은 작은 구멍을 뚫는 데 쓰는 도구로, 쇠로 만들며 끝은 뾰족하고 자루가 달려 있다.

“이런 건 송곳이라고 뭐 뜰 때.”⁵⁸⁾
(이런 건 송곳이라고 뭐 뚫을 때.)

〈사진 92〉는 상모1리 허세안 씨가 사용하고 있는 ‘송곳’이다. 〈사진 92〉에서처럼 송곳의 크기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사진 92〉허세안 씨 소장 ‘송곳’

(8) 고데

‘고데’는 일본어(こて)에서 온 말로, 납땜할 때 쓰는, 구리로 만든 인두 모양의 도구다. 표준어의 ‘인두’에 대응하는데, 구리 부분을 불에 달구어 사용한다.

“이거 고데라고 일본말로. 납땜하는 거지. 불에 구워서 납땜하는 거지. 간혹 가다가 붙일 때 있어 가지고 헌 거지. 이게 구리거든, 구리.”⁵⁹⁾

(이거 ‘고데’라고 일본말로. 납땜하는 거지. 불에 구워서 납땜하는 거지. 간혹 가다가 붙일 때 있어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구리거든, 구리.)

〈사진 93〉은 신평리 김성군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고데’다. 김 씨는 가끔 무엇을 붙여야 할 때, 이 ‘고데’를 불에 달궈서 납땜하였다고 한다.



〈사진 93〉김성군 씨 소장 ‘고데’

56)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슬.

57) 신평리 김성군 씨 구슬.

58)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슬.

59) 신평리 김성군 씨 구슬.

(9) 자

‘자’는 길이는 재는 데 쓰는 도구다.

“일허레 갈 때 써난 자 아냐, 자.”⁶⁰⁾
(일하러 갈 때 썼었던 자 아니니,
자.)

‘자’도 사용 용도에 따라 그 모양이 다양하다. 〈사진 94〉는 상모1리 허세안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자’다. 〈사진 94〉의 자는 포개어 겹쳐 있는 것을 보면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허 씨가 목수 일을 다닐 때 다른 연장들과 같이 가지고 다녔던 것이라고 한다.

(10) 칼

‘칼’은 물건을 베거나 썰거나 깎는 데 쓰는 도구다.

“이거 칼이주. 이거 쇠가 막 강허주계. 이거 잡안에 이거 미는 거. 이것이 막 쇠가 강허주계. 이거 저 구두, 구두 멘드는 사름덜 쓰는 건디 나가 이거 봉가 온 거지. 구두 멘드는 사름덜 저 신 멘드는 사름덜 윗이 이렇게 영 혜영 (고무) 가까 불고. 이거 막 누슬주계. 경허는 거.”⁶¹⁾

(이거 칼이지. 이거 쇠가 아주 강하지. 이거 잡아서 이거 미는 거. 이것이 아주 쇠가 강하지. 이거 저 구두, 구두 만드는 사람들 쓰는 건데 내가 이거 주워 온 거지. 구두 만드는 사람들 저 신 만드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무) 깎아 버리고. 이거 아주 날카롭지, 그러는 거.)

〈사진 95〉는 상모1리 허세안 씨가



〈사진 94〉 허세안 씨 소장 ‘자’

60)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61)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보관하고 있는 ‘칼’이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엿어온 것으로, 고무 등을 자를 때 위에서 꾹 눌러 자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3.5. 기타 도구

(1) 덩드렁과 덩드렁마께

‘덩드렁’은 짚 따위를 두들길 때 밑에 받치는 돌이고, ‘덩드렁마께’는 ‘덩드렁’이라는 동 위에서 짚 따위를 두들길 때 사용하는 방망이다.

“이거 덩드렁마께. 아래 건 저디 있어, 저디. 이거로 찁덜 막 두드려. 두드령 멘들앗 주.”⁶²⁾

(이거 ‘덩드렁마께’. 아래 건 저기 있어. 저기. 이거로 짚들 마구 두드려. 두드려서 만들었지.)

“이거 시아버지안티 물린 거. 저 감물 헐 때 방에혹에 놓 영 찍어난. 다른 건 못 헤보고. 옛날 조도 갈민 영영 두드리고. 건 시아버지 대에 헤나고 난 안 헤나고.”⁶³⁾

(이거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저 감물 들일 때 방아확에 놔서 이렇게 찍었었어. 다른 건 못 해 보고. 옛날 조도 갈면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고. 건 시아버지 대에 했었고 난 안 했었고.)

“그 전이 쓰단 건 좀 먹엉 데껴 불고 이건 그 후에 만든 건디 이거 만든 지도 한 삼사십 년 됐는데. 오랜 거는 다 좀먹엉 꺼꺼져 불고 그 이후에 만든 건데 이거 만든 것도 한 삼사십 년 됐을 건데. 이거 우리 사춘 송옥두 하르방 이제 팔십여섯가, 그분이 만든 거 나 빌어와신디. 이게 저 감나무. 무게가 있더라고. 동백낭은 어렵고 감낭. 동백낭이 이만이 굵은 게, 우리 저 기둥이 동백낭인데 그런 나무는 어렵고. 이게 감나무. 무거우라고.”⁶⁴⁾

(그 전에 쓰던 건 좀먹어서 버려 버리고 이건 그 후에 만든 건데 이거 만든 지도 한 삼사십 년 됐는데. 오랜 거는 다 좀먹어서 꺼여져 버리고 그 이후에 만든 건데 이거 만든 것도 한 삼사십 년 됐을 건데. 이거 우리 사춘 송옥두 할아버지 이제 팔십여섯인가,

62)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63) 영락리 이대선 씨 구술.

64)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그 분이 만든 거 내가 빌려왔는데. 이거 저 감나무. 무게가 있더라고. 동백나무는 어렵고 감나무. 동백나무가 이만큼 굵은 게, 우리 저 기둥이 동백나무인데 그런 나무는 어렵고. 이게 감나무. 무거우라고.)



〈사진 96〉 허세안 씨 소장 '덩드렁'과 '덩드렁마끼'



〈사진 97〉 이대선 씨 소장 '덩드렁마끼'



〈사진 98〉 송한진 씨 소장 '덩드렁'



〈사진 99〉 송한진 씨 소장 '마끼'

〈사진 96〉은 상모1리 허세안 씨가 쓰고 있는 '덩드렁'과 '덩드렁마끼'다. 허 씨는 지금도 소일 삼아 장식용 짚신과 바구니를 만들면서 〈사진 96〉의 '덩드렁'과 '덩드렁마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사진 97〉은 영락리 이대선 씨(195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덩드렁마끼'다. 시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이 씨는 방아확에서 감을 뽕을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사진 98〉은 영락리 송한진 씨가 보관하고 있는 '덩드렁'이고 〈사진 99〉는 송 씨의 '마끼'이다. 송 씨는 이전에 사용했던 '마끼'는 좀이 일어서 버렸고, 〈사진 99〉의 마끼는 삼사십 년 전에, 동네 사촌 할아버지가 감나무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2) 비치락

'비치락'은 표준어의 '빗자루'에 대응하는 말로,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 내는 도구다. 쓰임에 따라 마당비, 방비 따위가 있는데 보통 짚이나 떡, 쌀 등으로 만든다.

"그거 비치락, 영 영 몬지락 쓴 거 그 몬지락 영 받는 거주. 그것도 한 오십 년 뒤엄 주."⁽⁶⁵⁾

(그거 빗자루, 이렇게 이렇게 먼지 쓴 거 그 먼지 이렇게 받는 거지. 그것도 한 오십 년 되고 있지.)



〈사진 100〉 강태월 씨 소장 '비치락'



〈사진 101〉 허세안 씨 소장 '비치락'



〈사진 102〉 문성철 씨 소장 '비치락'



〈사진 103〉 홍옥춘 씨 소장 '비치락'과 '쓰레박'

〈사진 100〉은 상모1리 강태월 씨, 〈사진 101〉은 상모1리 허세안 씨, 〈사진 102〉는 신도1리 문성철 씨(1947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비치락'이다. 〈사진 103〉은 영락리 홍옥춘 씨가 쓰고 있는 '비치락'과 '쓰레박'이다. '쓰레박'은 표준어의 '쓰레받기'에 대응하

65) 영락리 홍옥춘 씨 구술.

는 말로, 빗자루로 모은 쓰레기를 담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사진 102〉와 〈사진 103〉의 빗자루는 손잡이가 헤지니까 테이프를 감아서 단단하게 조여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104〉 김성군 씨 소장 '비차락'



〈사진 105〉 김창남 씨 소장 '비치락'

〈사진 104〉는 신평리 김성군 씨가 사용하고 있는 '비차락'으로, 싸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사진 105〉는 신도1리 김창남 씨가 사용하고 있는 '비치락'이다. 김 씨는 여전히 마당을 쓸 때 이 '비치락'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것을 가리켜 '마당 비치락'이라고 했다.

"이건 비로 이런 디 사용헐라고 비, 비치락을, 이디선 비치락이렌 허는디, 촌에서 말하기를. 저거는 대죽이라고 해서 저렇게 커나가민 잘랑 멘들주."⁶⁶⁾

(이건 비로 이런 데 사용하려고 비, 빗자루를, 여기선 '비치락'이라고 하는데, 촌에서 말하기를. 저거는 수수라고 해서 저렇게 크면 잘라서 만들지.)



〈사진 106〉 백문하 씨 소장 '대죽'



〈사진 107〉 고일화 씨 소장 '대죽'

66) 신평리 고일화 씨 구술.

〈사진 106〉은 영락리 백문하 씨가 창고 천장 밑에 보관하고 있는 마른 '대죽'이다. '대죽'은 '수수'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백 씨는 이것으로 빗자루를 만들기 위해 '대죽'을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107〉은 신평리 고일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대죽'이다. 고 씨는 텃밭에 '대죽'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것이 크면 베어서 빗자루를 만들어 쓴다고 하였다.

(3) 방석

'방석'은 앓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를 말한다. 농사일을 할 때도 마늘을 뽑거나 감자를 파는 등 앓아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방석을 이용하고 있다.

"정지에 방석 그때는이 낭으로도 아니고 저, 직으로 영 영 만들양 앓아난 거 닳아. 무시것고 나루 헤난 거 뜯로 그런 거 봉가당 헤난 거 닳아. 것그라 뭐 새, 산디, 이디 나루이 산디주, 쌀이 산디주게. 계난 산디짚, 산디짚으로 그런 건 만들어난 거 닳아."⁶⁷⁾

(부엌에 방석 그때는 나무로도 아니고 저, 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앓았던 거 같아. 뭐지 벼 했던 거 따로 그런 거 주워다가 했던 거 같아. 것보고 뭐 띠, 밭벼, 여기 벼가 밭벼지, 쌀이 밭벼지. 그러니까 밭벗짚, 밭벗짚으로 그런 건 만들어었던 거 같아.)

안성리 이춘인 씨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 전통 초가의 부엌에서는 직으로 만든 방석을 사용했다. 밭벗짚 등을 구해다가 방석을 만들어 사용했다.

"건 나가 만들면서 써십주. 그런 뭐 편하게 앓기 위해서."⁶⁸⁾
(건 내가 만들면서 썼지요. 그런 뭐 편하게 앓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놔 사용하는 것이 있어. 이거 하르부지가 만든 건디 방석으로도 쓰곡 영행 앓양, 영 다리 아프고 허민 우이 앓양. 방석 이거 말고도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이제 의자 노인덜 일자리 갈 때 이제 다리가 너미 아파. 전이는 다리 안 아파 신디 경허난 이거 이제 검질도 메곡 청소도 허곡 헐 때."⁶⁹⁾

(이거는 그냥 놔서 뭐 사용하는 것이 있어. 이거 할아버지 만든 건데 방석으로도 쓰

67) 안성리 이춘인 씨 구술.

68)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69)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다리 아프고 하면 위에 앉아서. 방석 이거 말고도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이제 의자 노인들 일자리 갈 때 이제 다리가 너무 아파. 전에는 다리 안 아팠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제 김도 매고 청소도 하고 할 때.)



〈사진 108〉 조이전 씨 소장 '낭방석'



〈사진 109〉 김병화 씨 소장 '낭방석'

〈사진 108〉은 안성리 조이전 씨가 사용하고 있는 '낭방석'이다. 조 씨가 직접 만든 것으로 편하게 앉아서 작업하려고,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한다. 〈사진 109〉는 가파리 김병화 씨 집에서 쓰고 있는 '낭방석'이다. 김 씨의 남편이 만든 것으로 보통 방석보다 길고 높게 만들어 방석으로 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쓰고 있다고 한다.



〈사진 110〉 윤우미자 씨 소장 '방석'



〈사진 111〉 김병화 씨 소장 '방석'

〈사진 110〉은 인성리 윤우미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방석이고, 〈사진 111〉은 가파리 김병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방석이다. 방석은 집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방석은 주로 밭 등 야외에서 작업을 할 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었다.

(4) 사다리

'사다리'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다.

"저 만든 거는 오래지 않은 건데. 한 이십 년 뒤신가. 안 내노난 저 축백나무라부난 저 오래가고 밖에 안 내놓난 오래가고 밖에 내놨으면 그때 다 삭았을 거고."⁷⁰⁾

(저 만든 거는 오래지 않은 건데. 한 이십 년 되었나. 안 내놓으니까 저 축백나무여서 저 오래가고 밖에 안 내놓으니까 오래가고 밖에 내놨으면 그때 다 삭았을 거고.)

"저거 나가 만든 사다리주. 이제는 전부 다 철로 현 사다리니까. 이거 숙대낭으로 만든 거."⁷¹⁾

(저거 내가 만든 사다리지. 이제는 전부 다 철로 만든 사다리니까. 이거 삼나무로 만든 거.)



〈사진 112〉 송한진 씨 소장 '사다리'



〈사진 113〉 임영일 씨 소장 '사다리'

〈사진 112〉는 영락리 송한진 씨가 보관하고 있는 '사다리'다. 송 씨가 사다리를 만든지는 이십 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축백나무로 만든 것을 실내에 보관하고 있어서 삭지 않고 오래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113〉은 안성리 임영일 씨가 창고에 보관해 두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다리'다. 임 씨는 이 사다리를 삼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70)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71) 안성리 임영일 씨 구술.

(5) 중이덧

‘중이덧’은 쥐를 잡는 데 쓰는 덫이다. ‘중이’는 ‘쥐’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이거 중이덧. 이제도 써 이거.”⁷²⁾

(이거 쥐덫. 이제도 써 이거.)

“건 쥐덫 쥐 잡는 거. 지금도 쥐가 들어와가민 잡아져마씨. 요거 요렇게 해서 하면 은 여기 먹을 거 매달양, 들어와서 저거 건드리면은 이것이 간히는 거.”⁷³⁾

(건 쥐덫 쥐 잡는 거. 지금도 쥐가 들어오면 잡을 수 있어요. 요거 요렇게 해서 하면 여기 먹을 거 매달아서, 들어와서 저거 건드리면 이것이 간히는 거.)



〈사진 114〉 임영배 씨 소장 ‘중이덧’



〈사진 115〉 조이전 씨 소장 ‘쥐덫’

〈사진 114〉는 안성리 임영배 씨가 보관하고 있는 ‘중이덧’이고, 〈사진 115〉는 안성리 조이전 씨가 사용했던 ‘쥐덫’이다. 〈사진 114〉의 쥐덫에 쥐가 지나다니다가 사진 아래쪽에 둑근 모양의 발판을 건드리면 작동하게 되어 있다. 〈사진 115〉의 쥐덫은 쥐덫 안쪽에 먹이를 매달아 두고 쥐가 그것을 먹기 위해 덫 안쪽으로 들어와서 먹이를 건드리면 문이 닫히게 되어있다.

(6) 요강

‘요강’은 방에 두고 오줌을 누는 그릇이다. 사기나 놋쇠 따위로 작은 단지처럼 만든다.

“우리 시어명 실 때 나가 해 온 거. 나가 이제 팔십하나난에 열아홉에 시집오난에 육십 년 뛰연.”⁷⁴⁾

(우리 시어머니가 있을 때 내가 해 온 거. 내가 이제 팔십하나니까 열아홉에 시집왔으니까 육십 년 됐어.)

예전에는 여자가 시집갈 때 혼수품으로 요강을 장만하기도 했었는데, 〈사진 116〉은 신도리 이루자 씨가 결혼할 때 장만해 온 요강이다. 결혼한 지 60년 넘었기에 이 요강도 60년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화단 한쪽에 뒤집어진 채 놓여 있다.



〈사진 116〉 이루자 씨 소장 ‘요강’

“우리가 쓰단에 이젠 버리도 못하고 그냥 가끔 환자가 생길 때는 사용을 허여. 경 허젠 놔둔 거주.”⁷⁵⁾

(우리가 쓰다가 이젠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끔 환자가 생길 때는 사용을 해. 그렇게 하려고 놔둔 거지.)



〈사진 117〉 김희정 씨 소장 ‘요강’



〈사진 118〉 고일화 씨 소장 ‘요강’

72) 안성리 임영배 씨 구술.

73)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74) 신도1리 이루자 씨 구술.

75) 신평리 고일화 씨 구술.

<사진 117>은 신평리 김희정 씨가 보관하고 있는 요강이고, <사진 118>은 신평리 고일화 씨가 사용했던 요강이다. 고 씨도 지금은 이 요강을 사용하지 않지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7) 애기구덕

‘애기구덕’은 아기를 재울 때 사용하는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대오리를 엮어 만든 긴 사각 모양의 ‘구덕’을 이용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쇠로 만든 요람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 119>는 신평리 조두석 씨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애기구덕’이다. 조 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썼던 것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되어 바닥에 간 천이 헤어진 채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 119> 조두석 씨 소장 ‘애기구덕’

(8) 부지땡이

‘부지땡이’는 아궁이 따위에 불을 뗄 때에, 불을 헤치거나 끌어내거나 거두어 넣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느스름한 막대기다. 표준어의 ‘부지깽이’에 대응한다.

“솟강알에 불 숨는 것도 이추룩헹이 췄 부지땡이로 이추룩 허멍 불 솜고이. 낭은 허민 마딱 카 불고이. 췄 부지땡이도 이디 딱 허게 손잽이 멘들앙 영 소낭으로 멘들앙 영 헤영 불 솜고이.”⁷⁶⁾

(아궁이에 불 때는 것도 이러해서 쇠 부지깽이로 이렇게 하면서 불 때고. 나무는 하면 모두 타 버리고. 쇠 부지깽이도 여기 손잡이 만들어서 이렇게 소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불 때고.)

“옛날엔 보리낭, 보리해 나민 다 놀영 놔둬야지, 거. 그걸로 지팡이로개, 몽뗀으로 영 영 허멍 불 솜았주께. (지팡이렌 헛수과, 그거?) 부지땡이.”⁷⁷⁾

(옛날에는 보릿짚, 보리하고 나면 다 가렸다가 놔둬야지, 거. 그걸로 지팡이로, 몽등이로 이렇게 하면서 불 땠지. (지팡이라고 했습니까, 그거?) 부지깽이.)

76)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77) 안성리 이춘인 씨 구술.

가파리 강순화 씨는 나무 부지깽이는 불을 뗄 때 부지깽이도 같이 타 버리기 때문에 쇠로 부지깽이를 만드는데, 손에 닿는 부분이 뜨겁지 않도록 소나무로 손잡이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안성리 이춘인 씨는 보리를 수확하여 타작하고 난 보릿짚을 가려 두었다가 불을 땠는데, 이때 부지깽이를 이용했다고 한다.

(9) 췄손

‘췌손’은 시멘트 따위를 벽에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어의 ‘쇠손’에 대응한다. 쇠로 만든 것은 ‘췌손’이라고 하고, 예전 흙질을 할 때 사용하던 나무로 만든 것은 ‘낭손’이라고 하였다.

“이거 사깡 이디 췄멘질힐 때 허는 거. 이거 불를 때 뒷이엔 곧나만은, 손이로구나 손, 췄손. 이건 벼무리는 거주게. 벼무리고 영 날라 뎅기고. 이건 잘 모르큰게, 이름. 옛날엔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이추룩 만들앙. 계난 이건 췄난 췄손, 건 낭손.”⁷⁸⁾

(이거 미장이 여기 시멘트질할 때 하는 거. 이거 부를 때 뭐라고 하는데, 손이로구나 손, 췄손. 이건 벼무리는 거지. 벼무리고 이렇게 날라 다니고. 이건 잘 모르겠네, 이름. 옛날엔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이처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쇠니까 췄손, 건 나무손.)

“이거 헐 때 받치는 건 바데 바데 허긴 헨. 췄멘 바데 헹. 흑질허젠허민 막 흑 파당 보리낭 잇지 안허여. 그거 낭 서껑 췄로 막 불렷주께. 집 짓젠허민. 옛 날 메칠을 고생 햇주. 다 손으로만 헤노난.”⁷⁹⁾

(이거 할 때 받치는 건 ‘바데’ ‘바데’ 하긴 했어. 시멘트 ‘바데’ 해서. 흑질하려고 하면 마구 흙 파다가 보릿짚 있지 않니. 그거 놔서 섞어서 소로 마구 밟게 했지. 집 지으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을 고생했지. 다 손으로만 하니까.)

<사진 120>은 가파리 박영복 씨가 보관하고 있는 ‘췌손’으로 시멘트를 바를 때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흙손질을 할 때 이긴 흙이나 시멘트를 받쳐 드는 연장을 ‘바데’라고 하였다.



<사진 120> 박영복 씨 소장 ‘췌손’

78) 가파리 박영복 씨 구술.

79) 가파리 박영복 씨 구술.

‘바데’는 표준어의 ‘흙받기’에 대응하는 말로 네모난 널조각으로 만들며 밑에는 받쳐드는 손잡이가 달려 있다.

(10) 주판

‘주판’은 셈을 놓는 데 쓰는 기구의 하나다. 전자계산기 등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시기에는 이것이 주된 계산 도구로 사용했었다. 또한 학생들이 셈을 배우는 교구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전자기기에 밀려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진 121〉 김창남 씨 소장 ‘주판’

“주판 이거 아이덜 학교 할 때 혜난 거 내불어 둉 가난 이거 그만이 신 거라.”⁸⁰⁾

(주판 이거 아이들 학교 할 때 했던 거 내버려 두고 가니까 이거 가만히 있는 거야.)

〈사진 121〉은 신도1리 김창남 씨가 보관하고 있는 ‘주판’으로,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11) 강오

‘강오’는 일본어(かご)’에서 온 말로, 물건을 넣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바구니를 말한다.

“저거 우리 어머님 쓰던 거. 요즘 핸드백. 장에 갈 때 거기 독새기도 놓고 가정 강 풀고. 독새기 이것에 담아 강. 장에 강 저거 사왔주게.”⁸¹⁾

(저거 우리 어머님 쓰던 거. 요즘 핸드백. 시장에 갈 때 거기 계란도 넣고 가지고 가서 팔고. 계란 이것에 담아서 가서. 장에 가서 저거 사왔지.)



〈사진 122〉 송한진 씨 소장 ‘강오’

80) 신도1리 김창남 씨 구술.

81)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사진 122〉는 영락리 송한진 씨가 보관하고 있는 ‘강오’다. 송 씨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인데 달걀을 팔러 시장에 갈 때 이 바구니에 넣고 가서 팔기도 했다고 한다. 전기 줄을 꼬아서 만든 것으로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12) 뽐뿌

‘뽐뿌’는 타이어나 튜브 등에 바람을 넣을 때 사용하는 기구인 ‘펌프’의 일본어(ぼんふ) 표현이다.

〈사진 123〉은 신도1리 김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뽐뿌’이다. 김 씨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사진 123〉의 ‘뽐뿌’로 자전거 바퀴의 바람이 빠질 때마다 바람을 넣는다고 한다.



〈사진 123〉 김규화 씨 소장 ‘뽐뿌’

4. 농업 관련

대정읍 지역은 전체 인구의 66%가 농업에 종사하며(대정읍지 2: 479), 지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곳이다. 예로부터 땅이 비옥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넓은 평야가 있어 식량 작물이 비교적 풍족하게 재배되었던 지역이다. 대정읍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은 1990년 이전까지는 제주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식량 작물 위주의 보리, 조, 콩 등이 주로 재배되었고 1970년대 들어서서 농업 구조가 바뀌면서 고구마, 유채, 맥주맥 등이 재배되며 농가에 소득을 높였다. 1990년대 이후 대정 지역은 마늘과 감자, 감귤 등이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되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각종 농기계의 등장은 농업 구조를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에 경운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1980년대 이후 기계를 이용한 농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나 말을 이용했던 농기구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나일론이나 플라스틱 제품들이 일반화되면서 짚이나 나무 등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전통적인 도구들은 점차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는 대정읍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 농가에 남아 있는 쟁기, 명예, 도리깨, 보리그네, 명석, 바구니 등의 전통적인 도구를 보고 그 사용 용도에 대해 구술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여전히 농가의 필수품인 호미나 낫, 팽이, 체, ‘솔박’ 등도 확인할 수 있었고, 각종 농산물 재배에 맞게 등장한 도구들도 조사할 수 있었다.

먼저 이 장에서는 농업 관련 도구를 파종 관련 도구, 김매기와 수확 도구, 건조와 손질 도구, 운반도구, 계량 도구, 기타 도구로 나누어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4.1. 파종 관련

4.1.1. 밭갈이 도구

(1) 잠대

‘잠대’는 논밭을 가는 농기구로 ‘쟁기’를 말한다. 밭을 갈 때는 ‘잠대’와 명예가 한 쌍을 이루어 이를 소나 말에 걸어 밭을 간다.

“나가 어렸을 때 저걸로 밭 갈아심주마씨. 중학교 다닐 때, 요만이힐 때 우리 어머님네가 나이가 드셔 부난 거 강 밭 골아 보렌 허난 요만큼 협주, 턱 받치명 소가 영 끌거 아니파? 경허민 양짓머리 영 잡아근에 배로 눌르는 건디 원래 작으니까 턱으로,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잖아.”¹⁾

(내가 어렸을 때 저걸로 밭 갈았지요. 중학교 다닐 때, 요만할 때 우리 어머님네가 나이가 드셔 버리니까 거 가서 밭 갈아 보라고 하니까요 만큼 하지, 턱 받치면서 소가 이렇게 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주머리 이렇게 잡아서 배로 누르는 건데 원래 작으니까 턱으로,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잠대, 이건 쉐 망울이고. 이거 아부지네로부터 쭉 허게 내려오는 건데. 나가 했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 뭐 팔십 년 이상 썼지. 아니, 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있는 거주. 나가 한 요거 쓴 거는 한 삼십 년 썼을 거라. 그 다음은 저. 스물다섯 살에 결혼했을 때 삼십 년이면 얼마나 오십다섯, 오십다섯까지. 그 후에는 경운기. 경운기로 썼고 다음에 트랙터, 요즘은. 아덜한테 다 물려줘 부난. 이거 양지머리, 이거 무클, 그것이 무클이고 그 위에는 거 잊어불었네.”²⁾

(이거 쟁기, 이건 소 부리망이고. 이거 아버지네로부터 쭉 하게 내려오는 건데. 내가 했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 뭐 팔십 년 이상 썼지. 아니, 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있는 거지. 내가 한 요거 쓴 거는 한 삼십 년 썼을 거야. 그 다음은 저. 스물다섯 살에 결혼해서 저 삼십 년이면 얼마나 오십다섯, 오십다섯까지. 그 후에는 경운기. 경운기로 썼고 다음에 트랙터, 요즘은. 아들한테 다 물려줘 버리니까. 나 칠십여섯. 이거 양지머리, 이거 쟁깃술, 이거 쟁깃술, 그것이 쟁깃술이고 그 위에는 거 잊어버렸네.)

1)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2)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사진 1〉 송한진 씨 소장 '잠대'



〈사진 2〉 김규화 씨 소장 '잠대'

〈사진 1〉은 영락리 송한진 씨(1950년생)가 창고 천장에 아래에 묶어 보관하고 있는 '잠대'다. 송 씨는 중학교 때부터 '잠대'를 이용하여 밭을 갈았는데 그때는 키가 작아, 배로 눌러 지탱하며 움직이는 쟁기의 손잡이인 양지머리를 배로 누르지 못하고 턱으로 누르면서 밭을 갈았다고 한다. 경운기 등의 기계가 나온 후로 쟁기를 이용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잠대'를 잘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2〉는 신도1리 김규화 씨(1939년생)가 사용했던 '잠대'다. 이 '잠대'는 김 씨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팔십 년 이상 되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잠대'를 이십 대 중반부터 오십 대 중반까지 약 삼십 년 정도 사용했다고 한다. 그 후에는 경운기가 나와 경운기를 이용하다가 트랙터가 나오자 이제는 밭을 갈 때 트랙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 2〉의 '잠대'에는 소 입을 막는 부리망이 달려 있다.

"시집이서 썼던 거랫주게. 계난 저거 아빠가 썼던 거."³⁾

(시집에서 썼던 거였지. 그러니까 저거 (애들) 아빠가 썼던 거.)

"열여섯 살에 돌아가 부니까 누게 간섭할 사름이 엊어. 쉐 시난게. 잠대영 다 물려 받양. 쉰 혼 마리, 밧갈쉐 혼 마리. 밧갈쉐 사단게. 그걸 늙어 가민 바꽝 또 새로 쓰곡. 쉐 혼 세 설 네 설 뛰근에 사근에 그걸 ㄱ리청 밧 가는 거 ㄱ리치고 구루마질 ㄱ리청. 구루마는 내중에 나왕 헷주만은 내가 처음에 아버지네 해난 거 맡안 졸바로 밧도 갈지도 못하고 혈 때 돌아가 부니까 저 잠대, 저걸 정 뎅기젠허니까 얼먹었지. 열여섯에. (이거 경 갓수과, 쉐에 시깽 가지 안허영?) 쉐에 어떻 시끌 중을 알아게. 걸 몰라 놓으니까. 잠대 등에 경 쉐 이깟 갓주. 경헨 첨 나도 고생을 지독하게 헌 사름이라."⁴⁾

3) 신도1리 고순열 씨 구술.

4) 신도1리 김창남 씨 구술.

(열여섯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리니까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어. 소 있으니까. 쟁기랑 다 물려받아서. 소는 한 마리, '밧갈쉐' 한 마리. '밧갈쉐' 사다가. 그걸 늙어 가면 바꿔서 또 새로 쓰고. 소 한 세 살 네 살 돼서 사서 그걸 가르쳐서 밭 가는 거 가르치고 수레질 가르쳐서. 수레는 나중에 나와서 했지만 내가 처음에 아버지네 했던 거 맡아서 똑바로 밭도 갈지도 못 하고 할 때 돌아가셔버리니까 저 쟁기, 저걸 쳐서 다니려고 하니까 언걸먹었지. 열여섯에. (이거 쳐서 갔습니까, 소에 실어서 가지 않고?) 소에 어떻게 실을 줄 알아. 걸 모르니까. 쟁기 등에 쳐서 소 이끌어서 갔지. 그래서 참나도 고생을 지독하게 한 사람이야.)



〈사진 3〉 고순열 씨 소장 '잠대'



〈사진 4〉 김창남 씨 소장 '잠대'

〈사진 3〉은 신도1리 고순열 씨(1949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잠대'로, 고 씨의 남편 김철진(1947년생) 씨가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4〉는 신도1리 김창남 씨(1934년생)가 사용했던 '잠대'다. 김 씨는 열여섯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밧갈쉐'를 한 마리 사다가 그때부터 자신이 직접 밭을 갈았는데, '잠대'를 소 등에 실을 줄 몰라 등에 지고 가서 밭을 갈았다고 한다. 서너 살 되는 수소를 사다가 밭 가는 것, 짐 싣는 것을 가르쳐서 농사일에 이용했다고 한다. 〈사진 4〉의 '잠대'의 쟁깃술 끝에는 보습이 끼워진 채 보관하고 있다.

"경운기로 밧 가는 게 오래지 안햇저게. 경운기로 밧 간 게. 우리가이 저 나가 이 집 혼 쉰 뗏에 짓으난에 그때야 경운기 오고 밧 가는 기계 오고 헷어. 경허난 그걸로 밧 갈고 경운기질허고 허난이 첨이 쉐로 잠대로 갈단덜 혹혹 데껴됭 그걸로만 쓰못 경운기로만 갈아세."⁵⁾

(경운기로 밧 가는 게 오래지 않았어. 경운기로 밧 간 게 우리가 저 내가 이 집 한

5)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쉰 몇에 지었으니까 그때야 경운기 오고 밭 가는 기계 오고 했어. 그러니까 그걸로 밭 갈고 경운기질하고 하니까 참 소로 쟁기로 같다가들 혹혹 던져두고 그것으로만 사뭇 경운기로만 갈았어.)

가파리 강순화 씨(1935년생)에 의하면 경운기가 보급되어 밭을 갈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고 하였다. 강 씨가 50대였던 1980년대여야 가파도에도 처음 경운기를 보급되었는데, 경운기를 사용하고부터는 쟁기는 제쳐 두고 경운기로만 밭을 갈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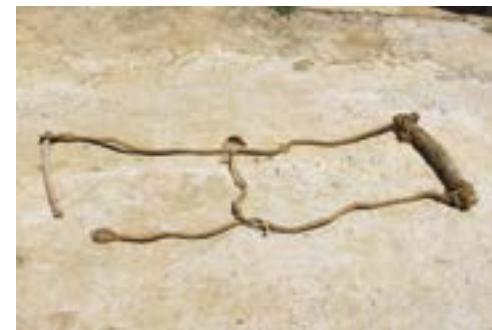
(2) 명예

‘명예’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다. 즉 소나 말을 이용해서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이용해서 밭을 갈 때, 소나 말에 수레나 쟁기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건 명예예. 소 모가지에 걸치는 거. 게서 뱗 가는 거. 뱗만 가는 게 아니고 소 구루마도. 경운기 나기 전까지 쉐로 계속 밭 갈았주. 경운기 난 건 팔십 년도 뛰나. 경운기 나와도 금방 사지 못했주. 사기 힘들어. 것이 소 모가지. 이게 목 뒤에 갔던 접주게. 율로 나무 두 개를 끼웠 요렇게. 이디 접게, 이건 명예, 솜비줄, 등데. 이 명엔 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를 사용해영 많이 헷주. 젠디 그 암소 거하고 숫소 거하고 틀려양. 암소는 좀 작고 숫소는 좀 크우다. 소는, 암소는 뒤쪽이 벌어지고 숫소는 앞쪽이 벌어 접주. 이 모가지가 굽어. 게니까 이게 좀 굽어. 계난 이거 숫소 허단 거우다. 이거 옛날에 소남 뿌리. 접게는 보통 가시남들 뭐 윤누리는 아주 좋고, 요디 가민 일부러 접게 만 해영 파는 하르부지털이 있어. 그거 갖고 담뱃값 허는 하르부지털 잊어낫주. 지금 그 나무 보호종일 건데 호랑이 가시남인가? 그거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게 가늘고 질기고 저 통에 디밀면 빠지지 않도록 질기곡. 요렇게 불로 허면 휘니까 휘어서. 상동남 덜은 가지가 많아 좀 거칠고. 삼동남 거의 안 쓰고 그 호랑이가시남이나 윤누리낭. 윤누리낭은 어렵긴 허지만 윤누리낭이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 누룩낭.”⁶⁾

(이건 명예요. 소 모가지에 걸치는 거. 그래서 밭 가는 거. 밭만 가는 게 아니고 소 수레도. 경운기 나기 전까지 소로 계속 밭 갈았지. 경운기 나온 건 팔십 년도 되나. 경운기 나와도 금방 사지 못했지. 사기 힘들어. 것이 소 모가지. 이게 목 뒤에 갔던 거지요. 율로 나무 두 개를 끼워서 이렇게. 여기 ‘접게’, 이건 명예, 봇줄, 한태. 이 명에는 나무뿌리, 소

나무 뿌리를 사용해서 많이 했지. 그런데 그 암소의 거하고 수소의 거하고 달라. 암소는 좀 작고 수소는 좀 큅니다. 소는, 암소는 뒤쪽이 벌어지고 수소는 앞쪽이 벌어지죠. 이 모가지가 굽어. 그러니까 이게 좀 굽어. 그러니까 이거 수소 했던 겁니다. 이거 옛날에 소나무 뿌리. ‘접게’는 보통 가시나무들 뭐 윤노리나무는 아주 좋고, 요기 가면 일부러 ‘접게’만 해서 파는 할아버지들이 있어. 그거 갖고 담뱃값 하는 할아버지들 있었지요. 지금 그 나무 보호종일 건데 호랑이 가시나무인가? 그거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게 가늘고 질기고 저 통에 들이밀면 빠지지 않도록 질기고. 요렇게 불로 하면 휘니까 휘어서. 상동나무들은 가지가 많아서 좀 거칠고. 상동나무는 거의 안 쓰고 그 호랑이 가시나무나 윤노리나무. 윤노리나무는 어렵긴 하지만 윤노리나무가 최고로 좋고 그 다음 누룩나무.)



〈사진 5〉 송한진 씨 소장 ‘명예’



〈사진 6〉 송한진 씨 소장 ‘명예’

〈사진 5〉와 〈사진 6〉은 영락리 송한진 씨가 사용했던 ‘명예’다. 송 씨는 암소와 수소의 명예에는 크기가 다르다고 한다. 송 씨의 구술에 따르면 암소는 뒤쪽이 벌어지고 수소는 앞쪽이 벌어진다고 하였다. 송 씨가 가지고 있는 ‘명예’는 모가지가 굽은 것으로 보아 수소가 했던 것이라고 한다. ‘명예’를 만드는 재료는 바로 ‘호랑가시나무’로 가늘고 질겨서 잘 빠지지 않았으며 또한 이 나무는 불로 달구면 잘 휘기도 해 ‘명예’를 만들기에 적합했다고 한다. 송 씨에 따르면 ‘명예’를 만드는 재료로 가장 좋은 것은 ‘윤노리나무’이며 그 다음으로는 ‘호랑가시나무’, ‘누룩나무’의 순이라고 한다. 한편, ‘상동나무’는 가지가 많고 거칠기 때문에 ‘명예’를 만들 때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거 옛날 쉐에 메연. 쉐명예주게, 쉐명예. 명예 머리만 남안. 이거 나 열여섯 살에 부터 나 뱗 갈았주게. 이거 혀연. 이거 혼 칠십 년 썻어. 물린 걸 테주. 아부지가 나 열

6)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여섯 때 돌아가 부난 그거 전부 갖당 썻주게.”⁷⁾

(이거 옛날 소에 매었어. 소멍에지, 소멍에. 명에 머리만 남았어. 이거 내가 열여섯 살부터 내가 밭 갈았지. 이거 했어. 이거 한 칠십 년 썼어. 물려받을 걸 테지. 아버지가 내가 열여섯 때 돌아가서 버리니까 그거 전부 가져다가 썼지.)

“사촌 형이 사용했던 거. 저거 쓰는 거 어린 때 봐낫수다. 나도 쉬로 밧도 갈아 보고.”⁸⁾

(사촌 형이 사용했던 거. 저거 쓰는 거 어린 때 봤었습니다. 나도 소도 밭도 갈아 보고.)



〈사진 7〉 김창남 씨 소장 ‘명에’



〈사진 8〉 강재식 씨 소장 ‘명에’

〈사진 7〉은 신도1리 김창남 씨가 소장하고 있는 명에다. 김 씨가 아버지에게 물려 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현재 ‘명에’의 줄은 없고 나무 부분만 남아 있다. 〈사진 8〉은 신평리 강재식 씨(1970년생) 댁에 보관하고 있는 ‘명에’다. 강 씨의 사촌 형이 사용했던 것으로 지금은 강 씨가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망울은 쉬 밧 갈 때 풀 뜯어먹지 못하게, 자꾸 풀 뜯어 먹으니까 뜯어먹지 못하게 하는 거주게. 입을 싸는 거.”⁹⁾

(부리망은 소 밭 갈 때 풀 뜯어먹지 못하게, 자꾸 풀 뜯어 먹으니까 뜯어먹지 못하게 하는 거지. 입을 싸는 거.)

〈사진 9〉는 신도1리 김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잠대’에 달려 있는 ‘망울’이다. ‘망



〈사진 9〉 김규화 씨 소장 ‘망울’

(3) 보섭과 벳

‘보섭’은 쟁기 따위 농기구의 술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삽 모양의 쇳조각이고, ‘벳’은 ‘보섭’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쇳조각을 말한다. ‘보섭’은 표준어 ‘보습’, ‘벳’은 표준어의 ‘벗’에 대응한다. ‘벗’은 사용 용도에 따라 ‘골벗’과 ‘중경벗’으로 나뉜다. ‘골벗’은 고랑을 만들며 가는 벗이고, ‘중경벗’은 작물이 자라는 도중에 고랑을 갈아 두둑으로 흙을 올리는 사이갈이를 할 때 쓰는 벗이다.

“밧갈이할 때. 보섭이 영 삼각형 모양으로 영 뛰었는데 그게 땅에 들어강 갈아지는 거지게. 보섭도 잘 둣아지지게. 둣아지민 교대해야 허고. 보섭 웨에도 벳이란 게 있어, 벳. 흙을 이렇게 잣아지게 하는 거. 보섭은 밧갈이만 하고 벳은 그 밧 간 흙이 넘어오면 그 흙 옆으로 잣아지는 거.”¹⁰⁾

(밭갈이할 때. 보습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땅에 들어가서 갈아지는 거지. 보습도 잘 둣아. 둣으면 교체해야 하고. 보습 외에도 벳이라는 게 있어, 벳. 흙을 이렇게 젖히게 하는 거. 보습은 밧갈이만 하고 벳은 그 밧 간 흙이 넘어오면 그 흙을 옆으로 젖히는 거.)

신평리 고원명 씨(1934년생)의 구술에서처럼 ‘보섭’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땅을 파는 역할을 한다. ‘벳’은 파인 흙을 옆으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밭을 갈며 돌과 부딪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섭’은 잘 둣는다. 때문에 ‘벗’은 오래 쓸 수 있지만 ‘보습’을 둣으면 교체해 주어야 한다.

7) 신도1리 김창남 씨 구술.

8) 신평리 강재식 씨 구술.

9)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10) 신평리 고원명 씨 구술.



〈사진 10〉 조두석 씨 소장 '보섭'



〈사진 11〉 김창남 씨 소장 '보섭'

〈사진 10〉은 신평리 조두석 씨(195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보섭'이다. 조 씨의 부모님이 사용했던 것으로 조 씨도 학생 시절 소에 쟁기를 메워서 밭을 갈았었다고 한다. 부모님의 살던 집을 물려받아 살고 있는 조 씨는, 올 초에 돌아가신 어머니(송경효, 1922년생)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11〉은 신도1리 김창남 씨가 사용했던 '보섭'이다. 이 '보섭'은 쟁기에 끼워진 채 창고 벽에 걸려 보관되고 있다.

"거 보섭이영 같이 메우는 거."¹¹⁾

(거 보섭이랑 같이 메우는 거.)



〈사진 12〉 허세안 씨 소장 '벳'



〈사진 13〉 고순열 씨 소장 '벳'



〈사진 14〉 김규화 씨 소장 '벳'



〈사진 15〉 이봉녀 씨 소장 '벳'

〈사진 12〉는 상모1리 허세안 씨(1931년생)가 사용했던 '벳'이고, 〈사진 13〉은 신도1리 고순열 씨 남편이 사용했던 '벳'이다. 〈사진 14〉는 신도1리 김규화 씨, 〈사진 15〉는 안성리 이봉녀 씨(193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벳'이다.



〈사진 16〉 조두석 씨 소장 '골벳'



〈사진 17〉 고순열 씨 소장 '골벳'

벳도 사용 용도에 따라 그 이름과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사진 16〉은 신평리 조두석 씨가 보관하고 '골벳'이고, 〈사진 17〉은 신도1리 고순열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골벳'이다. '골벳'은 고랑을 만들며 가는 벳을 말한다.

11)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사진 18〉은 상모1리 권홍일 씨(193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벗’인데 작물이 자라는 도중에 고랑을 갈아 두둑으로 흙을 올리는 사이갈이할 때 쓰는 ‘중경벗’이다.

한편, 쟁기로 밭갈이를 할 때 벗에 묻은 흙을 깎어내는 역할을 하는 ‘벗칼’이 쟁기에 달려 있기도 한다. 이 ‘벗칼’을 제주어로는 ‘벗칼’이라고 한다.

“벗칼은 이거, 이거. 이거 영 혹 부뜨민 따끄는 거. 쟁기에 꼽앙 나오는 거주. 뱃 갈 젠 허민 쟁기에 영 꼽아난 거주게.”¹²⁾

(벗칼은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흙 붙으면 닦는 거. 쟁기에 꼽아서 나오는 거지. 밭 갈려고 하면 쟁기에 이렇게 꼽았던 거지.)

“이거 영 행 끼우는 거난 뭐. 기울지 말렌 고정시키진 끼우는 거.”¹³⁾

(이거 이렇게 해서 끼우는 거니까 뭐. 기울지 말라고 고정시키려고 끼우는 거.)



〈사진 18〉 권홍일 씨 소장 ‘벗’



〈사진 19〉 조수범 씨 소장 ‘벗칼’



〈사진 20〉 조수범 씨 소장 ‘벗 고정시키는 도구’

〈사진 19〉은 안성리 조수범 씨(193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벗칼’이다. ‘벗칼’은 쟁기에 꼽아 두었다가 벗에 흙이 붙으면 그 흙을 닦을 때 이용했다. 〈사진 19〉에서처럼

12) 안성리 조수범 씨 구술.

13) 안성리 조수범 씨 구술.

긴 주걱 모양으로 자루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고 사진에서 왼쪽의 넓은 부분은 쇠로 되어 있다. 〈사진 20〉의 나무 조각은 벗이 기울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이다.

4.1.2. 땅 파는 도구

(1) 갈레죽

‘갈레죽’의 표준어의 ‘삽’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갈레죽’은 ‘가래’를 의미하는데, 땅을 파고 흙을 뜨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한다.

“삽을 가레죽이렌 허주게. 옛날은 가레죽이렌 해도 지금은 다 삽이렌 허주. 가레죽도이 옛날 경우에 나무로 만든 것도 잊어는데이 옛날엔. 가레죽은 땅 팔 때, 감자 구뎅이 팔 때도 허고.”¹⁴⁾

(삽을 ‘가레죽’이라고 하지. 옛날은 ‘가레죽’이라고 해도 지금은 다 삽이라고 하지. ‘가레죽’도 옛날 경우에 나무로 만든 것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가레죽’은 땅 팔 때, 고구마 구덩이 팔 때도 하고.)

“갈레죽이란 건 요새 삽. 요새 삽을 갈레죽이라고 했지, 옛날에. 거 땅 파는 거 아니냐. 옛날엔 나무로 만든 갈레죽덜이 잊어낫다고. 이젠 거 엊어졌지만. 우리도 거 사용해낫어. 나무로 만든 갈레죽. 옛날엔 첨, 목기를 사용했으니까. 쉐로 웬 갈레죽은 후제 나온 거지. (낭으로 웬 거 언제까지 잊어낫수과?) 나 기억으론 혼 스물다섯 살까지도 잊은 거 닮아봬여. 사용은 안 헉주만은.”¹⁵⁾

(‘갈레죽’이라는 건 요새 삽. 요새 삽을 ‘갈레죽’이라고 했지, 옛날에. 거 땅 파는 거 아니니.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갈레죽’들이 있었다고. 이젠 거 없어졌지만. 우리도 거 사용했었어. 나무로 만든 ‘갈레죽’. 옛날엔 첨, 목기를 사용했으니까. 쇠로 된 ‘갈레죽’은 후에 나온 거지. (나무로 된 거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한 스물다섯 살까지도 있었던 거 같아. 사용은 안 했지만.)

안성리 임영일 씨(1937년생)는 ‘갈레죽’을 ‘가레죽’이라고 하였다. ‘가레죽’은 땅을

14) 안성리 임영일 씨 구술.

15) 신평리 고원명 씨 구술.

팔 때 사용하는 것으로, 임 씨는 고구마를 심기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 ‘가례죽’을 이용했다고 한다. 신평리 고원명 씨는 나무된 ‘갈례죽’이 자신이 스물다섯 살 정도 때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사진 21〉 김성군 씨 소장 ‘갈례죽’



〈사진 22〉 김규화 씨 소장 ‘갈례죽’과 ‘호크’

〈사진 21〉은 신평리 김성군 씨(1935년생)가 사용했던 ‘갈례죽’이다. 〈사진 22〉는 신도1리 김규화 씨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갈례죽’과 ‘호크’다.

(2) 궤이

‘궤이’는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다.



〈사진 23〉 김규화 씨 소장 ‘궤이’

〈사진 23〉은 신도리 김규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궤이’로, 근래에 나온 궤이다.

“이렇게 땅 파는 거지개. 손으로 파는 거. 밧 이렇게 뛰 잇잖아요. 엔디 쟁기로 가는 데 너쁜 덴 해도 이런 모서리 거튼 덴 쟁기가 못 가거든. 소가

그렇게 못 가니까 이런 구석 거튼 데 거 쟁기로 갈지 못한 디 거 팠지개.”¹⁷⁾

(이렇게 땅 파는 거지. 손으로 파는 거. 밧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쟁기로 가는 데 넓은 데는 해도 이런 모서리 같은 데는 쟁기가 못 가거든. 소가 그렇게 못 가니까 이런 구석 같은 데 거 쟁기로 갈지 못한 데 거 팠지.)

신평리 고원명 씨는 소에 쟁기를 메워 밭을 갈고 나서 모서리에 소가 가지 못해 쟁기로 갈지 못한 부분은 팽이를 이용해서 땅을 팠다고 한다.

(3) 곡괭이

‘곡괭이’는 길고 뾰족한 쇠붙이의 가운데에 긴 나무 자루를 박아 만든 농기구다. 주로 땅에 묻힌 돌이나 나무뿌리 따위를 캐낼 때 사용한다. ‘곡괭이’는 표준어 ‘곡괭이’에 대응한다.

“뭐 파는 거. 땅 파는 거나. 삽으로 못 행 저 돌 같은 거 일루고, 저 땅속에 묻어지면은 돌 같은 거 파내는 거. 돌 같은 거 파내고, 옛날에 나무뿌리도 이걸로 허고. 이것도 이거 굉장히 오랜 거주. 한 삼십 대에 써낭, 혼 오십 년 됐주.”¹⁸⁾

(뭐 파는 거. 땅 파는 거나. 삽으로 못 해서 저 돌 같은 거 파고, 저 땅속에 묻히면 돌 같은 거 파내는 거. 돌 같은 거 파내고, 옛날에 나무뿌리도 이걸로 하고. 이것도 이거 굉장히 오랜 거지. 한 삼십 대에 쓰고 나서, 한 오십 년 됐지.)

“옛날에 밧디서 돌도 파고 뭐 이럴 때 썼지. 돌도 나온 거 파고. 이거 우리 아버지로부터 썼으니까 웨정 때로부터 잇어난 거야. 요건이 더 역사가 깊은 거여. 이것이 허꼼 더 직선으로 됐잖아. 이건 꼬부라졌고. 이것이 허꼼 후에 나온 거야.”¹⁹⁾

(옛날에 밭에서 돌도 파고 뭐 이럴 때 썼지. 돌도 나온 거 파고. 이거 우리 아버지로부터 썼으니까 웨정 때로부터 있었던 거야. 요건 더 역사가 깊은 거야. 이것이 조금 더 직선으로 됐잖아. 이건 꼬부라졌고. 이것이 조금 후에 나온 거야.)

17) 신평리 고원명 씨 구술.

18)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19)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16)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사진 24〉 김규화 씨 소장 '곡괭이'



〈사진 25〉 김성군 씨 소장 '곡괭이'

〈사진 24〉는 신도1리 김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곡괭이'다. 김 씨는 땅 속에 묻힌 돌을 파내거나 나무뿌리를 캘 때 이 '곡괭이'를 사용했는데, 삼십대 때부터 썼던 것이라서 지금은 오십 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하였다. 〈사진 25〉는 신평리 김성군 씨의 '곡괭이'로 김 씨의 아버지가 썼던 것이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서 역사가 깊은 물건이라고 했다.

"그건 뭐 근래에 나온 거. 이거 어디 약초 봉그레 다닐 때 써. 산소에 강 가시낭 거 틀 것도 캐고 뭐 그 억새도 파고 다 허는 거지 뭐."²⁰⁾

(그건 뭐 근래에 나온 거. 이거 어디 약초 주우러(캐러) 다닐 때 써. 산소에 가서 가시나무 같은 것도 캐고 뭐 그 억새도 파고 다 하는 거지 뭐.)



〈사진 26〉 권홍일 씨 소장 '곡괭이'



〈사진 27〉 김성군 씨 소장 '곡괭이'

〈사진 26〉은 상모1리 권홍일 씨의 '곡괭이'고 〈사진 27〉은 신평리 김성군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곡괭이'다. 〈사진 27〉의 곡괭이는 근래에 나온 것으로 김성군 씨가 약초를

20)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캐러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것이라고 한다. 또 산소의 가시나무나 억새 등을 캘 때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건 최근에, 최근에 거. 산에 저 뭐고 어욱 같은 것도 캐곡 뱃디 약초도 캐곡."²¹⁾
(건 최근에, 최근에 거. 산에 저 뭐지 억새 같은 것도 캐고 뱃의 약초도 캐고.)

"곡괭이 손잡이 다 부서져 불엇주. 거 무신 거 파젠 허믄, 돌도 파고 나무도 파고 그 곡괭이 썼주. 농사짓겐 허믄 허지렝이 다 잇어사 허여."²²⁾

(곡괭이 손잡이 다 부서져 버렸지. 거 무슨 거 파려고 하면, 돌도 파고 나무도 파고 그 곡괭이 썼지. 농사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다 있어야 해.)



〈사진 28〉 문성철 씨 소장 '곡괭이'



〈사진 29〉 김창남 씨 소장 '곡괭이'

〈사진 28〉은 신도1리 문성철 씨(1947년생)가 사용하는 '곡괭이'로 산에서 억새 같은 것이나 뱃의 약초도 캘 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29〉는 신도1리 김창남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곡괭이'로 손잡이 없이 곡괭이 머리만 보관되어 있다.

(4) 쉐시랑

'쉐시랑'은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두엄, 풀 무덤 따위를 쳐내는 데 쓰는 갈퀴 모양의 농기구다. 쇠로 서너 개의 발을 만들고 긴 자루가 있다. 표준어의 '쇠스랑'에 대응하는 말로 제보자에 따라 '쉐스랑' '소스랑'이라고도 불렀다.

"거 거름 푸고 내곡 혈 적에. 옛날에 거 뛰지 기르면서 거름 놓다가 뱃디 갈라고 푸

21) 신도1리 문성철 씨 구술.

22) 신도1리 김창남 씨 구술.

잖아. 걸로 하지. 옛날에 농사지을 때 보리 헐라민 그 뒤지거름 꺼내 가지고 씨 뿌려서 소로 밟려 가지고 사름이 손으로 폐면서 푹푹 던졌어. 그 당시 금비가 없을 때니까. (금비가) 지금 나오는 비료. 엊을 때는 그 거름에다가 씨 들어간 차 요만씩 해서 톡톡 톡 던져 가지고 그 힘으로 보리가 크라고 걸름. 밧디 가서 저거 쓰는디 자룩 부려져 불민 고치고, 고치고. 주룩은 자꾸 바꿔야지. 오래민.”²³⁾

(거 거름 푸고 내고 할 적에. 옛날에 거 돼지 기르면서 거름 땀다가 밭에 갈려고 푸잖아. 걸로 하지. 옛날에 농사지을 때 보리 하려면 그 돼지거름 꺼내 가지고 씨 뿌려서 소로 밟게 해서 사람이 손으로 폐면서 톡톡 던졌어. 그 당시 금비가 없을 때니까. (금비가) 지금 나오는 비료. 없을 때는 그 거름에다가 씨 들어간 채 요만큼씩 해서 톡톡 톡 던져서 그 힘으로 보리가 크라고 거름. 밭에 가서 저거 쓰는데 자루 부려져 버려면 고치고, 고치고. 자루는 자꾸 바꿔야지. 오래면.)

“쉐시랑은 거름 낼 때 거튼 때. 옛날 통지에, 통지엔 골았지. 데야지 기루는디 통지에 거름 내놓 그거 물양 보리씨 빼 놓 물아근에 저 밧디 강 뿌리면은 보리가 나는 거주.”²⁴⁾

(쇠스랑은 거름 낼 때 같은 때. 옛날 돼지우리에, 돼지우리라고 말했지. 돼지 기르는데 돼지우리에 거름 내놓고 그거 밟아서 보리씨 뿌려 놓고 밟아서 저 밭에 가서 뿌리면 보리가 나는 거지.)



〈사진 30〉 김성군 씨 소장 '쉐시랑'



〈사진 31〉 김규화 씨 소장 '쉐시랑'

〈사진 30〉은 신평리 김성군 씨가 사용하고 있는 '쉐시랑'이다. 김 씨는 거름을 내고 퍼 나를 때 쇠스랑을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30〉의 쇠스랑은 밭이 달린 쇠와 나무로

23)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24)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된 자루가 연결되는 부분에 큰 못이 끝에 나온 채 보관되고 있었다. 간혹 '쇠스랑'을 사용하다가 손잡이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자루로 끼워서 사용하고, 고쳐서도 사용한다고 한다. 〈사진 31〉은 신도1리 김규화 씨의 '쉐시랑'으로 김 씨도 주로 돼지우리 거름을 낼 때 쇠스랑을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거름 낼 때 췈주. 뜯거름 내고 쉐거름 낼 때. 이제는 저 미깡낭 파쇄하여근에 그거 골를 때 지금도 씨.”²⁵⁾

(거름 낼 때 췈지. 돼지거름 내고 쇠두엄 낼 때. 이제는 이 굴나무 파쇄해서 그거 고를 때 지금도 씨.)

“무시거 영 동길 때. 걸름 낼 때 씨곡 저거. 최초는 걸름 낼 때 췈지, 옛날에 는 경햇지.”²⁶⁾

(뭐 이렇게 당길 때. 거름 낼 때 쓰고 저거. 최초는 거름 낼 때 췈지, 옛날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



〈사진 32〉 이신백 씨 소장 '쉐스랑'



〈사진 33〉 현갑생 씨 소장 '쉐시랑'

〈사진 32〉는 안성리 이신백 씨(1937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쉐스랑'이다. 예전에는 돼지거름을 내거나 쇠두엄을 낼 때 사용했지만 이제는 굴나무를 파쇄하고 나서 그것을 고르는 작업을 할 때 쓴다고 한다. 〈사진 33〉은 신평리 현갑생 씨(1933년생) 집에서 쓰고 있는 '쉐시랑'이다. 현 씨 역시 거름을 낼 때 이 '쉐시랑'을 췈다고 한다.

“요거는 쉐시랑 새끼, 근래 나온 거. 나 과수원에 갔다가 호미로 허기 실프민 강 검

25) 안성리 이신백 씨 구술.

26) 신평리 현갑생 씨 구술.

질도 캐고 허는 거지, 뭐.”²⁷⁾

(요거는 쇠스랑 새끼, 근래 나온 거. 내가 과수원에 갔다가 호미로 하기 싫으면 가서 김도 캐고 하는 거지, 뭐.)



〈사진 34〉 김병화 씨 소장 '쉐스랑'



〈사진 35〉 김성군 씨 소장 '쉐시랑 새끼'

〈사진 34〉는 가파리 김병화 씨(1943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쉐스랑’이다. 〈사진 34〉의 아래쪽에 보이는 작은 ‘쉐스랑’은 앓아서 작업할 때 쓰는 것이라고 한다. 〈사진 35〉는 신평리 김성군 씨가 사용하고 있는 쇠스랑이다. 김 씨는 이를 ‘쉐시랑 새끼’라고 부르는데 과수원에서 김을 맬 때 호미 대신에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4.2. 김매기와 수확 관련

4.2.1. 호미류

(1) 골챙이

‘골챙이’는 김을 매거나 고구마나 감자 따위를 캤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표준어의 ‘호미’에 대응하는데, 호미도 용도에 따라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거 마농 메난 거.”²⁸⁾

(거 마늘 맷던 거.)

27)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28) 상모1리 김영주 씨 구술.

“조룩은 삭으니까 데껴 불어서.”²⁹⁾

(자루는 삭으니까 벼렸어.)



〈사진 36〉 김영주 씨 소장 골챙이



〈사진 37〉 강태월 씨 소장 '골챙이'

〈사진 36〉은 상모1리 김영주 씨(1947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골챙이’로, 김 씨는 마늘 맬 때 이 ‘골챙이’를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37〉은 상모1리 강태월 씨(1936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골챙이’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자루는 삭아 떨어지고 호미 날만 남아 있다.

“이거 근래에야 썼주. 이 동네는 자갈이 많으니까 자갈 많은 밭은 저렇게 섭 넓은 거 안 쓰주게. 그 전에는 저런 거 아니고 그는 거, 그런 골챙일 쓰다가 요새, 근래에 와서는 저런 거 많이 써.”³⁰⁾

(이거 근래에야 썼지. 이 동네는 자갈이 많으니까 자갈 많은 밭은 저렇게 ‘섭’ 넓은 거 안 쓰지. 그 전에는 저런 거 아니고 가는 거, 그런 호미를 쓰다가 요새, 근래에 와서는 저런 거 많이 써.)

29) 상모1리 강태월 씨 구술.

30) 안성리 임영일 씨 구술.



〈사진 38〉 조이전 씨 소장 '골갱이'



〈사진 39〉 강정일 씨 소장 '골갱이'



〈사진 40〉 고일화 씨 소장 '골갱이'



〈사진 41〉 임영일 씨 소장 '골갱이'

〈사진 38〉은 안성리 조이전 씨(1936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골갱이'다. 손잡이 부분이 깨져서 직접 나무를 잘라 손잡이를 만들었다고 한다. 〈사진 39〉은 안성리 강정일 씨가 사용하고 있는 '골갱이'다. 〈사진 40〉은 신평리 고일화 씨의 '골갱이'고, 〈사진 41〉은 임영일 씨의 '골갱이'다. 임 씨는 안성리 지역은 자갈이 많아서 〈사진 41〉과 같이 갈고리 부분이 넓은 호미는 잘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호미는 근래에 와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2) 호미

'호미'는 곡식이나 나무, 풀 따위를 베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한다. 표준어로 '낫'을 말한다.



〈사진 42〉 허세안 씨 소장 '호미'



〈사진 43〉 문성철 씨 소장 '호미'



〈사진 44〉 고일화 씨 소장 '호미'



〈사진 45〉 윤우미자 씨의 '호미'와 '골갱이'

〈사진 42〉는 상모1리 허세안 씨가 사용하고 있는 '호미'이고, 〈사진 43〉은 신도리 문성철 씨의 '호미', 〈사진 44〉는 신평리 고일화 씨의 '호미'다. 〈사진 45〉는 안성리 윤우미자 씨(1943년생) 댁에서 바구니 안에 보관하고 있는 '호미'와 '골갱이'들이다.

"건 이제사덜 나온 건디 풀 비는 거 아냐, 풀 비는 거. 이거 철물점에 많이 나오지. 풀 빌 때 쓰는 거."³¹⁾

(건 이제야 나온 건데 풀 베는 거 아냐, 풀 베는 거. 이거 철물점에 많이 나오지. 풀 빙 때 쓰는 거.)

31)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사진 46〉 허세안 씨 소장 '호미'



〈사진 47〉 권홍일 씨 소장 '호미'

〈사진 46〉은 상모1리 허세안 씨의 '호미'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호미'로 풀을 벨 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47〉은 상모1리 권홍일 씨가 사용하고 있는 '호미'다.

한편, '호미'의 날이 위 〈사진 42〉에서 〈사진 44〉에 보이는 '호미'들보다는 두꺼워서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용도로 쓰이는 것도 있다. 이를 구좌 지역에서는 '장호미', 성산읍 지역에서는 이를 '메호미'라고 했는데 대정읍 지역에서는 둘을 구분하지 않고 '호미'라고 통칭했다.

"이거 나무게 영 높은 디 거. 높은 디 거 가지치기 햇지. 이런 방풍림덜. 방풍림으로 숙대낭 반도리낭덜 그칠 때 이걸로 헛주. 이거 그냥 호미렌 헛주. 여기서는 저런 호미나 별다른 명칭 붙이진 안하고."³²⁾

(이거 나무에 이렇게 놓은 데 거. 높은 데 거 가지치기 햇지. 이런 방풍림들. 방풍림으로 삼나무 후박나무들 자를 때 이걸로 햇지. 이거 그냥 '호미'라고 했지. 여기서는 저런 '호미'나 별다른 명칭 붙이진 않고.)

〈사진 48〉은 안성리 강정일 씨 댁에서 쓰고 있는 '호미'다. 일반 낫보다 두꺼운 날의 낫을 긴 막대기에 붙여 높은 곳의 나뭇가지를 칠 때 삼나무, 후박나무들을 자를 때 사용했다고 한다.

"낫으로도 사용하고 우리 제주도 말론 호민디 호미로 말고 낫으로 조금 단단하게 헤 가지고 나무 거튼 거 가



〈사진 48〉 강정일 씨 소장 '호미'

챙이 치는 거주. 이건 진짜 나대고. 나대도 나무가챙이 뭐 자를 때 나무 쪽은 것덜 자를 때 쓰는 거. 계메 이거 호미. 단단하게 헤 가지고 나대용도 뷔고 뭐 이 뱃디 갈 때 호미용으로도 쓰고 나대용으로도 쓰고."³³⁾

(낫으로도 사용하고 우리 제주도 말로는 '호미'인데 '호미'로 말고 낫으로 조금 단단하게 해 가지고 나무 같은 거 가지 치는 거지. 이건 진짜 '나대'이고. '나대'도 나뭇 가지 뭐 자를 때 나무 작은 것들 자를 때 쓰는 거. 글쎄 이거 낫. 단단하게 해서 '나대' 용도 되고 뭐 이 뱃에 갈 때 낫용으로도 쓰고 '나대' 용으로도 쓰고.)

"과수원에서 삼나무 가지 칠 때 사용해난 거. 거 가지치기 호미지 뭐, 가지치기 호미."³⁴⁾

(과수원에서 삼나무 가지 칠 때 사용했던 거. 거 가지치기 '호미'지 뭐 가지치기 '호미').



〈사진 49〉 김규화 씨 소장 '호미'



〈사진 50〉 김성군 씨 소장 '호미'

〈사진 49〉는 신도1리 김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미'다. 〈사진 50〉은 신평리 김성군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미'다. 일반 낫의 모양과 비슷하지만 나뭇가지를 자르는 '나대' 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3) 비창

'비창'은 잠녀들이 전복을 떨 때 사용하는 쇠로 된 기다란 도구다. 원래는 바다에서 사용하는 도구였으나 밭일을 할 때 농기구로 사용하기도 했다. 구좌읍 지역에서는 당근을 캤 때 비창을 썼는데 대정읍 지역에서는 주로 마늘을 캤 때 사용했다고 한다.

33)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34)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32) 안성리 강정일 씨 구술.

“비창은 원래 바당에서 해녀덜 쓰는 건디 이건 바당에서 써난 건 아니고 지금은 밧데 강 마늘 뽑을 때 안 나오면 저걸로 제껴. 저건 나가 중간에 사 온 거.”³⁵⁾

(‘비창’은 원래 바다에서 해녀들 쓰는 건데 이건 바다에서 썼던 건 아니고 지금은 밭에 가서 마늘 뽑을 때 안 나오면 저걸로 젖혔어. 저건 내가 중간에 사 온 거.)

〈사진 51〉은 영락리 송한진 씨가 사용하고 있는 ‘비창’이다. ‘비창’은 원래 바다에서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마늘 수확 작업을 할 때 등 밭에서도 ‘비창’을 썼다고 한다.



〈사진 51〉 송한진 씨 소장 ‘비창’

(4) 마농 짤르는 호미

‘마농 짤르는 호미’는 대정 지역에서 마늘을 수확하여 줄기에서 뿌리 부분의 마늘을 잘라 낼 때 사용하는 낫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에 쥐어서 풀을 베는 낫과 달리, 앓을 수 있는 깔개 부분이 있고 날을 빼면 날의 위로 솟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 ‘호미’를 한경면에서는 ‘톱호미’라고도 했다.

“이거 만들어서 하다가 요런 거 나오난 이제 안 썸주. 무거워. 일힐 때 앓는 방석덜 안 나온 때.”³⁶⁾

(이거 만들어서 하다가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안 쓰지. 무거워. 일할 때 앓는 방석들 안 나왔을 때.)



〈사진 52〉 마늘을 수확하여 장만하는 모습



〈사진 53〉 김창남 씨 소장 ‘마농 짤르는 호미’

35)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36) 신평리 고일화 씨 구술.



〈사진 54〉 현갑생 씨 소장 ‘마농 짤르는 호미’



〈사진 55〉 고일화 씨 소장 ‘마농 짤르는 호미’

〈사진 52〉은 상모1리 주민이 마늘을 수확하여 장만하는 모습이다. 〈사진 53〉은 신도1리 김창남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마농 짤르는 호미’로 낫의 날이 접혀 있는 상태다. 〈사진 54〉는 신평리 현갑생 씨, 〈사진 55〉는 신평리 고일화 씨의 ‘마농 짤르는 호미’다. 〈사진 59〉와 〈사진 60〉의 ‘마농 짤르는 호미’에는 편히 앓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방석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4.2.2. 타작 도구

(1) 도께

‘도께’는 곡식의 낱알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다. 긴 막대기 한쪽 끝에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두세 개를 매달아서 막대기를 휘두르면 돌아가게 만들어졌다. 이 부분으로 곡식을 두드려 곡식의 낱알을 떤다.

“탈곡기 나오기 전인 저 도끼, 아니 저 도께. 도께로, 도께로 두드릴 땐 우리가 요만헐 때. 도께로 두드릴 때 우리가 요만헐 때 우리가 도께로 두드리고 우리 육양 베려보난 탈곡기가 낫더라. 요만헐 때 우리가 조록조록 텩기단 도께로 맞넨 허영 저레 가라허곡. 요만헐 때 혼 예닐곱 설 헐 때 그때 도께로 두드려난.”³⁷⁾

(탈곡기 나오기 전엔 저 ‘도끼’, 아니 저 도리깨. 도리깨로, 도리깨로 두드릴 땐 우리가 요만할 때. 도리깨로 두드릴 때 우리가 요만할 때 우리가 도리깨로 두드리고 우리가 커서 보니까 탈곡기가 나왔더라. 요만할 때 우리가 ‘조록조록’ 다니다가 도리깨로 맞는

37)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다고 해서 저리 가라고 하고. 요만할 때 한 예닐곱 살 때 그때 도리깨로 두드렸었어.)

가파리 강순화 씨는 어렸을 때 도리깨질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강 씨가 예닐곱 살 때에는 도리깨를 사용했으며, 도리깨질을 할 때 근처에 가면 도리깨로 맞는다고 저리 가 버리라는 말도 들었었다고 했다. 자라서 보니 탈곡기가 나와서 더 이상 도리깨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마당에 명석덜 깔앙, 가빠도 엇이난 명석 깔앙 콩이나 뭐 두드릴 때 써난 거우다.”³⁸⁾

(마당에 명석들 깔아서, 가빠도 없으니까 명석 깔아서 콩이나 뭐 두드릴 때 썼던 겁니다.)



〈사진 56〉 조두석 씨 소장 '도께'



〈사진 57〉 조두석 씨 소장 '도께'

〈사진 56〉과 〈사진 57〉은 신평리 조두석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께'다. 조 씨는 올해 초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용했던 농기구들을 잘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57〉의 도리깨는 도리깻열 부분이 온전하게 남아 있지만, 〈사진 56〉은 도리깻열이 잘려져 나가 짧은 나뭇가지 한 가닥만 남아 있다.

(2) 보리클

'보리클'은 표준어의 '그네'에 대응하는 말로, 보리를 훑을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한다.

“저거는 맥주 보리 클인디. 이거는 산디 그것도 헐 수 있고, 맥주 보리용.”³⁹⁾

(저거는 맥주 보리 그네인데. 이거는 밭벼 그것도 할 수 있고, 맥주 보리용.)

38) 신평리 조두석 씨 구술.

39)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사진 58〉은 영락리 송한진 씨가 보관하는 있는 '보리클'이다. 송 씨는 위 사진의 그네는 맥주 보리를 탈곡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밭벼를 탈곡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58〉 송한진 씨 소장 '보리클'

4.3. 건조와 손질 관련

4.3.1. 건조 도구

(1) 명석

'명석'은 짚으로 새끼 날을 만들어 네모지게 결여 만든 큰 깔개이다. 흔히 곡식을 널어 말리는 데 사용한다. 건조시키기 위해 널어놓은 곡식을 '날례'라고 하는데, '날례'를 널 때는 '명석'을 펴서 그 위에 널었다.

“명석 꿀앙 그냥 허영 보리 나오는 디만 보리클로 홀트민 보리 나오는 디만 요런 거 꿀앙이, 명석 꿀앙 담아내곡 그냥 흑에 흑에 허영 보리 이제 홀타 놓민이 그디서 탈곡 허더라.”⁴⁰⁾

(명석 깔아서 그냥 해서 보리는 나오는 데만 보리 그네로 훑으면 보리 나오는 데만 요런 거 깔아서, 명석 깔아서 담아내고 그냥 훑에. 훑에 해서 보리 이제 훑아 놓으면 거기서 탈곡하더라.)

가파리 강순화 씨에 의하면 곡식을 말리기 위해 곡식을 널 때뿐만 아니라 탈곡 작업을 할 때도 명석이 필요한데 보리가 나오는 부분만 명석을 깔아서 보리를 담아냈다고 한다.

“명석은 거 물린 것덜. 명석 짓는 거 봄밧주. 헐 줄도 압니다. 그런 거 옛날 다 봤으

40)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니까 뭐. 주로 보리. 보리, 조, 콩 메밀 그런 거 다 널었주. 테작할 때도 명석 꿀양 허는 것도 있고, 그대로 저 밑바닥에 그대로 허는 것도 있고. 주로 명석 꿀양 허는 거 주로 뭐 거의가 명석 꿀양 햇수다.”⁴¹⁾

(명석은 거 물려받은 것들. 명석 결는 거 봤었어. 할 줄도 압니다. 그런 거 옛날 다 봤으니까 뭐. 주로 보리. 보리, 조, 콩 메밀 그런 거 다 널었지. 타작할 때도 명석 깔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대로 저 밑바닥에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 주로 명석 깔아서 하는 거 주로 뭐 거의가 명석 깔아서 했습니다.)

“물린 거. 친정아방안티 물려 온 거. 이디 왕 살림 살아가난 웃으난 물려진 거지.”⁴²⁾

(물려받은 거. 친정아버지한테 물려받아 온 거. 여기 와서 살림 살아가니까 없으니까 물려받은 거지.)



〈사진 59〉 조이전 씨 소장 '명석'



〈사진 60〉 홍옥춘 씨 소장 '명석'



〈사진 61〉 송한진 씨 소장 '명석'

〈사진 59〉는 안성리 조이전 씨가 보관하는 '명석'이다. 조 씨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명석 결는 것을 옆에서 지켜 보기도 하고 직접 결어 보기도 했다고 한다. 명석은 깔아서 곡식을 널기도 하고 타작을 할 때도 깔아 쓰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 60〉은 영락리 홍옥춘 씨(1932년생) 댁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명석이다. 홍 씨가 결혼해 살림살이를 하면서 친정아버지에게서 이 명석을 받아 왔다고 한다. 〈사진 61〉은 영락리 송한진 씨가 사용했던 명석이다.

41)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42) 영락리 홍옥춘 씨 구술.



〈사진 62〉 강정일 씨 소장 '명석'



〈사진 63〉 임영일 씨 소장 '명석'

〈사진 62〉 안성리 강정일 씨 댁에 보관되어 있는 명석이고, 〈사진 63〉은 안성리 임영일 씨가 보관하고 있는 '명석'이다.

(2) 덕석

'덕석'은 동근 모양의 맷방석으로, 이 위에 맷돌을 올려놓아 맷돌을 갈거나 적은 양의 곡식을 말릴 때 사용했던 깥개다. 명석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결었다면 '덕석'은 원형 모양으로 결었다. 구좌읍 지역에서는 '그렛방석', 안덕면 지역에서는 '독석'이라고 불렀던 것을 대정읍 지역에서는 '덕석'이라고 하였다.

“보리도 허고 그 다음은 뭐 콩이나 뭐나 흐꼼한 거 널고 또 이디서 그레 굽고. 보리나 조 콩 모든 잡곡 다 그레 안 굽 것이 엇엇어. 그레로 다 장만도 허고 햇주게. 이건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디 우리 육십 년대까지만 해도 집이서 써난 거지. 이거 벗집. 벗집으로 다 햇주게. 여기 벼는 여기서 신평, 신평리 거기에 벼를 많이 햇지게. 나 어렸을 적에 이 명석, 덕석 줄고 현 하르부지가 엊어낫주. 바로 우리 집 올레 집이 엊엉나 봐낫주, 멘드는 거. 올레 집에 살면서 전문적으로 이거 만들어근에 팔기도 하고 그린 하르부지가 우리 어렸을 적에 엊어낫어.”⁴³⁾

(보리도 하고 그 다음은 뭐 콩이나 뭐나 조그마한 거 널고 또 여기서 맷돌 갈고. 보리나 조 콩 모든 잡곡 다 맷돌 안 굽 것이 없었어. 맷돌로 다 장만도 하고 했지. 이건 우리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건데 우리 육십 년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썼던 거지. 이거 벗집. 벗집으로 다 했지. 여기 벼는 여기서 신평, 신평리 거기에 벼를 많이 했지. 내가 어렸을 적에 이 명석, 맷방석 결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바로 우리 집 골목 이웃한

43) 안성리 임영일 씨 구술.

집에 있어서 내가 봤었어, 만드는 거. 골목 이웃한 집에 살면서 전문적으로 이거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할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적에 있었어.)

〈사진 64〉는 안성리 임영일 씨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덕석’이다. 부모님 때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집 안에서 썼던 것이라고 한다. 이 ‘덕석’ 위에서 맷돌도 갈고 적은 양의 곡식도 널었다고 한다. 또 임 씨가 어린 시절 이웃한 집에 명석이나 ‘덕석’을 전문적으로 겉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덕석’을 만드는 것을 봤었다고 한다.

(3) 가빠

‘가빠’는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꺼운 천 또는 거기에 고무 같은 것을 먹인 천을 말한다.

“명석 우리 집인 혼다섯 개 있어낫어. 다섯 개 허면은 우리 마당에이, 마당에 다섯 개 폐와근에 젠 보리 거튼 거나 많은 양 혼 뺀에 물릴 수가 있주게. 글후제 가빠 나오난 이제는 져 명석 대신 이 가빠를 사용해, 다. 이것도 이 가빠 나온 게 혼 칠십 년대 후에. 이거 나오난 이디 날레도 널고 비 올 적에 저 비가림막으로도 쓰고 다목적으로 썼어. 날레 널 때 가빠가 간단히지게.”⁴⁴⁾

(명석 우리 집에는 한 다섯 개 있었어. 다섯 개 하면 우리 마당에, 마당에 다섯 개 폐와근에 그래서 보리 같은 거나 많은 양을 한 번에 말릴 수가 있지. 그 후에 ‘가빠’ 나오니까 이제는 져 명석 대신 이 ‘가빠’를 사용해, 다. 이것도 이 가빠 나온 게 한 칠십 년대 후에. 이거 나오니까 여기 ‘날레’도 널고 비



〈사진 64〉 임영일 씨 소장 ‘덕석’

44) 안성리 임영일 씨 구술.



〈사진 65〉 임영일 씨 소장 ‘가빠’

올 적에 저 비가림막으로도 쓰고 다목적으로 썼어. ‘날레’ 널 때 ‘가빠’가 간단하지.)

〈사진 65〉는 안성리 임영일 씨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가빠’다. 임 씨는 명석 여러 개를 폐서 곡식을 말리던 것을, 칠십 년대에 ‘가빠’가 나오자 명석 대신 간단하게 ‘가빠’를 사용해 ‘날레’를 널었다고 한다. 한편 ‘가빠’는 여러 목적으로 쓰였으며 비가림 용으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4) 솔박

‘솔박’은 나무를 등그스름하면서도 납작하게 파서 만든 긴 모양의 바가지 비슷한 도구다. 근래에 와서는 양철이나 플라스틱을 이용해 만든다. ‘솔박’은 지역에 따라서 ‘좀파’, ‘좀박’이라고도 하는데, 한경면 지역에서는 ‘좀파’이라고 구좌면, 성산면, 안덕면 지역의 제보자들은 ‘솔박’ ‘손박’이라고 하였다.

“이건 뭐 담을 때. 곡식이고 아무거나 뭐 담을 때. 또 이렇게 불릴 때 이렇게 거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불릴 때. 이거 바래 봐이. 이렇게 불릴 때, 몬지락 나가게시리. 이거는 우리 하르방이 냉기단 두 개 이신 집 이시난 하나 아져와 분 거. 젠 이거 그만이 놔뒀지게.”⁴⁵⁾

(이건 뭐 담을 때. 곡식이고 아무거나 뭐 담을 때. 또 이렇게 불릴 때 이렇게 떠서 이렇게 이렇게 불릴 때. 이거 봐 봐. 이렇게 불릴 때, 먼지 나가게끔.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다니다가 두 개 있는 집 있으니까 하나 가져와 버린 거. 그래서 이거 가만히 놔뒀지.)

“솔박이라고 해서 이건 농서를, 보리를 장만하나 콩을 장만하나 콜 장만하나 나룩을 장만하나 헌덴 허면은 이걸 담아 놓고 저례라도 담아 놓고. 이거 또 불림질하는 거라. 영 행 영 행. 이거 누가 주라고 해도 나 안 줘어. 이거 낭 존 거로 허는 거. 이거 삿지. 아이고 그찌 늑는 건디 뭐. 시집오니까 삿지. 시집오니까 뭐 시어머니도 아무것도 엿고 농서를 지게 뛰니까 산 거야.”⁴⁶⁾

(‘솔박’이라고 해서 이건 농사를, 보리를 장만하거나 콩을 장만하거나 조를 장만하거나 벼를 장만하거나 한다고 하면 이걸 담아 놓고 저거에라도 담아 놓고. 이거 또 불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누가 주라고 해도 나 안 줘어. 이거 나무 좋

45) 신평리 현갑생 씨 구술.

46) 상모1리 강태월 씨 구술.

은 거로 하는 거. 이거 샀지. 아이고, 같이 늙는 건데 뭐. 시집오니까 샀지. 시집오니까 뭐 시어머니도 아무것도 없고 농사를 지게 되니까 산 거야.)



〈사진 66〉 현갑생 씨 소장 '솔박'



〈사진 67〉 강태월 씨 소장 '솔박'

〈사진 66〉은 신평리 현갑생 씨가 사용하고 있는 '솔박'이다. '솔박'은 농사지을 때 곡식을 장만하거나 곡물에 섞여 쪽정이나 티끌을 바람에 불릴 때 사용했다. 현 씨는 '솔박'의 금이 난 부분을 철사로 고정하여 깨지지 않도록 하여 쓰고 있었다. 〈사진 67〉은 상모1리 강태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솔박'이다. 강 씨는 시집와서 이 '솔박'을 장만해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을 장만할 때 사용했다.

"손박. 옛날 보리 널고 담곡 할 때 이걸로 담았지. 이거 우리 아부지가 직접 만든 거. 이거 다. 나도 모르크라, 이거 무슨 낭으로 만들어신지. 우리 아부지가 목수 일 조금 햇어."⁴⁷⁾

(‘손박’. 옛날 보리 널고 담고 할 때 이걸로 담았지. 이거 우리 아버지가 직접 만든 거. 이거 다. 나도 모르겠어, 이거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목수 일 조금 했어.)

"좀팍 이거 깨지니까 이거 하르방이 불인 거지. 맷 년이나 뛰신지 오래부난 어디 알 아지크라? 이거 물려받은 거지."⁴⁸⁾

(‘좀팍’ 이거 깨지니까 이거 할아버지(남편)가 불인 거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오래니까 어디 알겠어? 이거 물려받은 거지.)

47)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48) 상모1리 이창선 씨 구술.



〈사진 68〉 김성군 씨 소장 '손박'



〈사진 69〉 이창선 씨 소장 '좀팍'

대정읍 지역에서는 제보자에 따라 '솔박'을 '손박'이라 부르기도 하고 '좀팍'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진 68〉은 신평리 김성군 씨 집에 보관하고 '손박'으로 김 씨의 아버지가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한다. 두 개의 '손박'이 크기가 조금 달랐는데 〈사진 68〉의 위쪽에 놓여 있는 것이 조금 작고 아래쪽의 것이 컸다. 〈사진 69〉는 상모1리 이창선 씨(1933년생)가 사용했던 '좀팍'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다. '좀팍'의 모서리가 깨진 채 보관되어 있다.

"손박 이디 싯주개. 거 첨 호박씨라, 웨씨라 그거."⁴⁹⁾
(‘손박’ 여기 있지. 거 참 호박씨야, 외씨야 그거.)

'솔박'은 곡식을 장만할 때도 사용하지만 간단하게 무엇을 말리거나 보관할 때 이용하기도 한다. 〈사진 70〉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손박'이다. 나무로 만든 '손박'은 두 개로 갈라져 있었는데, 중간 중간 철사로 묶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 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손박' 안에는 말리고 있는 호박씨 등이 들어 있었다.

"솔박 이서. 그 솔박에 이신 건 제피. 이거 향으로 옛날 자리훼 같은 거 놓는 거. 제피 제피 씨."⁵⁰⁾

(‘솔박’ 있어. 그 ‘솔박’에 있는 건 제피. 이거 향으로 옛날 자리돔회 같은 거 놓는 거. 제피 제피씨.)

49)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50)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사진 70〉 강순화 씨 소장 '손박'



〈사진 71〉 조이전 씨 소장 '솔박'

플라스틱 제품들이 보급되면서 예전에 나무로 만든 '솔박'을 대신해서 플라스틱 '솔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진 71〉은 안성리 조이전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솔박'이다. '솔박' 안에 제피 씨를 넣어 말리고 있다.

(5) 당그네

'당그네'는 표준어의 '고무래'에 대응하는 말로 곡식을 그려모으거나 펴서 널 때 사용하는 도구다. '당그네'는 표준어의 '고무래'에 대응하는데, 이를 구좌읍이나 성산읍 지역에서는 '군대'라고 하였다.

"너는 거, 곡석 너는 거. 날레 널영 영 젓는 거."⁵¹⁾

(너는 거, 곡식 너는 거. '날레' 널어서 이렇게 젓는 거.)

"어, 그거 당그네. 하르방 용시헐 때 헌 거. 혼 이십 년 됐지. 하르방 산 때 헌 거난. 용시헐 때."⁵²⁾

(어, 그거 고무래. 할아버지(남편) 농사할 때 했던 거. 한 이십 년 됐어. 할아버지 살았을 때 했던 거니까. 농사할 때.)



〈사진 72〉 현갑생 씨 소장 '당그네'



〈사진 73〉 김성군 씨 소장 '당그네'



〈사진 74〉 송한진 씨 소장 '당그네'



〈사진 75〉 강순화 씨 소장 '당그네'

〈사진 72〉는 신평리 현갑생 씨, 〈사진 73〉은 신평리 김성군 씨가 사용했던 '당그네'다. 〈사진 74〉에서처럼 영락리 송한진 씨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당그네'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75〉는 가파리 강순화 씨 맥의 창고 천장 아래에 보관되어 있는 '당그네'다. '당그네'의 머리 부분의 크기나 텁니 모양의 간격 등은 곡식을 잘 말리기 위해 너는 곡식의 양이나 종류에 따라 달리 제작되기도 한다. 또 손잡이의 길이도 사용하는 사람의 체격 등에 따라서 달리하여 만들어 사용한다. 대정읍 지역 제보자들의 '당그네' 모양도 제각각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1) 신평리 현갑생 씨 구술.

52)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4.3.2. 체류

(1) 열멩이

‘열멩이’는 구멍이 굽은 체로, 곡식을 손질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의 ‘어레미’에 대응한다. 가루 따위를 거르는 그물 모양의 셋불은 예전에는 대나무를 엮어 만들어 사용했으나 요즘은 철사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열멩이. 저건 대로 멘든 거. 저건 대 열멩이난, 저거 대 열멩이라고 대로 멘들안. 저건 큰 물이 강 사 온 거. 저거 콩 치곡 헤는 거. 콩도 치고이. 이건 보리 치고 저건 콩 치는 거. 할망 용시헐 때 헤난 거.”⁵³⁾

(어레미. 저건 대로 만든 거. 저건 대 어레미니까, 저거 대 어레미라고 대로 만들었어. 저건 큰 물에 가서 사 온 거. 저거 콩 치고 하는 거. 콩도 치고. 이건 보리 치고 저건 콩 치는 거. 할머니(내가) 농사할 때 했던 거.)

“거 열멩이. 콩 장만할 때 써난 거. 저거 오래 됐주. 아부지네서부터 쓰단 거 저거 이제도 쓰지게, 이제도.”⁵⁴⁾

(거 어레미. 콩 장만할 때 썼던 거. 저거 오래 됐지. 아버지네부터 쓰던 거 저거 이제도 쓰지, 이제도.)



〈사진 76〉 강순화 씨 소장 ‘열멩이’



〈사진 77〉 이신배 씨 소장 ‘열멩이’

〈사진 76〉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열멩이’다. 가늘게 쪘낸 대나무를 엮어 만든 것으로, 둘레 부분은 바구니를 만들 듯이 대나무를 촘촘하게 엮었고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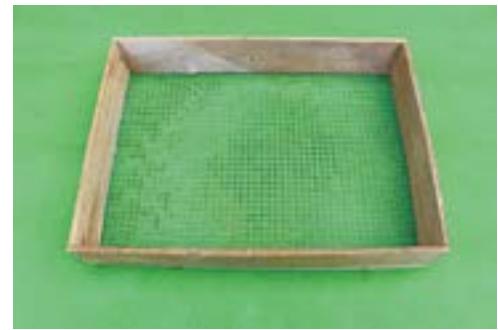
53)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54) 안성리 이신배 씨 구술.

부분은 성 바구니를 모양으로, ‘열멩이’의 테두리 부분은 나일론 줄로 테두리 부분을 둘러 사용했었다. 강 씨는 ‘큰 물’에 가서 이를 사 와서 농사지을 때 사용했다고 한다. 여기서 ‘큰 물’은 제주 본섬을 말하는데 가파리 사람들은 ‘큰 물’인 대정 지역을 왕래하며 필요한 물건을 구한다고 한다. 〈사진 77〉은 안성리 이신배 씨가 사용하고 있는 ‘열멩이’다. 부모님이 사용했던 것을 물려받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건 콩 같은 거, 콩 같은 거 테작해서 저 찌꺼기 걸려내는 거.”⁵⁵⁾

(그런 건 콩 같은 거, 콩 같은 거 타작해서 저 찌꺼기 걸려내는 거.)



〈사진 78〉 조이전 씨 소장 ‘열멩이’



〈사진 79〉 이신배 씨 소장 ‘체’

많은 양의 곡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체나 어레미를 크게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큰 ‘열멩이’는 〈사진 78〉과 〈사진 79〉에서처럼 나무로 직사각형 모양의 셋바퀴를 만들고 철사로 된 셋불을 붙여 사각형의 어레미나 체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사진 78〉은 안성리 조이전 씨가 사용했던 ‘열멩이’로, 콩을 수확하여 타작하고 나서 장만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79〉는 안성리 이신배 씨가 보관하고 있는 ‘체’다. 이 씨는 이것을 유채를 장만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이거 저 보리도 치곡 콩도 치곡.”⁵⁶⁾

(이거 저 보리도 치고 콩도 치고.)

“이거는 콩 테작해서 이 선별, 선별헐라면 이 열멩이로 쳐야지. 요것도 열멩이고.”

55)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56) 신도1리 고순열 씨 구술.

농서현 거 영 치젠 허민 요런 거 다 집이 있지.”⁵⁷⁾

(이거는 콩 타작해서 이 선별, 선별하려면 이 어레미로 쳐야지. 요것도 어레미고. 농사한 거 이렇게 치려고 하면 요런 거 다 집에 있지.)



〈사진 80〉 고순열 씨 소장 ‘얼멩이’



〈사진 81〉 고일화 씨 소장 ‘얼멩이’

〈사진 80〉은 신도1리 고순열 씨가 사용하고 있는 ‘얼멩이’이고, 〈사진 81〉은 신평리 고일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얼멩이’다. 고일화 씨는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아 위 사진의 ‘얼멩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콩이나 보리 등을 수확해서 장만하려고 할 때 필 요한 ‘얼멩이’는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2) 체

‘체’는 가루를 곱게 치거나 액체를 밟거나 거르는 게 쓰는 도구다. 체도 쓰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히 챗불의 구멍 크기에 따라 체의 이름을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 ‘총체’ 또는 ‘줌진체’라고 부른다. 구멍이 가장 큰 것은 ‘얼멩이’로, 이것은 콩 등을 타작한 후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데 사용하고, 곡류나 가루의 종류에 따라 체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건 줌진체 끄는끄는한 거.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 그루치는 총체, 네 가지 셔. 원래 다섯 가지 있어. ‘얼멩이’ 영, 건 테작힐 때 건 거 쳐내고 허영 다섯 가지로 써나신다. 동글랑허게 생긴 건, 고망 훑은 건 대체 또 허썰 중간 건 대거름체 또 허꼼 훑은 그루 나는 건 거름체, 줌진 그루 나는 건 줌진 그루체. 총챈 그거 줌진 게 총체. 옛날 그런 줌진 천 물총으로 혜사주. 그건 그 체 맹글젠 허민 그런 걸로 멘들고 또 허썰 훑은 체는 대 줌질

57) 신평리 고일화 씨 구술.

이 허영 대로 멘글고. 대체가 셔나서, 동글락한 거. 요만인 헌 거, 얼멩이 말양 허썰 젤로 고망 훑은 건 대체 요만이썩 줌진 건 대로 해도 대거름체 또로 이젠 총 무신 총으로 헌 건 거름체. 대나무로 줌질이 행 맹글았어. 줌질줄질이 행, 대나무로 멘들안에.”⁵⁸⁾

(‘줌진체’ 가늘디가는 거.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 가루치는 ‘총체’, 네 가지 있어. 원래 다섯 가지 있어. 어레미랑, 건 타작할 때 대충 쳐내고 해서 다섯 가지로 썼었는데. 동그랗게 생긴 건, 구멍 굵은 건 ‘대체’ 또 조금 중간 건 ‘대거름체’ 또 조금 굵은 가루 나는 건 ‘거름체’, 가는 가루 나는 건 가는 가루체. ‘총체’는 그거 가는 게 ‘총체’. 옛날 그런 가는 체는 말총으로 해야지. 그건 그 체 만들려고 하면 그런 걸로 만들고 또 조금 굵은 체는 대 가늘게 해서 대로 만들고. 대체가 있었어, 동그란 거. 요만큼 한 거, ‘얼멩이’ 말고 조금 제일로 구멍 굵은 건 ‘대체’ 요만큼 가는 건 대로 해도 ‘대거름체’ 따로 이젠 총, 무슨 총으로 한 건 ‘거름체’. 대나무로 가늘게 해서 만들었어. 가늘디가늘게 해서, 대나무로 만들어서.)

상모1리 양춘계 씨(1925년생)는 체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얼멩이’까지 포함한다면 다섯 가지인데, ‘얼멩이’는 타작을 할 때 곡물을 장만할 때 사용하고 그 외의 체는 다시 구멍이 굵은 것은 ‘대체’, 그보다 조금 작은 것을 차례로 ‘대거름체’, ‘거름체’, 가루를 치는 가는 건 ‘총체’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가는 체는 말총을 이용해 서 만들고 굵은 체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고망 다 틀려. 그루 치는 거 콩그루 치는 거, 무물그루 치는 거 다 틀려. 그건 콩 장만 헐 때 치는 거. 이건 얼멩이라도 줌진 건게. 그것도 셔얄 거. 이 줌진 것도 셔얄 거, 중에 것도 셔얄 거 다 셔야. 이것도 오십 년이나 되는 거라. 그거는 보리쌀 치는 거. 그건 콩그루 치는 거, 무물그루 치는 거.”⁵⁹⁾

(구멍이 다 달라. 가루 치는 거 콩가루 치는 거, 메밀가루 치는 거 다 달라. 그건 콩 장만할 때 치는 거. 이건 ‘얼멩이’ 여도 가는 거야. 그것도 있어야 할 거. 이 가는 것도 있어야 할 거, 중간의 것도 있어야 할 거 다 있어야. 이것도 오십 년이나 되는 거야. 그거는 보리쌀 치는 거. 그건 콩가루 치는 거, 메밀가루 치는 거.)

영락리 홍옥춘 씨가 소장하고 있는 체 중 ‘얼멩이’라고 불리지만 가는 모양의 것이 있었다. 홍 씨는 체의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58) 상모1리 양춘계 씨 구술.

59) 영락리 홍옥춘 씨 구술.



〈사진 82〉 김영진 씨 소장 '체'들



〈사진 83〉 홍옥춘 씨 소장 '체'들

〈사진 82〉은 신도1리 김영진 씨(1948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체들이고 〈사진 83〉은 홍옥춘 씨가 보관하고 있는 체들이다.

“저거 이렇게 이렇게 좀진 거 칠 때. 좀진 거 나오게 바닥더레. 이렇게 이렇게 걸르는 거. 요거는 좀진 그루 치는 거, 소래기 치는 거. 요만씩한 거 치는 거.”⁶⁰⁾

(저거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칠 때. 가는 거 나오게 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거르는 거. 요거는 가는 가루 치는 거, 쌀 부스러기 치는 거. 요만한 거 치는 거.)

“이런 건 이제도 썬주게. 꿰 허민, 꿰 쪼끔씩 헨주게. 그자 일곱으답 말 그것만 헸서. 옛날엔 하영 헷주만 허지 못허난 안 헤주.”⁶¹⁾

(이런 건 이제도 쓰고 있지. 깨 하면, 깨 조금씩 하고 있지. 그저 일고여덟 말 그것만 하고 있어.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하지 못하니까 안 하고 있지.)

“이거는 이제도 써, 깨 할 때. 대거름체 무신 체. 대거름체는 걸르는 것이 대거름체 아니? 이거 다 어머니 쓰단 거.”⁶²⁾

(이거는 이제도 써, 깨 할 때. ‘대거름체’ 무슨 체. ‘대거름체’는 거르는 것이 ‘대거름체’ 아니? 이거 다 어머니 쓰던 거.)

“그루 저 합체로 쳐. 질 좀진 거 합체주. 흙꼼 흙은 건 거름체 그 다음 흙꼼 흙은 건 대거름체. 그 다음 얼멩이.”⁶³⁾

60) 신평리 현갑생 씨 구술.

61) 상모1리 김영주 씨 구술.

62) 영락리 고동열 씨 구술.

63)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가루 저 합체로 쳐. 제일 가는 거 합체지. 조금 굵은 건 거름체. 그 다음 조금 굵은 건 대거름체. 그 다음 ‘얼멩이’)



〈사진 84〉 현갑생 씨 소장 '체'



〈사진 85〉 김영주 씨 소장 '체'



〈사진 86〉 고동열 씨 소장 '체'



〈사진 87〉 강순화 씨 소장 '체'

〈사진 84〉는 신평리 현갑생 씨가 가루 치는 데 사용하는 체이고, 〈사진 85〉는 상모1리 김영주 씨가 지금도 깨를 장만할 때 사용하고 있는 체다. 〈사진 86〉은 영락리 고동열 씨가 보관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사진 87〉은 가파리 강순화 씨의 체로 강 씨는 챗불이 가는 체를 ‘합체’라고 했다.

“거름체, 대거름체, 얼멩이 대체. 저건 얼멩이. 훑은 거부터 허민 얼멩이 그 다음은 대체 그 다음은 대거름체 그 다음은 총체. 거 대거름체로 소래기 쳇거든. 옛날은 보리방에 여기서 찍엉 명석에 널어서 물류왕 그거 그레에 또시 골았거든, 우리가. 대거름체로 치면은 그건 소래기 그 아래 건 그루. 소래기론 밥행 먹으면 맛좋아. 좀지니까 우리 아부지네가 이가 잘 엇엉, 날그치 허난에 걸로 밥허민 막 좋아해. 잘 넘어가니까. 게니 까 크게 못 허여. 자꾸 골양 치곡 골양 치곡.”⁶⁴⁾

64) 영락리 송옥현 씨 구술.

(‘거름체’, ‘대거름체’, ‘얼멩이’, ‘대체’. 저건 ‘얼멩이’. 굽은 거부터 하면 ‘얼멩이’ 그 다음은 ‘대체’ 그 다음은 ‘대거름체’ 그 다음은 ‘총체’. 거 ‘대거름체’로 쌀 부스러기 쳤거든. 옛날은 보리 방아 여기서 찧어서 명석에 널어서 말려서 그거 맷돌에 또 갈았거든, 우리가. ‘대거름체’로 치면 그건 쌀 부스러기 그 아래 건 가루. 쌀 부스러기로는 밥 해서 먹으면 맛좋아. 가느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가 잘 없어서, 나 같이 하니까 거로 밥 하면 아주 좋아해. 잘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크게 못 해. 자꾸 갈아서 치고 갈아서 치고.)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송한진 씨의 누님인 송옥현 씨(1937년생)는 체의 첫불이 굽은 순서대로 하면 ‘얼멩이’, ‘대체’, ‘대거름체’, ‘총체’가 있다고 한다.

송옥현 씨의 구술에 의하면 ‘대거름체’는 주로 맷돌에 보리를 갈고 나면 나오는 쌀 부스러기를 거르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보리를 방아에 찧어서 말리고 다시 맷돌에 갈아서 체로 치고 다시 갈아서 체로 치는 일을 했다. 보리를 장만해서 밥을 지어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알 수 있다.



〈사진 88〉 김창남 씨 소장 ‘체’



〈사진 89〉 백순자 씨 소장 ‘체’



〈사진 90〉 고일화 씨 소장 ‘체’



〈사진 91〉 조이전 씨 소장 ‘체’



〈사진 92〉 김희정 씨 소장 ‘체’



〈사진 93〉 송한진 씨 소장 ‘체’

〈사진 88〉은 신도1리 김창남 집에서 쓰고 있는 ‘체’들이고, 〈사진 89〉는 가파리 백순자 씨(1937년생), 〈사진 90〉은 신평리 고일화 씨, 〈사진 91〉은 안성리 조이전 씨, 〈사진 92〉는 신평리 김희정 씨(193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체다.

〈사진 93〉은 영락리 송한진 씨 댁 창고 벽에 걸려 있는 체들이다. 크기가 다른 체들이 걸려 있다.

(3) 푸는체

‘푸는체’는 표준어의 ‘키’에 대응하는 말로, 곡식 따위를 까불러 쪽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다.

“나가 산 거. 나 이디 오란 산 거. 장시 뎅기난 삿주. 옛날 이거 정동이렌 혀주, 정동. 풀 불른 건 나가. 헐어근에 새어가난 풀 불랑 씻주게. 영 쓰단 떼어지민 확 벗겨됭 또 새로 불르고. 이거 오래서. 이제라도 쪼금현 건 이것에 푸주게. 문지 나가게. 콩이고 꿰고 아무거라도 깍줄렌 이런 것에 내쳐.”⁶⁵⁾

(내가 산 거. 내가 여기 와서 산 거. 장수 다니니까 샀지. 옛날 이거 맹맹이덩굴이라고 하지, 맹맹이덩굴. 풀 바른 건 내가. 헐어서 새가니까 풀 발라서 썼지. 이렇게 쓰다가 떼어지면 확 벗겨두고 또 새로 바르고. 이거 오랬어. 이제라도 조그마한 건 이것에 까부르는 거지. 먼지 나가게. 콩이고 깨고 아무거라도 쪽정이는 이런 것에 내쳐.)

65) 상모1리 이창선 씨 구술.



〈사진 94〉 이창선 씨 소장 '푸는체' 앞면



〈사진 95〉 이창선 씨 소장 '푸는체' 뒷면

〈사진 94〉와 〈사진 95〉는 상모1리 이창선 씨의 '푸는체'다. 이 씨는 마을에 키를 팔려 온 장수에게서 이 키를 샀다고 한다. 땅뙈이덩굴로 만든 '체'가 혈자 직접 천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천이 헐면 뜯어내서 다시 다른 천을 붙이고 다시 붙이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콩이나 참깨 같은 곡물의 쪽정이를 까불러 골라내는 데 쓰고 있다.

"이건 푸는체. 이것도 그땐 이디 장서 뎅겨라. 푸는체 장시. 경행 이거. 이것도이. 이거 나영호니 늙는 거여게."⁶⁶⁾

(이건 키. 이것도 그땐 여기 장사 다녔어. 키 장사. 그래서 이거. 이것도. 이거 나와 같이 늙는 거야.)

"이거 옛날 곡식해근에 뭐 굴릴 적에 저 흙도 골리고 모래도 골리고. 쳐 가믄 골려지 주. 조, 보리 뭐 흐꼼씩 헌 거 다 푸는체로 옛날엔 햇주."⁶⁷⁾

(이거 옛날 곡식해서 뭐 고를 적에 저 흙도 고르고 모래도 고르고. 쳐 가면 고를 수 있지. 조, 보리 뭐 조금씩 한 거 다 키로 옛날에는 했지.)

"이건 푸는체 푸닥푸닥 푸는 거."⁶⁸⁾

(이거 키, '푸닥푸닥' 푸는 거.)



〈사진 96〉 강순화 씨 소장 '푸는체'



〈사진 97〉 김창남 씨 소장 '푸는체'



〈사진 98〉 현갑생 씨 소장 '푸는체'



〈사진 99〉 홍옥춘 씨 소장 '푸는체'

〈사진 96〉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푸는체'다. '푸는체' 안쪽에 천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사진 97〉은 신도1리 김창남 씨, 〈사진 98〉은 신평리 현갑생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푸는체'다. 〈사진 99〉는 영락리 홍옥춘 씨의 '푸는체'인데 앞의 사진의 다른 '푸는체'들과 모양이 조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4.3.3. 7례류

(1) 방앗돌

'방앗돌'은 표준어의 '연자매'에 대응하는 말로, 방아를 짚을 때 사용했던 돌이다. 보통 방앗간에 해당하는 '물방에'에 설치되어 마을 사름들이 곡식을 장만할 때 사용했던 기구다.

66)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67) 신도1리 김창남 씨 구술.

68) 신평리 현갑생 씨 구술.

“보리 그대로 놔뒀당 먹을 때 방에 지레 가는 거주. 옛날에는 방에, 정미소 엊일 때는 연자방아에서도 헷거든. 게 물방에렌 허주. (신평리는) 요디 요 딱 카브에 그디 하나 잇었고. 요 내려가다 보민 중간에 하나 잇었고. 저 밑에 잇었고. 상동 쪽에는 그디 잇고 그 밑에도 하나 잇었고.”⁶⁹⁾

(보리 그대로 놔뒀다가 먹을 때 방아 찧으러 가는 거지. 옛날에는 방아, 정미소 없을 때는 ‘연자방아’에서도 했거든. 그래 ‘물방에’라고 하지. (신평리는) 요기 요 딱 커브에 거기 하나 있었고. 요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하나 있었고. 저 밑에 있었고. 상동 쪽에는 거기 있고. 그 밑에도 하나 있었고.)

“리사무소 잇는 동네 신물동인데 그디 건 그건 어디 다른 디 거 갖다 논 거지. 원래 거기 엇어난 거. 다른 디 거 갖다 논 거. 신풍 어디 거 갖다 놔실 거지. 웨나하면 사삼사건 때 불 붙여 부니까 거이가 다 까겼는데 거 안 까진 거 몇 개 남은 것만 그디 갖다 논 거주.”⁷⁰⁾

(리사무소 있는 동네는 신물동인데 거기 건 그건 어디 다른 데 거 갖다 놓은 거지. 원래 거기 없었던 거. 다른 데 거 갖다 놓은 거. 신풍 어디 거 갖다 놨을 거지. 왜냐하면 사삼사건 때 불 붙여 버리니까 거의가 다 깨어졌는데 거 안 깨진 거 몇 개 남은 것만 거기 갖다 놓은 거지.)



〈사진 100〉신평리 리사무소 앞 ‘방앗돌’



〈사진 101〉가파초등학교 안의 ‘방앗돌’

〈사진 100〉은 신평리 리사무소 앞에 놓여 있는 ‘방앗돌’이다. 신평리 김성군 씨에 의하면 신평리에 ‘물방에’는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 리사무소 앞에 놓여 있는 ‘방앗돌’은 리사무소가 있는 동네에서 사용했던 것은 아니지만 신평리 마을에서 사용했던

69)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70)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것이라고 한다. 〈사진 101〉은 가파초등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방앗돌’이다.

“밥해 먹젠 허믄 이제 이디서이 물방에 쳐서이. 방에 지고 어떤 때 이디서 못 지민 모실포서. 짹이, 째근에 베로 하나 시깽 강 모실포로 강 쳐 오고. 물방에 그건이 좀 옛날에 물방에 행 쉐로 허영이. 이던 물안 혈다. 쉐로 허영. 아이고, 말 말라, 우리 혼 여남은 설엔이 혼, 아침 혼 아메도 네 시쯤 일려부는 생이라. 일리민 창 낭에 돌아정이 출명 창 낭에 돌아정. 쉐 안 가민 어멍은 영 영 당그네로 허당 “야, 쉐 몰라.”, “예, 몰암수다.” 허멍 헷저게. 그거이 우리 어린 때, 열 살 때 쉐로 물방에. 방에도 이 섬에 하낫지.”⁷¹⁾

(밥해 먹으려고 하면 이제 여기서 ‘물방에’를 찧었어. 방아 찧고 어떤 때 여기서 못 찧으면 모슬포에서. (인원을) 째서, 째근에 배로 하나 실어 가서 모슬포로 가서 찧어 오고. ‘물방에’, 그건 참 옛날에 ‘물방에’ 해서 소로 해서. 여긴 말 안 해. 소로 해서. 아이고, 말 말아라, 우리 한 여남은 살에는 한, 아침 한 아무래도 네 시쯤 깨우는 모양이야. 깨우면 창 나무에 매달려서 출면서 창 나무에 매달려서. 소 안 가면 어머니는 이렇게 이렇게 고무래로 하다가 “야, 소 몰아라.”, “예, 몰고 있습니다.” 하면서 했어. 그거 우리 어렸을 때, 열 살 때 소로 ‘물방에’. 방아도 이 섬에 많았었어.)

“그레로 아니 벌른다 이디. 방에에이 초불 지고 두불 지고. 슬르고. 슬르는 거. 그자 물 아니 놓 슬러. 방에 쉐 메왕이 보리쌀 파싹 물론 거이. 우리 아바진 슬르랑 혔다. 문작허게 슬르라. 게난 ㅎ꼼. 초불 지곡 두불 지고. 거기서 두불 지고. 또 세 번은 파싹 물랑 이제 보리쌀 혔 후제 방에에서, 건 물 안 줘. 그냥 슬렁 그냥 슬렁 우리 먹엇져. 굴지 안혼다. 또시 혼 번 물류왕 실르민 그디 그디 ㅎ꼼씩 요런 디 나온 거이. 보리 지민 요런 디 나온다. 나온 거 막론 채 실르민 확허게 실려져. 경허민 보리밥 허민 문작허여. 경허연 우리 아바진 똑 실렁 먹엇져. 그레 안 군다. 그레 안 군다. 군 보린 먹어보지 안햇저, 우리. 물려사. 다 초불도 물류고 두불도 물류고. 초불 두불은 물 징 허고 시불은 물아이 징. 그냥 실르는 거.”⁷²⁾

(맷돌로 안 깐다, 여기. 방아에 초벌 찧고 두벌 찧고. 바수고. 바수는 거. 그저 물 안 놓고 바숴. 방아(에) 소 메워서 보리쌀 바싹 마른 거. 우리 아버지는 바수라고 해. 문적하게 바숴라. 그러니까 조금. 초벌 찧고 두벌 찧고. 거기서 두벌 찧고. 또 세 번은 바싹 말라서 이제 보리쌀 한 후에 방아에서, 건 물 안 줘. 그냥 바숴서 그냥 바숴서 우

71)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72)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리 먹었어. 갈지 않아. 또 한 번 말려서 바수면 거기 거기 조금씩 이런 데 나온 거. 보리 찧으면 이런 데 나와. 나온 거 마른 채 바수면 금방 바수어져. 그러면 보리밥 하면 문적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꼭 바수어서 먹었어. 맷돌 안 갈아. 맷돌 안 갈아. 간 보리는 먹어보지 않았어, 우리. 말려야. 다 초벌도 말리고 두벌도 말리고. 초벌 두벌은 물 줘서 하고 세벌은 물 안 줘. 그냥 바수는 거.)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에 의하면 가파리도 '물방에'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파리에서 방아를 찧지 못할 때는 몇 사람을 모아 배로 모슬포로 가서 방아를 찧어 오기도 했다고 한다. 또 강 씨는 맷돌에서 보리를 갈아서 먹지 않고 보리는 바수는 것도 '물방에'를 이용했다. 보리의 껌질을 벗길 때, 두벌 갈 때까지는 보리 껌질이 잘 벗겨지라고 물을 주어서 찧지만, 껌질을 다 벗겨서 바짝 마른 보리를 바술 때도 '물방에'에서 갈았는데, 이때는 물을 주지 않고 찧었다고 한다. 또한 가파리는 '물방에'를 '물'이 아닌 '소'를 몰아 움직이게 했다고도 덧붙였다.

(2) 〽례

'〽례'는 표준어의 '맷돌'에 대응하는 말로 곡식을 가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동글넓적한 돌 두 짝을 포개어 윗돌에 나 있는 구멍으로 갈 곡식을 넣으면서 손잡이를 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간다.

"〽에 아래 거. 우이 건 몰라, 그것만 셔라게. 어린 때 굽아 보고 헷엇지. 모멀 거튼 거. 모멀 거튼 거 하고 보리 거튼 거도게. 보리쌀 영 허영 골양 먹곡 옛날엔 조금 골양 먹고 혜신디 그 후젠 안 해 봤주게. 어린 때만 혜난. 어린 때 어무니네 허는 거 막 봐낫주. 모멀 〽루 골양 빙떡 거튼 거 혜낫저게. 우이 건 할망, 저 시어명이 써난 어디 데껴불어산디."⁷³⁾

(맷돌에 아래 거. 위의 건 몰라, 그것만 있더라. 어린 때 갈아 보고 했었지. 메밀 같은 거. 메밀 같은 거 하고 보리 같은 거도. 보리쌀 이렇게 해서 갈아서 먹고 옛날에는 조금 갈아서 먹고 했는데 그 후엔 안 해 봤지. 어린 때만 했었어. 어린 때 어무니네 하는 거 자주 봤었지. 메밀가루 같아서 빙떡 같은 거 했었어. 위의 건 할머니, 저 시어머니가 쓰고 난 후에 어디 버렸는지.)

"이걸로 만딱 굽았저. 모멀이영 먹을 거 그때엔 먹는 음식 허는 거 문딱고 거. 옛날 저

73) 상모1리 김영주 씨 구술.

거로 보리도 골양 막 어려운 때난 죽 쟁 먹엇주. 느량 그때 막 어려운 때. 막 숭년에. 시집왕도 계속 허영 살림 살명도 저것에 모멸 굽아근에 제서도 허고 느량 혜연. 두부도 두부도 콩 컷당 골양 옛날은 행 먹고 계속 허연. 밑에 건, 거 우착 알착. 저 베똥이 있어, 밑에. 〽례 베똥 그거 셔사 그 우이 우착을 그레. 그 좁작헌 거 셔낫주게. 나가 그차 불엇주. 고망은 있어. 우이 거 그 고망더레 꽂으민 영 영. 조룩도 셔낫주. 〽례 우착 톡, 〽례 톡더레 영 영 들이밀명 〽는 거. 고망 고망도 나고."⁷⁴⁾

(이걸로 모두 갈았어. 메밀이랑 먹을 거 그때엔 먹는 음식 하는 거 모두 간 거. 옛날 저거로 보리도 갈아서 아주 어려운 때니까 죽 쟁해서 먹었지. 늘 그때 아주 어려운 때. 아주 흉년에. 시집와서도 계속 해서 살림 살면서도 저것에 메밀 같아서 제사도 하고 늘 했어. 두부도 두부도 콩 담갔다가 같아서 옛날은 해서 먹고 계속 했어. 밑에 건, 거 위쪽 아래쪽. 저 '베똥'이 있어, 밑에. 맷돌 '베똥' 그거 있어야 그 위의 위쪽을 그리. 그 좁디좁은 거 있었지. 내가 끊어 버렸지. 구멍은 있어. 위의 거 그 구멍에 꽂으면 이렇게 이렇게. 자루도 있었지. 맷돌 위쪽 톡, 맷돌 톡에 이렇게 이렇게 들이밀면서 가는 거. 구멍 구멍도 나고.)



〈사진 102〉 김영주 씨 소장 '〽례'



〈사진 103〉 양춘계 씨 소장 '〽례'

〈사진 102〉는 상모1리 김영주 씨(194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례'다. 김 씨의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으로 위쪽 맷돌은 없고 아래쪽만 남아 있다. 〈사진 103〉은 상모1리 양춘계 씨의 '〽례'로, 양 씨는 맷돌을 옥실 바닥에 부착하여 빨래판으로 이용하고 있다. 양 씨가 결혼해서 살림을 살면서 맷돌로 메밀을 같아서 제사 음식도 하고 콩을 물에 담갔다가 같아서 두부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한다. 양 씨는 '〽례'의 위쪽은 '우착'이라 하고 아래쪽은 '알착', '〽례' 아래쪽의 안쪽에 난 구멍을 '베똥'이라고 불렀다.

74) 상모1리 양춘계 씨 구술.



<사진 104> 송한진 씨 소장 '꼰레'



<사진 105> 고동열 씨 소장 '꼰레'



<사진 106> 윤우미자 씨 소장 '꼰레'



<사진 107> 임영배 씨 소장 '꼰레'

<사진 104>는 영락리 송한진 씨, <사진 105>는 영락리 고동열 씨, <사진 106>은 안성리 윤우미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꼰레'다. <사진 107>은 안성리 임영배 씨(1957년 생)가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꼰레'다.

(3) 풀꼰레

'풀꼰레'는 물에 불린 쌀을 갈 때 사용하는 맷돌로 표준어의 '풀매'에 대응한다. '꼰레'가 일반적으로 마른 메밀이나 보리 등의 곡물을 알알이 쪼개거나 가루로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풀꼰레'는 풀을 쑤기 위해 물에 불린 쌀을 갈거나 두부를 만들기 위해 콩을 갈 때 사용한다.

"콩도 굽고 저 일반 저, 풀해서 무명이라던지 손질할 때, 풀 메일 때 허젠 허민 췇주. 옛날에 무명 거든 거 여기서도 다 짜낫거든. 멘네 농사해근에, 우리 모친만 허더라도

나 중학교 갈 적에 아래 바지를 무명 바진데 입영 가니까 "이거 어떤 거 영 만들어시니?" 허명."⁷⁵⁾

(콩도 굽고 저 일반 저, 풀해서 무명이라던지 손질할 때, 풀 먹일 때 하려고 하면 췇지. 옛날에 무명 같은 거 여기서도 다 짜낫거든. 면화 농사해서, 우리 모친만 하더라도 내가 중학교 갈 적에 아래 바지를 무명 바지인데 입고 가니까 "이거 어떤 거 이렇게 만들었지?" 하면서.)

<사진 108>은 임영배 씨가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풀꼰레'다. 안성리 임영일 씨에 의하면 옷감에 풀 먹이려고 할 때 이를 이용했다고 한다.



<사진 108> 임영배 씨 소장 '풀꼰레'

4.4. 운반 도구

(1) 굽체

'굽체'는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한다. 표준어의 '삼태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통 흙이나 '정동(댕댕이덩굴)', 대나무, 철사 따위를 결어서 만들었다.

"굽체는 걸름 용도주게, 그거. 제주도에 뜬통이란 거 알지? 거기 거름을 담아다가 그걸 내칠 때 거 굽체를 췇지게. 굽체에 쇠스랑으로 이렇게 뜯지. 떤데 그레 내면은 또 시 구루마례 시끄고."⁷⁶⁾

(삼태기는 거름 용도지, 그거. 제주도에 '뜻통'이란 거 알지? 거기 거름을 담아다가 그걸 내칠 때 거 '굽체'를 췇지. '굽체'에 쇠스랑으로 이렇게 뜯지. 떤데 그리 내면은 또 수레에 싣고.)

"저 거름 담양 밧디 뿌릴 때 허는 거. 이건 사돈네 집이서 물려온 거, 남원리. 두 번

75) 안성리 임영일 씨 구술.

76) 안성리 강정일 씨 구술.

채 우리 땔이 그디 시집갓주게. 겐 그디 안 써지난 나가 써 보젠.”⁷⁷⁾

(저 거름 담아서 밭에 뿌릴 때 하는 거. 이건 사돈네 집에서 물려받아 온 거, 남원리. 두 번째 우리 딸이 거기 시집갔지. 그래서 거기 안 쓰니까 내가 써 보려고.)

“골체 잇어사주. 골체 나도 싯저. 골체도 준비기로, 준비기로 만든 거 싯저. 이 골체 순부기으로 멘든 거주.”⁷⁸⁾

(‘골체’ 있어야지. ‘골체’ 나도 있어. ‘골체’도 준비기나무로, 준비기나무로 만든 거 있어. 이 ‘골체’ 준비기나무로 만든 거지.)



〈사진 109〉 강정일 씨 소장 ‘골체’ 앞면



〈사진 110〉 강정일 씨 소장 ‘골체’ 뒷면



〈사진 111〉 문성철 씨 소장 ‘골체’



〈사진 112〉 강순화 씨 소장 ‘골체’

〈사진 109〉와 〈사진 110〉은 안성리 강정일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골체’로, 〈사진 109〉은 ‘골체’ 앞쪽의 모습이고 〈사진 110〉는 ‘골체’를 뒤집어 놓은 모습이다. 강 씨는 돼지우리의 거름을 낼 때 사진과 같은 ‘골체’를 아래에 대고 쇠스랑으로 거름을 끌어내

어 수레에 실었다고 한다. 〈사진 111〉은 신도1리 문성철 씨의 ‘골체’로 둘째 딸의 시댁에서 이 ‘골체’를 사용하지 않아서 써 보려고 가져 왔다고 한다. 〈사진 112〉는 가파리 강순화 씨의, 준비기나무로 만든 ‘골체’다.

“쉐걸름, 뜻걸름 낼 적에, 여기 우리, 제주도에서도 우리 대정에서는이 뜻걸름을 내서 거름통에서 저걸로 저 어디고, 이디 날라당 거름에 씨를 뿌령 그 다음 쉐로 헤근에 막 밟아이. 밟아근에이 밟아 문탁허게 그렇게 뛰면은 밧에 가서 여자, 아낙네덜은 톡 톡 톡 뿌려 놓주게. 육십 년대까지도 그렇게 했어. 우리 대정은 그렇게 했다고. 헤근에 아낙네덜은 저런 거, 대로 헌 골체 영 헤근에 톡 톡. 거름 좁아 놀 때는 골체로 헤서, 골체로 헤근에 손으로 쪼금씩 떼어내면서 뿌린다고. 골첸 영 끈 허영 달아. 이렇게 헤근에 끈 달아근에 어깨에 돌아메영.”⁷⁹⁾

(쇠두엄, 돼지거름 낼 적에, 여기 우리, 제주도에서는 우리 대정에서는 돼지거름을 내서 거름통에서 저걸로 저 어디지, 여기 날라다가 거름에 씨를 뿌려서 그 다음 소로 해서 마구 밟아. 밟아서 밟아서 문탁하게 그렇게 되면 밧에 가서 여자, 아낙네들은 톡 톡 톡 뿌려 놓지. 육십 년대까지도 그렇게 했어. 우리 대정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낙네들은 저런 거, 대로 만든 ‘골체’ 이렇게 해서 톡 톡. 거름 집어 놓을 때는 ‘골체’로 해서, ‘골체’로 해서 손으로 조금씩 떼어내면서 뿌린다고. ‘골체’ 이렇게 끈 해서 달아서. 이렇게 해서 끈 달아서 어깨에 달아매서.)

안성리 임영일 씨는 돼지우리의 거름을 낼 때, 나를 때 ‘골체’를 이용했다고 한다. 또 아낙네들이(보리) 씨를 섞은 거름을 밭에 뿌려 놓을 때도 ‘골체’를 이용했는데 이때는 ‘골체’에 끈을 달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거름을 담아 들고 다니면서 밭에 조금씩 거름을 뿌렸다.

“이건 쇄로 멘든 건 낸중에 멘들았고 옛날에는 저 넝쿨로. 넝쿨로 졸양. 골첸 농사지을 때 주로 거름, 거름 담아서 운반 도구로 사용해십주. 처음에 넝쿨 하다가 넝쿨 나빠 가니까 저런 쇄로 만들어십주. 저 쇄로 만든 것도 그대로 사용해나십주.”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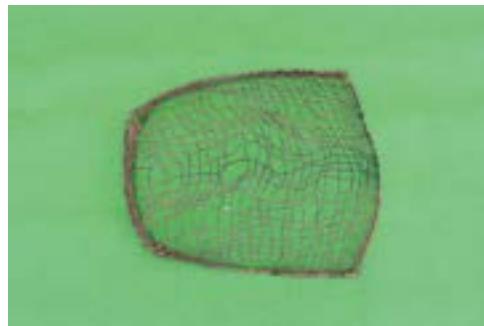
(이건 쇄로 만든 건 낸중에 만들었고 옛날에는 저 넝쿨로. 넝쿨로 결어서. ‘골체’는 농사지을 때 주로 거름, 거름 담아서 운반 도구로 사용했지. 처음에 넝쿨 하다가 넝쿨 나빠 가니까 저런 쇄로 만들었지요. 저 쇄로 만든 것도 그대로 사용했었지요.)

77) 신도1리 문성철 씨 구술.

78)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79) 안성리 임영일 씨 구술.

80)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사진 113〉 조이전 씨 소장 '췌골체'



〈사진 114〉 임영일 씨 소장 '췌골체'

〈사진 113〉은 안성리 조이전 씨가 사용하고 있는 ‘췌골체’고, 〈사진 114〉는 안성리 임영일 씨의 ‘췌골체’다. 조 씨의 구술에 의하면 ‘골체’는 거름을 운반할 때 사용했는데, 주로 넝쿨을 결어서 사용하다가 쇠로 만든 것을 썼다고 한다.

(2) 질구덕

‘질구덕’은 물건을 넣고 등에 쳐 나르는 데 사용하는 대바구니를 말한다. 대로 만들어서 ‘대구덕’이라고도 한다.

“질구덕 맨날 그거 빗디도 갈 때 밥허영 날를 때도 질구덕에 날르곡. 밥허영 중심허영 갈 때 이 질구덕 행 경 갖주게. 그땐이 아이구, 지게로만 지단 그땐 베로 경 가세. 베로 경 가고.”⁸¹⁾

(‘질구덕’ 맨날 그거 밭에도 갈 때 밥해서 나를 때도 ‘질구덕’에 나르고. 밥해서 점심해서 갈 때 이 ‘질구덕’에 해서 쳐서 갔지. 그땐 아이고, 지게로나 지다가 그땐 바로 지고 갔어. 바로 쳐서 가고.)

“옛날에는 저걸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다 써십주. 빨래힐 때 옷 같은 거 담는 것도 싯고.”⁸²⁾

(옛날에는 저걸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다 썼지요. 빨래힐 때 옷 같은 거 담는 것도 있고.)

“옛날에 이거는 뭐 그릇대신에 이거 썻주게. 저디 뭐 물허벅도 냉 정 다니고.”⁸³⁾
(옛날에 이거는 뭐 그릇 대신에 이거 썼지. 저기 뭐 ‘물허벅’도 놔서 지고 다니고.)

‘질구덕’의 용도는 다양했다. 가파리 강순화 씨처럼 밭에 일하러 갈 때 점심을 ‘질구덕’에 넣어, 쳐서 가기도 했고, 안성리 조이전 씨의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질구덕’에 빨랫감을 넣어 두기도 했다. 한편 신도1리 문성철 씨는 ‘질구덕’에 ‘물허벅’을 넣어 지고 다니기도 했다. 이러한 ‘질구덕’은 그 용도에 따라 ‘서답구덕’, ‘물구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진 115〉 조이전 씨 소장 '대구덕'



〈사진 116〉 문성철 씨 소장 '구덕'



〈사진 117〉 강정일 씨 소장 '대구덕'



〈사진 118〉 임영배 씨 소장 '질구덕'

〈사진 115〉은 안성리 조이전 씨 집에서 사용했던 ‘질구덕’이고, 〈사진 116〉은 신도1리 문성철 씨의 ‘구덕’이다. 〈사진 117〉은 안성리 강정일 씨의 ‘대구덕’, 〈사진 118〉은 안성리 임영배 씨가 보관하고 있는 ‘질구덕’이다.

81)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82)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83) 신도1리 문성철 씨 구술.

(3) 풀부른바구리

‘풀부른바구리’는 바구니가 헐면 천 따위를 풀로 발라서 만든 바구니를 말한다. 곡식이나 쌀가루 등을 담아 두거나 운반할 때 사용한다.

“구덕 우리 지영 텅기단 헐어 가민 풀 불라. 경_hex 췄저. 소못 헐기 전에. 우리 옛날에 물질 갈 때 경 텅기단 이제 바우도 뜯어지고 어떻 헤 가민 이제 줄라메영 풀 불르민 쌩쌩하게 췄주게.”⁸⁴⁾

(바구니 우리 지고 다니다가 헐어 가면 풀 발라. 그래서 췄어. 사뭇 헐기 전에. 우리 옛날에 물질 갈 때 쳐서 다니다가 이제 바위도 뜯어지고 어떻게 해 가면 이제 묶어서 풀 바르면 쌩쌩하게 췄지.)

“풀부른바구리도 싫지, 나신디. 것도 큰 거 죽은 거이. 큰 건 두량 구덕 허영이, 두량 구덕. 아이고, 두량 구덕으로 맷 개 맷 개. 그거 시 개 허민 혼섬.”⁸⁵⁾

(‘풀부른바구리’도 있어, 나한테. 것도 큰 거 작은 거. 큰 거는 두량 바구니 해서, 두량 바구니. 아이고, 두량 바구니로 몇 개 몇 개. 그거 세 개 하면 한 섬.)



〈사진 119〉 강순화 씨 소장 ‘풀부른바구리’



〈사진 120〉 강순화 씨 소장 ‘풀부른바구리’

〈사진 119〉와 〈사진 120〉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풀부른바구리’다. 강 씨는 바구니를 사용하다가 모서리도 뜯어지고 점차 헐어 가면 많이 헐기 전에 거기에 풀 바르고 천을 붙이면 쌩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119〉의 바구니 중에서 바깥쪽의 큰 바구니는 곡식 따위의 분량을 재는 그릇으로 췄는데, 강 씨의 말에 따르면 큰 바구니로 세 개면 한 섬 분량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풀부른바구리’는 운반

84)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85)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도구로도 쓰였지만 계량 도구로의 역할도 했다.

“풀부른구덕계. 어무니 쓰단 거 누게 안 가정 가난 ㄱ만이 결영만 놔뒀주. 우리 그거 쓸 일이 엇어.”⁸⁶⁾

(‘풀부른구덕’. 어머니 쓰다가 거 누가 안 가지고 가니까 가만히 걸어서만 놔두었지. 우리 그거 쓸 일 없어.)



〈사진 121〉 고동열 씨 소장 ‘풀부른구덕’



〈사진 122〉 조두석의 ‘부른구덕’과 ‘질구덕’

〈사진 121〉은 영락리 고동열 씨가 보관하고 있는 ‘풀부른구덕’이다. 어머니가 사용했던 바구니인데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벽에 걸어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122〉은 신평리 조두석 씨 집의 창고 한 쪽 벽에 ‘부른구덕’과 ‘질구덕’이 걸려 있는 모습이다. 조 씨도 어머니가 사용했던 바구니를 〈사진 122〉와 같이 보관하고 있었다.

(4) 중시리

‘중시리’는 넝쿨 따위를 걸어서 만든 작은 망태기를 말한다. 가파리 지역에서는 순비기나무로 ‘중시리’를 걸어서 사용했는데, ‘중시리’ 주로 거름을 나르거나 고구마 따위를 보관하는 데 이용했다.

“멕에, 이던 멕 아이 쓴다. 이디 멕은 안 췄저. 가파돈 멕은 아이 씨. 큰 물디 맹텡이 주제. 멕이 아니고 아니고 맹텡이. 껍도 엇고 만드는 사름도 엇고. 명석도 큰 물이 강 헤여 왓주. 이디서 명석 헌 사름이 엇다개. 명석은 뒷으로 멘드느니? 껍 엇은 걸.”⁸⁷⁾

(멕에, 여긴 멕 안 씨. 여기 멕은 안 췄어. 가파도는 멕은 안 씨. 큰 물에는 망태기

86) 영락리 고동열 씨 구술.

87)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지. 벽은 아니고 망태기. 짚도 없고 만드는 사람도 없고. 명석도 큰 물에 가서 하고 왔어. 여기서 명석 했던 사람 없어. 명석은 뭐로 만드니? 짚이 없는 걸.)

“순부기, 순부기로 중시리 잣양. 것도이 아무나 잣지 못행이 중시리 사 온다. 중시리 요만이 행 크지 안한다게. 둋걸름 지고 흐꼼 큰 것도 있고 족은 것도 있고. 큰 건이 옛날에이 감져 그레 낫당 먹곡. 중시리 걸름 안 부챙 낫당. 걸름 부찐 건 만날 걸름만 지고.”⁸⁸⁾

(순비기나무, 순비기나무로 ‘중시리’ 걸어서. 것도 아무나 결지 못해서 ‘중시리’ 사와. ‘중시리’ 요만해서 크지 않아. 돼지거름 지고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건 옛날에 고구마 그리 놨다가 먹고. ‘중시리’ 거름 안 붙게 놨다가. 거름 붙인 건 만날 거름만 지고.)

“쉐거름은 좀 게벼워도 사름으로 질 땐 중시리 허고, 쉐로 헐 땐 그 망텅이. 망텅이로 허영.”⁸⁹⁾

(쇠두엄은 좀 가벼워도 사람으로 질 때는 ‘중시리’ 하고, 쇠로 할 땐 그 망태기. 망태기로 해서.)

가파리 강순화 씨의 구술에 의하면 가파리 지역은 짚을 걸어서 만든 벽이 없었다고 한다. 짚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벽을 걸을 수 없는 것이 당연했다. 명석은 제주 본 섬에 들어와서 구입해 사용하였고 벽 대신에 순비기나무를 이용해서 ‘중시리’라는 망태기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 ‘중시리’는 돼지거름을 운반하거나 고구마 등을 보관할 때 이용했다고 한다.

(5) 지게

‘지게’는 등에 짐을 질 수 있게끔 나무로 만든 운반 기구다. 두 개의 가지 돌친 장나무를, 위는 좁고 아래는 벌어지게 나란히 세우고 그 사이를 세장으로 가로질러 맞추고 아래위로 밀뼈를 걸어 만든다.

“거름 질 때 지게로도 지곡 그자도 지고. 이제는 경 혜난 할망덜은 엊고 우린 안 쳐낫어. 난 쳐 보지 안한. 도 이신 밧이난 지게 몰라.”⁹⁰⁾

88)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89) 가파리 박영복 씨 구술.

90) 안성리 강정일 씨 구술.

(거름 질 때 지게로도 지고 그저도 지고.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했던 할머니들은 없고 우린 안 쳤었어. 난 쳐 보지 않았어. 입구 있는 밭이니까 지게 몰라.)

“보리 갈젠 허민 혼 구월에이 구월 초순에 지게로 다 정이. 고랑더레 다 질양이 아이고 못 전디게. 이젠 안 해도 농서 잘 허는디. 그거이 지게로 마딱 발창 멜라지게 정. 이제 또 마딱 다 고랑더레 질양 경허영 보리 같았저게.”⁹¹⁾

(보리 갈려고 하면 한 구월에 구월 초순에 지게로도 다 쳐서. 고랑으로 다 깔아서 아이고, 못 전디게. 이젠 안 해도 농사 잘 하는데. 그거 지게로 완전히 발창 까지게 쳐서. 이제 또 모두 다 고랑에 깔아서 그래서 보리 같았어.)

“소스랑으로 걸름 냉 중시리에 담양. 게민 지게 다 쳐. 지게로 다.”⁹²⁾

(쇠스랑으로 거름 내서 ‘중시리’에 담아서. 그럼 지게 다 쳐. 지게로 다.)

“우리 지게 짐만 지고 살았저. 가파도이 이여카도 엊어낫저. 이여카도 엊고 허민이 그자 몸, 감제 다 지게 짐으로 쳤저. 지게 짐으로 정이 발창이 벨라경이 소못 걷지 못허영이 경허명 살았저. 느네 사는 거 첨 대통령도 영, 옛날은 대통령도 영 호강 안 허영 살았저. 아이고, 살아난 생각허민 첨.”⁹³⁾

(우리 지게 짐만 지고 살았어. 가파도 리어카도 없었어. 리어카도 없고 하면 그저 모자반, 고구마 다 지게 짐으로 쳤어. 지게 짐으로 쳐서 발창이 까져서 사뭇 걷지 못해서 그러면서 살았어. 너희 사는 거 참 대통령도 이렇게, 옛날은 대통령도 이렇게 호강 안하고 살았어. 아이고, 살았던 생각하면 참.)

안성리 강정일 씨는 거름을 운반할 때 지게로 지어 날랐었는데 정작 자신은 지게를 지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강 씨의 말에 따르면 길가에 있는 밭들은 수레 따위를 이용했고 지게는 입구가 없는 밭들에 거름을 쳐 나를 때 이용했다고 한다.

가파리 강순화 씨는 보리를 갈려고 할 때에는 거름을 내어 발창이 까지도록 다 지게로 쳐서 날랐다고 한다. 쇠스랑으로 거름을 내어서 ‘중시리’에 담아서 그것을 지게로 운반했다고 한다. 가파도에는 리어카도 없었기 때문에 지게 짐으로 거름을 날랐다고 한다.

91)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92)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93)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6) 니아카

‘니아카’는 사람이 끄는 바퀴 둘 달린 손수레를 말한다. ‘니아카’는 ‘리어카’를 일본 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농촌에서는 손수레는 이용하여 곡식 등을 실어 날랐는데, 사용 용도에 따라 손수레의 모양도 조금씩 달랐다.

“첨 우리 오라방 해병대난 부산서 완 이추룩 지게 져 가난 이여카 하나 헤연 오난이 이 동네방네 다 땅겼지. 빌려줬. 겨고 또 우리 이모네 집 또 이여카 하나 시난 이 동네 사름덜 다 빌언 햇저. 계난 그 후제 이여카덜 지만썩 흐꼼썩 하나씩 두 개씩 허단 경운기 나난 이여카도 필요엇더라게. 경운기로 헤연.”⁹⁴⁾

(첨 우리 오라버니 해병대니까 부산에서 와서 이처럼 지게 지니까 손수레 하나 장만해 오니까 이 동네방네 다 다녔어. 빌려줘서. 그리고 또 우리 이모네 집 또 손수레 하나 있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 다 빌려서 했어. 그러니까 그 후에 손수레들 자기대로 조금씩 하나씩 두 개씩 하다가 경운기 나오니까 손수레도 필요 없더라. 경운기로 해서.)

가파리 강순화 씨는 손수레를 ‘이여카’라고 하였다. 지게로 짐을 지다가 손수레가 나온 후 손수레로 짐들을 운반했다. 처음 손수레를 장만하자 그 손수레를 동네 사람들 이 빌려 가면서 이용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경운기가 나오니까 손수레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고 하였다.



〈사진 123〉 김희정 씨 소장 ‘니아카’



〈사진 124〉 고일화 씨 소장 ‘니아카’

〈사진 123〉은 신평리 김희정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니아카’이고 〈사진 124〉는 신평리 고일화 씨 집에서 감귤 땔 때, 딴 감귤을 운반할 때 사용했던 ‘니아카’다. 〈사진 1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귤 따는 바구니 세 개를 놓을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다.

94)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7) 경운기

‘경운기’는 농촌에서 농작물을 운반하거나 사람을싣고 나를 때, 밭을 갈 때 등 다양하게 쓰이는 농기구다. 대정읍 지역에서도 경운기의 등장은 농업 방식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운기’는 쟁기를 대신해 밭을 갈고 손수레, 소달구지를 대신하여 짐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

〈사진 125〉는 신도1리 김창남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다. 김 씨의 나이가 오십대쯤이 되었을 때 나왔다는 경운기는 그때나 지금에야 농사일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고 한다. 한편, 가파리 강순화 씨에 의하면 가파리에 경운기가 나온 것이 강 씨가 오십대 후반이었던 1980년대 중반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혼 예순, 쉰아홉에 경운기 나왔지. 쉰아홉에. 그 전인 다 지게로. 우린 배로, 게나마나 지게. 경운기 처음 나난 우리가 처음 허고이. 가파도 이여까도 엇엇저게. 이여까도 우리가 처음 허고이. 계난 이여까 하나민 이 동네 다 돌아댕겨. 빌래 오민 안 줘지느냐? 빌려 줘사. 경허난 경운기가 혼 쉰, 나가 이 집 짓을 때 경운기로 허난이 쉰 한, 예순 나기 전이. 쉰 일고오답에 경운기 나왔지. 그때야 경운기 헤연 우리가 경운기 탄 땅겼지.”⁹⁵⁾

(옛날은 다 경운기 없어서 지게로. 우리가 한 예순, 쉰아홉에 경운기가 나왔어. 쉰아홉에. 그 전엔 다 지게로. 우린 바로, 그러나마나 지게. 경운기 처음 나오니까 우리가 처음 하고. 가파도 리어카도 없었어. 리어카도 우리가 처음 하고. 그러니까 리어카 하나면 이 동네 다 돌아다녀. 빌리러 오면 안 빌려줄 수 있니? 빌려 줘야. 그러니까 경운기가 한 쉰, 내가 이 집을 지을 때 경운기로 했으니까 쉰 한, 예순 되기 전에. 쉰일고여덟에 경운기가 나왔어. 그 때야 경운기 해서 우리가 경운기 타고 다녔어.)



〈사진 125〉 김창남 씨 소장 ‘경운기’

95)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8) 베

‘베’는 물건을 지거나 실어 나를 때 짐을 묶거나 매는 데에 쓰는 줄로, 표준어의 ‘짐바’에 대응한다.

“구덕 놓 경 다니는 거.”⁹⁶⁾

(바구니 놓고 쳐서 다니는 거.)



〈사진 126〉 강태월 씨 소장 ‘베’



〈사진 127〉 ‘베’로 ‘구덕’을 진 모습

〈사진 126〉은 상모1리 강태월 씨가 사용하는 ‘베’다. 바구니에 물건을 넣고 〈사진 127〉과 같이 바구니를 지고 다닐 때 사용했다.

“우리 그자 베로 혜영이 (구덕) 경 다녔주. 베 장에 강 사단도 쓰곡 이녁냥으로 만들 앙도. 난 이녁냥으로 만든 거 싯저. 난 광목으로, 광목으로 만들앙 허곡이.”⁹⁷⁾

(우리 그자 짐바로 해서 (바구니) 지고 다녔지. 짐바 장에 가서 사다가도 쓰고 자기 대로 만들어서도. 난 나대로 만든 거 있어. 난 광목으로, 광목으로 만들어서 하고.)

가파리 강순화 씨는 짐을 운반할 때, 바구니에 넣어서 짐바로 등에 지고 다녔다. 짐바는 장에 가서 사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짐바를 직접 만들 때는 광목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건 차에 짐 실을 적에. 옛날에 이런 식을 쉐줄 물줄 헷주게. 쉐석 혜영 이런 거 연결할 때 글후제 쉐 안 질루난 짐 실를 때 썹주. 이거 뭐라고 허나, 그대로 줄. 쉐줄, 물

96) 상모1리 강태월 씨 구술.

97)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줄은 메는 거고 일반 짐 같은 거 옛날 구루마에 짐 실렁등이는 거이. 줄등이는 거.”⁹⁸⁾

(이건 차에 짐 실을 적에. 옛날에 이런 식으로 ‘쉐줄’, ‘말줄’ 했지. 쇠고삐 해서 이런 거 연결할 때 그 후에 소 안 키우니까 짐 실을 때 쓰고 있지. 이거 뭐라고 하지, 그대로 줄. ‘쉐줄’, ‘물줄’은 매는 거고 일반 짐 같은 거 옛날 수레에 짐 실어서 당기는 거. 줄 당기는 거.)



〈사진 128〉 김갑여 씨 소장 ‘베’



〈사진 129〉 권홍일 씨 소장 ‘고무베’

〈사진 128〉은 안성리 김갑여 씨(1950년생)가 보관하는 ‘베’이고 〈사진 129〉는 상모1리 권홍일 씨가 쓰고 있는 ‘고무베’다. 안성리 임영일 씨는 예전에 소, 말을 맸던 줄들을 그 후에 안 쓰게 되니 짐을 묶는 줄로 쓰고 있다고 했다.

“베 끼와서 차에 짐 시끄면은 짐 무끌 때 쓰는 거.”⁹⁹⁾

(바 끼워서 차에 짐 실으면 짐 묶을 때 쓰는 거.)

“이거 짐 실을 적에 가운데 이거 혜근에 둔둔하게 무꺼지라고 허는 건디.”¹⁰⁰⁾

(이거 짐 실을 적에 가운데 이거 해서 단단하게 묶이라고 하는 건데.)

98) 안성리 임영일 씨 구술.

99)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100) 인성리 임영배 씨 구술.



〈사진 130〉 송한진 씨 소장 '용도'



〈사진 131〉 임영배 씨 소장 '용도베'

마차 등에 짐을 실을 때는 짐을 단단히 조이기 위해 도르래 모양의 '용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사진 130〉은 영락리 송한진 씨가 보관하고 있는 '용도'다. 〈사진 131〉은 인성리 임영배 씨가 보관하고 있는 '용도베'다. 각각의 사진에서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 안쪽에 도르래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줄을 끼워서 줄을 당기면 짐을 더 단단하게 조일 수 있다고 한다.

4.5. 계량 도구

(1) 뛱박

'뭣박'은 곡식 따위를 담아 그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물건으로 '되'를 말한다. 보통 나무로 된 정사각형 모양의 그릇인데 대정읍 지역에서는 원통 모양의 한 말 들이 '뭣박'도 조사되었다.

“건 우리 웨할머니가 쌀장시 헐 때 해난 거. 뛱박. 이거 한 말 통, 한 말 통. 쌀장시 헌 건 할머니 살아 계실 때, 환갑 그 정도 아닌가. 안성리 기록회관 그 커브에서 장서 헤낫주게. 할머니가. 상점덜 보명 쌀장시 그디서 허명.”¹⁰¹⁾

(건 우리 외할머니가 쌀장수 할 때 했던 거. 뛱박. 이거 한 말 통, 한 말 통. 쌀장수 한 건 할머니 살아 계실 때, 환갑 그 정도 아닌가. 안성리 기록회관 그 커브에서 장서 했었지. 할머니가. 상점들 보면서 쌀장수 거기서 하면서.)

101) 안성리 임영배 씨 구술.

〈사진 132〉는 안성리 임영배 씨가 보관하고 있는 '뭣박'이다. 임 씨의 외할머니가 지금 안성리 리사무소가 있는 근처에서 상점을 했었다고 한다. 가게에서는 쌀도 팔았는데 그때 할머니가 쌀을 거를 때 사용했던 '┉박'이다. 한 말 들이라고 한다.



〈사진 132〉 임영배 씨 소장 '┉박'

“흔 뛱 두 뛱 뭐 풀 적에 이걸로 뛱로 뛱여근에 이거 흔 뛱, 두 뛱 뛱주게. 흥큼씩 물건 풀젠 허믄 뛱로 뛱여근에 풀아낫주게.”¹⁰²⁾

(한 되 두 되 뭐 팔 적에 이걸로 되로 되어서 이거 한 되, 두 되 되지. 조금씩 물건 팔려고 하면 되로 되어서 팔았었지.)

“나가 장서허젠허난 산. 저디서 수퍼도 하고 쌀장시도 허고.”¹⁰³⁾

(내가 장사하려고 하니까 샀어. 저기서 슈퍼도 하고 쌀장사도 하고.)

“거┉박은 오랜 거라 거. 거 첨 오랜 거라. 오래서, 오래서.”¹⁰⁴⁾

(거┉박은 오랜 거야 거. 거 참 오랜 거야. 오랫어, 오랫어.)



〈사진 133〉 김창남 씨 소장 '┉'



〈사진 134〉 이부자 씨 소장 '┉'

102) 신도1리 김창남 씨 구술.

103) 신도1리 이부자 씨 구술.

104) 신도1리 김영진 씨 구술.



〈사진 135〉 김희정 씨 소장 '뒈'



〈사진 136〉 현갑생 씨 소장 '뒈'



〈사진 137〉 김병화 씨 소장 '뒈'



〈사진 138〉 김영진 씨 소장 '뒷박'

〈사진 133〉은 신도1리 김창남 씨, 〈사진 134〉는 이부자 씨가 사용했던 ‘뒈’다. 이 씨는 상점을 하면서 쌀도 같이 팔았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뒈’라고 한다. 〈사진 135〉는 신평리 김희정 씨, 〈사진 136〉은 현갑생 씨, 〈사진 137〉은 가파리 김병화 씨가 사용했던 ‘뒈’다. 〈사진 138〉은 신도1리 김영진 씨가 보관하고 있는 ‘뒷박’이다.

(2) 저울

‘저울’은 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손에 쥐고 무게를 다는 작은 저울은 ‘손저울’, 바닥에 놓은 채 받침판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위쪽에 있는 저울대에서 추로 무게를 다는 것은 ‘앉은뱅이저울’이라고 한다.

“추는 우리 아이덜 뭐 헐 때 놔 두난 들렁 오꽃 벼려 부난. 이건 그자 절로 내중에 잘랑 나중에 현품만, 아 이거 어린 적에 맷 백 년 전부터 흘러왔다 허는 걸 보이젠. 이거 한, 한 백 년은 됐어. 이거 고구마 떠낫주. 그냥 생걸로 뜯주게. 뚜러메영 저울여근에 상인덜신디 냄겼주게. 저 손잽이에 낳 놔근에 두 사람이 어깨에 메여근에. 이십오

키로, 삼십 키로, 사십 키로까지. 앉은베기도 그 당시 나왔어. 앉은베기도 작은 거는 안 나왔는데 큰 것덜은 나왔어. 우리 적에는 다 앉은베기 저울 작은 거. 한 이백오십 키로인가 그거 사다근에 허고 또 내중엔 작은 거, 백 키로짜리. 이걸론 우리, 우리 나아로 사오십 대까지. 감저 헐 때 쓰고 추렴할 때는 저거 사용을 안 허고. 잘게 썰영 허난. 잡으민 멧 시간씩 누워근에 허는 따문에. 작게 허든 작은 저울로. 저렇게 뛰어서 영현 저울덜이 잊어낫주게. 저런 저울로도 허고 내중에 앉은베기 저울이라고 작은 저울덜 나오는 거. 감저 놀거 감저 공장에서 왕사 가. 사례 와. 감저 공장이 동일리에도 여러, 대정읍에도 많았주 뭐. 우린 감저 하영 헐 때는 뭐 한 삼백 마다리. 경허단 이제는 마들, 저 미깡만 헸주. 한 우리 한 육십 월 적에는 그 감절 헷어. 젠 힘들어 가니까 것도, 이익이 안 돼 가니까 다 치와 불엇주게. 보리농사 거든 것도 힘들어 가니까, 일당이 안 나와 가니까 치와 불고.”¹⁰⁵⁾

(추는 우리 아이들 뭐 할 때 놔 두니까 들고 그만 벼려 버리니까. 이건 그저 저리로 나중에 잘라서 나중에 현품만, 아, 이거 어린 적에 몇 백 년 전부터 흘러왔다 하는 걸 보이려고. 이거 한, 한 백 년은 되었어. 이거 고구마 뜯었지. 그냥 생것으로 뜯지. 둘러메서 저울질해서 상인들에게 넘겼지. 저 손잽이에 나무 놔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서. 이십오 킬로그램, 삼십 킬로그램, 사십 킬로그램까지. ‘앉은베기’도 그 당시 나왔어. ‘앉은베기’도 작은 거는 안 나왔는데 큰 것들은 나왔어. 우리 적에는 다 ‘앉은베기’ 저울 작은 거. 한 이백오십 킬로그램인지 그거 사다가 하고 또 나중에는 작은 거, 백 킬로그램짜리. 이걸로는 우리, 우리 나아로 사오십 대까지. 고구마 할 때 쓰고 추렴할 때는 저거 사용을 안 하고. 잘게 썰어서 하니까. 잡으면 몇 시간씩 나눠서 하는 때문에. 작게 하면 작은 저울로. 저렇게 돼서 이러한 저울들이 있었지. 저런 저울로도 하고 나중에 ‘앉은베기’ 저울이라고 작은 저울들 나오는 거. 고구마 날것 고구마 공장에서 와서 사 가. 사례 와. 고구마 공장이 동일리에도 여러, 대정읍에도 많았지 뭐. 우린 고구마 많이 할 때는 뭐 한 삼백 마다. 그러다가 이제는 마들, 저 굴만 하고 있지. 한 우리 한 육십 월 적에는 그 고구마를 했어. 그래서 힘들어 가니까 것도 이익이 안 돼 가니까 다 치워 버렸지. 보리농사 같은 것도 힘들어 가니까, 일당이 안 나와 가니까 치워 버리고.)

〈사진 139〉는 신평리 고일화 씨 소장 ‘저울’이다. 손저울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일 반적으로 혼자 손에 들고 무게를 다는 저울이 아니라 손잽이 부분에 나무 따위를 끼워들이 들어야 하는 큰 저울이다. 두 사람이 어깨에 매서 무게를 저울이면 많게는 40kg 까지도 측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 씨는 날고구마의 무게를 달아서 팔 때 위 저울을 사용했었다고 한다.

105) 신평리 고일화 씨 구술.

“거 제울. 그거 그자 집이서 무신거 제울이고이. 그걸로 전복도 제울이고 우미도 제울이곡 무스거 톳도 제울이 곡계. 풀 거.”¹⁰⁶⁾

(거 저울. 그거 그자 집에서 뭐 저울이고. 그걸로 전복도 무게 달고 우뭇가사리도 무게 달고 뭐 톳도 무게 달고. 팔 거.)



<사진 139> 고일화 씨 소장 '저울'



<사진 140> 강순화 씨 소장 '손저울'



<사진 141> 임영배 씨 소장 '손저울'

<사진 140>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사용했던 '손저울'이다. 강 씨는 손저울로 전복, 우뭇가사리, 톳 등의 해산물을 팔 때 무게를 재었었다고 한다. <사진 141>은 임영배 씨가 임 씨의 외할머니(조성옥)가 사용했던 손저울을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저울 옛날에 지실 거든 거 뭐, 아 저거 보리, 보리도 뜨고 보리 같양. 나룩 나룩도 뜨고. 나룩 헤낫주, 우린. 제주도 거 뱃고 조센종 갈아근에 그거 나룩 떠낫주. 그때 사십 키를 거라. 그때 절간. 절간은 감저뺏데기 허난 제주도. 절간, 절간. 절간헐 때 나룩 헐 때 저거 제일 필요하여. 저거 안 허민 저울 뜨지 못허주게. 뺏데기 우리 합이 사백 칠십 개도 헤낫어. 칠십일 년도 칠십이 년도 최고 비싸낫주.”¹⁰⁷⁾

(저울 옛날에 감자 같은 거 뭐, 아 저거 보리, 보리도 뜨고 보리 같아서. 벼 벼도 뜨고. 벼 했었지, 우린. 제주도 거 뭐지 조선종 갈아서 그거 벼 떴었지. 그때 사십 키로그

106)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107)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램일 거야. 그때 절간. 절간은 절간고구마 하니까 제주도. 절간, 절간. 절간할 때 벼 할 때 저거 제일 필요해. 저거 안 하면 저울 뜨지 못하지. 절간고구마 우리 합이 사백 칠십 개도 했었어. 칠십일 년도 칠십이 년도 최고 비쌌었지.)

“보리 제울려난 거. 보리 저 농협에 팔 때이 보리 제울려난 거.”¹⁰⁸⁾

(보리 무게 달았던 거. 보리 저 농협에 팔 때 보리 무게 달았던 거.)



<사진 142> 김규화 씨 소장 '저울'



<사진 143> 강순화 씨 소장 '저울'



<사진 144> 임영일 씨 소장 '저울'



<사진 145> 윤우미자 씨 소장 '저울'

<사진 142>는 신도1리 김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저울'이다. 김 씨가 보리, 벼, 절간고구마 등의 무게를 달았던 것이다. <사진 143>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보리의 무게를 달 때 사용했던 저울이다. <사진 144>는 안성리 임영일 씨, <사진 145>는 안성리

108)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윤우미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저울’이다.

“거 저울추지 뭐. 저울은 과수원 창고 안에 있어. 이거 총 계로 이백 키로. 옛날에 우리 절간고구마 허명 풀 적애. 고구마 절간 헌 거 풀 때에 써낫주. 놀고구마는 뜨지 안허고 그냥 팔면은 공장에서 뜨는 거지. 여기서 뜨는 게 아니고. 마다리로 실려 가서 공장에서 저울이는 거지. 뗏데기로 풀 땐 여기서 땡 가고. 웨냐하면 공판 날짜 정하면은 십 키로 담으라고 허면은 십 키로 담아서 떠서 가야 허잖아. 마대에 담아서. 그 뗏데기를 연도로 한 칠십팔 년도까지 햇지. 놀고구마도 그 후에, 지금도 놀고구마는 허잖아. 지금도 전분 공장, 농협에서 받아. 대정농협에서 지금 전분 공장 돌려. 옛날부터 대정농협에서 **에 있던 거를 장소만 옮긴 거라. 고구마만 아니고 감자도 햇기든계. 칠십년대 말꺼장 고구마 놓서 허명 놀고구마로도 풀고 뗏데기도 허고. 뗏데기가 돈이 더 나니까 뗏데기 허는 거지. 힘이 좀 들어도. 뗏데기 허는 기계도 셔낫어. 거 필요가 없어서 던져 불어가지고 다 삭아 불어실 테고. 저 절간기라고 해, 절간기. 절간긴 일제시대도 잇었어. 우리 어릴 적에 일제시대도 절간기가 혼 동네에 혼나두 개 정도 잇었지. 겐 그거 빌명 쓰단 고구마 뗏데기 한창 나갈 땐 매집이 하나씩 절간기 잇었지. 남의 거 빌레 갈 시간이 엊잖아. 뱃 천오백 평 이천 평 썰젠헌 하면 어디 남의 것 빌려 줘. 그러니까 자기가 다 사서 햇지.”¹⁰⁹⁾

(거 저울추지 뭐. 저울은 과수원 창고 안에 있어. 이거 총 계로 이백 킬로그램. 옛날에 우리 절간고구마 하면서 팔 적애. 고구마 절간 한 거 팔 때 썼었지. 놀고구마는 뜨지 않고 그냥 팔면 공장에서 뜨는 거지. 여기서 뜨는 게 아니고. 마다로 싣고 가서 공장에서 다는 거지. 절간고구마로 팔 땐 여기서 떠서 가고. 왜냐하면 공판 날짜 정하면 십 킬로그램 담으라고 하면 십 키로 담아서 떠서 가야 하잖아. 마대에 담아서. 그 절간고구마를 연도로 한 칠십팔 년도까지 햇지. 날고구마도 그 후에, 지금도 날고구마만 하잖아. 지금도 전분 공장, 농협에서 받아. 대정농협에서 지금 전분 공장 돌려. 옛날부터 대정농협에서 **에 있던 거를 장소만 옮긴거라. 고구마만 아니고 감자도 햇거든. 칠십년대 말까지 고구마 놓사하면서 날고구마로도 팔고 절간고구마도 하고. 절간고구마가 돈이 더 나니까 절간고구마 하는 거지. 힘이 좀 들어도. 절간고구마 하는 기계도 있었어. 거 필요가 없어서 던져 버려서 다 삭아 버렸을 거고. 저 절간기라고 해, 절간기. 절간기는 일제시대에도 있었어. 우리 어릴 적에 일제시대도 절간기가 한 동네에 하나두 개 정도 있었지. 그래서 그거 빌리면서 쓰다가 고구마 절간고구마 한창 나갈 땐 매집에 하나씩 절간기 있었지. 남의 거 빌리러 갈 시간이 없잖아. 뱃 천오백 평 이천 평 썰려고 하면 어디 남의 것 빌려 줘. 그러니까 자기가 다 사서 햇지.)

109)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사진 146〉은 신평리 김성군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저울추’로, 위 〈사진 142〉에서 〈사진 145〉와 같이 ‘얇은뱅이 저울’을 쓸 때 거는 것이다. 절간고구마를 공판하여 팔 때 사용했었는데, 김 씨는 고구마 놓사를 지으며 칠십년대 후반까지 절간고구마를 해서 많이 팔았었다고 한다. 김 씨 절간고구마의 정확한 무게 측정을 위해 이 저울을 사용하다 이후에는 날고구마로 전분 공장에 그냥 팔았었다고 한다.



〈사진 146〉 김성군 씨 소장 ‘저울추’

4.6. 저장 도구

(1) 항

‘항’은 아래위가 좁고 배가 부른 질그릇인 ‘항아리’를 말한다. 보통 물이나 간장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곡식을 보관하기도 했다.

“우리 시할머니 적애, 시할머니가 신평이주계, 친정이. 거기서 굴을 쿠어. 그 마을에 옛날 굴 이런 그릇을 쿠났어. 계난 그 할무니가 친정이 거기난 물려 왔주기, 여기. 계난 이거 백 년도 더 됐어. 시아버지도 살아시민 이제 백 설 넘어신디 견디 또 시할머니주계. 고 시집왕 물렷주계. 열아홉에 시집왕. 나가 친정도 이 마을이고. 이것도 신평서 군 거. 저거는 내중에덜 나온 거. 건 말째 나온 거. 저거부터 물려받안. 계난 혈어불엇주. 이건 시어멍 쓰단 날 주고.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시어멍안티 물려받안 또 쓰다가 나를 준 거주계. 계난 삼대째가. 옛날은 검은굴 저 흑으로 만들안. 신평 천연흑이 셔. 거 만들안 웃주계. 옛날엔 그디 사름덜 막 그릇 장시 뎅견. 그걸 풀레 뎅기젠헌. 저 검은 건 지세항이엔 허여, 옛날. 옛날에 곡석 놓주계. 보리쌀그릇 거 무슨 거. (두 개다) 곡석 놀 때 써난 거. 안방에 냥 이례 곡석 담았주계.”¹¹⁰⁾

(우리 시할머니 적애, 시할머니가 신평이지, 친정이. 거기서(가마에서) 굴을(항아리를) 구웠어. 그 마을에 옛날 가마 이런 그릇을 구웠었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친정이 거기니까 물려받아 왔지, 여기. 그러니까 이거 백 년도 더 된 거. 시아버지도 살

110) 신도1리 이부자 씨 구술.

았으면 이제 백 설 넘었는데 그런데 또 시할머니지. 갓 시집와서 물렸지. 열아홉에 시집와서. 내가 친정도 이 마을이고. 이것도 신평에서 구운 거. 저거는 나중에 나온 거. 건 말째 나온 거. 저거부터 물려받았어. 그러니까 헬어 버렸지. 이건 시어머니가 쓰다가 나에게 주고.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아서 또 쓰다가 나에게 준 거지. 그러니까 삼대째인가. 옛날은 ‘검은굴’ 저 흑으로 만들었어. 신평 천연 흙이 있어. 거 만들어서 구웠지. 옛날엔 거기 사람들 많이 그릇 장수 다녔어. 그걸 팔려고 다니려고. 저 검은 건 ‘지세항’이라고 해, 옛날. 옛날에 곡식 놨지. 보리쌀 같은 거 무슨 거. (두 개 다) 곡식 넣을 때 썼던 거. 광에, 광에 놔서 이리 곡식 담았지.)



〈사진 147〉 이부자 씨 소장 ‘항’



〈사진 148〉 이부자 씨 소장 ‘항’

〈사진 147〉은 신도1리 이부자 씨(193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항’이다. 이 ‘항’은 신평리에 있는 ‘검은굴’에서 구운 ‘항’으로 이 씨의 시할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이 씨가 물려받은 것이다. 이 씨는 백 년도 넘은 항아리라고 했다. 이 씨는 이 항아리들을 광에 놓아두고 항아리 안에 곡식을 보관했다고 한다.

“장도 담고 곡식 담았지. 쥐 못 들어가게끔. 여기 제주도 말로 스무 말 들이엔 허지, 스무 말 들이. 옛날에 말로, 소두로 말허는 거야 지금. 소두로 스무 말 들이. 이거나 저거나 그다. 저건 출량허니까, 스무 말. 이거 다 고광에 놔난 거지. 이거까지 다. 옛날에 게 남보단 못 살진 안하고 그자 보통으론 살았으니까 항아리 그렇게 셨지.”¹¹¹⁾

111)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장도 담고 곡식도 담았지. 쥐 못 들어가게끔. 여기 제주도 말로 스무 말 들이라고 하지, 스무 말 들이. 옛날 말로, 소두로 말하는 거야, 지금. 소두로 스무 말 들이. 이거나 저거나 같아. 저건 길쭉하니까, 스무 말. 이거 다 광에 놨던 거지. 이거까지 다. 옛날에게 남보다는 못 살지는 않고 그저 보통으로 살았으니까 항아리 그렇게 있었지.)



〈사진 149〉 김성군 씨 소장 ‘항’



〈사진 150〉 김성군 씨 소장 ‘항’



〈사진 151〉 김성군 씨 소장 ‘항’



〈사진 152〉 김성군 씨 소장 ‘항’

〈사진 149〉에서 〈사진 152〉는 신평리 김성군 씨가 보관하고 있는 ‘항’들이다. 이러한 항아리에 간장이나 된장도 보관하고 곡식들도 보관했는데, 쥐들이 잡아 먹는 것을

막을 수 있기에 항아리를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사진 149〉과 〈사진 150〉의 모양이 길쭉한 항아리는 곡류 스무 말 들이로 이것들을 창고에 놓고 거기에 곡식을 담아 보관했다고 하였다.

(2) 도라무깡

‘도라무깡’은 ‘드럼통’을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농가에서는 이 ‘도라무깡’에 보리 등 곡식을 보관하는 저장고로 이용했다.

“도라무깡은 완전히 보리, 저 곡식 놓는 거주. 저장고주. 더 이전에는 항에 보관해 나고.”¹¹²⁾

(드럼통은 완전히 보리, 저 곡식 넣는 거지. 저장고지. 더 이전에는 항아리에 보관했었고.)

“도라무에 저거 쌀 놔난 거. 보리쌀 놓 먹어난 거. 그런 거다 데껴 불단 저거 놔뒀지.”¹¹³⁾
(드럼통에 저거 쌀 넣었던 거. 보리쌀 넣어서 먹었던 거. 그런 거다 버리다가 저거 놔뒀어.)



〈사진 153〉 김규화 씨 소장 ‘도라무깡’



〈사진 154〉 강순화 씨 소장 ‘도라무깡’

〈사진 153〉은 신도1리 김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라무깡’이고, 〈사진 154〉는

가파리 강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라무깡’이다. 김 씨는 곡식들을 항아리에 보관하다가 드럼통이 나오자 사진과 같은 드럼통에 보관했다고 한다.

“보리쌀 놓고 해난 건 도로무깡. 고꽝에 도로무깡 냥 그디 쌀 보관했주. 우린 도로 무깡 네 개. 경헨 보리 담아근에 지어 오민 쌀통개례 저런 것에 담았주. 방엔 등으로 저근에, 저 농협 엠에 강 지어 와낫주게. 이제사 차 싯곡 정운기 싯고 헷주, 그때는 등으로 정. 구루마 아니면 정.”¹¹⁴⁾

(보리쌀 넣고 했던 건 드럼통. 고방에 드럼통 놔서 거기 쌀 보관했지. 우린 드럼통 네 개. 그래서 보리 담아서 찧어 오면 쌀독에 저런 것에 담았지. 방아는 등으로 저서, 저 농협 옆에 가서 찧어 왔었어. 이제야 차 있고 경운기 있고 했지, 그때는 등으로 저서. 수레 아니면 저서.)

안성리 윤우미자 씨도 광에 여러 개의 드럼통을 놓고 그 안에 보리를 보관했다. 보리는 연자방아에서 찧어 와서 보리쌀은 쌀독에 담아 두었다고 한다.

〈사진 155〉은 안성리 조이전 씨 댁에서 사용했던 드럼통으로, 현재는 쓰레기를 소각할 때 쓰고 있다.



〈사진 155〉 조이전 씨 댁의 ‘드럼통’

4.7. 기타 도구

(1) 글쟁이

‘글쟁이’는 낙엽이나 농작물 등을 긁어모으는 데 쓰는 도구로, 표준어의 ‘갈퀴’에 대응한다. 한쪽 끝에 휘어진 갈고리 모양의 철사 여러 개를 묶어서 만든다.

“가마오름이엔 헛어, 저디가. 그디 강 이런 거 솔썹 아래 떨어지면 그런 거 근어당 불 빼어낫젠 허난. 불 솜양 밥헐 때. 이제는 벌초하면은 그거 긁어내는 거. 벌초 헐 때

112)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113)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114) 안성리 윤우미자 씨 구술.

쓰젠 허난 일부러 정 놔뒀서.”¹¹⁵⁾

(‘가마오름’이라고 했어, 저기가. 거기 가서 이런 솔가리 아래 떨어지면 그런 거 그 리모아다가 불 때었다고 하니까. 불 때서 밥할 때. 이제는 벌초하면은 그거 깎어내는 거. 벌초할 때 쓰려고 하니까 일부러 저렇게 놔뒀어.)

“이거 마농 싱글 때 골 이렇게 이렇게 그시는 거. 밭 갈아놓고 골 긋는 거.”¹¹⁶⁾

(이거 마늘 심을 때 골 이렇게 이렇게 긋는 거. 밭 갈아놓고 골 긋는 거.)



〈사진 156〉 고순열 씨 소장 ‘글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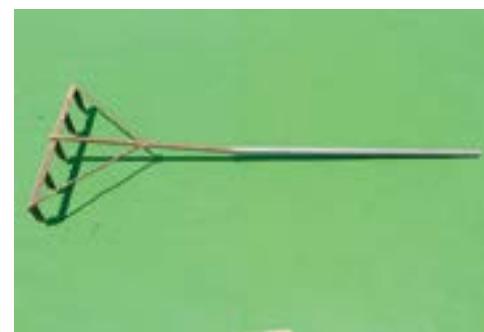


〈사진 157〉 현갑생 씨 소장 ‘글쟁이’

〈사진 156〉은 신도1리 고순열 씨가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글쟁이’다. 고 씨는 땔감으로 쓸 솔가리를 그려모을 때 이 ‘글쟁이’를 사용했었고 지금은 벌초를 한 후에 베어 놓을 풀을 모을 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157〉은 신평리 현갑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글쟁이’다.



〈사진 158〉 김창남 씨 소장 ‘글쟁이’



〈사진 159〉 현갑생 씨 소장 ‘글쟁이’

115) 신도1리 고순열 씨 구술.

116) 신평리 현갑생 씨 구술.



〈사진 160〉 김성군 씨 소장 ‘글쟁이’



〈사진 161〉 고원명 씨 소장 ‘글쟁이’

‘글쟁이’도 사용 용도에 따라 그에 맞게 새로 모양의 것이 새로 등장하기도 했다. 〈사진 158〉은 신도1리 김창남 씨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글쟁이’고 〈사진 159〉은 신평리 현갑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글쟁이’이다. 이들은 마늘을 심을 때나 밭을 갈아 놓고 골을 낼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진160〉은 신평리 김성군 씨가 소장하고 있는 ‘글쟁이’고, 〈사진 161〉은 신평리 고원명 씨의 ‘글쟁이’다. ‘글쟁이’는 흙을 고르고 농작물 등을 그려모을 때 사용했다.

(2) 곰베

‘곰베’는 밭을 갈 때 나오는 흙덩어리를 부술 때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어의 ‘곰방메’에 대응하는 말이다.

“저거 조 할 때 저 곰베로 때려. 병뎅이 나면 병뎅이를 부수는 거주께. 저거 곰베로 때리면 확실히 잘 부서져.”¹¹⁷⁾

(저거 조 할 때 저 곰방메로 때려. (흙)덩어리 나오면 덩어리를 부수는 거지. 저거 곰방메로 때리면 확실히 잘 부서져.)

〈사진 162〉는 신도1리 김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곰베’다. 김 씨는 조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고 나서 흙덩어리가 나오면 ‘곰베’로 두드리며 덩어리를 부수었다고 했다. ‘곰베’로 두드리는 것이 흙을 잘 깨뜨릴 수 있다고 한다.



〈사진 162〉 김규화 씨 소장 ‘곰베’

117)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3) 호크

‘호크’는 영어의 ‘포크(fork)’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농작물의 짚이나 거름 따위를 뜨거나 흘을 때 사용하는 ‘포크’ 모양의 농기구를 말한다.

“이건 호크. 일본말인디 우리말로 뭐인지 모르겠네. 일본말이 호큰가 미국말인가 몰라. 호크도 걸름 낼 때는 그런 거 같은 종류.”¹¹⁸⁾

(이건 ‘호크’. 일본말인데 우리말로 뭐인지 모르겠네. 일본말이 ‘호크’인가 미국말인가 몰라. ‘호크’도 거름 낼 때는 그런 거 같은 종류.)

“저건 호크라고 걸름 거튼 거 낼 때. 그런 때 사용해난 거.”¹¹⁹⁾

(저건 ‘호크’라고 거름 같은 거 낼 때. 그런 때 사용했던 거.)

“호꼬 거름 이렇게 실을 때 거름 실을 때 쓰는 거. 요즘 많이 안 써도 가끔 쓸 때가 있어.”¹²⁰⁾

(‘호꼬’ 거름 이렇게 실을 때 거름 실을 때 쓰는 거. 요즘 많이 안 써도 가끔 쓸 때가 있어.)



〈사진 163〉 김규화 씨 소장 ‘호크’



〈사진 164〉 고일화 씨 소장 ‘호크’



〈사진 165〉 강정일 씨 소장 ‘호꼬’



〈사진 166〉 허세안 씨 소장 ‘호크’

〈사진 163〉은 신도1리 김규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호크’이고, 〈사진 164〉는 신평리 고일화 씨(193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호크’다. 이들 모두 거름 낼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사진 165〉는 안성리 강정일 씨(1942년생) 댁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강 씨는 이를 ‘호꼬’라고 하였다. 〈사진 166〉은 상모1리 허세안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크’다. 두 개의 ‘호크’ 중에 하나는 자루 없이 보관되어 있었다.

(4) 신돌

‘신돌’은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이다. 표준어의 ‘숫돌’에 대응한다.

“이거 호미도 골고 칼도 골고 허는 거 아냐, 이거. 저 받침댄 나가 멘든 거. 저거 받침 댈 놔야 몽글몽글 안 혜영 갈기가 좋으니까.”¹²¹⁾

(이거 숫돌도 같고 칼도 같고 하는 거 아냐, 이거. 저 받침대는 내가 만든 거. 저거 받침대를 놔야 몽글몽글 안 해서 갈기가 좋으니까.)

“이거 신돌 호미나 칼이나 골 때 쓰는 거. 저건 뭐 오래지 안 한 거지 저거.”¹²²⁾

(이거 숫돌 낫이나 칼이나 갈 때 쓰는 거. 저건 뭐 오래지 않은 거지, 저거.)

118)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119) 신평리 고일화 씨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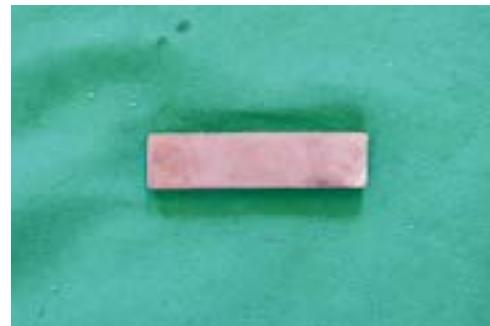
120) 안성리 강정일 씨 구술.

121) 상모1리 허세안 씨 구술.

122) 신도1리 김창남 씨 구술.



〈사진 167〉 허세안 씨 소장 '신돌'



〈사진 168〉 김창남 씨 소장 '신돌'

〈사진 167〉은 상모1리 허세안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돌’이다. 칼이나 낫을 갈 때 이용하는데, 갈 때 편하라고 신돌 받침은 허 씨가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사진 168〉은 신도 1리 김창남 씨의 ‘신돌’인데 그리 오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사진 169〉 강순화 씨 소장 '신돌'



〈사진 170〉 김병화 씨 소장 '신돌'



〈사진 171〉 김희정 씨 소장 '신돌'



〈사진 172〉 고동열 씨 소장 '신돌'

〈사진 169〉는 가파리 강순화 씨, 〈사진 170〉은 김병화 씨 댁에서 쓰고 있는 ‘신돌’

이고, <사진 171>은 신평리 김희정 씨, <사진 172>는 영락리 고동열 씨가 사용하고 있는 ‘신돌’이다. ‘신돌’ 받침대 모습이 제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5) 나무상자

‘나무상자’는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나무로 만든 네모난 그릇을 말한다.

“정미소에 옛날 그릇 엊일 때 그것더러 쌀 떨어지게 놓는 거. 정미소에서 보리쌀 지면 저것에 받았던 허난. 저거 허단 사름 주난 발판으로 사용허젠크 가정 온 거주. 정미소에서 쓰지. 옛날 그릇 엊이난. 마농 깔 때 발판으로 사용허젠크 허난. 마농 까는 기계데 올려놓젠크 허민 저거 엎어 냥 올라삿주. 이름이 특별한 게 없을 텐데. 요즘처럼 다라 있거나 허면 저거 필요 엊주게. 방앗간에 저거 하나 두 개가 아니. 무지무지 많이 있었지.”¹²³⁾

(정미소에 옛날 그릇 없을 때 그것에 쌀 떨어지게 넣는 거. 정미소에서 보리쌀 빽으면 저것에 받았다고 하니까. 저거 하다가 사람 주니까 발판으로 사용하려고 가져온 거지. 정미소에서 쓰지. 옛날 그릇 없으니까. 마늘 깔 때 발판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마늘 까는 기계에 올려놓으려고 하면 저거 엎어 놓고 올라섰지. 이름이 특별한 게 없을 텐데. 요즘처럼 대야 있거나 하면 저거 필요 없지. 방앗간에 저거 하나 두 개가 아니 물지물지 많이 있업지.)

〈사진 173〉은 영락리 송한진 씨 댁에서 보관하는 있는 ‘나무상자’다. 송씨는 정미소에서 사용하던 것을 얻어와서, 상자를 뒤집어 놓고 마늘 까는 기계에 마늘을 넣기 위해 올라서는 발판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플라스틱 그릇들이 많이 나오기 전에 정미소에서는 사진과 같은 나무상자에 정미 기계에서 나오는 쌀을 받는 용도로 사용했었다.



〈사진 173〉 송한진 씨 소장 ‘나무상자’

123)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6) 고망 뜰루는 거

‘고망 뜰루는 거’는 씨를 심고 나서 비닐을 덮은 모종이 싹이 났을 때 비닐에 구멍을 뚫을 사용하는 꼬챙이를 말한다.

“지실 놀근에 지실 구멍 뜰르는 거. 나가 키가 크난에 길게 헷주. 그건 한 칠십두세 설꺼지 헷주. 뗏이, 다섯이 수눌어 가지고.”¹²⁴⁾

(감자 놓고 감자 구멍 뚫는 거. 내가 키가 크니까 길게 했지. 그건 한 칠십두세 살까지 했지. 뗏이, 다섯이 품앗이해서.)

“그거 뭐이주계. 비니루 뚫어 가지고 마늘 꺼내는 거. 비니루 씨와 낭.”¹²⁵⁾

(그거 뭐지. 비닐 뚫어서 마늘 꺼내는 거. 비닐 씨워 놓고.)

“이제는 쇠로 혜근에 신식으로 혜근에 가볍게 나와. 겐디 저건 옛날식으로.”¹²⁶⁾

(이제는 쇠로 해서 신식으로 해서 가볍게 나와. 그런데 저건 옛날식으로.)



〈사진 174〉 김규화 씨 소장 ‘지실 구멍 뜰루는 거’



〈사진 175〉 현갑생 씨 소장 ‘마늘 구멍 뜰루는 거’



〈사진 176〉 김갑여 씨 소장 ‘비닐 뜰루는 거’



〈사진 177〉 임영일 씨 소장 ‘고망 뜰루는 골챙이’

〈사진 174〉는 신도1리 김규화 씨가 감자 모종이 날 때 위에 덮은 비닐의 구멍을 뚫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다. 김 씨는 칠십대 초반까지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비닐 뚫는 일을 할 때는 이웃 몇 사람이 품앗이해서 작업했다고 한다. 〈사진 175〉는 신평리 현갑생 씨, 〈사진 176〉은 안성리 김갑여 씨가 마늘 모종을 덮었던 비닐을 뚫을 때 사용했던 것이다. 손잡이 길이는 작업하는 사람의 키에 따라 그 길이를 달리하여 만들어서 사용했다. 〈사진 174〉에서 〈사진 176〉이 서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한 것이라면 〈사진 177〉의 ‘골챙이’는 앉아서 작업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안성리 임영일 씨 집에서 사용했던 것이다.

124)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125)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126) 안성리 임영일 씨 구술.

5. 어업 관련

대정읍 지역은 농업을 주로 행했던 지역이지만 바다가 인접한 신도리, 무릉리, 하모리, 상모리 등은 반농반어 지역이다. 한편 조사 지역으로 선정된 곳 가운데서는 상모1리, 가파리 등이 어업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던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가파리 지역은 지역민의 경제 활동 중 어업과 관련한 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정읍 지역의 어업 도구와 관련해서 가파리에서 조사한 잠녀들의 물질 도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5.1. 물옷

‘물옷’은 잠녀들이 물속에서 일을 할 때 입는 잠수복 따위의 옷을 말한다. 예전에는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든 ‘속곳’을 입었지만 1970년대 이후, 고무로 만든 ‘고무옷’이 보급되자 ‘고무옷’을 입고 물질을 하게 되었다.

(1) 속곳

‘속곳’은 잠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할 때 입었던, 무명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보통 무명에 검은색 물을 들여 만들어 입었다.

“데껴불젠 허단 놔두고 데껴불젠 허단 놔두고. 이거 영 입어난 거주게. 나 물질허명 입어낭 헐지 안허영 새 거난에 이거 영 새 거난 데껴불기 아까완 이거 그만이 놔 둔 거

라. 오른쪽이 터정. 요건 둘마기. 둘마긴 그차지민 새로 둘고 그차지민 새로 둘고 허주. 거 훈 번 허민 생전 입어져. 이거 나 훈 사십 년 됐어, 물질해난 거. 고무옷 입은 거 오래지 안했어. 그 전인 이것만 적삼도 엇이 이것만 입영. 이거 입영 수건, 물수건. 이거 입을 시절엔 적삼을 아무도 안 입었어. 어른이고 아으고 간에. 적삼 입은 것도 오래지 안하고 고무옷 나온 디도 오래지 안하고. 멧 십 년 안 뛰셔. 이거 나 이제 팔십일곱이난에 훈 이십 대서부터 이거 허는 거지. 이건 헐지 안 허난 놔뒀지. 헐어시민 데껴벗지. 오래지 안해서. 이건 훈 일이 년 입고, 이건 삼수 년 입곡 경. 나가 허단에 훈 육십 나난에 귀 뜨린 귀 아판 설러 불언. 이거 훈 마흔남은에 입어난 거. 이거 광목, 광목인데 물들인 거주. 이거 다 맨들아 놔근에 이녁냥으로 물 사당 들이주. 물감 사와. 장에 뎅기 명 물감 사단 이거 들여. 물들이는 방법을 뭐 물레 사단 물 궤왕 거 녹여근에 이거 적경 허민 뛰는 거주. 물 궤왕 물감 냥 풀어. 이거 냥 글로루 적셔근에 삶아야 허여. 다 검은색 허여. 해녀들 다 검은색.”¹⁾

(버리려고 하다가 놔두고 버리려고 하다가 놔두고. 이거 이렇게 입었던 거지. 내가 물질하면서 입었었는데 헐지 않고 새 거니까 이거 이렇게 새 거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이거 가만히 놔 둔 거야. 오른쪽이 트여. 요건 매듭단추. 매듭단추 끊어지면 새로 달고 끊어지면 새로 달고 하지. 거 한 번 하면 생전 입을 수 있어. 이거 나 한 사십 년 됐어, 물질했던 거. ‘고무옷’ 입은 거 오래지 않았어. 그 전엔 이것만 적삼도 없이 이것만 입어서. 이거 입어서 수건, ‘물수건’. 이거 입을 시절엔 적삼을 아무도 안 입었어.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적삼 입은 것도 오래지 않고 ‘고무옷’ 나온 지도 오래지 않아. 몇 십 년 안 돼서. 이거 나 이제 팔십일곱이니까 한 일이 년 입고. 이건 삼사 년 입고 그렇게. 내가 하다가 한 육십 되니까 귀 때려서 귀 아파서 치워 버렸어. 이거 한 마흔남은에 입었던 거. 이거 광목, 광목인데 물들인 거지. 이거 다 만들어 놔서 자기대로 물 사다가 들이지. 물감 사와. 장에 다니면서 물감 사다가 이거 들여. 물들이는 방법을 뭐 물감 사다가 물 끓여서 거 녹여서 이거 적셔서 하면 되는 거지. 물 끓여서 물감 넣어서 풀어. 이거 넣어서 콜고루 적셔서 삶아야 해. 다 검은색 해. 해녀들 다 검은색.)

1) 상모1리 이창선 씨 구술.



〈사진 1〉 이창선 씨 소장 '속곳'



〈사진 2〉 이창선 씨 소장 '속곳' 뒷면

〈사진 1〉은 상모1리 이창선 씨(1933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속곳'이다. 이 씨는 사십여 년 전에 자신이 입었던 '속곳'이 헐지 않았기에 버리기 아까워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속곳'에 달린 매듭단추를 '돌마기'라고 하는데 이 매듭단추가 떨어지면 다시 달아 오래도록 입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씨는 사십 년 전 고무로 만든 잠수복이 나오기 전까지 이 옷을 입고 물질을 했었는데, 이후에 '고무옷'을 입고 물질을 하다 귀가 아파서 그만두었다고 한다.

"(속곳은) 우리대로 다 만들양. 만들양 나 곱게 만들안 놔두난 우리 셋뜰 저 상모 시집갓저게. 셋뜰이 가져가 불언. 혹시 입젠 또 멘들양 놔두난이, 허난 안 입어전. 저 고무옷 나난 안 입어전. 고무옷은이 혼 마흔일고오답에 낫저. 에이, 그 전까지는 그냥 이축 헌 냥 물질해세게."²⁾

((‘속곳’은) 우리대로 다 만들어서. 만들어서 나 곱게 만들어서 놔두니까 우리 둘째 딸 저 상모 시집갔어. 둘째 딸이 가져갔어. 혹시 입으려고 또 만들어서 놔두니까, 하니까 안 입게 됐어. 저 ‘고무옷’ 나오니까 안 입게 됐어. ‘고무옷’은 한 마흔일고여덟에 나왔어. 에이, 그 전까지는 그냥 이대로 물질했어.)

"옛날 속곳은 영 허영 영 헛주만은 우린, 우린 크난 영 허영 일로 영 허영 영 마딱 체여져. 영 허민 일로 단추 하나. 요 저깽이 두 개. 일로 시 개 경허영. 어깨 끈 여기 오른쪽에. 이건, 이건 쥐진 거. 속곳이 영 벌기민 영 벌경 그자 영 입영."³⁾

(옛날 ‘속곳’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 우린, 우린 크니까 이렇게 해서 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두 째여. 이렇게 하면 일로 단추 하나. 요 겨드랑이 두 개. 일로 세

2)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3)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개 그래서. 어깨끈 여기 오른쪽에. 이건, 이거 기워진 거. ‘속곳’이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벌려서 그저 이렇게 입어서.)

"속곳은 다 묵작. 다 묵작. 속곳은 일로 이레 다 묵작."⁴⁾

(‘속곳’은 다 매듭단추. 다 매듭단추. ‘속곳’은 이리로 이리 다 매듭단추.)

가파리 강순화 씨(1935년생)도 잠수옷이 나오기 전인 사십대 후반까지는 '속곳'을 직접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그 이후 자신이 입었던 '속곳'을 딸이 가져갔다고 한다. 한쪽은 바느질로 박혀 있고 한쪽(왼쪽)은 트여 있는데 매듭단추를 달아 옷을 입고 다시 매듭단추를 맬 수 있게 만들어졌다.

"열여덟에 물질 배우젠 허난 속곳 헐 거 엇언. 우리 이모가 훼장이라낫저, 그때. 이모가 저 우리 어무니신더레 “조합원에 들려와 불서. 속곳 그슴 나옵니다.” 게난 조합원에 드난 물수건하고 속곳 그슴 나왔더라. 광목하고. 그땐이 광목도 어려와. 속곳 행입젠허난. 미녕으로 허민이 미녕이 베여. 미녕이 일곱새 미녕으로 허민 베영이. 엊은 사름은 미녕으로도 행 입엇지. 어떻 허느니."⁵⁾

(열여덟에 물질 배우려고 하니까 '속곳' 할 거 없었어. 우리 이모가 (조합) 회장이었어, 그때. 이모가 저 우리 어머니에게 “조합원에 들게 하세요. ‘속곳’ 감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에 드니까 물수건하고 ‘속곳’ 감 나왔더라. 광목하고. 그땐 광목도 어려워. ‘속곳’ 해서 입으려고 하니까. 무명으로 하면 무명이 무거워. 무명이 ‘일곱새’ 무명으로 하면 무거워서. 없는 사람은 무명으로도 해서 입었지. 어떻게 하니?)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을 '속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옷감이 필요하다. 가파리 강순화 씨는 자신이 물질을 하려 했던 열여덟에는 옷감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조합원에 가입을 해서 '물수건'과 '속옷'을 만들 옷감으로 광목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물적삼 입은 건이, 우리 물적삼 안 입어봤저. 물적삼 입으민 베영 누려가지 못허영 그자 허단 고무옷 나난 그냥 입엇주. 물적삼 안 입어 봤저. 가파돈 엉어. 가파돈 바당이 지퍼노난, 지픈 바당 뎅겨노난이. 물 싸정, 물 싸정 못 누려가. 게도 일로 이레 영 허

4)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5)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영 딱 맨다. 매고 이디 므작 헹 영 허곡 혜도이 아멩혜도 베여.”⁶⁾

(‘물적삼’ 입은 건, 우리 ‘물적삼’ 안 입어 봤어. ‘물적삼’ 입으면 무거워서 내려가지 못해서 그저 하다가 잠수복 나오니까 그냥 입었지. ‘물적삼’ 안 입어 봤어. 가파도는 없어. 가파도는 바다가 깊으니까, 깊은 바다에 다니니까. 물 싸서, 물 싸서 못 내려가. 그래도 이리로 이리 이렇게 해서 딱 맨다. 매고 여기 매듭단추 해서 이렇게 하고 해도 아무래도 무거워.)

“개난 그 시절에 속곳 7슴도 엿은 걸 물적삼 7슴 실 거냐?”⁷⁾

(그러니까 그 시절에 ‘속곳’ 감도 없는 걸 ‘물적삼’ 감 있을 거니?)

잠녀들이 물질할 때 ‘속곳’ 위에는 보통 ‘물적삼’을 입는데 강 씨의 구술에 의하면 가파도 지역에서는 ‘물적삼’을 입지 않았다. 가파도 지역은 바다 수심이 깊어 ‘물적삼’을 입으면 물 아래로 내려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여유 있게 ‘물적삼’을 만들어 입을 만큼 옷감이 넉넉지 않았다.

“후루메 큰 거. 족은 것도 안 뛰여. 큰 걸로 영하게 에워싸사 듯주. 이디 허민 이디 시엉시엉허영 을엉. 속곳 바람에 물질하난. 그추룩 헹 쟁 앗앙, 일로 영 쌍 앗앙이 경 혜영 불 초아사.”⁸⁾

(‘후루메’ 큰 거. 작은 것도 안 돼. 큰 걸로 이렇게 에워싸야 따뜻하지. 여기 하면 여기 썰렁해서 추워. ‘속곳’ 바람에 물질하니까. 그처럼 해서 써서 앓아서, 이리로 이렇게 써서 앓아서 그래서 불 쪘어야.)

‘속곳’을 입고 물질할 시기에는, 물속에서 나왔을 때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몸 위에 걸칠 것이 필요했다. 가파리 강순화 씨는 이를 ‘후루메’라고 불렀다. ‘후루메’는 보통 겨울용 ‘두루마기’를 가리키는데, 강 씨는 큰 걸옷을 처네용으로 이용했다.

(2) 고무옷

‘고무옷’은 잠녀들이 물속에서 작업할 때 입는 고무로 만든 잠수복이다. 1970년대 이후 ‘고무옷’과 ‘고무모자’ 등이 나오면서 물속에서 작업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추위

6)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7)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8)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에 떨지 않고 물질을 할 수 있었다.

“안경허고 오리발은 우리 해녀들 다 도에서 이거 마련해 준 거. 공짜로 이거 주고 안경 주고 잠수복도 자꾸 공짜로 나오고.”⁹⁾

(안경하고 오리발은 우리 해녀들 다 도에서 이거 마련해 준 거. 공짜로 이거 주고 안경 주고 잠수복도 자꾸 공짜로 나오고.)



〈사진 3〉 김병화 씨 소장 ‘고무옷’ 상의



〈사진 4〉 김병화 씨 소장 ‘고무옷’ 하의



〈사진 5〉 백순자 씨 소장
‘고무옷’ 상의

〈사진 3〉과 〈사진 4〉는 가파리 김병화 씨(1943년생)가 지금도 입고 있는 ‘고무옷’ 상의와 하의다. 〈사진 5〉는 가파리 백순자 씨(1937년생)의 ‘고무옷’이다. 가파리 강순화 씨에 의하면 해녀들에게 ‘고무옷’과 물안경 등을 무료로 나눠 준다고 한다.

(3) 까바리

‘까바리’는 잠녀가 물질을 할 때 쓰는 모자의 하나로, 머리와 목덜미, 뺨을 덮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까부리’라고도 하는데, 가파리의 강순화 씨는 이를 ‘까바리’라고 하였다.

“까바린 이거 잘도 멘들이 공들여. 이거 흰 서른댓에 멘들아져실 거라. 물수건 쓰단 이거 썬. 이거 쓰단 고무 까바리 나난 이거 안 씻주. 혼사 년 오 년 씻어. 이거 영 허영이 단추 고망 이 고망으로 허영 영 허민 이거 영.”¹⁰⁾

(‘까바린’ 이거 아주 만들기가 공들여. 이거 한 서른다섯에 만들었을 거야. ‘물수건’

9)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10)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쓰다가 이거 썼어. 이거 쓰다가 고무 '까바리' 나오니까 이거 안 썼지. 한 사 년 오 년 썼어. 이거 이렇게 해서 단춧 구멍 이 구멍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사진 6〉 강순화 씨 소장 '까바리'



〈사진 7〉 강순화 씨가 '까바리'를 쓴 모습

〈사진 6〉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소장하고 있는 '까바리'다. 강 씨가 서른다섯 살쯤에 직접 만든 것으로, 강 씨는 '물수건'을 쓰다가 '까바리'를 만들어 썼고 '고무모자'가 나오자 '고무모자'를 쓰고 물질했다고 한다. '까바리'의 앞쪽은 일정하게 주름을 잡아 바느질되어 있다. 〈사진 7〉은 강 씨가 '까바리'를 쓴 모습이다.

(4) 고무모자

'고무모자'는 잠녀들이 물질할 때 머리에 썼던 고무로 만든 모자다.



〈사진 8〉 김병화 씨 소장 '고무모자'



〈사진 9〉 백순자 씨 소장 '고무모자'

〈사진 8〉은 가파리 김병화 씨가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고무모자'이고, 〈사진 9〉는 가파리 백순자 씨가 사용했던 고무모자다.

(5) 어깨말

'어깨말'은 봉돌을 안에 넣어 만든 조끼 모양의 옷이다. 이 '어깨말'은 다른 지역에서는 조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가파리 지역에서 처음 볼 수 있었다.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잠녀들이 물질을 할 때 납작한 봉돌을 허리에 차는데 이것을 '연철' 혹은 '뽕돌'이라고 한다. 가파리의 잠녀들은 '뽕돌' 대신 '어깨말'을 직접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다른 디 사름덜 막 이만이헌 거 이디 차지 안해? 그거는 막 어깨도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건 이렇게 입으민 간편허지. 이거 입어서 적으면. 족으면 이걸 차는 거. 이 속에 이걸 담는 거주. 세 줄도 담고 짚은 아이덜은 기운 있는 아이덜은 그냥 그걸로 하는데 우리 어른덜은 이 힘으로만 뽕돌 힘으로 점점 나이들수록 뽕돌 힘으로 다녀. 기운이 엇어. 기운 신 이들은 이 다리맥이 좋니까 얼마 안 차도 뛰는디 우린."¹¹⁾

(다른 데 사람들 마구 이만한 거 여기 차지 않아? 그거는 아주 어깨도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건 이렇게 입으면 간편하지. 이거 입어서 적으면. 적으면 이걸 차는 거. 이 속에 이걸 담는 거지. 세 줄도 담고 짚은 아이들은 기운 있는 아이들은 그냥 그걸로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 힘으로만 봉돌 힘으로 점점 나이들수록 봉돌 힘으로 다녀. 기운이 없어. 기운 있는 이들은 이 다리맥이 좋으니까 얼마 안 차도 되는데 우린.)

가파리 김춘희(1944년생)에 따르면 물질을 할 경우 허리에 연철을 차면 그 무게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데 조끼 모양의 옷에 봉돌을 넣어 만들어 입으면 간편하게 물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김 씨는 '어깨말' 안에 봉돌을 세 줄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줄을 넣을 수 있는데 각자 자신에게 알맞게 무게를 조절할 수 있다고도 했다. 나이가 들수록 물에 들 때 봉돌의 무게가 무거워지며 이때는 '어깨말'을 입고 다시 허리에 '뽕돌'을 차기도 한다고 했다.

"이거 영 경. 이거 영 지고 저 뽕돌 차곡. 우리 가파도 사름만 요축 헌 거 만들엉 입어. 그거 막 무겁지. 그거는 잠수복, 잠수복 새 거 입을 때. 잠수복 새 거 입을 때는 봉 떠근에 깊이 누려가젠 허민 막 잠수복이 뭐 해볼주게. 이거 지고 이 뽕돌 차고."¹²⁾

11) 가파리 김춘희 씨 구술.

12)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이거 이렇게 쳐서. 이거 이렇게 지고 저 봉돌 차고. 우리 가파도 사람만 이처럼 한 거 만들어서 입어. 그거 아주 무겁지. 그거는 잠수복, 잠수복 새 거 입을 때. 잠수복 새 거 입을 때는 봉 떠서 깊이 내려가려고 하면 아주 잠수복이 뛰 하지. 이거 지고 이 봉돌 차고.)



<사진 10> 김병화 씨 소장 '어깨맡'



<사진 11> 김병화 씨 소장 '어깨맡'

<사진 10>과 <사진 11>은 가파리 김병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어깨맡'이다. 김 씨는 가파도에서만 이 '어깨맡'을 만들어 입으며, '어깨맡'은 새 잠수복을 입을 때, 새 잠수복이 물에 떠서 잘 가라앉지 않으므로 깊이 내려가려고 할 때 '어깨맡'을 입고 '뽕똘'을 더 차면 깊이 내려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거 어깨맡. 바당에 갈 때 영. 계난 이 천은 어디고 장에 가민 막 이런 거 풀지 안 허여개. 계난 그런 거 사단 만든 거. 옛날 혜난 거. 이거 해녀질 하는 사름덜. 이것도 한십년 넘었주. 이런 잔등이만 허단. 이거 이추룩 행 입영 하는 거주게. 그거 안 입으민 물 아래 못 내려가. 계난 저거 안 지민 바당에 물소꿉에 못 내려가."¹³⁾

(이거 '어깨맡'. 바다에 갈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천은 어디인가 장에 가면 마구 이런 거 팔지 않니. 그러니까 그런 거 사다가 만든 거. 옛날 했던 거. 이거 해녀질 하는 사람들. 이것도 한십년 넘었지. 이런 등만 하다가. 이거 이처럼 해서 입어서 하는 거지. 그거 안 입으면 물 아래 못 내려가. 그러니까 저거 안 지면 바다에 물속에 못 내려가.)

"이게 편허주게. 이거 허민 허리 안 아프주게. 뽕똘 신 거 저디 싯수만은 건 뽕똘 빼 분 거."¹⁴⁾

13) 가파리 백순자 씨 구술.

14)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이게 편하지. 이거 하면 허리 안 아프지. 봉돌 있는 거 저기 있지만 봉돌 빼 버린 거.)



<사진 12> 백순자 씨 소장 '어깨맡'



<사진 13> 강순화 씨 소장 '어깨맡'

<사진 12>는 가파리 백순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어깨맡'이다. 시장에서 파는 옷감을 사다가 백 씨가 재봉틀로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조끼 모양의 옷 가운데 부분에 봉돌을 들어가는 부분에 박음질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백 씨는 '어깨맡'을 입지 않으면 물 아래로 내려가지 못한다고 한다.

<사진 13>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어깨맡'인데 <사진 12>와 <사진 13>의 '어깨맡'은 모두 봉돌을 빼서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14>는 가파리 김병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어깨맡' 속에 넣는 봉돌이다.



<사진 14> 김병화 씨 소장 '봉돌'

(6) 눈

'눈'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물안경을 말한다. 지금은 고무 테두리를 두른 물안경을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쇠로 만든 작은 알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죽은눈'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거 입영 눈 쓰고. 두 개 있는 거 처음에 허단 하나 잇는 거 중간에 낫지. 나 죽은

눈 가져 오카? 옛날엔 이것이 췌랐주게. 이거 중간에 나온 거.”¹⁵⁾

(이거 입영 물안경 쓰고. 두 개 있는 거 처음에 하다가 하나 있는 거 중간에 나왔지.
내가 ‘죽은눈’ 가져 올까? 옛날엔 이것이 쇠였지. 이거 중간에 나온 거.)



〈사진 15〉 이창선 씨 소장 ‘눈’



〈사진 16〉 이창선 씨 소장 ‘눈’

〈사진 15〉와 〈사진 16〉은 상모1리 이창선 씨가 사용했던 물안경이다. 이 씨는 안경 테두리가 양쪽으로 있는 물안경을 처음에 썼었는데 이후 〈사진 15〉의 고무 물안경이 나왔다고 한다. 〈사진 16〉의 물안경을 이 씨는 ‘죽은눈’이라고 했다. 예전에는 ‘눈’의 테두리가 쇠로 되어 있었으나 〈사진 16〉의 눈은 고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중간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

“눈에 안경이 우린이 이 죽은 안경 안 헷저게. 안 헤이 영 코 우로, 죽은 안경이라도 영 허영 후싱, 후싱 허영 요추룩 허민 물 아래 누려가민이 죽은안경은 영 눈 딱 벨라 불어이. 압력으로 눈 벨르난 일로 이레 이만이 고무, 이제 거트민 풍선처록 둘 아메영 영 돌아메영. 돌아메영 요디 ھ꼼만 터지민 물 들어. 경허민 물질 강 오민 그거 숙덕허느라고이. 경허영 허단 첨 후싱 안경이엔 헌다. 후싱 안경이. 후싱 안경 허단 그것도 선계, 마딱 마딱 쥐 불어. 그거 허단이 이젠 코 우로 요추룩. 요추룩 요렇게 영 헌 거. 영현 거 허단 우리 흔흔 마흔, 쉰남은 나사 코 안경, 코로 영 안경 헌 거. 그게 잊어.”¹⁶⁾

(눈에 안경이 우린 이 작은 안경 안 했어. 안 하고 이렇게 코 위로, 작은 안경이라도 이렇게 해서 ‘후싱’, ‘후싱’ 해서 이처럼 하면 물 아래 내려가면 ‘죽은안경’은 이렇게 눈 딱 눌러서 벌여 버려. 압력으로. 눈 눌러서 벌이니까 이리로 이리 이만한 고무, 이

제 같으면 풍선처럼 달아매서 이렇게 달아매서. 달아매서 여기 조금만 터지면 물이 들어. 그러면 물질 갔다 오면 쑤시느라고. 그래서 하다가 참 ‘후싱 안경’이라고 한다. ‘후싱 안경’. ‘후싱 안경’ 하다가 그것도 있었는데, 모두 모두 쥐 버렸어. 그거 하다가 이젠 코 위로 이처럼. 이처럼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하다가 우리 한 한 마흔, 쉰 조금 되어야 코 안경, 코로 이렇게 안경 한 거. 그거 있어.)

“후싱 안경, 안경 그자. 눈이렌 안 허여, 안경. 후싱을 이제 ھ꼼만 터져도 물 들엉이 못 베려이. 경허민 그걸 다시 또 메왕이, 이제 گ트민이 고무 닮은 걸로 영허영 이추룩 헌 즈룩 허영 이디 딱 묶엉 율로 허영 영 허영 요디가 딱 무끄곡 허민 지픈 디 내려가민 이걸로 공기가 뛰영 이게 봉쿠랑허영이 압력 덜 받게. 게난 옛날 하르방덜도 머리가 좋앙이 그추룩 헷어.”¹⁷⁾

(‘후싱 안경’, 안경 그자. ‘눈’이라고 안 해, 안경. ‘후싱’을 이제 조그만 터져도 물이 들어와서 못 봐. 그러면 그걸 다시 또 메워서, 이제 같으면 고무 같은 걸로 이렇게 이처럼 한 자루 해서 여기 딱 묶어서 율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묶고 하면 깊은 데 내려가면 이걸로 공기가 되어서 이게 부풀어서 압력 덜 받게. 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들도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했어.)

물안경은 보통 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큰눈’ 또는 ‘왕눈’, 작은 알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죽은눈’이라고 한다. 가파리 강순화 씨는 물안경은 ‘눈’이라 하지 않고 그냥 ‘안경’이라고 했는데, 가파리에서는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압이 높아 ‘죽은 안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압에 물안경이 눈을 누르는 것을 막기 위해 물안경에 공기 주머니를 달았는데 그것을 강씨는 ‘후싱 안경’이라고 불렀다. 이 ‘후싱 안경’은 조금만 터져도 안경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앞을 잘 볼 수 없다. 그럼 그것을 다시 고무로 메워서 다시 썼다. 이 ‘후싱 안경’을 써서 공기를 넣으면 수압을 덜 받게 되어 물질하기가 한결 수월하다고 한다.

“안경 책갑. 아이고, 그거 잘도 오랜 거여. 하르방 신 때 뚜껑, 이거 불린덴 영 무꺼 준 거주. 게고 이 고망 이거 이디 습기 찬덴. 놔두난 삭았주.”¹⁸⁾

(‘안경 책갑’. 아이고, 이거 아주 오랜 거야. 할아버지(남편) 있을 때 뚜껑, 이거 불린다고 이렇게 묶어 준 거지. 그리고 이 구멍 이거 여기 습기 찬다고. 놔두니까 삭았지.)

17)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18)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15) 상모1리 이창선 씨 구술.

16)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사진 17〉 강순화 씨 소장 '안경'과 '안경 책갑'



〈사진 18〉 김병화 씨 소장 '눈'

〈사진 17〉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물안경과 물안경을 보관하고 있는 통이다. 강 씨는 이 물안경을 보관하는 통을 ‘안경 책갑’이라고 하였다. ‘책갑’은 책을 넣어 둘 수 있게 책의 크기에 맞추어 만든 작은 상자나 집을 말하는데 강 씨는 물안경을 보관하는 〈사진 17〉의 통도 ‘책갑’이라고 불렀다. 강 씨의 ‘안경 책갑’은 플라스틱 통인데, 남편이 바람에 뚜껑이 불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 두었다고 한다. 또 습기가 차는 것을 막기 위해 뚜껑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고 한다. 〈사진 18〉은 가파리 김병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눈’과 ‘눈’을 보관하고 있는 통이다. 이 통 안에는 물안경뿐만 아니라 귀마개도 같이 들어 있었다.

(7) 귀마개

‘귀마개’는 잠녀들이 물질을 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를 막는 물건을 말한다.

“요런 거는 이제 귀마개. 이거 집이서 만든 거는 아니. 이거 어디서 얻은 거. 일본서 오는 이제 우리 조카가 이시난, 일본서 물질하고 하는 조카가 이시난 이런 거 주면 그 거 이제 다 달랑 이제 하는 거고.”¹⁹⁾

(요런 거는 이제 귀마개. 이거 집에서 만든 거는 아니. 이거 어디서 얻은 거. 일본에서 오는 이제 우리 조카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물질하고 하는 조카가 있으니까 이런 거 주면 그거 이제 다 이겨서 이제 하는 거고.)

19)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사진 19〉 김병화 씨 소장 '귀마개'



〈사진 20〉 김병화 씨 소장 '귀마개 통'

〈사진 19〉은 가파리 김병화 씨의 ‘귀마개’로, 〈사진 20〉은 물안경을 보관하는 통에 귀마개가 들어 있는 모습이다. 김 씨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카에게 받은 것이다.

“요즘은이 귀에 물 들카 부덴 만딱덜 막앙. 우린 어느 절에 귀에. 계난 지픈 물에 강 허민, 이제 이착 귀가 막은 게 그거라이. 압력으로 행 막아서이 이거. 이착으로 베끼 전화도 이착베끼 못 들은다. 겨난 이착은 영 막아 불언. 경허민 강 오민 숙 허영이 단지에 영허영 울령. 영 울령 뒷날 물질 가고. 난 귀마갠 안 해 봤.”²⁰⁾

(요즘은 귀에 물 들어갈까 봐 모두들 막아서. 우린 어느 거를에 귀에. 그러니까 깊은 물에 가서 하면, 이제 이쪽 귀가 막은 게 그거야. 압력으로 해서 막았어, 이거. 이쪽으로 밖에 전화도 이쪽밖에 못 들어.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막아 버렸어. 그러면 가서 오면 쑥 해서 단지에 이렇게 짐질해서. 이렇게 짐질해서 뒷날 물질 가고. 난 귀마개는 안 해 봤어.)

가파리 강순화 씨는 요즘은 많이들 귀마개를 착용하지만 강 씨가 한창 물질하던 시절에는 귀마개를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수심이 깊은 물에서 물질하다 보니 수압 때문에 귀가 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물질 후에 쑥으로 짐질을 하기도 했다. 강 씨는 물질하던 때 수압 때문에 이제 한쪽 귀는 멀어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8) 오리발

‘오리발’은 사람이 물속에서 활동할 때에 발에 끼는 오리발 모양의 물건을 말한다.

20)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잠수복을 입기 시작한 이후에 ‘오리발’까지 나와 잠녀들의 물속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사진 21〉은 가파리 김병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오리발’이다.



〈사진 21〉 김병화 씨 소장 ‘오리발’

5.2. 테왁과 망사리

(1) 테왁

‘테왁’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예전에는 박의 씨를 파내어 만들어 사용했는데, 요즘은 스티로폼으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

“테왁 허연 우리 혼 열여덟, 열아홉엔 테왁 헷주계. 테왁 허민이 아이고, 배로 가민이 베 짐 들엉이 테왁, 물든 테왁 지퍼 불민 까경. 깨전 허단 우리 혼 서른댓 나난 스쁜지로 헷져. 그 전인 쿨락 테왁. 큰물이 강 쿨락 테왁 구허노라고이 잘 굳어서 아이 굳어서 두드려 보멍. 아이고, 쿨락 테왁 잘 아이 굳은 건이 물 울엉이 북삭 까져 불어. (쿨락을 집이서 질른 건 아니고?) 아이고, 집이서 어떻 질르느니? 큰물이 강 해 오주. 옛날은 웃드르레가 그런 쿨락 테왁 싯주. 이디 놀 불민이 죽어 분다. 으, 못 질룬다. 쿨락 못 헌다. 경허난 큰물으로, 모실포로 우터리 이제 영락리. 이제 저 이제 첨 이제 그트민 이제 대정골 그레 그 큰물더레 웃드르레. 웃드르레 신청허영, 허여근에 소못 첨 쿨락 테왁 헷저. (그민 일 년에 물질허전 허민 일 년에 그 쿨락을 멧 개나?) 아이고, 쿨락이 잘 굳은 건이 궤양 앗아 뎅기민 혼 이 년 삼 년 앗아 뎅기고. 경 안허민이 정체 엇은 건 혼번에 까져 불어. 허허. 것도이 고양 조심히 가져 뎅겨사. 정체 엇은 건 테왁 까져 불엉 소못 울곡 웃곡, 울곡 웃곡 헌다. 경허민이 경혜도 다 이 촌락 밑에 사람이 잇엉이 쿨락 덜이 테왁덜이 행 낫당이 다 빌려주곡이 옛날엔이 주곡. 인심이 좋더라. 경현디 이젠 사람이 웃을수록 인심이 없어, 인심이 없어.”²¹⁾

(‘테왁’ 해서 우리 한 열여덟, 열아홉에는 ‘테왁’ 했지. 테왁 하면 아이고, 배로 가면

²¹⁾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배 짐 들고 ‘테왁’, 물든 ‘테왁’ 짚어 버리면 깨져. 깨져서 하다가 우리 한 서른댓 나니까 스폰지로 했어. 그 전에는 박 ‘테왁’. ‘큰물’에 가서 박 ‘테왁’ 구하느라고 잘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두드려 보면서. 아이고, 박 ‘테왁’ 잘 안 굳은 건 물이 불어서 깨져 버려. (박을 집에서 기른 건 아니고?) 아이고, 집에서 어떻게 기르니? ‘큰물’에 가서 해서 오지. 옛날은 ‘웃드르’에가 그런 박 ‘테왁’ 있지. 여기 높은 파도 일면 죽어 버린다. 으, 못 기른다. 박 못 한다. 그러니까 ‘큰물’으로, 모슬포로 위로 이제 영락리. 이제 저 이제 참 이제 같으면 이제 ‘대정골’ 그리 그 ‘큰물’으로 ‘웃드르’에. ‘웃드르’에 신청해서, 해서 사뭇 참 박 ‘테왁’ 했어. (그럼 일 년에 물질하려고 하면 일 년에 그 박을 몇 개나?) 아이고, 박이 잘 굳은 건 고이 가지고 다니면 한 이 년 삼 년 가지고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정체 없는 건 한 번에 깨져 버려. 허허. 그것도 고이 가지고 다녀야. ‘테왁’ 깨져 버려서 사뭇 울고 웃고, 울고 웃고 해. 그러면 그래도 다 이 촌락 밑에 사람이 있어서 박들이 ‘테왁’들 해서 놨다가 다 빌려주고 옛날에는 주고. 인심이 좋더라. 그런데 이젠 사람이 없을수록 인심이 없어, 인심이 없어.)

〈사진 22〉는 가파리 강순화 씨의 ‘테왁’이다. 강 씨가 열여덟, 열아홉에 물질할 때는 박으로 만든 ‘테왁’을 이용했다. 가파리 지역에는 바닷바람이 세서 박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테왁’으로 쓸 박은 제주 본섬에 가서 구해 왔다고 한다. 모슬포 위쪽 마을인 영락리 등지로 가서 좋은 박을 구해 와 ‘테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잘 굳은 박은 조심히 다루면 이삼 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깨져 버려 곤란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 22〉 강순화 씨 소장 ‘테왁’



〈사진 23〉 김병화 씨 소장 ‘테왁’과 ‘망사리’

〈사진 23〉은 가파리 김병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테왁’과 ‘망사리’다. ‘망사리’ 안에는 물질할 때 사용하는 호미, 안경 보관함 등이 들어 있고 옆에 ‘조락’도 달려 있다. <



〈사진 24〉 김병화 씨가 '테왁'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사진 25〉 조경순 씨 소장 '테왁'과 '망사리'



〈사진 26〉 백순자 씨 소장 '테왁'과 '망사리'

사진 24〉는 김병화 씨가 '테왁'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25〉는 가파리 조경순 씨(1934년생)의 '테왁'과 '망사리'이고, 〈사진 26〉은 가파리 백순자 씨의 '테왁'과 '망사리'다. 〈사진 25〉와 〈사진 26〉의 '망사리'의 '어음' 부분에는 '테왁'이 바닷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불들어 매는 뒷돌을 달 수 있도록 뒷줄이 매어 있다. 〈사진 26〉의 '테왁'에는 뒷돌과 뒷줄도 연결된 채 보관되고 있었다.

서 그거 만들었었어.)

“저 옛날엔이 저 노꽃 잇엉 헷주만은 이젠 나이론 노꽃덜 잘 나오난이 다 그런 거로 헉나. 옛날은 옛날은이 저 멘세 노꽃으로 헷주게. 나이론 노꽃 엊으난 멘세 노꽃으로 헤영. 우리 허영 지프당 어떤 때이 썩엉 그게 그차지민이 테왁이 터나. 터나민 심지 못 허여. 다른 사름이 심어 줘사. 멘세 나오기 전엔 뺏으로 혜신디사 몰라. 우리 육양 보난 이. 남총이나 신사란 할망덜 우리 어명 어린 때나 헷주. 우리 어린 때는 그 멘세 노꽃.”²³⁾

(저 옛날에는 저 노끈 이어서 했지만 이제는 나일론 노끈들 잘 나오니까 다 그런 거로 해. 옛날은 옛날은 저 면화 실 노끈으로 했지. 나일론 노끈 없으니까 면화 실 노끈으로 해서. 우리 해서 짚다가 어떤 때는 썩어서 그게 끊기면 '테왁'이 떠나. 떠나면 잡지 못해. 다른 사람이 잡아 줘야. 면화 실 나오기 전에는 뭐로 했는지 몰라. 우리 커서 보니까. 종려나무나 '신사라'는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 어린 때나 했지. 우리 어린 때는 그 면화 실 노끈.)

“우리 육은 후에 이 나이론 망사리가 낫지. 그 전인 그때 남총이라 헤가지고 일본시 절에 그 남총 노 꼬아근에 헤긴에 찐 그런 망시리 그런 거 헷지. 거 일본 사름덜이, 남총은 여기 안 나난 일본 사름덜이 가져다가 여기서 만든 거지. 남총 거 질기주게. 쪽은 약행 금방 금방.”²⁴⁾

(우리 큰 후에 이 나일론 '망사리'가 나왔지. 그 전엔 그때 종려나무라 해서 일본 시 절에 그 종려나무 노 꼬아서 해서 짚 그런 '망사리' 그런 거 했지. 거 일본 사람들이, 종려나무는 여기 안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져다가 여기서 만든 거지. 종려나무 거 질기지. 짚은 약해서 금방 금방.)

요즘 '망시리'는 대부분 나일론 줄을 엮어 만든 것을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억새 속 잎이나 덩굴의 줄기 등을 이용했다. 가파리 지역의 김병화 씨, 강순화 씨 등이 물질할 때는 이미 나일론으로 만든 '망시리'를 사용했다고 한다. 종려나무나 '신사라' 줄기를 이용해서 '망시리'를 만들었던 것은 자신의 할머니 세대이고 자신이 어렸을 때는 면화 실로 만든 그물 '망사리'를 이용했다고 한다.

“이거 노 꼬는 것도 나 처년 때 테왁 망사리가 엊이난 나냥으로 재료 비어당, 그때

23)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24) 가파리 박영복 씨 구술.

“난 남총 망사리 허여 보진 안한. 옛날에, 옛날 분덜은 남총 이추룩 꼬아가지고 그 거 만들어난.”²²⁾

(난 종려나무 '망사리' 해 보진 않았어. 옛날에, 옛날 분들은 종려나무 이처럼 꼬아

22)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물에 나는 거 자우락이엔 허는 거 잇어. 바당물 민물 반 반 헌 디, 논에 나는 거. 그런 거 비어당 나얗으로 노 꼬양 망사리 뭇아근에 테왁에 허영 물질해낫주게.”²⁵⁾

(이거 노 꼬는 것도 나 처녀 때 ‘테왁’ ‘망사리’가 없으니까 나대로 재료 베어다가, 그때 물에 나는 거 천일사초라고 하는 거 있어. 바닷물 민물 반 반 하는 데, 논에 나는 거. 그런 거 베어다가 나대로 노 꼬아서 ‘망사리’ 맷어서 ‘테왁’에 해서 물질했었어.)

한편, 상모1리 이창선 씨는 바닷가 습지에서 자라는 천일사초를 베어다가 노를 꼬아 ‘망사리’를 만들어 썼다고 한다.

“이거는 메역할 때 허는 거. 이거는 소라 잡을 때. 메역은 많이, 많이 이제 막 망사리에 잇빠이 담는 따문 이거 큰 거에 허지. 저거는 죽은 거.”²⁶⁾

(이거는 미역할 때 하는 거. 이거는 소라 잡을 때. 미역은 많이, 많이 이제 아주 ‘망사리’에 가득 담는 때문에 이거 큰 거에 하지. 저거는 작은 거.)

“망시리 구제기 잡는 건 흐꼼 훑고. 이제 예를 들엉 말허민 퀴살 허는 건 좀질고. 망시리가 두 가지로.”²⁷⁾

(‘망시리’ 소라 잡는 건 조금 짚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성게 하는 건 가늘고. ‘망시리’가 두 가지로.)

“옛날은이 망시리 요만이 작앙이 요만이 테왁도 요만은 허고 망시리도 요만은 허민 그거 그득으민 나 불어. 경허난 물건이 핫주게. 경현디 이젠이 망시리도 이만큼 테왁도 이만큼. 어이구, 허루 혜원 나지 안허고. 우린이 물때 존 때 춤들이 혼 번 허영이 망시리 그득으민 뛰나마나 이디 쌓여도 나 불어. 나 불엇주만은 옛날은 경햇주만은 이젠 경 험샤? 경허민 우리 헐 땐이 구제기가 옹기 짓어져이. 영 영.”²⁸⁾

(옛날은 ‘망시리’ 요만큼 작아서 요만큼, 테왁도 요만큼 하고 ‘망사리’도 요만큼 하면 그거 가득하면 나와 버려. 그러니까 물건이 많지. 그런데 이젠 ‘망시리’도 이만큼 테왁도 이만큼. 아이고, 하루 종일 나오지 않고. 우린 물때 좋을 때 한 번 들어가서 ‘망시리’ 가득하면 되나마나 여기 (해산물이) 쌓여도 나와 버려. 나와 버렸지만 옛날을 그랬지만 이젠 그렇게 하니? 그러면 우리 할 땐 소라가 모여 있어. 이렇게 이렇게.)

25) 상모1리 이창선 씨 구술.

26)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27)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28)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채취하는 해산물에 따라 ‘망시리’의 크기나 그물 구멍의 크기가 달랐다. 가파리 김병화 씨의 구술에 의하면 미역을 하는 ‘망시리’는 소라용 ‘망시리’보다 크기가 컸다고 한다. 가파리 강순화 씨는 ‘망시리’ 그물의 경우 소라를 잡는 건 그물 구멍의 크기가 조금 짚지만 성게를 잡는 건 상대적으로 그물 구멍의 크기가 작다고 하였다. 또한 예전에는 테왁이나 ‘망시리’가 작아서 그게 가득하면 물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테왁도 ‘망시리’도 커져 물에서의 작업 시간이 길어졌다.



〈사진 27〉 김병화 씨 소장 ‘망사리’



〈사진 28〉 강순화 씨 소장 ‘망시리’

〈사진 27〉은 가파리 김병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망시리’이다. ‘망시리’와 함께 작업할 때 앓는 방석이 같이 걸려 있다. 〈사진 28〉은 강순화 씨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망시리’로 강씨는 ‘망시리’ 안에 작업할 때 입는 옷가지류를 넣어 두고 있었다.

“돛 헐 때 호미 허곡 무슨 저, 옛날엔이 이런 망시리 현 것덜 가정 가는데 이젠. 옛날은 망시리 현 거로. 망시리 현 거 첨 구물이 구물 만딱 시민 저 바당에 올라시민이 줄어당 짤랑 만딱 앗앙 멘들앙 그걸로 쳐냈저. 저 거시기 바당에 떠뎅기는 거 줄어당. 내분 것덜.”²⁹⁾

(돛 할 때 낫 하고 무슨 저, 옛날에는 이런 ‘망시리’ 현 것들 가져 가는데 이젠. 옛날은 ‘망시리’ 현 거로. ‘망시리’ 현 거 참 그물이 그물 모두 있으면 저 바다에 올랐으면 주워다가 잘라서 모두 앓아서 만들어서 그걸로 쳐냈어. 저 거시기 바다에 떠다니는 거 주워다가. 내버린 것들.)

29)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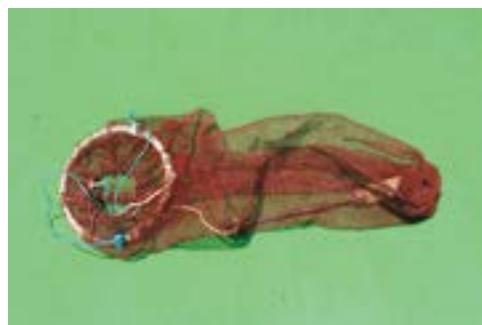
“(메역 헐 때랑 톳 헐 때랑 전복 헐 때랑 망시리가 튼납니까?) 아니, 톳 하는 망시리가 그 망시리 그 망시리. 어음만 잇지. 망시리 헌 거 놋당 톳 하여. 망시리 헌 거 놋당. 그걸로 안 하여. 우리가 망시리 훈 일 년 반 년 허민이 구챙기 끊어 뗁겨 나민 다 다인다게. 헐엉. 경허민 잣양 허주게. 그걸 클렁 이녁냥으로 망시리 짱 둘앙 그거 놋당 톳 하여. 데꺼불지 안허여. 미역도 그걸로 허영 담아내고.”

((미역 할 때랑 톳 할 때랑 전복 할 때랑 ‘망시리’가 다릅니까?) 아니, 톳 하는 ‘망시리’가 그 ‘망시리’ 그 ‘망시리’. ‘어음’만 있지. ‘망시리’ 헌 거 놋다가 톳 해. ‘망시리’ 헌 거 놋다가. 말짱한 걸로 안 해. 우리가 ‘망시리’ 한 일 년 반 년 하면 소라 끌고 다니고 나면 다 많아. 헐어서. 그러면 걸어서 하지. 그걸 풀어서 자기대로 ‘망시리’ 짜서 달아서 그거 놋다가 톳 해. 버리지 않아. 미역도 그걸로 해서 담아내고.)

한편, ‘망시리’를 ‘바릇찰리’라고 하기도 했다.

“이거 바릇찰리 오분자기 같은 거, 이런 골챙이 놓곡 허는 거. 오분자기용이라도 지금은 오분자기가 이제 엉으니까 바당이 오염돼 가지고. 골챙이 이건 이런 디로 나오지 못하게. 어디 잘못햇당 찔름이라도 허카 부텐 이런 걸 만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허는 거.”³⁰⁾

(이거 오분자기 같은 거, 이런 호미 놓고 하는 거. 오분자기용이라도 지금은 오분자기가 이제 없으니까 바다가 오염돼서. 호미 이건 이런 데로 나오지 못하게. 어디 잘못했다가 찌르기라도 할까 봐 이런 걸 만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하는 거.)



〈사진 29〉 김병화 씨 소장 ‘바릇찰리’



〈사진 30〉 김병화 씨 소장 ‘바릇찰리’와 ‘골챙이’

30)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사진 29〉와 〈사진 30〉은 가파리 김병화 씨의 ‘바릇찰리’와 ‘골챙이’다. 김 씨가 오분자기 따위를 잡을 때 사용했던 것인데 이제는 바다가 오염되어서 오분자기는 잡을 수 없다고 한다. ‘바릇찰리’ 안에는 ‘골챙이’가 들어 있었는데 ‘바릇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골챙이’에 찔리지 않기 위해 ‘골챙이’의 뾰족한 부분에는 가는 고무파이프를 끼워 놓고 있었다.

가파리 김병화 씨, 강순화 씨는 작은 망사리를 ‘홍사리’라고 불렸다. 이 ‘홍사리’는 ‘어음’이 없는 것으로, ‘테왁’에 연결된 ‘망사리’ 외에 이 ‘홍사리’를 예비용으로 가지고 갔다가 채취한 해산물이 많으면 덜어서 담을 때 사용했다. 또 채취한 전복 등 해산물을 담아 바닷물에 잠깐 보관할 때도 이용했다.

“홍사리 그거는 미역 많이 헐 때에 담양 경 우터레 올리는 거. 미역 헐 때 망사리 담양 갓당 미역이 저거 이제 많이 많이 담으면 이제 더 담을 디도 엇고 허민 요런 거 돌아멧당 요런 것에 담양 이 덕에 오면 배로 못 가근에 덕으로, 덕에 갈 때는 뗁겨근에 이제 우터레 돌 우터레 허민 확실히 편하지. 덜 무거우니까.”³¹⁾

(‘홍사리’ 그거는 미역 많이 할 때에 담아서 저서 위로 올리는 거. 미역 할 때 ‘망사리’ 담아서 갔다가 미역이 저거 이제 많이 많이 담으면 이제 담을 데도 없고 하면 요런 거 달아맸다가 요런 것에 담아서 이 바닷가 바위에 오면 배로 못 가서 바닷가로, 바닷가 갈 때는 당겨서 이제 위로 돌 위로 하면 확실히 편하지. 덜 무거우니까.)

“경허민이 흐꼼 전복은 이 자리서 뜨곡 이 자리서 뜨민 골라. 물이, 물이 하는 따문에. 경허난 이 자리에, 예를 들어 삼 키로민 이 자리서 허민 훈 이 점 팔베끼 안 하여. 이 자리서 해 불어사. 물 컷당, 저 죽으민 안 뛰주게. 죽으민이 저 거시기 받지 안허여. 살아사. 겨민 이런 홍사리에 전복하는 홍사리에 딱 물도 짚은 디 컷당 들렁 강 바로 저울여야 됩 거.”³²⁾

(그러면 조금 전복은 이 자리에서 뜨고 이 자리에서 뜨면 꽂아. 물이,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를 들어 삼 킬로그램이면 이 자리에서 하면 한 이 점 팔밖에 안 해. 이 자리에서 해 버려야. 물에 담갔다가, 저 죽으면 안 되지. 죽으면 저 거시기 받지 않아. 살아야 그러면 이런 ‘홍사리’에 전복하는 ‘홍사리’에 딱 물도 짚은 데 담갔다가 들고 가서 바로 떠야 될 거.)

31)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32)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이거 푸대 이거 이름 썽 이추룩 무껑 가주게, 물질 갈 때. 영행 무껑 갓당 바다에서 나면 이거 풀영 이거에 소라 거튼 거 담고 혜영 이제 베로 정 올라오고.”³³⁾

(이거 부대 이거 이름 썽서 이처럼 묶어서 가지, 물질 갈 때. 이렇게 묶어서 갔다가 바다에서 나오면 이거 풀어서 이거에 소라 같은 거 담고 해서 이제 바로 져서 올라오고.)



〈사진 31〉 강순화 씨 소장 ‘홍사리’



〈사진 32〉 뜻이 들어 있는 ‘홍사리’

〈사진 31〉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홍사리’다. 〈사진 32〉는 뜻이 들어 있는 ‘홍사리’의 모습이다.

‘테왁’에 ‘망사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그물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음’이다. 즉, ‘어음’은 망사리에 그물을 끼워 고정시키기 위해 나무나 파이프 따위로 만든 등근 테두리를 말한다. 예전에는 보통 보리장나무, 상동나무, 다래나무 등의 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나 요즘에는 파이프 등을 둥글게 휙게 하여 만들어 사용한다.

“이건 어음. 낭으로 뛴 거 있어, 나. 그 낭은이 질긴 낭으로 혜산덴. 웃드르 강 혜온다. 겨민이 그 웃드르서 풀레 온다. 장에도 오곡. 또 장 안 난 때 옛날 우리 장 안 난 때 이디 이렇게 미영 온다, 풀레. 풀레 오민 다사. 이젠 그거 안 행 그거를 요샌 저 영 물 누리는 거이. 호수로 행 다 멘들아. 나도 낭으로 헌 거 두 개 싯고 호스로 헌 거 두 개 싯고 헷져.”³⁴⁾

(이건 어음. 나무로 된 거 있어, 나. 그 나무는 질긴 나무로 해야 한다고. ‘웃드르’ 가서 해 와. 그러면 그 ‘웃드르’에서 팔려 온다. 장에도 오고. 또 장 안 난을 때 옛날 우

33)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34)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리 장 안 난을 때 여기 이렇게 메서 온다, 팔려. 팔려 오면 다 사. 이젠 그거 안 해서 그거를 요새 저 이렇게 물 내리는 거. 호스로 다 만들어. 나도 나무로 한 거 두 개 있고 호스로 한 거 두 개 있고 했어.)

“개난 어음 허는 그 낭 일름을 잘 모르크라. 그 낭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물이서 오주께, 물이서. 우리 가파돈 엇고. 어음을 혜당 뜯는 사름이 잇주께. 물이서. 여기선 그 디 강 사당 헛주께, 사당. 장에 강.”³⁵⁾

(그러니까 ‘어음’ 하는 그 나무 이름을 잘 모르겠어. 그 나무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물에서 오지, 물에서. 우리 가파도는 없고. ‘어음’을 해다가 파는 사람이 있지. 물에서. 여기선 거기 가서 사다가 했지, 사다가. 장에 가서.)



〈사진 33〉 이창선 씨 소장 ‘어음’

가파리 강순화 씨와 박영복 씨 (1936년생)에 의하면, 가파리에서 쓰이는 ‘어음’은 물(제주 본섬)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가파리에서는 ‘어음’으로 쓰이는 나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사진 33〉은 상모1리 이창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파이프로 된 ‘어음’이다.

(3) 조망시리

‘조망시리’는 망사리 중에서 작은 것으로, 물질할 때 배에 차고 작업했던 것을 말한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전복이나 소라를 채취해서 손에 다 월 수 없을 때 임시로 배에 찬 ‘조망시리’에 넣었다가 물 위로 올라 ‘테왁’에 옮겨 넣었다.

“요거는 조망시리, 조망시리라고 요거는 요런 뱃데기에 창. 영 혜영 물 밑에 내려가근에 소라 전복. 나도 옛날에는 이거 이거 물질, 배로 안 강, 못 다닌 지가 사 년 오 년째. 영 혜영 물 밑에 다니당 이제 소라 ㅋ튼 거 잡앙. 물 안에서 이거 영 잡으명 이레 놓고 다니단 전복 봐지면은 전복 탁 텅 이레 놓고 혜영 올라오는 거. 하나 잡앙 이레 놓고 또 다니단 하나 봐지민 여기 담아 놓고 또 봐지민 경혜영 줋어 놓단 보민 이만큼.”³⁶⁾

35) 가파리 박영복 씨 구술.

36)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요거는 ‘조망시리’, ‘조망시리’라고 요거는 요런 배에 차서. 이렇게 해서 물 밑에 내려가서 소라 전복. 나도 옛날에는 이거 이거 물질, 배로 안 가서, 못 다닌 지가 사년 오년째. 이렇게 해서 물 밑에 다니다가 이제 소라 같은 거 잡아서. 물 안에서 이거 이렇게 잡으면서 이리 넣고 다니다가 전복 보이면 전복 턱 따서 이리 넣고 해서 올라오는 거. 하나 잡아서 이리 넣고 또 다니다가 하나 보이면 여기 담아 넣고 또 보이면 그래서 주워 넣다가 보면 이만큼.)



<사진 34> 김병화 씨 소장 ‘조망シリ’



<사진 35> 김병화 씨가 ‘조망シリ’를 찬 모습

<사진 34>는 가파리 김병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조망シリ’다. ‘망シリ’와 같이 ‘어음’ 둘레로 그물이 둘러져 있는데 ‘어음’ 안쪽은 그물 없이 뚫려 있다. 이 안쪽이 배 위로 오게 하여 가릴 수 있게 한다. <사진 35>은 김 씨가 ‘조망シリ’를 찬 모습이다. 이 작은 ‘망シリ’를 가파리 강순화 씨는 ‘조락’이라고 하였다.

“조락도 잇지게. 배에 차는 것도 잇고. 배에 차는 거 나도 잇지게. 배에 차는 거 영 배에 창.”³⁷⁾

(조락도 있지. 배에 차는 것도 있고. 배에 차는 거 나도 있어. 배에 차는 거 이렇게 배에 차서.)

<사진 36>은 강순화 씨가 ‘조락’을 허리에 차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36> 강순화 씨가 ‘조락’을 차고 있는 모습

37)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4) 닷돌

‘닷돌’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테왁’이 파도에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돌이다. ‘닷’은 표준어의 ‘닻’에 대응하는 말이다.

“테왁 끌어가지 못하게 이거는. 가파돈 물이 위낙 물발이 쎈 디니까. 이젠 이런 거 해도 옛날은 돌로, 돌에 구멍 뚫랑.”³⁸⁾

(‘테왁’ 끌어가지 못하게 이거는. 가파도는 물이 위낙 물발이 쎈 테니까. 이젠 이런 거 해도 옛날은 돌로, 돌에 구멍 뚫어서.)

“또 닷돌도 잇고. 닷돌 허영이 옛날엔 돌로 헤세. 닷돌로 허민이 물, 물 썬다 이디. 물 씨민 영 허민 질질질질 끊으민 전복 이디 셔도 ‘전복아 훗날랑 보게이.’ 영허영 그거이 전복 베리멍 그냥 가 불어. 이젠 닷가지 험세. 영현 닷가지. 딱 허민이 전복 본 전복 내 불지 안허여. 다 터. 닷가진 쪼로 만들엉 나온 거. 그거 돌에 걸령 영 허민이 그것도 물 셀 땐 너무 질게 허민 큰일 나. 막 물속더레 막 들어가. 막 들어가. 사름이 죽을 정도라. 게민 나가 물속에 들어강 나 숨만이 헤영 티민 올라와 가민 테왁이 저만이 가 불어. 물 썬다. 물 썬다. 이딘 저 큰물디 닮지 안허영 물 썬다. 닷돌 조그만한 거 안뒈여. 닷돌 잊어 저디. 나 만딱 헤여난 거. 이만씩 현 거. 게도 질질질질 끊어.”³⁹⁾

(또 닷돌도 있고. 닷돌 해서 옛날엔 돌로 했어. 닷돌로 하면 물, 물 세, 여기. 물 세면 이렇게 하면 질질질질 끌면 전복 여기 있어도 ‘전복아 훗날에 보자.’ 이래서 그거 전복 보면서 그냥 가 버려. 이젠 닷가지 하고 있어. 이런 닷가지. 딱 하면 전복 본 전복 내 버리지 않아. 다 캐. 닷가지 쇠로 만들어서 나온 거. 그거 돌에 걸려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물 셀 땐 너무 길게 하면 큰일 나. 마구 물속으로 마구 들어가. 마구 들어가. 사람이 죽을 정도야. 그럼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 숨만큼 해서 캐면 올라와 가면 ‘테왁’이 저만큼 가 버려. 물 세. 물 세. 여긴 저 ‘큰물’ 같지 않아서 물 세. 닷돌 조그마한 거 안 돼. 닷돌 있어 저기. 내가 모두 했던 거. 이만큼 한 거. 그래도 질질질질 끌어.)

가파리 김병화 씨, 강순화 씨 구술에 의하면 가파도는 위낙 물살이 세서 잠녀가 물질을 할 때 테왁을 그대로 두면 테왁이 파도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돌에 구멍을 뚫어 줄로 테왁에 매달아 테왁이 끌려 내려가는 것을 막았다. 닷돌의 크기도 물살의 세기와 비례해 큰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혹 큰 닷돌을 사용한다고 해도 물살에 닷돌이 끌리기도 했다.

38)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39)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코돌 그물 물속에 들어가라고 그물 가라앉히는 거. 작은 거는 해녀, 해녀 허는 돌. 건 닻돌.”⁴⁰⁾

(‘코돌’ 그물 물속에 들어가라고 그물 가라앉히는 거. 작은 거는 해녀, 해녀 하는 돌. 건 닻돌.)

“둘렁박에, 테왁에 돌아메영 물길이 막 췌 가거든. 췌 가면 막 아래 들어강 불리지 말게 헨에. 줄 무경 멧 발 돌아메고. 영 무경 노민 영 알에 걸릴 수도 싯고. 나 헌 때 헤난 거 닻돌. 이거 그자 바당에 신 거 봉간 허고 이제는 닻가지 혜영 지금은. 닻가지 이만씩 헌 거. 이거 고망이 이장이 뜰라 젖주.”⁴¹⁾

(두레박에, ‘테왁’에 달아매서 물길이 아주 세 가거든. 세 가면 아주 아래 들어가서 불리지 말게 해서. 줄 묶어서 몇 발 달아매고. 이렇게 묶어서 놓으면 바위 아래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할 때 했던 거 닻돌. 이거 그저 바다에 있는 거 주워서 하고 이제 닻가지 해서 지금은. 닻가지 이만씩 한 거. 이거 구멍 이장이 뚫어 줬지.)



〈사진 37〉 조순희 씨 소장 ‘닻돌’



〈사진 38〉 조순희 씨 소장 ‘닻돌’



〈사진 39〉 조경순 씨 소장 ‘닻돌’



〈사진 40〉 조경순 씨 소장 ‘닻돌’

〈사진 37〉과 〈사진 38〉은 가파리 조순희 씨(1947년생)가 사용했던 ‘닻돌’이다. 조순희 씨는 그물을 가라앉게 하는 것을 ‘코돌’, 해녀들이 사용했던 것을 ‘닻돌’이라고 하였다. 〈사진 39〉와 〈사진 40〉은 가파리 조경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닻돌’이다. 전에는 바닷가의 돌을 주워서 구멍을 뚫어 닻돌로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닻가지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거 돌, 닻돌. 물질할 때 물질할 때 테왁에, 테왁에 해녀덜 하나씩 담양 가는 거. 요건 줄이 있는 거. 줄로 연결해 이거. 여기서 연결행 흠치 가는 거.”⁴²⁾

(이거 돌, 닻돌. 물질할 때 물질할 때 테왁에, 테왁에 해녀들 하나씩 담아서 가는 거. 요건 줄이 있는 거. 줄로 연결해 이거. 여기서 연결해서 한꺼번에 가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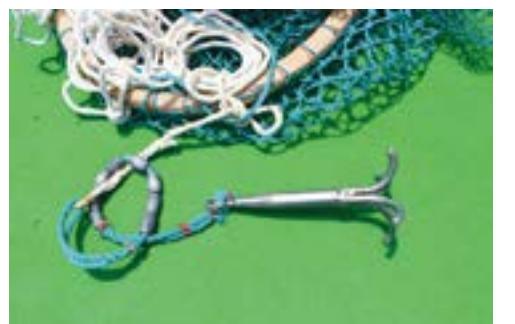
“이 줄에 돌 돌아메는 거주. 테왁에 이 줄은 무꺼정. 계난 요거 요거 이디 미는 거고. 예전엔 이거 헷지만 이젠 이거 안 써. 닻가지, 닻가지로 허는 거. 그거 쓴 지가 흔십 년 정도. 돌 뜻어 왕 이거 뜰루는 거는 뭐 있진 안하여?”⁴³⁾

(이 줄에 돌 달아매는 거지. 테왁에 이 줄은 묶여서. 그러니까 요거 요거 여기 매는 거고. 예전에는 이거 했지만 이젠 이거 안 써. 닻가지, 닻가지로 하는 거. 그거 쓴 지가 한십 년 정도. 돌 주워 와서 이거 뚫는 거는 뭐 있지 않아?)

가파리 박영복 씨의 구술에 따르면 닻돌에서 닻가지로 바꿔 사용한 지는 약 십 년 정도가 흘렀다고 한다.



〈사진 41〉 백순자 씨 소장 ‘닻돌’



〈사진 42〉 김병화 씨 소장 ‘닻가지’

〈사진 41〉은 가파리 백순자 씨의 ‘테왁’에 달려 있는 ‘닻돌’이고, 〈사진 42〉는 가파

40) 가파리 조순희 씨 구술.

41) 가파리 조경순 씨 구술.

42) 가파리 백순자 씨 구술.

43) 가파리 박영복 씨 구술.

리 김병화 씨 ‘태왁’의 ‘닻가지’다.

5.3. 채취 도구

(1) 골챙이

‘골챙이’는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캘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인 ‘호미’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대정읍 지역에서는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 역시 ‘골챙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골챙인 바다에 물 싸면은 바다에 아정 가서 뭐 보말도 잡을 때 뭐 돌 일리고. 바당에 물 내리면 돌 일르명 잡는 거.”⁴⁴⁾

(‘골챙이’는 바다에 물 써면 바다에 가지고 가서 뭐 고동도 잡을 때 뭐 돌 일으키고. 바다에 물 내리면 돌 일으켜서 잡는 거.)

“이 골챙이 가정 물에 들어가서 소라도 따고 오분제기도 따고 뒷이라고 따져. 생복은 또 비창이로 뜨는 거고. (골챙이 길이가 트나우다예?) 바다에 간 때는 요거는 엉 알이 깊은 디 허고 요거는 고망이 있는 디 허는 거. 또 이거는 빌레에 엉 빌레에, 고망 있는 거 이걸로 파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건 망사리에 담고 비창은 허리에 차고 생복 봐지 민 그냥 트고.”⁴⁵⁾

(이 ‘골챙이’ 가져서 물에 들어가서 소라도 따고 오분자기도 따고 뭐라고 따져. 생복은 또 비창으로 뜨는 거고. (‘골챙이’ 길이가 다르네요?) 바다에 갔을 때는 요거는 바위 아래 깊은 데 하고 요거는 구멍이 있는 데 하는 거. 또 이거는 ‘빌레’에 낭떠러지 바위 ‘빌레’에, 구멍 있는 거 이걸로 파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건 ‘망사리’에 담고 비창은 허리에 차고 생복 보이면 그냥 따고.)



〈사진 43〉 박순자 씨 소장 ‘골챙이’



〈사진 44〉 조경순 씨 소장 ‘골챙이’

〈사진 43〉은 가파리 박영복 씨가 사용하고 있는 ‘골챙이’다. 바닷가에서 돌 밑에 들어 있는 성게 따위를 잡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손잡이가 빠지지 않도록 철사로 단단히 죄었다. 〈사진 44〉는 가파리 조경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골챙이’다. ‘골챙이’ 머리의 길이가 다른데 긴 것이 바닷물 속에 들었을 때 돌 틈에 있는 해산물을 캤 때 사용한다고 한다.

‘골챙이’는 구술자에 따라 달리 불리기도 하였다. 가파리 김병화 씨는 ‘꼴챙이’, 가파리 강순화 씨는 ‘꼴게기’라고 하였다.

“이거 팔챙이. 이거는 팔챙이 이런 디로 나오지도 못하게 어디 잘못햇당 찔름이라도 허카 부덴 이런 걸 만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허는 거.”⁴⁶⁾

(이거 ‘꼴챙이’. 이거는 ‘꼴챙이’ 이런 데로 나오지도 못하게 어디 잘못했다가 찌르기라도 할까 봐 이런 걸 만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하는 거.)

“골게긴 지픈 바당에 가져가민 궂어. 골게기 가정가민 어디 테왁이나 꽂아됭 가주. 숨빌 때마다이. 지픈 바당에 골게기 못 앗앙 간다계. 우리 골게기 안 앗昂 뎅것저게. 전복헐 때. 경허난 골게기 가정 뎅기는 사름은 요만헌 디 숨병 영 영 허는. 우린 닷돌, 이닷이 열 발썩 행 뎅겨세계. 닷돌 열 발썩 행 질게 허민 한 스무 발 탁 논다계. 놓민 겉으명 겉으명 영 영 사령 겉으명 경허영 물질허여.”⁴⁷⁾

(호미는 깊은 바다에 가져가면 궂어. 호미 가져가면 어디 ‘태왁’이나 꽂아두고 가지.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깊은 바다에 호미 못 가지고 간다. 우린 호미 안 가지고 다

44) 가파리 박영복 씨 구술.

45) 가파리 조경순 씨 구술.

46) 가파리 김병화 씨 구술.

47)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녔었어. 전복할 때. 그러니까 호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요만한 데 물에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우린 닷돌, 이 닷이 열 발씩 해서 당겼어. 닷돌 열 발씩 해서 길게 하면 한 스무 발 턱 놓아. 놓으면 걷으면서 걷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려서 걷으면서 그렇게 물질해.)

가파리 강순화 씨는 깊은 물에 들어갈 때는 '꼴게기'를 '테왁' 꽂아둔 채 물속에 들어갈 때는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했다.



〈사진 45〉 김병화 씨 소장 '꼴게이'

〈사진 45〉는 김병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꼴게이'이다. 김 씨는 '꼴게이'에 찔리지 않도록 가는 고무파이프를 잘라 '꼴게이' 뚜껑으로 이용하고 있다.

"성게 잡는 거. 이거 다 구덕에 담아 가주. 갈 때 구덕에 담아 강 이제 테왁에 다 담는 거지. 이건(긴 거) 성게 잡는 거주, 이건. 저건 보말 잡는 거고."⁴⁸⁾

(성게 잡는 거. 이거 다 구덕에 담아서 가지. 갈 때 구덕에 담아서 가서 이제 '테왁'에 다 담는 거지. 이건(긴 거) 성게 잡는 거지, 이건. 저건 보말 잡는 거고.)

꼴게이도 길이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 가파리 백순자 씨가 사용했던 '꼴게이'로 길이가 긴 것은 성게를 잡을 때 사용했던 것이고, 사진 아래쪽의 '꼴게이'는 고등을 채취할 때 사용했다.

〈사진 46〉은 백순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용도가 다른 '꼴게이' 두 개의 모습이다.



48) 가파리 백순자 씨 구슬.

(2) 비창

'비창'은 잠녀들이 전복을 끌 때 쓰는 도구다. 약 30센티미터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는데 자루의 끝을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끈이나 고무줄 따위를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전복 트는 거 비창. 이거 영 헨 친거리 둘았는디 이거 이젠 클런. 영 영 이디 차주계, 이 등에. 영 행 차근에. 영 혜영 문드리지 않게 요례 영 혜영. 요새도 행 가주계. 경허당 전복 봐지민 어령허여. 저 딴 사름신디 강 이 비창 빌어 와 가민 불써 이거 일러분 건디. 어디 신지 몰랑."⁴⁹⁾

(전복 때는 거 '비창'. 이거 이렇게 해서 끈 달았는데 이거 이젠 풀었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차지, 이 등에. 이렇게 해서 차서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요리 이렇게 해서. 요새도 해서 가지. 그러다가 전복 보이면 어떡해. 저 다른 사람에서 가서 이 '비창' 빌려 와 가면 별써 이거 잃어버릴 건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거 전복 트는 거. 우리 산 허단 거 씨 가난 경 뭉글아 벤지. 새 거가 아니주계. 꺼꺼지지 안허영 다여 불언. 계난 이건 혼나 시민 일러불지 안허민 계속 쓰주."⁵⁰⁾

(이거 전복 뜨는 거. 우리 사서 하다가 씨 가니까 그렇게 많아 버렸지. 새 거가 아니지. 꺼꺼지지 않고 많아 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쓰지.)



〈사진 47〉 김병화 씨 소장 '비창'



〈사진 48〉 백순자 씨 소장 '비창'

〈사진 47〉은 김병화 씨가 전복을 끌 때 사용했던 것으로 자루 끝에 끈을 달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풀어 둔 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48〉은 백순자 씨가 사용했

49) 가파리 김병화 씨 구슬.

50) 가파리 백순자 씨 구슬.

던 ‘비창’이다. 백 씨는 ‘비창’은 한 번 구입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비창 창. 손에 안 가정 뎅긴다. 창 뎅기단 확 빵 확 영 허주. 손에 안 아정 뎅긴다. 옛날 저 큰물디 사름덜은 손에 감양 뎅기는디 이던 경 안 헌다. 빈손, 빈손으로. 옛날은 장갑 찌사? 이추룩 빈손. 이젠 장갑 찌고 아이고.”⁵¹⁾

(‘비창’ 차서. 손에 안 가지고 다녀. 차서 다니다가 확 빼서 확 이렇게 하지. 손에 안 가지고 다닌다. 옛날 저 ‘큰물’에 사람들은 손에 감아서 다니는데 여긴 그렇게 안 해. 빈손, 빈손으로. 옛날은 장갑 껴니? 이처럼 빈손. 이젠 장갑 끼고 아이고.)

가파리 강순화 씨는 물속에 들어갈 때 ‘비창’은 허리에 찬 채 손에 쥐지 않고 들어간다고 하였다. 또 강 씨는 제주 본섬 사람들은 ‘비창’에 연결한 고리를 손목에 끼워 비창을 손에 들고 헤엄쳐 물에 들어가는데 가파도에서는 빈손으로 들어가서 전복이 보이면 허리에 끼워둔 ‘비창’을 빼서 작업한다고 이야기 했다.

(3) 소살

‘소살’은 표준어의 ‘작살’에 대응하는 말로, 물속에서 물고기를 쏘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소살’도 끝의 뾰족한 쇠가 하나인 것도 있고 두세 개인 것도 있는데 가파리에서는 세 개인 ‘소살’을 이용했다. 가파리 강순화 씨는 이를 ‘시 발 소살’이라고 한다.

“소살도 허는 사름은 헌다. 경해도 우린 원체 지픈 바당 뎅기고 배로 헤 뎅겨부난이 소살 허민 어지러왕 못 허여. 계난 그건 영 덕으로이 야픈 디 뎅기는 사름덜 허주이. 우린 지픈 바당 뎅겨부난 그런 거 안 헌다. 이던 시 발 소살. 시 발 소살. 계민 소살 앗 으민 저꽃디 사름, “야, 어지럽다 저리 가라이.” 소살로 고무줄로 쭉 허민 누게 쏘우주게. 계민 “에이구, 저 혼 펜더레 강 허라.” 경허멍. 계난 우린 안 가정 당겼자.”⁵²⁾

(작살도 하는 사람은 해. 그래도 우린 원체 깊은 바다에 다니고 배로 해서 다니니까 작살 하면 어지러워서 못 해.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바위로 얇은 데 다니는 사람들 하지. 우린 깊은 바다에 다니니까 그런 거 안 해. 여긴 세 발 작살. 세 발 작살. 그럼 작살 가지면 저쪽의 사람, “야, 어지럽다 저리 가라.” 소살로 고무줄로 쭉 하면 누구 쏘지. 그럼 “아이고, 저 한 쪽으로 가서 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린 안 가지고 다녔어.)

51)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52)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5.4. 그물류

(1) 그물

‘그물’은 노끈이나 실, 쇠줄 따위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얹은 물건을 말한다. 그물을 만드는 재료도 시대에 따라 변해 왔는데 나일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면화 실을 이용했었다. 현재는 대부분 나일론실을 이용하고 있다.

“옛날에는 멘세, 멘세 그물이었지. 멘세는 이 나이론 그물이 아니고 저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돼나. 면, 멘네로 실 뽑은 거 그런 걸로 했었지.”⁵³⁾

(옛날에는 ‘멘세’, ‘멘세’ 그물이었지. ‘멘세’는 이 나일론 그물이 아니고 저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면, 면화로 실 뽑은 거 그런 걸로 했었지.)

가파리 강재홍 씨(1948년생)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 그물을 짤 때는 면화로 실을 뽑은 ‘멘세’로 그물을 깠다고 했다.

“벵에돔 갓돔 다금바리 이것덜이, 일 키로 이상 것덜이 잡히는 거니까 요기서 삼중망 옛날에는 삼중망이었잖아요. 요것에다가 또 크게끄름 해 가지고 양쪽으로 붙여서 삼중망. 삼중망은 고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까지 잡히는 거니까. 지금은 삼중망은 안 하니까 요것만 하니까. 이거는 작업은 이제 오늘 저녁에 나가야 돼지.”⁵⁴⁾

(벵에돔 감성돔 다금바리 이것들이, 일 킬로그램 이상 것들이 잡히는 거니까 요기서 삼중망, 옛날에는 삼중망이었잖아요. 요것에다가 또 크게끔 해서 양쪽으로 붙여서 삼중망. 삼중망은 고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까지 잡히는 거니까. 지금은 삼중망은 안 하니까 요것만 하니까. 이거는 작업은 이제 오늘 저녁에 나가야 되지.)

53) 가파리 강재홍 씨 구술.

54) 가파리 강재홍 씨 구술.



〈사진 49〉 그물 손질하는 '바늘대'



〈사진 50〉 강재홍 씨가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



〈사진 51〉 강재홍 씨가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



〈사진 52〉 손질된 그물

〈사진 49〉에서 〈사진 52〉까지는 가파리 강재홍 씨가 바다 조업을 나가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 바늘대

'바늘대'는 둋자리나 가마니 따위를 칠 때에, 씨를 한쪽 끝에 걸어서 날 속으로 들어 지르는 막대기를 말한다.

"이거 바늘대엔 허는데 옷에 허는 바늘이 아니고 그물 죽는 바늘이지."⁵⁵⁾

(이거 바늘대라고 하는데 옷에 하는 바늘이 아니고 그물 결는 바늘이지.)

55) 가파리 강재홍 씨 구술.



〈사진 53〉 강재홍 씨 소장 '바늘대'



〈사진 54〉 강재홍 씨 소장 '바늘대'

〈사진 53〉과 〈사진 54〉는 가파리 강재홍 씨가 고기잡이를 할 때 사용할 그물을 짤 때 쓰는 '바늘대'다. '바늘대'는 나일론 줄이 감겨 있는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다.

"이런 거 무끌 때 사람 심이 약해노난 무끄지 못허난 무끌 때 사용하는 도구. 계난 이걸 끼우지 못허거든. 힘이 엊어노난.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로 영 허영 허기 좋게. 배에 헐 때 영 행 연결헐 때 이거 사용하는 거."⁵⁶⁾

(이런 거 묶을 때 사람 힘이 약하니까 묶지 못하니까 묶을 때 사용하는 도구. 그러니까 이걸 끼우지 못하거든. 힘이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렇게 해서 하기 좋게. 배에 할 때 이렇게 해서 연결할 때 이거 사용하는 거.)

가파리 박영복 씨의 구술에 따르면 밧줄용 '바늘대'가 따로 있는데 밧줄을 묶으려고 할 때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약해 밧줄을 잘 묶지 못하므로 밧줄용 '바늘대'를 사용해서 '밧줄'을 단단히 묶기도 하고, 또 밧줄을 잇기도 한다고 하였다.



〈사진 55〉 박영복 씨 소장 '바늘대'



〈사진 56〉 박영복 씨 소장 '밧줄'

56) 가파리 박영복 씨 구술.



〈사진 57〉 박영복 씨가 '바늘대'를 이용하여 '밧줄'을 묶는 모습



〈사진 58〉 박영복 씨가 '바늘대'를 이용하여 '밧줄'을 묶는 모습

〈사진 55〉는 가파리 박영복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밧줄용 '바늘대'다. 박 씨는 배에서 사용하는 밧줄 따위를 묶을 때 이 바늘대를 이용했다고 한다. 〈사진 57〉과 〈사진58〉은 박 씨가 바늘대를 이용해서 밧줄을 잇는 모습이다.

5.5. 기타 도구

(1) 질구덕

'질구덕'은 등에 짐을 져 나를 때 쓰는 큰 바구니를 말한다. '질구덕'은 잠녀들이 물질을 갈 때 테왁 등의 도구를 넣고 지고 다니는 도구로도 쓰였다.

"테왁 어디게 그때 옛날엔 질구덕 행 지영 뎅겨. 전 뎅기단 중간엔 콘테나로 정 뎅 견. 또 중간엔, 이젠 혼 오든 이른댓 나난 훨체어 나난 훨체어에 놓. 옛날 질구덕에, 옛 날에 질구덕 둘레 받치고 허영이 정이. 아이고, 질구덕으로 전복 하나씩 잡안 뎅겼저. 물에 들젠 허민 질구덕에 지들커 담곡 질구덕에. 그땐 불 출 때난이. 지들커 담곡 이제 첨 이제 영 쓰는 거 불 초민 쓰는 거. 이런 헌 거 쓰는 거."⁵⁷⁾

('테왁' 어디 그때 옛날엔 '질구덕'에 해서 지어서 다녀. 지고 다니다가 중간에 컨테 이너로 져서 다녔어. 또 중간엔, 이젠 한 여든, 이른댓 되니까 훨체어 나오니까 훨체어에 놔서. 옛날 '질구덕'에, 옛날에 '질구덕' '둘레' 받치고 해서 져서. 아이고, '질구덕'으로 전복 하나씩 잡아서 다녔어.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질구덕'에 멜감 담고 '질구덕'에. 그땐 불 쳤 때니까. 멜감 담고 이제 첨 이제 이렇게 쓰는 거 불 죄면 쓰는 거. 이런 헌 거 쓰는 거.)

57)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물질 가젠허민 구덕에 테왁이영 안경, 잠수복, 비창 담양 갈 거주. 골갱이영. 닷돌 폐는 줄은 테왁에 돌아지는 거. 저런 테왁에 돌아지는 거, 무꺼지는 거."⁵⁸⁾

(물질 가려고 하면 바구니에 '테왁'이랑 안경, 잠수복, '비창' 담아서 갈 거지. 호미랑. 닷돌 때는 줄은 '테왁'에 달리는 거. 저건 '테왁'에 달리는 거, 묶어지는 거.)

"큰 거 질구덕, 족은 건 승키구덕 또 족은 건 조례기."⁵⁹⁾

(큰 거 '질구덕', 작은 건 '승키구덕' 또 작은 건 '조례기'.)

"조례기는이, 승키구덕이 하영 써이. 조례기는 무슨 보말 잡으려 갈 때 뭐 군번 트레 갈 때 그런 거나 쓰주이. 승키구덕은 그자 내내. 갯것이 갈 때 써진다. 그걸로 보말도 잡고 구챙기도 잡고 여러 가지. 바다에 가면 해 오는 거지."⁶⁰⁾

('조례기'는, '승키구덕'이 많이 써. '조례기'는 무슨 고동 잡으려 갈 때 뭐 군부 캐러 갈 때 그런 거나 쓰지. '승키구덕'은 그저 내내. 갯가 갈 때 쓸 수 있어. 그걸로 고동도 잡고 소라도 잡고 여러 가지. 바다에 가면 해 오는 거지.)

바구니의 크기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가파리 강순화 씨는 큰 것을 '질구덕', 중간 크기의 것을 '승키구덕', 작은 것을 '조례기'라고 했다. 강 씨는 바구니 중에서도 '승키구덕'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한다. '조례기'는 바다에 고동이나 소라 등의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59〉 강순화 씨 소장 '조례기'



〈사진 60〉 강순화 씨 소장 '조례기'

58) 가파리 백순자 씨 구술.

59)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60)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사진 61〉 김병화 씨 소장 '조례기'



〈사진 62〉 강순화 씨 소장 '사키구덕'

〈사진 59〉와 〈사진 60〉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조례기'이고, 〈사진 61〉은 가파리 김병화 씨의 '조례기'다. 김 씨는 넥타이를 '조례기'의 끈으로 달아서 사용하고 있다. 〈사진 62〉는 강순화 씨의 '상기구덕'이다. 구덕의 둘레를 나일론 줄로 뱡뱅 말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진 59〉와 〈사진 60〉의 '조례기'보다 확실히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 칼

'칼'은 물건을 베거나 썰거나 깎는 데 쓰는 도구로, 여기서는 해산물을 손질할 때 사용하는 '칼'을 말한다.

"그건이 귀살 깔 때 하는 칼. 귀살 깔 때 하는 칼. 귀살 집이 왕 다 깐다, 이디선. 갯가시서 아이 깐다. 다 집이 왕 지만썩. 팔 때는 어촌계 강."⁶¹⁾

(그건 성게 깔 때 하는 칼. 성게 깔 때 하는 칼. 성게 집에 와서 다 까, 여기선. 갯가에서 안 까. 다 집에 와서 자기만큼 씩. 팔 때는 어촌계 가서.)

〈사진 63〉은 가파리 강순화 씨가 성게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칼이다. 가파리에서 해녀들은 성게를 잡아오면 갯가에서 바로 까지 않고 각자가 집에 돌아와서 장만하는데, 칼로 성게를 잘라 그 안의 알을 꺼낸다고 한다.



〈사진 63〉 강순화 씨 소장 '칼'

61) 가파리 강순화 씨 구술.

6. 축산과 양봉 관련

소는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농가의 중요한 자산이었다.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고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소를 키워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대정읍 지역에서 만났던 제보자들 중에서 말을 키웠던 제보자는 보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소를 키웠던 경험이 있었다. 경운기 등의 농기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의 역할을 농기구가 대신하게 되자 농가에서 기르던 소들도 그 모습을 감췄다. 현재 소를 가둬 길렀던 외양간은 각종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변했지만, 소를 기르면서 썼던 도구들은 몇몇 제보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농가에서는 집집마다 돼지를 길렀었다. 돼지는 '통시' 또는 '돗통'이라 불리는 돼지우리에 살며 사람의 변이나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을 먹었다. 한편 돼지우리의 거름은 보리농사를 지을 때 이용하였고, 사람들은 경조사나 명절에 기르던 돼지를 도축하여 그 고기를 먹었다. 농가의 집들이 개조되면서 예전 '통시'는 거의 사라졌지만, 대정읍 지역 조사에서는 '통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정읍 조사에서는 양봉을 했던 제보자를 만나 '벌통', '소비', '연통', '꿀 빼는 통' 등과 같은 양봉 관련 도구도 조사할 수 있었다.

6.1. 소 기르기

6.1.1. 쉐막

‘쉐막’은 소를 가두어 기르는 곳으로, 표준어의 ‘외양간’에 대응하는 말이다.

“물은 안 질봐도 소는 여러 마리 키워낫수다. 혼 열 무리 이상. 여기 다 이런 안에 소 덜 메놔십주. 이런 디 다 메낫수다.”¹⁾

(말은 안 길러도 소는 여러 마리 키웠었습니다. 한 열 마리 이상. 여기 다 이런 안에 소들 매어 놓았지요. 이런 데 다 매었었습니다.)

“이거는 소 길러난 데. 쉐막이라고. 난 쉐 혼 무리 길르고 자식덜은 한 삼십 마리 허단 이젠 자식덜도 쉐 풀아 불고 덤프트럭.”²⁾

(이거는 소 길렀던 데. 외양간이라고. 나 소 한 마리 기르고 자식들은 한 삼십 마리 하다가 이젠 자식들도 소 팔아 버리고 덤프트럭.)

안성리 조이전 씨(1936년생)는 삼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마리의 소를 키웠었다고 한다. 소를 매었던 ‘쉐막’은 현재 벌통과 벌꿀을 짜는 통 등 양봉 도구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신평리 고일화 씨(1938년생)는 ‘쉐막’을 창고로 이용하고 있었다. 자신은 밭가는 용으로 쓸 소 한 마리만 키웠었지만 자식들은 소를 삼십 마리나 키웠었다고 한다.

“소는 일 년 질왕 다른 거 바꿀 거네. 웨냐하면 소가 경,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거세기 해서 막 오래 키웠었는데 그 후에는 한 번 허면 다음에 소 장수덜이 왕 솔 바꽈가. 짚은 소. 게서 바꾸면 그 소를 돈 조금 받고 줘 뭉 또 다른 소 그렇게. 사름 미만, 세 설 보통 세 설에 사 왕 다음 해에 바로 바꾸명 일 년베끼 안 써요. 여기서 돈이 혼 삼사천 원 받는데.”³⁾

(소는 일 년 길러서 다른 거 바꿀 거요. 왜냐하면 소가 그렇게,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거시기 해서 아주 오래 키웠었는데 그 후에는 한 번 하면 다음에 소 장수들이 와서 소를 바꽈가. 짚은 소. 그래서 바꾸면 그 소를 돈 조금 받고 줘 두고 또 다른 소 그렇게. 사름 미만, 세 살 보통 세 살에 사 와서 다음 해에 바로 바꾸면서 일 년 밖에

1)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2) 신평리 고일화 씨 구술.

3)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안 써요. 여기서 돈이 한 삼사천 원 받는데.)

영락리 송한진 씨(1950년생)는 자신이 어렸을 때는 소를 오랫동안 키웠지만 그 후에는 소를 오래 키우지 않았다고 한다. 소를 일 년 정도 키우면 팔고 다른 어린 소를 바꿔서 다시 얼마간 키워서 팔았다고 한다.

(1) 쉐 메는 돌

‘쉐 메는 돌’은 소를 외양간 등에 가두어 둘 때 쇠고삐를 묶어 두는 돌을 말한다. 농가에서는 소를 여름에는 들판에 내어 놓고 기르다가도 겨울이 되면 외양간에 가두어 기른다. 소를 외양간에 가두어 둘 때는 이러한 돌에 묶기도 하고, 외양간에 소를 매는 앞쪽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 지르는 나무를 설치하여 묶어 두기도 한다.

“쉐석 헤근에게 낭을 영 멘들아근에도 무깻고 그 다음에 돌에 구멍, 굽기 뚫렁 거기다가도 무깻고.”⁴⁾

(쇠고삐 해서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묶었고 그 다음에 돌에 구멍, 구멍 뚫어서 거기에도 묶었고.)

신평리 고원명(1934년생) 씨는 쇠고삐를 나무에 묶기도 했지만 돌에 구멍을 뚫어 묶어 두기도 했다고 하였다.



〈사진 1〉 임영배 씨 소장 ‘쉐 메는 돌’

〈사진 1〉은 안성리 임영배 씨(195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쉐 메는 돌’이다. 구멍 난 부분에 쇠고삐를 넣어 묶었다.

(2) 쉐 메는 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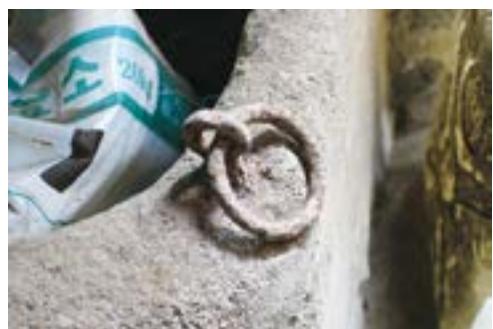
‘쉐 메는 고리’는 소를 묶어 두는 도구로, 쇠로 고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를 대정읍 제보자들은 ‘쉐 메는 고리’라고 하였다. 이것은 외양간의 먹이통에 달려

4) 신평리 고원명 씨 구술.

있기도 하고 먹이통 근처 벽에 걸려 있기도 했다.

“우리 쉐 오라 머리 질뤼낫주. 저 하르방 앗앙 일허는 디도 메고. 하영 질률 때 네 머리 주게. 술 쉐, 큰 쉐 네 머리. 부렝이 술지는 거 질른 거. 육지 가는 거. 건 쉐 메는 거, 쉐 메는 고리.”⁵⁾

(우리 소 여러 마리 길렀었지. 저 할아버지 앉아서 일하는 데도 매고. 많이 기를 때 네 마리지. 살 소, 큰 소 네 마리. 부룩소 살지는 거 기른 거. 육지 가는 거. 건 소 매는 거, 소 매는 고리.)



〈사진 2〉 허세안 씨 댁 '쉐막'의 '쉐 메는 고리'



〈사진 3〉 허세안 씨 댁 '쉐막'의 '쉐 메는 고리'

〈사진 2〉와 〈사진 3〉은 상모1리 허세안 씨(1931년생) 댁 '쉐막'의 '쉐 메는 고리'다. 허 씨는 여러 마리의 소를 두 곳의 외양간에서 길렀다. 큰 외양간은 현재 창고로 허 씨가 바구니나 짚신 등의 장식품을 만드는 작업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작은 외양간에는 아직까지도 〈사진 2〉와 〈사진 3〉과 같이 '쉐 메는 고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진 4〉는 영락리 홍옥춘 씨(1932년생) 댁 외양간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쉐 메는 고리'다. 외양간 안의 거름을 밖으로 내거나 외양간을 정리할 때 등 소를 외양간에서 밖에 끌어내어 매어 둘 때 사용했었다.



〈사진 4〉 홍옥춘 씨 댁의 '쉐 메는 고리'

5) 상모1리 이창선 씨 구술.

(3) 쉐도고리

'쉐도고리'는 소에게 먹이를 주었던 통이다. 구좌 지역에서는 이를 '구시통, 먹이통'이라고 하였는데, 대정읍 지역에서는 '쉐도고리' 혹은 그냥 '도고리'라고 하였다. '도고리'는 돌 따위의 가운데 부분을 파서 큰 바가지 같이 만든 것을 말한다.

“요건 물 받는 거여, 물 받는 거. 물 받양 소덜 물 메이고. 도고리, 도고리. 어느 집 이 건진 모르큰게. 이거 막 모아 눈 거난. 경해도 이 마을 거라.”⁶⁾

(요건 물 받는 거야, 물 받는 거. 물 받아서 소들 물 먹이고. '도고리', '도고리'. 어느 집의 건지는 모르겠어. 이거 마구 모아 놓은 거니까. 그래도 이 마을 거야.)



〈사진 5〉 가파초등학교 운동장에 놓여 있는 '도고리'



〈사진 6〉 가파초등학교 운동장에 놓여 있는 '도고리'와 '?'례'

〈사진 5〉와 〈사진 6〉은 가파초등학교 운동장에 놓여 있는 '도고리'들이다. 가파리 박영복 씨(1936년생)에 의하면 〈사진 5〉의 '도고리'는 소에게 먹이나 물을 먹일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사진 6〉의 큰 '도고리'는 소에게 물 먹일 때, 작은 것은 돼지에게 먹이를 줄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각각 어느 집에서 사용했던 것을 가져다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모두 가파리 마을 안에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쉐 밥통, 밥통을 여기다 여기다 헷는데 이거 다 치와 불엇주게. 여기다가 밥통이 있고 여기는 통로가 잇엇고. 쉐 머리는 이디쪽으로 향하고. 쉐 밥통 그거 도고리라, 쉐 도고리. 세멘으로 멘들어 가지고.”⁷⁾

(소 밥통, 밥통을 여기에다 여기에다 햇는데 이거 다 치워 버렸지. 여기에다가 밥통

6) 가파리 박영복 씨 구술.

7) 상모1리 권홍일 씨 구술.

이 있고 여기는 통로가 있었고. 소 머리는 이쪽으로 향하고. 소 밥통 그거 ‘도고리’야, ‘쉐도고리’. 시멘트로 만들어서.)

예전에는 <사진 5>와 같이 돌의 가운데를 파내어서 그릇처럼 만들어 먹이통으로 이용했지만 근래에 와서는 외양간 안에 콘크리트를 쌓아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먹이통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렇게 시멘트로 만든 먹이통도 상모1리 권홍일 씨(1939년생)는 ‘쉐도고리’라고 했다.



<사진 7> 허세안 씨 댁 ‘쉐막’의 ‘쉐도고리’



<사진 8> 허세안 씨 댁 ‘쉐막’의 ‘쉐도고리’

<사진 7>과 <사진 8>은 상모1리 허세안 씨 댁 ‘쉐막’에 설치된 ‘쉐도고리’다. 지금은 농기구나 비료 등을 넣어두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6.1.2. 고삐류

(1) 쉐석

‘쉐석’은 소의 굴레에 매어 끄는 줄로, 표준어의 ‘쇠고삐’에 대응한다.

“쉐 뿔에, 뿔에 혜영 쉐석 허는 거. 이런 것사 혼전해주.”⁸⁾

(소 뿔에, 뿔에 해서 쇠고삐 하는 거. 이런 거야 혼했지.

8)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사진 9> 허세안 씨 소장 ‘쉐석’



<사진 10> 허세안 씨 소장 ‘쉐석’



<사진 11> 김규화 씨 소장 ‘쉐석’

<사진 9>과 <사진 10>은 상모1리 허세안 씨 댁에서 사용했던 ‘쉐석’이고, <사진 11>은 신도1리 김규화 씨(193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쉐석’이다. 김 씨는 ‘쉐석’은 농가에 흔하게 있던 물건이라고 하였다.

(2) 쉐줄

‘쉐줄’은 들판에 가서 소나 말에게 먹이를 먹일 때 고삐에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소를 맬 때 사용하면 ‘쉐줄’, 말을 맬 때 사용하면 ‘물줄’이라고 한다. 소나 말을 들판에 풀어 둘 때 쇠고삐를 ‘쉐줄’에 연결시켜 말뚝으로 박아두어 도망가지 않고 일정한 공간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한다.

“드르에 강 쉐 멕이젠 허민 무끄는 거 그거 쉐줄이지. 게고 쉐줄 멜 때 그 말뚝이라고 있어. 요만한 거. 것도 나무로 멘들아근에 끈에다 동그락히게 굽기 멘들아 가지고 말뚝을 영 끼와 가지고 박아 가지고 뺏다근에 다음에 또 쓰고. 것도 주로 나무로 만들었었지, 저 쉐로 빠이프로 만든 건 얼마 안 써 봤어.”⁹⁾

(들에 가서 소 먹이려고 하면 묶는 거 그거 ‘쉐줄’이지. 그리고 ‘쉐줄’ 맬 때 그 말뚝이라고 있어. 요만한 거. 것도 나무로 만들어서 끈에다 동그랗게 구멍 만들어서 말뚝

9) 신평리 고원명 씨 구술.

을 이렇게 끼워서 박아서 뺏다가 다음에 또 쓰고. 것도 주로 나무로 만들었었지, 저 소로 파이프로 만든 건 얼마 안 써 봤어.)

신평리 고원명 씨(1934년생)의 구술에 의하면, 들에 가서 소를 먹일 때 묶어 두는 줄을 ‘쉐줄’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줄은 말뚝을 박아 묶어 두었는데, 소를 맬 때 사용했던 말뚝도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어서 사용했었고 쇠 파이프로 된 말뚝을 사용한 것은 얼마 안 됐다고 한다.

(3) 물톡

‘물톡’은 표준어의 ‘말뚝’에 대응하는 말로, 소나 말이 일정한 자리에서 풀을 뜯을 수 있게 줄 끝에 매달아 땅에 박아 고정시키는 도구다.

“여기는 쉘 끝 변쉐를 안 허고 개인으로 영 길루주게. 집이 하나가, 쉘 하나. 경현 어디 길에 같은 디 쉘 가근에 메영 하루종일 내부는 거 이거. 메영 놔둘 땐게, 낭에도 강 묶고 돌에도 강 묶고 또 무시거이 거 물톡이엔 허는 거. 그런 거 땅에 박앙 찔렁 내부는 거. 난 쉘 하나 질랏주. 밧 같고 허젠허민 하나민 뛰여, 하나. 두 개 필요 엇어. 암쉐 안 질꽈. 여기는 전부 부렝이. 한 집이 쉘 하나. 부렝이 헤여근에 불깡 경헤근에 한 뭐 십오 년 이상 질꽈. 한 스무 살 될 때까지. 그때꺼지 밧 같아. 송애기를 사단, 소로도 그냥 사 와. 딴 사람이 쉘 가정와근에 바꽈 가. 어린 쉘 가정왕 큰 쉘 바꽈 가주게. 우린 어린 때 나영 동갑난 쉘가 셔낫어. 나 열여덟 살에. 늙은 쉘도 같아져, 같아져. 암소가 아니고 이건 부렝이난에 충분 같아. 혼 세 집이 일을 나가 헷주. 밧 가는 거. 이모네 거 그냥 같아 줏주. 여긴 암웬 일절 없어.”¹⁰⁾

(여기는 소를 뭐 ‘변쉐’를 안 하고 개인으로 이렇게 기르지. 집에 하나가, 소 하나. 그래서 어디 길에 같은 데 소 가서 매어서 하루종일 내버리는 거 이거. 매어서 놔둘 때는 나무에도 가서 묶고 돌에도 가서 묶고 또 뭐 거 말뚝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땅에 박아서 찔러서 내버리는 거. 나 소 하나 길렀지. 밧 같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 돼, 하나. 두 개 필요 없어. 암소 안 길러, 여기는 전부 부룩소. 한 집에 소 하나. 부룩소 해서 불까서 그래서 한 뭐 십오 년 이상 길러. 한 스무 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밧 같아. 송아지를 사다가, 소로도 그냥 사 와. 딴 사람이 소 가져와서 바꽈 가. 어린 소 가져 와서 큰 소 바꽈 가지. 우린 어렸을 때 나랑 동갑 된 소가 있었어. 나랑 동갑인 소가 있었어. 내가 열여덟 살에. 늙은 소도 밧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암소가 아니고 이건 부룩소니까 충분히 같아. 한 세 집의 일을 내가 했지. 밧 가는 거. 이모네 거 그냥 같아 줏지. 여긴 암소는 일절 없어.)

10) 신도1리 김규화 씨 구술.

신도1리 김규화 씨에 따르면 소는 개인이 길렀으며 소를 매어 둘 수 있는 아무 장소에나 가서 하루 종일 내버려 두며 지내게 했다고 한다. 소를 매어 놓을 때는 나무, 돌, ‘말톡’ 등을 이용했다고 한다. 암소는 기르지 않았으며 보통 수소의 불알을 빌라내어 약 15년 이상을 키우며 밭을 가는데 소가 늙으면 다시 어린 소를 데리고 와서 큰 소를 바꾸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 12〉 김규화 씨 소장 ‘물톡’



〈사진 13〉 임영배 씨 소장 ‘물톡’

〈사진 12〉는 신도1리 김규화 씨가 소장하고 있는 ‘물톡’이고, 〈사진 13〉은 안성리 임영배 씨가 보관하고 있는 ‘물톡’이다.

“물톡이엔 현 거 말 혈 때 그거 영 줄 메와가지고 밭에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말톡이지 그거. 여름에도 그냥 여기서 키왓주. (목장에) 안 보내고. 목장 놀 때는 건 아주 옛날. 그때 저 목장 가근에 저, 여름에 강 놋다가 시월 이제 서느릉해지민 누리는 거라. 조밧 불려 나민 올려됭.”¹¹⁾

(말뚝이라고 하는 거 말 할 때 그거 이렇게 줄 매어서 밭에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말뚝이지 그거. 여름에도 그냥 여기서 키웠지. (목장에) 안 보내고. 목장에 놓을 때는 건 아주 옛날. 그때 저 목장 가서 저, 여름에 가서 놋다가 시월 이제 서늘해지면 내리는 거야. 조밧 밟고 나면 올려두고.)

상모1리 권홍일 씨의 구술에 의하면 상모1리에서는 아주 오래 전에는 조농사를 지을 때 조 파종을 하고 나면 목장에 올려서 방목했다가 선선해지면 다시 데리고 내려와 집에 가두어 두어 키웠었지만, 근래에는 여름에도 목장에 올리지 않고 줄을 매어 들판에 풀어 놓았다고 한다. 이때 ‘물톡’을 사용했었다.

11) 상모1리 권홍일 씨 구술.

6.1.3. 부속물

(1) 질메

‘질메’는 표준어로 ‘길마’에 대응하는 말로,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 등에 얹을 때 사용한다. 소에 사용했던 것을 ‘쉐질메’, 말에 사용했던 것을 ‘몰질메’라고 한다.

“이 질메도 우리 소 키울 때. 쓰지 안 하니까 자꾸 좀 먹어 불고.”¹²⁾
(이 길마도 우리 소 키울 때. 쓰지 않으니까 자꾸 좀 먹어 버리고.)

“계난 그 전에는 낭 질메 혜신디 그 후에 저걸 어디 강 구햇는지 몰르크라. 구루마 달구지 쉐 혈 때 쓰는 거. 쉐 등에 어프고 헨 짐 실령 다녔주. 옛날에 뭐 안 실르는 거 셔? 출도 실르고 보리도 실르고.”¹³⁾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무 길마 했는데 그 후에 저걸 어디 가서 구했는지 모르겠어. 수레 달구지 소 할 때 쓰는 거. 소 등에 엎고 해서 짐 실어서 다녔지. 옛날에 뭐 안 싣는 거 있어? 꿀도 싣고 보리도 싣고.)



〈사진 14〉 송한진 씨 소장 ‘질메’



〈사진 15〉 김영진 씨 소장 ‘질메’

〈사진 14〉는 영락리 송한진 씨의 창고 천장 아래에 보관하는 있는 ‘질메’다. 〈사진 15〉는 신도1리 김영진 씨(194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질메’다. 김 씨는 사진의 길마를 사용하기 전에 나무로 만든 길마(‘낭질메’)를 사용하다가 〈사진 15〉의 ‘질메’를 구해서 사용했다고 한다. 보통 수레를 끌거나 짐을 실을 때 소 등에 얹어서 사용했다고 한다.

12)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13) 신도1리 김영진 씨 구술.

“걸름은게 쉐로도 시깟주게. 쉐로 시깟어. 계난 우리가 아니고 아부지네는 질메영 다 쟁주게. 거 쉐로만도 못 허주게. 쉐에 경 많이 실려져게. 계난 사름덜이 다 총 동원 행 수눌명 돌아가명 햇주.”¹⁴⁾

(거름은 소로도 실었지. 소로 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아버지네는 길마랑 다 쟁지. 거 소로만도 못 하지. 소에 그렇게 많이 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총 동원해서 품앗이해서 돌아가면서 했지.)

“경헨에 뜻걸름 헨에 보리씨 놔근에 막 쉐로 불랏주게. 골로로 가라고. 골로로 가라고. 경헨 불랑 또시 구루마에 시경 뱃디 강 뿌려근에 보리 갈았주게. 멱에 담양 쉐 등어 리에다 이렇게 실어. 질메 경 질메에 시경 경헨 뱃디 강 푸고. 질메 허영도 시꺼 가고 사람 등으로 지었주게. 도 엇은 디. 도 엇은 디 질 엇어 부난. 거 쳐 날라근에 탁탁 푸민 그걸 영 영 골체로 허명 뿌려낫주. 경헨 쉐로 뱃 갈았주.”¹⁵⁾

(그렇게 돼지거름 해서 보리씨 놔서 마구 소로 밟았지. 골고루 가라고. 골고루 가라고. 그래서 밟아서 다시 수레에 실어서 밭에 가서 뿌려서 보리 갈았지. 멱에 담아서 소 등에다 이렇게 실어. 길마 지어서 길마에 실어서 그래서 밭에 가서 푸고. 길마 해서도 실어 가고 사람 등으로 지었지. 입구 없는 데. 입구 없는 데 길 없으니까. 거 지어 날라서 탁탁 푸면 그걸 이렇게 이렇게 삼태기로 하면서 뿌렸었지. 그래서 소로 밭 갈았지.)

가파리 박영복 씨, 안성리 강정일 씨(1942년생) 구술에 의하면 ‘질메’는 소로 거름을 운반할 때 많이 이용했었다. 보리농사를 짓기 위해 거름을 운반해야 하는데 사람이 직접 지어 나르기도 했지만 소에 길마를 지워서 멱에 거름을 실어 나르기도 했다.

(2) 작두

‘작두’는 마소의 먹이를 써는 연장이다. 대체로 기름하고 두툼한 나무토막 위에 긴 칼날을 달고 그 사이에 짚이나 꿀 따위를 넣어 자루를 손으로 누르면서 썰게 되어 있다.

“작두날, 작두. 소출 썰 때 쓰는 작두. 작두 여기 나무 박아 가지고 이렇게 잘라난 거지.”¹⁶⁾

(작두날, 작도. 쇠꼴 썰 때 쓰는 작두. 작도 여기 나무 박아 가지고 이렇게 잘랐던 거지.)

14) 가파리 박영복 씨 구술.

15) 가파리 박영복 씨 구술.

16) 신평리 김성군 씨 구술.

〈사진 16〉은 신평리 김성군 씨(1935년생) 댁에서 쇠꼴을 썰 때 사용했던 ‘작두날’이다. ‘작두날’은 작두에 붙어 있는 칼날로 봄체인 나무토막은 없고 녹이 슨 날만 보관되어 있다.



〈사진 16〉 김성군 씨 소장 ‘작두날’

(3) 코돌

‘코돌’은 소에게 밭을 가는 훈련을 시킬 때 쟁기를 대신해서 소에 묶어 매다는 돌을 말한다. 소로 밭을 갈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쟁기를 메워서 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방법으로 어느 정도 소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의 ‘명예’ 뒤에 돌을 매달아서 앞에서 이끌며 곧장 걷는 연습을 하고 차차 익숙해지면 쟁기를 메워 땅이 부드러워 갈기 쉬운 밭부터 일을 시켰다.

“경허난 그게 그리치멍 해야 돈이 남고 헉는 거 아니? 일 년 그리치는 게 아니고 한번 해 나면 다 그리쳐 소는. 옛날 우리 여기 소는 혼 등메에 다 그리쳐 다. 봄 나면 밭 빌 때 한 삼 일만 해 나면 자기가 알아서 착착 현다니까. 한 삼 일만 얹지도 막 헉니까. 와 양현 쉐, 말 안 듣는 쉐 와양현 쉐 그런 것덜은 여기서 돌 끊는 거 좀 연습헌 다음에 구루마 헉든가 뭘. 아, 그 코돌도 있어, 코돌. 그 끊는 거. 코돌 저기 있어.”¹⁷⁾

(그러니까 그게 가르치면서 해야 돈이 남고 하는 거 아니? 일 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나면 다 가르쳐 소는. 한 ‘등메’에 다 가르쳐 다. 봄 되면 밭 빌 때 한 삼 일만 하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착착 한다니까. 한 삼 일만 얹지도 마구 하니까. 거친 소, 말 안 듣는 소 거친 소 그런 것들은 여기서 돌 끊는 거 좀 연습한 다음에 수레 하든가 뭘. 아 그 ‘코돌’도 있어, 코돌. 그 끊는 거. ‘코돌’ 저기 있어.)



〈사진 17〉 송한진 씨 소장 ‘코돌’

17) 영락리 송한진 씨 구술.

〈사진 17〉은 영락리 송한진 씨 댁에서 밭 가는 소를 가르칠 때 사용했었던 ‘코돌’이다. 송 씨는 이 ‘코돌’을 소 뒤에 묶어 끌도록 하여 밭갈이 연습을 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6.2. 돼지 기르기

(1) 통시

‘통시’는 돼지를 가두어 기르면서, 한쪽에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통세’, ‘통지’, ‘돗통’, ‘돗통시’라고 한다. 제주 전통 ‘통시’는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돼지우리 한쪽이 변소로 되어 있는데, 이 변소에는 발을 디디로 앉아서 뒤를 볼 수 있게 한 ‘디딜팡’이 놓여 있다. ‘디딜팡’은 표준어의 ‘부춘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18〉 신평리 조두석 씨 앞집의 ‘통시’



〈사진 19〉 ‘통시’ 안쪽 모습



〈사진 20〉 조수범 씨 댁의 ‘돗통’



〈사진 21〉 조수범 씨 댁의 ‘디딜팡’

〈사진 18〉은 신평리 조두석 씨(1959년생) 앞집의 ‘통시’다. 조 씨에 의하면 현재 집

주인인 강모 씨는 살고 있지 않지만 ‘통시’의 모습은 조 씨가 어렸을 때부터 그대로라고 한다. 돼지우리를 이루고 있는 돌담은 허물어져 있었지만 ‘통시’의 외형은 그대로 갖추고 있었다. 〈사진 19〉는 ‘통시’의 내부 모습으로 현재는 여러 농기구 등이 놓여 있어서 ‘통시’의 ‘디딜꽝’은 확인할 수 없었다. 〈사진 20〉은 안성리 조수범 씨 댁의 ‘돛통’으로 현재는 소각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사진 21〉은 ‘돛통’에 놓여 있는 ‘디딜꽝’이다.

(2) 돛도고리

‘돛도고리’는 돼지 먹이를 주기 위해 돌을 파서 둥그렇게 만든 그릇이다. ‘돛(돼지)’에게 먹이를 줄 때 사용한다고 해서 ‘돛도고리’라고 하는데, 대정읍 지역에서는 돌로 만든 ‘도고리’라 해서 ‘돌도고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대정읍 지역에서는 돼지에게 먹이 줄 때 사용하는 것을 ‘돛도고리’라 하였고 소 먹이 줄 때 사용하는 것을 ‘쉐도고리’라 부르고 있다.

“우리가 써난 거. 하루부지 적부터 하다가 우리가 대 이어서. 뛰지 밥그릇이주. 그 뛰지 질루는 통지에 뛰지는 한 마리씩 새끼 나면은 한 일곱 마리도 나고 다섯 마리도 나고. 질랑 잡아먹음도 허고 동네에서 그냥 이 자기, 자기 필요헌 사름덜신디 풀고.”¹⁸⁾

(우리가 썼던 거. 할아버지 적부터 하다가 우리가 대 이어서. 돼지 밥그릇이지. 그 돼지 기르는 돼지우리에 돼지는 한 마리씩 새끼 낳으면 한 일곱 마리도 낳고 다섯 마리도 낳고. 길러서 잡아먹기도 하고 동네에서 그냥 이 자기, 자기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고.)



〈사진 22〉 고일화 씨 소장 ‘돛도고리’



〈사진 23〉 김성군 씨 소장 ‘돛도고리’



〈사진 24〉 송한진 씨 소장 ‘돛도고리’



〈사진 25〉 송한진 씨 소장 ‘돛도고리’



〈사진 26〉 임영배 씨 소장 ‘돛도고리’



〈사진 27〉 조두석 씨 소장 ‘돛도고리’

〈사진 22〉는 신평리 고일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돛도고리’로 할아버지가 쓴 것을 대를 이어 물려받은 것이라고 한다. 〈사진 23〉은 신평리 김성군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돛도고리’이고, 〈사진 24〉와 〈사진 25〉는 영락리 송한진 씨의 ‘돛도고리’다. 〈사진 26〉은 안성리 임영배 씨, 〈사진 27〉은 신평리 조두석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돛도고리’다.

(3) 뛰지 먹이통

‘뛰지 먹이통’은 돼지에게 줄 먹이 등을 보관했던 통이다. 보통 항아리 등에 보관하기도 했었는데, 고무통이나 시멘트로 먹이통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었다.

“화장실에 뛰지 질르멍 감자 주시 페 놓, 감자 주시 사다근에 그디 페근에 뛰지 거려 먹여난 거. 우리 시아부지가, 시집올 때 보난 이만이 해난 거, 많이 벌러전. 감저 주시 허민 그대로 거려 줘낫어. 그디 담아놔뒀당. 겐 이젠 쓰레기 불사르는 거로 썸서.”

18) 신평리 고일화 씨 구술.

시멘트 저추룩 저추룩 헤난 건디 많이 부서전.”¹⁹⁾

(화장실에 돼지 기르면서 고구마 찌꺼기 퍼 놓고, 고구마 찌꺼기 사다가 거기 퍼서 돼지 떠서 먹였던 거. 우리 시아버지가, 시집올 때 보니까 이만큼 했던 거, 많이 깨쳤어. 고구마 찌꺼기 하면 그대로 떠서 줬었어. 거기 담아뒀다가. 그래서 이젠 쓰레기 불사르는 거로 쓰고 있어. 시멘트 저렇게 저렇게 했던 건데 많이 부서졌어.)

〈사진 28〉은 안성리의 윤우미자 씨 댁에서 ‘돼지 먹이통’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현재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고 있다. 시아버지가 고구마 찌꺼기 등을 보관하여 돼지 먹이로 떠서 주었던 것이라고 한다. 윤 씨가 시집올 때만 해도 먹이통이 온전한 모양으로 있었는데 현재는 한쪽이 많이 깨진 상태로, 무엇인가를 태웠던 흔적을 볼 수 있다.



〈사진 28〉윤우미자 씨 댁의 ‘돼지 먹이통’

6.3. 양봉

‘양봉’은 꿀을 얻기 위해 벌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제주는 꽃이 일찍 피고 늦게까지 있어 꿀벌의 활동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길다. 때문에 제주에서 양봉 산업은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나 특수 분야로 양봉 농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벌꿀의 종류는 유채꿀, 밀감꿀, 잡화꿀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대정읍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의 양봉 도구는 안성리 조이전 씨의 구슬과 조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벌은 뭐 오랫주. 벌 허건 디 이거 뭐. 혼 사십 대, 사십 대부터 허난.”²⁰⁾

(벌은 뭐 오랬지. 벌 한 지 이거 뭐. 한 사십 대, 사십 대부터 하니까.)

19) 안성리 윤우미자 씨 구술.

20)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삼춘 벌통 몇 개까지 해 뺏수과?) 벌통 하면 뭐 백 개. 그거 허민 혼 두 드럼 조금 더. 이런 통 네 개에 한 말 정도 나옵니다. (겐 올해는 꿀 몇 말이나 뽑았수과?) 금년엔 안 뽑았수다. 이제 나이 많아 부난 설러 불라고 벌 풀아 불언. 이 동네 벌 허는 사름 세 사름쯤 잇엇수다. 팔 땐 전이는 양봉 조합이 잇엇는디, 제주도 전체 허는 양봉 조합이 망해 불언. 겐 글후젠 개인으로.)”²¹⁾

((삼춘 벌통 몇 개까지 해 뺏습니까?) 벌통 하면 뭐 백 개. 그거 하면 한 두 드럼 조금 더. 이런 통 네 개에 한 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꿀 몇 말이나 뽑았습니까?) 금년엔 안 뽑았습니다. 이제 나이 많으니까 치워 버리려고 벌 풀아 버렸어. 이 동네 벌 하는 사람이 세 사름쯤 있었습니다. 팔 때는 전에는 양봉 조합이 있었는데, 제주도 전체 하는 양봉 조합이 망해 버렸어. 그래서 그 후에는 개인으로.)

1936년생인 조이전 씨는 사십대 때부터 양봉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사십 년간 계속 이 일을 해 오고 있다. 조 씨가 한창 양봉 일을 할 때는 벌통을 백 개까지 관리했었다고 한다. 벌통 네 개에 한 말 정도의 꿀을 뽑을 수 있는데, 한 번 꿀을 뽑을 때 거기에서 두 드럼 조금 넣게 꿀을 뽑았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벌을 팔아 버리고 현재는 집 마당에 놓아 둔 벌통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씨에 의하면 안성리에는 조 씨를 포함해서 세 사람 정도가 양봉을 했었다고 한다. 채취한 꿀은 양봉 조합을 통해 판매했었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1) 벌통

‘벌통’은 꿀벌을 치는 통을 말한다. 꿀벌이 떼를 지어 생활하는 집으로 여왕벌이 알을 낳고 새끼 벌을 키우는 곳일 뿐만 아니라 꿀과 화분을 저장하는 곳이다.

“벌통이렌 허주. 이건 아무 디 놔도 됩니다. 주로 꽃 같은 거 많이 있는 쪽으로 갖다 놔야 협주. 경허고 뜨신 쪽으로. 삼월 달에 추우니까 뜨셔야 그 산란 뛰니까. 집에는, 집에 놓지 안협니다. 들에 그자. 들여놓고 허지 안허영 그냥 들에 놓 그디서 뜨시게만 해 줍니다.”²²⁾

(벌통이라고 하지. 이건 아무 데 놔도 됩니다. 주로 꽃 같은 거 많이 있는 쪽으로 갖다 놔야 하지요. 그리고 따뜻한 쪽으로. 삼월 달에 추우니까 따뜻해야 그 산란 되니까. 집에는 집에 놓지 않습니다. 들에 그저. 들여놓고 하지 않고 그냥 들에 놔서 거기

21)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22)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서 따뜻하게만 해 줍니다.)

안성리 조이전 씨의 구술에 따르면 벌통은 아무 데나 놓아도 되지만 주로 꽃이 많이 있는 따뜻한 곳에 놓아야 벌들이 산란을 한다고 한다. 벌통은 들에 내어 놓아야 하며 집에 놓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사진 29〉조이전 씨 소장 '벌통'



〈사진 30〉조이전 씨 소장 '벌통'

〈사진 29〉와 〈사진 30〉은 안성리 조이전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벌통'이다. 앞서 구술에서도 이들 벌통은 집안에 보관하지 않고 일 년 내내 들판에 그냥 놓아두어야 한다고 했지만 조 씨는 이제 양봉 일을 소규모로만 하여 집안에 몇 개의 벌통만을 보관하고 있었다.

(2) 벌집틀과 소비

'벌집틀'은 벌통 안에 들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틀이고, '소비(巢脾)'는 사각 틀 안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벌이 알을 낳고 먹이와 꿀을 저장하며 생활하는 집을 말한다. 안성리 조이전 씨는 이 둘을 아울러 '소비'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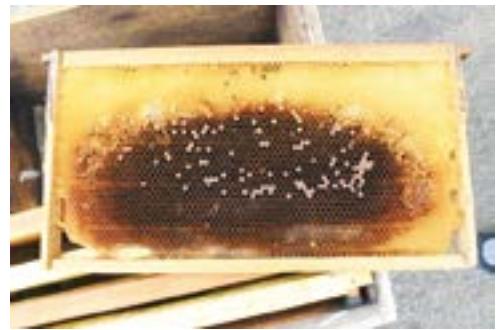
"(벌통 하나에) 소비가 적은 것은 열 매. 요건 열 매. 요건 조금 크니까 열두 매. 여기에 알도 싸고 꿀도 물어다 놓고 다 힙니다."²³⁾

((벌통 하나에) 소비가 작은 것은 열 매. 요건 열 매. 요건 조금 크니까 열두 매. 여기에 알도 싸고 꿀도 물어다 놓고 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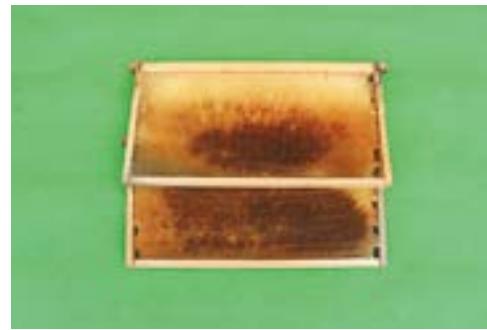
23)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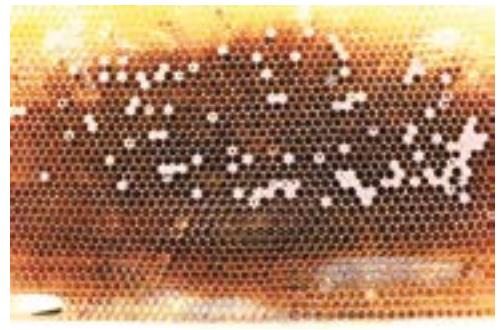
〈사진 31〉벌통 안의 '소비'



〈사진 32〉'소비'



〈사진 33〉'소비'



〈사진 34〉'벌집'의 모습

〈사진 31〉에서 〈사진 33〉까지는 안성리 조이전 씨의 벌통 안에 있는 '소비'다. 벌통 하나에 열 매에서 열두 매의 소비가 들어 있다고 한다. 조 씨는 벌들이 이 '소비'에 알도 싸고 꿀도 물어다 놓는다고 하였다.

(3) 먹이통

'먹이통'은 꿀벌의 먹이를 주는 통을 말한다.

"양식은 설탕 줍니다. 요걸로 양식 줘낫고. 먹이 거기 넣어 두면은 벌이 들어와서 물어갑니다. 벌통 하나에 이거 하나씩 담아 둡니다. (이 통에 이거는 뭐파? 구멍 난 거?) 아까 저걸로 양식 주다가 불편하니까 밑에 설립 해서 편허게끔 편허게끔 여기 쏟으면은 먹이 주게끔 고안한 겁주."²⁴⁾

(양식은 설탕을 줍니다. 요걸로 양식 줬었고. 먹이 거기 넣어 두면 벌이 들어와서 물어갑니다. 벌통 하나에 이거 하나씩 담아 둡니다. (이 통에 이거는 뭘니까? 구멍 난

24)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거?) 아까 저걸로 양식 주다가 불편하니까 밑에 서랍 해서 편하게끔 편하게끔 여기 쏟으면 먹이 주게끔 고안한 거지요.)



〈사진 35〉‘소비’와 같은 모양의 ‘먹이통’



〈사진 36〉벌통 아래 부분의 ‘먹이통’



〈사진 37〉‘먹이통’ 한쪽 모습



〈사진 38〉벌통 아래 부분의 ‘먹이통’

〈사진 35〉에서 〈사진 38〉까지는 벌통에 들어가는 ‘먹이통’의 모습이다. 조 씨의 구술에 의하면 〈사진 35〉처럼 벌통에 끼워 넣는 형태의 ‘먹이통’을 이용하다가 먹이를 줄 때마다 벌통을 열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사진 36〉과 같이 벌통 뚜껑을 열지 않고 벌통 아래쪽에 서랍 형태의 ‘먹이통’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4) 연통

‘연통’은 벌통 관리를 할 때 벌에 쏘이지 않도록 연기를 피우는 기구로, ‘훈연기’에 해당한다.

“건 연통. 저 연기 피워 가지고 벌 내쫓는 거. 벌 사람에게 저렇게 달라붙으면은 이 걸로 연기 피우면은. 작업할 때 계속 손에 잡아서 뿌리면서 허는 거. 그러면 연기가 나

왕 벌이 안 옵니다. 이 안엔 주로 쑥. 쑥 말리와근에, 쑥이 불 잘 타지 안협니까. 경허 민 벌들이 도망가니까.”²⁵⁾

(건 연통. 저 연기 피워 가지고 벌 내쫓는 거. 벌 사람에게 저렇게 달라붙으면은 이 걸로 연기 피우면은. 작업할 때 계속 손에 잡아서 뿌리면서 허는 거. 그러면 연기가 나와서 벌이 안 옵니다. 이 안에는 주로 쑥. 쑥 말려서, 쑥이 불에 잘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들이 도망가니까.)

〈사진 39〉는 조 씨가 보관하고 있는 ‘연통’이다. 꿀벌은 연기를 무서워해 연기를 뿜어대면 꿀벌이 공격해 오지 않으므로 벌집을 다루는 데 안전하다. 말린 쑥을 ‘연통’에 넣고 불을 붙여 불꽃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연기만 뿐을 수 있으면 된다고 한다.



〈사진 39〉조이전 씨 소장 ‘연통’

(5) 머리에 쓰는 거

‘머리에 쓰는 거’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머리부터 얼굴 아래까지 덮는 망사 주머니로, ‘복면포’에 해당한다. 이것을 쓰면 꿀벌에게 쏘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벌통을 관리하기 수월하다.

“얼굴 다 쟁 협니다. 옛날에도 저런 거 그대로 뭐 헌에 머리에 쓰기만 썼으니까. 이 거 머리에 쟁 험는 거 아니파?”²⁶⁾

(얼굴에 다 써서 합니다. 옛날에도 저런 거 그대로 뭐 해서 머리에 쓰기만 썼으니까. 이거 머리에 써서 하는 거 아닙니까?)

25)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26)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사진 40〉 조이전 씨 소장 '복면포'



〈사진 41〉 조이전 씨 소장 '복면포'

〈사진 40〉과 〈사진 41〉은 조이전 씨가 보관하고 있는 '복면포'다. 조 씨는 〈사진 41〉와 같이 '페렝이'에 '복면포'를 달아 사용하고 있었다.

(6) 솔

여기서 '솔'은 벌집을 관리하거나 벌꿀을 채취할 때 벌집에 붙어 있는 꿀벌을 쓸어내는 솔을 말한다.

〈사진 42〉는 조이전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솔'이다.



〈사진 42〉 조이전 씨 소장 '솔'

(7) 칼

여기서 '칼'은 벌집이나 벌통에서 꿀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한다. 양봉용 '칼'은 벌집을 싸고 있는 밀랍을 자르는 데 사용한다. 밀랍은 벌집을 만들기 위하여 꿀벌이 분비하는 물질로, 누런 빛깔로 상온에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다. 꿀을 빼는 작업을 할 때는 벌통에 들어 있는 '소비'를 꺼내어 표면의 굳어 있는 것을 '칼'로 잘라내고 '꿀 빼는 통'에 집어넣는다.

"이건 꿀 들어 있는 거우다. 이 뚜껑 막힌 거를 이렇게 잘라서. 나오지 안 험수과? 이디 영 잘랑 이 통에 놓는 거주마씨. 겐 이걸 돌려야 힙니다."²⁷⁾

27)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이건 꿀 들어 있는 겁니다. 이 뚜껑 막힌 거를 이렇게 잘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잘라서 이 통에 넣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돌려야 합니다.)



〈사진 43〉 조이전 씨 소장 양봉용 '칼'



〈사진 44〉 '칼'로 벌집 위를 자르는 모습



〈사진 45〉 '칼'로 벌집 위를 잘라낸 모습



〈사진 46〉 '칼'로 벌집 위를 잘라낸 모습

〈사진 43〉은 조이전 씨의 양봉용 '칼'이다. 이 칼을 이용해 〈사진 44〉와 같이 소비 표면의 굳은 부분을 잘라낸다. 조 씨에 의하면 위와 같이 벌집 표면의 굳은 부분을 잘라내야 채밀기에 '벌집틀'을 넣었을 때 꿀을 잘 뽑을 수 있다고 한다.

(8) 꿀 빼는 통

'꿀 빼는 통'은 벌집의 꿀을 빼는 데 쓰는 기구로 '채밀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뼈다'는 표준어 '뽑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꿀 빼는 통'은 보통 함석이나 스테인리스로 만든 등근 통으로 '벌집틀'을 끼워 넣어 돌리면 회전력에 의해 벌집의 꿀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꿀 빠는 거. 여기 하나씩 집어넣는 거. 이 사이에, 여기 여섯 개 집어놓고 이 거 허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게민 꿀이 그대로 이 안에 떨어지면은 울로 나와마 씨.”²⁸⁾

(이게 꿀 뽑는 거. 여기 하나씩 집어넣는 거. 이 사이에, 여기 여섯 개 집어놓고 이 거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럼 꿀이 그대로 이 안에 떨어지면 울로 나와요.)

“꿀 빠는 건 사월 오월. 벌이야 그자 놔두면은 그 사월 오월 뛰면은 그때 뛰사 물어 오기 시작하주. (흔 번만 짭니까?) 아니, 사월 달에도 짜고 오월 달에도 짜고. 꿀 빠는 건 두 번, 주로 두 번. 지금도 밧디 강 놓면은 지금도 저 메밀에 거 짤 수가 있어.”²⁹⁾

(꿀 뽑는 건 사월 오월. 벌이야 그저 놔두면 그 사월 오월 되면 그때 되어야 물어오 기 시작하지. (한 번만 짅니까?) 아니, 사월 달에도 짜고 오월 달에도 짜고. 꿀 뽑는 건 두 번, 주로 두 번. 지금도 밭에 가서 놓으면 지금도 저 메밀에 거 짤 수가 있어.)



〈사진 47〉조이전 씨 소장 '꿀 빠는 통'



〈사진 48〉'꿀 빠는 통' 아래쪽 모습

〈사진 47〉은 조이전 씨가 보관하고 있는 ‘꿀 빠는 통’의 내부 모습이고, 〈사진 48〉은 ‘꿀 빠는 통’의 외부 아래쪽에 달려 있는 꼭지 모습이다. 〈사진 47〉을 보면 여섯 개 정도의 ‘벌집틀’을 세워서 끼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벌집틀’을 끼워 넣고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 아래쪽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이 꿀은 〈사진 48〉의 통의 아래쪽에 있는 꼭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28)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29) 안성리 조이전 씨 구술.

(9) 조로

안성리 조이전 씨는 병 따위에 꽂아 놓고 액체를 붓는 데 쓰는 나팔 모양의 기구인 ‘깔때기’를 ‘조로’라고 하였다. ‘조로’는 일본어(ショーロ)에서 온 말로 ‘물뿌리개’에 대응하는 말이다.

“저 거세기 적은 병 같은 데 짓는 거. 이거 꿀 질을 때도, 적은 병에 헐 때는 저거 꽂고 질기가 편허지 안합니까. 계난 그때 쓰는 겁주.”³⁰⁾

(저 거시기 작은 병 같은 데 긴는 거. 이거 꿀 길을 때도, 작은 병에 할 때는 저거 꽂고 긴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쓰는 거지요.)



〈사진 49〉조이전 씨 소장 '조로'



〈사진 50〉'조로'를 뒤집어 놓은 모습

〈사진 49〉와 〈사진 50〉은 조이전 씨가 보관하고 있는 ‘조로’이다. 꿀을 뽑고 나서 병 따위에 꿀을 길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10) 깡

‘깡’은 물이나 석유 등의 액체를 담는 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통을 말한다.

“꿀 뺄 때 사용해난 것덜.”³¹⁾

(꿀 뽑을 때 사용했던 것들.)



〈사진 51〉 조이전 씨 소장 '깡'

〈사진 51〉과 〈사진 52〉는 조이전 씨가 보관하고 있는 '깡'이다. 〈사진 51〉의 '깡'에는 꿀이 들어 있다. 〈사진 52〉의 '깡'은 비어 있는데 이것들도 꿀을 받을 때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52〉 조이전 씨 소장 '깡'

III

마무리



신풍리 조두석 씨 소장 '구덕'

III 마무리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7, 대정읍 편』은 서귀포시 서부 지역인 대정읍 지역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했던 도구를 현지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대정읍 23개의 행정 마을 가운데 가파리, 상모1리, 신도1리, 신평리, 안성리, 영락리 등 6개 마을에서 49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이었다.

조사는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6개 마을의 토박이 제보자들을 면 대 면으로 만나 도구의 실물 사진을 찍고 그 명칭과 쓰임새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를 하면서 도구에 대한 제보자의 구술을 채록하였는데, 채록한 자료를 전사한 후 700여 장의 사진 자료와 비교하면서 도구의 특징들을 꼼꼼히 설명하였다.

이 자료집은 I 장 조사 개요, II장 조사 내용, III장 마무리로 구성하였고 부록에 ‘가파리 강순화 씨의 도구 이야기’와 ‘안성리 이춘인 씨의 도구 이야기’를 실었다. I 장에는 조사 개요와 조사단 구성,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정리하였고, 조사 지역인 대정읍 6개 마을에 대한 정보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II 장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관련, 어업 관련, 축산과 양봉’의 6개의 작은 장으로 나누어 조사 내용을 정리하였다. 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생활’ 관련 도구는 바느질 도구, 손질 도구, 세탁 도구, 의복과 신발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이번 대정읍 조사에서는 소일거리로 장식용 짚신을 만들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 짚신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신틀’, ‘신차세’, ‘신꼴’ 등을 새로이 조사하였다. 또한 짚신 만드는 과정을 직접 촬영하며 설명을 듣고 이를 정리하였다.

바느질 도구로는 재봉틀과 ‘복’, ‘미싱 바농’, ‘미싱 지름’ 등 재봉틀에 딸린 부속 도구들을 소개하였다. ‘바농상지’, ‘바농줄레’는 물론, 바느질용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잘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손질 도구로는 ‘다듬잇돌’과 ‘다듬이마께’ 외에도 숯을 넣어 사용했던 ‘다리웨’를 조사하였다. 의복으로는 60년대 결혼할 때 입었던 ‘유동 치메’, 60년대에 만든 광목 ‘적삼’, ‘장옷’ 등도 조사하여 자료집에 실었다. 또한 ‘궤’의 ‘걸쉐’로 쓰고 있는 비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식생활 분야에서는 그릇과 조리 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사 관련 도구를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그릇의 경우는 사기 ‘밥사발’과 ‘국사발’, ‘종제기’와 접시류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3대째 물려온 놋그릇을 잘 보관하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 놋그릇을 넣어 두는 ‘풀부른바구리’과 함께 ‘수바끼’, ‘놋우금’, ‘놋수저’, ‘놋술잔’ 등 놋그릇 일체를 조사할 수 있었다.

한편, 대정읍 지역은 옹기를 만드는 지역이었던 만큼 다양한 종류의 항아리와 허벅 등을 조사할 수 있었다. ‘조막단지’, ‘추니’, ‘망데기’, ‘통개’ 등의 쓰임새를 제보자들의 구술과 함께 살았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조사할 수 없었던 ‘고소리’도 몇몇 제보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좀처럼 찾기 어려웠던 ‘떡살’도 조사하여 이 자료집에 실었다.

셋째, 주생활 분야에서는 집 구조, 가재도구, 난방 도구, 연장류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집 구조에서는 정낭을 끼웠던 정주석과 전통 가옥에 쓰였던 ‘마룻문’, ‘마릿널’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가재도구로는 ‘궤’와 ‘책함’, ‘문서함’ 등을 조사하여 살았다. 난방 도구인 화로도 조사할 수 있었는데,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대정읍의 경우는 ‘정동화리’나 ‘옹기화리’ 등이 많이 쓰였다고 하였다. 항아리를 만들었던 지역으로 ‘옹기화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돌화로’가 그다지 쓰이진 않았다는 구술도 흥미로웠다. 한편 ‘돌화로’인 화덕도 조사되었다.

연장류의 경우는 ‘톱’, ‘도끼’, ‘자귀’, ‘메’, ‘못빼기’, ‘징’, ‘끌’, ‘줄’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메’의 경우 크기에 따라, 큰 것은 ‘메’ 또는 ‘오하마’, 작은 것은 ‘겐노’로 구분하여 불리고 있었다. 또 ‘겐노’도 ‘오겐도’, ‘하겐도’로 구분하여 불리고 있었는데, 이들 연장류 등에 일본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목수들이 사용하는 ‘대패’와, 집을 지을 때 가지고 다니는 ‘먹줄’과 ‘먹통’도 조사하였다. 쇠로 만든 ‘애기구덕’, ‘요강’, ‘중이덧’ 등도 조사하여 사진과 함께 구술 자료를 함께 실어 그 쓰임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넷째, 농업 관련 도구는 파종 관련 도구, 김매기와 수확 도구, 건조와 손질 도구, 운반 도구, 계량 도구, 기타 도구로 나누어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파종 관련 도구로는 ‘잠대’와 ‘멍에’, ‘보섭과 뱃’, ‘갈레죽’, ‘괭이’, ‘곡괭이’ 등이 조사되었고, 김매기와 수확 관련 도구로는 ‘굴갱이’와 ‘호미’, ‘도깨’, ‘보리클’ 등을 확인하였다.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쓰였던 ‘비창’이 대정읍에서는 마늘을 수확할 때 쓰이고 있었다. 이 ‘비창’은 구좌읍 지역에서는 ‘당근’을 수확할 때도 쓰였었는데, 각 지역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에 맞게 농기구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조와 손질 관련해서는 ‘멍석’과 ‘덕석’, ‘당그네’, ‘솔박’, ‘체’, ‘얼멩이’, ‘푸는체’, ‘꼰데’ 등의 도구를 조사하여 구술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다. 운반 도구로 ‘굴체’와 ‘질구덕’, ‘풀부른바구리’ 등이 조사되었다. 한편, 가파리 지역에서는 벗짚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멱’이나 ‘망태기’ 대신 해변의 모래밭에 자라는 순비기나무의 줄기를 엮어 ‘중시리’를 만들어 운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한다. 실제 도구가 남아 있지 않아 사진 자료를 이 자료집에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지역마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음을 제보자들의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계량 도구로는 ‘횃박’과 ‘저울’ 등이 조사되었는데, 쌀장수를 했던 제보자가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원통 모양의 한 말들이 ‘횃박’도 조사할 수 있었다. 이는 이번 대정읍 지역 조사에서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저장 도구로는 ‘항’과 ‘도로무깡’이 조사되었는데, 제보자에 따라서는 곡식을 저장했던 ‘도로무깡’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소각하는 통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어업 관련 도구는 잠녀들의 물질 도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잠녀들이 물웃은 ‘속곳’과 ‘고무옷’, ‘고무모자’, ‘오리발’ 등을 조사하였다. 물질할 때 머리 수건으로 썼던 ‘까바리’와, 다른 지역에서 쓰는 납작한 봉돌 대신에 쓰이는 ‘어깨말’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물질 도구인 ‘테왁’과 ‘망시리’, ‘조망시리’, ‘굴챙이’, ‘비창’ 등의 채취 도구도 그 쓰임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 그물을 손질할 때 사용했던 ‘바늘대’, 해산물이나 물질 도구를 넣어 다녔던 ‘구덕’ 등도 조사하였다.

특히 가파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번 어업 관련 도구 조사에서는, 가파리 인근 해협의 특징을 보여주는 도구들이 조사되었다. 우선 센 물살 때문에 깊은 물에 들어가기 위한 허리에 차는 납작한 봉돌 대신에 ‘어깨말’이라는 조끼 모양의 옷에 납을 넣어 만들어 입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테왁’이 바닷물에 떠밀리지 않도록 다양한 크기의 ‘닻돌’을 ‘테왁’에 매달아 물질을 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렌즈가 두 개인 물안경 ‘족은눈’을 사용할 때 있었던 ‘후성 안경’의 쓰임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여섯째, 축산과 양봉 관련 도구는 소와 돼지를 기르는 데 사용했던 도구와 양봉 도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소를 가둬 길렀던 ‘쉐막’과 먹이통인 ‘쉐도고리’, 소를 묶어 두었던 ‘쉐 메는 고리’, ‘쉐 메는 돌’, ‘쉐석’, ‘물툭’의 부속물로 ‘질메’, ‘작두’, ‘코돌’ 등이 조사되었다.

농촌의 집들이 개조되면서 ‘통시’, ‘돗통’이 거의 사라졌지만, 대정읍 지역 조사에서

는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봉을 했던 제보자를 만나 양봉 관련 도구도 조사하여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대정읍 조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부록의 ‘가파리 강순화 씨의 도구 이야기’는 농업과 어업을 주제로 하여 관련 도구에 대한 강순화 씨(1935년생)의 이야기를 채록한 후에 전사하여 표준어 대역과 함께 실은 것이다. ‘안성리 이춘인 씨의 도구 이야기’는 식생활 도구에 관한 이춘인 씨(1934년생)의 이야기를 채록, 표준어 대역한 자료로, 대정읍 지역에서 사용했던 전통 도구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삶의 손때가 묻은 도구들은 이미 낡고 혜진 지 오래다. 기우고 붙인 흔적이 역력한 도구들은, “이거 나영 그치 늙는 거.”라는 제보자의 말에서처럼 그것을 써 온 사람들의 지난한 삶의 역사를 보여 준다. 각 분야별로 도구의 실제 사진과 생생한 구술 자료가 실린 이 자료집은 대정읍 사람들의 생활 도구의 쓰임새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될 것이다. 또한 그 도구를 사용했던 대정읍 사람들의 생활을 민속학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로 남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 자료〉

고광민(2019),『제주도 도구의 생활사』, 한그루.

김형지(1990),『제주의 맥의 잇는 사람들 32명백이 청춘이라며 깊신을 삼는 양희문 옹』,
『월간 관광 제주』 9월호.

대정읍지편찬위원회(2010),『대정읍지 I』, 파피루스.

대정읍지편찬위원회(2010),『대정읍지 II』, 파피루스.

대정읍지편찬위원회(2010),『대정읍지 III』, 파피루스.

송상조(2007),『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2007),『제주전통음식』.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5),『제주도의 식생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3),『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I-애월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4),『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II-조천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5),『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III-구좌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6),『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IV-안덕면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7),『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V-한경면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8),『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VI-성산읍 편』.

최승윤(2012),『양봉·꿀벌과 벌통』, 오성출판사.

현평효 외(2009),『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두디피아(<http://www.doopedia.co.kr/>)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http://seogwipo.grandculture.net/?local=seogwipo>)

서귀포시 대정읍 누리집(<http://www.seogwipo.go.kr/local/daejeong/main.htm>)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main>)

제주특별자치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index.htm>)



부록



상모1리 허세안 씨가 바구니를 짜는 모습

* 가파리 강순화 씨의 도구 이야기

구술: 강순화(1935년생)
조사: 김보향, 권미소

김보향 성함이 어떻 됰수과?(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강순화 강순화.(강순화.)

김보향 강자 순자 화자이시고예?(강자 순자 화자이시고요?)

강순화 오, 맞아.(호호호. 오, 맞아.)

김보향 예, 계난 몇 년생이시과?(예, 그러니까 몇 년생이십니까?)

강순화 나우든다섯.(나 여든다섯.)

김보향 예, 무슨 띠?(예, 무슨 띠?)

강순화 응?(응?)

김보향 무슨 띠?(무슨 띠?)

강순화 저, 도새기띠.(저, 돼지띠.)

김보향 도새기띠라예.(돼지띠요.)

강순화 으, 도새기띠.(으, 돼지띠.)

김보향 원래 여기서 낭 계속 여기서 살아수꽈?(원래 여기서 나서 계속 여기서 살았습니까?)

강순화 응, 여기서 나고, 여기서 살고.(으, 여기서 나고, 여기서 살고.)

김보향 우린 옛날 써난 물건덜 도구덜 조사하는 거마씨. 계난 삼춘안티 물질해난 것 덜이랑 농사지을 때 써난 거 영 물어보쿠다. 물에 들젠 허민, 물에 들젠 허민 가정 가야 뭘 게 잊지 안허꽈예? 뭐 가정 갑니까?(우린 옛날 썼던 물건들 도구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춘한테 물질했던 것들이랑 농사지을 때 썼던 거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물에 들려고 하면, 물에 들려고 하면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져서 갑니까?)

강순화 물에 들 때 테왁하고 비창하고 그거베끼 더 가정 가?(물에 들 때 '테왁'하고 '비창'하고 그거밖에 더 가지고 가?)

김보향 으, 테왁하고 비창하고.(으, '테왁'하고 '비창'하고.)

강순화 으.(으.)

김보향 그민 집이서 바당 가젠 허민 그 테왁을 어디 담양 갈 거라?(그럼 집에서 바다 가려고 하면 그 '테왁'을 어디에 담아서 갈 거야?)

강순화 테왁 어디게, 그때 옛날엔 질구덕¹⁾ 행 지영 뎅겨. 전 뎅기단 중간엔 콘테나로 경 뎅견. 또 중간엔, 이젠 혼 으든 이른댓 나난 훨체어 나난 훨체어에 놓. 하하하.(‘테왁’ 어디, 그때 옛날에는 ‘질구덕’ 해서 쳐서 다녀. 쳐서 다니다가 중간에는 콘테이너로 쳐서 다녔어. 또 중간에는, 이젠 한 여든 이른댓 되니까 훨체어 나오니까 훨체어에 놉서. 하하하.)

김보향 계난 우리는 이제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옛날 거?(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옛날 거?)

강순화 으, 옛날 거. 옛날 질구덕에.(으, 옛날 거. 옛날 질구덕에.)

김보향 예, 맞수다. 옛날 거 물어보는 거난.(예, 맞습니다. 옛날 거 물어보는 거니까.)

강순화 으. 옛날에 질구덕 돌레 받치고 허영이 정이. 아이고, 질구덕으로 전복 하나씩 잡안 뎅겼져.(으. 옛날에 ‘질구덕’ ‘돌레’ 받치고 해서 쳐서. 아이고, ‘질구덕’으로 전복 하나씩 잡고 다녔어.)

김보향 아이고, 경 하영 잡아난? 계민 삼춘 질구덕에 뭐 뭐 담을 거? 담아 봅서.(아이고, 그렇게 많이 잡았었어? 그럼 삼춘 ‘질구덕’에 뭐 뭐 담을 거? 담아 보세요.)

강순화 질구덕에 담을 거 구제기하고 전복.(‘질구덕’에 담을 거 소라하고 전복.)

김보향 아니, 물에 들젠 허난.(아니, 물에 들려고 하니까.)

강순화 아, 물에 들젠 허난.(아, 물에 들려고 하니까.)

김보향 질구덕에 뭐 뭐 담양 갈 것과?(‘질구덕’에 뭐 뭐 담고 갈 겁니까?)

강순화 물에 들젠 허난 지들커 담곡 질구덕에. 그땐 불 출 때난이.(물에 들려고 하니까 맷감 담고 ‘질구덕’에. 그땐 불 췄 때니까.)

김보향 으.(으.)

강순화 지들커 담곡 이제 첨 이제 영 쓰는 거 불 초민 쓰는 거. 이런 현 거 쓰는 거.(맷감 담고 이제 참 이제 이렇게 쓰는 거 불 췄면 쓰는 거. 이런 현 거 쓰는 거.)

김보향 그거 웃으로?(그거 웃으로?)

강순화 웃으로. 후루메²⁾, 후루메.(웃으로. ‘후루메’, ‘후루메’.)

김보향 후루메.(‘후루메’.)

1) ‘질구덕’은 물건을 넣어서 지고 다니는, 대오리를 엮어 만든 큰 바구니를 말한다.

2) ‘후루메’는 ‘두루마기’의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처네의 기능을 하는 웃을 가리킨다.

강순화 후루메 큰 거. 죽은 것도 안 돼여. 큰 걸로 영허게 에워싸사 듯주. 이디 허민 이디 시엉시엉허영 을엉. 속곳 바람에 물질하난.(‘후루메’ 큰 거. 작은 것도 안 돼. 큰 걸로 이렇게 에워싸야 따뜻하지. 여기 하면 여기 쌩쌩해서 추워서. ‘속곳’ 바람에 물질하니까.)

김보향 으.(으.)

강순화 그추룩 행 쟁 앗앙, 일로 영 쌍 앗앙이 경혜영 불 초아사.(그처럼 해서 써서 앉아서, 이리로 이렇게 싸서 앉아서 그래서 불 찌어서.)

김보향 계난 물에 들엉 나왕?(그리니까 물에 들었다가 나와서?)

강순화 나왕 불 초고.(나와서 불 찌고.)

김보향 겐 영 뒤집어 쓰는 거?(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강순화 으. 그거 지곡 지들커 지곡, 비창 놓곡, 속곳 놓고, 물적삼 놓곡, 허영 간 물질 허연, 우리.(으. 그거 지고, 뻘감 지고, ‘비창’ 놓고, ‘속곳’ 넣고, ‘물적삼’ 넣고 해서 가서 물질했어, 우리.)

김보향 호미는, 저 골갱인 안 앗앙 가?(호미는, 저 호미는 안 가지고 가?)

강순화 아, 골게기 저 우린 골게기 앗앙 안 들언. 저 전복 잡으레 뎅기난. 골게기 가정 뎅기는 사름은 막 덕³⁾에 숨비는 사람.(아, 호미는 저 우린 호미 가지고 안 들었어. 저 전복 잡으러 다니니까. 호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아주 ‘덕(근처에서)’에서 물질하는 사람.)

김보향 으.(으.)

강순화 덕에 숨비는 사름 허고 우린 골게기 안 아경 강 비창만 창 안경하고 수건 놓고. 이제난 고무옷 나나 고무 모제 쓰곡 험주. 우린 안경 놓곡 수건 놓곡 그추룩.(‘덕’ 근처에서 물질하는 사람은 (호미를) 하고 우리는 호미 안 가지고 가서 ‘비창’만 차서 안경하고 수건 놓고. 이제니까 ‘고무옷’ 나오니까 고무 모자 쓰고 하지. 우린 안경 넣고 수건 넣고 그처럼.)

권미소 수건.(수건)

강순화 저 나 실 거라. 중간에 수건 쓰단 이젠 또 영 멘들앙 이넉냥으로 멘들앙. 가사리⁴⁾ 돌리곡 행 곱게.(저 나에게 있을 거야. 중간에 수건 쓰다가 이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대로 만들어서. 장식 달리고 해서 곱게.)

김보향 으.(으.)

3) ‘덕’은 바닷가나 바다 속의 큰 바위를 말한다.

4) ‘가사리’은 일본어의 ‘장식’을 의미하는 ‘가자리(かざり)’에서 온 말로, 여기서는 모자 가장자리에 주름을 잡아 단 장식을 가리킨다.

강순화 영헹 즐라메영 경헹 물질햇저게.(이렇게 잘라매서 그래서 물질했었어.)

김보향 계난 수건 쓰단예?(그리니까 수건 쓰다가요?)

강순화 으, 수건 쓰단. 저디 실 거라.(으, 수건 쓰다가. 저기 있을 거야.)

김보향 예, 거 잇당 꺼냅서예.(예, 거 있다가 꺼내세요.)

강순화 으.(으.)

김보향 가사리 둘린 거예.(장식 달린 거요.)

강순화 으. 가사리.(으. 장식.)

김보향 예, 삼춘 만든 거. 그건 이땅 보기로 허고.(예, 삼춘 만든 거. 그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

강순화 으, 중간에 그거.(으, 중간에 그거.)

김보향 그민 이제는 하나씩 물어보쿠다. 테왁부터 물어보쿠다.(그럼 이제는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테왁’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강순화 으.(으.)

김보향 테왁예.(‘테왁’요.)

강순화 테왁 허연 우리 혼 열여답, 열아홉엔 테왁 헷주게. 테왁 허민이 아이고, 배로 가민이 배 짐 들엉이 테왁, 물 든 테왁 지퍼 불민 까정. 까전 허단 우리 혼 서른댓 나난 스쁜지로 헷자.(‘테왁’ 해서 우리 한 열여덟, 열아홉엔 ‘테왁’ 했지. ‘테왁’ 하면 아이고, 배로 가면 배 짐 들고 ‘테왁’, 물이 든 ‘테왁’ 짚으면 깨져. 깨져 하다가 우리 한 서른댓 되니까 스펀지로 했어.)

김보향 서른댓 나난?(서른댓 되니까?)

강순화 으, 서른댓 나사. 서른댓 나사 스쁜지로 해서이.(으, 서른댓 되어야. 서른댓 되어야 스펀지로 했어.)

김보향 계난.(그리니까.)

강순화 쿨락테왁⁵⁾. 큰물⁶⁾이 강 쿨락테왁 구허노라고이. 잘 굳어사 아이 굳어사 두드려 보멍. 아이고, 쿨락테왁. 잘 아이 굳은 건이 물 울엉이 복삭 까져 불어.(‘쿨락 테왁’. ‘큰물’에 가서 ‘쿨락테왁’ 구하느라고. 잘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두드려 보면서. 아이고, ‘쿨락테왁’. 잘 안 굳은 건 물 울어서 바삭 깨져 버려.)

김보향 음. 계난 그건 다 집집마다 질른 건 아니고?(음. 그러니까 그건 다 집집마다 기른 건 아니고?)

5) ‘쿨락테왁’은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6) ‘큰물’은 제주 본섬을 가리킨다.

- 강순화 으?(으?)
- 김보향 쿨락을 집어서 질른 건 아니고?(‘쿨락’을 집에서 기른 건 아니고?)
- 강순화 아이고, 집어서 어떻 질르느니? 큰물이 강 헤 오주.(아이고, 집에서 어떻게 기르니? ‘큰물’에 가서 해 오지.)
- 김보향 큰물이 어디파?(‘큰물’이 어딥니까?)
- 강순화 저 어디.(저 어디.)
- 권미소 대정?(대정?)
- 강순화 저 인연, 인연이 어디 참 큰물이엔 허민이 모실포로 우터레.(저 인연, 인연이 어디 참 ‘큰물’이라고 하면 모슬포에서 위로.)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웃드르⁷⁾례. 옛날은 웃드르레가 그런 쿨락테와 식주. 이디 놀 불민이 죽어 분다.(‘웃드르’에. 옛날은 ‘웃드르’에가 그런 ‘쿨락테와’ 있지. 여기 파도 일면 죽어 버려.)
- 김보향 죽어 불어. 게민 이디서 못 질렀구나?(죽어 버려. 그럼 여기서 못 길렀구나?)
- 강순화 으, 못 질룬다. 쿨락 못 헌다. 경허난 큰물으로 모실포로 우터리 이제 영락리.(으, 못 기른다. ‘쿨락’ 못 한다. 그러니까 ‘큰물’으로 모슬포로 위로 이제 영락리.)
- 김보향 아.(아.)
- 강순화 이제 저 이제 참 이제 그트민 이제 대정골 그레 그 큰물더레 웃드르레. 웃드르레 신청허영 허여근에 소못 참 쿨락테와 헷저.(이제 저 이제 참 이제 같으면 이제 대정골 그리 그 ‘큰물’으로 ‘웃드르’로. ‘웃드르’에 신청해서 해서 사뭇 참 쿨락테와’ 했어.)
- 김보향 그민 일 년에 물질허젠 허민 일 년에 그 쿨락을 몇 개나?(그럼 일 년에 물질하려고 하면 일 년에 그 ‘쿨락’을 몇 개나?)
- 강순화 아이고, 쿨락이 잘 굳은 건이 궤양 앗아 뎅기민 혼 이 년 삼 년 앗아 뎅기고 경안 허민이 정체 엊은 건 헌 번에 까져 불어. 허허.(아이고, ‘쿨락’이 잘 굳은 건 고이 가지고 다니면 한 이 년 삼 년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안 하면 정체 없는 건 한 번에 까져 버렸어. 허허.)
- 김보향 하하하.(하하하.)
- 강순화 것도이 고양, 조심히 가져 뎅겨사. 정체 엊은 건 테와 까져 불영 소못 울곡 웃
- 곡, 울곡 웃곡 헌다.(것도 고이, 조심히 가지고 다녀야. 정체 없는 건 ‘테와’ 까져 벼려서 사뭇 울고 웃고, 울고 웃고 해.)
- 김보향 아. 그민 그거 행 오젠 허민 그거 웃드르 강?(아. 그럼 그거 해서 오려고 하면 그거 ‘웃드르’에 가서?)
- 강순화 으, 경허민이 경해도 다 이 촌락 밑에 사람이 잇엉이 쿨락덜이 테와덜이 행 낮당이 다 빌려주곡이, 옛날엔이 주곡. 인심이 좋더라. 경현디 이젠 사람이 웃을수록 인심이 없어, 인심이 없어.(으. 그러면 그래도 다 이 촌락 밑에 사람이 있어서 ‘쿨락’들이 ‘테와’들이 해서 놋다가 다 빌려주고 옛날에는 주고. 인심이 좋더라. 그런데 이젠 사람이 없을수록 인심이 없어, 인심이 없어.)
- 김보향 아, 맞수다.(아, 맞습니다.)
- 강순화 인심이 없어.(인심이 없어.)
- 김보향 맞수다. 게민 게민 쿠은 경허고 영 헤영?(맞습니다. 그럼 그럼 ‘국’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 강순화 어 그건 이녁냥으로 다 만들앙.(어 그건 자기대로 다 만들어서.)
- 김보향 다 만들앙.(다 만들어서.)
- 강순화 다 만들아사. 이제 저 창고에 강 보라, 테와 맷 개 싯저.(다 만들어야. 이제 저 창고에 가서 봐라, ‘테와’ 맷 개 있어.)
- 김보향 예, 예. 이땅 찍으쿠다.(예, 예. 이따가 찍겠습니다.)
- 권미소 요거는 뭘로 멘들앗수과?(요거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 강순화 저 거세기 옛나엔이 저 노꽃 잇엉 헷주만은 이젠 나이론 노꽃덜 잘 나오난이다 그런 거로 헌다.(저 옛날에는 저 노끈 있어서 했지만 이젠 나일론 노끈들 잘 나오니까 그런 거로 해.)
- 김보향 나이론 노꽃 말고.(나일론 노끈 말고.)
- 강순화 으, 옛날은 옛날은이 저 멘세 노꽃으로 헷주게.(으, 옛날은 옛날은 저 면화 실노끈으로 했지.)
- 김보향 멘세 노꽃. 아까 그풀 만들 때.(면화 실 노끈. 아까 그풀 만들 때.)
- 강순화 나이론 노꽃 엊으난 멘세 노꽃으로 헤영. 우리 허영 지프당 어떤 때이 씩엉 그게 그차지민이 테와이 터나. 터나민 심지 못허여. 다른 사름이 심어줘사.(나일론 노끈 없으니까 면화 노끈으로 해서. 우리 해서 짚다가 어떤 때 씩어서 그게 끊어지면 ‘테와’이 떠나. 떠나면 잡지 못해. 다른 사람이 잡아줘야.)
- 김보향 계난 나이롱 나오기 전에 멘세 나오기 전에?(그러니까 나일론 나오기 전에 면화 실 나오기 전에?)

7)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강순화 멘세 나오기 전엔 뒷으로 헤신디사 몰라. 우리 육양 보난이.(면화 실 나오기 전에는 무엇으로 했는지 몰라. 우리 커서 보니까.)

김보향 남총?(종려나무?)

강순화 남총으로 헤신가?(종려나무로 했나?)

김보향 신사라?(뉴질랜드삼?)

강순화 신사라 할망덜 우리 어명 어린 때나 헛주. 우리 어린 때는 그 멘세 노꽃.(뉴질랜드삼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나 했지.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면화 실 노끈.)

김보향 계난 삼춘은 남총이나 신사라 안 해 봤?(그러니까 삼춘은 종려나무나 뉴질랜드삼 안 해 봤어?)

강순화 남총, 신사라 안 해서. 겐디 이 섬이가 ㅎ꼼이 웃드르보단 개방, 개방 젤 제기 개방된다.(종려나무, 뉴질랜드삼 안 했어. 그런데 이 섬이 조금 ‘웃드르’보다 개방, 개방 제일 재게 개방된다.)

김보향 어떻허영?(어떡해서?)

강순화 이 섬이가 대마도 안 가 온 사람 없어. 대개 일본말이 우리덜이 쟁시그라 사라, 사라도 일본말. 젯가락그라 하시.(이 섬이 대마도 안 갔다 온 사람 없어. 대개 일본말이 우리들이 접시보고 ‘사라’, ‘사라’도 일본말. ‘젖가락’ 보고 ‘하시’.)

김보향 으.(으.)

강순화 우리 이제 그냥 쓴다게. 계난 일본말이 ㅎ꼼 잇어. 겨난 일본말이 이디가 ㅎ꼼 잇어.(우리 이제 그냥 써. 그러니까 일본말이 조금 있어. 그러니까 일본말이 여기가 조금 있어.)

김보향 으.(으.)

강순화 겨고 이디가 웃드르보다 용실 하영 안 허영 바당만 밀엉 사난이 ㅎ꼼이 깨깻 허곡이 웃드르보다 깨깻허여이. 경허난 어떤 사람의 와도 이 섬인 완 빵 아, 깨깻허다 헌다.(그리고 여기가 ‘웃드르’보다 농사를 많이 안 하고 바다만 믿고 사니까 조금 깨끗하고 ‘웃드르’보다 깨끗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이 섬에는 와서 보고 아, 깨끗하다고 해.)

김보향 계난 대마도 왔다 갔다 허멍 빨리?(그러니까 대마도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강순화 으, 우리 어머니덜 어머니뻘덜은 다 대마도 가왓어. 우리 어머닌 저 북해도꺼 지 가오그렌 물질허레.(으,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뻘들은 다 대마도 갔다 왔어. 우리 어머니는 저 북해도까지 갔다 왔다고 물질하려.)

김보향 물질허레.(물질하려.)

강순화 그땐 텐 내 분 때난 북해도꺼지. 우린 말이 북해도주, 어디에 부텄는지도 몰라.(그때는 (길을) 터서 내 버린 때니까 북해도까지. 우린 말이 북해도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

김보향 예, 예. 테왁이 위이 쭈 있고 물건 놓는 걸 뭐렌 골아?(예, 예. ‘테왁’이 위에 박 있고 물건 넣는 걸 뭐라고 말해?)

강순화 망사리. 이건 어음⁸⁾.(‘망사리’. 이건 ‘어음’.)

김보향 어음이지예. 계난 삼춘 그 어음을, 어음은 낭으로 둑 있는 거 아니?('어음'이지요. 그러니까 삼춘 그 ‘어음’을, ‘어음’은 나무로 돋 있는 거 아니?)

강순화 낭으로 텐 거 있어, 나.(나무로 된 거 있어, 나.)

김보향 계난 그 낭은 무슨 낭이라?(그러니까 그 나무는 무슨 나무야?)

강순화 그 낭은이 질긴 낭으로 혜산덴. 웃드르 강 혜 온다. 겨민이 그 웃드르서 폴례 온다. 장에도 오곡. 또 장 안 난 때 옛날 우리 장 안 난 때 이디 이렇게 미영 온다, 폴례. 폴례 오민 다 사.(그 나무는 질긴 나무로 해야 한다고. ‘웃드르’ 가서 해 와. 그럼 그 ‘웃드르’에서 팔려 와. 시장에도 오고. 또 시장 안 생길 때 옛날 우리 시장 안 났을 때 여기 이렇게 매서 온다, 팔려. 팔려 오면 다 사.)

김보향 그거를.(그거를.)

강순화 이젠 그거 안 행 그거를 요샌 저 영 물 누리는 거이.(이젠 그거 안 해서 그거를 요새는 저 이렇게 물 내리는 거.)

김보향 파이프, 호수?(파이프, 호스?)

강순화 호수로 행 다 멘들아. 나도 낭으로 헌 거 두 개 싯고 호스로 헌 거 두 개 싯고 헷저.(호스로 해서 다 만들어. 나도 나무로 한 거 두 개 있고 호스로 한 거 두 개 있고 헌.)

김보향 계민, 삼춘은 물질 갈 때 그 망사리를 뗇 개나 가정 가난?(그럼 삼춘은 물질 갈 때 그 ‘망사리’를 몇 개나 가져서 갔었어?)

강순화 망시린이 하나빼끼 안 헌다. 그 테왁에 망시리 하나.(‘망사리’는 하나밖에 안 한다. 그 ‘테왁’에 ‘망사리’ 하나.)

김보향 망시리 하나.(‘망사리’ 하나.)

강순화 옛날은이 요만이 작앙이 요만이 테왁도 요만은 허고 망시리도 요만은 허민 그거 ㅋ득으민 나 불어. 경허난 물건이 핫주게.(옛날은 요만하게 작아서 요만하게 ‘테왁’도 하고 ‘망사리’도 요만하면 그거 가득하면 나와 버려. 그러니까

8) ‘어음’은 망사리에 그물을 끼워 고정시키기 위해 나무나 대로 만든 둥근 테두리를 말한다.

- 물건이 많았지.)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경헌디 이젠이 망시리도 이만큼 테왁도 이만큼. 어이구, 허루 혜원 나지 안허고.(그런데 이젠 '망시리'도 이만큼 '테왁'도 이만큼. 아이고, 하루 종일 나오지 않고.)
- 김보향 그치예. 허루 혜원 물에 들엉예.(그렇지요. 하루 혜원 물에 들어서요.)
- 강순화 우린이 물때 존 때 춤들이 혼 번 허영이 망시리 그득으민 뛰나마나 이디 쌓여도 나 불어.(우린 물때 좋을 때 참들이 한 번 해서 '망시리' 가득하면 되나마나 여기 쌓여도 나와 버려.)
- 김보향 음.(음.)
- 강순화 나 불엇주만은 옛날은 경햇주만은 이젠 경 햄샤? 경허민 우리 헐땐이 구제기 가 옹기 짓어져이. 영 영.(나와 버렸지만 옛날은 그랬지만 이젠 그렇게 하니? 그러면 우리 할 땐 소라가 모여 있어. 이렇게 이렇게.)
- 김보향 하하하.(하하하.)
- 강순화 그때 구제기 안 받아세. 전복만 받안.(그때 소라 안 받았어. 전복만 받았어.)
- 김보향 전복만 받안.(전복만 받았어.)
- 강순화 구제기 아이 받아이 구제진이. 우린 전복 트젠 허민 이만은 터이. 이만은 텡 영 영 허단 전복 터지민 확허게 누려강 확허게 일령. 구제기 잡젠 허민 쭉 누려가사.(소라 안 받아서 소라. 우린 전복 뜨려고 하면 이만큼은 떠. 이만큼은 떠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전복 뜨면 확하게 내려가서 확 일으켜서. 소라 잡으려고 하면 쭉 내려가야.)
- 김보향 아.(아.)
- 강순화 경허영 영 보민 이디 구제기가 옹기 짓어져. 경혜도 구제기 중간에사 저 일본 무역이 터지난에 받았주만은 이젠 또 막아지난 구제기 시세가 었다. 이젠 또.(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소라가 모여 있어. 그래도 소라 중간에야 저 일본 무역이 트이니까 받았지만 이젠 또 막히니까 소라 시세가 없어. 이젠 또.)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경허영 서른댓 마흔댓 땐 구제기 수출허난 구제기에 돈 하영 벌었저.(그래서 서른댓 마흔댓 때는 소라 수출하니까 소라에 돈 많이 벌었어.)
- 김보향 그민 삼춘 여기는 전복 허고 그 후에 구제기 허고 우미 미역은 안 헤낫수과? 톳, 우미, 미역?(그럼 삼춘 여기는 전복 하고 그 후에 소라 하고 우뭇가사리 매역은 안 했었습니까? 톳, 우뭇가사리, 미역?)
- 강순화 아이고, 무사 안 허느니게.(아이고, 왜 안 하니.)
- 김보향 무사 안 허느니.(왜 안 하니.)
- 강순화 미역은이 미역하고 톳은이 이 묘을로이. 질 차음은 반으로 허단 반으로 허단 열 집이나 다섯 집이나 허영 지만씩 허단 이젠 사름이 엊어 가난 영 질로 갈랑 동쪽 서쪽 허영이 허단 이젠 또 이젠이 이젠 또 지만씩 험저.(미역은 미역하고 톳은이 마을로. 제일 처음은 반으로 하다가 반으로 하다가 열 집이나 다섯 집이나 해서 자기만 하다가 이젠 사람이 없어 가니까 이렇게 길로 갈라서 동쪽 서쪽 해서 하다가 이제는 또 이제는 또 자기만 했어.)
- 김보향 아, 이젠 또 지만씩 허멘.(아, 이제는 또 자기만씩 하면서.)
- 강순화 톳도 엇고 허난 지만씩 허민이 그자 강 허여지는 양. 장남 신 사름은 하영 허고.(톳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만씩 하면 그저 가서 하는 양. 일꾼 있는 사람은 많이 하고.)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날 그튼 사름은 해끔만 허고 경허영.(나 같은 사람은 조금만 하고 그러니까.)
- 김보향 계난 것도 마중 가사 텔 거라부난예? 장남 신 사름덜은?(그러니까 것도 마중 가야 될 거니까요? 일꾼 있는 사람들은?)
- 강순화 으. 그거 다 쳐 내사.(으. 그거 다 쳐 내야.)
- 김보향 게민 그거 마중 간덴 헙니까? 풍중 간덴 헙니까?(그럼 그거 마중 간다고 합니까? '풍중' 간다고 합니까?)
- 강순화 풍중⁹⁾.('풍중'.)
- 김보향 으, 풍중 가는 거라?(으, '풍중' 가는 거야?)
- 강순화 풍중. 아이, 풍중 신 사름은 하영 허영.('풍중'. 아이, '풍중' 있는 사람은 많이 해서.)
- 김보향 하영 허고.(많이 하고.)
- 강순화 그추룩 허고. 아이, 혼자 얼마나 허느니게. 그추룩.(그처럼 하고. 아이, 혼자 얼마나 하니. 그처럼.)
- 김보향 아까 망시리 하나만 들렁 가는 거라예?(아까 '망시리' 하나만 들고 가는 거지 요?)
- 강순화 으게.(으.)
- 김보향 혹시 조락 거튼 거 작은 거?(혹시 '조락' 같은 거 작은 거?)

9) '풍중'은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을 들어 주기 위해, 해녀가 바다에서 나오는 시간에 맞춰 나가서 마중하는 것을 말한다.

강순화 으, 조락도 잇지게. 배에 차는 것도 있고.(으, ‘조락’도 있지. ‘배’에 차는 것도 있고.)

김보향 배에 차는 거.(배에 차는 거.)

강순화 배에 차는 거 나도 잇저게.(배에 차는 거 나도 있어.)

김보향 예.(예.)

강순화 배에 차는 거도 거 영 배에 창 그걸로이, 또 닷돌도 있고. 닷돌 허영이 옛날엔 돌로 헤세. 닷돌로 허민이 물 씬다, 이디. 물 씨민 영 허민 질질질질 끊으민 전복 이디 셔도 “전복아 훗날랑 보게이.”(배에 차는 것도 거 이렇게 배에 차서 그걸로, 또 닷돌도 있고. 닷돌 해서 옛날엔 돌로 했잖아. 닷돌로 하면 물 세, 여기. 물 세면 이렇게 하면 질질질질 끌면 전복 여기 있어도 “전복아 훗날 보자.”)

김보향 하하하.(하하하.)

강순화 영허영 그거이 전복 베리멍 그냥 가 불어.(그러면서 그거 전복 보면서 그냥 가 버려.)

김보향 아.(아.)

강순화 이젠 닷가지 험세. 영현 닷가지. 딱 허민이 전복 본 전복 내불지 안허여. 다터.(이젠 닷가지 하잖아. 이런 닷가지. 딱 하면 전복 본 전복 내버리지 않아. 다 떠.)

김보향 닷가지 쪘로 만들엉 나온 거?(그럼 닷가지 쇠로 만들어서 나온 거?)

강순화 어. 닷가진 쪘로 만들엉 나온 거.(어. 닷가진 쇠로 만들어서 나온 거.)

김보향 게민 그거 닷가지를 영 돌에 강 걸립니까?(그럼 그거 닷가지를 이렇게 돌에 가서 걸립니까?)

강순화 어, 걸려. 걸령 영 허민이 그것도 물 셀 땐 너무 질게 허민 큰일 나. 막 물속더 레 막 들어가. 막 들어가. 사름이 죽을 정도라. 게민 나가 물속에 들어강 나 숨만이 헤영 티민, 올라와가민 테왁이 저만이 가 불어. 물 씬다.(어, 걸려. 걸려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물 셀 땐 너무 길게 하면 큰일 나. 마구 물속으로 마구 들어가. 사람이 죽을 정도야. 그럼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 숨만큼 해서 뜨면, 올라와 가면 ‘테왁’이 저만큼 가 버려. 물 세.)

김보향 물 셀어.(물 세.)

강순화 물 씬다. 이던 저 큰물디 닮지 안허영 물 씬다.(물 세. 여긴 저 ‘큰물’ 같지 않아서 물 세.)

김보향 게민 닷돌은 조금만헌 거 허민 안 뛰큰게.(그럼 닷돌은 조그마한 거 하면 안

되겠네.)

강순화 조그만헌 거 안 뛰여. 닷돌 있어, 저디. 나 만딱 헤여난 거. 이만씩헌 거.(조그마한 거 안 돼. 닷돌 있어, 저기. 나 모두 했었던 거. 이만한 거.)

김보향 아, 쓸어 가지 말렌예.(아, 쓸어 가지 말라고요.)

강순화 으. 게도 질질질질 끊어.(으. 그래도 질질질질 끌어.)

김보향 그민 조락은 하나만? 망시리 하나 조락 하나?(그럼 ‘조락’은 하나만? ‘망시리’ 하나 ‘조락’ 하나?)

강순화 조락 하나.(‘조락’ 하나.)

김보향 예, 예. 이제 비창 가정 갈 거?(예, 예. 이제 ‘비창’ 가지고 갈 거?)

강순화 비창 창. 손에 안 가정 텹긴다. 창 텹기단 확 뻥 확 영 허주. 손에 안 아정 텹긴다. 옛날 저 큰물디 사름덜은 손에 감양 텹기는디 이딘 경 안 허다.(‘비창’ 차서. 손에 안 가지고 다녀. 차고 다니다가 확 빼서 확 이렇게 하지. 손에 안 가지고 다녀. 옛날 저 ‘큰물’ 사람들은 손에 감아서 다니는데 여기 그렇게 안 해.)

김보향 게민 손에 빈손으로 영?(그럼 손에 빈손으로 이렇게?)

강순화 으, 빈손, 빈손으로. 옛날은 장갑 찍사? 이추룩. 이젠 장갑 찌고 아이고.(으, 빈손, 빈손으로. 옛날은 장갑 켜니? 이처럼. 이젠 장갑 끼고 아이고.)

김보향 무사 굴갱인 안 가정 갓수과?(왜 호미는 안 가지고 갔습니까?)

강순화 골개긴 지픈 바당에 가정 가민 궂어. 골개기 가정 가민 어디 테왁이나 꽂아 됭 가주, 숨빌 때마다이. 지픈 바당에 골개기 못 앗양 간다게. 우리 골개기 안 앗양 텹겼자게.(호민 깊은 바다에 가지고 가면 궂어. 호민 가지고 가면 어디 ‘테왁’이나 꽂아 두고 가지, 물에 들 때마다. 깊은 바다에 호미 못 가지고 가. 우린 호미 안 가지고 다녔어.)

김보향 게민 그건 전복 혈 때라예?(그럼 그건 전복 할 때지요?)

강순화 전복혈 때. 경허난 골개기 가정 텹기는 사름은 요만헌 사름, 요만헌 디 오물락 허게 숨병 영 영 허는. 우린 닷돌, 이 닷이 열 발씩 행 텹겨세계.(전복할 때. 그러니까 호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요만한 사람, 요만한 데 쏙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우린 닷돌, 이 닷이 열 발씩 해서 당겨서.)

김보향 경 질게.(그렇게 질게.)

강순화 닷돌 열 발씩 행 질게 허민 한 스무 밧 탁 논다게. 노민 걷으멍 걷으멍 영 영 사령 걷으멍 경허영 물질허여.(닷돌 열 발씩 해서 길게 하면 한 스무 군데 탁 놓아. 놓으면 걷으면서 걷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려서 걷으면서 그래서 물 질해.)

- 김보향 톳 헐 때 뭐 들렁 가야 될 거라?(톳 할 때 뭐 들고 가야 될 거야?)
- 강순화 톳 헐 때 호미 허곡 무슨 저, 옛날엔이 이런 망시리 헌 것덜 가정 가는디 이젠 망시리 헌 거여.(톳 할 때 호미 하고 무슨 저, 옛날엔 이런 ‘망시리’ 헌 것들 가지고 가는데 이젠 ‘망시리’ 헌 거며.)
- 김보향 옛날 거로 굽어 줘도 돼.(옛날 거로 말해 줘도 돼.)
- 강순화 옛날은 망시리 헌 거로. 망시리 헌 거 첨, 구물이 구물 만딱 시민 저 바당에 올라시민이 죽어당 짤랑 만딱 앗앙 펜들양 그걸로 져냈저.(옛날은 ‘망시리’ 헌 거로. ‘망시리’ 헌 거 참, 그물이 그물 모두 있으면 저 바다에 올랐으면 주워다가 잘라서 모두 앓아서 만들어서 그걸로 졌었어.)
- 김보향 게민 그물 죽어당 멘든 거?(그럼 그물 주워다가 만든 거?)
- 강순화 으. 저 거시기 바당에 떠뎅기는 거 죽어당.(으. 저 거시기 바다에 떠다니는 거 주워다가.)
- 김보향 건 배에서 잘라진 거예?(건 배에서 잘린 거요?)
- 강순화 으, 내분 짓덜. 이젠이 가마스¹⁰⁾로 혈다. 이젠 가마스로.(으, 내버린 것들. 이젠 가마니로 해. 이젠 가마니로.)
- 김보향 게민 삼춘 메역 헐 때랑 톳 헐 때랑 전복 헐 때랑 망시리가 특납니까?(그럼 삼춘 미역 할 때와 톳 할 때와 전복 할 때 ‘망시리’가 다릅니까?)
- 강순화 아니. 톳 허는 망시리가 그 망시리 그 망시리. 어음만 잊지. 망시리 헌 거 놋당 톳 허여. 망시리 헌 거 놋당. 그걸로 안 허여.(아니. 톳 하는 ‘망시리’가 그 ‘망시리’. ‘어음’만 있지. ‘망시리’ 헌 서 놋다가 톳 해. ‘망시리’ 헌 거 놋다가. 온전한 걸로 안 해.)
- 김보향 그걸로 안 해.(온전한 걸로 안 해.)
- 강순화 우리가 망시리 훈 일 년, 반 년 허민이 구쟁기 끊어 땅겨 나민 이런 디 다 다인 다개.(우리가 ‘망시리’ 한 일 년, 반 년 하면 소라 끌고 다니고 나면 이런 데 다 닮아.)
- 김보향 헐어근에.(헐어서.)
- 강순화 헐엉. 경허민 짓양 허주게. 그걸 클렁 이녁냥으로 망시리 짱 돌양 그거 놋당 톳 허여. 데껴불지 안허여.(헐어서. 그러면 걸어서 하지. 그걸 풀어서 자기대로 ‘망시리’ 짜서 달아서 그거 놋다가 톳 해. 버리지 않아.)
- 김보향 메역은?(미역은?)
- 강순화 미역도 그걸로 허영 담아내고.(미역도 그걸로 해서 담아내고.)
- 김보향 으, 그럼 전복 허는 것만 새 걸로 행 좋은 걸로 헌 거라예?(으, 그럼 전복 하는 것만 새 걸로 해서 좋은 걸로 한 거지요?)
- 강순화 어.(어.)
- 김보향 그민 그 망시리도 보민 그물 보민 그물도 영 죽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 안해? 그런 건 엇어?(그럼 그 ‘망시리’도 보면 그물 보면 그물도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 않아? 그런 건 없어?)
- 강순화 아, 망시리 구제기 잡는 건 힙끔 훑고.(아, ‘망시리’ 소라 잡는 건 조금 긁고.)
- 김보향 훑고.(긁고.)
- 강순화 으, 이제 예를 들엉 말허민 퀴살 허는 건 좀질고.(으,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성게 하는 건 좀 가늘고.)
- 김보향 퀴살 허는 건.(성게 하는 건.)
- 강순화 망시리가 두 가지로.(‘망시리’가 두 가지로.)
- 김보향 그럼 크기도? 전복 허는 건 망시리가 좀 죽을 거 아니?(그럼 크기도? 전복하는 건 ‘망시리’가 좀 작은 거 아니?)
- 강순화 망시리 전복하는 것도 이젠 커. 옛날.(‘망시리’ 전복하는 것도 이젠 커. 옛날.)
- 김보향 지금은 커.(지금은 커.)
- 강순화 옛날.(옛날.)
- 김보향 옛날은 좀 죽을 거 아니?(옛날은 좀 작을 거 아니?)
- 강순화 으.(으.)
- 김보향 톳 허는 건 더 클 거 아니?(톳 하는 건 더 클 거 아니?)
- 강순화 그거 그거. 너미 크민 죽내지느냐? 하하.(그게 그거. 너무 크면 죽낼 수 있겠니? 하하.)
- 김보향 예.(예.)
- 강순화 이던 멀어이. 갯가시 물싸민 죽내겐 허민 남저덜 죽어난다개.(여긴 멀어. 갯가에 물싸면 죽내려고 하면 남자들 죽어나.)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남제 죽내사주, 예펜덜 못 허여.(남자 죽내야지, 여자를 못 해.)
- 김보향 계난 풍중이 있어사는 거.(그러니까 ‘풍중’이 있어야 하는 거?)
- 강순화 으. 풍중이 있어야.(으. ‘풍중’이 있어야.)
- 김보향 그 풍중 갈 때는 경운기 끗엉. 옛날은 경운기 엊엇주만은 지게로 죄 완?(그

10) ‘가마스’는 일본어 ‘かます’에서 온 말로, ‘가마니’라는 뜻이다.

- ‘풍중’ 갈 때는 경운기 끌고. 옛날은 경운기 없었지만 지게로 쳐 왔어?)
- 강순화 지게로. 옛날은 다 경운기 엇엇 지게로. 우리가 혼 예순, 순아홉에, 순아홉에 경운기 나왔지. 순아홉에. 그 전인 다 지게로. 우린 배로. 게나마나 지게. 경운기 처음 나난 우리가 처음 허고이. 가파도 이여까도 엊엇저께. 이여까도 우리가 처음 허고이. 게난 이여까 하나민 이 동네 다 돌아댕겨. 빌레 오민 안 줘지느냐?(지게로. 옛날은 다 경운기 없어서 지게로. 우리가 한 예순, 순아홉에, 순아홉에 경운기 나왔어. 순아홉에. 그 전엔 다 지게로. 우린 배로. 그러나마나 지게. 경운기 처음 나오니까 우리기 처음 하고. 가파도 리어카도 없었어. 리어카도 우리가 처음 하고. 그러니까 리어카 하나면 이 동네 다 돌아다녔어. 빌리려 오면 안 줄 수 있니?)
- 김보향 빌려줘사주.(빌려줘야지.)
- 강순화 빌려줘사. 경허난 경운기가 혼 순, 나가 이 집 짓을 때 경운기로 허난이 순 한, 예순 나기 전이. 순 일고오답에 경운기 나왔지. 그때야 경운기 허연 우리가 경운기 탄 댕겼져.(빌려줘야. 그러니까 경운기가 한 순, 내가 이 집 지을 때 경운기로 하니까 순 한, 예순 되기 전에. 순 일고여덟에 경운기가 나왔어. 그때야 경운기 해서 우리가 경운기 타고 다녔어.)
- 김보향 톳 허러 갈 맨 호미 들렁 가잖아예?(톳 하러 갈 맨 호미 들고 가잖아요?)
- 강순화 으.(으.)
- 김보향 그 바당에 쓰는 호미랑 밧디 쓰는 호미랑 트남니까?(그 바다에 쓰는 호미랑 밭에 쓰는 호미랑 다릅니까?)
- 강순화 아니우다. 다 혼 까치.(아닙니다. 다 한 가지.)
- 김보향 혼 가지. 계민 여기 바당에 들어가는 호미를 호멩이 그런 말은 안 써 봤?(한 가지. 그럼 여기 바다에 들어가면 호미를 ‘호멩이’ 그런 말은 안 써 봤?)
- 강순화 안 혈다.(안 해.)
- 김보향 그냥 호미?(그냥 호미?)
- 강순화 그냥 호미.(그냥 호미.)
- 김보향 이제 질구덕에 지들커 놓고, 테왁 놓고.(이제 ‘질구덕’에 뱜깜 놓고, ‘테왁’ 놓고.)
- 강순화 불 초울 때 쓰는 거 놓곡 거 혼 짐이라.(불 쫓 때 쓰는 거 놓고 거 한 짐이야.)
- 김보향 혼 짐이라.(한 짐이야.)
- 강순화 지들커도 옛날도 보리낭 가져간 사름은 “아, 보리낭 가져갓저게.” 허고 낭 가져가민 이레 오라, 이레 오라 허고. 불 출 때 이디가이 이디가 시뻘겋 행 물꾸 럭 발초록 이추록 헉다.(뻘감도 옛날도 보릿짚 가져간 사람은 “아, 보릿짚 가 져갔구나.” 하고 나무 가져가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고. 불 쫓 때 여기가 여기가 시뻘겋게 해서 문어 발처럼 이처럼 해.)
- 김보향 추웡?(추워서?)
- 강순화 으, 하도 구워 놓민.(으, 하도 구워 놓으면.)
- 김보향 하도 구워 놓민. 불에. 경 후루메 쟁?(하도 구워 놓으면. 불에. 그렇게 ‘후루메’ 써서?)
- 강순화 으, 후루메 쟁. 후루메 쟁. 속곳 입영이 눈 평평 올 때. 험벽눈 올 때가 좋아 이.(으, ‘후루메’ 써서. ‘후루메’ 서서. ‘속곳’ 입고 눈 평평 올 때. 함박눈 올 때가 좋아.)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부름 안 불영이.(바람 안 불어서.)
- 김보향 험벽눈입니다.(함박눈입니다.)
- 강순화 으, 험벽눈 온 때가 복사복사복사 올 때 폭 허주게. 그때 가민이 부름 아니 불어. 경 안헐 때 부름 작작 불민 부름 의지허영, 의지 촛양덜 댕기주만은 그럴 땐 이 아무 디라도 불살르민 좋아져. 쟁헨 우리 살았져.(으, 함박눈 올 때가 ‘복사복사복사’ 올 때 ‘폭’ 하지. 그때 가면 바람 안 불어. 그렇지 않을 때 바람 ‘작작’ 불면 바람 의지해서, 의지 찾아서들 다니지만 그럴 땐 아무 데라도 불사르면 좋아져. 그렇게 우리 살았어.)
- 김보향 예. 게난 웃은 아까 속곳 입영 갔던 거예?(예. 그러니까 웃은 아까 ‘속곳’ 입어서 갔던 거요?)
- 강순화 으.(으.)
- 김보향 물에 들 때 지금이야 고무옷이주만은.(물에 들 때 지금이야 고무옷이지만.)
- 강순화 으, 속곳.(으, ‘속곳’.)
- 김보향 그때.(그때.)
- 강순화 속곳 입영.(‘속곳’ 입고.)
- 김보향 속곳은 어떻 만든 것과?(‘속곳’은 어떻게 만든 겁니까?)
- 강순화 으, 우리대로 다 만들앙. (으, 우리대로 다 만들어서.)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만들앙 나 곱게 만들안 놔두난 우리 샛똘 저 상모 시집갓저게. 그디서이 그디서 입영 이후룩현 사름 허肯 가져가 불언.(만들어서 내가 곱게 만들어서 놔두니까 우리 둘째딸 저 상모 시집갔어. 거기서 거기서 입고 이런 사람 하겠다고 가져가 벼렸어.)

- 김보향 아, 만들양 놔둔 거.(아, 만들어서 놔둔 거.)
- 강순화 혹시 입젠 또 멘들양 놔두난이 안 입어전. 저 고무옷 나난 안 입어전.(혹시 입으려고 또 만들어서 놔두니까 안 입게 돼. 저 고무옷 나오니까 안 입게 돼.)
- 김보향 삼춘 고무옷 난 게 멧 살 때쯤 낫수과?(삼춘 고무옷 나온 게 몇 살 때쯤 나왔습니까?)
- 강순화 고무옷은이 훈 마흔일고오답에 낫저.(‘고무옷’은 한 마흔일고여덟에 나왔어.)
- 김보향 그 전까지는 다?(그 전까지는 다?)
- 강순화 전까지는 그냥 이축헌 냥 물질해세계.(전까지는 그냥 이처럼 한 양 물질했어.)
- 김보향 속곳 입엉?(‘속곳’ 입고서?)
- 강순화 으, 속곳 입엉 그자 별경게.(으, ‘속곳’ 입고 그자 별것개.)
- 김보향 예. 계민 이제 속곳 물어보쿠다예. 속곳 이렇게 멘들민 여기, 오른쪽에 친이 잇수과, 웬쪽에 친이 잇수과? 어깨 끈?(예. 그럼 이제 ‘속곳’ 물어보겠습니다. ‘속곳’ 이렇게 만들면 여기, 오른쪽에 끈이 있습니까, 왼쪽에 끈이 있습니까? 어깨 끈?)
- 강순화 어깨. 옛날 속곳은 영 허영 영 헷주만은 우린, 우린 크난 영 허영 일로 영 허영 영 마딱 체여져. 영 허민 일로 단추 하나.(어깨. 옛날 속곳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 우린, 우린 크니까 이렇게 해서 이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두 째져. 이렇게 하면 이리로 단추 하나.)
- 김보향 단추 하나. 일로?(단추 하나. 일로?)
- 강순화 요 젓갱이 두 개.(요 겨드랑이 두 개.)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일로 시 개 경허영.(이리로 세 개 그렇게.)
- 김보향 예. 계민 여기는 어깨 끈이 잇엇예?(예. 그럼 여기는 어깨 끈이 있어요?)
- 강순화 어깨 끈 여기 오른쪽에.(어깨 끈 여기 오른쪽에.)
- 김보향 오른쪽에?(오른쪽에?)
- 강순화 오른쪽에.(오른쪽에.)
- 김보향 그민 여기 단추 메는 거잖아. 여기는 이미 메워진 거?(그럼 여기 단추 매는 거잖아. 여기는 이미 메워진 거?)
- 강순화 이건, 이건 쥐진 거.(이건, 이건 기워진 거.)
- 김보향 쥐진 거.(기워진 거.)

- 강순화 속곳이 영 별기민 영 별경 그자 영 입엉.(속곳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벌려서 그자 이렇게 입고.)
- 김보향 다리 담양 영 어깨 끼윙 여기는 영 멜 거예. 계민 여기는 여기 단추가 엇엇잖아 아. 그걸 뭐렌 골 거?(다리 담아서 이렇게 어깨 끼워서 여기는 이렇게 맬 거요. 그럼 여기는 여기 단추가 없었잖아. 그걸 뭐라고 말할 거?)
- 강순화 단추로 헷저게.(단추로 했어.)
- 김보향 단추로 헨?(단추로 했어?)
- 강순화 으, 단추. 여기 옛날에 여기서 간스메¹¹⁾ 공장 허고이. 간스메 구제기로 간스메 헤서이.(으, 단추. 여기 옛날에 여기서 통조림 공장 하고. 통조림 소라로 통조림 했어.)
- 김보향 맞수다.(맞습니다.)
- 강순화 간스메 공장 해나민 요쪽에 초소 옆이, 바로 초소 옆이선이 구제기로 단추 멘들아신에. 와이사스 단추.(통조림 공장하고 나면 요쪽이 초소 옆에, 바로 초소 옆에서 소라로 단추 만들었어. 와이셔츠 단추.)
- 김보향 와이사스 단추.(와이셔츠 단추.)
- 강순화 이거, 이거 다 구제기 구제기.(이거, 이거 다 소라 소라.)
- 김보향 껌질로?(껌질로?)
- 강순화 껌죽으로 멘들양.(껌질로 만들어서.)
- 김보향 껌죽으로 멘들양.(껌질로 만들어서.)
- 강순화 이거 다 이디서 멘든 거라.(이거 다 여기서 만든 거야.)
- 김보향 예.(예.)
- 강순화 이건 혼허여. 이건이 가파도 사름은 이거 혼허게 우리가 해서 단추 멘든 거.(이건 혼해. 이건 가파도 사람은 이거 혼하게 우리가 해서 단추 만든 거.)
- 김보향 계난 삼춘넨 둘메기 만들어 보거나는 안 햇구나?(그러니까 삼춘네는 매듭단추 만들어 보거나는 안 했구나?)
- 강순화 으?(으?)
- 김보향 무작단추 만들어 보거나는 안 햇구나?(매듭단추 만들어 보거나는 안 했구나?)
- 강순화 무작?(‘무작’?)
- 김보향 웨 이런 천으로?(왜 이런 천으로?)
- 강순화 아, 무작, 무작.(아, 매듭, 매듭.)

11) ‘간스메’는 일본어 ‘カンヅメ’에서 온 말로 ‘통조림’을 말한다.

김보향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강순화 우리 므작.(우리 매듭.)
 김보향 므작 맞수다.(매듭 맞습니다.)
 강순화 속곳은 다 므작. 다 므작.(‘속곳’은 다 매듭. 다 매듭.)
 김보향 맞수다게.(맞습니다.)
 강순화 속곳은 일로 이레 다 므작.(‘속곳’은 일로 이리 다 매듭.)
 김보향 계난 그거 므작이렌 골았수과, 둘메기렌 골았수과? 둘메기렌 안 혜 빤?(그러니까 그거 ‘무작’이라고 했습니까, ‘둘메기’라고 했습니까? ‘둘메기’라고 안 해 봤어?)
 강순화 아니. 므작 므작.(아니. ‘무작’, ‘무작’.)
 김보향 예. 계난 여기도 므작이었고 여기도 다 모작이었던 거라예?(예. 그러니까 여기도 매듭단추였고 여기도 다 매듭단추였던 거지요?)
 강순화 으.(으.)
 김보향 단추 나온 건 그 후체?(단추 나온 건 그 후에?)
 강순화 으, 쉽게.(으, 쉽게.)
 김보향 쉽게.(쉽게.)
 강순화 쉽게. 계난 첨 므작 므작이 맞다. 므작이.(쉽게. 그러니까 참, ‘무작’ ‘무작’이 맞다. ‘무작’이.)
 김보향 예. 자 그럼 속곳 입었수다예. 우이 뭐 걸칠 거?(예. 자 그럼 ‘속곳’ 입었어요. 위에 뭐 걸칠 거?)
 강순화 아니 걸천.(안 걸쳤어.)
 김보향 아니 걸천.(안 걸쳤어.)
 강순화 경허난 추우민 닥닥닥 털명 불 밑이 왕 그거 입영 이젠 후루메 이추룩 영 쟁 앗아 볼 초는 거라. 아이고, 우리 진짜 험하게 살았지.(그러니까 추우면 ‘닥닥닥’ 떨면서 불 밑에 와서 그거 입고 이제 ‘후루메’ 이처럼 써서 앗아서 불 죄는 거야. 아이고, 우리 진짜 험하게 살았어.)
 김보향 계난 물적삼¹²⁾ 입어난 건 언제파?(그러니까 ‘물적삼’ 입었던 건 언제입니까?)
 강순화 물적삼 입은 건이 우리 물적삼 안 입어 봤지. 물적삼 입으민 베영 누려가지 못 허영 그자 허단 고무옷 나난 그냥 입었주. 물적삼 안 입어 봤지.(‘물적삼’ 입은 건 우리 물적삼 안 입어 봤어. ‘물적삼’ 입으면 무거워서 내려가지 못해서

12) ‘물적삼’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적삼을 말하다.

그냥 하다가 ‘고무옷’ 나오니까 그냥 입었지. ‘물적삼’ 안 입어 봤어.)
 김보향 계난 그 시대 물적삼 입어난 사름 엊어낫수과?(그러니까 그 시대 ‘물적삼’ 입었던 사람 없었습니까?)
 강순화 엇엇저. 가파돈 엇어. 가파돈 바당이 지펴놓난 지픈 바당 뎅겨놓난이.(없었어. 가파도는 없어. 가파도는 바다가 깊으니까 깊은 바다에 다니니까.)
 김보향 물적삼 입으민 못 내려가?(‘물적삼’ 입으면 못 내려가?)
 강순화 어. 물 싸경, 물 싸경 못 누려가.(어. 물을 싸서, 물을 싸서 못 내려가.)
 김보향 아, 옷이?(아, 옷이?)
 강순화 영 부꺼 불 거닮아예.(이렇게 부풀어 버릴 거 같아요.)
 강순화 으. 게도 일로 이레 영 허영 딱 멘다. 메고 이디 므작 행 영 허곡 헤도이 아멩 헤도 베여.(으. 그래도 일로 이리 이렇게 해서 딱 매. 매고 여기 매듭단추 해서 이렇게 하고 해도 아무래도 무거워.)
 김보향 으.(으.)
 강순화 베난 광목으로게 그땐이. 난이 열여덟에 저 조합원이라이. 계난 일본 놈 가 부난이 속곳 헐 거 엇언.(무거우니까 광목으로 그땐. 난 열여덟에 저 조합원 이야. 그러니까 일본 놈 가 버리니까 ‘속곳’ 할 거 없었어.)
 김보향 아.(아.)
 강순화 열여덟에 물질 베우젠 허난 속곳 헐 거 엇언. 우리 이모가 훼장이라낫저. 그 때. 이모가 저 울 어무니신더래 “조합원에 들려와 블서. 속곳 그슴 나옵니다.” 계난 조합원에 드난 물수건하고 속곳 그슴 나왔더라. 광목하고.(열여덟에 물질 배우려고 하니까 ‘속곳’ 할 거 없었어. 우리 이모가 희장이었어. 그때. 이모가 저 우리 어머니에게 “조합원에 들여 버리세요. ‘속곳’ 감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에 드니까 ‘물수건’하고 ‘속곳’ 감 나왔더라. 광목하고.)
 권미소 계난 조합에 들어사.(그러니까 조합에 들어야.)
 강순화 조합에 들어사.(조합에 들어야.)
 김보향 예, 예.(예, 예.)
 강순화 그땐이 광목도 어려와. 속곳 행 입젠 허난. 미녕으로 허민이 미녕이 베여. 미녕이 일곱새미녕¹³⁾으로 허민 베영이. 엇은 사름은 미녕으로도 행 입었저. 어 떻허느니?(그땐 광목도 어려워. ‘속곳’ 해서 입으려고 하니까. 무명으로 하면

13) ‘일곱새미녕’에서 ‘새’는 천의 날을 세는 단위다. 무명의 실의 짚기에 따라 ‘닷새미녕’, ‘엿새미녕’, ‘일곱새미녕’이라고 하는데 ‘일곱새미녕’은 아주 올이 고운 무명이다. ‘엿새미녕’은 백스무 올의 날실로 짠 무명으로 거칠고 품질이 좋지 못한데 ‘닷새미녕’은 ‘엿새미녕’보다 품질이 더 좋지 않다.

- 무명이 무거워. 무명이 일곱새무명으로 하면 무거워서. 없는 사람은 무명으로도 해서 입었어. 어떡하니?)
- 김보향 계난 미녕보다는 광목이 더 좋았던 거 아니?(그러니까 무명보다는 광목이 더 좋았던 거 아니?)
- 강순화 으, 으. 광목이 더 좋주게.(으, 으. 광목이 더 좋지.)
- 김보향 촌촌허난예, 천이.(촘촘하니까요, 천이.)
- 강순화 계난 그 시절에 속곳 그슴도 엇은 걸 물적삼 그슴 실 거냐?(그러니까 그 시절에 '속곳' 감도 없는 걸 '물적삼' 감이 있을 거니?)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엊어.(없어.)
- 김보향 자 속곳 입고, 눈에는?(자 '속곳' 입고, 눈에는?)
- 강순화 눈에 안경이 우린이 이 죽은 안경 안 헷저게. 안 행이 영 코 우로, 죽은 안경이라도 영 허영 후성¹⁴⁾, 후성허영 요추룩 허민 물 아래 누려가민이 죽은 안경은 영 눈 딱 벌라 불어야. 압력으로.(눈에 안경이 우린 이 작은 안경 안 했어. 안하고 이렇게 코 위로, 작은 안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후성', '후성' 해서 이처럼 하면 물 아래 내려가면 작은 안경은 이렇게 눈 딱 눌러. 압력으로.)
- 김보향 눌러정.(압력으로.)
- 권미소 지픈 데라부난.(깊은 데니까.)
- 강순화 압력으로 눈 벨르난 일로 이례 이만이 고무, 이저 거트민 풍선처록 돌아메영 영 돌아메영. 돌아메영 요디 ㅎ꼼만 터지민 물 들어. 경허민 물질 강 오민 그거 숙덕허느라고이.(압력으로 눈 누르니까 일로 이리 이만큼 고무, 이제 같으면 풍선처럼 달아서 이렇게 달아서. 달아서 여기 조금만 터지면 물이 들어가. 그럼 물질 갔다 오면 그거 쑤시느라고.)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경허영 허단 하도 허단 첨 후성 안경이엔 헨다. 후성 안경이.(그렇게 하다가 너무 하다가 참 '후성 안경'이라고 해. '후성 안경'이.)
- 김보향 후성 안경.('후성 안경.')
- 강순화 후성 안경 허단 그것도 선계, 마딱 마딱 쥐 불어. 그거 허단이 이젠 코 우로 요추룩. 요추룩 요렇게 영현 거. 영 헌 거 허단 우리 혼 혼 마흔, 쉰남은 나사 코 안경, 코로 영 안경 헌 거. 그게 잇어.('후성 안경' 하다가 그것도 있었는데, 모

14) '후성'은 일본어 'ふしん(浮心)'에서 온 '부력'이라는 뜻이다. '후성 안경'은 깊은 물속에서 압력 때문은 물안경이 눌렸을 때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공기 주머니가 옆에 달린 물안경을 말한다.

- 두 모두 쥐 벼렸어. 그거 하다가 이젠 코 위로 이처럼. 이처럼 이런 거. 하다가 우리 한 한 마흔, 쉰 넘어야 코 안경, 코로 이렇게 안경 한 거. 그게 있어.)
- 김보향 예. 안경이렌 헛수과, 눈이렌 헛수과?(예.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눈'이라고 했습니다?)
- 강순화 안경.(안경.)
- 김보향 계민 죽은 안경 큰 안경 헛수과?(그럼 작은 안경 큰 안경 했습니다?)
- 강순화 으. 후성 안경, 안경 그자.(으. '후성 안경', 안경 그자.)
- 김보향 으, 눈이렌은 안 굴안?(으, '눈'이라고는 안 말했어?)
- 강순화 아니, 눈이렌 안 허여. 안경.(아니, 눈이라고 안 해. 안경.)
- 김보향 계민 아까 물 들어시민 왕 영 다끌 거 아니?(그럼 아까 물 들었으면 와서 이렇게 닦을 거 아니?)
- 강순화 아니. 후성을 이제 ㅎ꼼만 터져도 물 들엉이 못 베려이.(아니. '후성'을 이제 조금만 터져도 물 들어서 못 봐.)
- 김보향 음.(음.)
- 강순화 경허민 그걸 다시 또 메왕이 이제 ㅋ트민이 고무 닮은 걸로 영 허영 이추룩 헌조록 허영 이디 딱 뮤엉 울로 허영 영 허영 엉경 요디가 딱 무끄곡 허민 지픈 디 내려가민 이걸로 공기가 털영 이게 봉쿠랑허영이.(그럼 그걸 다시 또 메워서 이제 같으면 고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처럼 한 자루 해서 여기 딱 뮤어서 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엉겨서 여기를 딱 뮤고 하면 깊은 데 내려가면 이걸로 공기가 되어서 이게 봉긋해서.)
- 김보향 뜨게, 압력 덜 받게.(뜨게, 압력 덜 받게.)
- 강순화 으, 압력 덜 받게. 계난 옛날 하르방덜도 머리가 좋앙이. 그추룩 헷어.(으, 압력 덜 받게. 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들도 머리가 좋아서. 그처럼 했어.)
- 김보향 계난 안경 안 다까도 월 정도로마씨?(그러니까 안경 안 닦아도 될 정도로요?)
- 강순화 다꼬지. 갈 때는 다까도.(닦지. 갈 때는 닦아도.)
- 김보향 안경 다끌 땐 뭐로 헛수과?(안경 닦을 때는 뭐로 했습니다?)
- 강순화 에이, 그자 그땐 아무 거라도 다깟저게.(에이, 그저 그땐 아무 거라도 닦았어.)
- 김보향 무사 속 안 허고?(왜 쑥 안 하고?)
- 강순화 속으로도 다꼬고 뭄으로도 다꼬고.(쑥으로도 닦고 모자반으로도 닦고.)
- 김보향 아, 뭄으로도 다꼬고. 속으로 안 해? 속?(아, 모자반으로 닦고. 쑥으로 안 해? 쑥?)
- 강순화 속으로도.(쑥으로도.)

- 김보향 숙.(쑥.)
- 강순화 어디 경 숙 가정 가는 사름 시냐? 뭄으로 해 다깟주.(어디 그렇게 쑥 가지고 가는 사람 있니? 모자반으로 해서 닦았지.)
- 김보향 숙, 뭄으로 다까서.(쑥, 모자반으로 닦았어.)
- 강순화 그땐 전복 하난이. 아이구, 첨.(그땐 전복이 많으니까. 아이고, 참.)
- 김보향 요즘에는 귀에 막 물 들어가지 말젠 뭐 허잖아예?(요즘에는 귀에 마구 물 들어가지 말라고 뭐 하잖아요?)
- 강순화 요즘은이 귀에 물 들카 부덴 만딱덜 막앙. 우린 어느 절에 귀에. 계난 지픈 물에 강 허민 이제 이착 귀가 막은 게 그거라이. 압력으로 행 막아서이, 이거. 이착으로 베끼 전화도 이착베끼 못 들은다. 겨난 이착은 영 막아 불언. 경허민 강 오민 숙 허영이 단지에 영허영 울령. 영 울령 뒷날 물질 가고 경허난 못 허민 이제 또 야펜이. 야펜 어디 시민 그거 그거 놓민.(요즘은 귀에 물 들어갈까 봐 모두 막고. 우린 어느 겨를에 귀에. 그러니까 깊은 물에 가서 하면 이제 이쪽 귀가 막힌 게 그거야. 압력으로 해서 막혔어, 이거. 이쪽으로 밖에 전화도 이쪽밖에 못 들어.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막혔어. 그러면 가서 오면 쑥 해서 단지에 이렇게 울려서. 이렇게 울렸다가 뒷날 물질 가고 그러니까 못 하면 이제 또 아편. 아편 어디 있으면 그거 그거 넣으면.)
- 권미소 야펜.(아편.)
- 김보향 아편, 아편.(아편, 아편.)
- 권미소 그러니까, 야펜.(그러니까, 아편.)
- 강순화 그거 이디 놓민 웬찮여.(그거 여기 넣으면 웬찮아.)
- 권미소 아프난 힘들고.(아프니까 힘들고.)
- 김보향 여기 알려 가지고 이제.(여기 알려서 이제.)
- 강순화 알리지 안하고 물질 들어가지 못할 때.(알리지 않고 물질 들어가지 못할 때.)
- 김보향 계난 삼춘 귀마개는 안 해 빛수과?(그러니까 삼춘 귀마개는 안 해 봤습니까?)
- 강순화 귀마개 안 해 봤어.
- 김보향 그 물질허당 보민 막 물고기덜 보이잖아예. 우력도 보이고 둠도 보이고.(그 물질하다가 보면 물고기들 보이잖아요. 우력도 보이고 도미도 보이고.)
- 강순화 으.(으.)
- 김보향 계민 그런 거 잡젠 영 찔르는 건 안 가정 갑니까?(그럼 그런 거 잡으려고 이렇게 찌르는 건 안 가지고 갑니까?)
- 강순화 아, 소살.(아, 작살.)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소살도 허는 사름은 혈다. 경해도 우린 원체 지픈 바당 뎅기고 배로 해 뎅겨 부난이 소살 허민 어지러왕 못 허여.(작살도 하는 사람은 해. 그래도 우린 원체 깊은 바다에 다니고 배로 해서 다니니까 작살하면 어지러워서 못 해.)
- 김보향 예.(예.)
- 강순화 계난 그건 영 덕으로이 야픈 디 뎅기는 사름덜 허주이. 우린 지픈 바당 뎅겨 부난 그런 거 안 혈다.(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덕’으로 얇은 데 다니는 사람들하지. 우린 깊은 바다에 다니니까 그런 거 안 해.)
- 김보향 계민 이 동네 소살 가지고 뎅기는 사름덜은 이 바늘이 두 개 있는 거 허는 것과, 하나 있는 것과?(그럼 이 동네 작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바늘이 두 개 있는 거 하는 겁니까, 하나 있는 겁니까?)
- 김보향 세 개.(세 개.)
- 김보향 세 개 있는 거.(세 개 있는 거.)
- 강순화 덕바우가 세 개.(‘덕바우’가 세 개.)
- 김보향 계난 그거 무슨 소살이렌 불러?(그러니까 그거 무슨 작살이라고 불러?)
- 강순화 시 발 소살.(세 발 작살.)
- 김보향 시 발 소살. 예.(세 발 작살. 예.)
- 강순화 시 발 소살. 계민 소살 앗으민 저끗디 사름, “야 어지럽다 저리 가라이.” 소살로 고무줄로 축 허민 누게 쏘우주게. 계민 “에이구 저 훈 펜더레 강 허라. 경허멍.(세 발 작살. 그럼 작살 가지면 결에 사람, “야, 어지럽다 저리 가라.” 작살로 고무줄로 쭉 하면 누가 쏘지. 그럼 “에이구, 저 한 편으로 가서 해라.” 그러면서.)
- 김보향 다치카 부덴.(다칠까 봐.)
- 강순화 경허단. 계난 우린 안 가정 당겼저.(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린 안 가지고 다녔어.)
- 김보향 계민 삼춘 물에 들엉 물고기, 바닷케기 잡아 보진 안허연?(그럼 삼춘 물에 들어서 물고기 바닷고기 잡아 보지는 않았어?)
- 강순화 안 헷저게. 어떻행 잡느니?(안 했어. 어떡해서 잡니?)
- 김보향 하하하, 눈앞이 영 왓다 갔다 헤신디?(하하하, 눈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 강순화 으, 왓다 갔닥. 그 서치이.(으, 왓다 갔다. 그 서대기.)
- 김보향 으.(으.)

강순화 서친 덕바우도 왕 눈다. 뉘도 그거 어떻 잡느니? 비창으로, 아무것도 엇이 비창베끼 엇으난.(서대기는 ‘덕바우’에도 와서 눕는다. 누워도 그거 어떻게 잡니? ‘비창’으로, 아무것도 없이 ‘비창’밖에 없으니까.)

김보향 그니까 비창으로?(그러니까 ‘비창’으로?)

강순화 비창으로 딱 누르뜨민 파닥닥 허영 돌아나 불주.(‘비창’으로 딱 누르면 파닥닥 해서 달아나 버리지.)

김보향 하하하. 돌아나 불주.(하하하. 달아나 버리지.)

강순화 못 혔다개.(못 해.)

김보향 경허난 경 물질혜나고 웨방 물질도 하영 갓수과?(그러니까 그렇게 물질했었고 ‘외방 물질’도 많이 갔습니까?)

강순화 웨방 물질¹⁵⁾ 안 해 봤자, 나. 집이서 농서허곡 그자이 첨, 물질하고. 난 물질헐 땐이 아멩 그추룩 전복 하영 잡곡 물때 좋아도이 농서헐 땐 딱 물질 설리 뭉 농사 다 허여 뭉 물질한다.(‘외방 물질’ 안 해 봤어, 나. 집에서 농사하고 그저 참, 물질하고. 난 물질할 땐 아무래도 그처럼 전복 많이 잡고 물때 좋아도 농사할 땐 딱 물질 접어 두고 농사 다 해 두고 물질해.)

김보향 계난 전복 허명 돈 하영 벌어졌수과?(그러니까 전복 하면서 돈 많이 벌었습니까?)

강순화 어, 옛날은 전복 전복이 돈 주고 구제기 돈 안 줬자. 계민 구제기 먹센 흐꼼 잡곡이. 전복 아이 잡은 사름은 맨날 곤란.(어, 옛날은 전복 전복이 돈 주고 소라는 돈 안 줬어. 그럼 소라 먹으려고 조금 잡고. 전복 안 잡은 사람은 맨날 곤란.)

김보향 아.(아.)

강순화 구제기 안 받아부난. 그새 앗아난 사름들은 전복 못 터 봤어. 경허민 항상 곤란허주게.(소라 안 받으니까. 아까 앉았던 사람들은 전복 못 떠 봤어. 그러면 항상 곤란하지.)

김보향 계민 전복 잡양 오민 그날 강 푸는 거?(그럼 전복 잡아서 오면 그날 가서 파는 거?)

강순화 어.(어.)

김보향 어디 강?(어디 가서?)

강순화 아이고, 어촌계도 받고 상인덜이 한다.(아이고, 어촌계도 받고 상인들이 많

15) ‘웨방 물질’은 다른 지역에 물질을 하러 가는 것을 말한다.

아.)

김보향 으.(으.)

강순화 경허민이 흐꼼 전복은 이 자리서 뜨곡, 이 자리서 뜨민 골라. 물이, 물이 하는 따문에. 경허난 이 자리에 예를 들어 삼 키로민 이 자리서 허민 혼 이 점 팔베끼 안 허여.(그러면 조금 전복은 이 자리에서 뜨고, 이 자리에서 뜨면 골라. 물이,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를 들어 삼 킬로그램이면 이 자리에서 하면 한 이 점 팔밖에 안 해.)

김보향 으. 계난 그 자리서 빨리 해 불어야예?(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빨리 해야지요?)

강순화 으, 이 자리서 해 불어야사. 물 컷당 저 죽으면 안 데주게. 죽으면이 저 거시기 받지 안 허여. 살아사. 겨민 이런 홍사리에 전복하는 홍사리에 딱 물도 짚은 디가 컷당 들렁 강.(으, 이 자리에서 해야. 물 담갔다가 저 죽으면 안 되지. 죽으면 저 거시기 받지 않아. 살아야. 그럼 이런 ‘홍사리’에 전복하는 ‘홍사리’에 딱 물도 짚은 데 가서 담갔다가 들고 가.)

김보향 바로 저울여야 될 거예. 계민 전복이렌 허고 생복이렌 허는 말은 따로 안 썼수과?(바로 채야 될 거요. 그럼 전복이라고 하고 생복이라고 하는 말은 따로 안 썼습니까?)

강순화 으?(으?)

김보향 생복?(생복?)

강순화 생복이엔 안 허여. 다 전복.(생복이라고 안 해. 다 전복.)

김보향 전복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예?(전복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 요?)

강순화 으, 암천복 수천복.(으, 암컷 전복, 수컷 전복.)

김보향 어떤 게 암천복이고 어떤 게 수천복이과?(어떤 게 암컷 전복이고 어떤 게 수컷 전복입니까?)

강순화 암천복은 이후룩 허고 수천복은 등그령 영허고.(암컷 전복은 이처럼 하고 수컷 전복은 등그렇게 이리하고.)

김보향 암천복은 납작한 거?(암컷 전복은 납작한 거?)

강순화 어, 납작하고 암천복.(어, 납작하고 암컷 전복.)

김보향 수천복은 오무락하고?(수컷 전복은 오목하고?)

강순화 으, 오무락. 암천복은 영 납작한 거. 수천복은 영 무락한 거.(으, 오목. 암컷 전복은 이렇게 납작한 거. 수컷 전복은 이렇게 ‘무락한’ 거.)

김보향 예. 뭐가 맛있어?(예. 뭐가 맛있어?)

강순화 다 맛있어. 전복은 다 맛셔. 전복은 영 점 오로 우터레 먹어야 맛있지. 영 점 오로 알리렌.(다 맛있어. 전복은 다 맛있어. 전복은 영 점 오에서 위로 먹어야 맛있지. 영 점 오에서 아래는.)

김보향 영 점 오가 뭐?(영 점 오가 뭐?)

강순화 키로.(키로.)

김보향 아, 오백 그램 이상.(아, 오백 그램 이상.)

강순화 으, 오백 그램 알리렌 전복이 짜고 오백 그램 우터렌 전복이 먹으민 입이 쑥 풀어져.(으, 오백 그램 아래로는 전복이 짜고 오백 그램 위로는 전복이 먹으면 입이 쑥 풀어져.)

김보향 으.(으.)

강순화 우린 전복이, 전복 밥도 행 먹곡 경해낫저만은.(우린 전복, 전복 밥도 해서 먹고 그랬었지만.)

김보향 계난 전복 텅 왕 비창으로 잘못 찔른 거는?(그러니까 전복 떼 와서 '비창'으로 잘못 찌른 거는?)

강순화 으, 그거 다 먹어.(으, 그거 다 먹어.)

김보향 먹엉예. 안 받아 줘.(먹었지요. 안 받아 줘.)

강순화 으.(으.)

권미소 잘 터야 될 거.(잘 떠야 될 거.)

김보향 전복 껍데기로 반찬 해 먹거나는 안 해난?(전복 껍데기로 반찬을 해 먹거나는 안 했었어?)

강순화 옛날엔 그걸로 반찬은 안 하고 옛날에 이처록 전복 일 키로짜리가 셔이. 이제 그런 거 영 점 구, 영 점 팔이 그런 거 큰다. 게도 일 키로여 현 전복으로 영 영 허게 눈이. 그런 전복은 늙엉 눈이 맷 개 웃어.(옛날엔 그걸로 반찬은 안하고 옛날은 이처럼 전복 일 킬로그램짜리가 있어. 이제 그런 거 영 점 구, 영 점 팔 그런 거 커. 그래도 일 킬로그램 하는 전복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눈이. 그런 전복은 늙어서 눈이 몇 개 없어.)

김보향 으.(으.)

강순화 경허민 영 영 세멘으로 허영이 낯을 췄었젙 혈다. 눈이 묽넨 허영, 눈이 묽넨 허영 세멘기처록 그추록 허영 췄은 할망이 잇어.(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세면 기로 해서 낯을 췄었다고 해. 눈이 맑아진다고 해서, 눈이 맑아진다고 해서 세면기처럼 그처럼 해서 췄은 할머니가 있어.)

김보향 아.(아.)

강순화 ○○이 어멍, ○○이 어멍 그걸로이, 그거 간 베려 보난 수퉁이라도 이만한 거라라게.(○○이 어머니, ○○이 어머니가 그걸로, 그거 가서 봐 보니까 수컷이라도 이만한 거더라.)

김보향 아이고, 크다.(아이고, 크다.)

강순화 으, 큰 거. 겐 그걸로 허영이 눈 묽넨 허영이 그걸로 세순 헷저. 세순 허는 할망이 또 잇주게. 견디 짊은 사름은 안 허고개.(으, 큰 거. 그래서 그걸로 해서 눈 맑아진다고 그걸로 세수는 했어. 세수는 하는 할머니가 또 있지. 그런데 짊은 사람은 안 하고.)

김보향 계난 거기에 자리젓이나 멜첫 놓 조령 먹어 보고?(그러니까 거기에 자리젓이나 멸치젓 놔서 조려서 먹어 보고?)

강순화 안 헉다게. 그건 안 허여, 안 헉다게.(안 해. 그건 안 해, 안 해.)

김보향 그 전복 껍데기를 전복 껍데기렌 불렀수과? 껍녕?(그 전복 껍데기를 전복 껍데기라고 불렀습니까? '껍녕'?)

강순화 껍덩.(‘껍덩’.)

김보향 껍덩.(‘껍덩’.)

강순화 아이고, 전복 껍덩. 껍덩. 전복 껍데기엔 안 허영 아이고, 저 껍덩 보라.(아이고, 전복 '껍덩'. '껍덩'. 전복 껍데기라고 안 하고 아이고, 저 '껍덩' 봐라.)

김보향 예. 이제는 농사지을 때 써난 도구덜 물어보쿠다. 우선은 보리 농사짓젙 허민 뭘 준비해살 것과?(예. 이제는 농사지을 때 썼던 도구들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보리 농사지으려고 하면 뭘 준비해야 할 겁니까?)

강순화 보리농산 준비힐 게 엇나게. 보리씨 강 삐영이. 그자 비료 삐고 보리씨 삐곡 허난. 첨, 보리씨 삐곡 비료 삐는 도구가 잇어이. 우린 사단 헷저. 우린 사단 허단 농사 아이 쪄지난 샛똘 쥐 불언. 헷저만은 요즘은이 다라에도 놓 삐곡 경힌다게.(보리농사는 준비할 게 없어. 보리씨 가서 뿐려서. 그저 비료 뿐리고 보리씨 뿐리고 하니까. 참, 보리씨 뿐리고 비료 뿐리는 도구가 있어. 우리는 사다가 했어. 우리는 사다가 하다가 농사 안 지으니까 둘째딸 쥐 버렸어. 그랬지만 요즘은 '대야'에도 놔서 뿐리고 그렇게 해.)

김보향 옛날에 보리허젙 허민 걸름해살 거 아니?(옛날에 보리하려고 하면 걸름해알 거 아니?)

강순화 걸름?(거름?)

김보향 으.(으.)

강순화 결름 옛날엔 뜯걸름광 몸컬름 잇주게.(거름 옛날에는 돼지거름과 모자반 거름 있지.)

김보향 으. 계민 보리 농사짓젠 허민 걸름 미리 미럿 내살 거 아니?(으. 그럼 보리 농사지으려고 하면 거름 미리 미리 내야 할 거 아니?)

강순화 미리 혜사이. 보리 갈젠 허민 혼 구월에이 구월 초순에 지게로 다 정이.(미리 해야. 보리 갈려고 하면 한 구월에 구월 초순에 지게로 다 쳐서.)

김보향 으.(으.)

강순화 고랑더레 다 질양이 아이고, 못 전디게. 이젠 안 혜도 농서 잘 허는디. 그거이 지게로 마딱 발창 멜라지게 정. 이제 또 마딱 다 고랑더레 질양 경혜영 보리 같았지게. 뜯걸름 발창 벨라지게 요만한 중시리¹⁶⁾로.(고랑으로 다 깔아서 아이고, 못 견디게. 이젠 안 해도 농사 잘 하는데. 그거 지게로 모두 발창 까지 게 쳐서. 이제 또 모두 다 고랑으로 깔아서 그래서 보리 같았어. 돼지거름 발창 까지게 요만한 ‘중시리’로.)

김보향 중시리?(‘중시리’?)

강순화 으, 중시리 순부기로 헌 중시리. 순부기 알아져?(으, ‘중시리’ 순비기나무로 만든 ‘중시리’. 순비기나무 알아?)

김보향 뭐를 순부기렌 협니까?(뭐를 순비기나무라고 합니까?)

강순화 저 갯갓이 버치는 거. 순부기로 중시리 줄양 그걸로이 뜯걸름 정이, 발창이 벨라지게 정이.(저 갯가에 벌는 거. 순비기나무로 ‘중시리’ 결어서 그걸로 돼지거름 쳐서, 발창이 까지게 쳐서.)

김보향 아.(아.)

강순화 이제 또 뜯걸름 놓느라고, 이젠 장갑이나 췌저, 이 손으로 그냥 놔서이.(이제 또 돼지거름 놓느라고, 이젠 장갑이나 췌지, 이 손으로 그냥 놔뒀어.)

김보향 계난 거름 내젠 허민 영 영 허는 것도 싫지 안허여?(그러니까 거름 내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아?)

강순화 소스랑.(쇠스랑)

김보향 소스랑도 행 그걸로 걸름 냉?(쇠스랑도 해서 그걸로 거름 내서?)

강순화 으. 소스랑으로.(으. 쇠스랑으로.)

김보향 겐 중시리에 담양?(그래서 ‘중시리’에 담아서?)

강순화 으, 중시리에 담양. 계민 지게 다 쳐. 지게로 다.(으, ‘중시리’에 담아서. 그럼

16) ‘중시리’는 가파도에서 순비기나무 등을 엮어서 만든 망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게 다 쳐. 지게로 다.)

김보향 그 중시리를 만들 때 아까 순?(그 ‘중시리’를 만들 때 아까 순?)

강순화 순부기, 순부기.(순비기나무. 순비기나무.)

김보향 순부기로 중시리?(순비기나무로 ‘중시리’?)

강순화 중시리 잣앙. 것도이 아무나 잣지 못행이 중시리 사 온다. 큰물이 강.(‘중시리’ 결어서. 것도 아무나 결지 못해서 ‘중시리’ 사 와. ‘큰물’에 가서.)

김보향 중시리는 크기가 얼마만큼 협니까?(‘중시리’는 크기가 얼마만큼 합니까?)

강순화 으?(으?)

김보향 중시리는 얼마만큼 큅니까?(‘중시리’는 얼마만큼 큅니까?)

강순화 요만이. 크지 안현다게.(요만큼. 크지 않아.)

김보향 요만이현 거에 뜯걸름 실르는 거?(요만한 거에 돼지거름 신는 거?)

강순화 뜯걸름 지고 힙큰 큰 것도 잇고 족은 것도 잇고. 큰 건이 옛날에이 감저 그레 낫당 먹곡. 중시리 걸름 안 부평 낫당.(돼지거름 지고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건 옛날에 고구마 그리 놋다가 먹고. ‘중시리’ 거름 안 붙이고 놋다가.)

김보향 예.(예.)

강순화 걸름 부친 건 만날 걸름만 지고.(거름 붙인 건 만날 거름만 지고.)

김보향 계민 중시리에 걸름 냉 정 갓어예?(그럼 중시리에 거름 놔서 쳐서 갔지요?)

강순화 으.(으.)

김보향 계민 여자덜도 지게로?(그럼 여자들도 지게로?)

강순화 아이고, 여자 다 여자.(아이고, 여자 다 여자.)

김보향 아.(아.)

강순화 남잔 뜯걸름 내고 다 여자.(남자는 돼지거름 내고 다 여자.)

권미소 지게 지는 것도 여자?(지게 지는 것도 여자?)

강순화 으, 다 여자. 뜯걸름 내는 거만 남자.(으, 다 여자. 돼지거름 내는 거만 남자.)

김보향 예.(예.)

강순화 뭄 지는 것도 여자. 중시리, 뜯걸름 지는 것도 여자. 우리 다. 발창 벨라정 웃으카 부텐 허단 보민 셔라, 발창.(모자반 지는 것도 여자. ‘중시리’, 돼지거름 지는 것도 여자. 우리 다. 발창 까져서 없을까 봐 하다가 보면 있더라, 발창.)

김보향 하하하. 예, 걸름 냉 빙디 지영 간. 이제는 뱃 갈아살 거 아니?(하하하. 예, 거름 내서 뱃에 지고 갔어. 이제는 뱃 갈아야 할 거 아니?)

강순화 어.(어.)

김보향 밧 갈젠 허민 뭐가 잇어사 헐 것과?(밭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할 겁니까?)
강순화 밧 갈 땐 쉐로 같았주게.(밭 갈 땐 소로 같았지.)
김보향 예, 쉐로 같고 쉐에 뭐 이경?(예, 소로 같고 소에 뭐 이끌어서?)
강순화 잠대, 잠대.(챙기, 쟁기.)
김보향 예.(예.)
강순화 잠대로 영 행 쉐 행 같았주게.(챙기로 이렇게 해서 소 해서 같았지.)
김보향 쉐에 잠대 이경 간 거라예? 게민 잠대에도.(소에 쟁기 이끌어서 간 거지요?
그럼 쟁기에도.)
강순화 이젠 이런 아가씨들 그런 거 몰랐주만은 계난 이젯 아으덜 솟강알에 불 숨는
것도 몰랐주게.(이젠 이런 아가씨들 그런 거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아궁이에 불 때는 것도 모르지.)
김보향 맞수다.(맞습니다.)
강순화 맞아. 솟강알에 불 숨는 것도 이추룩 행이 췌 부지깽이로 이추룩 허멍 불 숨
고이. 낭은 허민 마딱 카 불고이.(맞아. 아궁이에 불 때는 것도 이렇게 해서
부지깽이로 이렇게 하면서 불 때고. 나무는 하면 모두 타 버리고.)
김보향 예.(예.)
강순화 췌 부지깽이도 이디 딱 허게 손잽이 멘들앙, 영 소낭으로 멘들앙 영 영 혜영
불 숨고이.(쇠 부지깽이도 여기 모두 딱 손잽이 만들어서, 이렇게 소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 때고.)
김보향 예. 계난 밧 갈젠 허난 아까 잠대 필요하고 쉐에도 영 뛸 씌워야 헐 거 아
니?(예. 그러니까 밭 갈려고 하니까 아까 쟁기 필요하고 소에도 이렇게 뛸 씌
워야 할 거 아니?)
강순화 아, 그거는 쉐에 명에.(아, 그거는 소에 명에.)
김보향 명에.(명에.)
강순화 쉐명에, 쉐명에. 쉐에 씌우는 건 쉐명에. 오디 건 잠대.(명에, 명에. 소에 씌우
는 건 명에. 여기 건 쟁기.)
김보향 게민 잠대 영 보민 잠대에도 불르는 이름이 튼날 거우다예?(그럼 쟁기 이렇게
보면 쟁기에도 부르는 이름이 다를 거지요?)
강순화 아니.(아니.)
김보향 영 손잽는 거?(이렇게 손잽는 거?)
강순화 손잽는 것도 잠대엔 허민 다 들어가.(손잽는 것도 쟁기라고 하면 다 들어가.)
김보향 다 들어가는디 그 손잽는 부분을 뭐렌 골웁니까?(다 들어가는데 그 손잽는 부

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강순화 손잽는 거. 게메 그 남제덜은 알 거라.(손잽는 거. 글쎄 그 남자들은 알 거
야.)
김보향 예, 예. 알았수다. 넘어가쿠다. 이제는 보리 같았수다. 보리 흐꼼씩 흐꼼씩 나
와 가민 뭐 헐 것과?(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보리 같았
습니다. 보리 조금씩 조금씩 나와 가면 뭐 할 겁니까?)
강순화 이제 대우리 메고.(이제 귀리 매고.)
김보향 대우리 메고.(귀리 매고.)
강순화 겸질메고.(김매고.)
김보향 겸질메고.(김매고.)
강순화 옛날은 보리 겸질도 다 맷저.(옛날은 보리밭 김도 다 맷어.)
김보향 예.(예.)
강순화 이제 보리 겸질 허영 만딱 허민이 이제 비료 줘 낭 익으면 호미로 다 비어
세.(이제 보리밭 김도 해서 모두 하면 이제 비료 주고 나서 익으면 낫으로 다
비었어.)
김보향 겸질멜 때는 뭐로 허고?(김맬 때는 뭐로 하고?)
강순화 골개기로.(호미로.)
김보향 빌 때는?(밸 때는?)
강순화 호미로.(낫으로.)
김보향 다 비었수다. 이젠 뭐 헐 거?(다 베었습니다. 이젠 뭐 할 거?)
강순화 이제 무경 이제 집이 죄 왕 이제 홀트는 기계 메왕 홀탕, 홀탕 이제 탈곡기로
두드령, 두드령 이제.(이제 뚫어서 이제 집에 지고 와서 이제 훑는 기계 메워
서 훑어서, 훑어서 이제 탈곡기로 두드려서, 두드려서 이제.)
김보향 탈곡기 나오기 전인?(탈곡기 나오기 전엔?)
강순화 탈곡기 나오기 전인 저 도끼.(탈곡기 나오기 전엔 저 도끼.)
김보향 도끼?(도끼?)
강순화 아니 저 도깨.(아니 저 도리깨.)
김보향 예.(예.)
강순화 도깨로 도깨로 두드릴 땐 우리가 요만헐 때.(도리깨로 도리깨로 두드릴 땐
우리가 요만할 때.)
김보향 아.(아.)
강순화 도깨로 두드릴 때 우리가 요만헐 때 우리가 도깨로 두드리고 우리 육양 베려

보난 탈곡기가 낫더라.(도리깨로 두드릴 때 우리가 요만할 때 우리가 도리깨로 두드리고 우리 자라서 봐 보니까 탈곡기가 나왔더라.)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강순화 요만할 때 우리가 조록조록 냉기단 도깨로 맞넨 허영 저래 가라 허곡. 요만할 때 혼 예닐곱 살 혈 때 그때 도깨로 두드려난.(요만할 때 우리가 ‘조록조록’ 니다가 도리깨로 맞는다고 해서 저리 가라 하고. 요만할 때 한 예닐곱 살 할 때 그때 도리깨로 두드렸었어.)

김보향 계난 도깨로 먼저 헐 것과, 클을 먼저 헐 것과?(그러니까 도리깨로 먼저 할 겁니까, 그네를 먼저 할 겁니까?)

강순화 어?(어?)

김보향 보리클도 헨?(보리그네도 했어?)

강순화 으, 보리 홀트는 클.(으, 보리 훑는 그네.)

김보향 아, 예. 그거 행 도깨로 두드릴 거예?(아, 예. 그거 해서 도리깨로 두드릴 거 요?)

강순화 겨난 도깨로 두드릴 때는 옛날 하르방덜 도깨로 두드령 양석을 멘들고.(그러니까 도리깨로 두드릴 때는 옛날 할아버지들 도리깨로 두드려서 양식을 만들고.)

김보향 으.(으.)

강순화 우리 보릴 홀탕, 홀트는 기계로 허영 탈곡기로 허영 보리 멘들앙 보리밥 먹고 살았어이.(우리 보리를 훑어서, 훑는 기계로 해서 탈곡기로 해서 보리 만들어 보리밥 먹고 살았어.)

김보향 예, 예. 보리 정 오젠 허민 어쨌든 무꺼살 거 아니?(예, 예. 보리 찧어서 오려고 하면 어쨌든 뚫어야 할 거 아니?)

강순화 으.(으.)

김보향 이 무끌 때 뭐로 무꺼?(이 뚫을 때 뭐로 뚫어?)

강순화 보리로. 보리로 영 허영 영 딱 무꺼.(보리로. 보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뚫어.)

김보향 그 무끄는 거를 뭐렌 부르는 이름을 알아져?(그 뚫는 거를 뭐라고 부르는 이름을 알아?)

강순화 새끼. 아이고, 새끼. 보리 무끄는 새끼.(새끼. 아이고, 새끼. 보리 뚫는 새끼.)

김보향 그거 께엔은 안 해?(그거 매끼라고는 안 해?)

강순화 께미엔도 허고 새끼엔도 허고.(‘꺄미’라고도 하고 ‘새끼’라고도 하고.)

김보향 계민 타작은 집이서 헷수과?(그럼 타작은 집에서 했습니까?)

강순화 으, 다 집이서.(으, 다 집에서.)

김보향 타작허젠 허민 뭐 깔아, 바닥에?(타작하려고 하면 뭐 깔아, 바닥에?)

강순화 그때 그 시절에 흙에서 그냥 허더라.(그때 그 시절에 흙에서 그냥 하더라.)

김보향 그냥 허여?(그냥 해?)

강순화 으, 그냥 허영 보리 나오는 디만, 보리 나오는 디만 요런 거 질양이.(으, 그냥 해서 보리 나오는 데만 보리 나오는 데만 요런 거 깔아서.)

김보향 뭘 깔아서?(뭘 깔아서?)

강순화 명석 질양.(명석 깔아서.)

김보향 명석 질양.(명석 깔아서.)

강순화 명석 질양 담아내곡 그냥 흙에. 흙에 헤영 보리 이제 홀타 놓민이 그디서 탈곡허더라.(명석 깔아서 담아내고 그냥 흙에. 흙에 해서 보리 이제 훑어 놓으면 거기서 탈곡허더라.)

김보향 타작 다 행 보리 나오민 뭐가 필요해?(타작 다 해서 보리 나오면 뭐가 필요해?)

강순화 얼멩이.(어레미.)

김보향 얼멩이. 얼멩이로 뭐 헐 거?(어레미. 어레미로 뭐 할 거?)

강순화 얼멩이로 칠 거.(어레미로 칠 거.)

김보향 얼멩이로 영 영 영 쳐.(어레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

강순화 청 불릴 거.(쳐서 불릴 거.)

김보향 얼멩이에 영 담아 놓젠 허민 또 뭐가 있어야 헐 거?(어레미에 이렇게 담아 놓으려고 하면 또 뭐가 있어야 할 거?)

강순화 손박. 하하하.(‘손박’. 하하하.)

김보향 예.(예.)

강순화 손박도 있어. 느네 사진 찍어가지 안해샤?('손박'도 있어. 너희 사진 찍어가지 않았니?)

김보향 예. 맞수다. 손박으로 행 담아 놓젠 허민?(예. 맞습니다. ‘손박’으로 해서 담아 놓으려고 하면?)

강순화 풀부른바구리.(‘풀부른바구리’.)

김보향 바구리.(바구니.)

강순화 풀부른바구리도 싯저, 나신디. 것도 큰 거, 죽은 거이. 큰 거 두량 구덕 허영이 두량 구덕. 아이고, 두량 구덕으로 맷 개, 맷 개. 그거 시 개 허민 혼 섬.(‘풀부

른바구리'도 있어, 나에게. 것도 큰 거, 작은 거. 큰 거 두량 바구니 해서 두량 바구니. 아니고, 두량 바구니로 몇 개, 몇 개. 그거 세 개 하면 한 섬.)

김보향 아이고.(아이고.)

강순화 경허멍이 보리 쿰도 받아가더라.(그러면서 보리 샾도 받아가더라.)

김보향 예.(예.)

강순화 닷 말 들이로 행이. 세 개민 혼 섬 영허영. 쿰 받아 갈 때.(닷 말 들이로 해서. 세 개면 한 섬 이렇게. 샾 받아 갈 때.)

김보향 그 풀부른구덕에 담아 낭 보관허젠 허민 어디에 보관헐 거라?(그 '풀부른구덕'에 담아 놓고 보관하려고 하면 어디에 보관할 거야?)

강순화 보관허젠허민 그 시절엔 그땐 그릇 웃엉 이런이 구들에 혜 놋어이.(보관하려고 하면 그 시절에는 그땐 그릇 없어서 이런 방에 해 놋어.)

김보향 으.(으.)

강순화 경 구들에 막 비와 놋다 물리우명 도라무래도 놓곡 통개레도 놓곡.(그렇게 방에 마구 비워 놋다가 말리면서 드럼통에도 넣고 항아리에도 넣고.)

김보향 게민 이런 타작힐 때 이런 멱에는 안 놔 봐?(그럼 이런 타작할 때 이런 멱에는 안 넣어 봤어?)

강순화 멱에, 이던 멱 아이 쓴다.(멱에, 여진 멱 안 써.)

김보향 아까 거름 질 때만 중시리 씻수과?(아까 거름 질 때만 '중시리' 씻습니까?)

강순화 어. 이디 멱은 안 씻저. 가파돈 멱은 아이 써. 큰물디 맹뎅이주게.(어. 여기 멱은 안 씻어. 가파도는 멱은 안 써. '큰물'에 망태기지.)

김보향 맹뎅이 맞수다.(망태기 맞습니다.)

강순화 멱이 아니고 맹뎅이.(멱이 아니고 망태기.)

김보향 여기는 맹뎅이 만드는 찢이 엊었구나.(여기는 망태기 만드는 짚이 없었구나.)

강순화 찢도 엊고 만드는 사름도 엊고.(짚도 없고 만드는 사람도 없고.)

김보향 명석은 어떻 만들었수과?(명석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강순화 명석도 큰물이 강 혜여 왓주. 이디서 명석 헌 사름이 엊다계. 명석은 뒷으로 렌드느니, 찢 엊은 걸.(명석도 '큰물'에 가서 해 왔지. 여기서 명석 하는 사람이 없어. 명석은 뭐로 만드니, 짚 없는 걸.)

김보향 찢 엊은 걸예.(짚 없는 걸요.)

강순화 계난 찢을 사와사.(그러니까 짚은 사와야.)

김보향 계난 숨비기로 계우 계우 중시리나?(그러니까 숨비기나무로 겨우 겨우 '중시리'나?)

강순화 중시리나 멘들았주.(‘중시리’나 만들었지.)

김보향 게민 거름 낼 때 골체도 이실 거 아니?(그럼 거름 낼 때 삼태기도 있을 거 아니?)

강순화 골체 잊어사주. 골체 나도 싯저.(삼태기 있어야지. 삼태기 나도 있어.)

김보향 골체는 뭐로 멘들았수과?(삼태기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강순화 골체도 숨비기로. 숨비기로 만든 거 싯저.(삼태기도 숨비기나무로. 숨비기나 무로 만든 거 있어.)

김보향 숨비기로 행 골체도 만들고.(숨비기나무로 해서 삼태기도 만들고.)

강순화 할망신디 핫저.(할머니에게 많아.)

김보향 예, 긴계.(예, 그렇네.)

강순화 얼멩이도 싯고 푸는체로 싯고 다 싯저.(어레미도 있고 키도 있고 다 있어.)

김보향 게민 통개는 어디서 들여왓수과?(그럼 항아리는 어디에서 들여왔습니까?)

강순화 아, 통개 그거 큰물이 강 사 와.(아, 항아리 그거 '큰물'에 가서 사 와.)

김보향 도로무깡도 경허고?(드럼통도 그렇고?)

강순화 으, 큰물이 강 사 와. 이디서 난 거 아니. 다 사 온 거.(으, '큰물'에 가서 사 와. 여기서 난 거 아니. 다 사 온 거.)

김보향 그럼 이제 보리 장만 다 햇수다. 보리 장만 다 허난 이제 통개에 들어 있어. 도로무깡에 들어 있어.(그럼 이제 보리 장만 다 했습니다. 보리 장만 다 하니까 이제 항아리에 들어 있어. 드럼통에 들어 있어.)

강순화 밥해 먹젠허믄 이제 이디서이 물방에 져서이. 저 어른도 방에 져난 사름이여. 클 허영.(밥해서 먹으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연자매 찧어. 저 어른도 방아 찧었던 사람이야. 틀 해서.)

김보향 으.(으.)

강순화 방에 지고 어떤 때 이디서 못 지민 모실풋서, 짜근에 베로 하나 시깽 강 모실풋로 강 져 오고.(방아 찧고 어떤 때 여기서 못 찧으면 모슬포에서, 짜서 배로 하나 실어 가서 모슬포로 가서 찧어 오고.)

김보향 계난 여기 물방에 잊어난 거 아니?(그러니까 여기 연자매에 있었던 거 아니?)

강순화 물방에 그건이 좀 옛날에 물방에 행 쉐로 허영이. 이던 물 안 허다. 쉐로 허영. 쉐로 허영 아이고, 말 말라 우리 혼 여남은 설엔이 혼 아칙 혼 아메도 네 시쯤 일려 부는 생이라. 일리민 창 낭에 돌아정이 졸명, 창 낭에 돌아정.(연자매 그 건 참 옛날에 연자매 해서 소로 해서. 여긴 말 안 해. 소로 해서. 소로 해서 아니고, 말 말아라 우리 한 여남은 살에는 한 아침 한 아무래도 네 시쯤 일으킨

- 모양이야. 일으키면 창 나무에 매달려서 졸면서, 창 나무에 매달려.)
- 김보향 하하하.(하하하.)
- 강순화 쉬 안 가민 어명은 영 영 당그네로 허당 “야, 쉬 몰라.”, “예, 몰암수다.” 허명 헛저게. 그거이 그 보리를 나기 전이 우리 어린 때 열 살 때 쉬로 물방에.(소 안 가면 어머니는 이렇게 이렇게 고무래로 하다가 “야, 소 몰아라.”, “예, 몰고 있습니다.” 하면서 했어. 그거 그 보리 그네 나오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열 살 때 소로 연자매.)
- 김보향 물방에.(연자매.)
- 강순화 방에도 이 섬에 하낫저. 물방에 이제 가파돈 그걸로 정이 정 그걸로 먹으난 이 클 나기 전이 그걸로 먹으난이. 첨 중동네도 잇고 한개도 잇고 웃동네도 잇고 매 그자 울목마다 셔낫어이.(방아도 이 섬에 많았어. 연자매 이제 가파도는 그걸로 찧어서 찧어서 그걸로 먹으니까 틀 나기 전에 그걸로 먹으니까. 참, 중동제도 있고 한개도 있고 웃동네도 있고 매 그저 골목마다 있었어.)
- 김보향 계난 삼춘 초등학교 안에도 물방에 해난 돌 잇언게만은 이 마을에서 써난 것과?(그러니까 삼춘 초등학교 안에도 연자매 했던 돌 있던데 이 마을에서 썻던 겁니까?)
- 강순화 돌?(돌?)
- 권미소 학교 안에?(학교 안에?)
- 강순화 학교 그거 바당에 거 다 들러 왓에.(학교 그거 바다의 거 다 들고 왔잖아.)
- 김보향 바당에 거?(바다에 거?)
- 강순화 으, 이디 거 다 들러 왓저. 어디 큰물이 거 아니여. 바당에 거 다 들러당 그디 뱃에.(으, 여기 거 다 들고 왔어. 어디 ‘큰물’의 거 아니야. 바다에 거 다 들어다가 거기 뱉어.)
- 김보향 계민 이 가파도 안에 거라예?(그럼 이 가파도 안의 거지요?)
- 강순화 으, 가파도 안에 거.(으, 가파도 안의 거.)
- 김보향 계민 그거 물방에 강 골양 와. 집이서 밥허젠 허민 또 보리 벌려살 거 아나?(그럼 그거 연자매 가서 갈아 와. 집에서 밥하려고 하면 또 보리 쪼개야 할 거 아니?)
- 강순화 아, 그레로 아니 벌른다, 이디.(아, 맷돌로 안 쪼개, 여기.)
- 김보향 뭐로 해?(뭐로 해?)
- 강순화 방에에이 초불 지고 두불 지고.(방아에 초벌 찢고 두벌 찢고.)
- 김보향 아.(아.)
- 강순화 슬르고. 슬르는 거 그자 물 아니 낭 슬러. 방에 쉬 메왕이 보리쌀 파싹 물른 거이. 우리 아바진 슬르랑 허다.(바수고. 바수는 거 그저 물 안 넣어서 바숴. 방아 소 메워서 보리쌀 바싹 마른 거. 우리 아버진 바수라고 해.)
- 김보향 슬르랑.(바수라고.)
- 강순화 문작허게 슬르라. 계난 흐꼼.(문적하게 바숴라. 그러니까 조금.)
- 김보향 계난 처음에 보리 골 때는 보리에 물 주잖아. 보리에 껍질 벗겨지렌예?(그러니까 처음에 보리 갈 때는 보리에 물 주잖아. 보리에 껍질 벗겨지라고요?)
- 강순화 어, 초불 지고 두불 지고. 거기서 두불 지고. 또 세 번은 파싹 물랑 이제 보리 썰 헌 후제 방에에서 건 물 안 줘. 그냥 슬렁 그냥 슬렁 우리 먹엇저. 골지 안 허다.(어, 초벌 찢고 두벌 찢고. 거기서 두벌 찢고. 또 세 번은 바싹 말려서 이제 보리쌀 한 후에 방아에서 건 물 안 줘. 그냥 바숴서 그냥 바숴서 우리 먹었어. 갈지 않아.)
- 김보향 계난 초불 지고 두불 지는 건 껍질 벗기는 거라예?(그러니까 초벌 찢고 두벌 찢는 건 껍질 벗기는 거지요?)
- 강순화 어, 껍질 벗기는 거. 이번엔 마지막에.(어, 껍질 벗기는 거. 이번엔 마지막에.)
- 김보향 젠 다 걷어 왕.(그래서 다 걷어 와서.)
- 강순화 으, 걷어 왕.(으, 걷어 와서.)
- 김보향 집이 왕 또시?(집에 와서 또?)
- 강순화 으, 또시.(으, 또.)
- 김보향 물령예.(말려서요.)
- 강순화 또시 훈 번 물류왕 실르민 그디 그디 흐꼼썩 요런 디 나온 거이. 보리 지민 요런 디 나온다. 나온 거 모른 채 실르민 확하게 실려져.(또 한 번 말려서 바수면 거기 거기 조금씩 이런 데 나온 거. 보리 찢으면 이런 데 나와. 나온 거 마른 채 바수면 확하게 바숴져.)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경허민 보리밥 허민 문작허여. 경허연 우리 아바진 똑 실렁 먹엇저.(그리면 보리밥 하면 문적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꼭 바숴서 먹었어.)
- 김보향 계민 집이서 영 그레는?(그럼 집에서 이렇게 맷돌은?)
- 강순화 그레 안 군다. 그레 안 군다. 군 보린 먹어보지 안 헛저, 우리.(맷돌 안 갈아. 맷돌 안 갈아. 간 보리는 먹어보지 않았어, 우리.)
- 김보향 계민 아까 물방에 강 초불 지고 두불 지민 집이 왕 물려살 거예?(그럼 아까

- 연자매 가서 초벌 찡고 두벌 찡으면 집에 와서 말려야 할 거요?)
- 강순화 으, 물려사. 다 초불도 물류고 두불도 물류고. 초불 두불은 물 징하고 시불은 물 아이 징. 그냥 실르는 거.(으, 말려야. 다 초벌도 말리고 두벌도 말리고. 초벌 두벌은 물 줘서 하고 세벌은 물 안 줘서 그냥 바수는 거.)
- 김보향 예.(예.)
- 강순화 우리 예를 들면 도꼬방에 뭐 놓 실르듯.(우리 예를 들면 ‘도꼬방에’ 뭐 놔서 바수듯.)
- 김보향 계난 삼춘 초불 지엉 왕 집이 가경 왕 물령 불령 다시 또.(그러니까 삼춘 초벌 찡어 와서 집에 가져 와서 말려서 불려서 다시 또.)
- 강순화 또 물류왕 강 쪽.(또 말려서 가서 찡어.)
- 김보향 계민 거 물리젠 허민 뭐가 잊어야 돼여.(그럼 거 말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 강순화 명석.(명석.)
- 김보향 또.(또.)
- 강순화 명석 저 당그네. 당그네도 집이 싯저.(명석 저 고무래. 고무래도 집에 있어.)
- 김보향 예, 당그네도 찍엉 가쿠다예.(예. 고무래도 찍어서 가겠습니다.)
- 강순화 사진 찍엉 가라.(사진 찍고 가라.)
- 김보향 당그네도 싯고 또 영 덜을 때. 덜을 때 뭐로 헐 것과?(고무래도 있고 또 이렇게 덜 때. 덜 때 뭐로 할 겁니까?)
- 강순화 손박으로.(‘손박’으로.)
- 김보향 손박으로. 겐 그거 물방에에 아져 텅기는 건 풀부른구덕에 놓 아져 텅길 거?(‘손박’으로. 그래서 그거 연자매에 가지고 다니는 건 ‘풀부른구덕’에 놓고 가지고 다닐 거?)
- 강순화 어. 다 풀부른구덕에 놓.(어. 다 ‘풀부른구덕’에 놔서.)
- 김보향 한 번 강예, 영 방에 지젠 허민 멧 말씩 얼마나씩 가져강 정 앗수과?(한 번 가서요, 이렇게 방아 찡으려고 하면 몇 말씩 얼마나씩 가져가서 찡어 왔습니까?)
- 강순화 방에 지젠 허민 이제 그트민 훤이, 저 이제 그트민 방에 지젠 허민 질구덕으로 이 시 갠 가정가는 거 닮아.(방아 찡으려고 하면 이제 같으면 한, 저 이제 같으면 방아 찡으려고 하면 ‘질구덕’으로 세 개는 가져가는 거 같아.)
- 김보향 질구덕으로 시 개면?(‘질구덕’으로 세 개면?)
- 강순화 시 개면 혼 일고여답 말.(세 개면 한 일고여덟 말.)
- 김보향 일고여덟 말예. 그 일고여답 말이민 삼춘네 식구가 멧이랏수과?(일고여덟 말요. 그 일고여덟 말이면 삼춘네 식구가 몇이었습니까?)

- 강순화 우리 식구, 다섯 식구.(우리 식구, 다섯 식구.)
- 김보향 계민 그거 얼마나 먹어져?(그럼 그거 얼마나 먹을 수 있어?)
- 강순화 거 얼마나 먹어져. 그걸 첨. 그땐 감저로 해. 감저, 감제 팔 월 나민 팔 월 그물영 한 보름만 넘으면 감저 파당 먹엇어이. 감저 파당이 강 서 감저¹⁷⁾로 파당 먹으민 밥에. 우리 아바진 밥에 못 놓게 허더라. 그자 우리만 청 먹었주.(거 얼마나 먹을 수 있어. 그걸 참. 그땐 고구마로 해. 고구마, 고구마 팔 월 되면 팔 월 그물어서 한 보름만 넘으면 고구마 파다가 먹었어. 고구마 파다가 가서 ‘서 감저’로 파다가 먹으면 밥에. 우리 아버지는 밥에 못 넣게 하더라. 그저 우리만 썩어서 먹었지.)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이제 구월 나민 감제 갈아당 다 빼떼기 허영 도라무에 앗당 놓고 통개에 놓고 만딱 행 저슬에 빼떼기로 청 먹고 또 남은 거 저 물방에에 뺏앙.(이제 구월 되면 고구마 갈아다가 다 절간고구마 해서 드럼통에 가져다 놓고 항아리에 넣고 모두 해서 겨울에 절간고구마 썩어서 먹고 또 남은 거 저 연자매에 빼아서.)
- 김보향 아.(아.)
- 강순화 물방에에 쉬로 허영 뺏앙 합체¹⁸⁾로 청즈베기. 즈베기 허영 냄빼 놓고 밥허곡 우리 아버진 그것만은 안 먹엉이. 냄빼 놓고 국으로. 국으로 경허영이 국으로 허영 먹으민이 보리쌀이 하영 안 먹주게. 경허영 감제로 때 살았어이.(연자매에 소로 해서 빼아서 ‘합체’로 쳐서 수제비. 수제비 해서 무 넣고 밥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것만은 안 먹어. 무 넣고 국으로. 국으로 그래서 국으로 해서 먹으면 보리쌀을 많이 안 먹지. 그래서 고구마로 때 살았어.)
- 김보향 계난 서껑은 안 허고?(그러니까 썩어서는 안 하고?)
- 강순화 어?(어?)
- 김보향 서껑은 안 허고예?(翕어서는 안 하고요?)
- 권미소 감저에 보리쌀이영 썩지 않고?(고구마에 보리쌀이랑 썩지 않고?)
- 강순화 어, 보리쌀에 보리쌀에 감제 놓 먹는 사름이 하.(어, 보리쌀에 보리쌀에 고구마 놔서 먹는 사람이 많아.)
- 강순화 게도 우리 아바진 일절 못 놓게 허더라.(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일절 못 넣게 하더라.)

17) ‘서 감저’에서 ‘감저’는 고구마로, ‘서 감저’는 고구마 등이 완전히 여물기 전에 그것을 캐서 먹는 것을 말한다.

18) ‘합체’는 가는 가루를 치는 데 사용하는 체를 말한다.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우린 감자 놓은 밥 먹어보지 안 했지.(우린 고구마 넣은 밥 먹어보지 않았어.)
- 김보향 예. 감자 청 먹고 짜베기 행 먹곡 청 이제 몬 빼빼기로이.(예. 고구마 쪘서 먹고 수제비 해서 먹고 쪘서 이제 모두 절간고구마로.)
- 권미소 빼빼기로.(절간고구마로.)
- 강순화 빼빼기로 이제 사까린 놓곡 허영 청. 이제 북삭북삭 진짜 맛잇나게. 봄 낭 먹으면 그거베끼 맛신 거 엇어. 이제라도 맛섬직히여.(절간고구마로 이제 사까린 넣고 해서 쪘서. 이제 ‘북삭북삭’ 진짜 맛있어. 봄 돼서 먹으면 그거밖에 맛있는 거 없어. 이제라도 맛있을 거 같아.)
- 김보향 겐.(그래서.)
- 강순화 물질 강 오민이 진짜 맛좋아이.(물질 갔다 오면 진짜 맛좋아.)
(모두 하하하.)
- 김보향 예, 맛싯수쿠다. 그 감자 같아나민 쳐야 될 거 아니?(예, 맛있겠습니다. 그 고구마 같고 나면 쳐야 될 거 아니?)
- 강순화 으, 으.(으, 으.)
- 김보향 뭐로 칩니까?(뭐로 칩니까?)
- 강순화 저 합체로.(저 ‘합체’로.)
- 김보향 합체.(‘합체’.)
- 강순화 저 잇저, 나도.(저 있어, 나도.)
- 김보향 어떤 걸 합체렌 헙니까?(어떤 걸 ‘합체’라고 합니까?)
- 강순화 질 좀진 거.(제일 가는 거.)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흐꼼 훑은 건 거름체(조금 굵은 건 ‘거름체’.)
- 김보향 거름체.(‘거름체’)
- 강순화 그 다음 흐꼼 훑은 건 대거름체.(그 다음 조금 굵은 건 ‘대거름체’.)
- 김보향 대거름체. 그 다음?(‘대거름체’. 그 다음?)
- 강순화 대체.(‘대체’.)
- 김보향 그 다음?(그 다음?)
- 강순화 얼땡이.(어레미.)
- 김보향 다시 한 번 골아 봅서. 질 족은 거서부터.(다시 한 번 말해 보세요. 제일 작은 거에서부터.)
- 강순화 합체.(‘합체’.)
- 김보향 합체.(‘합체’.)
- 강순화 거름체. 중간 거 대거름체.(‘거름체’. 중간 거 ‘대거름체’.)
- 김보향 예.(예.)
- 강순화 젤 큰 거 얼땡이.(제일 큰 거 어레미.)
- 김보향 예, 예.(예, 예.)
- 강순화 콩 치는 거 그거.(콩 치는 거 그거.)
- 김보향 콩 치는 거.(콩 치는 거.)
- 강순화 잇다, 나도 저디.(있어, 나도 저기.)
- 김보향 예, 예. 게민 깨 거튼 거 장만힐 때 영 영 영 헉는 건?(예, 예. 그럼 깨 같은 거 장만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 강순화 푸는체. 푸는체 이제 잇저.(키. 키 이제 있어.)
- 김보향 우리 구덕도, 삼춘 아까 풀부른구덕 잇센 혜신디 지영 다니는?(우리 바구니도, 삼춘 아까 ‘풀부른구덕’ 있다고 했는데 지고 다니는?)
- 강순화 우리 지영 뎅기단 헐어 가민 풀 불라.(우리 지고 다니다가 헐어 가면 풀 발라.)
- 김보향 음.(음.)
- 강순화 경헨 썻저.(그렇게 썼어.)
- 김보향 음.(음.)
- 강순화 소못 헐기 전에.(사못 헐기 전에.)
- 김보향 음.(음.)
- 강순화 우리 옛날에 물질 갈 때 경 뎅기단 이제 바우도 틀어지고 어떻 혜 가민 이제 즐라메영 풀 불르민 쟁쟁하게 썼주게. 그렇게 살았다, 우리는.(우리 옛날에 물질 갈 때 쳐서 다니다가 이제 바위도 뜯어지고 어떻게 해 가면 이제 잘라매서 풀 바르면 쟁쟁하게 썼지.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 김보향 예, 그 구덕예, 경 뎅기는 거 뭐렌 불러?(예, 그 바구니요, 쳐서 다니는 거 뭐라고 불러?)
- 강순화 으, 큰 거 질구덕, 족은 건 송키구덕 또 족은 건 조례기.(으, 큰 거 ‘질구덕’, 작은 건 ‘송키구덕’ 또 작은 건 ‘조례기’.)
- 권미소 송키구덕?(‘송키구덕’?)
- 강순화 으, 송키구덕.(으, ‘송키구덕’.)
- 김보향 송키구덕.(‘송키구덕’.)
- 강순화 송키구덕도 잇저, 나신디.(‘송키구덕’도 있어, 나에게.)

- 김보향 계민 조례기는 뭐 헐 때 써?(그럼 ‘조례기’는 뭐 할 때 써?)
- 강순화 조례기는이 승키구덕이 하영 써이. 조례기는 무슨 보말 잡으래 갈 때 뭐 군벗 트레 갈 때 그런 거나 쓰주이.(‘조례기’는 ‘승키구덕’이 많이 써. ‘조례기’는 무슨 고동 잡으려 갈 때 뭐 군부 캐러 갈 때 그런 거나 쓰지.)
- 김보향 음.(음.)
- 강순화 승키구덕은 그자 내내. 갯것이 갈 때 써진다.(‘승키구덕’은 그저 내내. 갯가에 갈 때 써.)
- 김보향 그럼 테왁 담양 다니는 건?(그럼 ‘테왁’ 담고 다니는 건?)
- 강순화 질구덕.(‘질구덕’.)
- 김보향 계민 질구덕은 테왁 담양 다니는 거 말고 밧디 농서헐 때 또 뭐 헐 때 질구덕 을 써?(그럼 ‘질구덕’은 ‘테왁’ 담아서 다니는 거 말고 밭에 농사할 때 또 뭐 할 때 ‘질구덕’을 써?)
- 강순화 질구덕 맨날 그거 밧디도 갈 때 밥허영 날를 때도 질구덕에 날르곡. 허허 허.(‘질구덕’ 맨날 그거 밭에도 갈 때 밥해서 나를 때도 ‘질구덕’에 나르고. 하하하.)
- 권미소 밥허영 날를 때.(밥해서 나를 때.)
- 강순화 밥허영 증심허영 갈 때 이 질구덕 행 정 갓주게.(밥해서 점심해서 갈 때 이 ‘질구덕’ 해서 쳐서 갔지.)
- 김보향 정심허영 갈 때 질구덕에 갔던 거.(점심해서 갈 때 ‘질구덕’에 갔던 거.)
- 강순화 그땐이 아이구, 지게로만 지단 그땐 베로 정 가세. 베로 정 가고. 이젠 이젠 경운기 싯고 이젠이 훨체어 나오고 허난 허주 죽으나 사나 베로.(그땐 아이고, 지게로만 지다가 그땐 바로 쳐서 갔어. 바로 쳐서 가고. 이젠 이젠 경운기 있고 이젠 훨체어 나오고 하니까 하지 죽으나 사나 바로.)
- 김보향 으.(으.)
- 강순화 경 안허민 지게로.(그렇지 않으면 지게로.)
- 김보향 음.(음.)
- 강순화 우리 경핸 살았져.(우리 그렇게 살았어.)
- 김보향 그 베는 질 때 쓰는 베는 뭐 따로 멘들아 보거나는 안 헷수과?(그 베는 질 때 쓰는 바는 뭐 따로 만들어 보거나는 안 했습니까?)
- 강순화 우리 그자. 그자 베로 혜영이 장에 강 사단도 쓰곡 이녁냥으로 만들앙도. 난 이녁냥으로 만든 거 싯져.(우리 그자. 그자 바로 해서 장에 가서 사다가도 쓰고 자기대로 만들어서도. 난 나대로 만든 거 있어.)
- 김보향 뭐로 만들엇수과?(뭐로 만들었습니까?)
- 강순화 난 광목으로.(난 광목으로.)
- 김보향 광목으로.(광목으로.)
- 강순화 광목으로 만들앙 허곡이.(광목으로 만들어서 하고.)
- 김보향 예, 맞수다예. 만들앙 쓰고. 우리 농사질 때 보면 아까 밧 갈 때 보면 그 쟁기 로도 갈지만 요런 우영밧디 소소헌 거 헐 때는 영, 영도 헐 거 아니?(예, 맞습 니다. 만들어서 쓰고. 우리 농사질 때 보면 아까 밭 갈 때 보면 그 쟁기로도 갈지만 요런 텃밭 소소한 거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도 할 거 아니?)
- 강순화 으, 소스랑.(으, 쇠스랑.)
- 김보향 소스랑.(쇠스랑.)
- 강순화 팽이.(팽이.)
- 김보향 팽이.(팽이.)
- 강순화 팽이도 잊고 소스랑도 잊고.(팽이도 있고 쇠스랑도 있고.)
- 김보향 땅 팔 때는 뭐로 해?(땅 팔 때는 뭐로 해?)
- 강순화 땅 팔 때는 갈레죽.(땅 팔 때는 삽.)
- 김보향 갈레죽으로도 허고예. 땅 팔 때 갈레죽으로 허고 또 뭐 헙니까?(삽으로도 하 고요. 땅 팔 때 삽으로도 하고 또 뭐 헙니까?)
- 강순화 아, 그 큰물 그거로 해도 그거 따비엔 헌다. 이디 영 돋양 영 헉는 거. 이딘 그 거 안 쓴다.(아, 그 ‘큰물’은 그거로 해도 그거 따비라고 해. 여기 이렇게 돋아서 이렇게 하는 거. 여긴 그거 안 써.)
- 김보향 안 써난예.(안 쓰니까요.)
- 강순화 큰물디 그거 쓴다.(‘큰물’에 그거 써.)
- 김보향 따빈 어떤 밧디 써낫수과?(따빈은 어떤 밭에 썼었습니까?)
- 강순화 아, 그건이 무슨이 새왓이나 이길 때 그런 거 쓰주, 이딘 그런 거 안 쓴다 게.(아, 그건 무슨 떠밭이나 이길 때 그런 거 쓰지, 여긴 그런 거 안 써.)
- 김보향 보통 다. 겐 삼춘 쟁기로 밧 갈당 경운기로 밧 갈기 시작한 게 언제 뛰난 경 운기로델 밧 갈앗수과?(보통 다. 그래서 삼춘 쟁기로 밭 갈다가 경운기로 밭 갈기 시작한 게 언제 되니까 그렇게 경운기로들 밭 갈았습니까?)
- 강순화 으, 경운기로 밧 가는 게 오래지 안 헷저게.(으, 경운기로 밭 가는 게 오래지 않았어.)
- 김보향 음.(음.)
- 강순화 경운기로 밧 간 게 우리가이 저 혼, 나가 이 집 혼 혼 뗏에 짓으난에 그때야 경

운기 오고 밧 가는 기계 오고 헷어.(경운기로 밭 간 게 우리가 저 한, 내가 이 집 한 쌈 몇에 지으니까 그때야 경운기 오고 밧 가는 기계 오고 했어.)

김보향 같아?(같아?)

강순화 으, 경허난 그걸로 밧 갈고 경운기질 허고 허난이 첨이, 쉐로 잠대로 갈단덜 혹혹 데껴뒹 그걸로만 사뭇 경운기로만 갈아세.(으, 그러니까 그걸로 밧 갈고 경운기질 하고 하니까 참, 소로 쟁기로 같다가 혹혹 던져두고 그걸로만 사뭇 경운기로만 같잖아.)

김보향 걸름도 경운기로만 실렁 가고예?(거름도 경운기로만 실어서 가고요?)

강순화 그 시절에 그때라 가난 돛걸름 안 허연.(그 시절에 그때 가니까 돋지거름 안 했어.)

김보향 안 허여.(안 했어.)
(모두 하하하.)

김보향 뭐 허연?(뭐 했어?)

강순화 비료로, 비료로.(비료로, 비료로.)

김보향 비료로.(비료로.)

강순화 그때라 가난 돛걸름도 안 허고 몸 걸름도 안 허연.(그때여 가니까 돋지거름도 안 하고 모자반 거름도 안 해.)

김보향 으.(으.)

강순화 경허난 비료로. 그자 비료 혼 스무남은 포씩 우린이 헤영이 셋저게. 경허영 허주이, 비료로 썬 돛걸름도 안 허고. 계난 그때라 가난 돛걸름도 안 허고. 경허난 그때라 가난 혼꼼 셔 가난 돛통 다 엊어 불언.(그러니까 비료로. 그저 비료 한 스무남은 포씩 우린 해서 썼어. 그렇게 하지, 비료로 써서 돋지거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여 가니까 돋지거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여 가니까 조금 있어 가니까 돋지우리가 다 없어.)

김보향 그 아까 돛걸름 실려 갈 때 지게로 지는 거 말고 쉐로는 안 실려낫수과?(그 아까 돋지거름 실어 갈 때 지게로 지는 거 말고 소로는 안 실었었습니까?)

강순화 아, 쉐로 안 헌다. 쉐로 안 헌다게.(아, 소로 안 해. 소로 안 해.)

김보향 쉐로 안 허여.(소로 안 해.)

강순화 쉐로 안 허여.(소로 안 해.)

김보향 계민 보리, 보리농사 지은 거 실려 올 때도?(그럼 보리, 보리농사 지은 거 실어 올 때도?)

강순화 실려 올 때 안 헌다게.(실어 올 때 안 해.)

김보향 쉐는 뭐 시켰수과, 계민?(소는 뭐 시켰습니까, 그럼?)

강순화 쉐이 그자 밧 갈 때만 허여.(소는 그저 밧 갈 때만 해..)

김보향 밧 갈 때.(밭 갈 때.)

강순화 이던 쉐 안 헌다게.(여긴 소 안 해..)

권미소 방에 혈 때 허고.(방아 할 때 하고.)

강순화 방에 질 때 허고 밧 갈 때만 헷주. 쉐로 안 헌다게.(방아 징을 때 하고 밧 갈 때만 했지. 소로 안 해..)

김보향 계민 쉐에 짐 시끄젠 우에 씌우는 거, 거 뭐렌 골웁니까?(그럼 소에 짐 실으려고 위에 씌우는 거, 거 뭐라고 말합니까?)

강순화 거 거시기 명에.(거 거시기 명에.)

김보향 명에 말고 명엔 밧 갈 때고. 질메 지와 빛수과?(멍에 말고 명에는 밧 갈 때고. 길마 지워 봤습니까?)

강순화 질메 그건이 큰물인 그거 놓 짐도 시끄고 허는디 아이고, 잘 모르켜, 난. 이던 안 해 부난 나 모르켜.(길마 그건 ‘큰물’은 그거 놔서 짐도 싣고 하는데 아이고, 잘 모르겠어, 난. 여긴 안 해 버리니까 내가 모르겠어.)

김보향 쉐 일 안 시켰구나.(소 일 안 시켰구나.)

강순화 영현 거개, 영현 거.(이런 거, 이런 거.)

김보향 예, 맞수다. 질메.(예, 맞습니다. 길마.)

강순화 저 등땡이레 탁 놓는 거. 질메엔 헌다, 질메.(저 등에 탁 놓는 거. 길마라고 해, 길마.)

김보향 질메예.(길마요..)

강순화 질메 씌우라. 영 허영 그것에 질메 씌왕 구루마도 메우고 짐도 시끄고.(길마 씌워. 이렇게 해서 그것에 길마 씌워서 수레도 메우고 짐도 싣고.)

김보향 계민 구루마도 안 끊어 봤?(그럼 수레도 안 끌어 봤어?)

강순화 아이, 구루마 안 허여, 이디 구루마 안 허여. 우리 구루마 하나 우리 헤낫저.(아니, 수레 안 해, 여기 수레 안 해. 우리 수레 하나 우리 했었어.)

김보향 으.(으.)

강순화 우리 허연. 쉐로 허영 오들랑. 아니 허단 쉐로 허난 오돌랑오돌랑허명이 못 허영이 구루마도 데껴 불고이. 첨, 그때도이 그 시절에도이 이여카도 엊어저.(우리 했어. 소로 해서 ‘오들랑’. 안 하다가 소로 하니까 ‘오돌랑오돌랑하면서’ 못 해서 수레도 버리고. 참, 그때도 그 시절에도 리어카도 없었어.)

김보향 으.(으.)

강순화 이여카도 엇언에 우리 오라방 해병대난 부산서 완 이추룩 지게 져 가난 이여
카 하나 헤연 오난이 이 동네방네 다 텅겼저.(리어카도 없어서 우리 오라버
니가 해병대니까 부산서 와서 이처럼 지게 지니까 리어카 하나 해서 오니까
이 동네방네 다 다녔어.)

김보향 빌려 줄?(빌려 줘서?)

강순화 빌려 줄. 겨고 또 우리 이모네 집 또 이여카 하나 시난 이 동네 사름덜 다 빌
언 헷저. 계난 그 후제 이여카덜 지만썩 흙꼼씩 하나씩 두 개씩 허고 경운기
나난이 경운기 나난 이여카도 필요 엇더라게. 경운기로 허연.(빌려 줘서. 그
리고 또 우리 이모네 집에 또 리어카 하나 있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 다 빌려
서 했어. 그러니까 그 후에 리어카들 자기대로 조금씩 하나씩 두 개씩 하고
경운기 나오니까 리어카도 필요 없더라. 경운기로 했어.)

김보향 경했구나. 예, 고맙수다.(그랬구나. 예, 고맙습니다.)

* 안성리 이춘인 씨의 도구 이야기

구술: 이춘인(1934년생)

조사: 김보향, 강수경, 권미소

김보향 삼춘 성함이 어떻 됬수과?(삼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이춘인 이춘인.(이춘인.)

김보향 인.(인.)

이춘인 어질 인자. 공항에 가나 병원에 가나 허민 난 항상 어디 가면 어질 인자 골아
야. 나 공항에서 비행기 타례 갓다 돌아와근에 나은 자 바꿩 가냘주게.(어질
인자. 공항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하면 난 항상 어디 가면 어질 인자 말해
야. 내가 공항에서 비행기 타려 갔다가 돌아와서 나은 자 바꿔서 갔었거든.)

김보향 아.(아.)

이춘인 경혜나난 글후젠 어질 인자 똑 말해야 돼여. 경 안허민 니은도 바치고 이응도
바치민 이응은 틀려 불어.(그리고 나니까 그 후에는 어질 인자 꼭 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니은도 받치고 이응도 받치면 이응은 틀려.)

김보향 예. 계난 연세 어떻 뛰시멘마씨?(예. 그러니까 연세 어떻게 되시나요?)

이춘인 나 이제 윗.(나 이제 여섯.)

김보향 앞에는?(앞에는?)

이춘인 윗답.(여덟.)

김보향 우와, 목소리가 찌렁찌렁하고 잘도 건강하신게.(목소리가 찌렁찌렁하고 매
우 건강하시네요.)

이춘인 몸은 어떻 안헐디 나 다리가 아팡 수술했주게.(몸은 어떻지 않은데 내가 다
리가 아파서 수술했지.)

김보향 예. 삼춘 원래 안성리과?(예. 삼춘 원래 안성리입니까?)

이춘인 난 모슬포, 원래는.(난 모슬포, 원래는.)

김보향 여기로 시집온 거?(여기로 시집온 거?)

이춘인 이 집이 시집온 거.(이 집에 시집온 거.)

김보향 몇 살에 시집왔수과?(몇 살에 시집왔습니까?)

이춘인 스물두 설에. 스물두 설에 시집왔어.(스물두 살에. 스물두 살에 시집왔어.)
김보향 예, 삼촌, 식생활 관련한 도구덜 물어보쿠다. 처음에 시집왔을 때 생각하던 그때 모습을 생각해 봅서예. 정지 들어가면 솟이 몇 개나 잇어난?(예, 삼촌, 식생활 관련한 도구들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집왔을 때 생각하면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부엌 들어가면 솟이 몇 개나 있었어요?)
이춘인 대부분은 솟이 큰솟 하나 놓고 건 큰일 때 쓰젠 큰솟 하나 놓곡 죽은 솟, 밥하는 솟 국 끓이는 솟. 게민 그 다음엔 냄비라도 하나 해근에, 그땐 냄비도 어려 왓주만은 그런 거 헤근에 반찬 해 먹고 대부분 솟 시 개 거는 게 보통이주 게.(대부분은 솟이 큰솥 하나 놓고 건 큰일 때 쓰려고 큰솥 하나 놓고 작은 솟, 밥하는 솟 국 끓이는 솟. 그럼 그 다음에는 냄비라도 하나 해서, 그땐 냄비도 어려웠지만 그런 거 해서 반찬 해서 먹고 대부분 솟 세 개 거는 게 보통 이지.)
김보향 시 개 거는 거라예?(세 개 거는 거지요?)
이춘인 세 개. 큰 거 하나 놓고 국 끓일 거, 밥헐 거.(세 개. 큰 거 하나 놓고 국 끓일 거, 밥할 거.)
김보향 밥헐 거. 그민 그때도 삼춘 시집을 때도 췌솟이랑수과?(밥할 거. 그럼 그때도 삼춘 시집을 때도 쇠솥이었습니까?)
이춘인 췌솟게.(쇠솥.)
김보향 그때 췌솟? 가마솟?(그때 쇠솥? 가마솥?)
이춘인 아니, 가마솟.(아니, 가마솥.)
김보향 무췌솟 아니고?(무쇠솥 아니고?)
이춘인 무췌솟게, 무췌솟.(무쇠솥, 무쇠솥.)
김보향 그지예, 무췌솟.(그렇지요, 무쇠솥.)
이춘인 게민 옛날에 경허메. 어떤 집안에 들어가근에 깨끗한지 첫째 보는 건 솟이 반짝거리는 솟. 그런 것에.(그럼 옛날에 그러해. 어떤 집안에 들어가서 깨끗한지 첫째 보는 건 솟이 반짝거리는 솟. 그런 것에.)
김보향 살림 잘하는지 못하는지?(살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춘인 그지. 어떤 집이 가민 그 솟이 기가 막히주게. 그 부꺼난 거 그냥 막 시민. 사람들, 그때 옛날엔 경 헤나서. 어떤 집안에 영 들어가민 그때 옛날에 문이 딱 부엌문, 마루문 것베끼 엇잖아.(그렇지. 어떤 집에 가면 그 솟이 기가 막히지. 그 끓어 넘쳤던 거 그냥 많이 있으면. 사람들, 그때 옛날엔 그렇게 했었

어. 어떤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옛날에 문이 딱 부엌문, 마루문 것밖에 없잖아.)
김보향 예.(예.)
이춘인 영 가민 마루 아니민 주방베끼 더 베려게. 영 보민 옛날말로 정지주, 정지, 주방에 보민 거 솟 보민 “아이고, 이 집이 어멍 착하구나, 게을르구나.” 그추룩 헤낫어.(이렇게 가면 마루 아니면 주방밖에 더 봐? 이렇게 보면 옛날말로 부엌이지, 부엌. 주방에 보면 거 솟 보면 “아이고, 이 집의 어머니 착하구나, 게으르구나.” 그렇게 했었어.)
김보향 음.(음.)
이춘인 계난 우리 시어명도 보통 시어명이 아니난 진짜 솟 그 울앙 보명 다끄라 허메. 매날 솟천을 둘러도 먼지가 들어오잖아. 우리 시어명도 깨끗한 할망이고 보통 할망이 아니.(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니까 진짜 솟 그 열어 보면서 닦아라 해. 맨날 솟전을 둘러도 먼지가 들어오잖아. 우리 시어머니도 깨끗한 할머니고 보통 할머니 아니.)
김보향 아, 게민 솟이 세 개 시민 큰솟 불려난 일름이 있수과?(아, 그럼 솟이 세 개 있으면 큰솥 불렸던 이름이 있습니까?)
이춘인 말치.(‘말치’)
김보향 그 다음 가운데 솟은?(그 다음 가운데 솟은?)
이춘인 몰라, 것을 뛰사 헤신고?(몰라, 것을 뛰라고 했는지?)
김보향 어쨌든 작은 거는?(어쨌든 작은 거는?)
이춘인 아니, 두 개는 보통 거의.(아니, 두 개는 보통 거의.)
김보향 거의 비슷해예.(거의 비슷하지요.)
이춘인 그튼 거주게.(같은 거지.)
김보향 게민 말치 솟은 훈 말 정도 들어가난 말치렌 불렸던 거?(그럼 ‘말치’ 솟은 한 말 정도 들어가니까 ‘말치’라고 불렸던 거?)
이춘인 그추룩 훈 말은 안 들어갔어.(그처럼 한 말은 안 들어갔어.)
김보향 안 들어갔어.(안 들어갔어.)
이춘인 건 장 담는 솟이나 그런 거나 큰솟 허지만은 이런 가정에 헤는 건 그자 헛꼼 제사 때나 밥이나 헛꼼 많이 허젠허민 하나 거는 거고, 남은 건 죽은 거 두 개 걸렁 쓰주게.(건 장 담는 솟이나 그런 거나 큰솥 하지만 이런 가정에 하는 건 그저 조금 제사 때나 밥이나 조금 많이 하려고 하면 하나 거는 거고, 남은 건

- 작은 거 두 개 걸어서 쓰지.)
- 김보향 두 개 걸엉. 게민 이 말치 솟은 평상시에는 잘 안 썻수다예?(두 개 걸어서. 그럼 이 ‘말치’ 솔은 평상시에는 잘 안 썼네요?)
- 이춘인 그렇지.(그렇지.)
- 김보향 뭐 헐 때 썻수과?(뭐 할 때 썼습니까?)
- 이춘인 물이나 데우젠 허민 쓰카 몰라.(물이나 데우려고 하면 쓸까 몰라.)
- 김보향 물 데우고.(물 데우고.)
- 이춘인 물도 데워야 쓸 거 아니?(물도 데워야 쓸 거 아니?)
- 김보향 으.(으.)
- 이춘인 더운 물이 나오는 데가 엇으냔. 경해난 거 닳아.(더운 물이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그랬던 거 같아.)
- 김보향 음. 계난 정지에 들어가민 솟 있고 그 다음 또 뭐 잇수과?(음.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면 솟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 이춘인 살례.(찬장.)
- 김보향 예, 살례.(예, 찬장.)
- 이춘인 살례는, 이제는, 이제는 냉장고가 살례라.(살례는, 이제는, 이제는 냉장고가 찬장이야.)
- 김보향 음.(음.)
- 이춘인 지금은 냉장고 살례로 쓰주게. 그때는 살례 문도 엇고 그냥 사발 숟가락 그냥 싯엉 어펴다근에 내방 쓰고 경해낫주게.(지금은 냉장고 찬장으로 쓰지. 그때는 찬장 문도 없고 그냥 사발 숟가락 그냥 씻어서 엎었다가 내놓고 쓰고 그랬었지.)
- 김보향 음.(음.)
- 이춘인 경험베끼. 난 이제도 영 행 영 이녁냥으로 아이고, 옛날에 살례로 쓰는 거, 반찬이엔 허는 거 다 그디만 가잖아?(그렇게 하는 것밖에. 난 이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대로 아이고, 옛날에 찬장으로 쓰는 거, 반찬이라고 하는 거 다 거기만 가잖아?)
- 김보향 음.(음.)
- 이춘인 아이고, 살례가 이추룩 깨깻허게 웠.(아이고, 찬장이 이처럼 깨끗하게 됐어.)
- 김보향 웨불언.(됐어.)
- 이춘인 나도 옛날 생각을 하영 헤여. 심심허믄 앗앙.(나도 옛날 생각을 많이 해. 심
- 심하면 앗아서.)
- 김보향 게믄 살례에는 문이 있어냔?(그럼 찬장에는 문이 있었어?)
- 이춘인 우리 시집을 때 문 엇어냔.(우리 시집을 때 문 없었어.)
- 김보향 문 엇어낫어.(문 없었어.)
- 이춘인 젠디 ㅎ꼼 살아가난.(그런데 조금 살아가니까.)
- 김보향 문 달련.(문 달렸어.)
- 이춘인 문 달령 또 허여가단 또 그런 거 설리 됭 이제 저 우리 저편이 찬장.(문 달려서 또 하다가 또 그런 거 치워 두고 이제 저 우리 저편이 찬장.)
- 김보향 음.(음.)
- 이춘인 저런 찬장덜 이런 마리에덜 냥 쓰곡 경햇주게.(저런 찬장을 이런 마루에들 놔서 쓰고 그랬지.)
- 김보향 게민 살례 보게예. 문은 안 달리고. 이게 몇 칸으로 됫수과?(그럼 찬장 봐요. 문은 안 달리고. 이게 몇 칸으로 되었습니까?)
- 이춘인 칸은 오라 칸 훠여. 혼 세 칸 네 칸 훠여.(칸은 여러 칸 되어. 한 세 칸 네 칸 되어.)
- 김보향 세 칸 네 칸 됫던 거. 그럼 밑에는 대나무로?(세 칸 네 칸 되었던 거. 그럼 밑에는 대나무로?)
- 이춘인 대나무로 헌 디도 싯고 그자 널, 널로 헌 디도 싯고.(대나무로 한 데도 있고 그저 널, 널로 한 데도 있고.)
- 김보향 널로도 허고.(널로도 하고.)
- 이춘인 경허영 허여. 대나무로 헌 건 잘 안 봐진 거 닳아. 어떤 집이 봐진 거 닳기도, 굽아 가난 생각나는디 대부분은 널로.(그렇게 해. 대나무로 한 건 잘 안 본 거 같아. 어떤 집에서 본 거 같기도. 말해 가니까 생각나는데 대부분은 널로.)
- 김보향 게민 그 살례에 뭐 뭐 담아난? 반찬 먹어난 것도 담고?(그럼 그 찬장에 뭐 뭐 담았었어? 반찬 먹었던 것도 담고?)
- 이춘인 반찬, 그때야 반찬 무신. 그때야 대부분은 무시거나 저 마농지 그런 거나 경살례가 필요 엇이 그 우에 냥 뭐 더끄민 그만 아니. 접시나 더끄민 그만이고.(반찬, 그때야 반찬 무슨. 그때야 대부분은 뭐지 저 마늘장아찌 그런 거나 그렇게 찬장이 필요 없이 그 위에 놔서 뭐 덮으면 그만 아니. 접시나 덮으면 그만이고.)
- 김보향 음.(음.)

이춘인 아메도 요만한 항아리 새끼 멘들아근에 그레 놋다근에 그때 먹을 때 덜엉 먹을 수도 있고. 경혜난 거 닮아.(아무래도 요만한 항아리 새끼 만들어서 그리놨다가 그때 먹을 때 덜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랬던 거 같아.)

김보향 게민 살례에 그릇 씻엉 거기에 어프기도 허고.(그럼 찬장에 그릇 씻어서 거기에 엎기도 하고.)

이춘인 게, 그릇 씻엉 다 살례에 어프고. 또시 그 위에 또시 흐꼼 벤또 모양으로 차롱 착덜 그런 거 해근에 어픔도 허고 그릇 시쳐난 다라도 그것에 낭푼이 있어야 그릇 시칠 거 아니. 물 하영 받안.(그렇지, 그릇 씻어서 다 찬장에 엎고. 또 그 위에 또 조금 도시락 모양으로 채롱 짹들 그런 거 해서 엎기도 하고 그릇 씻었던 대야도 그것에 양푼이 있어야 그릇 씻을 거 아니. 물 많이 받았어.)

김보향 음.(음.)

이춘인 그런 것도 올려놓기도 허고 경허엿주게. 경혜사 주방이 깨끗할 거 아니?(그런 것도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지. 그래야 주방이 깨끗할 거 아니?)

김보향 음.(음.)

이춘인 그릇에 물에 그릇 시쳐 나면은 문딱 비와 놋근에 어ftware 그릇 내낳 쓰곡.(그릇에 물에 그릇 씻고 나면 모두 비워서 엎었다가 그릇 내놓고 쓰고.)

김보향 순가락 젓가락 잇수다예. 그건.(순가락 젓가락 있지요. 그건.)

이춘인 순가락 젓가락은.(순가락 젓가락은.)

김보향 어디 담아? 어디 꽂아?(어디 담아? 어디 꽂아?)

이춘인 그런 거 저런 거 대통 그런 거 돌아메영. 나 시집왕 보난 그런 거 선계.(그런 거 저런 거 ‘대통’ 그런 거 달아매서. 내가 시집와서 보니까 그런 거 있었어.)

김보향 살례 옆에 돌아정예?(찬장 옆에 달려셔요?)

강수경 그거 무사 대통이렌 힙니까?(그거 왜 ‘대통’이라고 합니까?)

이춘인 어?(어?)

강수경 그거 대통이렌 허여?(그거 ‘대통’이라고 해?)

김보향 대로 만들어부난?(대로 만드니까?)

이춘인 순가락통은 순가락통인데.(수저통은 수저통인데.)

강수경 젯통, 젯통?(‘잿통’, ‘잿통’?)

이춘인 우리 순가락통, 순가락통이렌 헷는디 나가 이제 그만히 생각해 보난 것이 대답아.(우리 수저통, 수저통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대 같아.)

강수경 맞수다.(맞습니다.)

이춘인 대로 요만이 요만이 큰 거 돌아땡.(대로 이만큼 이만큼 큰 거 달아매서.)

강수경 계난 삼촌은 대통이렌 불러나신디 젯통이렌 허는 말도 골아낫수과?(그러니까 삼촌은 ‘대통’이라고 불렀었는데 ‘잿통’이라고 하는 말도 했었습니까?)

이춘인 몰라, 이제사 순가락통이난.(몰라, 이제야 수저통이니까.)

김보향 예, 예. 정지에 솟 잇고 살례 잇수다. 또 뭐 잇수과, 정지에 들어강 보민?(예, 예. 부엌에 솟 있고 찬장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보면?)

이춘인 물항.(물독.)

김보향 물항 잇어낫지예.(물독 있었지요.)

이춘인 것이 물항이 첫째주게.(것이 물독이 첫째지.)

김보향 예, 예.(예, 예.)

이춘인 물항도 여기는, 우리 모실포선 땅으로 솟아나는 물을 먹었주만 이젠 이젠 다 막아 벗주만은. 이제 부두례 가는 그 옆이 것이 바당이라. 글로 그레 바당이 주.(물독도 여기는, 우리 모슬포에서는 땅으로 솟아나는 물을 먹었지만 이젠 이젠 다 막아 버렸지만. 이제 부두로 가는 그 옆의 것이 바다야. 그리로 그리 바다지.)

김보향 으. 으.(으. 으.)

이춘인 우린 물 져다가 깨끗한 물 져다가 먹었는디 여기 시집왕 보난 물에 쉬가 있어. 보글보글 기는 쉬가 있어.(우린 물 져다가 깨끗한 물 져다가 먹었는데 여기 시집와서 보니까 물에 쉬가 있어. 보글보글 기는 쉬가 있어.)

김보향 아.(아.)

이춘인 계난 난 훈번은 우리 시어멍이영 물 질레 간 보난, 그거 시난 그냥 완.(그러니까 난 한 번은 우리 시어머니랑 물 길러 가서 보니까, 그거 있으니까 그냥 왔어.)

김보향 어디 물 질레 가난?(어디 물 길러 갔었어?)

이춘인 이디 저 남문 앞이 저디.(여기 저 남문 앞에 저기.)

김보향 남문 앞에?(남문 앞에?)

이춘인 그디 그 물통 흐꼼만허게 먹는 물통 다 헤낫어. 이제 물 큰 거 헌디 읊이 먹는 물은 따로 헤낫주게. 그디 강 난 질레 강 바레 보난 보글보글 허난 추접허덴 그냥 오난 우리 시어멍한테 욕 쳐들언에.(거기 그 물통 조그마하게 먹는 물통 다 했었어. 이제 물 큰 거 옆에 먹는 물은 따로 했었지. 거기 가서 난 길러 가서 보니까, 쉬가 보글보글 하니까 더럽다고 그냥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한

- 테 욕 처들었어.)
- 김보향 으.(으.)
- 이춘인 강 영 허대기면 것이 엊어진다고 그거 헨 완. 헌디 나 그 동네 놀래 갓단에 우리 아는 디 놀래 갓단에 항에 물 거려 보난 그거에 쉬가 있어. 계난 솔째기 놓 그냥 와 불언. 나 잊어볼지 안허여, 이제도 그냥 비와난 거.(가서 이렇게 휘저으면 그것이 없어진다고 그거 해서 왔어. 그런데 내가 그 동네 놀러 갔다가 우리 아는 데 놀러 갔다가 항아리에 물 떠서 보니까 그거에 쉬가 있어. 그러니까 살짝 놔서 그냥 와 버렸어. 나 잊어버리지 않아. 이제도 그냥 비웠던 거.)
- (모두 하하하.)
- 이춘인 난 산물에서 먹엉 살아나난.(난 산물에서 먹고 살았었으니까.)
- 김보향 맞아. 산물 먹엉 살아나니까.(맞아. 산물 먹고 살았었으니까.)
- 이춘인 비 와 나민 그레 흑이 들어강 부영허잖아. 나 그거 먹게 막 힘들게 살게. 경헨 허 단 보난 내 고향이 뛰 부난에.(비 오고 나면 그리 흙이 들어가서 부옇잖아. 내가 그거 먹게 아주 힘들게 살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 고향이 돼 버려서.)
- 김보향 먹엄주, 하하하.(먹고 있지. 하하하.)
- 이춘인 또 요 두에 집 앉은 두에가 또 그물을 골라야만. 매번 비 오지 안허니까 그디 가기가 멀잖아. 계난 이디 물통을 파서.(또 요 뒤의 집 앉은 뒤가 또 그물을 골라야만. 매번 비 오지 않으니까 거기 가기가 멀잖아. 그러니까 여기 물통을 파서.)
- 김보향 아.(아.)
- 이춘인 마을에서.(마을에서.)
- 김보향 예.(예.)
- 이춘인 막 크게 판에 물 골랑 오래가게끔. 경허민 비 막 하영 오민 그것이 물은 반은 그득았다근에 차차 물 엊어져 가주게. 엊어져 가민 물이 깨끗해 가.(아주 크게 파서 물 골라서 오래가게끔. 그러면 비 아주 많이 오면 그것이 물은 반은 가득 찼다가 차차 물 없어져 가지. 없어져 가면 물이 깨끗해 가.)
- 김보향 맞아.(맞아.)
- 이춘인 경혜가민 항딜 서너네 개씩 놔, 주방에. 막 져다 놓 그거 물 엊어지기 전 이.(그러면 항아리들 서너 개씩 놔, 주방에. 마구 져다 놓고 그거 물 없어지기 전에.)
- 김보향 어.(어.)
- 이춘인 경허영 우리 경헨 먹어난.(그렇게 우리 그렇게 먹었었어.)
- 김보향 계난 삼춘네도 정지에 물항이 냇 개 잊어난 거?(그러니까 삼춘네도 부엌에 물독이 몇 개 있었던 거?)
- 이춘인 혼 서너 개, 서너 개 있어.(한 서너 개, 서너 개 있어.)
- 김보향 물항 얼만큼 컷수파?(물독 얼만큼 컷습니까?)
- 이춘인 물항 크주, 이만씩.(물독 크지, 이만큼씩.)
- 김보향 이만씩한 거 세 개씩예?(이만한 거 세 개씩요?)
- 이춘인 우리 허벅으로 물 쳐 오민 다서으섯 개 들어가는 거.(우리 허벅으로 물 쳐서 오면 대여섯 개 들어가는 거.)
- 김보향 아, 예.(아, 예.)
- 이춘인 경허민 허벅이 열 뛰민 물 육십 뛰 들어가는 거.(그러면 허벅이 열 되면 물 육십 되 들어가는 거.)
- 김보향 육십 뛰 들어가는 거.(육십 되 들어가는 거.)
- 이춘인 으, 항 그런 거 행 놋당 비만 오민 갈라앉는 거 기다려.(으, 항 그런 거 해서 놋다가 비만 오면 가라앉는 거 기다려.)
- 김보향 가라앉는 거예?(가라앉는 거요?)
- 이춘인 으, 가라앉으면은 물이 깨끗허민, 그 쉬 일기 전이. 그 쉬 헛쯤 시민 일거든. 그거 전이 물 막 항 그득여 불어.(으, 가라앉으면 물이 깨끗하면, 그 쉬 일기 전에. 그 쉬는 조금 있으면 일거든. 그거 전에 물 마구 항아리 가득하게 해.)
- 김보향 아.(아.)
- 이춘인 경허민 그거 먹엄시민 또 비 올 수도 있고.(그러면 그거 먹고 있으면 또 비 올 수도 있고.)
- 김보향 아. 계난 물 질래 가젠 허민 뭐 가정 가야 뛰?(아. 그러니까 물 길러 가려고 하면 뭐 가져 가야 돼?)
- 이춘인 바가지 혼나 앗고 허벅 정 가고.(바가지 하나 가지고 ‘허벅’ 쳐서 가고.)
- 김보향 허벅은 뭐에 넣 허벅 질 거라?(‘허벅’은 뭐에 놔서 ‘허벅’ 질 거야?)
- 이춘인 허벅 지는 바구니가 옛날 셔낫어.(‘허벅’ 지는 바구니가 옛날에 있었어.)
- 김보향 계난 구덕예?(그러니까 바구니요?)
- 이춘인 으, 구덕에, 물구덕에 넣.(으, 바구니에, ‘물구덕’에 놔서.)
- 김보향 물구덕에 물 흘리지 말렌 뭐 밑에 받치고도 헤낫수과?(‘물구덕’에 물 흘리지 말라고 뭐 밑에 받치고도 했었습니까?)

이춘인 게, 받치주게.(그럼, 받치지.)
김보향 뭐로 만든 거 받쳐난?(뭐로 만든 거 받쳤어?)
이춘인 게메 그때 뒷으로 헤나져신고? 아무튼 이 등데레 안 오게끔 물은 받쳐나진
거 같은디.(글쎄 그때 뭐로 했었나? 아무튼 이 등에 안 오게끔 물은 받쳤던
거 같은데.)
김보향 으.(으.)
이춘인 무슨 기진 모르큰게.(무슨 천인지 모르겠어.)
김보향 기진 모르고요? 게민 그거 뭐렌 불러난 것도 잘 생각 안 나고예?(천은 모르고
요? 그럼 그거 뭐라고 불렀던 것도 잘 생각 안 나고요?)
이춘인 우리 그자 영 무시것고, 구덕에 등받이 영 만들엉 허주게.(우리 그저 이렇게
뭐냐, 바구니에 등받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
김보향 으, 아프지 말렌.(으, 아프지 말라고.)
이춘인 그런 거 등받인 행 뎅긴 건 알아지는디 깔아난 건 무슨 거 깔아난 거 모르큰
게.(그런 거 등받이는 해서 다닌 건 아는데 깔았던 건 뭐 깔았던 거 모르겠어.)
김보향 예, 예 알았수다. 삼춘은 물허벽에 놔 가지고 정 다녀낫잖아?(예, 예 알겠습
니다. 삼춘은 ‘물허벽’에 놔 가지고 지고 다녔었잖아?)
이춘인 게.(그래.)
김보향 혹시 아이덜, 어렸을 때 물 질 때 허벽보다 좀 작은 거?(혹시 아이들, 어렸을
때 물 길을 때 ‘허벽’보다 좀 작은 거?)
이춘인 으, 작은 거. 나도 모실포서 시집을 때꺼지는 거 젠주. 나 경허명 그거 맷
개 벌런.(으, 작은 거. 나도 모슬포에서 시집을 때까지는 거 졌었지. 내가 그
러면서 그거 몇 개 깼어.)
(모두 하하하.)
이춘인 물 질엉 이디 올려놔야 할 거 아니라.(물 길어서 여기 올려놔야 할 거 아니야.)
김보향 예.(예.)
이춘인 그냥 물 질엉근에 허벅더레 놓민 무겁잖아.(그냥 물 길어서 ‘허벽’에 놓으면
무겁잖아.)
김보향 음.(음.)
이춘인 탁 놓민 까견.(탁 놓으면 깨졌어.)
(모두 하하하.)
김보향 깨 불언?(깨 버렸어?)
이춘인 나 맷 번 경 혜난.(나 몇 번 그렇게 했었어.)

김보향 깨 불언. 게민 그 허벽보다 죽은 거 불러난 이름은?(깨 버렸어. 그럼 그 ‘허
벽’보다 작은 거 불렀던 이름은?)
이춘인 대베기.(‘대베기’.)
김보향 대베기예.(‘대베기’요.)
이춘인 대베기 쓰다가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린 때 할망덜 말이 경 곁는 거라. 들엉 잊
어불지 안히여. 어린 때 대베기 지다가 허벽 지다가 또 대베기 지는 거
라.(‘대베기’ 쓰다가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린 때 할머니들 말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들어서 잊어버리지 않아. 어렸을 때 ‘대베기’ 지다가 ‘허벽’ 지다가 또
‘대베기’ 지는 거야.)
김보향 아.(아.)
이춘인 할망 뛰니까.(할머니 되니까.)
김보향 할망 뛰니까.(할머니 되니까.)
이춘인 그런 말은 나 귀에, 머리에 잊어볼지 안히여.(그런 말은 내 귀에, 머리에 잊어
버리지 않아.)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예.(맞습니다, 맞지요.)
강수경 진짜 할망 뛰민 대베기 젠낫수과?(진짜 할머니 되면 ‘대베기’ 졌었습니까?)
이춘인 그렇지. 우린 이젠 엉으난, 수도 시난 험주. 옛날엔 우리가 그 나이엔 할망덜
이 많잖아.(그렇지. 우린 이젠 없으니까. 수도 있으니까 하지. 옛날엔 우리가
그 나이에는 할머니들이 많잖아.)
김보향 아.(아.)
이춘인 그 할망들 물 지는 할망들 시민 우린 그때 어린 마음으로 할망 대베기 정 허민
우린 웃잖아. 겨민 할망덜이 경 골아. 느네도이 대베기 지당 허벽 지당 대베
기 진다. 우리가 자꾸 듣거든. 들엉 알암주. 경 안히민 모르주.(그 할머니들
물 지는 할머니들 있으면 우린 그때 어린 마음으로 할머니 ‘대베기’ 쳐서 하
면 우린 웃잖아. 그러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해. 너희도 ‘대베기’ 지다가 ‘허
벽’ 지다가 ‘대베기’ 진다. 우리가 자주 듣거든. 들어서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지.)
김보향 계난 정지에 보난 솟 잇고 물항 싯고 살래 싯고예?(그러니까 부엌에 보니까
솔 있고 물독 있고 찬장 있고요?)
이춘인 살래 싯고 그릇 씻는 낭푼이 씻어 낭 엎어둔 거 살래 젤 우이.(찬장 있고 그
릇 씻는 양푼이 씻고 나서 엎어둔 거 찬장 제일 위에.)
김보향 그거 낭푼이? 낭푼이로 그릇 씻어난? 더 옛날에는?(그거 양푼? 양푼으로 그

- 롯 씻었었어? 더 옛날에는?)
- 이춘인 이제사 낭푼이주만은 사기로 된 거. 구운 거. 거 있잖아, 항아리 만드는 그 거.(이제야 양푼이지만 사기로 된 거. 구운 거. 거 있잖아, 항아리 만드는 그거.)
- 김보향 장태.(장태.)
- 이춘인 장태.(장태.)
- 김보향 예.(예.)
- 이춘인 잘 알암신게. 장태 그런 것에 그릇 씻고.(잘 아네. 장태 그런 것에 그릇 씻고.)
- 김보향 그릇 씻고예. 김치 헐 때도 그런 것에 허고.(그릇 씻고요. 김치 할 때도 그런 것에 하고.)
- 강수경 장태 잇구나?(장태 있구나?)
- 이춘인 아니.(아니.)
- 김보향 장태 예?(장태요?)
- 이춘인 사기로 만든, 저 불 구윙 만든 거.(사기로 만든, 저 불 구워서 만든 거.)
- 김보향 예, 불 구윙 만든 거.(예. 불 구워서 만든 거.)
- 이춘인 구억리 그런 거 헤낫주게.(구억리 그런 거 했었지.)
- 김보향 계민 그 그릇은 설거지 헐 때도 쓰고 또 뭐 헐 때 써낫어?(그럼 그 그릇은 설거지 할 때도 쓰고 또 뭐 할 때 썼었어?)
- 이춘인 설거지, 그것이 낭푼이나 마찬가지 아니. 설거지 헐 때나 김치 영 만들엉 먹을 때도 그런 것에 허고개. 절일 때도 경허고개. 큰 거, 족은 거 만딱. 것도 큰 거, 족은 거 만딱 셔야주게. 하나로만 허는 것이 아니고.(설거지, 그것이 양푼이나 마찬가지 아니. 설거지 할 때나 김치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때도 그런 것에 하고. 절일 때도 그렇게. 큰 거, 작은 거 모두. 것도 큰 거, 작은 거 모두 있어야지. 하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 김보향 예, 맞수다. 때에 맞게예. 이젠 밥 먹을 때 보쿠다. 정지에 신 거 다 골아서 예?(예, 맞습니다. 때에 맞게요. 이젠 밥 먹을 때 보겠습니다. 부엌에 있는 거 다 말했지요?)
- 이춘인 후후. 옛날에 나 시집온 때 밥도 부엌에서 먹언.(후후. 옛날에 내가 시집왔을 때 밥도 부엌에서 먹었어.)
- 김보향 음.(음.)
- 이춘인 방에, 마루에 오랑 먹음이랑마랑. 이 집이 방, 마루 딱 시 칸베끼 없잖아. 게 난 부엌도 크고 마루도 크고 방도 허민 이 집도 세 간 허민 세 개로만 허잖아. 경허민 밥을 부엌에서 그냥 거리멍, 솟디서 거리멍 먹지.(방에, 마루에 와서
- 먹기는커녕. 이 집에 방, 마루 딱 세 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부엌도 크고 마루도 크고 방도 하면 이 집도 세 칸 하면 세 개로만 허잖아. 그러면 밥을 부엌에서 그냥 뜨면서, 솥에서 뜨면서 먹지.)
- 강수경 바닥에 앗앙?(바닥에 앉아서?)
- 이춘인 건 그 사름 믿음이고. 방석 질앙 앗앙 허는 사름 싫고, 그 바닥에 가마니나 뭐 질면은 그냥도 앗앙 먹는 사람 싫고.(건 그 사람 마음이고. 방석 깔아서 앉아서 하는 사람 있고, 그 바닥에 가마니나 뭐 깔면 그냥도 앉아서 먹는 사람 있고.)
- 김보향 방석 보게, 방석. 방석은 낭으로 만든 거, 짹으로 만든 거? 어떤 방석 잊어낫 수과, 삼춘네 정지에?(방석 봐요, 방석. 방석은 나무로 만든 거, 짹으로 만든 거? 어떤 방석 있었습니까, 삼춘네 부엌에?)
- 이춘인 그때는이 낭으로도 아니고 저.(그때는 나무로도 아니고 저.)
- 김보향 짹.(짚.)
- 이춘인 짹으로 영 영 만들앙 앗아난 거 닮아.(짚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앉았던 거 같아.)
- 김보향 계난 집 짓을 때 지붕 했던 줄 남은 거?(그러니까 집 짓을 때 지붕 했던 줄 남은 거?)
- 이춘인 아니, 건 집 허는 건 무시것고 나룩 해난 거 뜨로 그런 거 봉가당 해난 거 닮아. 우리 때 그런 건 아니고 나 생각해 보난 그런 건 아니고.(아니, 건 집 하는 건 뭐냐 벼 했던 거 따로 그런 거 주워다가 했던 거 같아. 우리 때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 김보향 그런 건 아니고.(그런 건 아니고.)
- 이춘인 것?라 뭐 새, 산디 이디 나룩이 산디주, 쌀이 산디주게. 계난 산디짚, 산디짚으로 그런 건 만들어난 거 닮아.(것보고 뭐 띠, 빨벼 여기 벼가 빨벼지, 쌀이 빨벼지. 그러니까 빨벗짚, 빨벗짚으로 그런 건 만들었던 거 같아.)
- 김보향 계난 삼춘 옛날 초가지붕에 지붕 이을 때 써난 그 줄 남은 거 그거, 그거 꼬은 거 그걸론 아니?(그러니까 삼춘 옛날 초가지붕에 지붕 이을 때 썼던 그 줄 남은 거 그거, 그거 꼳 거 그걸로 아니?)
- 이춘인 우리도 우리 이 집은 말고 저 집이, 저 집이 살 때 초가집이랑주게.(우리도 우리 이 집은 말고 저 집에, 저 집에 살 때 초가집이었지.)
- 김보향 음.(음.)
- 이춘인 초가집이란디 사라호 태풍 알아?(초가집이었는데 사라호 태풍 알아?)

- 김보향 예.(예.)
- 이춘인 사라호 태풍이 팔월 추석날 불었어.(사라호 태풍이 팔월 추석날 불었어.)
- 강수경 으.(으.)
- 이춘인 팔월 추석날 분디 우리 집이 아방은 군인 강 오난에 군인 강 오면은 제주시에 강 훈 델 저 훈련이 잇어.(팔월 추석날 부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는 군인 갔다 오니까 군인 갔다 오면 제주시에 가서 한 달 저 훈련이 있어.)
- 김보향 아.(아.)
- 이춘인 해병대 가 온 사름덜. 헌디 그 사이에 태풍이 왔어. 경허난 태풍 팔월 추석날 나 주방에서 뭐 만드는디 태풍이 막 세계 와 가난에. 우리 앞집이 사춘 시누이 남편이 나신디 와근에 아주망 아주망 지붕이 올라가면은 자기가 돌 앗아 주거들랑 돌 놀르렌. 지붕 우이 돌 지들리렌. 계난 우리 시아주방이 오난 그 말 그난 허단 거 내벼 둘에 지붕 우터레 나가 담 하나 디던 탁 올라가난 발에 빵 허난 난 나도 모르게 지붕 우터레 탁 엎더져서.(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 그런데 그 사이에 태풍이 왔어. 그러니까 태풍 팔월 추석날 내가 주방에서 뭐 만드는데 태풍이 아주 세계 와 가니까. 우리 앞집에 사춘 시누이 남편이 나에게 와서 아주머니, 아주머니 지붕에 올라가면 자기가 돌 가져 주면 돌 누르라고. 지붕 위에 돌 지지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아주버니가 오니까 그 말하니까 하던 거 내버려 두고 지붕 위로 내가 돌담 하나 딛고 탁 올라가니까 발에 빵 하니까 난 나도 모르게 지붕 위로 탁 엎어졌어.)
- 김보향 음.(음.)
- 이춘인 탁 엎더지난 야, 돌멩이로 때리는 거보다 더 아파.(탁 엎어지니까 야, 돌멩이로 때리는 거보다 더 아파.)
- 김보향 아이고.(아이고.)
- 이춘인 치마 입고 헤놓난 만딱 걷어지고.(치마 입고 하니까 모두 걷어지고.)
- 김보향 치마 입영.(치마 입고.)
- 이춘인 치마 입영 일허당 그냥. 우리 시아주방 겁나난 지네 거 누뜨러 둘에 누뜨러 주례, 아방 엇인 거 닮으난 누뜨러 주肯 오멍 올례로 들어오멍 “아지망 아지망” 허난 “양” 허난 아이고 저거 올라강 저 우터레 올라가렌. 초가지붕 꼬닥 꼬닥 허는 거 보명 왓겠지. 허난 빨리 지붕 우이 올라강 돌 주거덜랑 놓렌. 경허난 난 지붕에 확 올라강 탁 엎어지난 아무것도 나 엎어진 거뿐.(치마 입고 일하다가 그냥. 우리 시아주버니 겁나니까 자기네 거 눌러 두고 눌러 주려, 아버지(남편) 없는 거 같으니까 눌러 주겠다고 오면서 ‘올레’로 들어오면서
-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니까 “예” 하니까 아이고, 저거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라고. 초가지붕 ‘꼬닥꼬닥’ 하는 거 보면서 왔겠지. 하니까 빨리 지붕 위로 올라가서 돌 주거든 놓으라고. 그러니까 난 지붕에 확 올라가서 탁 엎어지니까 아무것도 내가 엎어진 거뿐.)
- 김보향 음.(음.)
- 이춘인 그때 초가가 그냥 멘드락이 벗겨 불언. 경허난 마당으로 하나. 초가가 오랜 집이랑주게.(그때 초가가 그냥 완전히 벗겨 베렸어. 그러니까 마당으로 하나. 초가가 오랜 집이었지.)
- 김보향 아, 날아가 불언.(아, 날아가 베렸어.)
- 이춘인 우리 시어머니 살아난 디. 마당으로 이만이. 나 앞인 맨딱 돌이고. 나 이제 생각해도 진짜 그거 나 잊어불지 안허여. 그 시집오랑 얼마 안 됐을 때. 그 비 맞아난 거 다, 아픈 거 잊어불지 안허여. 비가 혼나게 아프는 거란게.(우리 시어머니 살았던 데. 마당으로 이만큼. 내 앞에는 모두 돌이고. 내가 이제 생각해도 진짜 그거 나 잊어버리지 않아. 그 시집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비 맞았던 거 다, 아픈 거 잊어버리지 않아. 비가 혼나게 아픈 거였어.)
- 김보향 아.(아.)
- 이춘인 경헨에 집 만딱 걷어 부난 겐 우리 집이 아방 훈련 받양 오난 그 지붕 멘들안에 살단 이디 완.(그래서 집 모두 걷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아버지 훈련 받아서 오니까 그 지붕 만들어서 살다가 여기 왔어.)
- 김보향 음. 고생햇수다.(음. 고생했습니다.)
- 이춘인 사라호 태풍 얼마나 무서워나시카 부덴. 또시 이 집이 온 후에도 막 큰 태풍 불어낫어. 나 이거 문 시 번 올린 집이라.(사라호 태풍 얼마나 무서웠었을까 봐. 또 이 집에 온 후에도 아주 큰 태풍이 불었었어. 내가 이거 문 세 번 올린 집이야.)
- 김보향 아, 날아가 불고, 날아가 불고.(아, 날아가 베리고, 날아가 베리고.)
- 이춘인 아니, 날아간 것이 아니고 이 질 올리는 바람에.(아니, 날아간 것이 아니고 이 질 올리는 바람에.)
- 김보향 예. 계난 아까 정지에 방석 잊어난예?(예. 그러니까 아까 부엌에 방석 있었지요?)
- 이춘인 으, 방석허고 상 허영근에 밥허영 먹곡게.(으, 방석하고 상 해서 밥해서 먹고.)
- 김보향 상은 어떤 상이라난?(상은 어떤 상이었었어?)
- 이춘인 상은 저 케 짜는 식으로 우리 시아부지가 목수난에 짠에 헤난 것이 싯주게.(상은 저 케 짜는 식으로 우리 시아버지가 목수니까 짜서 했던 것이 있지.)
- 김보향 시아부지 목수랏수과?(시아버지 목수였습니까?)

- 이춘인 우리 시아부지 목수라낫덴.(우리 시아버지 목수였었다고.)
 김보향 아.(아.)
 강수경 게난 켜 짓구나.(그러니까 켜 짓구나.)
 이춘인 나 와 보난 돌아가성 엇어.(내가 와서 보니까 돌아가셔서 없어.)
 김보향 경 나무로 찬 상 잊고예?(그렇게 나무로 짜서 상 있고요?)
 이춘인 으.(으.)
 김보향 정지에 불 숨젠 허난 지들커도 막 이실 거 아니? 밥해 먹젠 허난.(부엌에 불 때려고 하니까 땔감도 많이 있을 거 아니? 밥해 먹으려고 하니까.)
 이춘인 아이고, 이젠 다 고급이난 허주. 옛날엔 보리낭, 보릿대, 보리해 나민 다 놀엉 놔둬야지, 거.(아이고, 이젠 다 고급이니까 하지. 옛날에는 보릿짚, 보릿짚, 보리하고 나면 다 가렸다가 놔둬야지, 거.)
 김보향 으.(으.)
 이춘인 그걸로 지팡이로개, 몽땡이로 영 영 허명 불 숨앗주게.(그걸로 지팡이로. 몽 동이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불 땄지.)
 김보향 지팡이렌 헛수과? 그거?(지팡이라고 했습니까? 그거?)
 이춘인 부지땡이.(부지깽이.)
 김보향 예, 부지땡이예.(예, 부지깽이.)
 (모두 하하하.)
 김보향 게민 부지땡이 그거 불 숨아 나민 재들 이실 거 아니?(그럼 부지깽이 그거 불 때고 나면 재들 있을 거 아니?)
 이춘인 재는 뒤에. 그 앞으로 영 담을 다와근에 그디 재, 불치 들어갈 거 다 만들앙 미릇에 만들앙 담을 다지, 앞으로.(재는 뒤에. 그 앞으로 이렇게 담을 쌓아서 거기 재, 재 들어갈 거 다 만들어서 미리 만들어서 담을 쌓지. 앞으로.)
 김보향 음.(음.)
 이춘인 게민 이것이 돌로 세 개 영 놓난에 올로 영 이레 터진 디 아니.(그럼 이것이 돌로 세 개 이렇게 놓으니까 이리로 이렇게 터진 데 아니.)
 김보향 예, 예. 터진 디.(예, 예. 터진 데.)
 이춘인 일로 다 그 재를 밀거든.(이리로 다 그 재를 밀거든.)
 김보향 밀려.(밀어.)
 이춘인 밀렷당 그 잣 또 밧디.(밀었다가 그 잣 또 밭에.)
 김보향 뭐 헐 때 쓸 거라?(뭐 할 때 쓸 거야?)
 이춘인 거름. 밧디 거름.(거름. 밭에 거름.)
- 김보향 무슨 농사지을 때 거름으로 쓸 거라?(무슨 농사지을 때 거름으로 쓸 거야?)
 이춘인 아무거라도 그냥 밧디 땅에 뿌리는 거지. 재는 거름이니까.(아무거라도 그냥 밭에 땅에 뿌리는 거지. 재는 거름이니까.)
 김보향 예. 게민 밥 먹을 때 밥상 위에는 뭐가 잇수과?(예. 그럼 밥 먹을 때 밥상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춘인 몰라. 그 옛날엔 어떻헌지 몰라도 나 시집온 후에는 게도 자리도 사당 먹을 수가 있고 지도 행 먹을 수가 있고.(몰라. 그 옛날에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내가 시집온 후에는 그래도 자리도 사다가 먹을 수가 있고 장아찌도 해서 먹을 수가 있고.)
 김보향 으.(으.)
 이춘인 경 행 먹을 수 이시난에. 딴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게도 우리 시어머니네 막 경 못 살 집은 아니라낫주.(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네 아주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지.)
 김보향 음.(음.)
 이춘인 게난 반찬도 서너 가진 행 먹주게. 간장 놓고 된장 놓고 무시거 찍어 먹을 거 놓고 경 혜근에.(그러니까 반찬도 서너 가지는 해서 먹지. 간장 놓고 된장 놓고 무엇 찍어 먹을 거 놓고 그렇게 해서.)
 김보향 게민 밥그릇 국그릇 따로 있어낫어, 옛날에?(그럼 밥그릇 국그릇 따로 있었어, 옛날에?)
 이춘인 그지. 밥그릇 국그릇. 저 종지, 간장 놀 거. 보시.(그렇죠. 밥그릇 국그릇. 저 종지, 간장 넣을 거. 보시기.)
 김보향 보시.(보시기.)
 이춘인 보신 일본말이라. 보신 원칙은 보신 일본말인디 이디도 보시 보시 허잖아. 하하. 사라도 일본말이고.('보시'는 일본말이야. '보시'는 원칙은 '보시'는 일본말인데 여기도 '보시', '보시' 하잖아. 하하. '사라'도 일본말이고.)
 김보향 게민 낭푼에 안 먹엉 밥그릇 따로 먹엇수과, 삼춘네?(그럼 양푼에 안 먹고 밥그릇 따로 먹었습니까, 삼춘네?)
 이춘인 아니, 우리 고 시집온 때 하나엔 거령 먹고 우리 시어머닌 항상 마루에 특로 밥상 출령 드리고.(아니, 우리 갓 시집왔을 때 하나에는 떠서 먹고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마루에 따로 밥상 차려서 드리고.)
 김보향 아.(아.)
 이춘인 시집오난 우리 시어머니 나 드령 사난에. 할망하고 우리 아덜은 마리에 특로

- 밥 주주게.(시집오니까 우리 시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사니까. 할머니하고 우리 아들은 마루에 따로 밥 주지.)
- 김보향 으.(으.)
- 이춘인 우리 너이는 이거 저디 부엌이라낫주게. 저디서 먹고 우리 시어머니영 우리 아덜은 마루에서 경헨 먹으난.(우리 넷은 이거 저기 부엌이었지. 저기서 먹고 우리 시어머니랑 우리 아들은 마루에서 그래서 먹으니까.)
- 김보향 계난 낭푼에 고치 밥 먹고?(그러니까 양푼에 같이 밥 먹고?)
- 이춘인 으.(으.)
- 김보향 국그릇이 잇고?(국그릇이 있고?)
- 이춘인 국그릇 반찬 그릇 특로 허고.(국그릇 반찬 그릇 따로 하고.)
- 김보향 계민 밥 거리젠 허민 월로 거릴 거라?(그럼 밥 뜨려고 하면 뭐로 뜰 거야?)
- 이춘인 나 고사 안 골아냐, 우금.(내가 아까 안 말했니, 밥주걱.)
- 김보향 네.(네.)
- 이춘인 우금. 우금. 헌디 나가 와 보난 우리 시어머니 허난 우금 잇어, 저디. 요만헌 거주게. 나 친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또 친정에서 물려와신디 어떻헤신디 몰라. 겐디 우금이 이만이 커.(밥주걱. 밥주걱. 그런데 내가 와서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했던 밥주걱 있어, 저기. 요만한 거지. 내가 친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또 친정에서 물려왔는지 어떠했는지 몰라. 그런데 밥주걱이 이만큼 커.)
- 김보향 음.(음.)
- 이춘인 건 옛날, 옛날 거. 첨 오랜 거라.(건 옛날, 옛날 거. 참 오랜 거야.)
- 김보향 음.(음.)
- 이춘인 경허난 그 우금으로 허는디 무시것고 진품명품을 나가 막 좋아해낫어. 겐디 시간이 엇엉 못 봐게.(그러니까 그 밥주걱으로 하는데 뭐냐, 진품명품을 내가 아주 좋아했었어.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봐.)
- (모두 하하하.)
- 이춘인 난 저거하고 이만이 큰 우금을 그런 디 한 번 베우고 싶어. 너무 크니까 그런 우금 본 디가 엊주게, 나가. 이디 시집을 때나 친정에 가도. 우리 어무니가 그 거 친정에서 물려 왔는지 우리 어무니가 삿는지 몰라도 우금이 특별한 우금이라. 이런 우금은 세상 본 데 엇이냔. 그거 나 아정 온 거난 우리 큰뜰 주고 우리 시어머니신디 물린 거 요만이한 건 있어, 저디.(난 저거하고 이만큼 큰 밥주걱을 그런 데 한 번 보이고 싶어. 너무 크니까 그런 밥주걱 본 적이 없었거든, 내가. 여기 시집을 때나 친정에 가도. 우리 어머니가 그거 친정에서 물려받아 왔는지 우리 어머니가 삿는지 몰라도 밥주걱이 특별한 밥주걱이야. 이런 밥주걱은 세상 본 데 없으니까. 그거 내가 가지고 온 거니까 우리 큰뜰 주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 요만한 거 있어, 저기.)
- 이춘인 그거 찍으쿠다.(그거 찍겠습니다.)
- 김보향 이거 놋 우금은 이신디 놋 숟가락은 엊수과? 이것만 보관hen?(이거 놋 밥주걱은 있는데 놋 숟가락은 없습니까? 이것만 보관했어?)
- 이춘인 어, 놋 숟가락은 엊어.(어, 놋 숟가락은 없어.)
- 김보향 놋사발도 엊고예?(놋사발도 없고요?)
- 이춘인 예고, 놋사발도 서나신디 어디사 가신디 엊어.(예고, 놋사발도 있었는데 어디야 갔는지 없어.)
- 김보향 저 우금은 밥 거릴 때 썼고 국 거리는 건 뭐렌 불렀수과?(저 밥주걱은 밥 뜰 때 썼고 국 뜨는 건 뭐라고 불렀습니까?)
- 이춘인 건 국자.(건 국자.)
- 김보향 계민 죽 짓을 때는?(그럼 죽 저을 때는?)
- 이춘인 몰라, 죽 쬐도 아메도 나 생각으론 이거 아니민 국자베끼 엇잖아?(몰라, 죽 쬐도 아무래도 내 생각으로는 이거 아니면 국자밖에 없잖아?)
- 김보향 예, 예.(예, 예.)
- 강수경 나무로 만든 거 잇수궤, 나무로 만든 거?(나무로 만든 거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거?)
- 김보향 베슬기?(죽젓개?)
- 이춘인 베슬기, 맞아. 베슬기로 밥 젓고 밥해 나민.(죽젓개, 맞아. 죽젓개로 밥 젓고 밥하고 나면.)
- 강수경 베슬기렌 험니까?(죽젓개라고 합니까?)
- 이춘인 베슬기. 요만헌 ݁늘게 행 진 것으로 젓어낫어.(죽젓개. 요만한 가늘게 해서 긴 것으로 젓았었어.)
- 김보향 계난 어디 강 물어보난 베슬기는 메느리 안 물리는 거여. 그런 말도 협디다만은.(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죽젓개는 며느리 안 물리는 거야. 그런 말도 합디다만.)
- 이춘인 몰라, 우린 그런 건 몰라. 시어머니영 ݁치 살아 부난.(몰라, 우린 그런 건 몰라.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 김보향 예.(예.)
- 이춘인 계난 이건 우리 시어명 준 거난 메느리 주젠 나 놔둔 거고.(그러니까 이건 우

- 리 시어머니 준 거니까 며느리 주려고 내가 놔둔 거고.)
- 김보향 맞수다.(맞습니다.)
- 이춘인 나 친정에서 물려 온 건 우리 땔 줘주. 이것보다 막 커. 이거 이추룩 헌 것사 동네 사는 집이 다 잇주게.(내가 친정에서 물려받아서 온 건 우리 딸 줬지. 이것보다 아주 커. 이거 이처럼 한 거야 동네 사는 집에 다 있지.)
- 강수경 이건 게민 매번 밥헐 때 쓰민 이건 어떻 다까낫수과?(이건 그럼 매번 밥할 때 쓰면 이건 어떻게 닦았었습니까?)
- 이춘인 다끌 때?(닦을 때?)
- 강수경 으.(으.)
- 이춘인 재로.(재로.)
- 강수경 재로?(재로?)
- 이춘인 재로 밀민 다까져.(재로 밀면 닦여.)
- 김보향 불치예?(재요?)
- 이춘인 그렇지.(그렇지.)
- 김보향 예. 밥해난 거 물어봤고예. 삼춘 떡도 혜 봉지예?(예. 밥했던 거 물어봤고요. 삼춘 떡도 해 봉지요?)
- 이춘인 떡사계 식계 때.(떡이야 제사 때.)
- 김보향 식계 때. 어떤 떡 혜낫수과?(제사 때. 어떤 떡 했었습니까?)
- 이춘인 우리 옛날은 식계 때 혈 때이.(우리 옛날은 제사 때 할 때.)
- 김보향 으.(으.)
- 이춘인 그냥 솔벤, 절벤.(그냥 ‘솔벤’, 절편.)
- 김보향 솔벤, 절벤.(‘솔벤’, 절편.)
- 이춘인 그런 거베끼 안 햇주.(그런 거밖에 안 했지.)
- 김보향 기민 솔벤 절벤 멘들젠허민 뭐 뭐 잊어사 혈 거?(그럼 ‘솔벤’ 절편 만들려고 하면 뭐 뭐 있어야 할 거?)
- 이춘인 그 쌀, 쌀하고 무시것고계?(그 쌀, 쌀하고 뭐지?)
- 김보향 음.(음.)
- 이춘인 절벤은 멘들 때는 영 흐끔 밀어근에 이제 그트민 저 다다미 허는 거이. 그런 것에 쓰주게. 그런 것에 밀어근에 절벤은 또는, 저 솔벤은 또는 거고.(절편은 만들 때는 이렇게 조금 밀어서 이제 같으면 저 다듬이 하는 거. 그런 것에 쓰지. 그런 것에 밀어서 절편은 또는, 저 ‘솔벤’은 또는 거고.)
- 김보향 으.(으.)
- 이춘인 절벤은 손으로 멘드는 거난 멘들어 냉 영 눌르는 거고. 경하는 거주.(절편은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만들어 놔서 이렇게 누르는 거고. 그러는 거지.)
- 김보향 게민 그 눌르는 걸 만들어 냉 눌르는 걸 뭐렌 골앗수과?(그럼 그 누르는 걸 만들어 놔서 누르는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 이춘인 몰라 잊어불언. 뭣사 굽아신지.(몰라 잊어버렸어. 뭐라고 말했는지.)
- 김보향 본, 절벤 본.(떡살, 절편 떡살.)
- 이춘인 맞다. 절벤 본이 맞아. 절벤 뜨는 거난 절벤 본이 맞아.(맞다. 절편 떡살이 맞아. 절편 뜨는 거니까 절편 떡살이 맞아.)
- 김보향 게민 절벤 만들 때 굽아 보게예. 쌀 물 담갓당 어떻 헐 거?(그럼 절편 만들 때 말해 보지요. 쌀 물 담갔다가 어떻게 할 거?)
- 이춘인 그렇지 물 담갓다근에게 그때는 우리가 뺏아실 거라. 집이서.(그렇지 물 담갔다가 그때는 우리가 빼았을 거야. 집에서.)
- 김보향 음. 뭐에 뺏아?(음. 뭐에 빼아?)
- 이춘인 저 무시것고계. 방아, 요만한 방아 집집마다 있어. 거 돌로 멘든 거.(저 뭐지. 방아, 요만한 방아 집집마다 있어. 거 돌로 만든 거.)
- 김보향 으.(으.)
- 이춘인 계난 것에 뺏양 허고 허당 공장에 강도 굽아 오고.(그러니까 것에 빼아서 하고 하다가 공장에 가서도 갈아 오고.)
- 김보향 예.(예.)
- 이춘인 계난 세상 막 살기 좋았주계.(그러니까 세상 아주 살기 좋았지.)
- 김보향 계난예. 방에에 뺏아난 걸로 굳젠 허민 전날, 떡 허젠허민 전날 물에 칫당.(그러니까요. 방에에 빼았던 걸로 말하려고 하면 전날, 떡 하려고 하면 전날 물에 담갔다가.)
- 이춘인 그렇지.(그렇지.)
- 김보향 건경.(건져서.)
- 이춘인 건경 뺏양.(건져서 빼아서.)
- 김보향 방에에예?(방아에요?)
- 이춘인 뺏양 그 그루로 만든 거라.(빼아서 그 가루로 만든 거야.)
- 김보향 그루로 헹 그루를 뜨거운 물 놓 혈 것과, 아니민 석석한 물 놓 혈 것과?(가루로 해서 가루를 뜨거운 물 놔서 할 겁니까, 아니면 차가운 물 넣어서 할 겁니까?)
- 이춘인 아니주계.(아니지.)
- 김보향 굽아 봅서.(말해 보세요.)

이춘인 손 냥 당그면은 허꼼 뜨겁다 허는 물로 혜사주. 찬물도 안 뛰고 너미 뜨거운 물도 안 뛰고.(손 넣어서 담그면 조금 뜨겁다 하는 물로 해야지. 찬물도 안 되고 너미 뜨거운 물도 안 되고.)

김보향 으.(으.)

이춘인 손 영 허민 쪼금 뜨겁다 허는 물에 카민 뛰는 거주게.(손 이렇게 하면 조금 뜨겁다 하는 물에 담그면 되는 거지.)

김보향 음.(음.)

이춘인 몰라. 난 나 식이 그거난. 늄덜 어떻 험신디.(몰라. 난 내 식이 그거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김보향 경 반죽행, 반죽행 영 영 만들엉.(그렇게 반죽해서, 반죽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춘인 반죽 혜놔근에게, 그거 미는 거 밀어근에 떠 놔근에 솔썹.(반죽 해 두고서, 그거 미는 거 밀어서 떠 놔서 솔잎.)

김보향 솔썹.(솔잎.)

이춘인 솔입, 솔입 깔아근에 바닥에 깔아근에. 거 식게혜젠허민거 혜 와사주게. 솔썹 깔아근에 하나 하나 놔근에 또 겹치젠허민 솔입 놔근에 허고.(솔잎, 솔잎 깔아서 바닥에 깔아서. 거 제사하려고 하면 거 해 와야지. 솔잎 깔아서 하나 하나 놔서 또 겹치려고 하면 솔잎 놔서 하고.)

김보향 솔썹을 어디 까는 거?(솔잎을 어디 까는 거?)

이춘인 솟디개, 솟.(술에, 술.)

김보향 솟 바닥에 까는 거 아니잖아예? 거 뭐 냥?(술 바닥에 까는 거 아니잖아요? 거 뭐 놔서?)

이춘인 아까 질 앞이 큰솟.(아까 제일 앞에 큰솥.)

김보향 으, 큰솟.(으, 큰솥.)

이춘인 큰솟 허민 그 밑에 낭으로 영 놔야 뤄잖아?(큰솥 하면 그 밑에 나무로 이렇게 놔야 되잖아?)

김보향 낭으로 놓는 거를?(나무로 놓은 거를?)

이춘인 그냥 그건 아무거나 낭 그때 그때 허여근에 낭 떨어지지 안허게 물만 안 닿게.(그냥 그건 아무거나 나무 그때 그때 해서 나무 떨어지지 않게 물만 안 닿게.)

김보향 예.(예.)

이춘인 낭 놔 나근에 그 우에 포따리 질아근에 그 우에 솔썹 놔근에 떡을 영 놓고 또 솔썹 질아근에 또 놓고 충계 충계 허주게.(나무 놓고 나서 그 위에 보따리 깔아

서 그 위에 솔잎 놔서 떡을 이렇게 놓고 또 솔잎 깔아서 또 놓고 충 충 하지.)

김보향 삼춘네는 떡 칠 때 놓는 그런 걸 안 만들엉 썬?(삼춘네는 떡 찔 때 놓는 그런 걸 안 만들어서 썬어?)

이춘인 으, 그냥. 그냥 낭예.(으, 그냥. 그냥 나무예.)

김보향 낭으로.(나무로.)

이춘인 그때 그때 낭 맞추명 꺼꺼근에 안 빠지게만 만들앙 게근에 그 우에 저 천 질 아근에 솔입 허꼼 두껍게 놔근에 놓곡 놓곡 경허명 치주.(그때 그때 나무 맞 추면서 꺼어서 안 빠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위에 저 천 깔아서 솔잎 조금 두껍게 놔서 놓고 놓고 그러면서 치지.)

김보향 으.(으.)

이춘인 절벤은 그냥 떡을, 그 쌀을 익엉 허는 거난에 그냥 만들고.(절편은 그냥 떡을, 그 쌀이 익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만들고.)

김보향 경허고 친떡도 혜실 거 아니?(그리고 백설기도 했을 거 아니?)

이춘인 거 시리떡.(거 시루떡.)

김보향 시리떡.(시루떡.)

이춘인 시리떡 혜주게. 시리떡은 7루 한 칭 두 칭 노명 치민 거 시리떡 아니.(시루떡 하지. 시루떡은 가루 한 칭 두 칭 놓으면서 찌면 거 시루떡 아니.)

김보향 게민 그 시리가 잊어낫수과, 집이?(그럼 그 시루가 있었습니까, 집에?)

이춘인 게. 그땐 큰 시리, 이젠 그런 시리 엇일 거여. 큰 시리 이만이현 거. 영 허민 그디 충계 충계 놔근에게.(그래. 그땐 큰 시루, 이젠 그런 시루 없을 거야. 큰 시루 이만한 거. 이렇게 하면 거기 충 충 놔서.)

김보향 예. 경 시리에 냥 째난 거고예. 떡 쳐지민 이제 떡 썰엉 상에 올리젠허민 그릇 뭐 잊어살 거? 제사상에 올리젠허민?(예. 그렇게 시루에 놔서 쳤던 거고요. 떡 쳐지면 이제 떡 썰어서 상에 올리려고 하면 그릇 뭐 있어야 할 거? 제사상에 올리려고 하면?)

이춘인 그땐 낭, 낭으로 멘든 것덜이주게.(그땐 나무, 나무로 만든 것들이지.)

김보향 으.(으.)

이춘인 낭으로 거 정방 7치 만들앙 허꼼 발 부치고 혜근에. 이런 이런 밑에 허꼼씩 놔근에.(나무로 거 쟁반 같이 만들어서 조금 발 붙이고 해서. 이런 이런 밑에 조금씩 놔서.)

김보향 발 돋은 거예?(발 돋은 거요?)

이춘인 우리 시아방 시난 그런 거 만든 거 셔난 거 많아. 나가 생각으로. 경허단계 다

- 던져뒀게 접시 새 걸로 새 식으로 살았주.(우리 시아버지 있으니까 그런 거 만든 거 있었던 거 같아. 내가 생각으로. 그러다가 다 던져두고 접시 새 걸로 새 식으로 살았지.)
- 김보향 그지예. 낭으로 맨든 접시에 시리떡 놓고.(그렇지요. 나무로 만든 접시에 시루떡 놓고.)
- 이춘인 다 다 그것에 내놓주게. 다른 것에 놓을 것이 없잖아. 이런 그릇이 시카 사라가 시카게. 사라도 다 이제 나온 거주게. 그때 우리 시집갈 때 어디 엊어낫저.(다 다 그것에 내놓지. 다른 것에 놓을 것이 없잖아. 이런 그릇이 있을까 접시가 있을까. 접시도 다 이제 나온 거지. 그때 우리 시집갈 때 어디 없었어.)
- 김보향 맞수다.(맞습니다.)
- 이춘인 우린, 난 게도 집이셔도 일본서 그 쪼끔만썩 그릇은 몇 개 가정 왕 우린 게도 그런 거 셋주만은 영 우리 동네도 우리 모슬포도 경 곶청 사는 디 엊엇주게.(우린, 난 그래도 집에서도 일본에서 그 조그마한 그릇은 몇 개 가져 와서 우린 그래도 그런 거 셋지만 이렇게 우리 동네도 우리 모슬포도 그렇게 갖춰 서 사는 데 없었지.)
- 김보향 으.(으.)
- 이춘인 그 옛날에 나나 너나 다 어렵게 살아놓난. 우리 일본서 그때 검은 고무신 잇잖아?(그 옛날에 나나 너나 다 어렵게 사니까. 우리 일본에서 그때 검은 고무신 잇잖아?)
- 김보향 예.(예.)
- 이춘인 테레비 가끔 나오는 거. 그 신을 친척한테 선물허젠 고리짝으로 하나 가정 왓어.(텔레비전 가끔 나오는 거. 그 신을 친척한테 선물하려고 고리짝으로 하나 가져 왔어.)
- 김보향 하하.(하하.)
- 이춘인 계난 그거뿐. 우리 모슬포, 제주도 완 보난 신 있는 사름딜이 다 초신만 신엇잖아.(그러니까 그거뿐. 우리 모슬포, 제주도 와서 보니까 신 있는 사람들이 다 짚신만 신었잖아.)
- 김보향 예.(예.)
- 이춘인 우리 그거 가정 완 다 선물로 젖잖아. 우리 어무니 거 산 오란.(우리 그거 가져 와서 다 선물로 줬잖아. 우리 어머니가 거 사서 왔어.)
- 김보향 산 오란.(사서 왔어.)
- 이춘인 친척덜. 계난 고무신이 그거 체음이라. 경혜낫어. 나 잊어볼지 안허여. 우리

- 궤당덜 주난 좋안게. 겐 첨 비 올 때 막 비 올 때 남신 그런 거 신언. 나 우리 친구 시집갈 때 막 비 오난 가이가 그때 고무신 난 때고. 시집갈 때 나 그거 잊어볼지 안허여. 그 남신 이만이헌 거에 신언.(친척들. 그러니까 고무신이 그거 처음이야. 그랬었어. 나 잊어버리지 않아. 우리 친척들 주니까 좋았어. 그래서 참 비 올 때 마구 비 올 때 남신 그런 거 신었어. 내가 우리 친구 시집갈 때 마구 비가 오니까 그 애가 그때 고무신 나왔을 때고. 시집갈 때 나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 그 나막신 이만한 거에 신었어.)
- 김보향 으.(으.)
- 이춘인 그 남신 이만이헌 거에 그 우에 고무신 신엉 시집가난 거 나 잊어볼지 안허여.(그 나막신 이만한 거에 그 위에 고무신 신고 시집갔던 거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
- (모두 하하하.)
- 이춘인 심심할 때 옛날 생각허면은 잊어볼지 안허여.(심심할 때 옛날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않아.)
- 김보향 예, 고맙수다.(예, 고맙습니다.)

제주인의 삶과 도구 축서 대정읍 편

발 행 인 노정래(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발 행 일 2019. 12. 27.

편 집 부용식(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연구과장)

기획 및 담당 정미정, 황이새

외부조사원 김보향, 권미소, 강수경

학예 지원 김완병, 백지현, 김현경, 고창식

학예 인턴 김태희, 류락우, 부은주, 이수미

행정 지원 오창석, 홍성혁, 우치관, 김형진, 김의제, 홍덕주, 이홍림, 변희자,
고금란, 장성미, 김현희, 오영숙, 김정협, 임미영, 류상순, 김양숙,
좌덕희, 강승완, 김경환, 양진기

디자인인쇄 바른프린팅연구소 TEL. 070-4228-7603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TEL. (064)710-7698 / FAX. (064)710-7709
<http://museum.jeju.go.kr>

ISBN 979-11-87075-07-3 93380

[非賣品]

표지사진

1. 영락리 이대선 씨 소장 '차통'
2. 상모1리 허세안 씨 소장 '신틀'
3. 신평리 김성군 씨 소장 '풀방에'
4. 가파리 강순화 씨 소장 '풀 른바구리'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VII

| 대정읍 편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비매출

ISBN 979-11-87075-07-3